

호남한국학자료총서 2

# 서암일기<sub>棲巖日記</sub> 1



호남한국학자료총서 2

# 서암일기 1

棲 巖 日 記

김영찬 저



## 일러두기

---

- 서암일기는 김영찬이 1912년 1월 1일부터 1930년 6월 15일까지 손수 기록한 일기이다.
- 이 책의 서명은 저자의 호를 써서 ‘서암일기’라고 명명한다.
- 번역문을 먼저 싣고 달초문을 아래쪽에 실었는데, 하루 단위로 번역을 하였다.
- 원본의 이미지는 한국학호남진흥원 홈페이지에 탑재할 예정이다.
- 이 책은 두 권으로 구성하였다.

## ■ 발간사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권 한국학 진흥과 민족문화 균형 발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 출연한 학술기관입니다. 개원 1년의 성과를 상재합니다.

본원은 그동안 고문서 수집 집성, 근대 문집의 표점 영인, 고문서·일기·선현 문집 국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의 과제는 두 범주로 요약됩니다.

하나, 호남한국학 기초자료 발굴  
둘, 호남 사상·생활문헌 국역

5

이상의 연구사업은 서세동점 이후 구학(舊學)·구습(舊習)으로 폄하되었던 전통적 학술사조와 생활세계를 탈근대 차원에서 재구성한다는 목표 아래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지난 위망과 극단의 세월에 덧씌워진 ‘소국 트라우마’ ‘문명 콤플렉스’와 같은 문화심리의 질곡을 걷어내고자 합니다. 또한 호혜 공존의 생활지혜 나아가 법고창신(法古創新) 연구혁신(沿舊革新)의 사유 역정이야말로 당당한 새로운 미래 설계의 자양임을 웅변하고 싶습니다.

2019년 1월

한국학호남진흥원 원장 이종범



## 김영찬의 서암일기

### • 일기의 구성과 내용

서암일기는 김영찬이 53세 때인 1912년 1월 1일부터 72세 때인 1930년 6월 15일까지 기록한 것이다. 중간에 몇 년 빈 곳도 있는데, 일기가 도중에 유실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후반기에 가서는 일기 기록이 많이 빠지는 것으로 보아 더 이상의 일기 기록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1912년은 첫 기록이니만큼 생활세계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날짜도 빠짐없이 기록하였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많이 적고 있어서 저자의 일상생활을 알려면 1912년의 기록을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 1913년과 1914년의 일기도 날짜는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지만 날짜만 적은 날이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1915년은 3월 25일부터 시작한다. 1916년과 1917년은 그래도 착실하게 일기를 적기 위해 노력한 것이 보인다.

그러나 1918년부터는 일기 쓰기 형태가 달라진다. 거의 날짜와 날짜만 적다가 3월 1일에 멈추고, 이후부터는 작품이 있을 때나 공부한 내용을 적을 때만 일기가 사용된 것이다. 즉 4월 8일, 4월 20일, 5월 5일, 7월 2일, 9월 30일, 10월 1일, 12월(날짜 없음)의 기록만 있다.

1919년도 역시 2월 29일, 2월 30일, 3월 2일, 4월 8일, 5월 20일, 다시 5월 1일과 2일, 7월 13일, 7월 26일, 9월 17일, 9월 그믐, 10월 11일, 11월 2일, 11월 7일, 12월 4일, 12월 17일의 기록만 있다. 1920년에는 2월 3일, 4월 11일, 10월 21일의 기록만 있고, 1921년은 4월 7일과 8월 16일의 기록만 있다. 1922년은 2월 일, 3월 14일, 3월 19일, 4월 1일, 5월 11일, 5월 20일, 5월 21일과 22일, 윤5월 27일, 8월 18일, 8월 9일의 기록까지 있고, 이후는 공백이다. 이때의 일기는 일기장이라기보다는 문집 대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1927년 11월 30일부터 다시 일기 쓰기 방식을 되찾아서 그 후 일기가 끝나는 1930년 6월 15일까지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후반에 가서는 거의 날짜와 날씨만 기록한 날이 많다. 특이한 점은 일기 쓰는 도중인 1928년 9월 28일에는 삼강행실도를 대략 기록했는데, 굉장히 많은 양이라서 하루 이틀에 다 베끼지 못했을 것인데도 삼강행실도의 기록이 끝나고 일기가 다시 9월 29일로 이어지고 있는 점이다.

일기 속에는 자신의 작품과 다른 사람이 써준 작품, 그리고 선인의 문집에서 베낀 글 등이 많이 들어있다. 베낀 글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삼강행실도의 기록이 있고, 다음으로 하서선생집(河西先生集)의 하서연보, 율곡선생전서(栗谷先生全書)의 율곡선생세계도, 퇴계선생언행록과 퇴계고봉왕복서, 최상중의 대책문, 성학십도 등이 많은 양을 차지한다.

이밖에도 고두강(高斗綱)의 회과당유고(悔過堂遺稿), 강응환(姜膺煥)의 물기재집(勿欺齋集), 김시관(金時觀)의 절곡집(節谷集), 도산금문제현록(陶山及門諸賢錄), 유희춘(柳希春)의 미암선생유고(眉巖先生遺稿), 양팽손(梁彭孫)의 학포선생문집(學圃先生文集), 박정휴(朴鼎休)의 둔고집(菴臯集), 김시습(金時習)의 매월당집(梅月堂集), 정여해(鄭



汝譜)의 둔재선생문집(遯齋先生文集) 등에서 일부를 뽑은 기록이 더 있다.

일기의 내용은 저자의 일상생활을 알 수 있는 내용과 사상세계와 문학세계를 알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사회상을 알 수 있는 내용, 민속을 알 수 있는 내용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서암일기에는 특히 사상과 문학세계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많은 편이다. 이 일기만을 가지고 문집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이다.

#### • 저자의 생애 및 일상생활

김영찬(金永燦, 1859~1945)의 자는 명숙(明淑), 호는 서암(棲岩),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아버지 김진현(金珍鉉)과 어머니 여양인 진달성(陳達成)의 딸 사이에서 태어나 김낙현(金洛鉉)의 양자로 입계하였다. 태어난 곳은 담양의 문암리(현재 전남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 문암마을)이고, 살았던 집은 대신리(현재 전남 담양군 대덕면 장산리 대신마을)이었던 것 같으며, 종가는 장동(현재 전남 담양군 대덕면 장산리 장동마을)에 있었다. 김영찬은 단양인 허징(許澄)의 딸과 결혼하여 아들 인수(寅洙)와 딸 이대수(李大洙)·나기주(羅基柱)를 두었다.

저자가 일기를 쓴 시기는 일제시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의 활동 영역은 대단히 협소했고, 생활도 매우 단조로웠던 것 같다.

저자의 한 해는 대개 새해를 맞이하여 세배객을 접대하면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연초에는 해마다 일 년의 신수를 점치는데 이때는 주역 계사전을 이용하였다. 한편 부모님을 비롯한 조상의 묘소에 성묘를 다녔다. 양부모의 묘소는 담양군 무면 오현리 샫갯봉에 있었고, 생모의 묘소는 옥과 화면 가지봉 아래에 있었으며, 생부의 묘소는 금성면

덕진동 안산에 있었다.

우리의 전통시대에는 상가에 조문을 가는 일이 공통사였다. 저자 역시 조문이나 위문을 다녀왔다는 기록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이밖에도 이 지역의 대학자인 미암선생의 제사(5월 15일)나 하서선생의 제사(1월 15일)도 참석하고 있다. 또한 녹실이나 송사 같은 지역의 어른이 돌아가실 때에는 제문을 쓰기도 하였다. 사산부자묘나 무후사 등의 석채례에 참석하기도 하고, 봉산정사 강학에 참여하기도 하며 용진정사에도 들르고, 1930년 4월 16일에는 고산사에 가서 봉심을 하기도 한다. 이때 다른 사람 집을 방문하여 점심을 먹거나 잠을 자고 오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저자에게는 부모가 두 분씩이나 계셨기 때문에 제사를 1년에 4차례씩 참석해야 했고, 할아버지 제사에도 참석하였다. 양부는 9월 17일, 양모는 12월 10일, 생부는 8월 3일, 생모는 12월 14일, 할아버지는 1월 17일이 제삿날이다.

1928년 3월 1일에는 56년 동안 함께 지내던 아내가 죽었는데, 3월 2일에 소렴, 3일에 대렴을 하고 바로 후원에 장사를 지냈고, 1929년 1월 12일에 소상을 지냈으며, 3월 1일은 기일이라 제사를 지냈다. 1930년 2월 30일은 정제(正祭)일이라고 했다.

민속을 알 수 있는 내용도 조금 보이는데, 1912년 1월 30일에는 마을 토신제를 지내야 하기 때문에 재계를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마을의 토신제를 유학자가 주관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영천산의 기우단에 범장을 해서 비가 오지 않는다고 믿고 마을 사람들이 그 무덤을 파내는 일이 있었는데, 이 사실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일제시기의 정책으로 눈에 띄게 변화된 것이 있으니, 바로 공동묘지 정책과 담배의 전매 정책이다. 공동묘지 정책은 우리나라 전통 방식에 합치되지 않아 몇 년 시행하다가 만 것으로 보이며, 담배의 전

매는 백성들로 하여금 공분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 일로 많은 사람이 연행되기도 하였기에 저자도 결단코 담배를 끊으리라고 다짐하기도 하였다.

저자는 농촌에 살기 때문에 농사일을 도외시킬 수 없는 까닭에 농사를 감독하거나 대신 손자를 봐주기도 하고, 울타리를 엮기도 하였다. 여름에는 모내기의 진행 상황을 적고 비가 오지 않아서 걱정한다는 내용도 거의 해마다 기록하고 있다.

저자의 활동 중 가장 꾸준히 나타난 것은 서당에서 학동들을 교육하는 일이다. 저자의 주업은 교육이었던 것이다. 일기에 의하면 1912년 9월 22일부터는 장성 하만에 머물면서 학도들을 모아 교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장성 하만에는 벗 용산(龍山) 김낙주(金洛柱)가 살았는데, 아마도 그의 사랑에서 기거한 것이 아닌가 한다. 1913년 1월부터는 장동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장동은 종가가 있는 마을이기도 하지만, 미암 유희춘의 후손 유희적 등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강학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즉 1913년부터 1916년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1916년 3월에는 병에 걸려 겨우 나왔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1917년에는 옥과의 옥전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이곳에 가게 된 것은 창평에서 우거하던 김참봉이 이곳으로 옮겨갔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역시 장동을 자주 다녔다. 1918년과 1919년은 특별한 기록이 없고, 1920년~1922년도 역시 계속해서 강학을 한 것으로 추정되나 일기에는 언급이 없다. 그리고 1922년 8월 9일에서 1927년 11월 30일 사이는 일기 기록이 없으니, 5년 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1928년 2월 4일에는 월산면 월산리에 있는 동오재(東吾齋)에 들어가서 학당을 설치하고 동몽을 가르쳤다. 그리고 윤2월 16일에는 다음

과 같이 동오재 시를 완성했다.

사문의 일맥이 우리 동방에 미치니,	斯文一脉暨吾東
밝음은 태양이 바다에서 붉게 솟는 듯.	明似太陽出海紅
철인(哲人)의 간절한 마음 삼강(三綱) 위에 있고,	哲人心切三綱上
지사(志士)의 깊은 정성 오교(五教) 안에 있네.	志士誠深五教中
경전과 제자백가의 말 비록 다를지라도,	經傳諸子言雖異
고성(古聖)과 후현(後賢)의 성정은 같다네.	古聖後賢性則同
어리석음을 일깨우고 때때로 익히는 곳인 까닭에,	所以發蒙時習所
이름을 돌아보고 의리 생각하니 그 편액의 뜻 웅대하구나.	顧名思義扁其雄

삼강오륜을 내세워 우리의 전통사상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동오재가 훈몽을 하는 곳임을 천명한 시이다. 저자가 원운시를 지은 것으로 보아 동오재는 서암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이밖에도 그는 누정시를 지은 것이 많은데, 사산재, 정이암, 면양정, 연계정, 남파재, 가은재, 석호재, 월계재, 망야정, 금소정, 야정, 안분재, 조대, 신암재 등이 더 있다.

저자는 후학을 교육하면서 동시에 경전을 살피고 성리학을 공부하였으며, 우리 선현들의 글을 살피는 것으로 유학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다. 일기의 많은 내용이 경전이나 성리서적에서 어느 부분을 보았다는 말을 하고, 자신이 깨달은 내용을 적었다. 그 한 예를 들자면 1916년 2월 9일의 일기에 “성리서(性理書)를 보았는데, ‘이(理)는 보기 어렵고, 기(氣)는 보기 쉽다. 성(性)은 형체가 없고, 정(情)은 징험할 수 있다. 원형이정(元亨利貞)은 보기 어렵고, 춘하추동(春夏秋冬)은 보기 쉽다.’라고 하였다. 혹자가 ‘성(誠)과 충(忠)을 어떻게 구분합니까?’라고 묻기에, 대답하기를 ‘성자는 심(心)의 전체로써 말하였고, 충자는 사물을 응접하는 것으로써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라는 내용 등이 있다.

저자의 교유인물로는 장성 하만에 사는 용산(龍山) 김낙주(金洛柱)와 농아(龕啞) 유원효(柳遠黈), 창평 지곡에 사는 참봉 김용순(金容琿), 정해만(鄭海晩) 어른과 지실정씨들, 담양 장동에 사는 유희적(柳義迪), 장성 사산재의 공학원(孔學源), 신안동의 인재(忍齋) 김인식(金麟植), 주영묵(朱永默), 옥과의 정봉현(鄭鳳鉉)과 제갈하백(諸葛夏帛), 문암리의 죽사 조기섭(趙驥燮) 등이 있다.

저자의 교유 인물은 많다고 할 수 없지만, 그중에 유희적과 공학원, 정봉현, 제갈하백은 노사(蘆沙)를 이은 송사 기우만(奇宇萬)의 고제자들이다. 이들을 통해 노사 학문에 접할 기회가 많았을 것인데, 저자의 경우는 노사설을 비판하고 있고, 간재설에 귀기울였던 것 같다. 참봉 김용순은 하서 김인후의 후손으로 원래 장성 사람이지만 창평 지곡이나 옥과 옥전에 우거하고 있었다. 녹실 정해만은 창평 지곡에 사는 송강 정철의 후손으로, 서암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 • 저자의 학문과 작품세계

앞서 말했듯이 서암일기는 문집과 같은 역할을 했다. 여기에는 저자의 많은 작품이 들어있는데, 우선 시와 문장으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 \* 시

정저암의 육십 회갑 잔치시에 차운하다[次鄭樗菴六十華甲晡宴韻]

절매시(折梅詩)

농아(龕啞)시

삼가 사산재 원운시에 차운하다[謹次泗山齋元韻]

남산잠두시(南山蠶頭詩)

관광일본지행(觀光日本之行)시

진실이여[眞實兮] 작가(作歌)

삼가 정이암 시를 차운하다[謹次鄭李菴原韻]  
 하서 선정의 유고를 읽고 읊조리다[讀河西先正遺稿吟]  
 학이습구운 시흥주(學兒習句韻示鴻柱)  
 우연히 지음[偶成]  
 의심처를 읊조리다[疑吟]  
 동지시(冬至詩)  
 정규 윤문을 만나서[逢正奎允文]  
 우성일율(偶成一律)  
 하서선생이 문인에게 준 시구로 인해 지음[河西先生示門人句韻而成之]  
 아이들을 가르치는 운으로 회포를 읊다[教兒韻咏懷]  
 하남의 시에 삼가 차운함[謹次河南]  
 중유운을 써서 일절을 지음[用從遊韻成一絕]  
 황동의 봄[題黃洞春]  
 송선비가 회우시를 찾기에 답함[答宋大雅索喜雨詩]  
 송환준의 행로음 시에 답함[答宋雅行路吟煥俊]  
 산놀이를 읊다[遊山吟]  
 생일시[咏生日] 2수  
 면양정(倂仰亭) 차운시  
 영대시(靈垵詩) 10수  
 용호참봉이 방문했다는 것을 듣고 특별히 시 한편을 지음[聞龍湖參奉訪問 特題一律]  
 연계정 시[漣溪亭韻]  
 지재의 영대시에 차운함[廢止齋靈臺詩] 7수  
 또 영대시를 지음[又題靈臺詩] 3수  
 삼가 지재의 원운에 차운하다[謹次止齋元韻]  
 자호서암원운(自號棲巖元韻)  
 신암의 회갑 시에 차운하다[次新庵壽韻]  
 또 원운시에 차운하다[又次原韻]  
 유명하에게 주는 시[贈柳炳夏]  
 회포를 펴다[述懷]  
 생일(生日)시  
 송남과재에 짓다[題宋南坡齋]  
 중형수 허씨의 뇌문[誄從兄嫂許氏]

망각노장지(罔覺老將至)  
 유광록의 소시에 화운합[和柳光綠小詩]  
 다섯 그루의 버들[가사]  
 아이들 가르치는 운을 써서 한가로이 읊조림[用教兒韻閑吟]  
 사문 한학노에게 이별하며 주다[贈別韓斯文學魯]  
 우연히 흥을 느껴서[偶然感興]  
 아이들을 가르친 운자로 하늘을 읊다[因教兒韻咏天]  
 죽당 화갑연차운시(竹堂花甲宴次韻)  
 가잠의 권병귀가 고향에 돌아간다고 하기에 주다[示佳峯權柄貴還鄉]  
 목포 현기봉의 백전운을 써서 짓다[用木浦玄起鳳白戰韻]  
 주광가(酒狂歌)  
 세이가(洗耳歌)  
 광록의 시에 차운해서 주다[示光祿韻]  
 삼가 연계정에 차운하여 짓다[謹題漣溪亭韻]  
 회포를 읊다[述懷]  
 또 읊다[又]  
 이기를 읊어서 제익에게 보여주다[理氣詠示諸益]  
 유윤문에게 주다[贈柳允文]  
 우연히 읊다[偶吟]  
 느낌이 있어서[有感]  
 김세규가 아프다는 듣고 노래를 지어 꺾다[聞金世奎身恙 作歌而誘之](국한문)  
 지은시를 외움 2수  
 조대(釣臺) 시를 읊다[詠釣臺韻]  
 간노의 시에 차운하여 짓다[用良老韻]  
 간노의 시에 차운하여 짓다[用良老韻和吟]  
 중하의 문명을 쓰다[用夏]  
 측량원인 제주도 양치호에게 주다[贈測量員古耽羅濟州島濟州面禾北里梁致祐]  
 경상도 박용진의 시에 화답하다[和慶尙道善山玉城面玉冠洞 密陽后入朴鏞振韻]  
 이희채의 보호록에 쓰다[題李熙采保護錄] 2수  
 목우망목우(牧牛忘牧牛)  
 가은재(可隱齋)시 2수  
 삼가 석호재에 차운하다[謹次石湖齋]

동지음(冬至吟)  
 해가 뜰 때 지음[日出而作]  
 물을 대다[灌溉]  
 송자언행록 전도지탁 인음(宋子言行錄傳道之托因吟)  
 마당가의 꿀벌을 보고 느낌이 있어서 읊다[觀庭邊蜂感吟]  
 출유작(出遊作) 2수  
 금산 반남박씨 3세 충의재의 시를 짓다[錦山潘南朴氏三世忠義齋韻]  
 삼가 모효정 시에 차운하다[敬次慕孝亭原韻]  
 시정차운(詩亭次韻)  
 나주 종인 동수가 시를 청하기에 답함[羅州宗人東洙請韻聊以答之]  
 취후 평담(醉後平談)  
 3월 그믐에 봄을 전별하는 시[三月晦日餞春韻]  
 월계재 시[月溪齋韻]  
 망야정 소작 차운시[次望野亭小酌]  
 아이 가르치는 시운으로 인해 우연히 짓다[因學兒韻偶成]  
 청화의 작은 술자리[清和小酌]  
 다음날 또 읊다[翌日又吟]  
 양성재의 곡왕치 시를 보고 느낌이 있어[感養性齋哭王峙韻]  
 또 이어서 찬하기를[又繼而贊曰]  
 금소정 원운시에 차운하다[次琴嘯亭原韻]  
 동지음(冬至吟)  
 제석(除夕)시  
 야정시(野亭詩)  
 동오재운(東吾齋韻)  
 삼가 안분재 시에 차운하다[謹次安分齋韻]  
 우성(偶成)  
 괴화를 줍다[拾槐花]  
 박재연 부친상 만사에 차운하다[次朴在演親喪挽]  
 만이승학청고(輓李承鶴青臯)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짓다[代人作]  
 차종손(次宗孫)의 죽음에 삼가 만사(挽詞)를 차운하다  
 삼가 행원 임문규시에 차운하다[謹次杏園林文奎]



심재 원운에 차운하다[謹次心齋元韻]  
 세원산인을 곡하다[哭世遠山人]  
 들은 것을 기록하다[記所聞]  
 삼가 오후석 선생이 이별할 때 준 시에 차운하다[謹次吳後石先生贈別韻]  
 김도병에게 지포시를 지어주다[贈金道炳芝圃原韻]  
 감횡거시(感橫渠詩)  
 학정 정씨의 원운시에 차운하다[次鶴亭鄭某元韻]  
 평장동의 시조를 단향 하는 원운시 뒤에 짓다[題平章洞壇享始祖元韻後  
 증신암재운(贈新菴齋韻)  
 종유습구 시에 차운하다[次從遊習句韻]

## \* 문장

사산부자묘서(泗山夫子廟序)  
 녹실선생을 곡하는 글[哭綠室先生文]  
 종형수 허씨의 뇌문[誄從兄嫂許氏]  
 속원성(續原性)  
 기송사 제문(奇松沙祭文)  
 동지에게 보이다[示同志]  
 이단에 대해 변론하다[辨異端]  
 추천사적(秋川事蹟)  
 망제 희중을 제사하는 글[祭亡弟希中文]  
 지선주(止善酒)  
 계자침을 짓다[作戒子帖]  
 이기설(理氣說)  
 사물선후설(事物先後說)  
 죽천재기(竹泉齋記)  
 우기 시아(偶記示兒)  
 속원도(續原道)  
 효부 엄씨 명설(孝婦嚴氏銘說)  
 성왕(聖王)이 만이(蠻夷)를 제어하는 상도(常道)  
 양성재 행장 발(養性齋行狀跋)  
 인론(人論)

도기(道器)의 구분

지송옥이 저술한 척독대방의 난진설에 변론한다[辨池松旭所著尺牘大方亂真之說]

또 이른바 유학기는 벗을 보내며를 변론한다[又辨所謂送友遊學]

명분설(名分說)

서암기(棲岩記)

재거우감(齋居偶感)

물이 이르면 도량이 이루어진다는 설[水到渠成說]

심(心)성(性)정(情)의(意)의 명목(名目)

이상은 일기에서 저자가 지은 시문만을 뽑아본 것인데, 시는 135수, 문장은 28편이 된다. 시 가운데에서 제목이 눈에 많이 띄는 것은 ‘영대시(靈臺詩)’이다. 영대란 마음을 뜻하는데 이에 대한 시를 21수나 지은 것이다. 그중 한 수를 예로 들겠다.

영대의 본체는 맑은 거울과 같아서,  
문질러서 때를 벗어야 처음을 회복할 수 있네.  
분수 밖의 다반사를 말하지 말라,  
한 점 뜬구름이 태허를 지나가는 것과 같네.

靈台本體是明鏡  
磨得垢塵乃復初  
莫言分外多般事  
一點浮雲過太虛

즉 저자는 마음의 본체를 맑은 거울로 비교하고, 같고 닦아야만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저자는 영대시를 네 번에 걸쳐서 지었는데, 이것을 볼 때 마음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한 조각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는 것과 같다고 보고 있어서 인생의 달관자라는 느낌도 든다.

그는 ‘서암’이라는 호를 사용했는데, 서암일기에는 <서암기>가 3건이나 실려 있다. 즉 공학원과 유희적이 써 준 것이 있고, 저자 자신이 쓴 것이 있다. 다음은 저자 자신이 지은 <서암기(棲岩記)>의 일부이다.

세상에 태어나 이름과 자의 호칭이 없을 수 없지만, 또 스스로 ‘서암(棲岩)’이라 부른 것은 한갓 세속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지학의 나이 [志學之年, 15세]에 주부자의 <회암시(晦岩詩)> “생각나는구나, 예전 병산옹께서 나에게 주신 한 마디 가르침. 오래도록 그 가르침 자신하지 못했는데, 이제 바위에 깃들여 살며 작은 효험 바라네.[憶昔屏山翁, 示我一言教。自信久未能, 岩棲冀微效]”라는 구절을 탄식하며 읊조렸다. … ‘서암(棲岩)’ 두 자를 문미 위에 걸어놓고 출입하면서 보고 살피면서 ‘작은 효험을 바라다[冀微效]’는 뜻을 잊지 않고자 한 것이다.

자신의 호를 ‘서암’이라고 한 까닭은 15살 때 주희의 <회암시(晦岩詩)>를 읽고 감명을 받은 것을 인연으로 해서 지은 것인데, 즉 ‘암서기미효(岩棲冀微效)’의 구절에서 딴 것임을 알 수 있다.

서암의 일상 생활은 교육과 학문으로 귀결지을 수 있을 정도로 일기의 내용은 거의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때문에 서암은 문학적인 면보다 학문적인 면에서 더 뛰어났던 것 같다. 속원성, 속원도, 태극설, 변이단, 시동지, 이기설, 사물선후설, 인론, 명분설, 심성정의의 명목, 수도거성설 등은 그가 성리학에 깊은 조예가 있음을 드러낸다.

1916년 9월 13일에는 창려집(昌黎集) 속의 <원성(原性)>을 한 번 읽고서 <속원성(續原性)>을 지었고, 1920년 4월 11일과 10월 21일 사이에는 <속원도(續原道)>를 지었다. 다음은 <속원도(續原道)>의 일부분이다.

가만히 생각건대, 이(理)가 있으면 도가 있고, 도가 있으면 이가 있는 것이다. 그 진실한 것을 성(誠)이라고 하고, 지극히 미세한 것을 이(理)라고 하며, 그 만가지 이(理)의 본원을 태극이라고 하고, 그 동정을 음양이라고 하며, 그 윤행을 오행이라고 한다. 그 원두가 윤행하는 것은 소이연지고(所以然之故)이며 무성무취(無聲無臭)하다.

저자는 이기철학에서 이(理)를 강조했는데 1917년 11월 20일자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태극설>을 기록하고 있다.

소이연지고(所以然之故)가 바로 이(理)이니, 이(理)라는 것은 문리(文理)와 조리(條理)의 이(理)이다. 하나이면서 만 가지로 다르고, 만 가지로 다르면서 하나이다. 하나라는 것은 바로 태극이다. 크게는 천지, 작게는 만물이 이 이(理)가 아님이 없다. 이(理)가 있으면 기가 있고, 기가 있으면 이가 있어서 선후도 없고, 이합(離合)도 없다. 있으면 모두 있고, 없으면 모두 없어서 혼연히 온전하게 갖추었다. 만약 이기로 경중을 따지면 이가 본래 중하고, 선후를 따지면 이가 본래 먼저이며, 본말을 따지면 이가 본이 된다. 그러나 진실로 경중과 선후, 본말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행함에 이르러서는 다만 경중과 선후, 본말뿐만이 아니라 유무, 허실, 거세(巨細), 정조(精粗), 장단, 광협, 대소, 다과 등 천만 가지 형상이 있어서 천지 사이에 가득한 것은 분명히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그 소이연을 궁구하면 이 이가 관여한 바가 아님이 없으니, 이가 중하고 만화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그는 이를 강조하면서도 노사의 학설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 않았다. 그와 교유한 인물 중에 공학원이나 유희적, 그리고 고헌선이나 오준선 등은 모두 노사학과 사람들인 것을 볼 때 의외의 일이긴 하다. 즉 1916년 10월 27일의 일기에 보면 유희적(柳羲迪)이 “노사선생께서는 율곡선생의 글에서 ‘양이 동하고 음이 정하는 것은 시키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기(氣機)가 스스로 그러한 것이다. 소이연(所以然)한 것이 이(理)이다.[陽動陰靜, 非有使之, 其機自爾. 所以然者理也.]’라는 것에 대해 ‘만약 그 기기가 스스로 그러한 것이라면 소이연(所以然) 세 글자는 퇴축(退遜)시키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자, “노사선생의 말씀은 아마도 이와 기를 양물(兩物)로 판별하여, 이가 여기에 있으면, 기는 저기에 있고, 이가 곁에 있으면, 기는 을에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이다. ‘양

이 동하고 음이 정하는 것은 시키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기(氣機)가 스스로 그러하다는 것은 기이고, 소이연지고(所以然之故)는 이(理)인데, 소이연 세 글자를 어찌 퇴축시킬 것인가? 이기는 본래 하나이며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다. 이가 있으면 기가 있고, 기가 있으면 이가 있으니, 있으면 함께 있고 없으면 함께 없으며, 선후도 없고 이합(離合)도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주장한 것이 나온다.

이미 세상이 바뀌어서 기존의 학문은 구학문으로 치부되고, 신학문을 해야만 세상에서 행세를 할 수가 있는 데도 저자는 이런 변화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을 되돌아보며 자기 반성을 그치지 않았다. 다음은 1927년 12월 30일에 지은 제석시이다.

<제석>

오늘은 제석인데 홀로 처연하구나,  
내일 아침이면 칠십 살이 되리라.  
송구영신을 사양할 수 없으나,  
덕업이 없는 것 부끄러워 잠 못 이루네.

除夕

於今除夕獨悽然  
切近明朝七十年  
送舊迎新辭不得  
愧無德業未成眠

저자가 거의 만년에 지은 시이다. 해가 바뀌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 또 한 해가 지나가고 나이만 먹다보니 덕업을 이루지 못한 것이 못내 부끄러울 따름이다. 어려운 세상에서도 일생을 치열하게 살다간 저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이로다.

2018. 12



■ 목 차

발간사 • 005

해 제 • 007

1912년 1월 1일 • 025

1913년 1월 1일 • 125

1914년 1월 1일 • 205

1915년 3월 25일 • 305

1916년 1월 1일 • 385

1917년 1월 1일 • 479

후 기 • 566







신유여(神有餘) - 상서(相書)  
농아음(農兒吟) 2수 - 유원효(柳遠效)  
정재건(鄭在楗) 행장(行狀) - 정해만(鄭海晩)  
고두강(高斗綱)의 장계추회수록(藏溪追懷隨錄) - 회과당유고(悔過堂遺稿)  
정저암의 육십 회갑 잔치시에 차운하다[次鄭樛菴六十華甲甲宴韻]  
누이의 회갑 당일에 참석해서 그 운에 따라 축하시를 지어 조카 양재면 형제에게  
주다[阿妹回壽當日身參 依其韻賀 示梁侄在冕昆弟] - 정운오(鄭雲五)  
어떤 순사가 매화 한 가지를 꺾어들고서 수남의 양우에게 시를 지으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장난삼아 짓다[有一巡查折取梅花一枝 索詩於水南梁友 聞而戲成] - 정운오(鄭雲五)  
절매시(折梅詩)  
농아(農啞)시  
삼가 사산재 원운시에 차운하다[謹次泗山齋元韻]  
사산부자묘서(泗山夫子廟序)  
남산잠두시(南山蠶頭詩)  
우옹(尤翁)의 직자결(直字訣) - 송시열(宋時烈)  
관광일본지행(觀光日本之行)시  
전십사세손대중시(傳十四歲孫大中詩) - 김장환(金章煥)  
선비산지매득시 조각일절(先妣山地買得時 所作一絕) - 김장환(金章煥)  
진실이여[眞實兮]  
삼가 정이암 시를 차운하다[謹次鄭李菴原韻]  
하서 선정의 유고를 읽고 읊조리다[讀河西先正遺稿吟]  
학아습구운 시홍주(學兒習句韻示鴻柱)  
우연히 지음[偶成]  
의심처를 읊조리다[疑吟]  
동지시(冬至詩)  
정규 윤문을 만나서[逢正奎允文]  
우성일율(偶成一律)  
하서선생이 문인에게 준 짓구로 인해 지음[河西先生示門人句韻而成之]  
아이들을 가르치는 운으로 회포를 읊다[教兒韻咏懷]  
하남의 시에 삼가 차운함[謹次河南]  
종유운을 써서 일절을 지음[用從遊韻成一絕]



임자일기(壬子日記). 개국 521년(1912). -고갑자는 현익곤돈-  
 壬子日記。開國五百二十一年。【古甲子，玄默困敦】

1912년 1월 1일. 갑자. 흐림. 삼양(三陽)<sup>1)</sup>에 오는 눈이 밤부터 아침까지 내렸다. 신수를 점쳤는데 괘가 <중수감괘(重水坎卦)><sup>2)</sup>이다. 구이(九二) 효사(爻辭)에 “감(坎)에 험함이 있으나 구함을 조금 얻으리라.[坎, 有險, 求小得]”라고 했다. 상전(象傳)에서는 “구함을 조금 얻음은 험한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求小得, 未出中也]”라고 했고, 대상전(大象傳)에서는 “군자가 보고서 덕행을 항상 하며 가르치는 일을 익힌다.[君子以常德行習教事]”라고 했다. 연일 세배 온 사람들을 응접했다.

春王正。甲子。陰。三陽雪，自夜終朝而來。索身數卦，則重坎水。二爻辭，“坎，有險，求小得。”象曰，“求小得，未出中也。”大象傳曰，“君子以常德行習教事。”連日應接歲拜人。

1912년 1월 2일. 을축. 맑음. 성묘를 갔다.  
 二日。乙丑。陽。作省楸之行。

1912년 1월 3일. 병인. 맑음. 손님을 접대했다. 오늘은 우수(雨水)<sup>3)</sup>로,

- 1) 삼양(三陽) : 《주역》에 의하면 11월 복괘(復卦)에 일양(一陽)이 처음 생기고, 12월 임괘(臨卦)에 이양(二陽)이 생기고, 1월 태괘(泰卦)에 삼양(三陽)이 생기므로 삼양은 곧 정월, 또는 입춘(立春) 절기의 뜻으로 쓰인다. 여기에서는 1월 1일을 뜻한 것으로 보인다.
- 2) 중수감괘(重水坎卦) : 주역의 29번째 괘사로, “습감(習坎, 거듭 험함)은 믿음이 있어서 오직 마음이 험통하리니, 행하면 숭상함이 있으리라[習坎, 有孚, 維心亨, 行有尙.]”라는 내용이다.
- 3) 우수(雨水) : 입춘과 경칩 사이에 있는 24절기의 하나. 양력 2월 19일 무렵이다. 일 년 중 겨울이 지나 비가 오고 얼음이 녹는다는 날이다. 1년을 12절기와 12중기로 나누어 24절기라 하는데, 절기는 1달 중 월초에 해당하며, 중기는 월중에 해당한다. 24절기는 다음과 같다.

입춘(立春) 【1월 절】	우수(雨水) 【1월 중】
경칩(驚蟄) 【2월 절】	춘분(春分) 【2월 중】

1월 중(中)이다.

三日。丙寅。陽。應接賓客。是日雨水正月中。

1912년 1월 4일. 정묘. 흐림. 가랑비가 아침에 한 번 오고 나서 연달아 한 번 더 온 다음에 그쳤다.

四日。丁卯。陰。微雨自朝後，連一度而止。

1912년 1월 5일. 무진. 흐린 후 맑음. 가랑비가 간간이 내렸다. 오후에 설강홍(偈康洪)과 송평중(宋平中)이 왔다.

五日。戊辰。先陰後陽。微雨間之。午後偈康洪·宋平中來。

1912년 1월 6일. 기사. 맑음. 향당(鄉黨, 태어난 시골마을)의 벗들을 방문했다.

六日。己巳。陽。訪問鄉黨僚友。

1912년 1월 7일. 경오. 반은 흐리고 반은 맑음. 산각(産角)<sup>4)</sup>을 사가지고 왔다.

七日。庚午。半陰半陽。買産角以來。

청명(淸明) 【3월 절】	곡우(穀雨) 【3월 중】
입하(立夏) 【4월 절】	소만(小滿) 【4월 중】
망종(芒種) 【5월 절】	하지(夏至) 【5월 중】
소서(小暑) 【6월 절】	대서(大暑) 【6월 중】
입추(立秋) 【7월 절】	처서(處暑) 【7월 중】
백로(白露) 【8월 절】	추분(秋分) 【8월 중】
한로(寒露) 【9월 절】	상강(霜降) 【9월 중】
입동(立冬) 【10월 절】	소설(小雪) 【10월 중】
대설(大雪) 【11월 절】	동지(冬至) 【11월 중】
소한(小寒) 【12월 절】	대한(大寒) 【12월 중】

4) 산각(産角) : 산곽(産藿)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산곽은 아기를 갖 낳은 사람이 산후조리를 위해 국으로 끓여 먹을 미역을 말한다.

1912년 1월 8일. 신미. 반은 흐리고 반은 맑음. 종일 버를 말리느라 저물  
녘에 이르러서야 《주역》을 보았다.

八日。辛未。半陰半陽。終日乾租，至暮觀易。

1912년 1월 9일. 임신. 반은 흐리고 반은 맑음. 동틀 무렵에 일어나 《주  
역》 <계사전>을 보다가 복희(伏羲) 선천도(先天圖)<sup>5)</sup>의 위치는 건남  
곤북(乾南坤北), 리동감서(離東坎西)로 하고, 문왕(文王) 후천도(後天  
圖)의 위치는 진동태서(震東兌西), 리남감북(離南坎北)으로 한다는 의  
미를 황홀하게 깨달았다. 대체로 복희 8괘는 대대(待對)의 수로 괘를  
만들어 방소를 정한 것이고, 문왕의 8괘는 때때로 유행(流行)하는 기  
로 괘를 만들어 방소를 정한 것이다. 그런 즉 복희의 대대정위(待對定  
位)의 체(體)가 없으면 문왕의 유행변화(流行變化)의 용(用)을 헤아리  
기 어렵고, 문왕의 유행변화의 용이 없으면 복희의 대대배위(待對配  
位)의 체를 알기 어렵다. 체가 있으면 용이 있고 용이 있으면 체가 있  
으니 천리(天理)는 동일하지만 선천, 후천으로 달라진 것은 복희와 문  
왕 시대의 차례 때문이다. 나의 좁은 소견에서 보건대 선천과 후천이  
동일하지 않다는 실은 실로 밝게 깨닫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九日。壬申。半陰半陽。黎明起觀易翫辭，恍然知得伏羲先天位次，乾  
南坤北，離東坎西，文王後天，震東兌西，離南坎北之義。大抵伏羲八卦，  
以生卦待對底數定方也，文王八卦，以卦時流行底氣定方也。然則無伏  
羲底待對定位之體，則難測文王底流行變化之用，無文王底流行變化之  
用，則難見伏羲底對對配位之體也。有體有用，有用有體，同一天理，而  
先後之異，以伏羲文王時代之序也。於今管見之，先後天不同之說，實  
不曉得也，固矣。

5) 선천도(先天圖) : 《주역》의 원리를 그림으로 해설한 것으로 복희씨(伏羲氏)의 <선천도>와  
문왕(文王)의 <후천도(後天圖)>가 있었는데, 소옹은 복희씨의 <선천도>를 바탕으로 선천상  
수학(先天象數學)을 발전시켰다.

1912년 1월 10일. 계유. 반쯤 흐리고 반쯤 맑음. 저물녘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밤새도록 내렸다.

十日。癸酉。半陰半陽。至暮而雨連夜。

1912년 1월 11일. 갑술. 흐리고 간혹 가랑비 음. 지나온 자취를 보며 상서로움을 살폈다.<sup>6)</sup> 박모(薄暮, 저물녘)부터 평명(平明, 새벽)까지 비가 내렸다.

十一日。甲戌。陰而或微雨。視履考祥。自薄暮至平明而雨。

1912년 1월 12일. 을해. 흐림. 간혹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리기도 했다. 책을 보았다. 밤에 비가 왔다.

十二日。乙亥。陰。或微雨濛濛。看書。夜雨。

1912년 1월 13일. 병자, 흐림. 아침에 <계사(繫辭)>를 읽었는데, “한번 음하고 한번 양하는 것을 도(道)라고 한다. 이것을 잇는[발현하는] 것이 선(善)이요, 이것을 이루는 것이 성(性)이다.[一陰一陽之謂道, 繼之者善也, 成之者性也.]”<sup>7)</sup>라는 내용에 이르러 궁리 연구를 그치지 않아 침식을 잇는 데까지 이르렀다.

대개 이 두 구절은 큰 강령이니, 깨우쳐 주고 쉽게 터득하게 하는 말이다. 이것을 세밀히 보면 일음(一陰)에 앞서 양(陽)이 있고 일양(一陽)의 뒤에 음이 있다. 음 가운데 양이 있고 양 가운데 음이 있다. 합하면서 다르고 다르면서도 합하여 신묘불측하다. 이른바 도라는 것은 변화

6) 시리고상(視履考祥) : 《주역》 <이괘(履卦)> 상구(上九)에 “행동을 살펴보아 길흉을 상고하되, 주선한 것이 완벽하면 크게 길하리라.[視履考祥, 其旋元吉]”라는 말이 나온다.

7) 한번 …… 한다: 《주역》 <계사 상(繫辭上)> 제5장에, “일음 일양을 도라고 하니, 잇는 것 [발현하는 것]이 선이고 이룬 것이 성이다.[一陰一陽之謂道, 繼之者善也, 成之者性也.]”라고 하였는데, 주자(朱子)의 본의(本義)에는, “계(繼)는 그 발(發)함을 말하고 선(善)은 화육(化育)의 공(功)을 말한다. 성(成)은 그 갖추음을 말하고 성(性)은 물이 받은 것을 말하니, 물(物)이 생(生)하면 성(性)이 있어서 각각 이 도(道)를 갖추음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하고 유행하기 때문에 ‘계지(繼之)’니 ‘성지(成之)’니 하는 것은 이시(異時)가 아니고, ‘선(善)이나 ‘성(性)이나’ 하는 것도 이물(異物)이 아니다.

‘계(繼)’는 천명을 물(物)이 받은 이치로써 연속해서 말한 것이고, ‘성(成)’은 물(物)이 품수 받은 확정된 이치로써 말한 것이다. ‘선(善)’은 기질의 청탁을 겸한 것이 아니고, 순박(純駁)의 하나만 든 것이니, 이(理)의 순일한 것이다. ‘성(性)’은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이치를 온전히 구비한 것으로, 정(情)의 편색(偏塞)을 겸한 것이 아니다. 비록 그렇더라도 나의 생각으로는 그른지 옳은지를 잘 알지 못하겠으니, 뒷날의 군자를 기다린다.

김승범(金承範)이 왔다.

十三日。丙子。陰。朝讀繫辭，至“一陰一陽之謂道。繼之者善，成之者性。”窮研不已，至忘寢食。蓋此兩節是大綱，曉人易得之說。這間細密，則一陰之先有陽，一陽之後有陰。陰之中有陽，陽有陰。合而異，異而合，神妙不測。所謂道者，以其變化流行之，故繼之成之，非異時，善也性也，非異物也。繼，以天命物受之理，連續言之也。成，以物稟確定之理，言之也。善，是不兼氣質之清濁，純駁單舉，理之純一也。性，是全具仁義禮智信之理，而不兼情之偏塞也。雖然，愚意之非是，未能知，而以待後之君子也。金承範來。

1912년 1월 14일. 정축, 맑다가 흐림. 첫닭이 울고 난 후로 날씨가 확연하게 맑아졌다. 묘시(卯時)에 이르러 며느리가 둘째사내<sup>8)</sup>를 낳았는데, 산후 복통이 있어서 의원에게 물어 기침산(起枕散)<sup>9)</sup> 3첩을 썼다. -아이의 사주팔자는 임자(壬子), 임인(壬寅), 정축(丁丑), 정묘(癸卯)이다.-

8) 둘째사내 : 김용준(金容俊)을 말한다. 1912년 1월 14일에 태어났다. 큰손자 용주(容周)는 1908년생이다.

9) 기침산(起枕散) : 해산(解産)한 뒤에 주기적으로 아랫배가 아플 때 사용하는 약이다.

十四日。丁丑。先陽後陰。自鷄鳴後，天氣廓清也。至卯時媳婦生二男，而有產後腹痛，問醫用藥起枕散三貼。【壬子，壬寅，丁丑，癸卯。】

1912년 1월 15일. 무인, 흐림. 아침에 동풍이 불었다가 석양에 점차 비가 내리더니 저녁에도 개지 않았다.

十五日。戊寅。陰。朝東風夕漸雨，夜未霽。

1912년 1월 16일. 기묘, 맑았다가 흐려짐. 읍내에 사는 석사(碩士) 김양(金梁)과 이문내(李門內)가 왔다. <계사전(繫辭傳)>를 보았다. ‘인(仁)에서 드러나며 용(用)에 감추어져 있다’는 일절 아래의 소주에서 명도(明道, 程顥) 선생이 말한 것이 가장 좋으니, 즉 ‘천지는 무심하면서도 조화를 이루고, 성인은 유심하면서도 작위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에 특별히 기록한다.

十六日。己卯。陽間陰。邑金碩士梁李門內來。看繫辭，‘顯著仁，藏著用’一節下小註，明道又語最好，‘天地無心而成化，聖人有心而無爲’之說，特記之。

1912년 1월 17일. 경진, 잠깐 맑다가 다시 흐림. 아들이 점을 쳐서 태괘(兌卦)<sup>10</sup> 구이(九二)의 ‘미더워해서 기뻐함이니 길하고 뉘우침이 없으리라.[孚兌吉悔亡]’를 얻었는데, 상전(象傳)에 이르길, ‘믿어서 기뻐함의 길함은 뜻이 믿음을 주기 때문이다.[孚兌之吉，信之志也]’라고 했다. 때문에 ‘사람은 성신(誠信, 성실)하지 않을 때가 없어야 하나, 금년은 유독 성신해야 한다.’는 말로 경계하였다. 오늘은 조부의 기일인데, 가고(家故)에 구애되어 달려가 참여하지 못하고 한갓 한탄만 할 따름이다. 며느리가 산후통이 있어서 목단탕(牧丹湯) 두 첩을 썼다.

10) 태괘(兌卦) : 주역 64괘 중 58번째 괘인 중택태(重澤兌)괘를 말한다. 태는 기쁘다는 뜻이다.



十七日。庚辰。乍陽復陰。家兒得卦兌之九二，‘孚兌吉悔亡’，象曰，‘孚兌之吉，信之也。’，故戒以人無時不誠信，今年惟篤誠信也。是日卽祖考忌辰，拘於家故，末由趨參，徒切愴然而已。媳婦產後症，用牧丹湯二貼。

1912년 1월 18일. 신사, 경칩. 흐렸다가 맑음. 오후에 비가 왔다. 처제가 나서방과 또 조카 형제와 함께 일전에 왔었는데, 처제만 갔다. 밤에 비가 왔다.

十八日。辛巳。驚蟄。先陽後陰。午後雨。妻弟與羅婿郎又侄兒兄弟，日前來到，而妻弟去。夜雨。

1912년 1월 19일. 임오. 반쯤 흐리고 반쯤 맑음. 조카와 사위가 갔다.

十九日。壬午。半陰半陽。侄兒與婿郎去。

1912년 1월 20일. 계미. 맑음. 죽산(竹山)<sup>11)</sup>의 포공(包工, 푸줏간 장인)이 마을에 들어왔는데, 속기(俗忌) 때문에 만나보지 않았다.

二十日。癸未。陽。竹山包工入村，以俗忌不爲接見。

1912년 1월 21일. 갑신. 맑음. 먼저 소나무 종자를 뿌린 후에 남새밭을 가꾸었다. 날이 저물 무렵 이서방<sup>12)</sup> -본관은 수성- 이 재취(齊衰)<sup>13)</sup> 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사문(李士文)의 집에 머무르면서 기별을 전해 왔다.

11) 죽산(竹山) : 전남 담양군 무정면 영천리에 있는 죽산마을을 말한다.

12) 이서방 : 서암의 사위인 이대수(李大洙)를 말한다.

13) 재취(齊衰) : 흔히 ‘자취’라고도 한다. 재취의 재(齊)는 옷자락을 꿰매어 마름질한다는 뜻으로, 재취는 옷의 끝단을 꿰매 상복, 즉 재취복을 말하기도 한다.

二十一日。甲申。陽。先種松後治圃。日暮水城李婿郎，以身有齊衰服，次于李士文家傳奇。

1912년 1월 22일. 을유. 맑음. 사위가 간다고 하여, 아들이 전송하러 시문(市門, 저잣거리)에 나갔다.

二十二日。乙酉。陽。婿郎去，家兒餞送次出市門。

1912년 1월 23일. 병술. 맑음. 천도교인(天道教人)이 월보(月報)<sup>14)</sup>를 보내서 풍자하였는데, 잠시 보고도 그 대강을 알 수 있어 바로 보냈다. 울타리를 치고 집에서 한가하게 지냈다. 사돈 서아(徐雅)가 왔다가 갔다.

二十三日。丙戌。陽。天道教人送月報而諷之，霎見知其類槩即送。結籬而閑家。查生徐雅來而去。

1912년 1월 24일. 정해. 잠깐 맑은 후 흐림. 오후에는 찬바람이 살랑살랑 불었다. 채소를 파종하고 울타리를 쳤다.

二十四日。丁亥。乍陽後陰。午後冷風颯颯。種菜又結籬。

1912년 1월 25일. 무자. 맑음. 제례(祭禮)의 <참강선후(參降先後)><sup>15)</sup>에 대한 설을 살펴보았는데, 울곡(栗谷)은 선강신(先降神)을, 퇴계(退溪)는 후강신(後降神)을 주장하였다.<sup>16)</sup> 무릇 삭망(朔望)의 참례(參禮)는

14) 월보(月報) : 《천도교회보(天道教會報)》를 말한다. 천도교의 기관지로 1910년 8월에 창간되어 1938년 3월 통권 315호로 종간되었다. 교리부·학술부·기예부(技藝部)·물가부(物價部)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학술부에는 지리·역사·물리화학·경제·농업 등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15) <참강선후(參降先後)> : 《상변통고(常變通攷)》에 <참강선후>편이 있다. 《상변통고》는 조선 후기에 유장원(柳長源)이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체제에 따라 상례(常禮)과 변례(變禮)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설을 참조하여 편찬한 책이다. 이 책은 30권 16책으로, 1830년에 간행되었다.

16) 퇴계는 …… 주장하였다 : 《퇴계집》 권39 <답정도가문목(答鄭道可問目)>에서 “참례에서

묘사(廟祀)·묘제(墓祭)와 함께 신주를 옮기는[遷主] 의식이 없으므로 선강신(先降神)이다. 기제(忌祭)·시정제(時正祭)<sup>17)</sup>는 신주를 내가는 [出主] 의식이 있으니, 선참신(先參神)하는 뜻이다. 말하는 바는 같지 않지만 그 실체는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기제(忌祭)에서 출주(出主)한다면 선참신(先參神)이고, 지방(紙榜)<sup>18)</sup>으로 하면 선강신의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종일 연구하였다.

친구 이문극(李文極)이 왔다.

二十五日。戊子。陽。看祭禮參降先後之說，栗谷先降神，退溪後降神。以其凡朔望參之禮，與廟墓祭，無遷主之儀，故先降神。忌祭時正祭，有出主之儀，則先參神之義，所言不同，其實同也。故忌祭出主則先參神，紙榜則先降神之義可見。終日研究。李友文極來。

1912년 1월 26일. 기축. 반짚 흐리고 반짚 맑음.

二十六日。己丑。半陰半陽。

1912년 1월 27일. 경인. 약간 맑음. <계사전(繫辭傳)>의 ‘창왕찰래(彰往察來)’<sup>19)</sup>를 보았는데, 성괘(成卦)<sup>20)</sup>를 미루어 감을 알아서 길흉이 장

는 강신을 먼저 하고, 제례에서는 참신을 먼저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라는 물음에, 퇴계가 “참례는 이날의 예가 본디 참례를 위해 마련한 것인데, 만약 참신을 먼저 하면 강신 뒤에는 전혀 아무 일도 없게 된다. 강신을 먼저 하는 것은 참례를 하기 위해서이다. 제례에는 강신 뒤에 친(薦)·헌(獻) 등의 예가 있으므로 참신을 먼저 하고 강신을 뒤에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 17) 시정제(時正祭) : 사시정제(四時正祭). 사중시제(四仲時祭) 또는 사시제(四時祭)라고도 한다. 춘하추동의 중월(仲月)인 음력 2·5·8·11월에 길일을 골라 사당에서 부모로부터 고조부모까지의 제사를 받드는 것으로, 모든 제사 중에서 가장 중하여 정제(正祭)라고 하며 제사 의식도 가장 완비되어 있다.
- 18) 지방(紙榜) : 신주를 모시고 있지 않는 집안에서 차례나 기제사 때 종이에 써서 모신 신위이다.
- 19) 창왕찰래(彰往察來) : 지난 일을 분명하게 밝혀서 미래의 득실을 살핀다는 의미이다. <주역(周易)> <계사 하(繫辭下)>에 나오는 말로 “역은 지난 것을 드러내고 올 것을 보여 주며, 은미한 것을 드러내고 숨겨진 것을 밝혀 준다.[夫易，彰往而察來，而微顯闡幽]”라고 하였다.
- 20) 성괘(成卦) : 괘를 형성해가는 법. 효(爻)에는 양효(陽爻)와 음효(陰爻)가 있으니, 이것을 양의

차 올 것을 징험한다.

二十七日。庚寅。微陽。看<繫辭>彰往察來，知得推成卦去，驗吉凶之將來者也。

1912년 1월 28일. 신묘. 흐림. 대나무 울타리를 쳤다.

二十八日。辛卯。陰。結竹籬。

1912년 1월 29일. 임진. 흐림. 쌀값이 너무 올랐다. 매 냥 당 겨우 2되 5홉을 주는 것에 그쳐, 어쩔 수 없이 오십 명에게만 주고 파하였다. 계곡(稷穀, 쟁쌀)은 문성칠(文成七)과 정대옥(程大玉)이 이름을 불러 분급하니, 지극히 공평하고 시끄러움이 없었으므로 기록한다.

二十九日。壬辰。陰。米價太高，每兩頭纔給二升五合，不得已罷給五十名。稷穀，文成七程大玉呼名分給，至公無擾，故記之。

1912년 1월 30일. 계사. 약간 맑고 찬바람. 오늘은 곧 마을의 토신제(土神祭)가 있는 날이라 목욕재계하였다. -항씨(項氏)<sup>21)</sup>가 말한 것을 보니 “건곤(乾坤)은 본래 처음에는 기(氣)이고 끝에는 형(形)이며 중간에는 정(精)이다. 우레와 바람은 기이고, 산과 연못은 형이며, 물과 불은 정이다.”라고 하였다.-

(兩儀)라고 하며, 양의에 양효와 음효를 각각 하나씩 더하여 2개의 효로 이루어졌을 때 사상(四象)이 되고, 3개의 효로 이루어졌을 때 팔괘(八卦)인 소성괘(小成卦)가 된다. 소성괘가 겹쳐 6개의 효로 이루어진 것을 대성괘(大成卦)라고 하는데, 괘의 수가 64개이고 효의 수가 384개이다. 대성괘를 겹쳐 12개의 효로 이루어지면 그 괘의 수가 4096개가 된다. 이렇듯 양효와 음효가 변화하여 괘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

- 21) 항씨(項氏) : 항안세(項安世, ?~1208)를 말한다. 송나라 사람으로, 자는 평부(平父), 호는 평암(平庵)이다. 효종(孝宗) 순희(淳熙) 2년(1175)에 진사(進士)가 되고, 교서랑(校書郎)과 지주통판(池州通判) 등을 지냈다. 경원(慶元) 연간에 글을 올려 주희(朱熹)를 유입하라고 했다가 탄핵을 받고 위당(僞黨)으로 몰려 파직되었다가 나중에 복직되어 여러 벼슬을 거쳤다. 저서에 《주역완사(周易玩辭)》와 《항씨가설(項氏家說)》, 《평암회고(平庵悔稿)》 등이 있다.

三十日。癸巳。微陽冷風。是日卽村中土神祭也，沐浴齋戒。【看項氏曰，“乾坤本初爲氣，末爲形，中爲精。雷風氣也，山澤形也，水火精也。”】

1912년 2월 1일. 갑오 맑음. 옥점산(玉占山)에서 완상하기 위해 옥과(玉果)<sup>22)</sup> 목동(木洞)<sup>23)</sup> 에 이르렀다가 마을 아래 가게에서 정봉여(鄭鳳汝)<sup>24)</sup>를 우연히 만나 쌓인 회포를 풀었다. 또 당질을 만났다가 곧바로 헤어지고, 가족암(加足岩)을 거쳐 어머니의 산소에 이르렀으며, 성묘를 한 후 정운람(鄭雲藍)<sup>25)</sup>의 서실에 들어갔다. 운람의 현합(賢咸)<sup>26)</sup> 우경(優慶)이 대우를 매우 두텁게 해주었다.

二月。初一日。甲午。陽。翫賞在玉占山次，到玉果木洞，村下店遇鄭鳳汝，叙積懷。又逢堂侄旋別，經加足岩，至慈親山所，省拜後，轉入鄭雲藍書室。雲藍賢咸優慶，眷遇甚厚。

1912년 2월 2일. 을미. 맑고 바람. 담녕와(淡寧窩)<sup>27)</sup>를 방문하여 난리 후 쌓인 회포를 펼치고, 돌아오는 길에 삼회당(三悔堂)에 들어갔는데,

22) 옥과(玉果) : 백제 때 과지현(果支縣)[과혜(果兮)라고도 함]으로 불렸는데, 신라 경덕왕(景德王) 때 옥과(玉果)로 고쳐서 추성군(秋成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고, 고려 초기에는 보성군(寶城郡)에 편입시켰으며, 명종 때 옥과현이 되어 조선시대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옥과의 별호는 과지(果支)·설산(雪山)이다. 1895년에 제도가 바뀌어 현감 대신 군수를 두었으며, 1908년에는 옥과현을 폐지하고 창평군에 합하였다. 그 뒤 1914년에 다시 곡성군에 이속되었다.

23) 목동(木洞) : 곡성군 옥과면 설옥리에 있는 마을이다.

24) 정봉여(鄭鳳汝) : 정동원(鄭東源)의 자(字)이다.

25) 정운람(鄭雲藍) : 정봉헌(鄭鳳紘, 1852~1918)을 말함. 자는 언국(彦國), 호는 운람(雲藍), 본관은 하동(河東)이다. 아버지는 호계(浩溪) 재중(在中)으로, 곡성 오산면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영특하여 12살에 처음으로 서울에서 과거시험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그의 신이한 재주를 칭찬하지 않음이 없었다. 13살에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 문하에 나아갔다. 경학원 강사를 지냈으며, 문집으로 《운람집(雲藍集)》이 전한다.

26) 현합(賢咸) : 상대방의 삼촌을 높여 이르는 말이다.

27) 담녕와(淡寧窩) : 제갈하백(諸葛夏帛, 1855~1918)을 말한 듯하다. 자는 세량(細凉), 호는 담녕(澹寧), 본관은 남양(南陽)이다. 아니면 제갈하백이 살았던 창평군 화면 청단리(현재 곡성군 오산면 청단리)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기쁘기가 낙이 생겨나는 것 같았다. 일찍 밥을 먹은 후 작천(鵲川)<sup>28)</sup>의 해은(海隱) 여방섭(呂邦燮)<sup>29)</sup> -관직은 의관(議官)이다- 씨가 자리에 들어왔는데, 처음 보는데도 구면과 같았다. 동반하여 10여 리를 가다가 얘기를 다하지 못한 채 곧바로 헤어진 후 집에 돌아왔다. 사형(査兄) 서상의(徐相議)<sup>30)</sup>씨가 윤복여(尹福汝)씨와 함께 찾아왔다.

二日。乙未。陽而風。訪淡寧窩，敘離亂後積懷。歸路入三悔堂，歡如樂生。早飯後，鵲川呂海隱【官義官，名邦燮】氏入座，一面如舊。同爲作伴，行過十餘里，未盡情話，而旋別歸家。査兄徐相議氏，與尹福汝氏同來。

1912년 2월 3일. 병신. 맑은 후 바람 불고 흠비 음. 무료하게 지냈다. 춘분이다.

初三日。丙申。陽而風霾。無聊而過。春分。

1912년 2월 4일. 정유. 맑은 후 바람. 손자들을 데리고 놀면서 지냈다. 초四日。丁酉。陽而風。弄兒孫而過。

1912년 2월 5일. 무술. 맑음. 지곡(芝谷)<sup>31)</sup>의 정운식(鄭雲寔)<sup>32)</sup> -자는 흥여(興餘)- 이 찾아왔기에 함께 정자에 올라가 마시고 갔다. 석양 무

28) 작천(鵲川) : 창평군 화면 작천리로, 현재 곡성군 오산면 선세리 작천 마을을 이른다.

29) 여방섭(呂邦燮, 1854~?) : 자는 사연(士彦), 호는 해은(海隱), 본관은 함양(咸陽)이다. 저곡(樛谷) 칭(稱)의 후손이고, 아버지는 동표(東表)로, 곡성 옥과 출신이다. 일찍 서울에서 노닐어서 행 의관(議官)에서 통정대부에 올랐으며, 무정(茂亭) 정만조(鄭萬朝)나 하정(荷汀) 여규형(呂圭亨) 등과 사귀었다.

30) 서상의(徐相議) : 김영찬의 사돈, 아들 인수(寅洙)의 장인이다. 달성인이다.

31) 지곡(芝谷) : 창평군 내남면 지곡리로, 현재 담양군 남면 지곡리에 해당된다.

32) 정운식(鄭雲寔, 1868~1918) : 초명은 운구(雲九), 자는 흥여(興汝), 본관은 영일(迎日)이다. 정철(鄭澈)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인원(仁源)이며, 담양군 남면 지곡리에서 살았다.

럽에 <계사전(繫辭傳)> 10장의 끝을 보았는데, 소주(小註)의 결어(結語)에 “부모가 낳는 것이 곧 천지가 낳는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지라도 어찌 부모 밖에 별도로 천지가 있어서 낳겠는가?”라는 문장이 의미가 있어서 기록해둔다.

五日。戊戌。陽。芝谷鄭雲寔字興餘來，共飲亭上而去。斜陽看繫辭十章終，小註結語，“殊不知父母之生，即天地之生也，豈於父母之外，別有天地之生乎？”一段有意而記之。

1912년 2월 6일. 기해. 맑음. 삼을 심었다. 산아(産兒, 갓난아기)가 두둑증(斗毒症)이 있어서 의원에게 침을 놓게 하고, 멀리 나가 달걀을 칠했더니 흰줄이 사라졌다.

六日。己亥。陽。種麻。産兒有斗毒症，令醫針刺，出迤塗鷄卵白條漸。

1912년 2월 7일. 경자. 맑음. 반룡(盤龍)<sup>33</sup>의 차(車)의원이 와서 약호(藥糊, 고약)를 붙이게 했다.

七日。庚子。陽。蘇龍車醫來，教付藥糊。

1912년 2월 8일. 신축. 맑았다가 다시 흐려짐. 온종일 아들을 간호했다.

八日。辛丑。陽復陰。終日護兒。

1912년 2월 9일. 임인. 흐리고 비. <중용>의 <귀신장(鬼神章)>을 보았는데, 정자(程子)의 설을 유양(游楊)<sup>34</sup>이 얻었다고 하는 설은 옳지

33) 반룡(盤龍) : 담양군 무면 반룡촌으로, 현재 담양군 담양읍 반룡리에 해당된다.

34) 유양(游楊) : 유씨와 양씨. 정문사선생(程門四先生)의 한 명으로 일컬어지는 유작(游酢, 1053~1123)과 양시(楊時, 1053~1135)를 아울러 부른 말이다. 유작의 자는 정부(定夫), 호는 광평(廣平), 시호는 문숙(文肅)이며 건양(建陽) 사람이다. 양시의 자는 중립(中立), 호는 구산(龜山), 시호는 문정(文靖)이며 검남(劍南) 사람이다. 그의 학문은 나중언(羅從彦)과 이동(李

않다. 노담(老聃, 노자)의 ‘죽어도 잊혀지지 않는 것을 장수라고 한다. [死而不亡曰壽]<sup>35)</sup>라는 설은 더욱 불가하다.

九日。壬寅。陰雨。看《中庸》鬼神章，程子之說爲得游揚之說，不可。老聃死而不亡曰壽之說，尤不可。

1912년 2월 10일. 계묘. 맑음. 의원 집에 가서 병을 물었다.

十日。癸卯。陽。問病于醫家。

1912년 2월 11일. 갑진. 약간 맑음.

十一日。甲辰。微陽。

1912년 2월 12일. 을사. 약간 맑다가 바람 봄.

十二日。乙巳。微陽而風。

1912년 2월 13일. 병오. 맑다가 바람. 닳아진 자리를 꿰맸다.

十三日。丙午。陽而風。補磨席。

1912년 2월 14일. 정미. 맑음.

十四日。丁未。陽。

### 동인기(同人記)

#### 同人記

同) 등을 거쳐 주자에게로 이어져 이학(理學)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35) 죽어도 …… 장수라고 한다 : 《노자》 제33장에 나온 것으로, 원래는 ‘死而不亡者壽’라고 나온다.



1912년 2월 14일. 정미. 맑음.<sup>36)</sup> 장성의 사돈집에 도착했다.

十四日。丁未。陽。到長城查家。

1912년 2월 15일. 무신. 반은 흐리고 반은 맑음. 연속해서 사돈집에 머물렀다.

十五日。戊申。半陰半陽。留連查家。

1912년 2월 16일. 기유. 맑고 바람이 분. 돌아오는 길에 친구 김윤교(金潤敎) 집을 방문했다.

十六日。己酉。陽而風。回路，訪情交金潤敎宅。

1912년 2월 17일. 경술. 계속 머무르며 상서(相書, 관상책)를 읽고 기록하였다. 윤교가 두루마리 종이 1축을 주었다.

十七日。庚戌。留連，覽相書記之，潤敎惠周紙一軸。

#### <신유여(神有餘, 정신이 넉넉함)>

정신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눈빛이 맑고 밝으며, 바라볼 때 결눈질을 하지 않는다. 눈썹이 수려하고 길며, 정신은 솟구쳐 움직이고, 용모는 깨끗하며 행동거지는 대범하다. 시원하여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가을달이 서리 내린 하늘을 비추는 것 같고, 우뚝하여 가까이서 보면 마치 그 온화한 바람이 따뜻한 봄기운을 흔드는 것 같다. 어떤 일에 임하면 강하고 굳세기가 마치 맹수가 깊은 산길을 가는 듯 하고, 무리에서 벗어나 소요할 때는 마치 붉은 봉황이 구름 위를 나는 듯하다.

앉아 있을 때에는 굳센 돌처럼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을 때에는 깃든 새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걸어갈 때에는 양양하여 평수(平水)가 흐르는 듯 하고, 서 있을 때에는 드높아서 봉우리가 우뚝 솟은 듯 하다. 말은 망녕되

36) 원문에 2월 14일이 두 번 나온다.

게 발설하지 않고, 성품은 망녕되게 조금하지 않아서, 희로(喜怒)로 그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영욕(榮辱)도 그 지조를 바꾸지 못한다.

만 가지 형태가 눈앞에 분분히 어지러워도 마음이 늘 한결같다면, 정신이 여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정신이 여유가 있는 자는 상등의 귀한 사람이니, 흥사와 재앙이 몸에 침입하지 않고, 천록(天祿)<sup>37)</sup>이 무궁하리라. 神有餘。

神有餘也者, 眼光清瑩, 顧眄不斜。眉秀而長, 精神聳動。容色澄澈, 舉止汪洋。恢然遠視, 若秋月之照霜天。巍然近矚, 似和風之動陽春。臨事剛毅, 如猛獸之步深山。出衆逍遙, 似丹鳳而翔雲路。其坐也, 如介石不動。其臥也, 如棲鴉不搖。其行也, 洋洋然如平水之流。其立也, 昂昂然如孤峯之聳。言未妄發, 性不妄躁。喜怒不動其心, 榮辱不易其操。萬態紛錯于前, 而心常一, 則可謂神有餘也。神有餘也者, 上貴之人, 兇災不入其身, 天祿永終矣。

<형유여(形有餘, 형상이 넉넉함)>

형체가 여유가 있는 사람은 머리가 둥글고 정수리가 두터우며, 배와 등은 풍성해야 한다. 이마는 넓고 입은 모가 나야 하며, 입술은 붉고 치아는 깨끗해야 한다. 귀는 둥글어 바퀴를 이루어야 하고, 코는 곧고 우뚝해야 한다. 눈은 흑백이 분명하고 눈썹은 수려하고 성글어야 하며, 어깨와 팔은 가지런하고 두터우며, 가슴은 평평하고 넓어야 한다. 배는 둥글고 아래로 치지며, 걷고 앉을 때는 단정해야 한다.

오악(五嶽)<sup>38)</sup>은 조정에서 모두 일어나듯 하고, 삼정(三停)<sup>39)</sup>은 서로 균

37) 천록(天祿) : 하늘이 내려 준 복록이란 뜻으로, 국가의 운명을 가리키기도 한다. 순(舜) 임금 이 우(禹) 임금에게 선위(禪位)할 때에 이르기를 “사해가 곤궁해지면 천록이 영영 끊어질 것이다.[四海困窮, 天祿永終]”고 경계한 데서 온 말이다.(《서경·대우모(大禹謨)》) 그러나 여기에서의 영종(永終)은 하늘의 복록을 끝까지 받는다는 내용이다. 즉 “잠으로 중도를 잠으면 천록을 끝까지 받는다.[允執厥中, 天祿永終]”라고 한 것이다.(《한서(漢書)》 <제왕(齊王)·책립문(策立文)>)

38) 오악(五嶽) : 얼굴 중에 동서의 양쪽 관골과 남북의 이마와 턱을 오악이라고 한다. 이 오악이 코를 향하여 읊하고 절하는 듯 서로 마주보는 것을 의미한다.

39) 삼정(三停) : 얼굴을 세 부분으로 나눈 것이다. 즉 머리털에서 눈썹까지를 상정(上停)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길면서 풍부하며 모나면서 넓으면 귀하게 된다. 눈썹에서 콧마루까지를 중정

형이 맞아야 한다. 살은 두둑고 뼈는 가늘며, 팔은 길고 발은 모나야 한다. 멀리서 바라보면 우뚝하게 다가오는 듯하고, 가까이 살펴보면 분명하게 떠나가는 듯하니, 이것이 모두 형상이 여유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형상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장수하고 병이 없으며, 부귀하며 영화롭게 살 것이다.  
形有餘。

形有餘者，頭圓頂厚，腸背豐隆。額闊口方，脣紅齒白。耳圓成輪，鼻直如膽。眼分黑白，眉秀疎長。肩膊齊厚，胸前平曠。腹圓垂下，行坐端正。五嶽朝起，三停相稱。肉膩骨細，手長足方。望之巍巍然而來，視之昭昭然而去，此皆謂形有餘也。形有餘也者，長壽無病，富貴之榮矣。

1912년 2월 18일. 신해. 호림. 청명(淸明)이다. 하만(河晩)<sup>40</sup>에 이르러서 김낙주(金洛柱)씨 - 자는 인초(寅初), 호는 용산(龍山) - 와 유원효(柳遠黻)씨 - 자는 기지(基砥), 호는 농아(聾啞) - 를 방문했다. 서로 담소하다가 농아음(聾兒吟)을 들었다.

十八日。辛亥。陰。淸明。到河晩，訪金洛柱氏【字寅初，號龍山】，柳遠黻氏【字基砥，號聾啞】，相與談笑，聞聾兒吟。

옛날에 익힌 것은 쓸모가 없고 신식에는 귀머거리라,	舊習無用新式聾
충언을 말하지 않으니 입이 있어도 병어리라네.	忠言不語有口啞
상도가 어지럽고 이치가 어긋나니 들어도 귀머거리요,	亂常悞理聞已聾
풍속이 바뀌고 변해지니 보아도 병어리라네.	易俗移風見則啞

밤에는 우리에서 잠자는 돼지처럼 귀머거리 되고,	夜作麕圈宿彘聾
낮에는 밭에서 밭기는 소처럼 병어리 된다네.	晝爲野田耕牛啞
문을 나서면 인형과 짝하다 문에 들어오면 부처이니,	出門伴偶入門佛

(中停)이라고 하는데, 우뚝하면서 바로고 높으면서 고요하면 오래 살게 된다. 인중(人中)에서 아래턱까지를 하정(下停)이라고 하는데, 모나면서 풍만하고 단정하면서 두터우면 부(富)하게 된다.

40) 하만(河晩) : 현재 전남 장성군 북하면 용두리 하만 마을이다.

누가 인간세상이 귀머거리에 병어리임을 알리오

誰識人間聾且啞

1912년 2월 19일. 임자. 맑음. 이날은 곧 한식(寒食)<sup>41</sup>이다. 어제 저물녘에 집에 돌아왔는데, 노독이 풀리지 않아 연일 몸조리를 했다.

十九日。壬子。陽。是日卽寒食也。昨暮還巢，路憊未解，連日調理。

1912년 2월 20일. 계축. 맑음. 성추(省楸, 성묘)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삼밭에 모종하는 것을 감독했다.

二十日。癸丑。陽。省楸回路，監麻苗。

1912년 2월 21일. 갑인. 성묘를 했다. 또 예(禮)에 관한 글을 보았다.

二十一日。甲寅。省楸。又觀禮文。

1912년 2월 22일. 을묘. 흐리고 이슬비 내림. 《주역》을 보았다.

二十二日。乙卯。陰微雨。觀易。

1912년 2월 23일. 병진. 맑음. 생모의 담제(禫祭)<sup>42</sup>를 지내기 위해 문암리(門岩里)<sup>43</sup>에 도착했다.

二十三日。丙辰。陽。生母禫祭次，到門岩里。

1912년 2월 24일. 정사. 맑고 바람. 죽사(竹史) 조기섭(趙驥燮)씨와 함께

- 
- 41) 한식(寒食) : 명절의 하나.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이다. 설날·단오·추석과 함께 4대 명절의 하나이며, 한식에는 성묘를 한다.
- 42) 담제(禫祭) : 초상(初喪)으로부터 27개월 만에, 곧 대상(大祥)을 치른 그 다음 다음 달 하순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에 지내는 제사. 부(父)가 생존한 모상(母喪)이나 처상(妻喪)의 경우에는 초상후 15개월 만에 지낸다. 김영찬의 생모 여양진씨는 1909년 12월 14일에 졸하였다.
- 43) 문암리(門岩里) : 담양군 고면 문암리로, 현재 전남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 문암 마을이다. 김영찬의 생가가 있는 마을이다.

서로 동반하여 가다가 부곡(釜谷)<sup>44</sup> 앞에 이르러 헤어졌다. 평신기(坪新基)<sup>45</sup> 사돈집에 들어가 점심을 먹은 후 과동(果洞)으로 향했다.

二十四日。丁巳。陽而風。與竹史趙驥燮氏，相與作伴，到釜谷前別離。入坪新基查家，午飯後，向果洞。

1912년 2월 25일. 무오. 맑음. 과동(果洞)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二十五日。戊午。陽。自果洞還巢。

1912년 2월 26일. 기미. 맑고 바람. 낄삼밭[挾麻田]에 가 봤다.

二十六日。己未。陽而風。看挾麻田。

1912년 2월 27일. 경신. 맑음. 하루 일이 똑같다.

二十七日。庚申。陽。日事亦然。

1912년 2월 28일. 신유. 맑고 바람. 울타리를 쳤다.

二十八日。辛酉。陽而風。結籬。

1912년 2월 29일. 임술. 문생(門生)들이 수계(修禊)<sup>46</sup>를 함께 제익(諸益, 여러 벗)과 함께 술을 마셨다. 점심을 먹은 후 어린 손주를 데리고 모래톱을 거닐며 들뜬 풍경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다 돌아왔다. 해가 저물 때 잠시 비와 진눈깨비가 섞여 내렸다. 이십구일은 그믐이다.

44) 부곡(釜谷) : 담양군 고면 부곡으로, 현재 전남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 가마골(부곡)을 말한다. 1760년경에 옥천조씨 문중의 황씨 할머니가 광덕리(지금의 문암리)에서 두 아들을 데리고 넘어와 살았다.

45) 평신기(坪新基) : 현재 전남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 평신기 마을을 말한다. 1650년경에 마을이 형성되었다.

46) 수계(修禊) : 물가에서 노닐면서 불길한 재앙(災殃)을 미리 막던 풍속으로, 보통 3월 3일에 행하였다. 진(晉)나라 왕희지(王羲之)의 난정수계(蘭亭修禊) 고사가 유명하다.

二十九日。壬戌。門生修禊，與諸益會飲。午飯後，携穉孫，踏芳洲，望野色而歸。日暮時，乍雨雜霰。二十九日晦。

1912년 3월 1일. 계해. 봄꿈을 깨지 않은 채 혼(魂)이 강물에 떠돌았는데, 손으로 언덕을 붙잡았지만 몸이 물속에 빠진지라 몹시 두려워 떨다가 잠이 깬다. 정신이 황홀하여 홀연히 생각해보니, 물[水]이란 것은 땅에 지극히 가까운 것이지만 그 기(氣)는 동(動)이요, 그 성질은 차갑고[寒], 그 색은 검다[黑]. 그 형상은 아래로 흘러가는[下] 것으로, 바깥은 어둡지만[暗] 안은 밝다[明]. 불[火]이란 것은 항상 하늘[天]을 향하는 것이지만 그 기(氣)는 정(定)이요, 그 성질은 뜨겁고[熱], 그 색은 붉다[赤]. 그 형상은 위로 올라가는[上] 것으로, 안은 어둡지만[暗] 밖은 빛난다[光].

물의 동(動)은 양(陽)이고, 불의 정(定)은 음(陰)이다. 물의 차가운 것은 북쪽[北]과 같고 때[時]로 말하면 겨울[冬]이 되며, 불의 뜨거운 것은 남쪽[南]과 같고 때로 말하면 여름[夏]이 된다. 물의 검은 색은 북쪽에 있는 것이 마땅하고, 불의 붉은 색은 남쪽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것은 천기(天氣)가 하강하는 것과 같고, 불이 위로 올라가는 것은 지기(地氣)가 상승하는 것과 같다.

물과 불이 곧 음과 양이라면 무엇이 음이고 무엇이 양일 것인가? 물의 기운은 양이지만, 성질은 음이고, 불의 기운은 음이지만, 성질은 양이다. 괘획(卦畫)으로 말하자면, 감(坎)이 양이 되고 리(離)가 음이 된다. 괘위(卦位)로 말하자면, 남쪽이 양이 되고 북쪽이 음이 된다. 괘서(卦序)로 말하자면, 감(坎)이 음이 되고 리(離)가 양이 된다. 일월(日月)로 말하자면, 감(坎)이 월(月)이 되고 리(離)가 일(日)이 된다. 방(方)으로 말하자면, 동쪽이 양이 되고 리(離)가 거기에 있으며, 서쪽이 음이 되고 감(坎)이 거기에 있다. 남쪽이 양이 되고 리(離)가 거기에 있으며,

북쪽이 음이 되며 감(坎)이 거기에 있다.

그렇다면 선천은 생괘(生卦)로서 대대(對待)<sup>47</sup>하는 음양이요, 후천은 패리(卦理)로서 유행(流行)하는 음양이다. 음양(陰陽)은 곧 두 기운이고, 두 기운은 곧 하나의 이(理)이니, 하나의 이는 무슨 물건인가? 오희라, 태극이로다.

날씨는 맑고 바람이 불다가 저물녘에 비가 조금 뿌렸다.

三月。初一日。癸亥。春夢未曉，游魂周一江水，手攀岸身陷水，慄慄危懼而醒。精神恍惚，忽然思量，則水者切比於地，而其氣動，其性寒，其色黑。其象下，外暗內明。火者常向於天，而其氣定，其性熱，其色赤。其象上，內暗外光。水之動陽也，火之定陰也。水之寒同北，於時爲冬。火之熱同南，於時爲夏。水之黑宜居北，火之赤宜居南。水之下同天氣下降，火之上同地氣上昇。水火卽陰陽，誰爲陰，誰爲陽？水氣陽而性陰，火氣陰而性陽也。以卦畫論之，則坎爲陽，離爲陰。以卦位論之，南爲陽，北爲陰。以卦序論之，則坎爲陰，離爲陽。以日月論之，坎爲月，離爲日。以方論之，東爲陽離居之，西爲陰而坎居之，南爲陽而離居之，北爲陰而坎居之。然則先天以生卦對待之陰陽，後天以卦理流行之陰陽也。陰陽卽二氣，二氣卽一理，一理卽何物也？嗚呼，太極日氣陽而風，薄暮雨少洒。

1912년 3월 2일. 갑자. 맑다가 바람이 임. 채신지우(採薪之憂)<sup>48</sup> 때문에 고초례(苦焦醴, 고추 단술)를 복용하며 조리했다. 저물녘에 세찬 바람과 갑작스런 우레가 치더니 비가 쏟아졌고, 잠간사이에 개었다.

二日。甲子。陽而風。以採薪之憂，服苦焦醴而調理。日夕疾風迅雷

47) 대대(對待) : 서로 상반되는 것이 서로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역》에서 음양(陰陽)을 대대관계(對待關係)라고 한다.

48) 채신지우(採薪之憂) : 땀나무를 하기 어려운 정도로 몸이 불편하다는 뜻으로, 자신의 병환을 완곡하게 비유하는 표현인데, 《맹자》 <공손추 하(公孫丑下)>에 나온 말이다.

而雨，乍晴。

1912년 3월 3일. 을축. 맑음. 갠 하늘이 명랑했는데, 오늘이 곧 상사(上巳, 삼진날)<sup>49)</sup>이다. 날이 따뜻하고 바람이 화순하여 온갖 생령들이 즐거워하고 초목들도 활짝 피는데, 내 마음은 그렇지 못하였다.

三日。乙丑。陽。霽天明朗，是日卽上巳也。日暖風和，群生得樂，草木敷榮，我心不獲也。

1912년 3월 4일. 병인. 맑음. 이날은 곡우(穀雨)<sup>50)</sup>이다.

四日。丙寅。陽。是日穀雨也。

1912년 3월 5일. 정묘. 큰비가 내려 계곡물이 넘쳐흐렀다.

五日。丁卯。大雨，溪水漲流。

1912년 3월 6일. 무진. 흐림. 이슬비가 내렸다.

六日。戊辰。陰。微雨。

1912년 3월 7일. 기사. 반쯤 흐리고 반쯤 맑음. <군석(君奭)>편을 읽었는데, ‘고인은 질박함을 숭상하기 때문에 이름을 많이 불렀다.[古人尙質，故多名之]<sup>51)</sup>’라는 구절을 읽고서 지금 세상에서 서로 이름을 부르

49) 상사(上巳) : 음력으로 3월 초사흘날로 삼진날을 말한다. 이날은 들뜬에 나가서 꽃놀이를 하고 새 풀을 밟으며 봄을 즐기기 때문에 답청절(踏青節)이라고도 하였다. 이날은 여러 가지 민속놀이를 하고 여러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50) 곡우(穀雨) : 청명(淸明)과 입하(立夏) 사이에 들며, 음력으로는 3월 중, 양력으로는 4월 20일 경에 든다. 봄비가 내려 백곡(百穀)이 윤택해진다는 뜻이며, 이때 농가에서는 못자리를 만들기 위해 범씨를 담근다.

51) 고인은 …… 불렀다 : 《서경(書經)》 <주서(周書)·군석(君奭)편 제1장에서 ‘주공이 대략 말씀하시길 군석아[周公若曰君奭]’의 전(傳)에 “군(君)이란 높이는 칭호이고, 석은 소공(召公)의 이름이니, 고인상질하여 상여어에 다명지하였다.[君者，尊之之稱，奭，召公名也。古人尙



는 것이 반드시 장래에 질박함을 숭상하는 기미가 될 것임을 알겠다.  
七日。己巳。半陰半陽。讀<君爽>篇，見‘古人尚質，故多名之’語，知  
今世相稱名，必將來之尚質之幾。

1912년 3월 8일. 경오 반쯤 흐리고, 반쯤 맑음.

八日。庚午。半陰半陽。

1912년 3월 9일. 신미. 맑음. 산(山)에 몽매(蒙昧)한 기운이 있으니, 이것  
은 <홍범(洪範)>의 ‘우(雨)·제(霽)·몽(蒙)·역(驛)·극(克)’<sup>52</sup>이 앞으로  
닥쳐올 조짐이다.

九日。辛未。陽。山有蒙昧，此是<洪範>‘雨·霽·蒙·驛·克’之來兆也。

1912년 3월 10일. 임신. 맑다가 바람.

十日。壬申。陽而風。

1912년 3월 11일. 계유. 맑다가 바람.

十一日。癸酉。陽而風。

1912년 3월 12일. 갑술. 반쯤 흐리다 반쯤 맑음. 저물녘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밤새도록 내렸다.

十二日。甲戌。半陰半陽。斜陽雨通宵。

質，相與語，多名之.]”라는 내용이 있다.

52) 우(雨) …… 극(克) : 《서경》 <홍범구주(洪範九疇)>의 일곱 번째 계의(稽疑)에서 거북점의  
조짐의 종류를 말한 것이다. 《서경집전》에서는, 비[雨]는 수(水)의 조짐이고, 갠[霽]은 화  
(火)의 조짐이고, 흐림[蒙]은 목(木)의 조짐이고, 오락가락함[驛]은 금(金)의 조짐이고, 소나기  
[克]는 토(土)의 조짐이라고 하였다.

1912년 3월 13일. 을해. 흐리고 비. 《격몽요결》<sup>53)</sup>을 보았다.

十三日。乙亥。陰雨。覽《擊蒙要訣》。

1912년 3월 14일. 병자. 비가 정오까지 개지 않았다. 반은 흐리고 반은 맑았다.

十四日。丙子。雨未霽至午。半陰半陽。

1912년 3월 15일. 정축. 반은 흐리고 반은 맑음. 석양에 비가 조금 뿌렸다.

十五日。丁丑。半陰半陽。夕陽雨少洒。

1912년 3월 16일. 무인. 맑음. 아침에 푸른 안개가 사방에 자욱하였는데, 궁한 백성들은 보리 수확에 이롭지 않을 것을 근심했다. 몸소 면화를 파종했다.

十六日。戊寅。陽。朝青霧四塞，窮民憂麥不利。躬播棉花種。

1912년 3월 17일. 기묘. 먼지는 맑다가 뒤에는 흐림. 석양에 비가 흠족히 내렸다. 읍내 사는 국채준(鞠琛俊) -자(字)가 치숙(致叔)- 이 비를 뚫고 왔다.

十七日。己卯。先陽後陰。夕陽雨洽注。邑鞠琛俊【字致叔】，冒雨以來。

1912년 3월 18일. 경진. 맑음. 평신기(平新基)에 사는 나규운(羅奎運)의 부인인 -17일에 죽음- 설씨(偈氏)의 부음이 왔다.

十八日。庚辰。陽。平新基羅奎運室內夫人【十七棄世】偈氏訃音來。

53) 격몽요결 : 1577년에 이이(李珥)가 일반 학도들에게 도학(道學)의 입문을 지시하기 위해서 저술한 책이다.

1912년 3월 19일. 신사. 맑고 바람. 못자리를 만들도록 했다.

十九日。辛巳。陽而風。命秧版。

1912년 3월 20일. 임오. 오늘은 입하(立夏)이다. 지곡(芝谷)의 정상원(鄭象源)·정종원(鄭琮源) 중형제가 경양(景陽)의 김영후(金永厚)와 함께 위문차 방문해주었다. 오후에는 함께 동행하여 지곡의 녹실(綠室)<sup>54</sup> 어르신 댁에 도착했다. <지평공행장(持平公行狀)>을 보여주어 그로 인해 기록한다.

二十日。壬午。是日立夏也。芝谷鄭象源·琮源從兄弟，與景陽金永厚，慰問次枉臨。午後同爲作伴，到芝谷綠室丈宅，示以<持平公行狀>，因以記之。

<고(故) 통훈대부(通訓大夫) 사헌부(司憲府)지평(持平), 오천(烏川) 정재건(鄭在楗)<sup>55</sup> 행장(行狀)>

공의 이름은 재건(在楗)<sup>56</sup>이고 자는 계주(啓周)인데, 본조 경술년(1910) 9월 4일에 살고 있는 옥과의 집에서 순절했다. 대개 이때에 섬 오랑캐가 창양(搶攘, 몹시 어수선했)하여 우리나라를 도둑질함에 8도가 운상(淪喪, 모두 망함)하고 종묘사직이 폐허가 되었다. 이에 구신(舊臣) 중에는 의리에 죽은 자가 거의 12~13명이었지만, 척촌의 비수를 가지고 목을 찢러 자살을 맹세함으로써 뜨거운 풍모와 늠름한 기운이 천지에 가득하게 한 것은 유독 충정공(忠貞公) 민영환(閔永煥)<sup>57</sup>과 공 두 사람뿐이었다.

54) 녹실(綠室) : 정해만(鄭海晩, ?~1913)의 호이다. 자는 성보(成甫), 본관은 영일(迎日)이다. 정철(鄭澈)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해춘(海春)이며, 담양군 남면 지곡리에서 살았다.

55) 정재건(鄭在楗, 1843~1910) : 자는 계주(啓周), 호는 소송(小松), 본관은 영일(迎日)이다. 1888년 식년 문과에 급제한 이후 전적(典籍), 지평(持平), 정언(正言) 등을 역임하고, 시국이 혼란해짐을 보고 사직하여 고향에서 학문에 전념하고 있다가, 1910년 한일합병이 되자, 나라의 운명을 한탄하고 자결하였다.

56) 楗은 楗으로 바로 잡는다.

57) 민영환(閔泳煥, 1861~1905) : 자는 문약(文若)이고, 호는 계정(桂庭)이며, 본관은 여흥(驪興)이다. 1878년 문과에 장원급제하였으며, 21세에 성균관 대사성이 되었다. 1896년 특명전권공

공의 성은 정(鄭)으로, 영일인(迎日人)이다. 먼 조상은 이름이 균지(均之)인데, 고려에서 벼슬하여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문하시랑(門下侍郎) 평장사(平章事)를 지냈다. 후대에 도 고관대작이 대대로 이어져 석학이 끊이지 않았으니, 3대를 전하여 문정(文貞)이 나왔고 2대를 전하여 정숙(貞肅)이 나왔으며, 또 4대를 전하여 문청(文淸)에 이르렀다. 문청은 곧 송강(松江) 선생이며, 선생의 8대 뒤에 공이 태어났다.

문정은 이름이 사도(思道)이고, 고려 말의 명신으로 충실 근면하고 절의가 있었으며, 익찬공신(翊贊功臣) 정당문학(政堂文學) 진현관대제학(進賢館大提學)에 올랐다. 오천군(烏川君) 정숙은 이름이 연(淵)으로, 우리 태종(太宗)·세종(世宗) 양조(兩朝)에 이르러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함으로써 벼슬하여 정헌대부(正憲大夫) 병조판서(兵曹判書)가 되었고 의정부 좌의정(議政府左議政)에 증직되었다. 문청은 이름이 철(澈)로, 목릉(穆陵, 선조) 때 서인(西人)의 영수(領袖)가 되어 관직이 좌의정(左議政)에 올랐고, 광국(光國)·평난(平難)의 두 공훈으로 책록되어 인성부원군(寅城府院君)에 봉해졌다.

증조의 이름은 취하(就河)<sup>58</sup>로, 영조 무오년(1738)에 사마 양시에 합격했고 호가 이간재(易簡齋)이다. 휘 검(檢)과 휘 최환(最煥)은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인데, 두 분 모두 덕을 숨기고 벼슬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부안 김씨 덕감(德鑑)의 딸로, 여행(女行)이 있었으며, 헌종(憲宗) 계묘년(1843) 5월 25일에 공을 낳았다.

공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영특함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서 6~7세에 큰형과 작은 형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 곁에서 기억하여 암송했는데 한글자도 착오가 없었다. 8세 때는 《소학(小學)》에 통달해서 아버지 설송(雪松)공은 그가 원대한 그릇이 될 것임을 알고 기특하게 여겼다.

사료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戴冠式)에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서구 선진국의 외교관으로 활동하면서 신문명을 눈으로 체험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양력 11월 30일 자결하였다. 시호는 충정(忠正)이다. 저서로 《해천추범(海天秋帆)》, 《사구속초(使歐續草)》, 《천일책(千一策)》 등이 있다.

58) 취하(就河) : 정취하(鄭就河, 1691~1759)로, 자는 회원(會源), 호는 이간재(易簡齋), 본관은 영일(迎日)이다. 송강(松江) 정철(鄭澈)의 5대손이며,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翊)과 친교가 있었다.

이 해에 어머니 상을 당했는데 애훼(哀毀)<sup>59</sup>함이 성인과 같았다. 어머니를 잃고 큰형수 고씨(高氏)에게 맡겨져서 길러졌는데, 그를 섬기기를 어머니처럼 하여 종신토록 쇠해지지 않았다. 무진년(1868)에 설송공이 죽자 집상(執喪) 예를 다하였고 최질(衰絰, 상복)을 몸에서 벗지 않았다.

이보다 앞서 아버지의 명령으로 7경을 공부해서 과거에 응시했지만 누차 떨어졌었다. 상복을 벗자[外除]<sup>60</sup> 마침내 서울로 가서 성균관에 나가서 수십 년 동안 가난을 겪으면서 거친 나물만 먹었다. 사람들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데 공은 그것에 처한 것을 편안하게 여겨 조금도 어려워하는 낮빛이 없이 독서를 더욱 부지런히 하였으니, 그 심지(心志)가 돈독함이 어려서부터 이미 그러한 것이었다.

무자년(1888) 식년시(式年試)에 병과로 뽑혔고, 임진년(1892)에 부사과(副司果)에 제수되었으며, 9월에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으로 승진, 계사년(1893)에 통훈대부(通訓大夫)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으로 옮겼으니, 대개 이것이 공이 지내온 관직의 선후이다.

공은 벼슬에 급급(汲汲)한 뜻이 없어 권세를 쫓지도 않았고 부탁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다. 서울[長安]이 바다와 같아 거마(車馬) 소리가 떠들썩하였지만, 문을 닫아걸고 자취를 숨겨서 고요하기가 한사(寒土)와 같았다. 만년에는 낙척(落拓)하여 향리(鄉里)로 돌아와서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경전공부에 힘쓰고, 가동에게 일과를 주어 농사일에 힘쓰며, 세간(世間)의 일체 영욕(榮辱)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그 마음을 두지 않았다.

사람들이 혹 기신(起身)하기를 권하면 곧 웃으면서 말하기를, “난(亂)을 만나 황야로 은거하는 것은 옛날에도 또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 내게 무슨 서운함이 있겠는가?”라고 하고, 굳게 누워 다시 나아가지 않았다. 선조 문청공(文淸公)<sup>61</sup>의 충청우국지심(忠淸憂國之心)을 사모하여 그 당의

59) 애훼(哀毀) : 부모상을 당하여 몹시 슬퍼해서 몸이 허약해진 것을 말한다.

60) 외제(外除) : 외면으로만 상복을 벗고 속으로는 아직 슬픔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부모의 상에 상기를 마치면 외제한다.《예기(禮記)》 <잡기 하(雜記下)>

61) 문청공(文淸公) : 문청공(文淸公)은 정철(鄭澈, 1536~1593)의 시호이다. 정철의 자는 계함(季涵), 호는 송강(松江), 본관은 연일(延日)이다. 아버지는 돈녕부 판관(敦寧府判官) 정유침(鄭惟沈)으로, 서울 장의동(藏義洞, 지금의 종로구 청운동)에서 태어났다. 1551년 을사사화에 관련되어 유배되었던 아버지가 풀려나자 할아버지의 산소가 있는 전라도(全羅道) 담양(潭陽)

편액을 ‘소송(小松)’이라 하였다.

기유년(1909) 봄에 군(郡)이 폐지되어 학교[鄉校]를 장차 철거하려고 하자,<sup>62)</sup> 공이 유생들을 모아놓고 개연(慨然)하여 이르기를, “국세(國勢)가 이에 이르러 부자묘(夫子廟)가 철거되니, 무릇 우리 고을 사람은 누구인들 통한(痛恨)하지 않겠는가? 내가 마땅히 봉소(封疏) 하리라.”라고 하고 죽음으로써 기약하고 상소문을 이루었으나 마침내 일을 이루지 못하고 끝나게 되었다.

임중환 날에는 의관을 바르게 하여 묘(墓)에 참배하고, 친우들을 방문하여 태연자약하게 담소하면서 근심하는 얼굴빛이 하나도 없었다. 집에 돌아와서는 집안사람들에게 닭을 잡아 점심 반찬을 만들게 하고 처자(妻子)와 함께 즐겁게 먹고 밖으로 나가니,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았는데, 날이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자 집안사람들이 비로소 놀라 급하게 찾아다녔다. 곧 사랑채의 고요하고 후미진 곳에 깨끗하게 소제하고 단정하게 앉아서 손칼[手刀]로 자인(自刃)하여<sup>63)</sup> 피가 흘러 몸을 적신 채 조용히 의리를 위해 목숨을 버려 얼굴 모습이 살아있는 듯 하니, 보는 사람들이 모두 휘둥그레지며 혀를 차면서 큰소리로 “충신이로다. 충신이로다.”라고 말하였다. 부고가 나가자 원근(遠近)에서 들은 자들이 공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어진 사람이나 불초(不肖)한 사람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친척을 애도하듯이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 유서(遺書)에 이르기를, “망국(亡國)의 신하가 구차하게 사는 것은 의리상 옳지 않다. 나는 명치(明治)<sup>64)</sup>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로 맹세하였으므로 9월 4일에 칼을 품고 죽는다.”라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사람이

창평(昌平) 당지산(唐旨山) 아래로 이주하였다. 정철은 과거에 급제할 때까지 10여년을 이곳에서 보내면서, 임억령(林億齡)·양응정(梁應鼎)·김인후(金麟厚)·송순(宋純)·기대승(奇大升) 등에게 학문을 배웠다. 작품으로는 <성산별곡(星山別曲)>·<관동별곡(關東別曲)>·<사미인곡(思美人曲)>·<속미인곡(續美人曲)> 등 4편의 가사와 시조 107수가 전한다.

- 62) 기유(己酉)년 …… 하자 : 1908년에 옥과현을 폐지하고 창평군에 합하였다. 그 뒤 1914년에 다시 곡성군에 이속되었다.
- 63) 손칼로 자인하여 : 정재건은 1910년 황현(黃玿)의 자결 소식을 듣고, “선비는 마땅히 이와 같이 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유서를 남기고 자결하였다고 한다. 정재건이 자결할 때 사용한 칼은 독립기념관에 보관되어 있다.
- 64) 명치(明治) : 일본의 연호로, 1868~1912년에 사용하였다.

세상에 태어나서 당연히 죽어야 할 때 죽는 것은 죽었으나 죽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나의 죽음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부지런히 주경야독하고, 우애를 더욱 두터이 하여 나의 가르침에 부응하도록 하여라.”라고 하였다. 또 “나라를 위해 순절(殉節)하는 것은 신하의 직임이오 내가 죽은 후 모름지기 세 아들을 잘 이끌어서 우리 집안을 잘 보존하도록 하시오”라고 했으니, 이것은 부인과 자식들에게 남긴 것이다.

향년 68세로, 12일 모갑(某甲)에 본현 약천(藥川)<sup>65</sup>의 진좌(辰坐, 동남쪽을 등진 방향) 언덕에 첫째 부인 배씨(裴氏) 묘와 같은 언덕의 십수보(十數步) 떨어진 곳에 따로 장사지냈으니, 유명(遺命)에 따른 것이다.

공은 두 번 장가를 들었으니, 첫째 부인인 성주 배씨(星主裴氏)는 규현(奎賢)의 딸로 일찍 죽고 1녀를 두었다. 이 딸은 울산 김모씨에게 출가했다. 채취인 풍천 노씨(豐川盧氏)는 광태(光泰)의 딸로 옥계(玉溪) 진(稹)<sup>66</sup>의 후손이다. 3남 1녀를 낳았는데, 장남 덕(德)은 경주인(慶州人) 김모의 딸에게 장가들었고, 숙(濬)은 서산인(瑞山人) 유영구(柳永耆)의 딸에게 장가들었으며, 중부(仲父)에게 출계하였다. 익(翼)은 양천인(陽川人) 허극(許極)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딸은 죽산인(竹山人) 박해창(朴海昌)에게 시집갔는데 문과에 급제하고 비서랑(秘書郎)을 지낸 사람이다.

아! 공께서는 품성이 순후(純厚)하고 용모가 단중(端重)하였으며, 사람을 대할 때는 화순하고, 아랫사람을 부릴 때는 너그럽게 하였다. 비록 중이나 여대(輿臺, 하인)라고 할지라도 먼저 은혜롭게 하고 뒤에 잘못을 말했는데, 고구정녕하게 하며 급하게 말하거나 엄한 기색이 없었고 회초리로 때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강직하고 방정한 몸가짐과 확고부동한 뜻은 분육(賁育)<sup>67</sup>도 그 용맹함을 잃었고, 저양(睢陽)<sup>68</sup>도 그 절조를 잃었으며, 문산(文山)<sup>69</sup>도 그

65) 약천(藥川) : 곡성군 입면 약천리를 말한다.

66) 옥계(玉溪) 진(稹) : 노진(盧稹, 1518~1578)을 말한다. 자는 자옹(子膺), 호는 옥계(玉溪)·칙암(則庵), 본관은 풍천(豐川)이다. 1546년(명종 1)에 문과에 급제하여 지평(持平)·형조 참의·병조 판서·이조 판서 등을 역임하였으며, 시호는 문효(文孝)이다.

67) 분육(賁育) : 춘추전국시대 용사(勇士)로, 맹분(孟賁)과 하육(夏育)의 이름이다.

68) 저양(睢陽) : 당나라 현종(玄宗) 때 저양태수(睢陽太守)를 지낸 허원(許遠)을 말한다. 안녹산(安祿山)의 난에 장순(張巡)과 함께 저양성을 지키다가 몇 달을 포위당했으며 결국 성이 함

충을 잃을 정도이다. 그러니 저 은혜를 저버리고 나라는 팔아먹고 적을 위해 주인에게 짓어댄 자들은 마음이 떨리고 쓸개가 찢어지며 부끄러워서 얼굴이 사색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한자(韓子, 한유)가 말하길, “백이와 숙제가 없었다면 어지럽히는 신하와 해치는 자들이 후세에도 계속하여 나왔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공과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의 짝이 되지 않겠는가? 오호라, 아름답구나!

삼가 임자년(1912) 봄에 죽인 정해만(鄭海晩)<sup>70</sup>이 찬술하다.

故通訓大夫 司憲府持平 烏川鄭公 行狀。

公諱再健, 字啓周, 本朝, 庚戌九月四日, 殉節于所居玉果之私室。蓋是時島酋搶攘, 竊我邦國, 八域淪喪, 宗社邱墟。舊臣之死於義者, 殆十二三, 而持尺寸之匕, 誓心穴頸, 烈風凜氣, 充塞乎天地, 獨閔忠貞永煥及公二人而已。公姓鄭, 迎日人。遠祖, 諱均之, 仕麗, 金紫光祿大夫, 門下侍郎, 平章事。自後世襲冠冕, 名碩不替, 三傳而爲文貞, 再傳而貞肅, 又四傳而至文清。文清卽松江先生也, 先生之後八世而公生焉。文貞諱思道, 麗季名臣, 忠勤節義, 翊贊功臣, 政堂文學, 進賢館大提學。烏川君貞肅, 諱淵, 暨我太宗世宗兩朝, 以司馬筮仕, 正憲大夫, 兵曹判書, 贈議政府左議政。文清諱澈, 穆陵時爲西人橫袖, 官左議政, 策光國·平難二勳, 封寅城府院君。曾祖諱就河, 英廟戊午司馬兩試, 號易簡齋。諱檢, 諱最煥, 祖若考也, 兩世皆隱德不仕。妣扶安金氏德鑑之女, 有女行, 癸卯五月二十五日生公。公幼而聰穎絕凡, 兒六七歲時, 聞伯仲讀書, 從傍記誦, 無一字錯誤。八歲而通小學, 考雪松公, 知其爲遠大器, 奇之。是年丁母夫人憂, 哀毀如成人。失怙託邱嫂高氏鞠焉, 事之如慈母, 終身不衰。戊辰雪松公卒, 執喪盡禮, 衰經不離身。先是以親命, 治七經, 屢屈不第。外除遂赴京, 就齋數十年喫貧, 藜藿首蓿。人不堪其苦, 公處之晏如。少無難色, 讀書愈勤, 其心志

락되어 함께 사로잡혀 굴복하지 않고 죽었다.

- 69) 문산(文山) : 문천상(文天祥)을 말함. 송(宋)나라 말엽의 충신(忠臣)으로, 자는 송서(宋瑞), 호는 문산(文山), 시호(諡號)는 충렬(忠烈)이다. 수도 임안(臨安)이 원(元)에 함락된 뒤에도 단종(端宗)을 받들고 근왕군(勤王軍)을 일으켜 원군(元軍)과 싸우다가 잡혀 죽었다.
- 70) 정해만(鄭海晩, ?~1913) : 자는 성보(成甫), 호는 녹실(綠室), 본관은 영일(迎日)이다. 정철(鄭澈)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해춘(海春)이며, 담양군 남면 지곡리에서 살았다.



之篤，從少已然。戊子式擢丙科，壬辰授副司果，九月陞成均館典籍，癸巳遷通訓大夫司憲府持平，蓋公之歷官先後也。公仕宦無汲汲意，不趨權勢，嘯囑趨趨。長安如海，車馬喧闐，而閉戶欽跡，寥寥如寒士也。晚年落拓歸鄉里，教兒而幼經傳，課僮而勤畎畝。世間一切榮辱，初不嬰其心。人或勸起，則笑曰，“遭亂遜荒，古亦有人，於我何憾？”因堅臥不復出。慕先祖文清公忠清憂國之心，扁其堂曰‘小松’。己酉春，郡廢而學校將毀，公會儒生，慨然謂曰，“國勢至此，夫子廟撤，凡我鄉人，孰不痛恨？吾當封疏。”期以身斃疏成，而遂無事乃已。臨終一日，正衣謁墓，歷訪親友，談笑自若，一無戚戚容。及歸，命家人殺鷄爲午膳，共妻子食盡歡而出，人不以爲怪。及暮不歸，家人始驚遑索之，卽於廊舍靜僻處，淨掃端坐，手刀自刃，血淋淋濺身，從容就義，顏貌如生，見者皆瞿然，吐舌嘖嘖謂曰，“忠臣忠臣。”訃出，遠近聞者，無知不知賢不肖，莫不咨嗟涕洟如悲親戚。其遺書曰，“亡國之臣，義不可以苟生。吾誓不在明治之世，故九月四日，伏劍而死。”又曰“人生於世，死於當死，死而不死。汝等勿以我死動念，勤苦耕讀，友愛加隆，以副我訓。”又曰“爲國殉節，臣子之職也。我死後，須導率三子，保我家室。”此遺夫人諸子者也。享年六十八，十二日，某甲，葬于本懸藥川之負辰原，與元配裴氏墓同岡，異窆十數步近，遺命也。公凡再娶，星主裴氏奎賢女，早沒有一女，適蔚山金某。豐川盧氏光泰女，玉溪稹後也。生三男一女，長瀆娶慶州金某女，瀟娶瑞山柳永耆女，出后仲父，瀟娶陽川許極女。女適竹山朴海昌，文秘書郎。噫！公性質純厚，風儀端重，對人以和，御下以寬。雖婢僕與臺，先恩後誨，諄諄然，無疾言遽色，捶楚不加焉。然剛方之操，牢確之志，貴育失其勇，睢陽失其節，文山失其忠。彼負恩賣國，爲賊吠主者，能不心戰膽裂，而忸怩面死土色乎？韓子曰，“微二子，亂臣賊子，接跡於後世。”如公者，非若人之儔也歟！嗚呼！謹狀。壬子春，族鄭海晚，撰。

1912년 3월 21일. 계미. 흐리고 잠깐 비. 정교원(鄭教源)과 정준원(鄭俊源) 두 상갓집에 위문을 갔다. 이어서 친우(親友)를 방문하고, 계속해서 참봉 김용순(金容珣)<sup>71</sup>의 우사(寓舍, 잠시 동안 이사해서 사는 집)

에서 머물렀다.

二十一日。癸未。陰雨暫下。慰問鄭教源俊源兩喪家，歷訪親友，留連參奉金容珣寓舍。

1912년 3월 22일. 갑신. 맑고 바람. 오전에 녹실(綠室)에 들어가 고경(古經)을 토론하고 오후에 돌아왔다. 참봉과 더불어 잠깐 말을 주고받으며, 세속이 어지러워지는 것을 걱정하는 말을 하고 과했다. 고두강(高斗綱)<sup>72)</sup> -자는 천경(天卿)이다- 의 《회과당유고(悔過堂遺稿)》를 보았는데, 장계(藏溪) -성명은 오이정(吳以井)<sup>73)</sup>이며 자는 명중(明仲)이다- 가 그를 추회(追懷)하면서 수필을 적은 것이 있어서 이에 그것을 기록한다.

二十二日。甲申。陽而風。午前入綠室，討論古經，午後還。與參奉暫爲酬酌，憂世俗之似是亂，眞話而罷。看悔過堂【姓高字天卿】遺稿，至藏溪【姓吳，名以井，字明仲】追懷隨錄，因以記之。

나의 벗 고천경(高天卿)은 인품이 매우 높고 쇠락하여 마치 얼음으로 만든 병에 비치는 가을 달과 같았고, 세상맛에 대해서는 담담한 것 같아서 물욕이 침범하지 못했다. 일찍이 나와 더불어 색욕을 논할 때 곧 이르길, ‘남녀 음양의 도는 다만 조화가 생생하는 묘일뿐이니, 어찌 여기에 정(情)을 해당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말했다. 내가 그것을 듣고 나도 모르게 가슴이

71) 김용순(金容珣) : 하서 김인후의 후손으로 참봉을 역임하였으며 장성 등에 거주하였다. 아버지는 김의주(金義柱)이다.

72) 고두강(高斗綱, 1614~1643) : 자는 천경(天卿), 호는 회과(悔過), 본관은 제주(濟州)이다. 고경명(高敬命)의 증손으로, 아버지는 부천(傅川)이다.

73) 오이정(吳以井, 1619~1655) : 자는 명중(明仲), 호는 장계(藏溪), 본관은 나주(羅州)이다. 아버지는 희도(希道)이며, 어머니는 순천김씨(順天金氏) 복흥(復興)의 딸이다. 정홍명(鄭弘溟)의 문인이다. 1639년(인조 17) 사마 양과(司馬兩科)에 합격하고, 1640년 고두강(高斗綱)·정한(鄭漢)을 찾아 산사로 가서 함께 《주역》을 강론하였다. 1650년(효종 1) 태학(太學)에 들어가 이듬해 정시(庭試)에 응하였으나 자급(資級)이 없다는 이유로 낙방하자 고향으로 돌아가 학문에 전력하였다. 유고로 《장계유고》 1책이 있다.

트여 마치 천 길이나 되는 구덩이 속에서 벗어난 것 같았다. 다른 무리들에게서 이와 같은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미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알게 되었다.

일찍이 임오년 여름에 나와 천경이 대자암(大慈庵)<sup>74</sup>에 있으면서 《계몽(啓蒙)》<sup>75</sup>을 읽고 있었는데, 천경이 나에게 이르길, “그대는 음양이 하나의 기(氣)라는 묘리를 아는가?”라고 물어서 내가 “그렇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랬더니 천경이 “다만 이처럼 경솔하게 응대하여 말하는 것은 옳지 않네. 모름지기 굴(屈)한 것은 음이 되고 편[伸] 것은 양이 되는 것은 단지 하나의 기가 굴신 왕복한 것일 뿐, 특별히 두 개의 기가 있어서 양이 되고 음이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네.”라고 하였다. 그 소견의 뛰어난이 이와 같았는데도 성취함이 없이 죽었으니, 한탄스러움을 이길 수 없도다.

吾友高天卿，人品甚高灑落，如水壺秋月。其於世味，淡淡如也，不爲物欲之所侵屈。嘗與余論色欲，乃曰‘男女陰陽之道，只是造化生生之妙，豈可當情於此？’云云。余聞之，不覺爽然，若超出於千仞坑塹中，不是他徒說得如此，已於此處透了。曾在壬午夏，余與天卿，在大慈庵，讀啓蒙，天卿謂余曰，“君知陰陽一氣之妙？”答曰，“然。”天卿曰，“不可只如此草草應對說將去。須得屈而爲陰伸而爲陽，只是一氣之屈伸往復而已，非別有二氣爲陰爲陽者。”其所見之超詣類如此，而不克有成就而死，可勝歎哉！

1912년 3월 23일. 을유. 맑음. 정준원(鄭俊源)의 점차(苦次)<sup>76</sup>에 들어가서 만사(挽辭)<sup>77</sup>를 열람하였다. 녹실장이 손녀 근친(近親)<sup>78</sup>으로 술을 성대

74) 대자암(大慈庵) : 담양군 창평면 용수리의 상월정(上月亭)이 있던 자리가 원래 대자암 터라고 한다. 대자암은 고려 때 세워진 절인데 조선 초에 폐사된 것으로 보이며, 1457년 언양인(彦陽人) 김자수(金自修)가 벼슬을 사임하고 고향인 이곳에 돌아와 이곳에 상월정을 창건하여 손자사위인 함평이씨(咸平李氏) 이경(李儼)에게 양도하였고, 그 후 이경(李儼)은 사위 고인후(高因厚)에게 다시 양도하여 주었다고 한다.

75) 계몽(啓蒙) : 《역학계몽(易學啓蒙)》을 말함. 주희(朱熹)가 초학자를 위해 지은 《주역》의 해설서이다.

76) 점차(苦次) : 거적자리로, 상주가 거주하는 여막을 말한다.

77) 만사(挽辭) : 만사(挽詞). 죽은 사람을 애도하여 지은 글.

78) 근친 : 원문에서의 ‘근친(近親)’은 근친(觀親)의 오키로 보인다. 근친은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와서 친부모를 뵈는 것을 말한다.

하게 차렸다고 하므로, 얼른 녹실택에 이르러서 술을 마셨다. 녹실장을 따라서 함께 계당(溪堂)<sup>79)</sup>에 임하여 하루를 보내고, 정종원(鄭琮源)이 저녁밥을 이바지한다고 하기에 정종원의 집에 들어갔다. 밤이 깊어지자 돌아와 침봉의 우사에서 묵었다.

二十三日。乙酉。陽。入鄭俊源苦次，考閱挽辭。綠室丈以孫女近親酒盛，速到綠室宅，飲酒。隨綠室丈，同臨溪堂竟日，而鄭琮源供夕飯，入琮源宅。夜深而歸，宿于參奉寓舍。

1912년 3월 24일. 병술. 맑음. 집에 돌아옴.

二十四日。丙戌。陽。還巢。

1912년 3월 25일. 정해. 흐림. 가는 비가 내렸다.

廿五日。丁亥。陰。微雨。

<정저암의 육십 회갑 잔치시에 차운하다>	次鄭樗菴六十華甲晬宴韻
육십년의 세월을 지낸 저하당이라,	六十光陰樗下堂
지나온 자취로 상서로움을 살핀다는 명성 향기롭네.	考祥素履以名香
【맑은 이름 퍼진 곳에 말하는 사람마다 향기롭네.】	清名播處口先香
누대 위에는 성옹(醒翁)께서 한결같이 덕을 닦고,	培上醒翁修一德
뜰 앞에는 보배 나무가 삼광 <sup>80)</sup> 에 응하네.	庭前寶樹應三光
많은 선비 축하하는 마음 시축에 가득하고,	多士賀情詩滿軸
여러 손자들 현수하는 마음 술잔에 가득하네.	衆孫上壽酒盈觴
문청공의 남은 음덕이 이에 증험되니,	文清餘蔭於時驗
처음 회복된 일양이 점점 자라는 것 보겠네.	初復一陽漸看長

79) 계당(溪堂) : 정철(鄭澈)의 4남인 기암(畸庵) 정홍명(鄭弘溟, 1582~1650)이 1616년에 낙향하여 지은 집으로, 담양군 남면 지곡리에 있다.

80) 삼광(三光) : 해, 달, 별을 말한다.

1912년 3월 26일. 무자. 맑음. 두 손자를 돌보았다.

二十六日。戊子。陽。護二抱。

1912년 3월 27일. 기축. 흐림. 날마다의 일이 그렇다.

二十七日。己丑。陰。日事亦然。

1912년 3월 28일. 맑음. 경인. 장동(獐洞)<sup>81</sup>에 이르러 종가의 안부를 묻고, 이어서 두루 옛 친구를 방문하고 왔다.

二十八日。陽。庚寅。到獐洞宗家問候，歷訪故舊而來。

1912년 3월 29일. 신묘. 흐린 뒤에 맑음. 신안동(新安洞)<sup>82</sup>의 김인식(金璘植)을 위문하고, 주영묵(朱永默)에게 청하여 산놀이를 하기로 기약했다. 다음날의 담녕와(淡寧窩) 성묘를 위해 옥과 가곡(柯谷)<sup>83</sup>의 청룡산 가지봉으로 향했다. 가는 도중에 눈을 들어보니 밭 가운데에 우뚝하게 하나의 정려문이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바로 동몽교관 조봉대부 허서(許瑞)<sup>84</sup>의 정려로, 호는 후송(後松)이고, 태산군(泰山君)의 후예이다. 석양에 성묘한 뒤에 응곡(鷹谷)<sup>85</sup>의 박진식(朴鎭植) 집에 이르러서 유숙하였다. 포옹(圃翁, 정몽주)의 문집을 보았다.

81) 장동(獐洞) : 전라남도 담양군 대덕면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뒷산이 노루형상이라 하여 장동이라 칭하여 오늘에 이른다. 현재 부르고 있는 노랑골은 노루골에서 변형된 이름이다. 주요 인물로는 고려 말 정승을 지낸 고성군 채문무의 태생지이며 조선 선조 때 미암일기를 저술한 미암 유희춘이 기거했던 곳이다.

82) 신안동(新安洞) : 담양군 정면 신안동으로, 현재 담양군 무정면 안평리 신안동에 해당된다. 서암일기에서는 이곳 지명이 신안동, 또는 신안(新安)으로 나온다.

83) 가곡(柯谷) : 현재 곡성군 오산면 가곡리 가곡마을에 해당된다.

84) 허서(許瑞) : 자는 성휴(聖休), 호는 후송정(後松亭), 본관은 시산(詩山, 태인)이다. 도봉(道峰)계(繼)의 현손으로, 효자이며, 교관(敎官)에 증직되고 정려가 내려졌다. 병자호란 때 옥과현감으로서 창의한 운암(雲巖) 이흥발(李興浚)과 도의로서 사귀었다. 정려는 연화리에 있다.

85) 응곡(鷹谷) : 현재 곡성군 오산면 가곡리 응곡마을에 해당된다.

二十九日。辛卯。先陰後陽。慰問新安洞金璘植。請朱永默遊山次期矣。明日淡寧窩省楸次，向玉果柯谷青龍柯支峯。中路舉目，有田中兀然一閭門。詳察，乃許童蒙教官朝奉大夫許瑞之閭，號後松，泰山君后也。夕陽省楸後，到鷹谷朴鎮植家，留宿。覽圃翁文集。

1912년 3월 30일. 임술. 맑음. 아침밥을 먹은 뒤에 화석(火石)<sup>86</sup>을 지나다가 정봉현(鄭鳳鉉)을 방문하여 잠시 얼굴을 대했다. 청단리(靑丹里)<sup>87</sup>에 이르러서 주영목과 기약대로 만나 함께 연실촌(蓮實村)<sup>88</sup>으로 갔다. 점심을 김석오(金石五) 집에서 먹고 고개를 넘으면서 앵무봉(鸚鵡峯)<sup>89</sup>을 완상하고, 침치협(砧峙峽)을 거쳐 학동(學洞)<sup>90</sup>의 종인 희천(希天)을 방문했으며, 주영목의 집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주영목에게 주부자 영당을 지어 사문의 맥을 부지하라고 권하였다.

三十日。壬戌。陽。朝飯後，過火石，訪鄭鳳鉉，暫面。到靑丹里，與朱永默，會期，同行蓮實村。午飯於金石五家，踰嶺翫鸚鵡峯，歷砧峙峽，而訪學洞宗人希天，到朱永默家留宿。勸永默，建朱夫子影堂，以扶斯文之脈。

1912년 4월 초1일. 계사. 맑음. 당촌(堂村)<sup>91</sup>을 지나가다가 이문안(李文案)을 방문했다. 앞서 다만 얼굴만 알았는데, 지금 자세히 물어보니, 바로 가정(稼亭) 이곡(李穀)선생의 19세손이고, 목은(牧隱) 이색(李穡)선생의 18세손이다. 이름은 한직(漢植)이고, 문안은 그 관직명이니, 바

86) 화석(火石) : 옥과 화석편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곡성군 오산면에 해당된다.

87) 청단리(靑丹里) : 현재 곡성군 오산면 청단리에 해당된다.

88) 연실촌(蓮實村) : 곡성군 오산면 연화리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89) 앵무봉(鸚鵡峯) : 담양군 대덕면 용대리에 있는 피꼬리봉을 말한 듯하다.

90) 학동(學洞) :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 학동마을을 말한다.

91) 당촌(堂村) : 담양군 대덕면 금산리 당촌마을을 말한다.

로 군부(軍部)의 초사(初仕)직이다. 반나절을 지체하였다.

四月。初一日。癸巳。陽。過堂村，訪李文案。先時，但知面，今詳問，乃稼亭先生十九世孫，牧隱先生十八世孫。名漢植，文案其官也，卽軍部之初仕也。遲滯半日。

1912년 4월 2일. 갑오 앞서 흐리다가 일리(一犁)<sup>92</sup>의 비가 내리며 우레 소리가 났는데, 오후에는 맑았다.

初二日。甲午。先陰雨一犁，雷發聲，午後陽。

1912년 4월 3일. 을미. 맑음. 사촌형수의 대상(大祥)에 가는데, 중도에 꽃이 피어있는 큰 나무가 우뚝 서 있었다. 전부(田夫, 밭일하는 농부)에게 물으니, 이것은 ‘이반수(李飯樹)<sup>93</sup>’로 천년 고목이며, 이것을 보고 풍흉(豐凶)을 점친다고 한다. 감개함을 이기지 못해서 특별히 기록한다.

三日。乙未。陽。赴從嫂大祥，中路有一大朶花兀然立。問田夫，此乃‘李飯樹’，而千年古木也，視此占豐凶云。不勝感愴，特記之。

1912년 4월 4일. 병신, 맑음. 유정(柳亭)의 이윤관(李允寬)의 상(喪)에 조문하였다. 이용헌(李容憲)을 방문하고, 서상의(徐相議) 사돈집에서 잤다.

四日。丙申。陽。問柳亭李允寬喪。訪李容憲，宿于徐相議查家。

92) 일리(一犁) : 비가 온 양을 말함. 밭을 갈기에 적당할 정도로 한바탕 오는 비.

93) 이반수(李飯樹) : 이팝나무. 물푸레나무과의 이팝나무는 이팝나무에서 유래한 것으로 경남과 전북을 잇는 남북의 해안지대에서 자생하나 최근에는 내한성을 강화시킨 수종이 육종되어 수도권 외 중부지방에서도 조경수로 많이 식재한다. 농민들이 오랫동안 꽃피는 모습을 관찰하여 그 해의 풍흉년을 점치는 신목이나 마을을 수호하는 당산목으로 삼아 보호되어 수령이 오래된 노거수들이 많다.

1912년 4월 5일. 정유, 맑음. 돌아오는 길에 박인섭(朴寅燮)을 방문하여 그의 조모의 대상을 위문하였는데, 3월 27일에 있었다.

五日。丁酉。陽。歸路訪朴寅燮，慰問其祖母祥，居於三月二十七日。

1912년 4월 6일. 무술, 맑음. 지곡(芝谷)의 녹실어른을 방문하였는데, 마침 손부를 맞이하느라 분주할 것을 헤아리고 곧바로 김참봉(金參奉)댁에 들어가 유숙했다.

六日。戊戌。陽。訪芝谷綠室丈，適迎孫婦度其奔走，徑入金參奉宅留宿。

1912년 4월 7일. 기해, 맑음. 녹실댁에 다다라 술을 마셨다. 점심을 먹은 후에는 참봉댁[김용순]에 이르러 난주(饌酒)<sup>94</sup>를 마셨다. 저녁을 먹은 후에는 계당(溪堂)의 벽서(碧樓)<sup>95</sup>어른 -이름은 운오(雲五), 지는 경일(景日)- 이 아이를 보내 초대하기에 계당에 이르니 설투화(雪妬花, 수국)와 모란[牧丹]이 피어있고, 달빛이 뜰에 가득하였다. 그곳에서 유숙했다. 벽서가 누이의 수연시에 차운한 시를 내게 보여주기에 밤에 와서 기록하였다.

七日。己亥。陽。臨綠室宅飲酒。午飯後到參奉宅飲饌酒。夕飯後溪堂碧樓丈【名雲五，字景日】，送兒招去，到溪堂，雪妬花發牡丹開，月色滿庭，因留宿。碧樓次妹氏壽宴韻示之，夜來記之。

〈누이의 회갑 당일에 참석해서 그 운에 따라 축하시를 지어 조카 양재면 형제에게 주다〉                               阿妹回壽當日身參，依其韻賀，示梁侄在冕昆弟

인간의 세월 어떻게 한정 하리,

何限人間日月光

94) 난주(饌酒) : 새색시가 혼인한 삼일 후에 시부모를 뵈러 갈 때 가지고 간 술을 말한다. 여기서는 녹실어른의 손부가 시택에 오면서 가지고 온 이바지 술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95) 벽서(碧樓) : 정운오(鄭雲五, 1846~1920)를 말한다. 지는 경일(景日), 호는 벽서(碧樓), 본관은 연일로, 송강 정철의 후손이다. 담양 남면 지곡리 계당에서 주로 거처했다.



얼마나 많은 일들 겪어왔던가.	幾多閱斷萬千千
술은 동해처럼 깊어 장수를 더하고,	酒深東海添遐算
신선은 서하에 내려와 먼 하늘에 예를 올리네.	仙降西河禮遠天
어린 새 <sup>96</sup> )들 사랑스럽게 채무(彩舞) <sup>97</sup> )를 추고,	雛雀堪憐趨彩舞
노룡 <sup>98</sup> )은 항상 구슬을 안고 잠든다.	老龍長見抱珠眠
대가(大家)의 희끗한 머리털 지금은 얼마이노,	大家蒼鬢今如許
형제가 함께 변하지 않으니 느낌은 예대로네.	同是兄堅感舊然

<어떤 순사가 매화 한 가지를 꺾어들고서 수남(水南)<sup>99</sup>)의 양우(梁友)에게 시를 지으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장난삼아 짓다> 有一巡查折取梅花一枝，索詩於水南梁友，聞而戲成

매화 한 가지를 꺾어 손에 드니,	手取梅花第一枝
어여쁘게도 봄소식을 벌이 먼저 아네.	可憐春色蜂先知
머리에 꽃고 노는 것은 아이 일만이 아닌데,	挿頭嬉戲非童事
단발이라 마땅히 꽃을 데가 없구나.	短髮無因妥導爲

1912년 4월 8일. 경자, 맑음. 집에 돌아왔다. 위 절매시(折梅詩)의 운에 따라 읊조렸다.

八日。庚子。陽。還巢。依吟上折梅詩。

매화꽃 가지려 차마 찬 가지 꺾으니,	忍取梅花冷折枝
봄빛에 생과 사가 있음을 아는 사람 없네.	無人春色死生知
은은한 향은 이로부터 잠간사이에 다할 것이니,	暗香從此斯須盡

96) 어린 새[雛雀] : 자손들을 비유한 말이다.

97) 채무(彩舞) : 춘추 시대 초(楚) 나라의 효자인 노래자(老萊子)가 그의 나이 70이 되었을 때 부모 앞에서 어린애처럼 알록달록한 채색 옷을 입고 어린이에 같은 장난을 하여 부모를 기쁘게 해드렸던 데서 온 말이다.

98) 노룡(老龍) : 문원(文苑)의 대가를 가리키는 말이다. 송대(宋代) 용도각(龍圖閣)의 직각(直閣)을 소룡(小龍), 직학사(直學士)를 대룡(大龍), 학사(學士)를 노룡이라 했던 데서 온 말이다. (《박택편(泊宅編)》 권상)

99) 수남(水南) : 현재 담양군 대덕면 금산리에 수남리골과 수남리들이 남아있다.

다른 때 열매 맺기를 기다리지 말라.

莫待他時結實爲

1912년 4월 9일. 신축, 맑음.

九日。辛丑。陽。

1912년 4월 10일. 임인, 흐림. 잠깐 비가 오다가 갸.

十日。壬寅。陰。乍雨乍晴。

1912년 4월 11일. 계묘, 먼저 흐리고 비 온 후 맑고 바람. 뽕 잎이 매우 귀해서 직접 산에 가서 따왔다.

十一日。癸卯。先陰雨後陽風。桑葉極貴，躬採山。

1912년 4월 12일. 갑진, 맑음. 궁산(弓山)<sup>100</sup>에 사는 친구 이문극(李文極)이 왔다.

十二日。甲辰。陽。弓山李友文極來。

1912년 4월 13일. 을사, 맑음. 근년에 분죽(粉竹)<sup>101</sup>이 대부분 말라 죽었는데 금년에도 역시 그러하다. 자세히 살펴보니 곧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면, 줄기가 말라버리는데 마치 곡(穀)과 같고, 꽃 또한 곡화(穀花)와 같다. 화심(花心)은 마치 가는 명주실이 두 가닥인 것 같다. 직경이 한 치가량의 화반(花盤)은 꽃술 한 개에 화반 두 개로, 색깔은 누런 색이 가볍게 떠있고, 모양은 작은 모기의 날개와 같다.

十三日。乙巳。陽。近年粉竹多枯死，今年亦然。詳視之，乃開花成實，

100) 궁산(弓山) : 담양군 수북면 궁산리를 말한다.

101) 분죽(粉竹) : 5월 중순부터 한 달가량 나오는 대나무의 제재종이다. 대 줄기에 흰 가루가 묻어 있어 분죽(粉竹)이라고 한다. 솜대라고도 한다. 아삭거리고 맛이 뛰어나다.

則箕莖之枯如穀，花亦如穀花。花心如微細蘭絲兩股，經寸花盤，一股兩盤，色黃浮輕，象如小蚊翅。

1912년 4월 14일. 병오. 맑음.

十四日。丙午。陽。

1912년 4월 15일. 정미. 맑음. 아침에 안개가 끼고 저녁엔 바람이 불었다. 들에서 측량(測量)<sup>102</sup>을 하고 있다.

十五日。丁未。陽。朝霧夕風。野有測量。

1912년 4월 16일. 무신. 맑음.

十六日。戊申。陽。

1912년 4월 17일. 기유. 맑음. 알성(謁聖)을 하기 위해 장성(長城)에 도착해서 세곡(細谷)<sup>103</sup>의 김내평(金乃平) 집에 들어갔다. 곧바로 모정(慕亭)에 이르러 사산성묘(泗山聖廟)<sup>104</sup> 강당으로 들어가니 한 단정한 선비가 나와 맞이했다.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서로 알게 됐는데, 곧 공창렬(孔昌烈)이다. 그는 제자 6~7인과 이곳에서 강학하고 있었다. 인하여 유숙했다.

十七日。己酉。陽。謁聖次，到長城，入細谷金乃平家。直抵慕亭，入泗山聖廟講堂，有一端士出迎。敘未，相識，乃孔昌烈也。與弟子六七

102) 측량(測量) :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일제가 우리나라에서 식민지적 토지제도를 확립할 목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을 말한다.

103) 세곡(細谷) : 현재 장성군 북하면 성암리(星岩里) 용동 마을에 해당한다.

104) 사산성묘(泗山聖廟) :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만무리 505번지 울정마을에 있는 사산사(泗山祠)를 말한다. 공자와 맹자, 주자를 배향하는 사당으로, 공씨가 입향한 뒤에 가묘(家廟)를 세워 향사(享祀)해 오다가 1910년 경술국치(庚戌國恥)를 당하자 후손 공연진(孔彦鎭)과 공학원(孔學淵)이 짓기 시작하여 1911년에 완성하였다. 1957년에 중수하였다.

人, 講學于此。因留宿。

1912년 4월 18일. 무오 맑음. 질명(質明, 날이 샐 무렵)에 성묘(聖廟, 공자 사당)를 알현하고 영정(影幀)을 봉심(奉審)하였다. 다시 강당으로 내려가서 성묘 건립 사실(事實)을 열람해 보니, 본손인 공언진(孔彦鎭)·학원(學源)·창렬(昌烈) 3인의 정성과 힘으로 이룬 것이었다. 송병순(宋秉琄)이 영정기(影幀記)를 쓰고, 기우만(奇宇萬)<sup>105</sup>이 건사기(建祠記)를 썼으며, 공학원(孔學源)<sup>106</sup>이 상량문을 저술했다. 사면을 둘러 보니, 담장이 매우 높고, 뒤에는 수수(洙水)<sup>107</sup>가 있으며, 사방으로 산이 뻗뻗하였다. 물러나 오산(鰲山)<sup>108</sup>을 지나다가 종인(宗人) 김재일(金在鎰)을 방문해 위문했다. 점심밥을 먹은 후에 수성(水城)<sup>109</sup>의 사돈택에 도착해 유숙했다.

十八日。庚戌。陽。質明謁聖廟，奉審影幀。復降講堂，考閱建廟事實，本孫孔彦鎭·學源·昌烈三人，誠力所致也。宋秉尙以影幀記之，奇宇萬以建祠記之。孔學源著上樑文也。回瞻四面，宮牆數仞，後有洙水，四山周密也。退過鰲山，訪宗人金在鎰慰問。午飯後，到水城查家，留宿。

105) 기우만(奇宇萬, 1846~1916) : 자는 회일(會一), 호는 송사(松沙), 본관은 행주(幸州)이다. 기정진의 손자이자 기만연(奇晩衍)의 아들이다. 기정진의 사후 호남의 문유(文儒)로 추대되었으며, 1896년에 호남의병장으로 활동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삼산재(三山齋)를 짓고 후학을 양성하였다. 사후에 장성 고산서원에 배향되었으며, 유집에 《송사집(松沙集)》이 있다.

106) 공학원(孔學源, 1869~1939) : 자는 도경(道卿), 호는 도봉(道峰), 본관은 곡부(曲阜)이다. 기우만(奇宇萬)의 문인이다. 일본의 한반도 침탈이 본격화되자 공자의 성령(聖靈)을 모시는 사당을 집 근처에 세워 '사산(泗山)'이라 이름하고 제향하였다. 유고에 《도봉집(道峰集)》이 있다.

107) 수수(洙水) : 중국 산둥성(山東省)에 있는 강인 수수(洙水)에서 빌려와 이름 지은 것으로 보인다. 공자(孔子)가 일찍이 수수(洙水)와 사수(泗水)의 사이에서 문도(門徒)들을 모아 놓고 강학을 하였다.

108) 오산(鰲山) : 장성군 북일면 오산리를 말한다.

109) 수성(水城) : 장성군 북이면 수성리를 말한다.

1912년 4월 19일. 신해. 맑음. 돌아오는 길에 김참봉(金參奉)이 덕치(德峙)<sup>110</sup>에 머문다는 말을 듣고 김철수(金澈洙) 집으로 갔으나 만나지 못했다가 학림점(鶴林店)에서 만났다. 김낙주(金洛柱)·유덕홍(劉德弘)·김재영(金在榮)·방응주(房應疇)·최영진(崔詠鎭) 등을 뜻하지 않게 만나서 종일토록 수작(酬酌)하였다. 저물녘에 김낙주를 따라 하만(河晩)으로 향하는데, 시우(時雨)<sup>111</sup>가 잠시 쏟아지는 것으로 인하여 김낙주택에 머물렀다. 유원효(柳遠敷)가 찾아왔기에 <농아(聾啞)>시를 지어주었다.

十九日。辛亥。陽。回路聞金參奉留德峙，入金澈洙家不遇，遇於鶴林店。金洛柱·劉德弘·金在榮·房應疇·崔詠鎭，不期而相逢，終日酬酌。日暮隨金洛柱向河晩，時雨暫注，因留宿洛柱宅。柳遠敷來訪，贈聾啞詩。

<농아>

지난날엔 일찍이 귀머거리와 병어리 아니었는데,  
 오늘날 어찌 갑자기 귀머거리와 병어리 되었다.  
 세이<sup>112</sup>를 배워움에 버릇되어 귀머거리 되고,  
 괘낭<sup>113</sup>을 징험함에 삼가 절로 병어리 되었네.  
 예가 아니면 듣지 말라<sup>114</sup> 했으니 듣는다면 귀머거리 아니요, 非禮勿聽聽不聾  
 미평하지 않으면 말하지 말아야하니 말한다면 병어리 아니네. 不當無語語非啞  
 세상을 벗어나 바다에 뛰어드는 것<sup>115</sup> 비난할 일이라, 脫身蹈海非難事

聾啞

在昔未曾聾且啞  
 於今何以忽聾啞  
 學來洗耳癖成聾  
 驗得括囊慎自啞  
 非禮勿聽聽不聾  
 不當無語語非啞  
 脫身蹈海非難事

110) 덕치(德峙) : 창평군 가면 덕치리로, 현재 담양군 창평면 광덕리 덕치마을에 해당한다.  
 111) 시우(時雨) : 계절에 맞추어 내리는 비이다.  
 112) 세이(洗耳) : '귀를 씻는다'는 의미로, 요(堯) 임금 때 은사 허유(許由)가 일찍이 요 임금으로부터 자신에게 천하를 양여하겠다는 말을 듣고는 자기 귀를 더럽혔다 하여 영수(潁水)에 가서 귀를 씻었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고사전(高士傳)》)  
 113) 괘낭(括囊) : 주머니를 여민다는 뜻으로, 속에 감추어 두어서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주역》 <곤괘(坤卦)> 육사(六四)에 “주머니 끈을 묶듯이 하면 허물도 없고 칭찬도 없을 것이다.[括囊，无咎无譽]”라는 말이 나온다.  
 114) 예가 …… 말라 : 안연이 인(仁)을 실천하는 조목을 묻자 공자가 “예가 아니면 보지 말며,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非禮勿視，非禮勿聽，非禮勿言，非禮勿動]”라고 하였다.(《논어》 <안연>)

시위소찬<sup>116</sup>하며 귀머거리 병어리인 척하네.

位素托聾又托啞

1912년 4월 20일. 임자. 맑음. 돌아오는 길에 이종(姨從) 이승표(李承杓)의 처상(妻喪)을 위문하고 이어서 유숙했다.

二十日。壬子。陽。回路慰問姨從李承杓妻喪，因留宿。

1912년 4월 21일. 계축. 맑음. 나규운(羅奎運)의 처상(妻喪)을 위문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오늘은 망종(芒種)<sup>117</sup>이다.

二十一日。癸丑。陽。慰問羅奎運妻喪，還巢。是日芒種。

1912년 4월 22일. 갑인. 흐림. 비가 먼지를 가라앉힐 만큼 내렸다.

二十二日。甲寅。陰。雨浥塵。

1912년 4월 23일. 을묘. 흐림. 무료하게 보냈다.

二十三日。乙卯。陰。無聊而過。

1912년 4월 24일. 병진. 흐림. 저녁에 비가 왔다.

二十四日。丙辰。陰。夜雨。

115) 바다에 …… 것 : 전국 시대 제(齊)나라의 노중련(魯仲連)의 고사이다. 그가 조(趙)나라에 가 있을 때 진(秦)나라 군대가 조나라의 서울인 한단(邯鄲)을 포위했는데, 이때 위(魏)나라가 장군 신원연(新垣衍)을 보내 진나라 임금을 천자로 섬기면 포위를 풀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노중련이 “진나라가 방자하게 천자를 참칭(僭稱)한다면 나는 동해에 빠져 죽겠다.”라고 하니, 진나라 장군이 이 말을 듣고 군사를 후퇴시켰다 한다.(<사기> 권83 <노중련열전(魯仲連列傳)>)

116) 시위소찬(尸位素餐) : 자격도 없이 벼슬자리를 차지하고서 국록만 축낸다는 뜻의 겹사이다.

117) 망종(芒種) : 소만과 하지 사이에 있는 24절기의 하나. 양력 6월 6일 무렵이다. 망종은 논보리나 벼 등 씨앗에 수염이 달린 곡식을 파종한다는 뜻이다.

1912년 4월 25일. 정사. 흐림. 비가 개었다.

二十五日。丁巳。陰。雨霽。

<심가 사산재 원운시에 차운하다>

사산에 사당 세워 천시를 받드니,  
부자의 밝은 영령 때맞추어 강림하리라.<sup>118)</sup>  
의물은 삼한의 사신 돌아갈 때와 같고,  
전장은 이에 노성에서 옮겨온 것이라네.  
도가 국가에 전함은 두 이치가 없고,  
선비가 풍천<sup>119)</sup>에 감동함은 시에 능해서가 아니네.  
사문의 일맥이 지금 여기에 있으니,  
그 무리를 일깨워 갈 바를 알게 하네.

謹次泗山齋元韻

泗山立廟奉天時  
夫子明靈降不遲  
儀物惟同韓使返  
典章粵自魯城移  
道傳家國無二致  
士感風泉未能詩  
斯文一脈今茲在  
有覺其徒所向知

1912년 4월 26일. 무오. 맑음.

二十六日。戊午。陽。

1912년 4월 27일. 기미. 맑음. 보리를 베도록 명령하고 손자아이를 돌봤다.

二十七日。己未。陽。命刈麥，護抱兒。

1912년 4월 28일. 경신. 맑음.

二十八日。庚申。陽。

118) 때맞추어 강림하리라: 《시경》 <상송(商頌)·장발(長發)>에 “하늘의 명이 어기지 않아 땅 위에 이르러 천심과 가지런하시니 탕왕이 때에 맞추어 강림하사 성명하고 공경함이 날로 상승하였네.[帝命不違，至于湯齊，湯降不遲，聖敬日躋]”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119) 풍천(風泉): 풍천은 곧 비풍 하천(匪風下泉)의 약칭이다. 비풍은 《시경(詩經)》 <회풍(檜風)>의 편명인데, 이 시는 주(周)나라의 왕업(王業)이 쇠망해 가는 것을 보고 어진 사람이 이를 탄식하여 부른 노래이고, 하천은 《시경》 <조풍(曹風)>의 편명인데, 이 시 또한 주나라 왕실이 쇠망해 감에 따라 조나라 같은 작은 나라가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므로 이를 한탄하여 노래한 것이다.

1912년 4월 29일. 신유. 먼저 맑다가 나중에 흐림. 보리타작을 명했다.  
二十九日。辛酉。先陽後陰。命打麥。

1912년 5월 1일. 임술. 밤에 비가 내렸다. 잠깐 맑다가 흐려지고, 정오에 이르러서는 다시 잠깐 비가 내렸다.

五月。初一日。壬戌。夜雨。乍晴而陰，至午復乍雨。

1912년 5월 2일. 계해. 흐림. 비가 오려고 하다가 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初二日。癸亥。陰。欲雨而未雨，民以爲不足。

1912년 5월 3일. 갑자. 맑음. <사산부자묘서(泗山夫子廟序)>를 지었다. 대저 부자(夫子, 공자)의 사당은 한 세대, 한 나라, 한 가문, 한 사람만의 사당이 아니고 실로 천하만국, 만 세대, 모든 사람의 무강(無疆)한 사당이다. 그 상(象)은 간괘(艮卦)에서 취하여 만물이 시작과 끝이 있게 하고, 그 덕은 취괘(萃卦)에서 취하여 하나같이 무리의 마음을 우러르니, 그 도덕이 이보다 성대한 것이 없다.

대개 부자는 천지와 그 덕이 합하고, 일월과 그 밝음이 합하며, 사시와 그 차례를 합하고, 귀신과 그 길흉을 합한다. 하늘에 앞서서 일을 행할 때에는 하늘이 이를 어기지 못하고, 하늘보다 뒤에 행할 때에는 하늘의 때를 받들게 될 것이다.[先天而天不違，後天而奉天時]<sup>120)</sup> 그 처신에 있어서는 온량공검양(溫諒恭儉讓)<sup>121)</sup>하여 그것을 얻으셨으니,

120) 하늘에 …… 것이다 : 《주역》 <건괘> 문언(文言)의 말이다.

121) 온량공검양(溫諒恭儉讓) : 《논어》 <학이(學而)>에 “자공이 말하였다. ‘선생님께서서는 온순하고 어질고 공손하고 겸소하고 겸양하여 이것을 얻으셨으니 선생님의 구하심은 타인이 구하는 것과는 다를 것이다.’[子貢曰，夫子溫良恭儉讓以得之，夫子之求之也，其諸異乎人之求之與!]”라고 하였다.



나는 말을 하지 않고자 한다[予欲無言]<sup>122</sup>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의 기상은 우러르면 더욱 높아지고 뚫으려고 하면 더욱 견고해지고 바라보면 앞에 있는 것 같다가 홀연히 뒤에 있으니,<sup>123</sup> 지나가는 곳마다 감화되고 있는 곳마다 신묘해지는 데에 이르렀다.<sup>124</sup>

그의 책임은 지극히 크고 무거워 당시에 홀로 선왕의 계천입극(繼天立極)<sup>125</sup>을 취하고, 전수심법(傳授心法)<sup>126</sup>의 요언(要言)을 후세에 고하여 도통의 전통을 드리웠다. 음양(陰陽)·도기(道器)·계선(繼善)·성성(成性)의 설을 갖추어 의리의 강령을 드러냈고, 인의성경(仁義誠敬)을 발하고 하늘과 사람이 하나의 이치로 통한다는 묘리를 드러냈으며, 법을 돈독히 하고 가르침을 펼쳐서 천질(天秩)<sup>127</sup>의 학문을 세우셨다. 위로는 복희(伏羲)<sup>128</sup>로부터 주공(周公)에 이르기까지 행적을 역력히 다 기술하였고, 하도낙서(河圖洛書)의 문(文)에 있어서도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의 도가 일치하고 틈이 없는 이치를 밝게 발명하여 후

- 122) 나는 …… 한다: 《논어》 <양화(陽貨)>에 “공자가 나는 아무 말을 않고자 한다.”라고 하니, 자공(子貢)이 ‘스승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도를 전해 받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공자가 ‘하늘이 말을 하였던가. 사시가 운행하고 만물이 성장하니, 하늘이 언제 말을 하였던가?’라고 하였다.[子曰, 予欲無言. 子貢曰, 子如不言, 則小子何述焉. 子曰, 天何言哉. 四時行焉, 百物生焉. 天何言哉.]”라는 내용이 나온다.
- 123) 그의 …… 있으니: 《논어》 <자한>에서 안연(顔淵)이 공자의 도에 대해서 탄식하기를 “우러러볼수록 더욱 높고 뚫을수록 더욱 견고하며, 바라보매 앞에 있더니 홀연히 뒤에 있다. [仰之彌高, 鑽之彌堅, 瞻之在前, 忽焉在後.]”라고 하였다.
- 124) 지나는 …… 이르렀다: 《맹자》 <진심 상(盡心上)>에 “군자는 지나는 곳마다 교화가 되며 머물러 있는 데마다 신묘하게 변화되기 때문에 상하가 천지와 함께 유행하니, 어찌 보탬이 작다고 하겠는가.[夫君子所過者化, 所存者神, 上下與天地同流, 豈曰小補之哉?]”라고 하였다.
- 125) 계천입극(繼天立極): 성인이 하늘의 뜻을 이어받아 표준을 세운다는 뜻으로, 주희(朱熹)의 《중용장구 서》와 《대학장구 서》에 나오는 말이다.
- 126) 전수 심법(傳授心法): 요·순·우가 전수한 심법. 《서경》 <대우모(大禹謨)>의 ‘인심유위(人心惟危), 도심유미(道心惟微), 유정유일(惟精惟一), 윤집필중(允執厥中)’이 여기에 해당된다.
- 127) 천질(天秩): 하늘의 차례라는 뜻으로, 《서경》 <고요모(皋陶謨)>에 보인다. 채침(蔡沈)의 주(註)에 따르면, 질(秩)은 존비(尊卑)·귀천(貴賤) 등 높고 낮은 등급의 품질(品秩)이라 하였다.
- 128) 복희(伏羲): 상고시대(上古時代) 삼황(三皇) 중의 한 명인데, 문자를 만들고 처음 팔괘를 그렸다고 한다.

세에 보여주고는 총괄해서 말하기를, ‘우리 도는 하나로 켈 수 있다.’고 하였다. 이후로부터는 성현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 세대를 걸러 나온다면 그 심법 전수의 은미함을 자연히 묵계하게 될 것이니, 우리 부자(夫子)께서 전하는 바의 뜻이다.

무릇 천리(天理)의 바름을 말하는 것은 모두 우리 부자의 서술에 근원을 두고 나온 것이며, 무릇 천리의 공정함을 행하는 것은 모두 우리 부자가 경계를 드리운 것에 근본을 두고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억조(億兆) 백성의 군사(君師)로 삼아 그로 하여금 다스리고 가르치게 하여,<sup>129)</sup> 그 본연의 병이지성(秉彝之性, 천성)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러한 후에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답고, 형은 형답고 아우는 아우답고, 남편은 남편답고 부인은 부인다워졌다. 상하가 화목하여 위로는 이륜(彝倫)이 밝아지고 아래로 교화가 행해졌다. 풍속은 기약하지 않아도 스스로 아름다워지니, 그 덕은 오래될수록 더욱 빛이 났다. 바람과 비가 이르는 곳마다 서리와 이슬이 내리는 곳마다 해와 달이 비추는 곳마다 그 은택을 입지 않은 곳이 없으니, 무릇 혈기(血氣)를 가진 무리들이 존경하고 친애하며 사모하지 않음이 없어 공자께서 돌아가시고 세상에 없어도 잊지 못하기까지[沒世不忘]<sup>130)</sup> 된 것은 그 타고난 천성이 하늘이 다하도록 잘못됨이 없어서이다. 그래서 후대의 현철(賢哲)과 왕자(王者)가 반드시 사당을 세우고 정성스럽게 배향함은 조금이나마 근본에 보답하고

129) 억조(億兆) …… 하여 : 주희(朱熹)의 《대학장구》 서문에 “하늘이 반드시 그에게 명하여 억조 백성의 군사가 되게 하여 다스리고 가르치게 하였다.[天命之, 以爲億兆之君師, 使之治而教之.]”라는 말이 나온다.

130) 세상에 …… 못하기까지[沒世不忘] : 《대학장구》 전 3장에, “《시경》에 ‘아아, 선왕(先王)을 잊을 수 없네.’라고 하였는데, 후대(後代) 군자들은 선왕의 현덕(賢德)을 기리고 선왕이 친애했던 이들을 친애하며, 후대 백성들은 선왕이 내려 준 안락한 생활을 즐기고 선왕이 베푼 이로운 은택을 누리고 있다. 이런 까닭에 그분들이 돌아가신 뒤에도 잊지 못하는 것이다.[詩云, 於戲! 前王不忘. 君子賢其賢而親其親, 小人樂其樂而利其利, 此以沒世不忘也.]”라고 한 데에서 온 것이다.

자 해서였다. 그런데 그 얼마나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운이 문명(文明)을 회복하게 되어 안문성공(安文成公)<sup>131</sup>과 김문안공(金文安公)<sup>132</sup>이 중국에 갔다가 돌아오자 부자(夫子)의 도가 동쪽으로 와서 사문(斯文)<sup>133</sup>이 크게 밝혀지고 어질고 현명한 사람들이 배출되어 전장 문물(典章文物)이 중화에 비견하게 되고 지극한 이치가 이에 보존되어 만세토록 지금과 같게 되었는가?

아 어찌하여 왜곡된 견해를 지닌 자잘한 무리들이 와언(訛言)과 피행(詐行)으로써 저속한 말로 백성들을 회유하여 모두들 ‘내가 성인이 다라고 말하는가?’<sup>134</sup> 장구의 무리들[章句之徒]<sup>135</sup>이 큰 근본을 알지 못하면서 그 글을 윤색하였으니, 근원이 없는 물이고 뿌리가 없는 나무이다. 어찌 오래 가겠는가? 마침내 나라를 그릇되게 하리라. 이것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어 왔으니, 그 전하는 바의 글이 옳은 듯하나 진리를 크게 어지럽혔다. 오호라! 시운이 고르지 않고 인심은 예측할 수 없어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니[二三其德]<sup>136</sup>,

131) 안문성공(安文成公) : 안향(安珦, 1243~1306)을 말한다. 안향의 자는 사온(士蘊), 호는 회헌(晦軒)이며 본관은 순흥(順興)이다. 경상북도 흥주(興州, 지금의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 출신. 1289년 11월에 왕과 공주(원나라)를 호종하고, 원나라에 가서 주자서(朱子書)를 손수 베끼고 공자와 주자의 화상(畫像)을 그려 가지고 이듬해 돌아왔으며, 1297년 12월에 집 뒤에 정사(精舍)를 짓고, 공자와 주자의 화상을 모셨다.

132) 김문안공(金文安公) : 김문정(金文鼎)을 말한다. 1303년(충렬왕 29)에 국학학정(國學學正)으로서 원나라에 가서 선성 10철의 화상과 문묘의 제기와 악기, 육경(六經)과 제자(諸子)의 서적 등을 가지고 돌아왔다.

133) 사문(斯文) : 유도(儒道)를 가리키는 말이다. 《논어》 <자한(子罕)에 공자가 “문왕(文王)이 이미 별세하였으니, 문(文)이 이 몸에 있지 않겠는가. 하늘이 장차 ‘이 문(斯文)’을 없애려 하였다면 내가 이 문에 참여할 수 없었을 것이다.[文王既沒, 文不在茲乎? 天之將喪斯文也, 後死者不得與於斯文也.]” 하였는데, 주자(朱子)의 집주(集註)에 “문은 도(道)가 표면에 드러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후로 유도를 대칭하는 말로 쓰였으며, 유학자를 직접 지칭하기도 한다.

134) 모두 …… 말하는가 : 《시경》 <소아(小雅)·정월(正月)에 “모두 내가 성인이다 하니 누가 까마귀의 암놈과 수놈을 알겠는가[俱曰子聖, 誰知烏之雌雄?]”라고 하였는데, 까마귀의 암놈·수놈을 가려내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시비를 분간하기 어려움을 말한 것이다.

135) 장구의 무리들[章句之徒] : 장구(章句)의 해석에만 치우쳐 대의(大義)에는 통하지 않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도(道)를 배반하고 신(神)을 기만하였다. 신명이란 무엇인가? 천명에 짝함이<sup>137)</sup> 일정하지 않다.

이때 삼군자(三君子)가 뒤늦게 측은히 여겨서 석채례(釋菜禮)<sup>138)</sup>를 처음으로 행하니 곧 사문(師門)을 계승한 것이다. 언진(彦鎭)은 천성이 순효하고 학원(學源)은 학행(學行)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며, 언원(彦源)은 의견이 탁월한데,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사수지간(泗洙之間)<sup>139)</sup>에 부자의 사당을 창건하였다. 자손 형제와 친척들[群昭群穆]<sup>140)</sup>이 자연히 복응하여 자산을 기울여 성금을 내었다. 소문이 이르자마자 서민들이 자식처럼 와서<sup>141)</sup> 터를 닦고 낙성식을 도왔다. 새로운 사당이 휘황하게 빛나자 명공(名公, 유명하거나 뛰어난 재상)과 석유(碩儒)<sup>142)</sup>가 글을 전해왔고, 노성의 궤리[魯城之闕里]<sup>143)</sup>에서 영정

136) 이랬다 …… 부리니[二三其德] : 《시경》 <위풍(衛風)·맹(氓)에 “그 남자는 확고한 신념이 없어서, 자꾸만 이랬다저랬다 한다.[土也罔極, 二三其德]”라는 말이 있고, 《시경》 <백화(白華)에 “원앙이 여랑에 있으니, 그 왼쪽 날개를 접었다. 그대가 선량하지 못하여, 이랬다저랬다 번덕을 부리도다.[鴛鴦在梁, 戢其左翼, 之子無良, 二三其德.]”라는 말이 나온다.

137) 천명에 짝함이 : 《시경(詩經)》 <대야(大雅)·문왕(文王)에 “길이 천명에 짝함이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하는 길이다.[永言配命, 自求多福]”라 하였다.

138) 석채례(釋菜禮) : 마름(蕪藻) 등 채소로 선사(先師)를 제사하는 예이다. 《예기》 월령(月令)에 “그달 첫째 정일(丁日)에 악정(樂正)에게 명하여 춤을 익히고 석채한다.” 하였다. (黍稷과 같은 말, 옛날에 학자(學者)가 학교에 들어가서 마름풀 등을 가지고 선성(先聖)과 선사(先師)에게 제사를 지냈으므로 이렇게 말한다.)

139) 사수지간(泗洙之間) : 원래 사수(泗水)는 산둥성(山東省)의 두 강인 사수(泗水)와 수수(洙水)로, 공자가 이 근처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으므로 공자의 학문, 즉 유학(儒學)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수지간(泗洙之間)에 부자묘를 창건했다고 했으므로 공학원 등이 공자의 사당을 세운 곳을 뜻한다.

140) 친척들[群昭群穆] : 소목(昭穆)은 사당(祠堂)에서 신주(神主)를 모시는 차례로 왼쪽 줄의 소(昭), 오른쪽 줄의 목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여러 소(昭)와 여러 목(穆)이므로 친척들을 의미한다.

141) 서민들이 자식처럼 와서 :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자발적으로 부응하였다는 뜻이다. 《시경》 <대야(大雅)·영대(靈臺)에 “서민들이 일을 하는지라 하루가 되지 않아 완성되도다. 빨리 짓지 말라고 하여도 서민들이 자식처럼 오도다.[庶民攻之, 不日成之. 經始勿亟, 庶民子來.]”라고 하였는데, 주희의 주에 “민심이 즐거워하여 자식이 어버이 일에 달려오듯이 하여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온 것이다.[民心樂之, 如子趣父事, 不召自來也.]”라고 하였다. 《맹자》 <양혜왕 상(梁惠王上)에 같은 내용이 있다.

142) 석유(碩儒) : 이름난 유학자를 말한다. 일기에 ‘석유(碩儒)’라고 잘못 쓴 것을 바로잡았다.

(影幘)을 모시고 와서 여기에 봉안하니, 밝은 영령이 양양(洋洋)하여 좌우에 있는 듯 하고, 사람들도 싫어함이 없었다[無射於人斯]<sup>144)</sup>. 재명성복(齊明盛服)<sup>145)</sup>하고 석채례를 올리니 성대하게 많은 선비들이 모여들었다.

히물며 회랑과 당(堂)을 세워 강학의 장소로 삼음에 있어서라? 실로 유림들이 우러르며 의탁할 곳이다. 그러니 삼군자는 다만 선조를 사모하여 효성스러운 것만이 아니다. 또한 도통을 잃어버린 것을 근심하고 그 전하는 뜻을 잘 계승하였으니, 그 풍화에 있어서는 크게 공이 있는 것이다.

나 영찬은 갱장(羹牆)<sup>146)</sup>의 사모함이 더욱 깊어서 듣자마자 곧바로 달려가 뵈고 물리나서 당에 들어갔다. 당의 편액은 ‘사산재(泗山齋)’로, 외람되게도 감히 서문을 쓴다. 본래의 자질이 문장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대략 선진(先進)들이 전하는 말로 집성하니, 후진들이 보고 느끼길 기다릴 따름이다.

初三日。甲子。陽。題<泗山夫子廟序>。

夫夫子廟，非一代一國一家一人之廟，而實天下萬國萬世群生無疆之廟也。其象取艮，終始萬物，其德取萃，仰一衆心，以其道德，莫此爲盛

143) 노성의 궤리 : 노성궤리사(魯城闕里祠)를 말한 것으로,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교촌리에 있는 공자의 유상(遺像)을 봉안한 영당(影堂)이다. 공자(孔子)가 탄생한 ‘궤리촌’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144) 사람들도 싫어함이 없었다[無射於人斯] : 《시경》 <주송(周頌)>의 청묘편(淸廟篇)에 문왕의 덕을 성대하게 일컬어서 “드러나지 아니할까 떠받들지 아니할까, 사람에게 미움을 받음이 없으시도다.[不顯不承，無射於人斯.]”라는 구절이 있다.

145) 재명성복(齊明盛服) : 제계(齋戒)를 하여 심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대하게 의관을 갖추어 입는다는 뜻으로, 《중용장구》에 “재명 성복하여 제사를 받든다.[齊明盛服 以承祭祀]”는 말이 나온다.

146) 갱장(羹牆) : 죽은 사람에 대한 간절한 추모의 정을 말한다. 요(堯) 임금의 죽은 뒤에 순(舜)이 3년 동안 사모하는 정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밥을 먹을 때에는 요 임금의 얼굴이 국(羹) 속(羹中)에 비치는 듯하고, 앉아 있을 때는 담장[牆]에 요 임금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듯했다는 고사가 있다.(《후한서(後漢書)·이두열전(李杜列傳)》)

也。蓋夫子與天地合其德，與日月合其明，與四時合其序，與鬼神合其吉凶。先天而天不違，後天而奉天時。其處己也，溫諒恭儉讓而得之，至於我欲無言。其氣像也，仰之彌高，鑽之彌堅，瞻之在前，忽焉在後，至於過化存神。其任至大，其責亦重，於時，獨取先王繼天立極，傳授心法之要言，詔後世而垂道統之緒。備陰陽道器繼善成性之說，以著義理之綱領，發仁義誠敬，著天人一理之妙，敦典數教立天秩之學。上自伏羲，以至於周公，所行之跡，歷歷盡述，而其於河洛之文，天地人三才，吻合無間之理，昭昭發明，以示來世，而摠言之曰，‘吾道一以貫之。’自是之後，聖賢之資，間世而出，則其心之術之微，自然默契，吾夫子所傳之意。凡所言天理之正者，皆原於吾夫子所述中流出，凡所行天理之公者，皆本乎吾夫子垂戒上得來。以爲億兆之君師，使之治而教之，以復其本然秉彝之性。然後君君臣臣，父父子子，兄兄弟弟，夫夫婦婦，上下和睦，彝倫明于上，教化行於下。風俗不期而自美，則其德悠久而愈光。其於風雨所至，霜露所墜，日月所照，無不知被其澤，而凡所血氣之類，莫不尊親而思慕之，至於沒世不忘，以其秉彝之極天罔墜。是以後賢後王，必建庶誠享，以其報本之萬一，而何幸吾邦運復文明，安文成、金文安兩公，聘中國以歸，夫子道東，斯文大闡，仁賢輩出，典章文物，倅擬中華，至理斯存，萬世同今。噫！何曲見之誚流，以訛言詖行，卑卑諛民，俱曰予聖。章句之徒，不識大本，潤色其書，無源之水，無根之木。何可長也？卒而誤國。然此非但今日事，自古有之，其所傳之書似是，而大亂真矣。嗚呼！時運不齊，人心不測，二三其德，背道慢神。神明維何？配命不常。於時，三君子追惻其心，經始釋菜之禮，乃師門之嗣也。彥鎮天性純孝，學源學行超凡，彥源意見卓越，同心協力，勸建夫子廟于泗洙之間。子姓兄弟，群昭群穆，自然服膺，傾資產而出金。聲聞卽暨，庶民子來，載基載落。新宮煌煌然後，名公碩孺傳文，魯城之闕里，奉安影幘于茲，明靈洋洋，如在左右，而無射於人斯。齊明盛服，以承釋菜，多士濟濟。況乎于廊于堂以爲講學之所乎？實孺林宗仰依歸之地也。然則三

君子，非但慕先孝誠而已。亦善繼憂道統之失其傳之志，而其於風化，大有功焉。永榮，羹墻之慕彌深，聞即趨謁，退下入堂。堂扁泗山齋，猥敢作序，本質不文，略以先進所傳之言輯成，以俟後進觀感云爾。

1912년 5월 4일. 을축. 맑음. 옥과(玉果) 화면(火面)<sup>147</sup>의 가지봉(柯支峰) 중록 오좌향자(午坐向子)<sup>148</sup>에 자리한 어머니 산소에 성묘를 갔다. 신안동(新安洞)을 지나가면서 인재(忍齋) 김인식(金麟植)을 방문하고, 주영묵(朱永默)의 집에 들어갔다. 점심을 먹은 후 친산에 가서 성묘를 하고 가곡(柯谷)리의 박진식(朴鎭植) 집에서 유숙했다. 이감역(李監役)과 신득우(申得雨)를 방문하고, 이어서 김익신(金益信)을 방문하려다가 잘못하여 김능신(金能信)의 집에 들어갔는데, 곧 김익신의 형님 집이다. 돌아오는 길에는 청단리(靑丹里)를 지나며 제갈하백(諸葛夏帛)<sup>149</sup>을 방문했는데 보지 못했고, 연화동(蓮花洞)<sup>150</sup>을 지나면서 족장(族長)인 재순(在舜)씨를 방문하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새로 세운 비석이 하나 있어서 보니, 곧 ‘여규화 시혜물망비(呂奎華施惠勿望碑)’ -금팔동(金八洞)<sup>151</sup>의 호세(戶稅)를 대신 납부하여 궁핍을 구휼해 주었으니 두터운 은혜를 잊기 어려워 비석에 새겨 공덕을 칭송한다.[戶金八洞遞納恤窮，惠厚難忘勒碑頌功]-였다.

147) 화면(火面) : 원래 화면은 옥과현의 한 면이었으나 1912년 당시에는 창평군에 속해있었다. 현재는 곡성군 오산면에 해당된다.

148) 오좌향자(午坐向子) : 정남쪽을 등진 방향을 말한다.

149) 제갈하백(諸葛夏帛, 1855~1918) : 자는 세량(細凉), 호는 담녕(澹寧), 본관은 남양(南陽)이다. 곡성군 오산면 청단리에서 살았으며,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 문하에서 수업하였다.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 운람(雲藍) 정봉현(鄭鳳鉉), 박운창(朴雲翹), 김계운(金溪雲) 등의 문하에서도 두루 노닐었다. 유집으로 《담녕집(澹寧集)》이 있다.

150) 연화동(蓮花洞) : 현재 곡성군 오산면 연화리에 해당된다.

151) 금팔동(金八洞) : 창평군 장남면(현재 담양군 수북면 황금리)에 금구동(金九洞)이 있는데, 이곳이 아닌가 한다.

初四日。乙丑。陽。玉果火面，柯支峰中麓午坐向子，先妣山省楸之行。過新安洞，訪忍齋金璘植，入朱永默家。午飯後，向親山省楸，留宿柯谷朴鎮植家。訪李監役申得雨，轉訪金益信，誤入金能信家，乃益信舍伯家也。回路，過青丹里，訪諸葛夏帛，未見而過蓮花洞，訪族長在舜氏，還巢。中路，有一新碑，見之，乃呂奎華施惠勿望碑【戶金八洞遞納恤窮，惠厚難忘勒碑頌功】。

1912년 5월 5일. 병인. 맑은 후 흐림.

初五日。丙寅。先陽後陰。

1912년 5월 6일. 정묘. 흐림. 듣자니 사동(社洞)<sup>152</sup>의 양의(梁醫)가 운산(雲山)<sup>153</sup>에 머물고 있다고 하여 환약값을 갚으려고 운산에 가서 주었다. 또 반룡(盤龍)의 차의(車醫)를 방문하여 미약(糜藥, 아픈 사람이 먹은 죽과 약)값을 갚고, 돌아오다가 화목정(花木亭)<sup>154</sup>에 이르러 정충원(鄭忠源)을 만났으며 함께 비를 피하다가 왔다. 오다가 또 비를 만나 야인(野人, 들에서 일하는 사람)의 삿갓을 빌려 쓰고 집에 돌아왔다.

初六日。丁卯。陰。聞社洞梁醫留雲山，欲報丸藥價，到雲山贈之。又訪盤龍車醫，報糜藥價，還到花木亭，逢鄭忠源，同避雨而來。又遇雨，借野人笠而還巢。

1912년 5월 7일. 무진. 맑음.

初七日。戊辰。陽。

152) 사동(社洞) : 현재 담양군 창평면 창평리에 해당된다.

153) 운산(雲山) : 현재 담양군 대덕면 운산리에 해당된다.

154) 화목정(花木亭) : 현재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에 있는 마을이다.



1912년 5월 8일. 기사. 맑음.

八日。己巳。陽。

1912년 5월 9일. 경오. 맑음.

九日。庚午。陽。

1912년 5월 10일. 신미. 맑음.

十日。辛未。陽。

1912년 5월 11일. 임신. 맑음. 맥추(麥秋)<sup>155</sup>가 점점 다해가고 이양 또한 늦은지라 백성들이 모두 비를 기다린다. <계사전>의 ‘길흉과 회린(悔吝)<sup>156</sup>은 동함에서 생겨나는 것이다.[吉凶悔吝, 生乎動者也]’를 보았는데, 시씨(柴氏)<sup>157</sup>는 ‘정(情, 참)과 위(僞, 거짓)가 서로 감응한다[情僞相感]’는 말을 주석하면서 ‘정(情, 성장)이 참이란 것을 알겠으니, 참됨은 바르고 거짓됨은 바르지 못한 것이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거짓됨[僞]은 어느 곳에서 생기는 것인가?

十一日。壬申。陽。麥秋漸盡，移秧且晚，民咸待雨。看繫辭‘吉凶悔吝，生乎動者也’，柴氏註‘情僞相感’之語，‘知情之眞，而眞是正僞是邪’，

155) 맥추(麥秋) : 보리가 익어서 거들 만하게 된 때를 말한다.

156) 회린(悔吝) : 우려하는 모양. 회(悔)는 현실을 걱정하고 고민하며 길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린(吝)은 현실에 만족하며 흉한 데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157) 시씨(柴氏) : 시중항(柴中行)을 말한다. 자가 여지(與之)로, 1190년에 진사에 합격하여 무주군사추관(無州軍事推官)에 임명되었다. 송나라 영종(寧宗) 때 한탁주(韓侂胄)가 정권을 잡고 자기에게 반대하는 자들을 제거하려고 하면서 도학(道學)을 인정(人情)에 어긋나는 위학(僞學)으로 지목하여 금지시키고, 도학의 주요 인물인 주희(朱熹)의 관작을 삭탈하고, 채원정(蔡元定)을 좌천시키는 등 조정의 정사(正士)들을 모두 축출시키자, 이에 시중항이 말하기를 “어려서부터 정씨의 《주역》을 배웠으니 만일 위학이라고 한다면 배우지 않았을 것이다.[自幼習易，讀程氏易傳，未委是與不是僞學，如以爲僞，不願考校]”라고 하니, 사론(士論)이 그의 말을 장하게 여겼다.”라고 했다.(《송사전문(宋史全文)》 권29)

然則僞自何而生乎?

1912년 5월 12일. 계유. 맑음.

十二日。癸酉。陽。

1912년 5월 13일. 맑음. 오후에 소나기가 내려 먼지를 적셨다.

十三日。陽。午後驟雨浥塵。

1912년 5월 14일. 을해. 맑음. 이문정(李文靜)의 아들 들잔치에 참석하여 이한직(李漢植)·엄문순(嚴文淳)·이이홍(李以弘)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저물녘에 시정(詩亭)에 도착했고, 또 국기용(鞠基瑢)을 만나 함께 놀다가 돌아왔다.

十四日。乙亥。陽。往參李文靜子菴宴席，與李漢植嚴文淳李以弘，同飲，斜陽到詩亭，又逢鞠基瑢，共遊而歸。

1912년 5월 15일. 병자. 맑음. 천둥이 크게 울었으며, 밤에는 소나기가 내렸다.

十五日。丙子。陽。雷大發聲，夜驟雨。

1912년 5월 16일. 병인. 맑음. 북동쪽에 소나기가 내렸다.

十六日。丁丑。陽。北東驟雨。

1912년 5월 17일. 무인. 맑음.

十七日。戊寅。陽。

1912년 5월 18일. 기묘. 맑음.

十八日。己卯。陽。

1912년 5월 19일. 경진. 맑음.

十九日。庚辰。陽。

1912년 5월 20일. 신사. 맑음. 오랫동안 기물고 비가 오지 않자 영천산(靈泉山)<sup>158</sup>의 기우단(祈雨壇)에 범장(犯葬)<sup>159</sup>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온 면민이 모두 모여서 무덤을 파냈는데, 일본사람이 무덤 주인을 두호(斗護)하여 서너 명을 구타하였다고 한다.

二十日。辛巳。陽。久旱不雨，民以靈泉山祈雨壇，犯葬所致，一面齊會掘移，日人斗護塚主，驅打數三人云。

1912년 5월 21일. 임오. 맑음.

二十一日。壬午。陽。

1912년 5월 22일. 계미. 우물을 파서 물을 얻고 관개(灌溉)<sup>160</sup>를 하여 모내기를 했더니,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여 밤새도록 내렸다.

二十二日。癸未。穿井得水，灌溉移秧，忽然雨注連夜。

1912년 5월 23일. 갑신. 소서(小暑)<sup>161</sup>. 맑음.

二十三日。甲申。小暑。陽。

158) 영천산(靈泉山) : 담양군 무정면 오봉리에 있는 산 이름이다.

159) 범장(犯葬) : 장사(葬事)를 지내지 않아야 할 곳에 장사를 지낸 것을 말한다.

160) 관개(灌溉) : 농사(農事)를 짓는 데 필요한 물을 논밭에 대는 것을 말한다.

161) 소서(小暑) : 24절기의 열한 번째. 7월 7일 무렵으로, 하지(夏至)와 대서(大暑) 사이에 있다.

1912년 5월 24일. 을유. 맑음. 삼[麻]을 삶았다.

二十四日。乙酉。陽。煮麻。

1912년 5월 25일. 병술. 맑음.

二十五日。丙戌。陽。

1912년 5월 26일. 정해. 흐리고 비.

二十六日。丁亥。陰雨。

1912년 5월 27일. 무자. 맑음. 들에 모내기를 하지 못한 곳이 많았다.

二十七日。戊子。陽。野多未秧。

1912년 5월 28일. 기축. 맑음. 가뭄 걱정이 매우 심하다. 항상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는大本(大本)이 귀함을 알면서도, 농사가 백성 양식의大本임은 살피지 못한다. 매년 흉년을 당할 때마다 쪽박이 자주 비어서 도리어 부자나 호걸들의 비웃음을 사는 것이다. 일이 지나가버리면 까맣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뜻으로 기록한다.

二十八日。己丑。陽。早憂彌深。常樂知大本之爲貴，而不察農之爲民食之大本。每當凶荒之年，單瓠婁空，返受富人武徒之嗤笑。過去則頓忘，故因意而記之。

1912년 5월 29일. 경인. 맑음. 석양에 반가운 비가 오더니 밤새도록 내렸다. 농민의 마음에 흡족하게 내렸다.

二十九日。庚寅。陽。夕陽喜雨來連夜，慰滿三農足。

1912년 6월 1일. 신묘. 흐림. 이슬비가 동쪽에서부터 왔고, 좋은 바람도 함께 불어 왔다. 오늘에야 마을 사람을 일으켜 모내기를 마쳤다.

六月。初一日。辛卯。陰。微雨從東來，好風與之俱。是日也，起村人移秧畢。

1912년 6월 2일. 임진. 맑음. 해거름에 비가 오더니 밤새 내렸다. 집안일에 대해 일러둘 말은 ‘마땅히 때를 따라야 만물이 마땅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二日。壬辰。陽。薄暮雨連夜。戒家事，當隨時，物宜得所。

1912년 6월 3일. 계사. 흐림. 이슬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머슴에게 명하여 인력(人力)이 부족해 모내기를 하지 못한 사람을 가서 도와주도록 했다. 해질녘 어린 손주를 데리고, 들판의 풍경을 바라보니 모내기 하는 사람이 간혹 있었다.

三日。癸巳。陰。微雨濛濛。命僱人去助力不及者未秧。斜陽携穉孫，觀野色，移秧者，間或有之。

1912년 6월 4일. 갑오. 흐림. 소나기가 대여섯 차례나 내려 계곡물이 불어났다.

四日。甲午。陰。驟雨五六次降，溪水漲流。

1912년 6월 5일. 을미. 맑다가 흐려짐. 이슬비가 먼지를 가라앉힐 만큼 내렸다.

五日。乙未。陽而陰。微雨浥塵。

1912년 6월 6일. 병신. 흐림. 비가 올 듯 했으나 오지 않았다. 농사를 감독하고 송아지에게 풀을 뜯겼다.

六日。丙申。陰。欲雨未雨。管耕餘積。

1912년 6월 7일. 정유. 맑음.

七日。丁酉。陽。

1912년 6월 8일. 무술. 맑음.

八日。戊戌。陽。

1912년 6월 9일. 기해. 약간 맑음.

九日。己亥。微陽。

1912년 6월 10일. 경자. 흐리고 비가 흠족히 내림.

十日。庚子。陰雨洽注。

1912년 6월 11일. 신축. 맑음. -동풍이 불었다- 주영묵(朱永默)이 왔다.

十一日。辛丑。陽【東風】。朱永默來。

1912년 6월 12일. 임인. 맑다가 다시 흐려짐.

十二日。壬寅。陽復陰。

1912년 6월 13일. 계묘. 맑음.

十三。癸卯。陽。

1912년 6월 14일. 갑진.

十四日。甲辰。

1912년 6월 15일. 을사.

十五日。乙巳。

1912년 6월 16일. 병오.

十六日。丙午。

1912년 6월 17일. 정미. 맑음.

十七日。丁未。陽。

1912년 6월 18일. 무신. 맑음.

十八日。戊申。陽。

1912년 6월 19일. 기유. 맑음.

十九日。己酉。陽。

1912년 6월 20일. 맑음. 경술. 맑음.

二十日。陽。庚戌。陽。

1912년 6월 21일.辛亥. 맑음.

二十一日。辛亥。陽。

1912년 6월 22일. 맑음. 임자.

二十二日。陽。壬子。

1912년 6월 23일. 계축. 반짚 흐리고 반짚 맑음. 비가 조금 왔다.

二十三日。癸丑。半陰半陽。少雨。

1912년 6월 24일. 갑인. 맑음.

二十四日。甲寅。陽。

1912년 6월 25일. 을묘. 맑음. 황충(蝗虫)<sup>162</sup>을 잡았다.

二十五日。乙卯。陽。捕蝗。

1912년 6월 26일. 병진. 입추(立秋). 맑음. 황충을 잡았다.

二十六。丙辰。立秋。陽。捕蝗。

1912년 6월 27일. 정사. 맑음. 황충을 잡았다. 이문극(李文楹)이 와서 말하기를, 가뭄과 황충이 가는 곳마다 한 가지라고 한다.

二十七日。丁巳。陽。捕蝗。李文楹來言，旱蝗到處一般。

1912년 6월 28일. 무오. 맑음.

二十八日。戊午。陽。

1912년 6월 29일. 기미. 맑음.

二十九日。己未。陽。

162) 황충(蝗虫) : 메뚜기. 몸길이가 약 5센티미터인 황충과의 곤충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에 널리 서식한다. 바람의 방향을 따라 집단으로 이동하며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습성이 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간 곳에는 초목이나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1912년 6월 30일. 경신. 맑음. 백숙부(伯叔父)의 기일이다.

三十日。庚申。陽。伯叔父忌日也。

1912년 7월 1일. 신유. 맑음. 소나기가 갑자기 내려 계곡물이 불어났다.

七月。初一日。辛酉。陽。驟雨忽至，溪水漲流。

1912년 7월 2일. 임술. 맑음.

二日。壬戌。陽。

1912년 7월 3일. 계해. 맑음.

三日。癸亥。陽。

1912년 7월 4일. 갑자. 맑다가 흐려짐. 소나기가 흠족히 내려 계곡물이 불어났다.

四日。甲子。陽而陰。驟雨洽注，溪水漲流。

1912년 7월 5일. 을축. 흐리다 맑아짐. 잠시 비가 내리다 금방 갠다.

五日。乙丑。陰而陽。乍雨乍晴。

1912년 7월 6일. 병인. 흐림. 농부가 고(苽, 줄풀 또는 오이)를 보내왔다.

六日。丙寅。陰。野人送苽。

1912년 7월 7일. 정묘. 흐림. 날씨가 꺾 듯하다가 개지 않았다.

七日。丁卯。陰。似晴未晴。

1912년 7월 8일. 무진. 흐리고 비.

八日。戊辰。陰雨。

1912년 7월 9일. 기사. 맑음. 밤에 비 음.

九日。己巳。陽。夜雨。

1912년 7월 10일. 경오. 맑음.

十日。庚午。陽。

1912년 7월 11일. 신미. 맑음. 아들에게 명하여 힘센 사람을 데리고 가서 산에서 땀나무를 해 오도록 했다.

十一日。辛未。陽。命家兒率強以樵山。

1912년 7월 12일. 임신. 맑음.

十二日。壬申。陽。

1912년 7월 13일. 계유. 맑음.

十三日。癸酉。陽。

1912년 7월 14일. 갑술. 맑음. 이한직(李漢植)과 국기용(鞠基瑢)이 내방하였기에 함께 정자 위에 올라서 담론하였는데 마치지 못하고 돌아왔다. 달 뜨는 밤에 답례하기 위해 이한직의 처소에 가서 국기용과 노인(魯認)<sup>163</sup>의 《금계일기(錦溪日記)》를 열람하였는데, 그 책에 “중

163) 노인(魯認, 1566~1624) : 자는 공식(公識), 호는 금계(錦溪), 본관은 함풍(咸豐)으로, 나주 출신의 무관이다. 정유재란 때 일본에 포로로 잡혀가서 3년간 억류되었으나, 중국의 차관(差官) 임진혁(林震黻)의 배편으로 명나라로 탈출하였으며, 무이서원(武夷書院)에서 정주

원 사람들과 함께 일본에서 오는데, 파도가 맹렬하게 솟구쳤다. 중원 사람들이 그걸 보고 서로 말하기를 ‘중원의 경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였다. 그 까닭을 물어보니, ‘큰 고래는 햇볕을 따라 올라와 물이 낮은 곳에서 논다.’고 하였다.”라는 내용이 있다.

十四日。甲戌。陽。李漢植·鞠基瑢來訪，共上亭上談論，未了而歸。月夕，以回謝次，到李漢植寓舍，基瑢覽魯錦溪日記，有曰，“與中原人，自日本而來，波濤洶聳。中原人見而相謂曰，‘中原界漸近’。問其故，‘長鯨承陽而上，水淺之處遊也’云”。

1912년 7월 15일. 을해. 반나절은 흐리고 반나절은 맑았다. 이한직과 국기용이 함께 왔고, 엄지순도 왔다.

十五日。乙亥。半陰半陽。漢植·基瑢同來，嚴之淳又來。

1912년 7월 16일. 병자. 반나절은 맑고 반나절은 흐렸다. 나규운(羅奎運) 재경(在敬)이 왔다. 오후에는 문중에서 통문을 보내 왔는데, 곧 충정공 선조의 묘지석이 묘를 수축할 때 나온 사건이었다. 살펴보고 슬픈 마음이 그지없었다.

十六日。丙子。半陽半陰。羅奎運在敬來。午後門中通文來，卽忠貞公先祖誌石見出修墓事件也。見則感愴不已。

1912년 7월 17일. 정축. 맑음.

十七日。丁丑。陽。

학(程朱學)을 강론하다가 1599년 귀국하였다. 저술로 일본에 억류되어 있을 때 지은 <피부동고록(被俘同苦錄)>·<거왜수록(居倭隨錄)>·<왜국지도(倭國地圖)>가 있고, 유집으로 <금계집(錦溪集)> 6권 2책이 있다.

1912년 7월 18일. 무인, 맑음.

十八日。戊寅。陽。

1912년 7월 19일. 기묘, 맑음.

十九日。己卯。陽。

1912년 7월 20일. 경진. 맑음

남원 유천(楡川)<sup>164</sup>에 사는 방진호(房鎭浩)가 왔기에 함께 시정(詩亭)에 올랐다. 동북의 조용호(趙鎔湖)도 마침 회합하여 남산 잠두시를 읊조렸다.

二十日。庚辰。陽。南原楡川房鎭浩來，共上詩亭。同福趙鎔湖適會，誦南山蠶頭詩。

부상<sup>165</sup>의 큰 잎사귀 온전히 거두지 못하여,

절로 천잠이 해상 고을에 떨어졌네.

촉땅에 무더기로 다 피니 나라에 위험이 없고

가축 아니라 조금씩 먹으니 세상이 근심하지 않네.

일자가 사다리에 오름에 천년을 축복하고

세 번 자고 내려옴에 오강이 흐른다네.

배에 가득한 경륜은 보필할 것 생각하여,

붉은 꽃과 단풍을 춘추로 수 놓네.

扶桑大葉未全收

自落天虫海上州

叢開畢蜀邦無險

稍食非參世不憂

一字梯登千歲祝

三眠枕下五江流

滿腹經綸思補袞

花紅楓紫繡春秋

1912년 7월 21일. 신사. 맑음.

二十一日。辛巳。陽。

164) 유천(楡川) : 전라북도 남원시 주생면 영천리에 유천서원이 있다.

165) 부상 :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나무 또는 지명. 동쪽 바다속 해가 뜨는 곳에 있는 신목(神木)으로, 전(轉)하여 해가 뜨는 곳을 지칭하기도 한다.

1912년 7월 22일. 임오. 맑음.

二十二日。壬午。陽。

1912년 7월 23일. 계미. 맑음. 오늘은 가정에 가훈을 남기고자 하는데 문장 실력이 부족하여 편언(片言)으로 명한다. “대저 인사는 지극한 정성과 친진함으로 옛것을 상고하여 독실하게 행하면 거의 허물이 없게 된다. 매양 공경함을 위주로 하고 관대하게 행하며<sup>166)</sup>, 경(敬)으로서 마음을 바르게 하고, 의(義)로서 외면을 방정하게 한다<sup>167)</sup>는 등의 구절을 정성스럽게 마음에 담고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二十三日。癸未。陽。是日也，欲垂家庭之訓，文章不足，以片言命之。“夫人事至誠天真，稽古以篤行，則庶無咎然。每以主敬行恕，敬以直內，義以方外等句，拳拳服膺而勿失也。”

1912년 7월 24일. 갑신. 반나절은 맑고 반나절은 흐림. 땀나무를 하라고 명하고, 날이 저물어 머물렀다.

二十四日。甲申。半陽半陰。命柴役，日暮留。

1912년 7월 25일. 을축. 살짝 비가 오다가 쾌청함.

二十五日。乙丑。微雨而快晴。

166) 매양 …… 행하며 : 중궁(仲弓)이 인을 물었을 때에 공자가 “문을 나갔을 때에는 큰손님을 뵈는 듯이 하고 백성을 부릴 때에는 큰 제사를 받들 듯이 하며, 자신이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아야 한다.[出門如見大賓，使民如承大祭，己所不欲勿施於人.]”라고 말한 것을 가리킨다. 이에 대해 주희는 주석에서 경(敬)과 서(恕)로 풀이하였다.(《논어 집주》 <안연(顔淵)>)

167) 경으로서 …… 한다 : 《주역》 <곤괘(坤卦)> 문언전(文言傳)에 “경으로써 안을 곧게 하고 의로써 밖을 방정하게 하여, 경과 의가 확립되면 덕이 외롭지 않다.[敬以直內，義以方外，敬義立而德不孤.]”라고 하였다.

1912년 7월 26일. 병술. 맑음.

二十六日。丙戌。陽。

1912년 7월 27일. 정해. 맑음. 밤에 비가 옴.

二十七日。丁亥。陽。夜雨。

1912년 7월 28일. 무자. 반나절은 흐리고, 반나절은 맑음. 누룩을 만들었다.

二十八日。戊子。半陰半陽。造麴。

1912년 7월 29일. 기축. 맑음.

二十九日。己丑。陽。

1912년 8월 1일. 경인. 맑음. 낡은 책을 뒤적거리려보다가 우옹(尤翁, 송시열)의 직자결(直字訣)이 보여서 기록한다.

八月。初一日。庚寅。陽。翻閱塵篇，見尤翁直字訣，記之。

<우옹의 직자결>

직(直, 곧은 도리)으로서 마음을 보존하면 다만 하늘을 우러르나 땅을 굽어 보나 부끄럼이 없을 뿐만이 아니다. 이 마음이 명쾌하여 그 의리에 있어서 공사(公私)나 사정(邪正)에 대해서 구분이 분명해지니, 자신을 수행하고 일을 하는 데에 반드시 유익함이 있다.

또 ‘직’이라고 하는 것은 옳다는 뜻이다. 부직(不直)한 일은 마참내 불시(不是)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명백하게 직(直)을 볼 수 있다면 어찌 불시(不是)한 것이 있겠는가? 성현이 말한 ‘혹 권(權)<sup>168</sup>을 따라야

168) 권(權) : 권도(權道)를 이른다.

할 곳이 있다고 할 때의 그 ‘권’은 시(是)가 아님이 없다. 사리의 마땅함을 얻었다면 곧 직이 된다.

만물이 생성될 때에 혹 지절(枝節)이 있으나, 이 이(理)가 없을 수 없는 것이니, 또 이(理)의 직(直)이다. 무릇 사물의 직(直), 생물의 직(直)은 우리의 보배가 되지 않음이 없다. 그러나 형세가 부득이해서 권(權)을 쫓아 의(誼)에 합당한 것과, 지말(枝末)을 대신해서 근본[本]에 연계시키는 것도 있으니, 이 또한 사(事)의 직(直)이다. 이 직(直)은 마땅히 통관해서 보는 것이 옳지, 일단의 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또 직(直)자에는 마음을 보존하는 공부에 긴요함이 있다. 187자이다.

#### 尤翁直字訣。

以直存心，則非但俯仰無怍，此心明快，而其於義理，公私邪正，界限分明，必有益於行己立事矣。且曰直者，是之意也。其見不直事，終歸於不是。如能明白見直，則烏有不是者乎？聖賢之所謂‘或有從權處’，而其權也，非不是焉。事理之得當，是直也。萬物之生成也，或有枝節，而此理之所不可無，則亦理之直也。凡物之直，凡生之直，莫不爲吾人所實，而勢不得已，從權而合誼者，代支而連本者，是亦事之直也。此直者，當通觀可也，不可以一端之直觀也。又曰直字，於存心之功有要也。一百八十七字。

1912년 8월 2일. 신묘. 맑음. 문암리(門岩里)로 생부(生父)의 제사<sup>169)</sup>를 지내러 갔다.

初二日。辛卯。陽。作門岩里生庭親祭之行。

1912년 8월 3일. 임진. 맑음. 집으로 돌아왔다.

三日。壬辰。陽。還巢。

1912년 8월 4일. 계사. 맑음.

169) 생부의 제사: 생부 김진현(金珍鉉)은 1896년 8월 3일에 졸하였다. 묘는 담양군 금성면 덕진동 안산에 있다.

四日。癸巳。陽

1912년 8월 5일. 갑오. 맑음.

五日。甲午。陽。

1912년 8월 6일. 을미. 맑음.

六日。乙未。陽。

1912년 8월 7일. 병신. 맑음.

七日。丙申。陽。

1912년 8월 8일. 정유. 맑음.

八日。丁酉。陽。

1912년 8월 9일. 무술. 맑음.

九日。戊戌。陽。

1912년 8월 10일. 기해. 맑음. 치동(峙洞)의 처제(妻弟, 처남) 허동(許棟)이 왔다.

十日。己亥。陽。峙洞妻弟許棟來。

1912년 8월 11일. 경자. 맑음.

十一日。庚子。陽。

1912년 8월 12일. 신축. 본 고을 향시(鄉市, 시장)에서 소를 팔았다.



十二日。辛丑。賣牛本鄉市。

1912년 8월 13일. 임인. 맑음. 소를 사러 옥과 시장에 갔다가 돌아왔다.

十三日。壬寅。陽。買牛次，臨玉果市而還。

1912년 8월 14일. 계묘. 맑음.

十四日。癸卯。陽。

1912년 8월 15일. 경진. 맑음. 오현(五絃)<sup>170</sup>의 친산에 성묘하러 갔다.

十五日。甲辰。陽。作五絃親山省楸之行。

1912년 8월 16일. 을사. 맑음. 미륵동(彌勒洞)<sup>171</sup>에 있는 선산에 성묘하러 갔다가 해질녘에 집으로 돌아왔다. 이날 이병규(李秉圭)가 관광으로 일본을 가는데 어엿하게 시가 이루어져서 일본에 전하고자 하였다.

十六日。乙巳。陽。作彌勒洞先山省楸之行，斜陽還巢。即日李秉圭，觀光日本之行，居然成句，欲傳日本。

한 하늘 아래에는 천자를 두었으니,	一天之下作元后
제후의 등급인 우리나라는 사대하는 것이 이치였네.	侯等吾邦事大理
만국(萬國)이 개화함에 동열이 된 것이 의인데,	萬國開和同列義
우리 임금을 자리에서 밀어내니 이 무슨 이치인가?	擠我君位是何理

병규(秉圭)가 이미 먼저 출발해버렸기 때문에 전할 수 없으니, 다만 통한스러움이 끝이 없다.

170) 오현(五絃) : 담양군 무면 오계리 오현동으로, 현재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오현 마을을 이른다. 오현동에 양부모의 묘소가 있다.

171) 미륵동(彌勒洞) : 광주광역시 서구 미륵동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秉圭已先發行未及, 而但痛恨不已。

1912년 8월 17일. 병오. 맑음. 신촌(新村)을 갔다.  
十七日。丙午。陽。作新村之行。

1912년 8월 18일. 정미. 맑음.  
十八日。丁未。陽。

1912년 8월 19일. 무신. 맑음. 옥과 시장으로 가서 송아지를 팔고 돌아  
오는데, 신안(新安)에 도착했을 때 해가 저물기에 주영묵(朱永默)의 사  
랑에서 유숙하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왔다.

十九日。戊申。陽。如玉果市, 賣犢而還, 到新安日暮, 留宿朱永默舍  
廊, 翌日還巢。

1912년 8월 20일. 기유. 맑음.  
二十日。己酉。陽。

1912년 8월 21일. 경술. 흐림.  
二十一日。庚戌。陰。

1912년 8월 22일. 신해. 흐리고 잠깐 비.  
二十二日。辛亥。陰乍雨。

1912년 8월 23일. 임자. 맑음.  
二十三日。壬子。陽。

1912년 8월 24일. 계축. 맑음.

二十四日。癸丑。陽。

1912년 8월 25일. 갑인. 맑음.

二十五日。甲寅。陽。

1912년 8월 26일. 을묘. 맑음.

二十六日。乙卯。陽。

1912년 8월 27일. 병진. 약간 맑고 추움.

二十七日。丙辰。微陽而寒。

1912년 8월 28일. 정사. 맑다가 밤에 잠깐 비.

二十八日。丁巳。陽夜乍雨。

1912년 8월 29일. 병오. 맑음.

二十九日。丙午。陽。

1912년 9월 1일. 기미. 맑음.

九月。初一日。己未。陽。

1912년 9월 2일. 경신. 맑음.

二日。庚申。陽。

1912년 9월 3일. 신유. 맑음.

三日。辛酉。陽。

1912년 9월 4일. 임술. 맑음.

四日。壬戌。陽。

1912년 9월 5일. 계해. 맑음.

五日。癸亥。陽。

1912년 9월 6일. 갑자. 흐리고 비.

六日。甲子。陰雨。

1912년 9월 7일. 을축. 맑음

七日。乙丑。陽。

1912년 9월 8일. 병인. 맑음. 사산부자묘(泗山夫子廟)에 이르러 석차례<sup>172)</sup>를 행했다. 초헌(初獻)은 상곡(上谷)에 사는 성손 공성진(孔聖鎭)이고, 아헌(亞獻)은 모현(茅峴)에 사는 신석휴(申錫休)이며, 종헌(終獻)은 길주리(吉周里)에 사는 최봉석(崔鳳錫)이다. 집례(執禮)는 태인 고현내면(古縣內面) 은석동(銀石洞)에 사는 진사 김환규(金煥圭)이고, 대축(大祝)은 울정(栗亭)에 사는 성손 공남열(孔南烈)이다.

음복 후에 김환규가 한 통의 통문을 보여주었다. 곧 춘우정(春雨亭) 김영상(金永相)씨가 최면암(崔勉菴, 최익현)과 함께 무성서원(武城書

172) 석차례(釋菜) : 문묘(文廟)에서 공자(孔子)를 제사 지내는 의식으로,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上丁日)에 거행한다. 서울은 성균관에서, 지방은 향교에서 소나 양 따위의 희생(犧牲)을 생략하고, 채소 따위로 선성(先聖)과 선사(先師)에게 간소하게 지내는 제사로 석전제(釋奠祭)라고도 한다.

院)에서 거의하다가 일병에게 잡혀 순절한 일로, 함께 태산사(泰山祠)에 모시자는 전주향교에서 나온 통문이다. 이어서 답통을 청했지만 여러 유림의 뜻을 알 수 없어서 중론을 기다린 후에 답통을 하기로 하고 파했다.

八日。丙寅。陽。到泗山夫子廟，釋菜。初獻，聖孫聖鎮居上谷。亞獻，申錫休居茅峴。終獻，崔鳳錫居吉周里。執禮，金煥圭進士，居泰仁古縣內銀石洞。大祝，聖孫南烈，居栗亭。受祚後，金煥圭出示一通文。乃春雨亭金永相氏，同崔冕菴，舉義武城書院，拏於一兵殉節事，同配泰山祠，全州鄉校發文也。因請答通，未知諸處儒林之意，故以待衆論後，答通爲言罷。

1912년 9월 9일. 정묘. 맑음. 오현(鰲峴)의 동종 재일(在鎰)댁에 들어가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하만(河晩)의 이재백(李在白) 댁에서 유숙했다.

九日。丁卯。陽。入鰲峴同宗在鎰宅，午飯，回路留宿河晩李在白宅。

1912년 9월 10일. 무진. 맑음. 집에 돌아왔다.

十日。戊辰。陽。還巢。

1912년 9월 11일. 기사. 맑음.

十一日。己巳。陽。

1912년 9월 12일. 경오. 맑음.

十二日。庚午。陽。

1912년 9월 13일. 신미. 맑음. 보리를 갈았다.

十三日。辛未。陽。耨耕。

1912년 9월 14일. 임신. 맑음. 성묘를 하였다.

十四日。壬申。陽。作省楸。

1912년 9월 15일. 계유. 맑음. 무후사(武侯祠)<sup>173</sup>에 들어가서 석채례(釋菜禮)를 행했다.

十五日。癸酉。陽。入武侯祠，行釋菜禮。

1912년 9월 16일. 갑술. 맑음.

十六日。甲戌。陽。

1912년 9월 17일. 을해. 맑음.

十七日。乙亥。陽。

1912년 9월 18일. 병자. 맑음.

十八日。丙子。陽。

1912년 9월 19일. 정축. 맑음. 장성(長城)을 가다가 도중에 비 때문에 막혀서 돌아왔다.

十九日。丁丑。陰。行長城，滯雨於中路回還。

173) 무후사(武侯祠) : 곡성군 오산면 청단리에 있다. 중국 삼국시대 촉(蜀)나라의 승상으로서 신책(神策)을 부렸다는 제갈량(諸葛亮)을 봉사하는 사당이다. 1902년에 제갈하백이 관왕묘에 모셔진 제갈량의 영정을 분리 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상소를 올리어 예조의 허가를 얻고 세웠다.

1912년 9월 20일. 무인. 맑음. 장성의 용산택(龍山宅, 김낙주 집)에 도착하여 계속 머물렀다.

二十日。戊寅。陽。到長城龍山宅，留連。

1912년 9월 21일. 기묘. 맑음

二十一日。己卯。陽。

1912년 9월 22일. 경진. 반은 맑고 반을 흐림. 잠깐 비. 수성리 사돈집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하만에 머물면서 학도들을 모아 공부를 가르쳤다.

二十二日。庚辰。半陽半陰，乍雨。訪水城查家而還，留河晚，學徒聚集教授。

1912년 9월 23일. 신사. 맑음.

二十三日。辛巳。陽。

1912년 9월 24일. 임오. 맑음. 용산과 함께 얘기를 나누다가 말이 고부(古阜) 우덕면(優德面) 두지동(斗地洞)에 사는 최효자에 미쳤다. -이름은 찬수(燦秀), 자는 내겸(乃謙)이다.- 최효자는 기품이 노둔하지만 학문에 독실하고 효로서 부모를 봉양하였다.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집상(執喪)함에 슬픔을 지나치게 하였고, 시묘살이를 하며 상을 마쳤다. 종상 후에는 매월 초하루와 보름으로 성묘하기를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으며, 새 음식이 나오면 전향(奠享)한 후에 입에 넣었고, 만약 제철 음식이 없으면 마른 것이라도 그렇게 하였다. 춘첩에는 항상 ‘산망제 야망제 지우덕인우덕(山望帝我望帝，地優德人優德)’이라고 12글자를 썼는데, 그것이 우덕면(優德面) 망제봉(望帝峯)인 것으로 인해 그렇다

고 한다. 때문에 흠양하여 적어둔다.

二十四日。壬午。陽。與龍山談話，語及古阜優德面斗地洞崔孝子【名燦秀，字乃謙】。崔孝子氣稟魯鈍，篤實學文，孝養父母。父母歿，執喪過哀，居廬終喪。終喪後，每朔望省掃無一空行，以時物奠享後入其口，若無時物，雖乾糗亦然。題春帖，常以‘山望帝我望帝地優德人優德’十二字，因其優德面望帝峯而然也云，故欽仰記之。

1912년 9월 25일. 계미. 맑음.

二十五日。癸未。陽。

1912년 9월 26일. 갑신. 흐림.

二十六日。甲申。陰。

1912년 9월 27일. 을유. 맑음.

二十七日。乙酉。陽。

1912년 9월 28일. 병술. 흐림.

二十八日。丙戌。陰。

1912년 9월 29일. 정해. 흐림. 갑자기 추워졌다. 경상도 진주(晉州)의 인천(仁川)리에서 김석규(金錫圭)·김상완(金洙相)이 왔는데, 모두가 하서(河西)<sup>174)</sup> 선정신(先正臣)<sup>175)</sup>의 후예이다. 다음날 선조의 묘에서 시

174) 하서(河西) : 김인후(金麟厚, 1510~1560)의 호이다. 자는 후지(厚之)이고 본관은 울산(蔚山)이다. 1540년(중종35) 별시 문과에 급제하고 홍문관 부수찬으로 세자를 가르치는 직임을 맡았다. 1545년(인종1) 인종이 승하하고 곧이어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병을 칭탁하고 향리로 돌아가 학문 연구와 제자 양성에 전념하였다. 시호는 문정(文正)이고 문묘(文廟)에 배향되었다.



제를 지내기 위해 명정(鳴鼎)<sup>176</sup>으로 향해 갔다.

二十九日。丁亥。陰。猝寒。慶尙晉州仁川，金錫圭·金浣相來，皆河西先正後裔也。翌日以先墓時祠次，向鳴鼎而去。

1912년 9월 30일. 무자. 흐리고 쌀쌀했다.

三十日。戊子。陰冷。

1912년 10월 1일. 기축. 흐림. 밤에 눈이 내렸다. 용산(龍山)과 담론을 하다가 말이 자기 집안 세계(世系)에 미쳤다. 하서 선정신으로부터 청재공(淸齋公) 장환(章煥)<sup>177</sup>까지가 10대인데, 14살 손자 대중(大中)에게 전하는 시가 있다고 하는데, 다음과 같다.

十月。初一日。己丑。陰。夜雨雪。與龍山談論，語及自家先世系。自河西先正，至淸齋公諱章煥十世，有傳十四歲孫大中詩之句。

집에 소장된 옛 책이 삼천 질이요,	家藏舊籍三千秩
대대로 일궈온 땅이 수십 이랑이라.	世業荒田數十畝
열네 살 어린 손자에게 물려주니,	付予穉孫年十四
밭갈고 독서하며 뒤를 잘 이어갈 수 있겠지.	渠能耕讀繼賢後

또 돌아가신 어머니의 선산을 살 때 지은 시 한 수가 있어서 암송을 하기에, 기록해 둔다.

又有先妣山地買得時，所作一絕誦之，記之。

175) 선정신(先正臣) : 유현(儒賢)으로서 학덕(學德)이 높았으나, 현재는 작고한 신하를 말한다.

176) 명정(鳴鼎) : 장성군 북이면 명정리를 말한다. 여기에는 울산김씨 중시조비(中始祖妣)인 여흥민씨(麗興閔氏)의 묘소가 있다. 북부혈(伏釜穴) 명당자리로 유명하며 하서선생의 5대조 직계조모이다.

177) 장환(章煥) : 김정환(金章煥, 1761~?)으로, 자는 치문(稚文), 김인후의 10대손이며, 아버지는 군수 김직휴(金直休)이다. 1819년에 영릉(寧陵)참봉을 지냈다.

산은 요순 때의 사물이지만	山是唐虞物
사람은 요순 때의 마음이 아니라네.	人非堯舜心
선실에는 백안 <sup>178</sup> 이 많고,	禪室多白眼
객탑에는 황금이 적다네.	客榻少黃金

1912년 10월 2일. 경인. 흐림. 지관 한명오(韓明午)가 와서 밤늦도록 담론하였는데, 다음날 아침에 용산(龍山)의 말을 들었다. 용산이 말하기를 “지난밤에 여러 손님들과 놀다가 밤이 깊어지니 요기(饒飢)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집에 들어가 아내에게 먹을 것을 부탁했는데 아내가 말하기를 ‘집에 술이 아직 안 익었다.’고 하였소. 또 과실을 청하자, 아내가 말하기를 ‘군자는 항상 무속인에게 집안이 미혹될까 단속해야 하거늘, 지금 지관에게 미혹되어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지 못하고 독실하게 믿는 것이 이와 같군요’라고 하였소. 들으니 말은 비록 옳지만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기 때문에 지관의 도가 저명하다는 말로 대답하니, 금시(錦柿) 한 쟁반을 내주어 손님을 대접하였소.”라고 했다. 듣고서 노래를 지었다.

初二日。庚寅。陰。地師韓明午來，至夜半談論，翌朝聞龍山說。龍山曰“去夜，與衆賓遊，夜深則不得不饒飢，故入宅內謀諸婦，婦曰‘家釀未熟’。又請實果，婦曰‘君子常責宅內之惑於巫尼徒，今惑於地師，不知其眞僞，篤信如此’。聞則言雖是，不得不待賓乃已，故言以地師之道著，對之，則出錦柿一槃，故待賓”云爾。聞而作歌。

진실이여, 진실이여,	眞實眞實兮
말은 마음의 소리가 되니 소리로서 알아야 하고	言爲心聲 聲以知

178) 백안(白眼) : 경멸하게 대함. 삼국 시대 위(魏)나라 완적(阮籍)이 속된 사람을 만나면 백안(白眼) 즉 흰 눈자위를 드러내어 경멸하는 뜻을 보이고, 의기투합하는 사람을 만나면 청안(靑眼) 즉 검은 눈동자로 대하여 반가운 뜻을 드러낸 고사가 전한다.(《세설신어·간오(簡傲)》)

가정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림이여, 齊家齊家兮  
 가정을 다스리는 것은 몸에 근본 하니 술선수범 해야 하리. 齊家本身 身先之

1912년 10월 3일. 신묘. 맑고 흐림.

初三日。辛卯。陽陰。

1912년 10월 4일. 임진. 흐림.

四日。壬辰。陰。

1912년 10월 5일. 계사. 맑음.

五日。癸巳。陽。

1912년 10월 6일. 갑오. 흐리고 눈.

六日。甲午。陰雪。

1912년 10월 7일. 을미. 흐림.

七日。乙未。陰。

1912년 10월 8일. 갑신. 흐림. 한 사람의 붓 장사가 왔는데 그의 성을 물으니 선(宣)씨였다. 본관은 보성(寶城)이고, 그의 선조는 퇴휴당(退休堂) 윤지(允止)로, 명나라 때 순찰로 와서 정도를 붙들어 세우고 사 특한 것을 물리쳤다.[扶正斥邪] 그 뒤에 수사(水使) 약해(若海)가 있는데, 심양공신(溟陽功臣)에 들어 당시에 ‘삼소무열(三蘇武列)’이라고 칭해졌다고 한다.

八日。甲申。陰。有一筆商來，問其姓，乃宣氏也。貫則寶城，其先祖

退休堂, 諱允止, 大明時以巡察來, 扶正斥邪。其後有水使諱若海, 潯陽功臣參, 於時, 稱三蘇武列云。

1912년 10월 9일. 정유. 흐림.

九日。丁酉。陰。

1912년 10월 10일. 무술. 반은 흐리고 반은 맑음.

十日。戊戌。半陰半陽。

1912년 10월 11일. 기해. 흐리고 비.

十一日。己亥。陰雨。

1912년 10월 12일. 경자. 흐림. 하만(河晩)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바람이 매우 차가웠다.

十二日。庚子。陰。自河晩還巢。風氣甚寒。

1912년 10월 13일. 신축<sup>179)</sup>. 맑음. 김경헌(金景憲)의 친상(親喪)을 위문하였다. 옛 법도를 따랐다[率由舊章]<sup>180)</sup>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다.

十三日。辛丑。陽。慰問金景憲親喪。以率由舊章, 受嘲於傍人。

1912년 10월 14일. 임인<sup>181)</sup>. 맑음. 다시 장성으로 갔다.

179) 신축 : 원문에는 '庚子'라고 했으나, 10월 12일이 경자일이므로 10월 13일은 신축일이다.

180) 옛 법도를 따랐다[率由舊章] : 《시경》 <가락(假樂)>에 '어기지 않고 잊지도 않아서, 모두 옛 법을 따랐네.[不愆不忘, 率由舊章]'라는 구절이 있다.

181) 임인 : 원문에는 '辛丑'이라고 했으나 10월 13일이 신축일이므로 10월 14일은 임인일이다.

十四日。壬寅。陽。復出長城。

1912년 10월 15일. 계묘. 맑음.

十五日。癸卯。陽。

1912년 10월 16일. 갑진. 맑음.

十六日。甲辰。陽。

1912년 10월 17일. 을사. 맑음.

十七日。乙巳。陽。

1912년 10월 18일. 병오. 맑음. 삼가 정이암(鄭李菴)<sup>182</sup>시에 차운하였다.

十八日。丙午。陽。謹次鄭李菴韻。

<삼가 정이암 시를 차운하다>

정이암은 높아 저토록 우뚝하고,  
이옹(二翁)의 우덕(友德)은 지금까지 전하네.  
청풍은 도를 논하던 날 그대로이고,  
명월은 의를 강명하던 자리 길게 비추네.  
정양(靜養)하는 공부가 진실한 곳에서,  
보인(輔仁)<sup>183</sup>의 유택으로 현인이 이어지네.  
천륜은 오직 이처럼 독실한 곳에서 펼쳐지니,

謹次鄭李菴原韻

鄭李菴高彼截然  
二翁友德至今傳  
清風依舊論道日  
明月長輝講義筵  
靜養工夫真實地  
輔仁流澤繼來賢  
天倫惟敘固斯篤

182) 정이암(鄭李菴) : 장성읍 유탕리 서골 불대산에 있었다. 송강(松江) 정철(鄭澈, 1536~1593)과 석탄(石灘) 이기남(李箕南)이 이곳에서 강학하던 것을 인연하여 두 사람의 성을 따서 이름을 정이암이라 하였다. 6.25 전쟁 때 소실되어 최근 마을 가까이 옮겨 신축했다.

183) 보인(輔仁) : 상대방을 통해 자신의 인덕(仁德)을 보강하는 것이다. 《논어》 <안연(顏淵)>에 “군자는 학문을 통해서 벗을 모으고, 벗을 통해서 자신의 인덕을 보강한다.[君子以文會友, 以友輔仁]”라는 말이 나온다.

명성을 길이 세우는 데 어찌 연한이 있겠는가.

永樹風聲豈限年

1912년 10월 19일. 정미. 맑음.

十九日。丁未。陽。

1912년 10월 20일. 무신. 맑음.

二十日。戊申。陽。

1912년 10월 21일. 기유. 흐림.

二十一日。己酉。陰。

1912년 10월 22일. 경술. 흐림. 밤에 비가 왔다.

二十二日。庚戌。陰。夜雨。

1912년 10월 23일.辛亥. 맑음.

二十三日。辛亥。陽。

1912년 10월 24일. 임자. 맑음.

二十四日。壬子。陽。

1912년 10월 25일. 계축. 맑음.

二十五日。癸丑。陽。

1912년 10월 26일. 갑인. 흐림.

二十六日。甲寅。陰。

1912년 10월 27일. 을묘. 맑음.

二十七日。乙卯。陽。

1912년 10월 28일. 병진. 맑음.

二十八日。丙辰。陽。

1912년 10월 29일. 정사. 흐림.

二十九日。丁巳。陰。

1912년 10월 30일. 무오. 맑음.

三十日。戊午。陽。

1912년 11월 1일. 기미. 흐림.

十一月。初一日。己未。陰。

1912년 11월 2일. 경신. 맑음.

二日。庚申。陽。

1912년 11월 3일. 신유. 맑음. 오늘 지기(知己) 2~3인과 보룡(普龍)<sup>184</sup>에 놀러 갔다가 돌아왔다.

三日。辛酉。陽。是日也，與二三知己，遊普龍以還。

1912년 11월 4일. 임술. 흐림.

四日。壬戌。陰。

184) 보룡(普龍) : 장성군 황룡면(黃龍面) 아곡리(阿谷里)에 있는 보룡산(普龍山)을 말한다.

1912년 11월 5일. 계해. 흐림.

五日。癸亥。陰。

1912년 11월 6일. 갑자. 흐림. 근래에 한가한 날에 하서(河西) 선정(先正)의 《유집(遺集)》을 열람하였는데, 오늘 우연히 하나의 절구를 지었다.

六日。甲子。陰。近以暇日，閱覽河西先正遺集，是日也，偶成一絕。

<하서 선정의 유고를 읽고 읊조리다>

讀河西先正遺稿吟

빛나는 하서 선생의 유고는,  
지극한 이치를 포함하고 있네.  
현과 미를 곡진하게 하였고,  
본과 말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네.  
만 가지 선은 성을 주로 삼고,  
하늘은 도의 큰 근원이라네.  
찬연히 성학을 밝히시고,  
후학의 뿌리를 복돋우셨네.

昭昭河西編  
包含至理存  
顯微曲盡意  
本末分明言  
萬善誠爲主  
一天道大原  
粲然明聖學  
後學以培根

1912년 11월 7일. 을축. 흐림.

七日。乙丑。陰。

1912년 11월 8일. 병인. 흐리다가 맑아짐.

八日。丙寅。陰而陽。

1912년 11월 9일. 정묘. 맑았다가 흐려짐. 배우는 아이들이 익히는 시구로 시를 지어 홍주(鴻柱)에게 주었다.

九日。丁卯。陽而陰。以學兒習句韻，示鴻柱。



박괘가 가고 복괘가 올 때라, <sup>185)</sup>	際茲剝往復來時
천지의 마음을 증험하기에 마땅하네.	天地之心驗得宜
불쑥 나타난 바가 소리와 냄새도 없는데,	闐然所見無聲臭
만화의 발생을 이제부터 기약한다네.	萬化發生從此期

1912년 11월 10일. 무진. 흐리고 비 음.

十日。戊辰。陰雨

1912년 11월 11일. 기사. 맑음. 지사(地師, 지관) 한규석(韓奎錫) 명오(明午)와 함께 여러 달을 함께 지내다 보니 교분이 점차 두터워졌다. 돌아가신 어머니 산소의 사초일자를 물어서 계축년(1913) 2월 29일로 택정하였다. 동생이 왔다.

十一日。己巳。陽。與地師韓奎錫明午，數朔同處，交誼漸篤。問先妣山所莎草日字，擇定于

癸丑二月二十九日也。舍弟來。

1912년 11월 12일. 경오. 맑음. 동생이 가고 아들이 왔다.

十二日。庚午。陽。舍弟去，家兒來。

<우연히 지음>

偶成

성찰공부가 점차 은미한 곳까지 이르면,	省察工夫到隱漸
선악이 분명해져서 서로 의지하지 않는다네.	昭然善惡不相依
악의 싹은 깨끗이 없애고 선의 단서는 넓혀서,	惡萌決去善端擴
널리 응하고 일마다 마땅해야 덕이 날로 빛난다네.	汎應曲當德日輝

185) 박괘가 …… 때라 : 10월 순음인 산지박(山地剝)괘가 지나면 11월 일양이 생겨나니 양이 회복하는 지뢰복(地雷復)괘가 된다. 이때가 동지이다.

<의심처를 읊조리다>

이단이 비록 서두는 좋지만,  
모두가 흑세무민하는 데로 흐르는구나.  
어찌 어진 사람을 얻어서 세상을 구제하지 않는가.  
모두 내쫓아서 중원을 범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리.

疑吟

異端雖是好題頭  
盡是誣民惑世流  
安得仁人救世否  
迸諸不使犯中州

1912년 11월 13일. 신미. 흐림.

十三日。辛未。陰。

1912년 11월 14일. 임신. 흐림. 오늘은 동지(冬至)이다. 동지시를 읊조렸다.

十四日。壬申。陰。是日冬至也，咏冬至詩。

하나의 양이 처음 돌아오니<sup>186</sup> 물물마다 새로움을 머금고, 一陽初復物含新  
팔죽 끓여 집집마다 제사하고 부모 섬기네. 豆粥家家祀事親  
관 속에 찬 재가 움직이는<sup>187</sup> 자반(子半)<sup>188</sup>의 때라, 動管寒灰時子半  
폐관(閉關)<sup>189</sup> 때는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 몸을 감추네. 閉關何處掩身人

<정규(正奎) 윤문(允文)을 만나서>

이별한 지 3년 뒤에야,

逢正奎允文

別離三載後

186) 하나의 양이 처음 돌아오니 : 동지에 비로소 일양(一陽)의 기운이 시생(始生)하기 때문이다.

187) 관 속에 찬 재가 움직이는[動管寒灰] : 갈대 속의 얇은 막을 태워 재로 만든 뒤 그것을 각각 울려(律呂)에 해당되는 여섯 개의 옥관(玉琯) 내단(內端)에다 넣어 두면 그 절후(節候)에 맞춰 재가 날아가는데, 동지에는 황종(黃鍾) 울관(律管)의 재가 난다고 한다.(《한서(漢書)》 <율력지(律曆志)>)

188) 자반(子半) : 자시(子時) 반(半). 동짓날 한밤중 자시 반에 일양(一陽)이 시생(始生)한다는 소강절(邵康節)의 학설이 있다.

189) 폐관(閉關) : 관문을 닫음. 《주역》 <복괘(復卦)> 상사(象辭)에 “선왕이 복괘를 보고서, 동짓날에는 관문을 닫게 하고, 행상인의 출입을 금지시키며, 임금 자신은 지방을 순행하지 않는 것으로 경계를 삼았다.[先王以至日閉關，商旅不行，后不省方]”라고 하였는데, 이는 땅속에서 싹트기 시작하는 지극히 작은 하나의 양기(陽氣)를 보전하려는 경건한 마음에서 발로된 것이었다.

한 방안에서 서로 보게 되었구려.	相見一室中
은근한 정답이 세밀해지려면,	慇懃情話細
서로가 이심전심으로 통해야 하리.	要與以心通
그대 그리며 매미소리 듣던 날,	懷君聽蟬日
날 생각하다 끝내 말에서 떨어졌다지.	思我落馬終
우정이란 모두 만남과 헤어짐인 것,	交誼渾分合
좋은 만남 끝없이 이어가세나.	源源好無窮

1912년 11월 15일. 계유. 흐림.

十五日。癸酉。陰。

1912년 11월 16일. 갑술. 맑음. 우연히 시 한 수를 이루었다.

十六日。甲戌。陽。偶成一律。

성옹이 진정 한 영대 안에 있어,	醒翁定在一靈垓
공평한 저울대와 트인 거울 갖추었네.	具以衡平又鑑開
왕래와 만변을 수응하는 곳이라,	往來萬變酬應處
만물과 함께 자연스럽나니 누가 감히 재촉할고	與物自然孰敢催

하만(河晩)에 사는 김상수(金商洙)의 친상(親喪)을 위문했다.

慰問河晩金商洙親喪。

1912년 11월 17일. 을해. 맑음.

十七日。乙亥。陽。

1912년 11월 18일. 병자. 맑음. 밤에 비가 내렸다.

十八日。丙子。陽。夜雨。

1912년 11월 19일. 정축. 흐리다 비가 옵.

十九日。丁丑。陰雨。

1912년 11월 20일. 무인. 흐림.

二十日。戊寅。陰。

1912년 11월 21일. 기묘. 맑음. 하서(河西) 선생의 <문인에게 보이  
다><sup>190</sup>의 “천지 중간에 두 사람 계시나니, 중니[공자]가 원기라면 자  
양[주자]은 진기로세. 잠심하고 땀 길에 미혹되지 말아서, 늙은 이 몸  
을 위로케 하여다오[天地中間有二人, 仲尼元氣紫陽眞。潛心勿向他  
岐惑, 慰此摧頹一病身]”라는 구절의 운(韻)을 가지고 차운시를 완성하  
였다.

二十一日。己卯。陽。因河西先生<示門人>，“天地中間有二人，仲尼  
元氣紫陽眞。潛心勿向他岐惑，慰此摧頹一病身。”句韻而成之。

성(誠)과 경(敬)은 옛 성인에서 나왔으니,  
잘 따르고 잃지 않음이 천진일세.  
도를 분명하게 봄이 이와 같다면,  
천지의 중간에 확정된 몸이로다.

誠敬由來古聖人  
遵而勿失是天真  
分明見道如斯已  
天地中間確定身

1912년 11월 22일. 경진. 비.

二十二日。庚辰。雨。

1912년 11월 23일. 신사. 맑음. 밤에 조금 눈이 내렸다. 계속 하만에 머  
물면서 아이들에게 시를 가르치는 운을 써서 회포를 읊다.

190) 문인에게 보이다[示門人] : 이 시는 김인후 문집인 《하서전집(河西全集)》 권7에 나온다.

二十三日。辛巳。陽。夜少雪。留連河晚，教兒韻，咏懷。

객이 서리 밟고 오니 곧 얼음이 얼 것인데,<sup>191)</sup>  
 나그네의 이 심사는 첩첩이 쌓여만 가네.  
 멀지 않은 거리<sup>192)</sup>에도 오고가는 자 적으니,  
 때때로 뜻은 큰바다를 치는 봉새와 같다네.

履霜來客至堅氷  
 心上羈懷疊又層  
 數舍之中來往少  
 時時意若簸溟鵬

1912년 11월 24일. 임오. 맑음.

二十四日。壬午。陽。

1912년 11월 25일. 계미. 반은 흐리고 반은 맑음.

二十五日。癸未。半陰半陽。

1912년 11월 26일. 갑신. 맑음.

二十六日。甲申。陽。

1912년 11월 27일. 을유. 흐림. 눈이 조금 바람에 날렸다.

二十七日。乙酉。陰。雪少風動。

1912년 11월 28일. 병술. 맑음.

二十八日。丙戌。陽。

1912년 11월 29일. 정해. 맑음. 수성리 사돈댁에 조문 갔다.

191) 서리 …… 것인데 : 《주역》 <곤괘(坤卦)> 초육(初六)에 ‘서리를 밟게 되면 두꺼운 얼음이 곧 얼게 된다.[履霜堅氷至]’는 말이 나온다.

192) 멀지 않은 거리[數舍] : 원문의 ‘수사(數舍)’의 사(舍)는 30리(里)를 뜻하는바, 몇 십 리 정도 떨어진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

二十九日。丁亥。陽。弔水城查家。

1912년 12월 1일. 무자. 흐림. 용계리(龍溪里) 양하남(梁河南)의 원운시(元韻詩)에 차운(次韻)했다.

十二月。初一日。戊子。陰。次龍溪里梁河南元韻。

<하남(河南)의 시에 삼가 차운함> - 순창 용계리에 거주 - 謹次河南【淳昌龍溪里居】

무릇 듣건대 황하(黃河) 물이 일천년 만에,	蓋聞河水一千年
맑아지면 성인(聖人)이 다시 일어난다 전해지네.	清則聖人復起傳
전하는 것 무엇인가, 그 건극(建極) <sup>193</sup> 이요,	傳者維何其建極
극(極)은 만물의 법칙되어 하늘에 순응하네.	極爲物則以順天
억조(億兆) 백성이 지선(至善)으로 마음을 미루어 가면,	兆民至善推心上
모든 나라의 태평성대는 눈앞에 있다네.	列國太平在目前
호남의 고사들 경륜도 원대한데,	湖南高士經倫大
그때를 기다리며 옥천(玉川) <sup>194</sup> 에 숨었구나.	會待伊時隱玉川

1912년 12월 2일. 기축. 흐림

初二日。己丑。陰。

1912년 12월 3일. 경인. 흐림.

三日。庚寅。陰。

1912년 12월 4일. 신묘. 맑음.

四日。辛卯。陽。

193) 건극(建極) :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 나라의 법을 세우는 것이다.

194) 옥천(玉川) : 현재 전라북도 순창군의 옛 이름이다.

1912년 12월 5일. 임진. 맑음. 저물녘에 눈이 내렸다.

五日。壬辰。陽。至暮雪。

1912년 12월 6일. 계사. 맑음. 밤에 눈이 내렸다.

六日。癸巳。陽。夜雪。

1912년 12월 7일. 갑오. 맑다가 흐림.

七日。甲午。陽陰。

1912년 12월 8일. 을미. 흐림.

八日。乙未。陰。

1912년 12월 9일. 병신. 흐림. 어머니 기일(忌日)<sup>195</sup>이라 집에 돌아왔다.

음양(陰陽)이 조화를 이루어 눈이 저절로 사라졌다.

九日。丙申。陰。以親忌還巢。陰陽和而雪自消。

1912년 12월 10일. 정유. 비가 종일토록 내렸고 밤에도 계속 왔다.

十日。丁酉。雨終日連夜。

1912년 12월 11일. 무술. 맑음.

十一日。戊戌。陽。

1912년 12월 12일. 기해. 흐림. 족질(族姪) 기수(奇洙)가 세금을 떼먹고

195) 어머니 기일 : 양모는 단양인 우종운(禹宗運)의 딸로, 1889년 12월 10일에 출하였고, 묘는 담양군 무면 오현리에 있다.

도망간 일로 나의 동생이 붙잡혀갔다. 아들을 보내 알아보게 하니, 떼 먹은 돈이 51엔, 곧 105냥이다. 대신 납부하는 것을 5개월로 한정했는데 해결하기 어렵겠다.

十二日。己亥。陰。族侄奇洙逋音事, 舍弟被拏。遣子査問, 則金五十一円, 卽一百伍兩也。褫納次限五月, 而解難。

1912년 12월 13일. 경자. 맑음.

十三日。庚子。陽。

1912년 12월 14일. 신축. 맑음. 문암리(門岩里)에 가서 친어머님 제사<sup>196)</sup>를 지냈다.

十四日。辛丑。陽。作生庭親忌之行於門岩里。

1912년 12월 15일. 임인. 흐림. 장성 하만(河晩)을 향해 가다가 정강리(亭江里)에 도착했는데 비가 와서 서경화(徐京華) 집에서 자고 다음날 출발했다.

十五日。壬寅。陰。向長城河晩, 到亭江里。滯雨, 宿徐京華家, 翌日發行。

1912년 12월 16일. 계묘. 맑음. 하만(河晩)에 도착했다.

十六。癸卯。陽。到河晩。

1912년 12월 17일. 갑진. 맑음.

十七日。甲辰。陽。

196) 친어머니 제사: 생모는 여양인 진달성(陳達成)의 딸로, 1909년 12월 14일에 출하였고, 묘는 옥과 화면 가지봉에 있다.



1912년 12월 18일. 을사. 맑음.

十八。乙巳。陽。

1912년 12월 19일. 병오. 맑음. 종유시(從遊詩)의 운자(韻字)를 사용하여 시 한 수를 이루었다.

十九日。丙午。陽。用從遊韻成一絕。

성학(聖學)의 유래를 지금에 깨달으니,	由來聖學覺來今
정일과 집중(197)의 도(道)는 일심(一心)이라네.	精一執中道一心
위태로움은 편안할 때 조짐이 절로 드러나니,	危自安時微自著
형과 언으로 시를 이루어 다만 길게 읊조릴 뿐.	形言成律聊長吟

1912년 12월 20일. 정미. 맑음.

二十日。丁未。陽。

戊己	
卯乙辰巽巳丙午 龍坐	甲子句中
酉辛戌乾亥壬子	甲午句中
午丁未坤	甲申句中
子癸丑艮	甲寅句中
坤申庚酉	甲辰句中
艮寅甲卯	甲戌句中

열흘 중 갑자(甲子)부터 을축(乙丑)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계산하면, 무진(戊辰)·기사(己巳)를 만난다. 때문에 묘을진손 사병오(卯乙辰巽巳丙

197) 정일과 집중 : 《서경》 <대우모(大禹謨)>의 ‘유정유일 윤집결중(惟精惟一允執厥中)’의 준말로써, 인심(仁心)과 도심(道心)의 관계를 정밀하게 살펴서 한결같이 도심을 지켜 진실하게 중도(中道)를 지킨다는 말이다.

午)는 용 아래 진사의 자리[龍下辰巳坐]이니 무기(戊己)를 범하게 된다. 나머지도 이와 같다. 사용할 것은 다만 병정(丙丁)·경신(庚辛)뿐이다. 自旬中甲子至乙丑, 次次計之, 逢戊辰己巳, 故卯乙辰巽巳丙午, 龍下辰巳坐, 則犯戊己云。餘放此。所用者, 只丙丁庚辛也。

1912년 12월 20일. 정미. 흐림.<sup>198)</sup>

二十日。丁未。陰。

1912년 12월 21일. 무신. 흐림.

二十一日。戊申。陰。

1912년 12월 22일. 기유. 맑다가 밤에 눈이 내렸다.

二十二日。己酉。陽, 夜雪。

1912년 12월 23일. 경술. 흐리고 눈바람이 크게 일었다.

二十三日。庚戌。陰, 風雪大作。

1912년 12월 24일. 신해. 맑음.

二十四日。辛亥。陽。

1912년 12월 25일. 임자. 맑음. 집으로 돌아왔다. 날씨가 따뜻해지니 고갯마루의 눈과 호수의 얼음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

二十五日。壬子。陽。還巢。日氣和平, 嶺雪湖水, 不足畏也。

198) 12월 20일은 날씨가 중복 기재되어 있는데 날씨가 달라서 모두 실어둔다.

1912년 12월 26일. 계축. 맑음.

二十六日。癸丑。陽。

1912년 12월 27일. 갑인. 맑음. 밤이 칙흑같이 어두웠다.

二十七日。甲寅。陽。夜昏黑。

1912년 12월 28일. 을묘. 맑음.

二十八日。乙卯。陽。

1912년 12월 29일. 병진. 맑음. 오늘은 입춘(立春)이다.<sup>199)</sup>

二十九日。丙辰。陽。是日立(春)。

1912년 12월 30일. 정사. 반짚 흐리고, 반짚 맑음. 또 눈 내린 흔적만 있었다. 밤에는 바람 기운이 드날렸다. 오늘은 제석(除夕)<sup>200)</sup>이라서 허물이 있는 3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금년 겨울 석 달은 오산(鰲山, 장성의 하만(河晩)에서 객(客)으로 있다가 12월 26일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재종제(再從弟) 영숙(永淑)이 와서 안부를 묻고 말하길, “재종형(再從兄)이 우거(寓居)한 뒤로 마을 사람이 선산(先山)의 구목(丘木)<sup>201)</sup> 7그루를 함부로 베어냈습니다.”라고 했다. 그래서 초동(樵童)과 목동을 불러 모아놓고 두세 번 질문하였더니, 한 명의 강양(强梁)<sup>202)</sup>한 자가 있었는데, 그 말에 부끄러워함이 있고 그 낮빛도 변하

199) 일기원문에는 ‘是日立’만 기록되어 있는데, 음력 1912년 12월 29일은 양력 1913년 2월 4일로 입춘이었다. 따라서 원문에 ‘春’이 빠진 것으로 보인다.

200) 제석(除夕) : 제야(除夜)라고도 하며, 일년의 마지막 날인 설달 그믐날 밤을 이른다.

201) 구목(丘木) : 묘지 옆에 심은 나무를 말한다.

202) 강양(强梁) : 《공자가어(孔子家語)》에 강량(强梁)은 흉포함을 가리키는 것으로, “흉포한 자는 제대로 죽지 못하고, 이기기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강한 적을 만난다.[强梁者不得其死, 好勝者必遇其敵]”라고 하였다.

기에 내가 갑자기 성난 목소리로 꾸짖기를 “오늘 일은 네가 한 일인데, 어찌 핑계를 대는가?”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가 스스로 자백하길 “7그루의 소나무에서 5그루는 제가 저지른 것이고, 2그루는 모모(某某)가 저지른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또 꾸짖어 세 사람에게 모두 다짐을 받았다.

비록 그렇더라도 일본인이 통치하고 있어서 법률이 엄중한데, 같은 인종으로서 갑자기 그들에게 맡겨서 다스리도록 한다면 인정이 아닌 것 같고, 속죄금을 받고 벌을 행하는 것도 또한 풍속에 해괴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간곡하게 회유하니, 저들도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그들 각자가 스스로 매질을 하였다. 아들이 안에 있다가 나와서는 회초리를 잡고 원망을 내려놓기를 청하기 때문에 풀어주었다.

三十日。丁巳。半陰半陽。又雪痕，夜風氣飄揚。是日除夕，放置有過者三人。今年冬三，客於鰲山河晚，臘念六日還巢。再從弟永淑來，而問候爲言，“再從兄寓居後，村人犯斫先山丘木七株。”招集樵牧，質問再三，則有一強梁者，其辭漸其色變，余忽厲聲質責曰，“今日之事，汝之所爲，豈其辭陂?”渠自首服曰，“七株松五箇者渠之所犯，二株者某某所犯。”余又責之，三人皆納俦。雖然時政在日，法律嚴重，同世人種，遽然委致，似非人情，受贖行罰，亦爲駭俗。以此以彼，諄諄誨諭，則彼自悔過，渠各自過。家兒自內而出，執楚而請置怨，故放下。



김명숙의 서암유장시를 인용하여 화답하다[和金明叔棲巖幽莊詩引] -정해만(鄭海晩)  
동지하전(冬至賀箋)과 정조하전(正朝賀箋) -물기재(勿欺齋)  
황동의 봄[題黃洞春]  
송선비가 희우시를 찾기에 답함[答宋大雅索喜雨詩]  
송환준의 행로음 시에 답함[答宋雅行路吟煥俊]  
산놀이를 읊다[遊山吟]  
안중근 만사[安仲根輓] 2수 -김택영(金澤榮)  
노사기선생 비역소 통문(蘆沙奇先生碑役所通文)  
생일시[咏生日] 2수  
녹실선생을 곡하는 글[哭綠室先生文]  
사산부자묘(泗山夫子廟) 축문(祝文)  
면양정(俛仰亭) 차운시  
면양정 원운시  
지재가 방계선조 면양정 시에 삼가 차운함[止齋敬次旁先祖俛仰亭韻] -송한중(宋漢宗)  
영대시(靈垓詩) 10수  
지재원운(止齋原韻) -송한중(宋漢宗)  
조대시(釣臺詩) -박영철(朴榮哲)  
용호참봉이 방문했다는 것을 듣고 특별히 시 한편을 지음[聞龍湖參奉訪問 特題一律]  
연계정 시[漣溪亭韻]  
지재의 영대시에 차운함[廢止齋靈臺詩] 7수  
또 영대시를 지음[又題靈臺詩] 3수  
삼가 지재의 원운에 차운하다[謹次止齋元韻]  
석헌 유선생 신도비(石軒柳先生神道碑)  
혼례 흥기를 짓다[撰婚禮笄記]



1913년 1월 1일. 무오. 맑음. 술방(戌方, 서북쪽)에서 메마른 바람이 차갑게 쏘아댔다.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향당 소년들의 세배에 답하였다.  
 癸丑。正月。元日。戌午。陽。戌乾風冷射。自朝至暮。答鄉黨少年歲拜。

1913년 1월 2일. 기미. 맑음. 오현동(五絃洞)에 성묘를 갔다.  
 二日。己未。陽。作五絃洞省楸之行。

1913년 1월 3일. 경신. 흐림. 아침부터 정오까지 백설이 분분이 날리더니, 산야가 모두 하얗게 덮였다.  
 三日。庚申。陰。自朝後至午白雪紛紛，山野皆素封。

1913년 1월 4일. 신유. 맑음.  
 四日。辛酉。陽。

1913년 1월 5일. 임술. 흐림. 눈내리고 찬 바람.  
 五日。壬戌。陰。雪寒風。

1913년 1월 6일. 계해. 흐림. 춥다.  
 六日。癸亥。陰。冷。

1913년 1월 7일. 갑자. 흐리고 참. 옥과(玉果)에 성묘를 갔다.  
 七日。甲子。陰冷。作玉果省楸之行。

1913년 1월 8일. 을축. 흐림. 순창(淳昌)을 향해 가다가 남계(南溪)에 이

르러 유숙했다.

八日。乙丑。陰。向淳昌，到南溪留宿。

1913년 1월 9일. 병인. 맑음. 본읍 문암리에 이르러서 계속 머물렀다.

九日。丙寅。陽。到本邑門岩里留連。

1913년 1월 10일. 정묘. 맑음. 집으로 돌아왔다.

十日。丁卯。陽。還巢。

1913년 1월 11일. 무진. 맑음.

十一日。戊辰。陽。

1913년 1월 12일. 기사. 맑음.

十二日。己巳。陽。

1913년 1월 13일. 경오. 흐림.

十三日。庚午。陰。

1913년 1월 14일.

十四日。

1913년 1월 1일.<sup>1)</sup> 무오. 맑음. 술방(戌方, 서북쪽)에서 메마른 바람이 차갑게 쏘아댔다.

1) 일기원문에 1913년 1월 1일부터 1월 14일까지 중복 기재되어 있는데,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 원문과 같이 중복 수록하였다.



癸丑。正月初一日。戊午。陽。戌乾風冷射。

1913년 1월 2일. 기미. 맑음. 오현(五絃)동에 성묘를 갔다.

二日。己未。陽。作五絃省楸之行。

1913년 1월 3일. 경신. 흐림. 아침부터 백설이 어지럽게 내렸다.

三日。庚申。陰。自朝至白雪紛紛。

1913년 1월 4일. 신유. 맑음.

四日。辛酉。陽。

1913년 1월 5일. 임술. 흐림. 눈과 바람.

五日。壬戌。陰。雪風。

1913년 1월 6일. 계해. 흐리고 추움.

六日。癸亥。陰冷。

1913년 1월 7일. 갑자. 흐리고 추움. 옥과(玉果)에 성묘를 갔다가 이감역(李監役)의 사랑(舍廊)에서 유숙하였다.

七日。甲子。陰冷。作玉果省楸之行，留宿李監役舍廊。

1913년 1월 8일. 을축. 흐림. 다시 문암리에 성묘를 갔다. 순창(淳昌)을 지나다가 금동(金洞)에서 점심을 먹고 남계(南溪)에 이르러 유숙했다.

八日。乙丑。陰。復作門岩省楸之行，過淳昌金洞午飯，到南溪留宿。

1913년 1월 9일. 병인. 맑음. 본읍의 문암리에 도착하여 점심을 먹고, 돌아오면서 과동(果洞)을 지나다가 유숙하였다.

九日。丙寅。陽。到本邑門岩里午飯，還過果洞留宿。

1913년 1월 10일. 정묘. 맑음. 집으로 돌아왔다.

十日。丁卯。陽。還巢。

1913년 1월 11일. 무진. 맑음.

十一日。戊辰。陽。

1913년 1월 12일. 기사. 맑음.

十二日。己巳。陽。

1913년 1월 13일. 경오. 흐림.

十三日。庚午。陰。

1913년 1월 14일. 맑음.

十四日。陽。

1913년 1월 15일. 신미. 맑음. 점을 쳐서 <절괘(節卦)><sup>2)</sup>를 만났는데, 구오(九五)에 ‘감절(甘節)이라 길(吉)하니 왕(往)하면 유상(有尙)하리라.’라고 하였고, 상(象)에 ‘감절의 길함은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甘節之吉，居位中也.]’라고 하였다.

2) 절괘(節卦) : 《주역》 60번째 괘인 ‘수택절괘(水澤節卦)’를 말한다. 연못 위에 물이 있는 형상이다.

지곡(芝谷) 녹실장(綠室丈)택에 도착하여 기록한다.

十五日。辛未。陽。占遇節九五，‘甘節，吉，往有尚。’象曰，‘甘節之吉，居位得中也。’到芝谷綠室丈宅記。

<김명숙의 서암유장시를 인용하여 화답하다> 和 金明叔棲巖幽莊詩引

나 해만은 옛날부터 산에 살려는 뜻을 두었는데 (자취를) 감추려고[晦] 하면서도 이루지 못한 것이 회(晦)이다. 이윽고 회암(晦菴) 주자의 시를 얻어 읽었는데 ‘암서기미효(巖棲冀微效)<sup>3)</sup> 구절에 이르러 문득 책을 덮고 효효(嘒嘒)<sup>4)</sup>하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음을 개탄했다.

지금 담양의 남쪽에는 무이산(武夷山)과 마산(馬山)이 있는데 모두 깎아 지른 듯 우뚝우뚝 솟아서 사람이 발돋움하고 서 있는 것 같다. 산 근처의 사람들은 질박하고 근검하여 고기잡고 도자기 구우며 농사짓고, 풍속은 순박하고 고풍스러우며, 땅은 그윽하고 깊고 또 넓다. 바위의 절벽이 옷깃과 띠처럼 두른 곳과 숲과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곳에 물이 팔팔 흐르며 또 뜰을 돌아 흐르니, 황야에 자취를 감추고 속세와 무리를 떠난 자가 아 니면 살 수 없는 곳이다.

김명숙(金明叔) 군은 그것들을 즐겨 집을 짓고 소요하는 곳으로 삼아 ‘서암(棲巖)’이라고 이름하였다. 아! 명숙은 옛날 내가 이른바 ‘효효하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음을 개탄했던[嘒嘒慨世]’ 데 해당하는 그 사람인가? 아닌가? 어찌하여 살고 있는 무이(武夷)가 회옹(晦翁)의 정사기(精舍記)<sup>5)</sup>와 함께 고금에 한 가지란 말인가?

내가 듣건대 옛날에 게[蟹]를 싫어해서 해(解)자 성을 가진 사람을 미워

3) 암서기미효(巖棲冀微效) : 주자의 <운곡이십육영(雲谷二十六詠)>에서 회암(晦菴)을 노래한 시 중에 “능하지 못함을 자진한 지 오래거나, 산속에 거처하며 은미한 효험 바라네[自信久未能，巖棲冀微效]”라고 한 구절이 있어 이를 인용한 것이다.

4) 효효(嘒嘒) : 맹자가 광자(狂者)에 대해 만장(萬章)에게 설명하기를 “그 뜻이 효효연(嘒嘒然)하여 말하기를 ‘옛사람이여, 옛사람이여!’ 하되 그 평소의 행실을 쫓 살펴보면 행실이 말을 따라가지 못하는 자들이다.” 하였는데, 주자의 주에 “효효연(嘒嘒然)은 뜻이 크고 말이 큰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맹자> <진심 하(盡心下)>)

5) 회옹(晦翁)의 정사기(精舍記) : 주희는 1183년 무이구곡의 제5곡에 무이정사(武夷精舍)를 짓고 <무이정사잡영(武夷精舍雜詠) 병서(并序)>을 지었는데, 정사기는 이 서문을 말한다.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음이 가깝기 때문에 그를 싫어했다고 한다. 하물며 그를 사랑하여서 거처하는 지역의 명칭을 동일하게 한다면, 그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배우려는 뜻이 더욱 어떠하겠는가? 비록 그렇더라도 또 그 사람이 어진지 아닌지에 달려있을 따름이다.

장문중(臧文仲)이 단(壇)에서 현가(絃歌)를 부르고<sup>6)</sup>, 증자(曾子)가 수레를 타고 가다 회피(迴避)한 것<sup>7)</sup>은 이미 명숙이 힘써 행한 것이다. 명숙의 이름은 모이니, 우리 유가의 무리이다. 가난하게 살면서 독서하고 힘써 밭 갈면서 아버지를 봉양하였으니 대개 담양의 어진 자이다.

담양 사람이 시에 이른다.

<和金明叔棲巖幽莊詩引>

晚, 自昔志于山, 欲晦而所不得者晦。旣而得晦菴子詩, 讀之, 至‘巖栖冀微效’, 輒掩卷, 嘒嘒慨世無人。今潭之南, 有武夷馬山, 皆巔巖窮劣, 跂而若人立者。近山之人, 質朴勤儉, 漁陶耕稼, 而俗淳古, 地窈然, 深且曠也。巖崖之所衿帶, 林木之所叢蔚, 水瀟瀟, 又循除流, 非逖荒匿跡, 絕俗離群者, 不可得以居也。金君明叔樂之築室, 爲盤旋所而曰‘栖巖’。噫, 明叔曩吾所謂‘嘒嘒慨世’中其人歟? 抑非歟? 何所居武夷之與晦翁精舍記, 一般今古也? 吾聞昔有惡蟹而惡解姓人者, 爲其音近而惡之也。況愛之而所居之地, 同一其名, 則其愛而慕之學之之意, 尤何如也? 雖然, 又在其人之所賢否。臧壇之絃歌, 曾車之迴避, 是已明叔勉之矣。明叔名某, 吾徒也。窮居讀書, 力田而養老, 蓋潭人之賢者也。潭人云詩曰。

때를 만났다고 어찌 상암(商巖)<sup>8)</sup>을 쌓지 않겠으며,                                 逢時胡不築商巖  
세상과 어긋났다고 공연히 진의 도잠(陶潛, 도연명)을 은둔케 하라     違世空教隱晉潛

- 6) 장문중 …… 부르고 : 춘추시대에 노(魯) 나라 동문 밖에 원거(爰居)라는 크기가 땅이지만한 해조(海鳥)가 있어 3일 동안 머물렀는데, 장문중(臧文仲)이 이상한 새라 하여 그 앞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음악을 연주하였다.
- 7) 증자 …… 것 : 《사기(史記)》 <추양전(鄒陽傳)>에 증자(曾子)는 효성이 지극했는데, 수레를 타고 가다가 마을 이름이 어미를 이긴다는 이름을 가진 ‘승모(勝母)’라는 것을 보고 마을에 들어가지 않고 수레를 돌렸다고 한다.
- 8) 상암(商巖) : 상의 부열이 등용되기 전에 담 쌓는 일을 한 장소인 부암을 말한다. 전하여 초야의 어진 선비를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물은 졸졸 흘러와 겨우 섬돌을 지나가고,	水送潺湲纔過砌
바위는 아름드리 되어 고졸하게 처마에 간직되었네.	石爲懷抱劣藏簷
임천을 문득 자기 물건으로 만들고,	林泉便屬自家物
과축(邁軸) <sup>9)</sup> 하며 생을 마침은 군자의 겸손이네.	邁軸堪終君子謙
마침 고인의 진중한 뜻을 얻었으니,	會得故人珍重意
천고의 병산 <sup>10)</sup> 이 멀리 눈속에 들어오네.	屏山千古入遐瞻

임자년(1912) 봄에 오천 정해만이 쓰다.

壬子春，烏川鄭海晚稿。

1913년 1월 16일. 임신. 맑음. 오늘은 하서 선정의 휘일(諱日, 제삿날)이다. 흠모함이 더욱 깊어 제사에 참석하려고 지곡(芝谷)에 도착하여 녹실 어른을 찾아보였다. 하서 선정의 사손(嗣孫)인 김용순(金容詢)의 우사(寓舍)에 이르니, 선정의 사판(祠板, 신주)이 안의 협실(夾室) 벽감(壁龕, 벽장)에 모셔져 있었다. 본손(本孫)들이 많이 모였으므로 불편할까 염려되어 물러나 녹실 사랑에서 묵었다.

十六日。壬申。陽。是日卽河西先正諱日也。欽慕彌深，參祭次來到芝谷，而歷訪綠室丈。到先正嗣孫金容詢寓舍，則先正祠板在內夾室壁龕。本孫多聚，恐有不便之意，故退宿綠室舍廊。

1913년 1월 17일. 계유. 흐림. 오늘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휘신(諱辰, 제삿날)이다. 장동(獐洞)에 이르러 종매형(從妹兄) 이근옥(李根沃)의 집을 방문하고, 점심을 먹은 후 큰택에 가서 사당에 알현하였다.

9) 과축(邁軸) : 《시경》 <위풍(衛風)·고반(考槃)>의 “숨어 살 집이 언덕에 있으니, 큰 선비의 마음이 넉넉하다[考槃在阿，碩人之邁]”라는 말과 “숨어 살 집이 고원에 있으니, 큰 선비가 소요하는 곳이다[考槃在陸，碩人之軸]”라는 말을 압축한 것으로, 산림에 은거하며 안빈낙도(安貧樂道)하는 은사(隱士)의 생활을 비유한 것이다.

10) 병산(屏山) : 병풍처럼 늘어선 산. 또는 담양 병풍산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十七日。癸酉。陰。是日先祖考諱辰也。到獐洞，歷訪從妹兄李根沃宅，午飯後，入大宅廡見。

1913년 1월 18일. 갑술. 흐림.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오늘은 미암선생(眉巖先生)<sup>11)</sup>의 사손(嗣孫)인 유희적(柳羲迪)<sup>12)</sup>의 집에서 유숙하였다. 석양에 대산(大山)에 사는 종손(宗孫) 용직(容稷)을 방문했다.

十八日。甲戌。陰。冷風射。是日客於眉巖先生嗣孫柳羲迪宅。夕陽訪大山宗孫容稷。

1913년 1월 19일. 을해. 맑음.

十九日。乙亥。陽。

1913년 1월 20일. 병자. 약간 맑음. 미암선생 사당을 봉심(奉審)하였다.

二十日。丙子。陽微。奉審眉巖先生廟。

1913년 1월 21일. 정축. 눈이 오고 추웠다. 어린아이를 가르쳤다.

二十一日。丁丑。雪寒。教小兒。

1913년 1월 22일. 무인. 약간 맑음. 주인 책상 위에 새 책자 한권이 있기에 내가 물어보니 주인이 말하길, “이것은 무장(茂長)<sup>13)</sup> 암치(巖峙)<sup>14)</sup>

11) 미암선생(眉岩先生) : 유희춘(柳希春, 1513~1577)을 말함. 자는 인중(仁仲), 호는 미암(眉巖), 본관은 선산(善山)이다. 해남 출신으로, 아버지는 유계린(柳桂鄰)이며, 어머니는 사간 최보(崔溥)의 딸이다. 처부(妻父)는 송준(宋駿)이며, 김안국(金安國)·최산두(崔山斗)의 문인이다. 미암일기를 남겼으며, 그의 묘소는 담양군 대덕면에 있다.

12) 유희적(柳羲迪, 1874~1942) : 자는 윤문(允文), 호는 기암(冀巖)으로, 미암 유희춘의 후손이다. 장동에 살았으며, 송사 기우만(奇宇萬)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3) 무장(茂長) :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이다. 무장(茂長)은 무송(茂松)과 장사(長沙)가 합쳐진 지명으로, 고창현과 흥덕현을 합쳐서 고창군을 이루고 있다.

에 사는 강대직(姜大直)<sup>15)</sup>의 선조(先祖)인 수사(水使)의 《물기재집(勿欺齋集)》<sup>16)</sup>이다.”라고 하면서 보여주었다. 내 생각에 그 수사는 곧 수륙대장(水陸大將)인데, ‘물기(勿欺)’로써 호를 삼은 것은 반드시 ‘임금을 섬김에 있어 속이지 않고, 범(犯)하지 않는다’는 뜻을 위주로 하여 칭한 것이리라.

책을 열어 봉심(奉審)하였는데, 곧 심석장(心石丈) 송병순(宋秉璫)<sup>17)</sup>씨가 책머리에 서문을 한 것이다. 여기에 증전(曾傳, 대학)에서 말한 ‘무자기(無自欺)’<sup>18)</sup>라는 것으로 학문을 하는 관건(關鍵)의 첫머리로 삼았으니, 내가 속으로 그것을 의심하였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하니 비로소 나의 견해가 천박함을 알았다. 나는 항상 ‘무자기(毋自欺)’ 세 글자를 성의(誠意)의 공부로 여기면서 ‘물기야(勿欺也)’<sup>19)</sup>라는 것이 성의 공부에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14) 암치(巖峙) :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암치리를 말한다.

15) 강대직(姜大直, 1886~1930) : 호는 이온재(而溫齋)이며, 본관은 진주(晉州)이다. 강희맹(姜希孟)의 후손으로, 경상좌수사를 역임한 물기재(勿欺齋) 강응환(姜膺煥)의 후손이다. 고창군 성송면 암치리에서 태어났으며, 1914년 독립의군부 총사관의 칙지(勅旨)를 받고, 이때부터 비밀 결사 독립운동 활동을 시작하여 주로 상해임시정부에 보내는 군자금 모금 운동을 하였고, 1919년 사중형 강대식(姜大濤)과 함께 암치보통학교를 설립하였으며, 고창고등보통학교를 설립할 때는 평의원으로 참여하여 재단 형성에 큰 공을 세웠다.

16) 물기재집(勿欺齋集) : 1912년에 강응환의 후손 강대직(姜大直)이 편집·간행하였다. 권두에 송병순(宋秉璫)의 서문, 권말에 기우만(奇宇萬)·강천수(姜天秀) 등의 발문이 있다. 권1에 시 61수, 가(歌) 2편, 권2에 전문(箋文) 10편, 장계(狀啓) 4편, 서(書) 5편, 기(記) 3편, 잡저 15편, 부록에 장계 7편, 유서(諭書) 2편 및 잡저 등이 수록되어 있다.

17) 송병순(宋秉璫, 1839~1912) : 자는 동옥(東玉), 호는 심석재(心石齋)이며 본관은 은진(恩津)이다. 송시열(宋時烈)의 9세손으로 종형인 송병선(宋秉璫)과 함께 큰아버지 송달수의 문하에서 성리학과 예학을 공부하였다. 1865년(고종 2) 서원철폐령이 내려 만동묘가 헐리게 되자 반대 상소를 올렸다.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여 투신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였다. 1912년 일제가 회유책으로 경학원(經學院) 강사에 임명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유서를 남긴 뒤 독약을 먹고 자결하였다. 저서로는 15권의 문집과 《독서만집(讀書漫錄)》, 《학문삼요(學問三要)》 등이 있다.

18) 무자기(無自欺) : 《대학장구》 <성의장(誠意章)>에 “그 뜻을 참되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 속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所謂誠其意者, 毋自欺也]”라는 구절이 나온다.

19) 물기(勿欺) : 자기의 속마음을 속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자로(子路)가 임금님 섬기는 도리를 묻자, 공자가 “자기를 속이지 말고 임금님 앞에서도 바른말을 하라.[勿欺也而犯之]”라고 충고한 말이 《논어》 <현문(憲問)>에 나온다.

때문에 이러한 의심이 있었던 것인데, 의심이 풀리게 된 나머지에 공경히 전편을 읽어보니, 강수사는 참으로 수사 중에 도를 아는 자로다. 수사의 휘는 응환(膺煥)<sup>20</sup>)이다.

二十二日。戊寅。陽微。主人案上有新冊子一卷。余問則主曰，“此乃茂長巖峙姜大直先祖水使《勿欺齋集》。”因出示之。余意，其水使卽水陸大將，而以勿欺爲號，則必以事君勿欺也，以犯之意，爲主而稱之矣。開卷奉審，則心石丈宋秉珣氏序以弁卷，以曾傳所云‘無自欺’者，爲學之關鍵爲首，則余竊疑之。反而思之，始覺余之所見，淺也。余常以‘毋自欺’三字，爲誠意之工夫，而不知‘勿欺也’者，自誠意上得來也。故有此疑，而疑釋之餘，敬讀全篇，則姜水使，眞水使中知道乎。水使諱膺煥。

1913년 1월 23일. 기묘. 맑음. 미풍이 불고 추움.

二十三日。己卯。陽。微風寒。

1913년 1월 24일. 경진. 맑음. 약간 바람. 추위가 심해서 기름이 벗겨지고 아교가 끊어짐(折膠)<sup>21</sup>)에 이르니, 사람들이 상서롭지 않은 조짐이라고 했다.

二十四日。庚辰。陽。微風。冷寒，至墮脂折膠，人謂不祥之兆。

1913년 1월 25일. 신사. 맑음.

二十五日。辛巳。陽。

20) 강응환(姜膺煥, 1735~1795) : 자는 명서(命瑞), 호는 물기재(勿欺齋), 본관은 진주(晉州)이다. 강희맹(姜希孟)의 9세손으로 전라도 무송(茂松, 지금의 고창(高敞))에서 태어났다. 문과에 합격하여, 창성부사(昌城府使)·동래부사 등을 지냈다. 《물기재집》 2권 1책이 전한다.

21) 절교(折膠) : 가을 기운이 이르면 아교가 부러지므로 궁노(弓弩)를 사용할 수가 있다. 흉노(匈奴)는 항상 이것으로 기후를 살펴서 군사를 출동시켰다. 이로 인해 가을과 겨울 추위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한서(漢書)》 <조착전(晁錯傳)>) 한편 엄한(嚴寒)을 뜻하기도 한다.



<물기재(勿欺齋)의 동지하전(冬至賀箋)><sup>22)</sup>

삼가 생각건대, 천년 만에 황하가 맑아지는 운수를 붙잡아 자극(紫極, 왕궁)에 응류(凝旒)하고, 칠일 만에 양이 회복하는 아름다움을 맞이하여 황종이 험합니다.[黃鐘叶律]<sup>23)</sup> 산과 같이 만수무강하길 축원하니,<sup>24)</sup> 이에 천지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주상전하께서는 오묘한 도를 재성(財成)하시니,<sup>25)</sup> 공은 천지의 화육에 참여합니다. 은혜가 팔도에 미치니 침소에 드는 시간[丙枕]<sup>26)</sup>에도 내년을 도모하느라 잠 못 이루시고, 양궁의 뜻 기쁘게 이으니 갑관(甲觀)<sup>27)</sup>에서 상서로운 그림자를 살필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진동하는 때[동지]를 맞이하여 더욱 월항(月恒, 달이 항상 뜨는) 아름다움을 받으소서.

삼가 생각건대 신은 외람되게 남쪽 지방을 안찰하느라 북극을 향해 절을 올릴 뿐, 지금 양이 돌아오는 때를 맞이하여서도 성변(星弁, 벼슬아치)<sup>28)</sup>의 반열에 모일 수 없습니다. 부끄럽게 아득한 품계에 있을지라도 거의 바다를 막는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신은 하늘같은 성상을 우러러 뵈움에 간절하고 황공한 지극한 마음 이길 수 없습니다.

- 22) 동지하전(冬至賀箋) : 동지에 임금이 하례를 올리는 글이다.
- 23) 황종이 험합니다 : 동짓달이 되었음을 뜻한다. 황종(黃鍾)은 12율(律)의 첫 번째 율로 11월에 해당하는데, 일양의 기운이 처음 회복되는 동지가 되면 그 율관(律管) 속의 재가 풀썩 일어나며 반응한다고 한다. 십이율관(十二律管)을 1년의 열두 달에 배합(配合)하는 것을 협률(協律)이라 한다.
- 24) 산과 …… 축원하니 : 만수무강을 축원할 때 쓰는 표현이다. <시경> <소아(小雅)·천보(天保)>에 “산과 같고 언덕과 같으며, 산등성이와 같고 큰 언덕과 같다.[如山如阜, 如岡如陵.]”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 25) 재성하시니 : <주역> <태괘(泰卦)> 상(象)에 “하늘과 땅이 사귀어 태(泰)이니, 임금이 이것을 보고, 천지(天地)의 도(道)를 재성(財成)하고 천지의 의(宜)를 보상(輔相)하여 백성을 돕는다.”라고 하였다. 재성은 임금이 천지가 교태(交泰)하는 도를 체득하여 잘 마름질하여 통치의 방법을 완성한다는 뜻이다.
- 26) 침소에 드는 시간[丙枕] : 하룻밤을 갑·을·병·정·무의 다섯으로 나눈 셋째 시각. 즉 밤 12시로, 임금이 잠자리에 드는 것을 말한다.
- 27) 갑관(甲觀) : 세자가 탄생한 내전(內殿). 한(漢)나라 효성 황제(孝成皇帝)가 원제(元帝)의 태자(太子)로서 갑관(甲觀)에서 탄생하였다는 고사(故事)에서 나온 말이다.
- 28) 성변(星弁) : 솔기를 오색 구슬로 장식하여 별처럼 빛나는 관을 가리킨다. <시경> <위풍(衛風)·기육(淇輿)>에 위 무공(衛武公)을 칭송하면서 “고깔에 장식한 오색 구슬이 별처럼 빛난다.[會弁如星]”고 하였다.

勿欺齋 冬至賀箋。

伏以, 拊千載河清之運, 紫極凝旒。迓七日陽來之休, 黃鐘叶律。祝岡陵壽, 見天地心。恭惟主上殿下, 道妙財成, 功參位育。恩覃八域, 丙枕軫嗣歲之圖。歡承兩宮, 甲觀考瑞旭之影。茲當雷奮之會, 益膺月恒之休。伏念臣忝按南維, 拜辭北極。時值陽復, 縱阻會星弁之班。職愧暝陞, 庶彈控海防之悃。臣無任望天仰聖, 激切屏營之至。

<정조하전(正朝賀箋)>

삼가 생각건대 자뢰하여 시작하고 생겨나니[資始資生]<sup>29)</sup> 천지와 덕을 나란히 하였고, 1월 1일에 산과 언덕처럼 만년을 사시기를 송축합니다. 전각에 봄이 생기니 바다 귀퉁이에서도 기쁨이 넘칩니다.

삼가 생각건대 주상전하께서는 천하에 광명을 비추시니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것 같고, 선기옥형을 살펴 칠정을 고르게 하시니,<sup>30)</sup> 바람은 고르고 비는 순조롭습니다. 자극(紫極)에 만수를 이끌어오니 해와 달이 항상 떠오르듯 하고, 이에 삼양이 다시 돌아오니, 모든 못 사람이 서로 기뻐합니다. 삼가 생각건대 신은 외람되어 남쪽 변경을 맡고 있지만 정성은 북극성에 매달려 있고, 구중에 하례를 드리고자 하나 무신의 대열에도 설 수 없습니다. 이에 천리 밖에서 전(箋)을 마치며 오번(鰲抃, 몹시 기뻐함)의 정성을 대신합니다. 신은 하늘과 같은 성상을 우리름에 간절하고 황공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正朝賀箋。

伏以, 資始資生, 俾一德於天地。元月元日, 頌萬年於岡陵。殿角春生, 海隅歡溢。恭惟主上殿下, 光天之下, 如日方中。齊七政於玉衡, 風調雨

29) 자뢰하여 …… 생겨나니[資始資生] : 《주역》 <건괘(乾卦)> 단사(彖辭)에, “위대하다, 건원(乾元)이여. 만물이 이를 자뢰하여 시작하나니, 이에 하늘을 통괄하도다.[大哉乾元, 萬物資始, 乃統天.]” 하였고, <곤괘(坤卦)> 단사(彖辭)에, “지극하다, 곤원(坤元)이여. 만물이 이를 자뢰하여 생기나니, 이에 하늘을 순히 받들도다.[至哉坤元, 萬物資生, 乃順承天.]”라고 하였다. 주자의 본의(本義)에 의하면, 원(元)은 크다는 뜻이고 시작한다는 뜻이다.

30) 선기옥형을 …… 하시니 : 순임금이 제위(帝位)에 올라 첫 번째 한 일로 선기옥형(璿璣玉衡)이라는 천체 관측기를 살펴서 칠정(七政, 즉 금(金), 목(木), 수(水), 화(火), 토(土) 오성(五星)과 해, 달의 운행을 실제와 맞추어 백성들이 농사의 때를 잃지 않게 하였다.(<서경> <순전(舜典)>)

順。延萬壽於紫極，日恒月升。逮茲三陽之載回，舉切群情之胥悅。伏念臣職忝南閫，誠懸北宸。獻賀九重，縱阻虎拜之列。奉箋千里，用替鰲抃之忱。臣無任望天仰聖，激切屏營之至。

1913년 1월 26일. 임오. 약간 맑음.

二十六日。壬午。陽微。

1913년 1월 27일. 계미. 맑음.

二十七日。癸未。陽。

1913년 1월 28일. 갑신. 맑고 바람.

二十八日。甲申。陽而風。

1913년 1월 29일. 을유. 살짝 맑음.

二十九日。乙酉。陽薄。

1913년 1월 30일. 병술. 약간 맑고 바람이 참. 길을 다니기 어려운 것이 한겨울 추위 같았다. 집에 돌아왔다.

三十日。丙戌。陽微風冷。行路難如冬寒。還巢。

1913년 2월 1일. 정해. 약간 맑음.

二月。初一日。丁亥。陽微。

1913년 2월 2일. 무자, 맑음. 집에서 황동(黃洞)을 향하여 길을 떠났다. 서정(西亭)<sup>31</sup>을 지나 현암(玄岩)<sup>32</sup>에 도착했는데, 골짜기가 깊숙하였

으며, 앞에는 덕치(德峙)<sup>33)</sup>가 우뚝 솟아있어서 넘어가기가 쉽지 않았다. 벼랑에 다다라 생각해보니 고개를 넘어갈 때 힘든 것은 섭족(躡足, 걸음걸이)이 바르지 않는 데 있으니, 힘이 덜 들게 할 계획은 지섭(止躡)하는 데 있다. 때문에 조금씩 전진하며 그 평정을 살피가면서 올라 가면 조금도 숨이 가쁠 근심이 없게 된다. 뒤를 돌아보니 한 사람의 장정이 있는데 숨을 헐떡이며 따라오고 있었다. 이에 비로소 걸음걸이가 발라야만 수고로움을 잊게 됨을 깨달았다. 정상에 오르니 경물이 한 눈에 다 보였다. 한가로이 이곳저곳을 거닐며 남쪽을 향하여 바라보니 미암선생(眉岩先生)의 묘가 문득 눈앞에 있어서 마음속으로 희열하며 위기지학 공부를 해야 함을 다시 깨달았다.

二日。戊子。陽。自本第向黃洞，過西亭到玄岩，峽邃谷深，前頭德峙崑崑，未可以容易踰越。臨崖思之，則踰嶺之勞，在躡足不正然，則弛勞之計，在於止躡。故寸進步履，察其平正而上，少無脅息之患，而顧後有一壯丁，喘息而隨，於時始覺踐履得正而忘勞。上上頂，對景備見，逍遙徜徉。向南而觀之，眉岩先生廟，忽焉在前，中心悅而更覺爲學之工夫也。

140

1913년 2월 3일. 기축. 약간 맑음.

三日。己丑。微陽。

1913년 2월 4일. 경인. 맑음.

四日。庚寅。陽。

1913년 2월 5일. 신묘. 맑음.

五日。辛卯。陽。

31) 서정(西亭) : 담양군 무면 서정리로, 현재 담양군 무정면 성도리 서정마을에 해당된다.

32) 현암(玄岩) : 창평군 가면 광암리로, 현재 담양군 창평면 광덕리 현암 마을에 해당된다.

33) 덕치(德峙) : 창평군 가면 덕치리로, 현재 담양군 창평면 광덕리 덕치마을에 해당된다.

1913년 2월 6일. 임진. 맑고 바람 많음.

六日。壬辰。陽而風勤。

1913년 2월 7일. 계사. 맑음.

七日。癸巳。陽。

1913년 2월 8일. 갑오. 맑은 후 흐림.

八日。甲午。陽而陰。

<황동의 봄>

산은 그윽하고 계곡도 맑으니,  
 이곳에서는 속세의 뜻이 없네.  
 봄빛은 먼저 매화나무에 들고,  
 골짜기 구름은 평야를 끌어오네.  
 이로부터 강론하기 좋으니,  
 자연히 명리에 대한 생각 가벼워지네.  
 나의 행보 어찌 이리 늦었나.  
 일찍 와서 밭 갈지 못한 것 한스럽네.

題黃洞春

山幽溪亦清  
 這裏不世情  
 春色先梅入  
 洞雲引野平  
 從此講論好  
 自然名利輕  
 我步次何晚  
 恨未早來耕

1913년 2월 9일. 병신. 흐림. <<덕곡선생집>> 권1을 보았다. 공의 성(姓)은 조(趙)이다. -휘(諱)는 승숙(承肅)<sup>34</sup>이며, 본관은 함안(咸安)이다.- 책 가운데 <두문동비문(杜門洞碑文)>이 있기 때문에 기록해 두었다.

34) 조승숙(趙承肅, 1357~1417) : 자는 경부(敬夫). 호는 덕곡(德谷), 본관은 함안(咸安)이다. 정몽주(鄭夢周)의 문인으로, 1376년(우왕 2) 진사가 되었고, 이듬해 문과에 급제, 특별히 저작랑(著作郎)에 제수되어 충하사(充賀使)로 원나라에 갔다가 그곳 임금으로부터紫金魚袋(紫金魚袋)를 받고 귀국하였다. 고려가 망하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가 교수정(教授亭)을 짓고 두문불출하면서 후진양성에 전념하여 많은 영재를 배출시켰다. 이색(李穡)·길재(吉再) 등과 도의로 친교를 맺고 성리학을 강론하였으며, 특히 길재와 함께 수창한 시는 유명하다. 두문동 72현(杜門洞七十二賢) 중의 한 사람이다.

‘승국(勝國, 고려) 충신의 (명성이) 지금도 남아 있으니, 특별히 그 마을에 비를 세워 그 절의를 표한다.’

九日。丙申。陰。見《德谷先生編》卷之一。公姓趙【諱承肅，咸安人】。編中有〈杜門洞碑文〉，故記之。

‘勝國忠臣今焉在，特豎其洞表其節’。

1913년 2월 10일. 정유. 맑음.

十日。丁酉。陽。

1913년 2월 11일. 무술. 맑음.

十一日。戊戌。陽。

1913년 2월 12일. 기해. 맑음. 광주(光州) 장자동(長子洞)<sup>35</sup>의 이희용(李熙容)<sup>36</sup> -자(字)가 국서(國瑞)이며, 본관이 전의(全義)이다.- 이 와서 함께 묵으며 두 밤을 보냈다.

十二日。己亥。陽。光州長子洞李熙容國瑞全義人來，同宿再經宵。

1913년 2월 13일. 경자. 맑음.

十三日。庚子。陽。

35) 장자동(長子洞) : 현재 광주광역시 남구 원산동을 말한다. 장자동의 유래는 세종조의 명신 필문 이선제(李先齊)의 다섯 아들인 시원(始元)·조원(調元)·한원(翰元)·찬원(贊元)·형원(亨元)에서 비롯되었다. 이들을 ‘오원(五元)’이라 불렀는데, 오원이 모두 높은 벼슬에 오르자, ‘학덕이 높은 장자가 사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이들이 살았던 곳을 ‘장자동(長子洞)’으로 명명하였다고 한다.

36) 이희용(李熙容, 1853~1931) : 자는 국서(國瑞), 호는 쌍석(雙石), 본관은 전의(全義)이다. 광주 흑석동에서 출생했다. 1874년 약관에 노사(蘆沙)의 문하에 들어가 공부하다가 노사선생 사후에는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을 모셨다. 문집으로 《쌍석유고(雙石遺稿)》를 남겼다.

1913년 2월 14일. 신축. 맑음.

十四日。辛丑。陽。

1913년 2월 15일. 임인. 맑음.

十五日。壬寅。陽。

1913년 2월 16일. 계묘. 맑음.

十六日。癸卯。陽。

1913년 2월 17일. 갑진. 맑음.

十七日。甲辰。陽。

1913년 2월 18일. 을사. 맑음.

十八日。乙巳。陽。

1913년 2월 19일. 병오. 맑음. 시정(時政, 당시 정책)에 공동묘지를 정했는데,<sup>37)</sup> 근래에 민심이 소란한 것은 매장하는 일 때문이다. 나도 생가의 돌아가신 어머니의 산소가 옥과에 있는데, 봉축(封築, 무덤을 만들 때 흙을 쌓아 올림)을 잘 하지 못하였고, 사초(莎草)<sup>38)</sup>를 경영한 지가 여러 해였다. 그러나 가도(家道, 집안 살림)가 넉넉지 못하여 뜻은 있어도 실행하지 못하였다. 이제 묘지의 일에 기한을 넘길 수 없어서 이웃인 유희적(柳羲迪)에게 간청하자 25민(緡)의 돈을 주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와 (묘지의 일을) 완성할 것을 도모했다.

37) 시정 …… 정했는데 : 일제는 1912년에 묘지규칙을 제정하고 묘지를 공동묘지에 한정하였는데, 반발·시위 등으로 1919년에 거의 포기되었다.

38) 사초(莎草) : 무덤에 떼[잔디]를 입히고 다듬는 일을 말한다.

十九日。丙午。陽。時政定共同墓地，近日民心騷動，以葬埋爲事。余亦生庭先妣山所，在玉果，封築不謹，經營莎草者數年，而家道不贍，有意未就。今此墓事有限不得，而懇隣人柳義迪，惠以二十伍緡文，故還巢圖成。

1913년 2월 20일. 정미. 맑음. 옥과의 어머니 묘소에 도착했다. 택조(宅兆, 무덤)를 두루 살피니 길지인지라 다시 무덤에 잔디를 입혔다. 앞서 양봉(襄奉, 장례를 지냄)할 때는 권조(權厝, 임시로 매장)한 것이 불길하여 의금(衣衾)이 참혹하였다. 지금에 와서는 검은 기운이 먼지같아서 손으로 씻어내자 황금색이 반들반들하여 마치 황색 명주를 새로 쓴 듯하였다. 그리고 직접 닿는 양쪽의 흙은 간간히 붉은 비단 무늬가 선연하게 있어서 잠시 바라보았다.

二十日。丁未。陽。到玉果親墓。通觀宅兆，是吉，故還封莎草。先是襄奉時，權厝不吉，衣衾凶慘。至今黑氣如塵，隨手滌去，黃色潤滑，如黃繭紬新用，而兩陝土親處，間間有紅錦紋嬋妍，暫見。

1913년 2월 21일. 무신. 맑다가 흐리고 또 큰바람이 불었다. 사초 일을 끝마쳤다. 문암리(門岩里) 사백(舍伯, 만형)의 장례에 가다가新安(新安)에 이르러서 해가 지자 유숙했다.

二十一日。戊申。陽而陰，又大風。畢役莎草。向門岩里舍伯葬，到新安，日暮留宿。

1913년 2월 22일. 기유. 사백을 장례 지냈다.

二十二日。己酉。葬舍伯。



1913년 2월 23일. 경술. 집에 돌아와 점심을 먹은 후 장동(獐洞)에 도착했다.

二十三日。庚戌。還巢，午飯後到獐洞。

1913년 2월 24일. 신해. 맑음.

二十四日。辛亥。陽。

1913년 2월 25일. 임자. 맑음. 백숙모의 장례에 갔다. 장지는 장동 서당 골 서쪽 기슭 유좌(酉坐) 언덕이다.

二十五日。壬子。陽。赴伯叔母葬於獐洞書堂谷西麓酉坐之原。

1913년 2월 26일. 계축. 흐림. 오전에 가는 비가 내렸다.

二十六日。癸丑。陰。細雨於午前。

1913년 2월 27일. 갑인. 맑음.

二十七日。甲寅。陽。

1913년 2월 28일. 을묘. 맑음.

二十八日。乙卯。陽。

1913년 2월 29일. 병진. 흐림. 잠깐 비가 오다 잠깐 갠. 또 잠깐 비가 옴.

二十九日。丙辰。乍雨乍晴。又乍雨。

1913년 2월 30일. 정사. 맑음.

三十日。丁巳。陽。

1913년 3월 초 1일. 무오 맑음.

三月。初一日。戊午。陽。

1913년 3월 2일. 기미. 맑음.

二日。己未。陽。

1913년 3월 3일. 경신. 맑음. 채신지우(採薪之憂)가 있어서 학도를 내보내고 정양(靜養)하였다. 밤에 소쩍새[杜宇] 소리를 듣고 생각이 일어 잠들지 못했다.

三日。庚申。陽。有採薪之憂，放學徒靜養。夜聞杜宇之聲，懷之不寐。

1913년 3월 4일. 신유. 맑음.

四日。辛酉。陽。

1913년 3월 5일. 흐림. 임술. 밤에 비.

五日。陰。壬戌。夜雨。

1913년 3월 6일. 계해. 맑음.

六日。癸亥。陽。

1913년 3월 7일. 갑자. 맑음.

七日。甲子。陽。

1913년 3월 8일. 을축. 흐림. 주(周)씨 노인 한 사람이 오기에 그 선조를 물으니, 중종때 직제학(直提學) 주세붕(周世鵬) - 상주(商州)인, 호(號)

는 성재(性齋), 시호(諡號)는 문민공(文敏公)- 의 13세손(孫) 병규(炳圭)였다.

八日。乙丑。陰。有一周老人來，問其先，則乃中廟直提學，周世鵬【商州人】，號性齋，諡文敏公，十三世孫炳圭。

1913년 3월 9일. 병인. 맑음.

九日。丙寅。陽。

1913년 3월 10일. 정묘. 맑음.

十日。丁卯。陽。

1913년 3월 11일. 무진. 맑음. 밤에 두견새 우는 소리가 들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두견새 울음소리는 옛날과 같겠지만, 들리는 것은 자못 달랐다. 전년에 들을 때는 늘 회왕(懷王)<sup>39)</sup>의 혼백을 불쌍히 여겼는데, 지금 들을 때는 특히 우리 왕의 근심을 슬퍼한다. -전년에 들은 것은 귀촉도(歸蜀道)<sup>40)</sup>이더니, 오늘 밤 들은 것은 사측독(斯側獨)이네.-

十一日。戊辰。陽。夜聞杜鵑聲而不寐。鵑聲依舊，而所聽頗異。前年聽時，常憐懷王之魂，至今聽時，特愁吾王之憂【前年所聽歸蜀道，今夜所聽斯側獨】。

1913년 3월 12일. 기사. 맑음.

十二日。己巳。陽。

39) 회왕(懷王) : 중국 전국시대 초 회왕은 위왕(威王)의 아들로 이름은 웅괴(熊槐), 진(秦) 소왕(昭王)이 혼인을 약속하고 만나기를 희망하자 굴원(屈原)의 간언을 듣지 않고 무관에 들어갔는데, 진(秦)나라 군대에 의해 강제로 진(秦)나라로 끌려갔다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다.

40) 귀촉도(歸蜀道) : 중국 촉(蜀)나라에 두우(杜宇)라는 왕이 있었는데, 뒤에 왕위(王位)를 신하에게 빼앗기고 그의 혼(魂)이 자규(子規)가 되어 타향(他鄉)에 나와서 울기를, “촉도로 돌아가자, 돌아감만 못하다 [歸蜀道，不如歸].”라고 부르짖는다 한다.

1913년 3월 13일. 경오. 맑음.

十三日。庚午。陽。

1913년 3월 14일. 신미. 맑음.

十四日。辛未。陽。

1913년 3월 15일. 임신. 맑음. 한밤중에 비가 내림. 유희적(柳羲迪)과 함께 치관(緇冠)<sup>41)</sup>을 의논하여 완성했다.

十五日。壬申。陽。夜半雨。與羲迪，論緇冠以成。

1913년 3월 16일. 계유. 흐리고 비. 요즈음 가뭄이 심해 보리씨가 다 타들어 갔는데, 지금부터 비가 흠족히 오기 시작하니, 사람들이 진심으로 기뻐한다.

十六。癸酉。陰雨。近日旱甚，麥苗盡焦。自今雨洽，人心喜悅。

<송선비가 희우시를 찾기에 답함>

우리나라 운명이 새롭지 않아서,  
태반이 혼(魂)이 나간 사람들이네.  
구천(九天)까지 원기(冤氣) 서리고,  
팔도(八道) 사람들 가슴속엔 티끌만 가득.  
동해(東海)에 빠져 죽을 수 없으니<sup>42)</sup>,  
누가 솔토에 편안함을 그르다하랴.

答宋大雅索喜雨詩

吾邦命不新  
太半失魂人  
九天徹冤氣  
八域滿懷塵  
未得蹈東海  
孰非率土寧

41) 치관(緇冠) : 선비들이 평상시에 쓰는 검은 베로 만든 관을 말한다.

42) 동해에 …… 없으니 : 전국시대 제(齊)나라의 고사(高士) 노중련(魯仲連)이 말하기를, “저 진(秦)나라가 방자하게 황제를 자칭하고 죄악으로 천하에 정사를 한다면, 나는 동해에 빠져 죽을 뿐이요, 내가 차마 그 백성은 될 수가 없다.[彼即肆然而爲帝，過而爲政於天下，則連有蹈東海而死耳，吾不忍爲之民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史記》 권83 <노중련열전(魯仲連列傳)>)

가뭄에는 단비밖에 도무지 계책 없으니,  
기뻐하는데 어찌 때를 가리겠나?

旱雨都無計  
喜何從及辰

1913년 3월 17일. 갑술. 흐림.

十七日。甲戌。陰。

1913년 3월 18일. 을해. 비.

十八日。乙亥。雨。

1913년 3월 19일. 병자. 비.

十九日。丙子。雨。

1913년 3월 20일. 정축. 흐림. 오후에 비.

二十日。丁丑。陰。午後雨。

1913년 3월 21일. 무인. 흐림.

二十一日。戊寅。陰。

1913년 3월 22일. 기묘. 반은 흐리고 반은 맑음.

二十二日。己卯。半陰半陽。

1913년 3월 23일. 경진. 맑음. 밤에 비.

二十三日。庚辰。陽。夜雨。

1913년 3월 24일. 신사. 아침에 흐리고 비가 오다가 저녁에 개더니 다시 비.

二十四日。辛巳。朝陰雨，夕暉而雨。

<송환준의 ‘행로음(行路吟)’시에 답함>

答宋雅行路吟【換俊】

이번에 가는 길은 어디로 향하는지요	伊間行路向何開
주옥같은 글 주신 뒤론 오질 않구려.	自錄瓊琚後未來
시흥(詩興)은 몇 번이나 꽃이 만발할 때를 거쳤고,	詩興幾經花爛界
금심(琴心)은 마땅히 달 밝은 누대에 올랐을 것이리.	琴心宜上月明臺
혹시 기수(沂水)에서 증점(曾點)이 말한 뜻 <sup>43)</sup> 이루어졌는지,	倘成沂水點言志
또는 위성(渭城)에서 원(元)이 들었던 술잔 <sup>44)</sup> 씻는지.	且洗渭城元進盃
오래 기다린 마음에 매달린 걸상을 풀어두니, <sup>45)</sup>	久待留情懸榻解
이번에 돌아오시면 얼마나 즐거움 있을까나.	有何所樂以今回

1913년 3월 25일. 임오. 맑음.

二十五日。壬午。陽。

1913년 3월 26일. 계미. 맑음. 산으로 놀러 갔다.

二十六日。癸未。陽。遊山。

<산놀이를 읊다>

遊山吟

꽃핀 산골짜기 앞길이 구름을 헤치고 열리니,	花澗前路披雲開
한발 한발 정상에 올라 각자 술잔 기울이네.	寸進到頭各盡盃

43) 증점(曾點)이 …… 뜻 : 공자의 제자 증점(曾點)이 “늦은 봄에 봄옷이 만들어지면 관을 쓴 벗 대여섯 명과 아이들 예닐곱 명을 데리고 기수에 가서 목욕을 하고 기우제 드리는 무우에서 바람을 쏘인 뒤에 노래하며 돌아오겠다.[暮春者, 春服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라고 자신의 뜻을 밝히자, 공자가 감탄하며 허여한 내용이 《논어》 <선진(先進)>에 나온다.

44) 위성(渭城)에서 …… 술잔 : 석별의 노래를 뜻한다. 당나라 왕유(王維)의 <송원이사안서(送元二使安西)>에 “위성의 아침 비 가벼운 먼지 적시니, 객사에는 푸릇푸릇 버들 빛도 싱그럽네. 그대에게 권하노니 다시 한 잔 드시오 서쪽으로 양관을 나서면 친구가 없시오.[渭城朝雨浥輕塵, 客舍青青柳色新, 勸君更進一杯酒, 西出陽關無故人.]”라고 한 데서 유래한다.

45) 매달린 …… 두고 : 정이 깊다는 의미이다. 후한 때의 예장 태수(豫章太守) 진번(陳蕃)이 빈객(賓客)을 전혀 접대하지 않았으며, 다만 당대의 고사였던 서치(徐穉)가 찾아오면 특별히 걸상 하나를 내려 그를 정중히 접대하고, 그가 떠난 뒤에는 다시 그 걸상을 걸어두곤 했던 데서 온 말이다.(《후한서》 권53 <서치열전(徐穉列傳)>)

젊은이들은 샘가에서 고기를 굽고,  
 어린이들은 피리를 잡고 이끼에 앉았네.  
 정신은 적적하고 요요한 가운데 기쁘고,  
 흥은 층층이 오르는 누대로 들어온다.  
 옛 사람의 산수 사랑을 징험할 수 있으니,  
 벗을 불러 즐거움 기록하며 한가로이 지내네.

壯少臨泉煎臠肉  
 穉兒將律坐蘚苔  
 神怡寂寂廖廖裏  
 興入層層上上坵  
 驗得古人山水愛  
 招朋記樂等閒來

1913년 3월 27일. 갑신. 맑음. 돌아왔다.

二十七日。甲申。陽。歸。

1913년 3월 28일. 을유. 맑음. 계속 머물렀다.

二十八日。乙酉。陽。留連。

1913년 3월 29일. 병술. 맑음.

二十九日。丙戌。陽。

1913년 4월 1일. 정해. 맑음.

四月。初一日。丁亥。陽。

1913년 4월 2일. 무자. 맑음.

二日。戊子。陽。

1913년 4월 3일. 기축. 맑음.

三日。己丑。陽。

1913년 4월 4일. 경인. 흐리고 비.

四日。庚寅。陰雨。

1913년 4월 5일. 신묘. 맑음.

五日。辛卯。陽。

1913년 4월 6일. 임진. 맑음.

六日。壬辰。陽。

1913년 4월 7일. 계사. 맑음.

七日。癸巳。陽。

1913년 4월 8일. 갑오. 흐리고 비.

八日。甲午。陰雨。

1913년 4월 9일. 을미. 흐리고 비.

九日。乙未。陰雨。

<p>&lt;안중근의 만사&gt;창강 김택영이 짓다<sup>46)</sup>          평안도 장사가 두 눈 부릅뜨고,          양을 죽이듯 나라의 원수를 통쾌히 죽였네.          죽기 전에 좋은 소식 듣게 되었으니,          국화 옆에서 미친 듯 노래하고 춤추네.</p>	<p>安仲根輓 金澤榮滄江所作          平安壯士目雙張          快殺邦讎似殺羊          未死得聞消息好          狂歌亂舞菊花傍</p>
---	---

<p>블라디보스톡에 송골매 하늘 높이 날아오르고,          하얼빈에 벼락불이 붉게 물들자,          많은 육대주의 호걸들,</p>	<p>海蔘威外鷗摩空          哈爾濱頭霹火紅          多少六洲豪健客</p>
--	--

46) 창강 …… 짓다 : 김택영의 《소호당집(韶濩堂集)》 권4에 <聞義兵將安重根 報國讎事>란 시 3수가 들어있는데, 앞의 2수이다. 두 번째 시 첫구는 약간 다르니, 문집에는 “海蔘港裏鷗摩空”이라고 쓰여있다.



추풍낙엽처럼 일시에 수저를 떨어뜨렸네.

一時匙箸落秋風

一九一三

1913년 4월 10일. 병신. 흐림.

十日。丙申。陰。

1913년 4월 11일. 정유. 맑음.

十一日。丁酉。陽。

1913년 4월 12일. 무술. 맑음.

十二日。戊戌。陽。

1913년 4월 13일. 기해. 흐리고 비.

十三日。己亥。陰雨。

1913년 4월 14일. 경자. 흐림.

十四日。庚子。陰。

1913년 4월 15일. 신축. 맑음.

十五日。辛丑。陽。

1913년 4월 16일. 임인. 맑음.

十六日。壬寅。陽。

1913년 4월 17일. 계묘. 맑음.

十七日。癸卯。陽。

1913년 4월 18일. 갑진. 맑음.

十八日。甲辰。陽。

1913년 4월 19일. 을사. 맑음. 광주 흑석면(黑石面) 장자동(長者洞)에 사는 사문(斯文) 이희용(李熙容)씨 -호는 쌍석(雙石)으로 전의인(全義人)이다- 가 종인 영조(永祚)와 함께 와서<노사선생비역통문(蘆沙先生碑役通文)>을 보여주기에 기록한다.

十九日。乙巳。陽。光州黑石面長者洞，斯文李熙容氏，號雙石全義人，與宗人永祚同來，示以蘆沙先生碑役通文，記之。

<노사기선생 비역소 통문(蘆沙奇先生碑役所通文)>

선사(先師)이신 노사선생<sup>47)</sup>의 장지가 영광(靈光)의 황산(凰山)<sup>48)</sup> 기슭에 있는데, 묘지의 나무는 이미 한아름이나 자랐지만 아직 변변한 비석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비록 세상일의 다단함에서 연유한 것이라 할지라도 또한 인사가 고르지 않은 탓이기도 합니다. 당시 선생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에는 세상을 주도하는 문장으로 춘추의 현미(顯微)와 천유(闡幽)의 붓을 잡으시고 한 세상을 품기했습니다. 큰 비석이나 작은 비석이 종고(鐘鼓)의 소리를 품지 않음이 없었고, 산속 서재와 물가의 정자가 강한(江漢)의 물결에 젖지 않음이 없었습니다.<sup>49)</sup> 그런데 마침내 선생의 묘소로 하여금 지금까지 한 조각의 표석과 몇 칸의 제사지낼 집도 없게 하였으니, 어찌 연원있는 여러 집안이나 문하에서 공부한 후생들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3월 26일에 황산 아래에 비역소를 설치하고, 통문으로 아뢰니, 일흠

47) 노사선생(蘆沙先生) : 기정진(奇正鎭, 1798~1879)을 말한다. 자는 대중(大中), 호는 노사(蘆沙), 본관은 해주(幸州)이다. 성리학에 대한 깊은 공리와 사색을 통해 이일분수(理一分殊)에 대한 독창적인 이론을 수립하였다. 한말 위정척사파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의 문도는 전라도뿐만 아니라 지금의 경상남도 일원에도 폭넓게 포진해 있었다. 저서로는 《노사집》이 있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48) 황산(凰山) : 현재는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에 해당된다.

49) 큰 …… 없었습니다 : 노사가 지은 기문이나 묘도문자를 말한 것이다. 《노사집》에 실린 글을 보면, 기문이 88편, 묘도문이 20편 등이다.

경해(一吸傾海)<sup>50</sup>라고 말하지 말지니, 또한 티끌모아 태산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밖에 선생의 학풍을 듣고 사숙한 사람이나 덕을 사모하여 의리로 향하는 자들은 반드시 칠십제자들보다 못하지 않을 겁니다. 또한 널리 알려주는 데 달려 있을 따름입니다. 삼가 여러분께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蘆沙奇先生碑役所通文〉

先師蘆沙先生之葬，在於靈光鳳山之麓。墓木已拱，石無顯刻。雖緣世故之多端，亦由人事之不齊也。當先生之世，以命世之文，操春秋顯微闡幽之筆，陶鑄一世也。穹碑短碣，莫不懷鐘鼓之音，山齋水亭，無不沾江漢之波，而遂使先生之墓，至今無一片表隧之石，數椽享祀之屋，豈非淵源諸家及門後生之責也？以三月二十六日設役於鳳山下，茲庸文告，非曰一吸傾海，亦可以聚塵成山，而其他聞風私淑，慕德嚮義者，必有不下於七十子之人矣。亦在廣告之如何耳。伏惟僉照。

1913년 4월 20일. 병오. 맑음.

二十日。丙午。陽。

155

1913년 4월 21일. 정미. 맑음.

二十一日。丁未。陽。

1913년 4월 22일. 무신. 맑음. 집에 돌아왔다. 아들이 조적(糶糶)<sup>51</sup> 가운데에서 동조(洞租, 마을 공동세금) 3석 값인 112냥 5전을 결상(結上) 했는데, 조주(租主)가 7냥 5전을 환급해주었다.

二十二日。戊申。陽。還巢。家兒糶內洞租三石價，一百十二兩五錢結上，而租主讓還給七兩五錢。

50) 일흡경해(一吸傾海) : 한 번에 바다를 기울여 마심을 이룬다.

51) 조적(糶糶) : 춘궁기에 관곡(官穀)을 농민에게 대여하였다가 가을에 거두어들이는 쌀. 이것을 조적 또는 환자[還上]라고도 한다.

1913년 4월 23일. 기유. 맑음. 다시 장동(獐洞)으로 나갔다.

二十三日。己酉。陽。復出獐洞。

1913년 4월 24일. 경술. 흐림.

二十四日。庚戌。陰。

1913년 4월 25일. 신해. 맑음. 능주(陵州) 백암리(白巖里)에 사는 문아사(文雅士)가 와서 선대의 세덕을 기렸는데, 남평 문씨 강성군의 휘는 익점(益漸)이고 호는 삼우당(三憂堂)이다. 대개 삼우(三憂)란 것은 종사와 나라를 진흥시키지 못할까 걱정이고, 성학(聖學)을 전하지 못할까 걱정이며, 정도(正道)를 세우지 못할까 걱정함이다.

二十五日。辛亥。陽。陵州白巖里文雅士來。誦先世德，文氏南平江城君諱益漸，號三憂堂。蓋三憂者，憂以宗國不振，憂以聖學不傳，憂以正道不立。

1913년 4월 26일. 임자. 맑음.

二十六日。壬子。陽。

1913년 4월 27일. 계축. 맑음.

二十七。癸丑。陽。

1913년 4월 28일. 갑인. 흐리고 비.

二十八日。甲寅。陰雨。

1913년 4월 29일. 을묘. 흐리고 비.

二十九日。乙卯。陰雨。

1913년 4월 30일. 병진. 흐리고 비.

三十日。丙辰。陰雨。

1913년 5월 1일. 정사. 맑음.

五月。初一日。丁巳。陽而陽。

1913년 5월 2일. 무오. 맑음. 오늘은 망종(芒種)이다.

二日。戊午。陽。是日芒種也。

1913년 5월 3일. 기미. 맑음.

三日。己未。陽。

1913년 5월 4일. 경신. 맑음. 밤에 바람이 불었다.

四日。庚申。陽。夜風。

1913년 5월 5일. 신유. 흐리고 비.

五日。辛酉。陰雨。

1913년 5월 6일. 임술. 흐림.

六日。壬戌。陰。

1913년 5월 7일. 계해. 맑음.

七日。癸亥。陽。

1913년 5월 8일. 갑자. 맑음. 집에 돌아왔다. 나씨 집에 시집간 딸이 시

택으로 돌아갔다.

八日。甲子。陽。歸巢。羅氏女歸其家。

1913년 5월 9일. 을축. 맑음. 다시 장동(獐洞)에 도착했다.

九日。丑。陽。復到獐洞。

1913년 5월 10일. 병인. 맑음.

十日。丙(寅)。陽。

1913년 5월 11일. 정묘. 맑음. 정조대왕이 의암서원(義岩書院)<sup>52</sup>에 하사한 오경(五經)을 공경히 살펴보았다.

十一日。丁卯。陽。奉審正廟賜義岩書院五經。

1913년 5월 12일. 무진. 흐리고 비.

十二日。戊辰。陰雨。

1913년 5월 13일. 기사. 맑음.

十三日。己巳。陽。

1913년 5월 14일. 경오. 맑음.

十四。庚午。陽。

1913년 5월 15일. 신미. 맑음.

52) 의암서원(義岩書院) : 조선 선조 때 전라도 담양에 건립한 서원이다. 1668년(현종 9)에 사액되었으며 유희춘(柳希春)을 배향하였다. 1868년(고종 5)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없어졌다.

十五日。辛未。陽。

1913년 5월 16일. 임신. 맑음.

十六日。壬申。陽。

1913년 5월 17일. 계유. 맑다가 흐림. 오후에는 비가 조금 내리고 추워 지더니 다시 개었다.

十七日。癸酉。陽而陰。午後，雨少洒寒而復晴。

1913년 5월 18일. 갑술. 맑음. 오늘은 하지(夏至)이다.

十八日。甲戌。陽。是日夏至也。

1913년 5월 19일. 을해. 흐림. 몸이 조금 아팠다.

十九日。乙亥。陰。有採薪之憂。

159

1913년 5월 20일. 병자. 흐림. 잠깐 비가 내렸다.

二十日。丙子。陰。乍雨。

1913년 5월 21일. 정축. 맑음.

二十一日。丁丑。陽。

1913년 5월 22일. 무인. 맑음.

二十二日。戊寅。陽。

1913년 5월 23일. 기묘. 흐림.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렸다.

二十三日。己卯。陰。風而雨。

1913년 5월 24일. 경진. 흐림. 비가 올 것 같더니 오지 않았다.

二十四日。庚辰。陰。欲雨而未雨。

1913년 5월 25일. 신사. 맑더니 일리(一犁)의 비가 내렸다.

二十五日。辛巳。陽而雨一犁。

1913년 5월 26일. 임오. 맑음.

二十六日。壬午。陽。

1913년 5월 27일. 계미. 맑음. 집에 돌아왔다. 손녀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몸에 콩알만 한 빨간 반점[發斑]<sup>53)</sup>이 생기더니 온몸으로 퍼져 고름을 짙 지경이 되었다. 이런 병이 어째서 생겼는지 모르겠다.

二十七日。癸未。陽。歸巢。孫女身樣不平。發斑如大豆，遍滿全身，至於括濃。不知所崇以來。

1913년 5월 28일. 갑신. 맑음. 장동에 도착했다. 밤에 비가 내렸다.

二十八日。甲申。陽。到章洞。夕雨。

1913년 5월 29일. 을유. 흐리고 비가 내렸다. 삼농(三農)<sup>54)</sup>의 마음을 흠족하게 위로해 주었다.

53) 빨간 반점[發斑] : 천연두나 홍진 등을 앓을 때 피부에 빨간 반점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54) 삼농(三農) : 삼농이란 원지(原地)와 습지(濕地)와 평지(平地)의 농사를 합칭한 말로, 《주례(周禮)》 <천관(天官)·태제(太宰)>에 “삼농에서 아홉 가지 곡식을 생산한다.[三農生九穀.]” 라는 말이 보이는데, 인신하여 농사 혹은 농민을 가리키기도 한다.



二十九日。乙酉。陰雨。慰滿三農足。

1913년 6월 1일. 병술. 갸.

六月。初一日。丙戌。晴。

1913년 6월 2일. 정해. 맑음.

二日。丁亥。陽。

1913년 6월 3일. 무자. 맑음.

三日。戊子。陽。

1913년 6월 4일. 기축. 맑음. 집에 돌아왔다. 손녀의 병을 진맥해 보았다.

四日。己丑。陽。歸巢。診孫女所崇。

1913년 6월 5일. 경인. 다시 장동으로 돌아왔다. 저물녘에 비가 내렸다.

五日。庚寅。復還章洞。日夕雨。

1913년 6월 6일. 신묘. 갸.

初六日。辛卯。晴。

1913년 6월 7일. 임진. 맑음.

七日。壬辰。陽。

1913년 6월 8일. 계사. 맑음.

八日。癸巳。陽。

1913년 6월 9일. 갑오. 아침에 햇무리가 생기더니 저녁에 흐려졌다.

九日。甲午。朝暈夕陰。

1913년 6월 10일. 을미. 아침에 흐리다가 저녁에 비가 흔적만 남겼다.

十日。乙未。朝陰有雨痕。

1913년 6월 11일. 병신. 비.

十一日。丙申。雨。

1913년 6월 12일. 정유. 맑음.

十二日。丁酉。陽。

1913년 6월 13일. 무술. 맑음.

十三日。戊戌。陽。

1913년 6월 14일. 기해. 흐리다가 비 조금. 광주(光州) 주흥동(朱興洞)<sup>55</sup>의 조용섭(趙庸燮)이 노사(盧沙)의 비석 일로 왔다.

十四日。己亥。陰雨少洒。光州朱興洞趙庸燮，以盧沙碑役事來。

1913년 6월 15일. 경자. 맑음.

十五日。庚子。陽。

1913년 6월 16일. 신축. 반쯤 흐리고 반쯤 맑음. 해질무렵에 일리(一犁)

55) 주흥동(朱興洞) : 광주군 갈전면 주흥동으로, 1914년에 갈전면은 담양으로 이속되었는데, 주흥동[중흥동]의 이름은 사라졌다.

의 비가 내렸다.

十六日。辛丑。半陰半陽。斜陽雨一犁。

1913년 6월 17일. 임인. 갸.

十七日。壬寅。晴。

1913년 6월 18일. 계묘. 반쯤 맑고 반쯤 흐림. 저녁때 비가 왔다.

十八日。癸卯。半陽半陰。日夕雨。

1913년 6월 19일. 갑진. 흐리고 비.

十九日。甲辰。陰雨。

1913년 6월 20일. 을사. 비가 갸.

二十日。乙巳。晴。

1913년 6월 21일. 병오. 맑음.

二十一日。丙午。陽。

1913년 6월 22일. 정미. 맑음.

二十二日。丁未。陽。

1913년 6월 23일. 무신. 맑음.

二十三日。戊申。陽。

1913년 6월 24일. 기유. 맑음.

二十四日。己酉。陽。

1913년 6월 25일. 경술. 맑음.

二十五日。庚戌。陽。

1913년 6월 26일.辛亥. 맑음.

二十六日。辛亥。陽。

1913년 6월 27일. 임자. 맑다가 흐림. 소나기가 내렸다.

二十七日。壬子。陽而陰。驟雨。

1913년 6월 28일. 계축. 맑다가 흐림. 소나기가 내렸다.

二十八日。癸丑。陽而陰。驟雨。

1913년 6월 29일. 갑인. 맑음. 미암선생 재실<sup>56</sup>)에 들어가 고적(古蹟)을 열람하였다.

二十九日。甲寅。陽。入眉巖先生齋室，閱覽古蹟。

1913년 7월 1일. 을묘. 맑음.

七月。初一日。乙卯。陽。

1913년 7월 2일. 병진. 맑음.

二日。丙辰。陽。

56) 미암선생 재실 : 미암 선생의 재실은 현재 담양군 대덕면 장동길에 있다.

1913년 7월 3일. 정사. 맑음.

三日。丁巳。陽。

1913년 7월 4일. 무오. 맑음.

四日。戊午。陽。

1913년 7월 5일. 기미. 맑음.

五日。己未。陽。

1913년 7월 6일. 경신. 맑음.

六日。庚申。陽。

1913년 7월 7일. 신유. 맑음. 오늘은 입추이다.

七日。辛酉。陽。是日入秋也。

1913년 7월 8일. 임술. 맑음.

八日。壬戌。陽。

1913년 7월 9일. 계해. 맑음.

九日。癸亥。陽。

1913년 7월 10일. 갑자. 맑음.

十日。甲子。陽。

1913년 7월 11일. 을축. 맑음. 밤에 소나기가 잠깐 내렸다.

十一日。乙丑。陽。夜驟雨乍下。

1913년 7월 12일. 병인. 맑음.

十二日。丙寅。陽。

1913년 7월 13일. 정묘. 맑음.

十三日。丁卯。陽。

1913년 7월 14일. 무진. 맑음.

十四日。戊辰。陽。

1913년 7월 15일. 기사. 맑음.

十五日。己巳。陽。

1913년 7월 16일. 경오. 맑음. 바람과 잔뜩 낀 구름이 나의 서쪽 교외로 부터 왔다.<sup>57)</sup> 밤에 비가 잠깐 내렸다.

十六日。庚午。陽。風密雲自我西郊，夜雨暫下。

1913년 7월 17일. 신미. 흐림. 한줄기 소나기가 내렸다.

十七日。辛未。陰。驟雨一注。

1913년 7월 18일. 임신. 맑음. 비가 갠 후 날씨가 청명해지니 마음이 시

57) 바람 …… 왔다 : 《주역》 <소축괘(小畜卦)>에 “구름만 잔뜩 끼고 비가 내리지 않으니 나의 서쪽 교외에서부터 왔기 때문이다.[密雲不雨，自我西郊.]”라는 구절이 있다. 구름만 잔뜩 끼고 비를 이루지 못한 것은 문왕이 동쪽으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음방인 서쪽의 유리옥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는 비유이다.

원스레 트이고 정신이 흠족하였다. <사잠(四箴)><sup>58)</sup>을 보다가 청잠(聽箴)의 ‘사람이 가진 양심은 천성에 근본한 것이다.[人有秉彝, 本乎天性]<sup>59)</sup>’라는 내용에 이르러 ‘시잠(視箴)은 안으로부터, 청잠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는 의미를 깨달았다.

十八日。壬申。陽。霽後天朗氣清，心曠神怡。看四箴，至聽箴‘人有秉彝，本乎天性’，覺視箴自內，聽箴自外入內之意味。

1913년 7월 19일. 계유. 맑음. 밤에 비가 왔다.

十九日。癸酉。陽。夜雨。

1913년 7월 20일. 갑술. 갸. 오후에 비가 오고 밤에 또 비가 왔다.

二十日。甲戌。晴。午後雨，夜亦雨。

1913년 7월 21일. 을해. 맑음.

二十一日。乙亥。陽。

1913년 7월 22일. 병자. 비가 개어 해가 선명(燁明)하였다.

二十二日。丙子。霽日燁明。

58) 사잠(四箴) : 공자의 제자 안연(顔淵)이 ‘극기복례(克己復禮)’의 조목을 물었을 때 공자가 “예가 아니면 보지 말며,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非禮勿視，非禮勿聽，非禮勿言，非禮勿動.]”고 답함으로써 사물(四勿)을 말했는데, 정자가 이 말은 성인을 배우는 데 마땅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하여 스스로 경계하는 뜻으로 시잠(視箴)·청잠(聽箴)·언잠(言箴)·동잠(動箴)의 <사잠(四箴)>을 지었다.(《논어》 <안연(顔淵)>)

59) 사람이 …… 것이다 : 정자(程子)의 <사물잠(四勿箴)> 중 청잠(聽箴)에서 “사람이 가진 양심은 천성에 근본한 것인데 얕이 유혹받아 외물에 동화되면 마침내 그 바름을 잃게 된다.[人有秉彝，本乎天性，知誘物化，遂亡其正.]” 구절 중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1913년 7월 23일. 정축. 맑음.  
二十三日。丁丑。陽。

1913년 7월 24일. 무인. 맑음.  
二十四日。戊寅。陽。

1913년 7월 25일. 기묘. 맑음.  
二十五日。己卯。陽。

1913년 7월 26일. 경진. 맑음.  
二十六日。庚辰。陽。

1913년 7월 27일. 신사. 맑음.  
二十七日。辛巳。陽。

1913년 7월 28일. 임오. 맑음.  
二十八日。壬午。陽。

1913년 7월 29일. 계미. 잠깐 비.  
二十九日。癸未。乍雨。

1913년 7월 30일. 갑신. 맑음.  
三十日。甲申。陽。

1913년 8월 1일. 을유. 맑음.



八月。初吉。乙酉。陽。

1913년 8월 2일. 병술. 맑음. 생부의 기제(忌祭)에 참석하러 가는데, 원모령(院茅嶺)에 이르러 쉬다가 정응교(鄭應教)의 아들을 만나 녹실(綠室) 어른의 부음을 들었다.

二日。丙戌。陽。作生庭先考忌祭之行，至院茅嶺歇脚，遇鄭應教子，聞綠室丈訃音。

1913년 8월 3일. 정해. 맑음.

三日。丁亥。陽。

1913년 8월 4일. 무자. 맑음.

四日。戊子。陽。

1913년 8월 5일. 기축. 맑음.

五日。己丑。陽。

1913년 8월 6일. 경인. 맑음.

六日。庚寅。陽。

1913년 8월 7일. 신묘. 맑음.

七日。辛卯。陽。

1913년 8월 8일. 임진. 맑음.

八日。壬辰。陽。

1913년 8월 9일. 계사. 맑음.

九日。癸巳。陽。

1913년 8월 10일. 갑오. 맑음.

十日。甲午。陽。

1913년 8월 11일. 을미. 오늘은 생일이다. 밤이 와도 잠을 이루지 못하여 <생일>시를 지었다.

十一日。乙未。是日生日也。夜來不得眠，而咏生日。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父兮生我母兮育
옛날의 부모님 은덕 <sup>60</sup> 이 몸에 남아 있네.	在昔劬勞餘此身
세월이 순식간에 흘러 오십오세가 되어,	倏忽光陰五十五
다시 생일날 맞이하니 어머니 생각 배나 더하네.	更逢生日倍思親

세속에선 생신날이라 음식을 마련하나,	世俗生辰飲食備
그 몸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네.	覺來不得爲渠身
일반적으로 천성은 마음과 함께 갖추어진 것,	一般天性心同具
살아서는 아버이를 섬기고 죽어서는 아버이를 제사 지내네.	生事其親死祭親

1913년 8월 12일. 병신. 맑음.

十二日。丙申。陽。

1913년 8월 13일. 정유, 맑다가 흐림. 비가 오락 말락 하였다.

60) 부모님 은덕 : 원문의 구로(劬勞)는 낳아 주고 길러 주신 부모님의 은덕을 말한다. 《시경》 <소아(小雅)·육아(蓼莪)>에 “슬프고 슬프도다 부모님 생각, 낳고 길러 주시느라 얼마나 고생 하셨던가.[哀哀父母，生我劬勞.]”라고 하였다.

十三日。丁酉。陽而陰。欲雨而未雨。

1913년 8월 14일. 무술. 맑음. 집으로 돌아왔다.

十四日。戊戌。陽。還巢。

1913년 8월 15일. 기해. 맑음. 아침에 일전에 지은 <녹실을 곡하는 글(哭綠室文)>을 기록하였다.

十五日。己亥。陽。朝記日前所制哭綠室文。

<녹실선생을 곡하는 글>

오호라, 선생이시여.  
 타고난 자태는 순수하시고  
 기상은 준수하셨으며,  
 덕업은 높고 넓었고,  
 문장은 온축된 것을 펼치셨습니다.  
 처신함은 또한 공손하셨으며,  
 남을 때할 때는 공경으로서 하였으니,  
 세상에서 추중하는 바가  
 태산북두를 우러르는 것과 같습니다.  
 천박한 소견의 말학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난이 오니 따르고,  
 조용히 계합하였을 뿐입니다.  
 청천에서 탁족할 때는  
 공이 먼저고 저는 뒤였으며,  
 반석에서 술을 두고 부를 때는  
 공은 권하고 저는 마셨습니다.  
 제가 이단을 걱정하여

哭綠室先生文

嗚呼先生  
 天姿純粹  
 氣宇俊秀  
 德業崇曠  
 文章暢發  
 處己也恭  
 接物以敬  
 世所推重  
 望若山斗  
 淺見末學  
 何以知識  
 亂來追從  
 契合從容  
 濯足晴川  
 公先我後  
 招酒盤石  
 公勸我飲  
 我憂異端

천하가 바뀐다고 하자,	以易天下
공께서는 말씀하시길 하늘의 운은	公言天運
비태와 박복 <sup>61)</sup> 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否泰剝復
제가 보신명철하는 방법과	我問保身
기미를 아는 것에 대해 묻자,	明哲知幾
공께서는 자취를 숨겨 드러내지 않고,	公誨遜跡
팔낭검덕 <sup>62)</sup>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括囊儉德
평소의 행함을 들어보면,	聞其素履
뜻이 확고한 잠룡이시고, <sup>63)</sup>	確乎潛龍
모든 논의하셨던 것은	凡所論議
시귀(蓍龜) <sup>64)</sup> 처럼 믿음직스러웠습니다.	信如蓍龜
무릎을 맞대고 아홉 달을 지내니,	促膝九朔
은혜는 부형과 같고,	恩如父兄
헤어진 지 5년이나 되었으니,	分手五載
의분은 사우와 같습니다.	義分師友
봄 정월 보름 사이에	春正望間
깨우쳐주시는 말이 자상하시더니,	誨語諄諄
가을 칠월 보름에	秋七望日
선가(仙駕) <sup>65)</sup> 타고 어디로 가신 것입니까.	仙駕焉歸
질의는 누구에게 할 것이며,	質疑有誰
질문은 또 누구에게 할 것입니까.	問難復誰
살아서는 하늘을 순히 섬기고 죽어서는 편안하셨으니, <sup>66)</sup>	存順歿寧

61) 비태와 박복: 모두 주역의 괘 이름으로, 자연이 순환하고 치란(治亂)이 소장(消長)하며, 군자와 소인이 진퇴(進退)하는 이치를 담고 있다.

62) 팔낭검덕(括囊儉德): 팔낭무구(括囊无咎)와 검덕피난(儉德辟難)을 합친 말이다. 《주역》 <곤괘> 육사(六四)에는 “주머니를 묶으면 허물도 없고 명예도 없다.[括囊, 无咎, 无譽.]”라고 하였고, 비괘(否卦)의 상(象)에는 “덕을 검약하여 난을 피한다.[儉德辟難]”라고 하였다.

63) 뜻이 …… 잠룡이시고: 《주역(周易)》 <건괘(乾卦)·문언(文言)>에 “좋은 세상을 만나면 도(道)를 행하고 좋지 않은 세상을 만나면 은둔하여 그 뜻이 확고하여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잠겨 있는 용이다.[樂則行之, 憂則違之, 確乎其不可拔, 潛龍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64) 시귀(蓍龜): 점을 칠 때 쓰는 시초(蓍草)와 거북으로, 국가에서 것처럼 믿고서 의지할 수 있는 원로를 비유할 때 쓰는 표현이다.

65) 선가(仙駕): 사람이 죽어 신선이 되어 타고 간다는 수레로, 죽음을 비유하는 말이다.

공으로서는 부끄럼이 없으시겠으나	公則無愧
세상이 어지럽고 도는 없어졌으니,	世亂道喪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我安適歸
초상 때는 빈소에도 임하지 못했고	喪不臨殯
장례 때는 상여끈도 잡지 못했습니다.	葬未執紼
유명 사이가 멀리 떨어졌으니,	幽明迥隔
어떻게 다시 볼 수 있겠습니까.	何以復見
길거리에서 부고를 받고,	訃言街路
애통하여 목이 막혔는데,	痛鬱塞哽
궤연에 와서 곡하니,	來哭几筵
눈물이 옷깃에 가득합니다.	涕淚滿襟
생각하면 보이는 것 같다가도,	思而如見
들으려 하면 소리가 없으니,	聽而無聲
아, 애통합니다.	嗚呼痛矣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爲之奈何
손 닦고 한 잔 술 올리니,	盥手一酌
영혼께서는 감응하여 이르소서.	靈其感格

1913년 8월 16일. 경자. 맑음. 성묘를 갔다가 날이 저물어서 집에 돌아왔다. 객지생활을 하고 있는 홍익후(洪翊厚) 덕인(德仁)<sup>67</sup>을 만나 손우당(遜愚堂)<sup>68</sup>의 행실에 대해 들었다.

“대명천지에 집 없는 나그네요, 태백산중에 머리칼 있는 중이로구나.”라는 구절을 두곡(斗谷, 홍우정)<sup>69</sup>에게 주었으며<sup>70</sup>, 동춘선생(同春先

66) 살아서…… 편안하셨으니 : 송(宋)나라 때 유학자 장재(張載)의 서명(西銘)에 나오는 ‘살아서는 순리대로 섬길 것이고 죽어서는 편안하리라.[存吾順事, 沒吾寧也]’라는 말을 줄인 것이다.

67) 홍익후(洪翊厚) 덕인(德仁) : 홍익후는 이름이고, 덕인은 그의 자이다. 본 일기에서는 이름 뒤에 자를 붙였다.

68) 손우당(遜愚堂) : 홍석(洪錫, 1604~1680)을 말함. 자는 공서(公紱), 호는 손우당, 본관은 남양이다. 잠은(潛隱) 강흡(姜恰), 각금당(覺今堂) 심장세(沈長世), 포옹(抱翁) 정양(鄭潏), 두곡(杜谷) 홍우정(洪宇定) 등과 함께 태백오현 중의 한 사람이다. 병자란 이후 봉화마을에 들어와 살았다.

69) 두곡(斗谷) : 홍우정(洪宇定)을 말함. 자는 정이(靜而), 본관은 남양(南陽)이다. 병진년(1616)

生, 송준길<sup>71)</sup>은 “태백산중에 세상을 피한 선비요, 대명천지에 정절 지키는 사람이로다.”라는 구절을 지어 공에게 주었다고 한다.

十六日。庚子。陽。作省墓之行，日夕還巢。遇客居洪翊厚德仁，聞遜愚堂行實，‘大明天地無家客，太白山中有髮僧’之句，贈斗谷，同春先生，以‘太白山中遜世士，大明天地守貞人’之句，贈公云。

1913년 8월 17일. 신축. 맑음. 옥과에 성묘를 갔다가 장동(獐洞)으로 돌아왔다.

十七日。辛丑。陽。玉果省墓之行，回還獐洞。

1913년 8월 18일. 임인. 맑음.

十八日。壬寅。陽。

1913년 8월 19일. 계묘. 흐림. 저물녘에 비가 흠족하게 내렸다.

十九日。癸卯。陰。日仄雨洽注。

1913년 8월 20일. 갑진. 날이 갠.

二十日。甲辰。晴。

1913년 8월 21일. 을사. 맑음. 집에 돌아왔다가 다시 나갔다.

에 진사에 임격하고, 계유년(1633)에 사재감 직장(司宰監直長)에 제수되었다. 병자호란 이후 북쪽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어 문수산(文殊山)아래 두곡천(杜谷泉) 곁에 작은 암자를 짓고서 옥류암(玉溜庵)이라는 편액을 걸고, 이로 말미암아 ‘두곡기인(杜谷畸人)’이라고 자호하였다.

70) 대명천지에 …… 주었으며 : 김매순(金邁淳)의 《대산집》 <두곡홍공행장(杜谷洪公行狀)>에는 이 시구를 두곡이 지었다고 나온다.

71) 동춘선생(同春先生) :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을 말함. 자는 명보(明甫), 호는 동춘당(同春堂), 본관은 은진(恩津)이다. 아버지는 영천군수를 지낸 송이창(宋爾昌)이다.

二十一日。乙巳。陽。還家復出。

1913년 8월 22일. 병오. 맑음.

二十二日。丙午。陽。

1913년 8월 23일. 정미. 맑음.

二十三日。丁未。陽。

1913년 8월 24일. 무신. 맑음.

二十四日。戊申。陽。

1913년 8월 25일. 기유. 맑음. 지곡(芝谷)의 녹실(綠室) 어른을 조상(弔喪)했다. 밤에 바람이 불었다.

二十五日。己酉。陽。弔芝谷綠室丈。夜風。

175

1913년 8월 26일. 경술. 흐리고 비.

二十六日。庚戌。陰雨。

1913년 8월 27일. 신해. 맑음. 황동으로 돌아왔다.

二十七日。辛亥。陽。還黃洞。

1913년 8월 28일. 임자. 맑음.

二十八日。壬子。陽。

1913년 8월 29일. 계축. 맑음. 청단리에 사는 강봉회(姜鳳會) -호는 삼

회(三悔)이고, 자는 기서(奇瑞)이다. 가 왔기에 홍익후(洪翊厚)·양규영(楊圭英) 경문(景文)과 함께 놀았다.

二十九日。癸丑。陽。青丹姜鳳會號三悔字奇瑞來，與洪翊厚楊圭英景文同遊。

1913년 9월 1일. 갑인. 맑음.

九月。初一日。甲寅。陽。

1913년 9월 2일. 을묘. 맑음.

二日。乙卯。陽。

1913년 9월 3일. 병진. 맑음. 내일이 곧 사산부자묘(泗山夫子廟)의 향사 일이다. 사고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고 탄식할 즈음에 문득 문묘의 축문(祝文)을 보았기 때문에 기록한다.

三日。丙辰。陽。明日卽泗山夫子廟享祀日也。拘於事故，末由趨參，愴然之際，忽見文廟祝文，故記。

#### <문묘 춘추향사 축문>

선성(先聖)이신 대성지성(大成至聖) 문선왕(文宣王)이시여. 엿드려 생각건대 도(道)는 모든 왕들 중에 으뜸이고 만세의 스승이니, 이달 상정(上丁)일을 맞이하여 정결하게 제사를 올림이 마땅합니다. 삼가 희생과 폐백, 예제(禮齊)<sup>72</sup>, 자성(棗盛)<sup>73</sup>과 여러 가지 음식으로 제수(祭需)를 차려 올리고, 선사(先師)이신 연국복성공(兗國復聖公) 안씨, 성국종성공(鄭國宗聖公) 증씨, 기국술성공(沂國述聖公) 공씨, 추국아성공(鄒國亞聖公) 맹씨 등을

72) 예제(禮齊) : 술을 청탁(淸濁)에 따라 나눈 오제(五齊)의 하나로, 주로 초헌례(初獻禮)에 사용한다. 오제는 범제(泛齊), 예제, 양제(盎齊), 제제(緹齊), 침제(沈齊)이다.

73) 자성(棗盛) : 그릇에 담아 제물(祭物)로 바치는 가장 따위의 곡식을 말한다.



배좌(配坐)하오니, 흠향하옵소서.

文廟春秋享祀祝文。

先聖大成至聖文宣王。伏以道冠百王，萬世之師，茲值上丁，精禋是宜。

謹以潔牲剛鬣粢盛醴齊，式陳明薦，以先師兗國復聖公顏氏，邠國宗聖公會氏，沂國述聖公孔氏，鄒國亞聖公孟氏配，尚饗。

1913년 9월 4일. 정사. 맑음.

初四日。丁巳。陽。

1913년 9월 5일. 무오. 맑음.

五日。戊午。陽。

1913년 9월 6일. 기미. 맑음.

六日。己未。陽。

1913년 9월 7일. 경신. 맑음.

七日。庚申。陽。

1913년 9월 8일. 신유. 맑음. 집에 돌아왔다.

八日。辛酉。陽。還巢。

1913년 9월 9일. 구일. 임술. 맑음. 집에서 계속 머물렀다.

九日。壬戌。陽。留連于家。

1913년 9월 10일. 십일. 계해. 맑음. 장성(長城) 하만(河晩)의 이재백(李在百) 댁에 도착하여 유숙했다.

十日。癸亥。陽。到長城河晚李在白宅，留宿。

1913년 9월 11일. 갑자. 맑음. 김낙주(金洛柱), 유원효(柳遠敷), 김홍주(金鴻柱)와 함께 놀고, 수성(水城)리에 있는 사위 이방규(李芳奎) 집에 도착했다.

十一日。甲子。陽。與金洛柱·柳遠敷·金鴻柱同遊。到水城女婿李芳奎家。

1913년 9월 12일. 을축. 맑음. 또 하만(河晚)에 도착하여 낙주(洛柱) 댁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왔다.

十二日。乙丑。陽。又到河晚，洛柱宅飲酒以歸。

1913년 9월 13일. 병인. 맑음. 장동(獐洞)에 도착했다. 안양동(安陽 - 養洞)<sup>74</sup> 조승중(曹承鍾) 댁에서 보기를 청하기에 몸소 나아가서 술을 마셨다.

十三日。丙寅。陽。到獐洞。安陽【養】洞曹承鍾宅請見，躬晉飲酒。

1913년 9월 14일. 정묘. 맑음.

十四日。丁卯。陽。

1913년 9월 15일. 무진. 맑음.

十五日。戊辰。陽。

74) 안양동(安陽洞 또는 安養洞) : 현재 전남 담양군 대덕면 장산리(獐山里) 장동(獐洞)마을에 해당된다. 평강채씨가 개척하여 안양동이라 부르다가 1471년 대곡리로 개칭하고 1624년경 구화동으로 불렸으나 마을 뒷산이 노루형상이라 하여 장동이라 칭하여 오늘에 이른다. 장동 윗마을을 '노루밭'이라 하고, 아랫마을을 '안양밭'이라 한다.

1913년 9월 16일. 기사. 흐리고 비. 비를 무릅쓰고 아버지 제사<sup>75</sup>)를 지내러 갔다.

十六日。己巳。陰雨。冒雨作親忌之行。

1913년 9월 17일. 경오. 맑음.

十七日。庚午。陽。

1913년 9월 18일. 신미. 맑음. 장동(獐洞)에 도착했다.

十八日。辛未。陽。到獐洞。

1913년 9월 19일. 임신. 맑음. 유희적(柳羲迪)과 함께 담양 홍암리(紅岩里)<sup>76</sup>)에 도착해 산수를 감상했다. 저물녘에 신평(新坪)<sup>77</sup>)리로 돌아가 새터[新基]의 강덕원(姜德元) 집에서 머물러 잤다.

十九日。壬申。陽。與柳羲迪，到潭陽紅岩里，翫山水。暮歸新坪，新基姜德元家留宿。

179

1913년 9월 20일. 계유. 저녁에 비. 집으로 돌아와 잤다.

二十日。癸酉。夕雨。還巢留宿。

75) 아버지 제사 : 양부 김낙현(金洛鉉)은 1894년 9월 17일에 졸하였다.

76) 홍암리(紅岩里) : 현재 전남 담양군 월산면 용암리 홍암마을이다. 마을 뒤에 있는 바위이름을 따 적암(赤岩)이라고도 하였다. 조선시대 후기 홍암(紅岩)으로 바뀌었으며 고종 32년(1895)에는 담양군 광면에 속해 있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광면 능동과 남계마을을 합쳐 월산면 용암리 홍암마을이 되었다.

77) 신평(新坪) : 현재 전남 담양군 월산면 월평리 신평마을이다. 1580여년경에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마을이 산아래 형성되어 당시 묘소 곁에서 산막을 짓고 시묘살이 하는 사람이 많아 산막실(山幕實)로 불리웠다. 조선말엽 아랫마을이 분리되어 월평리로 되었으며 행정구역 개편시 월평리 신평(新坪)마을이 되었다.

1913년 9월 21일. 갑술. 맑음. 장동(獐洞)으로 돌아왔다.

二十一日。甲戌。陽。還獐洞。

1913년 9월 22일. 을해. 맑음.

二十二日。乙亥。陽。

1913년 9월 23일. 병자. 흐리고 비.

二十三日。丙子。陰雨。

1913년 9월 24일. 정축. 맑음.

二十四日。丁丑。陽。

1913년 9월 25일. 무인. 맑음.

二十五日。戊寅。陽。

1913년 9월 26일. 기묘. 맑음.

二十六日。己卯。陽。

1913년 9월 27일. 경진. 맑음.

二十七日。庚辰。陽。

1913년 9월 28일. 맑음. 신사.

二十八日。陽。辛巳。

1913년 9월 29일. 임오. 맑음.

二十九日。壬午。陽。

1913년 10월 1일. 계미. 맑음.

十月。初一日。癸未。陽。

1913년 10월 2일. 갑신. 맑음. 영광(靈光) 외서면(外西面) 수해리(水海里)<sup>78</sup>에 사는 생원(生員) 송한중(宋漢宗) -자는 해사(海士), 호는 지재(止齋) - 이 와서 면양정(俛仰亭)<sup>79</sup> 원운(元韻)시를 외우기에 삼가 차운(次韻)하였다.

二日。甲申。陽。靈岩外西面水海里，宋生員漢宗，字海士，號止齋，來誦俛仰亭元韻，謹次。

아래는 땅 있고 위에는 하늘 있어,	下有地上有天
굽어보고 우러르니 호연한 기운 일어나네.	俛與仰氣浩然
정자로 이름 삼고 산천을 즐기노니,	名以亭樂山川
마음에 부끄럼 없이 백년을 전하리.	無愧心百年傳

181

<면양정 원운시>

굽어보면 땅이요, 우러르니 하늘이라,	俛有地仰有天
그 가운데 정자 있어 호연한 흥취 일어나네.	亭其中興浩然
풍월은 불러두고 산천은 끌어두며,	招風月揖山川
청려장 부여잡고 백년을 보내리라.	扶藜杖送百年

78) 수해리(水海里) : 영광 외서면에 화해리(禾海里)가 있었는데 수해리와 혼용해서 썼던 것 같다. 현재는 장성군 삼서면 수해리이다.

79) 면양정(俛仰亭) : 전남 담양군 봉산면 제월리에 위치한 정자이다. 문신 송순(宋純, 1493~1582)이 만년에 벼슬을 떠나 후학들을 가르치며 한가롭게 여생을 지냈던 곳이다. 송순은 41세가 되던 1533년(중종 28)에 잠시 벼슬을 버리고 고향인 이곳으로 내려와 이 정자를 짓고 <면양정삼언가(俛仰亭三言歌)>를 지어 정자 이름과 자신의 호로 삼았다 한다. 그러나 그 정자는 1597년 임진왜란으로 파괴되고 지금의 정자는 후손들이 1654년(효종 5)에 중건한 것이다.

<지재가 방계 선조인 면양정 시에 삼가 치운함> 止齋敬次旁先祖俛仰亭韻

구부러 땅을 밟고 우리러 하늘을 이고, 俛履地仰戴天  
 부끄럼 없으니 호연한 기운 일어나네. 無愧作氣浩然  
 풍월의 주인되어 산천을 뒀으니, 主風月乘山川  
 선생의 정자는 천백 년 누리리라. 先生亭千百年

<영대시(靈垓詩)> 靈垓詩

상제가 떴떳한 천성 내리니<sup>80)</sup> 아름다운 덕<sup>81)</sup> 좋아라. 帝降彝衷好懿德  
 허령불매<sup>82)</sup>할 때가 바로 영대<sup>83)</sup>모습이라네. 虛靈不昧時靈垓  
 상서로운 구름과 해처럼 화기가 생겨나고, 祥雲瑞日生和氣  
 맑게 고인 연못처럼 티끌을 씻어냈네. 止水方塘洗點埃

영대의 한 조각도 단청(丹青)하지 말지니, 靈垓一片莫丹青  
 성성(惺惺)<sup>84)</sup>하게 깨어있을 때 해와 별처럼 빛난다네. 惺惺喚時炳日星  
 참여하여 삼재(三才)가 됨을 이곳에서 알았으니, 參得三才知在此  
 그렇지 않다면 본래 신령하다고 누가 말하리. 不然孰曰本然靈

한 조각 영대가 곧 태허(太虛)<sup>85)</sup>라, 一片靈垓即太虛

- 80) 상제가 …… 내리니 : 《서경(書經)》 <탕고(湯誥)〉의 “위대하신 상제께서 백성들에게 선한 마음을 내려주셨네[惟皇上帝降衷于下民]”에서 나온 말이다.
- 81) 아름다운 덕 : 《시경》 <증민(蒸民)〉에 “사람이 떴떳한 본성을 가진지라, 이 아름다운 덕을 좋아하도다.[民之秉彝, 好是懿德]”라는 내용이 있다.
- 82) 허령불매(虛靈不昧) : 신령하여 어둡지 않음. 《대학장구》에서는 명덕(明德)을 해석하기를, ‘허령불매(虛靈不昧)한 것으로서 중리(衆理)가 갖추어져 만사(萬事)에 응한다.’고 하였다.
- 83) 영대(靈臺) : 신령스러운 곳으로 마음을 뜻함. 《장자(莊子)》 <경상초(庚桑楚)〉에 “영대란 지키는 것이 있지만 무엇을 지키는지 알 수 없는지라 억지로 지킬 수 없다.[靈臺者, 有持而不知其所持, 而不可持者也.]”라는 구절이 나온다. 한편 주희(朱熹)가 경(敬)과 관련된 옛날의 격언들을 모아서 자신을 경계하는 뜻으로 지은 <경재잠(敬齋箴)〉이라는 글의 마지막에 “아, 공부하는 이들이여! 항상 염두에 두고서 공경하는 자세를 지닐지이다. 이에 목경에게 경계하는 글을 쓰게 하면서, 감히 영대에 고하는 바이다.[於乎小子, 念哉敬哉. 墨卿司戒, 敢告靈臺.]”라는 말이 나온다.
- 84) 성성(惺惺) : 마음이 깨어 있게 한다는 뜻이다. 원래 ‘성성하면서도 적적하고 적적하면서도 성성해야 한다.[惺惺寂寂, 寂寂惺惺]’라는 불교 선종(禪宗)의 용어에서 나온 것인데, 송유(宋儒) 사양좌(謝良佐)가 ‘경은 항상 깨어 있게 하는 방법이다.[敬是常惺惺法]’라고 말한 뒤로부터 유가(儒家)에서 경(敬)을 해석하는 하나의 용어가 되었다.

태허는 자취 없어도 스스로 있는 것이네.  
별이 되고 비가 되어 때에 따라 응하니,  
태허를 다시 보아도 또한 절로 그러하네.

太虛無迹自攸居  
或星或雨隨時應  
更看太虛亦自如

영대의 본체는 맑은 거울과 같아서,  
문질러서 때를 벗어나 처음을 회복할 수 있네.  
분수 밖의 다반사를 말하지 말라,  
한 점 뜬구름이 태허를 지나가는 것과 같네.

靈垓本體是明鏡  
磨得垢塵乃復初  
莫言分外多般事  
一點浮雲過太虛

영대가 어둡지 않아야 신묘함이 있으니,  
움직임을 살피는 공부도 정양이 우선이네.  
양춘의 원기는 땅에서 생겨나고,  
제월의 정신은 하늘에서 쇠락하네.

靈垓不昧有其妙  
動察工夫靜養先  
陽春元氣發生地  
霽月精神洒落天

감히 영대를 영대 위의 주옹에게 고하노니,  
천군이 진실로 귀하지만 귀함은 다르다네.  
항상 경외심을 지녀 가볍고 소홀히 말지니,  
만화의 경륜이 이 속에서 오묘해지네.

敢告靈垓垓上翁  
天君良貴貴無同  
常存敬畏罔輕易  
萬化經綸妙此中

영명한 한 점이 신명하게 통했으니,  
상제(上帝)가 임하여 주옹(主翁)<sup>85</sup>에게 묻네.  
주옹이 답하기를 자신이 일찍이 소유한 것이라,  
‘경성(敬誠)’ 두 글자가 마음의 주인이라네.

靈光一點神明通  
上帝臨之問主翁  
翁曰自家曾所有  
敬誠二字主於中

저 하늘은 본래 하나인 이 마음의 하늘이라,  
마음의 하늘을 깨닫게 되면 저 하늘을 알게 되네.

彼天本一此心天  
悟得心天知彼天

85) 태허(太虛) : 고대 철학의 개념 용어이다. 우주 만물의 원시적 형태로서 기(氣)의 본체(本體)인 태극(太極)을 가리킨다.

86) 주옹(主翁) : 주인옹(主人翁). 몸의 주인인 마음을 의인화한 것이다. 당(唐)나라 때 서암(瑞巖)이란 승려가 매일 스스로 자문자답(自問自答)하기를, “주인옹야 깨어 있느냐?” “깨어 있노라.”라고 하였다 한다. 《심경》은 마음이 외물(外物)에 이끌리지 않도록 시시각각(時時刻刻) 일깨우는 지경(持敬) 공부의 한 방법이다.

하늘이란 자연의 이치일 뿐이니,  
영대가 섬기는 것이 본연의 하늘이라네.

天者自然之理已  
靈坵事之本然天

만고의 당당한 호걸의 선비는,  
일생동안 성성(惺惺)한 주인옹(主人翁)이라.  
펼치면 천지 층만하고 거두면 은밀하니,  
미발도 중이요 이발도 중이라네.

萬古當當豪傑士  
一生惺惺主人翁  
放之六合卷之密  
未發其中已發中

요순은 종조(宗祖)이고 기술한 공자는 아버지이니,  
대도의 연원은 상제가 내려주신 선한 마음이네.  
공부는 유정 유일한 것에서부터 있고,  
사업은 다른 것 없이 효와 충이라네.

宗堯祖舜述尼父  
大道淵源帝降衷  
工夫有自惟精一  
事業無他曰孝忠

<지재원운(止齋原韻)>

止齋原韻

네게 임한 이 누구인가, 상제가 임하셨으니,<sup>87)</sup>  
용모를 엄숙히 하고 관대를 가지런히 하네.  
조그마한 돌들이 많이 모여야 큰 산이 되고,  
근원있는 샘을 얻어야 깊은 바다에 이르게 되네.  
천기(天機)가 움직이는 곳에 중화(中和)의 기운이 있고,  
물욕이 없어질 때 활발(活潑)<sup>88)</sup>한 마음이 되네.  
사람치고 그쳐야 할 비를 알지 못할까.  
물고기는 못에서 살고 새는 숲에서 사네.

臨汝其誰上帝臨  
肅然容色整冠襟  
多因拳石爲山大  
方得源泉達海深  
天機動處中和氣  
物慾消時活潑心  
於人可不知攸止  
魚居于淵鳥居林

1913년 10월 3일. 을유. 맑음.

三日。乙酉。陽。

87) 상제가 임하셨으니 : 《시경》 <대명(大明)>에 “상제께서 그대에게 임하셨으니 그대의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上帝臨汝，毋貳爾心]”라는 내용이 있다.

88) 활발(活潑) : 《중용장구》 제12장에서 “솔개가 날아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가 연못에서 뛰는 다.[鳶飛戾天，魚躍于淵]”라는 《시경》의 시를 인용한 것에 대해, 정호(程顥)가 “자사가 긴요하게 사람을 위한 곳으로 매우 생동감이 있다.[子思喫緊爲人處，活潑潑地]”라고 하였다.



1913년 10월 4일. 병술. 맑음. 소산(小山) 박영철(朴榮哲) -지는 명헌(明憲)이고, 호는 죽서(竹西)이다- 이 조대시(釣臺詩)를 읊었는데, 조대는 곧 옥과 담녕(淡寧)<sup>89)</sup>의 대(臺)이다.

四日。丙戌。陽。小山朴榮哲，字明憲，號竹西，咏釣臺詩。釣臺者，卽玉果淡寧之臺也。

계석(溪石) 중간에 이 대(臺)가 있어,	溪石中間有此臺
하늘이 아끼고 땅이 보호하여 별승지 열렸구나.	天慳地護別區開
초록색 도롱이 둥근 샷갸에 <sup>90)</sup> 찬 강의 눈이요,	綠簑團笠寒江雪
푸른 물가 밝은 모래에 절벽의 이끼로다.	碧水明沙斷岸苔
초택(楚澤)의 옛 노래 부르던 어부는 떠나가고, <sup>91)</sup>	楚澤古歌漁子去
한나라 때 청절이 <sup>92)</sup> 친구되어 찾아오네.	漢時清節故人來
무후사 건물이 용강(龍崗) 위에 있으니,	武侯祠屋龍崗上
마침 이 노인이 자적할 곳을 얻었구나.	取適斯翁得所哉

1913년 10월 5일. 정해. 맑음.

五日。丁亥。陽。

1913년 10월 6일. 무자. 맑음. 집으로 돌아왔다. 용호(龍湖) 참봉(參奉) 이 방문했다는 말을 듣고, 특별히 시 1편을 지었다.

89) 담녕(淡寧) : 옥과에 사는 제갈하백(諸葛夏帛, 1855~1918)의 호가 담녕이다.  
 90) 초록색 …… 샷갸에 : 당나라 장지화(張志和)의 <어부사(漁父詞)>에 “푸른 샷갸 쓰고 초록색 도롱이 걸쳤으니, 비긴 바람 가랑비에 굳이 돌아갈 것 없네.[青翳笠綠蓑衣，斜風細雨不須歸]”라는 명구가 있다.  
 91) 초택(楚澤)의 …… 떠나고 : 초(楚) 나라 굴원(屈原)이 쫓겨난 뒤 초택(楚澤)에서 <어부사>를 지었다.  
 92) 한나라 때 청절이 : 후한(後漢) 때 사람인 엄광(嚴光)의 청절(清節)을 말한다. 자는 자릉(子陵)이다. 광무제(光武帝)와 어릴 때 같이 공부한 친구로, 광무제가 왕위에 오른 뒤 찾아 맞이하여 간의대부(諫議大夫)를 맡겼으나 사양하고 동려현(桐廬縣) 남쪽 칠리탄(七里灘)에서 낚시를 즐기며 일생을 마쳤다.

六日。戊子。陽。歸巢。聞龍湖參奉訪問，特題一律。

용호거사는 본래부터 광명하여, 진중하고 청진한 것으로 크게 이름을 떨쳤네. 일에 임하고 근원을 만나 몇 번이고 반드시 살피고, 인의(仁義)에 의거하니 움직임이 어찌 가볍겠는가. 시요를 겪으면서도 함께 지조를 지켰으며, 일본 병사에게 당하면서도 사생을 함께 했네. 남북에서 서로 잊고 지나다 제봉(題鳳)하고 떠나니, <sup>93)</sup> 어느덧 슬퍼져서 여향(餘香)을 아쉬워하네.	龍湖居士本光明 珍重清真大有名 臨事逢源幾必察 處仁據義動何輕 經過時擾同持守 冒被日兵共死生 南北相忘題鳳去 居然惆悵惜餘香
---	--

1913년 10월 7일. 기축. 맑음. 장동으로 돌아왔다. 저녁에 비가 흔적만 남겼다.

七日。己丑。陽。還章洞。夕雨痕。

1913년 10월 8일. 경인. 흐림. 정오에 비의 흔적이 있었다.

八日。庚寅。陰。午雨痕。

1913년 10월 9일. 신묘. 반쯤 흐리고 반쯤 맑음. 저녁에 바람이 불었다.

九日。辛卯。半陰半陽。夕風。

1913년 10월 10일. 임진. 맑음.

十日。壬辰。陽。

93) 제봉(題鳳)하고 떠나니 : 벼를 방문하였다 만나지 못하고 돌아옴을 뜻한다. 진(晉)의 여안(呂安)이 친구 혜강(嵇康)을 찾아가니 때마침 혜강은 없고 그의 형 혜희(嵇喜)가 나와 맞이하였다. 여안은 안에 들어가지도 않은 채 ‘봉(鳳)’자를 문에 써 붙이고 선걸음에 떠났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鳳’을 파자(破字)하면 ‘범조(凡鳥)’로 평범한 새라는 의미가 된다.

1913년 10월 11일. 계사. 맑음.

十一日。癸巳。陽。

1913년 10월 12일. 갑오. 맑다가 흐림.

十二日。甲午。陽而陰。

1913년 10월 13일. 을미. 반짚 흐리고 반짚 맑음. 신촌에 사는 족숙(族叔) 성현(盛鉉)씨가 왔는데, 호가 석계(石溪)라고 한다.

十三日。乙未。半陰半陽。新村族叔盛鉉氏來，號石溪云爾。

1913년 10월 14일. 병신. 맑음.

十四日。丙申。陽。

1913년 10월 15일. 정유. 맑음.

十五日。丁酉。陽。

1913년 10월 16일. 무술. 흐림. 비 오고 바람이 불었다.

十六日。戊戌。陰。雨而風。

1913년 10월 17일. 기해. 맑음.

十七日。己亥。陽。

1913년 10월 18일. 경자. 맑음.

十八日。庚子。陽。

1913년 10월 19일. 신축. 맑음.

十九日。辛丑。陽。

1913년 10월 20일. 임인. 맑음.

二十日。壬寅。陽。

1913년 10월 21일. 계묘. 맑음. 책상 위에 미암선생이 노닐던 곳인 연계정(漣溪亭)<sup>94)</sup>의 시가 있는 것을 보고 삼가 차운하다.

二十一日。癸卯。陽。見案上眉岩先生杖履之所漣溪亭韻，謹次。

<연계정 시>

정자가 방당<sup>95)</sup>과 마주해 작은 모래톱 끌어오니,  
 상류는 활발하고 하류는 유장히 흐르네.  
 물고기 뛰고 솔개 나는 것<sup>96)</sup> 곳마다 볼 수 있으니,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 이 가운데 떠있네.  
 선생께서 아셨던 당년의 즐거움을,  
 후학은 정밀치 못해 이날에 근심하네.  
 찾아온 사람 누가 알까 연원의 원대함을,  
 만고토록 우뚝하여 한 언덕에 푸르리.

漣溪亭韻

亭對方塘引小洲  
 上流活動下長流  
 魚躍鳶飛隨處見  
 天光雲影這中浮  
 先生料得當年樂  
 後學未精是日愁  
 來人誰識淵源大  
 萬古兀然青一邱

94) 연계정(漣溪亭) : 전남 담양군 대덕면 장산리에 소재해 있는 정자로, 미암(眉巖) 유희춘(柳希春, 1513~1577)이 세웠다고 하지만 곧 없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정자는 1910년대에 중건한 것이다. 기우만(奇宇萬 1846~1916)의 기문이 있다.

95) 방당(方塘) : 주자의 시 <관서유감(觀書有感)>에 “반묘의 네모난 연못 한 거울처럼 열렸는데,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가 함께 배회하네. 묻노니 저 어찌 이렇듯이 맑은가? 근원에 활수가 있기 때문이라네.[半畝方塘一鑑開，天光雲影共徘徊。問渠那得清如許，爲有源頭活水來.]”라는 내용이 있다.

96) 물고기 …… 것 : <시경> <대야(大雅)·한록(旱麓)>에 “솔개는 날아서 하늘에 다다르고, 고기는 연못에서 뛰어오르네.[鳶飛戾天，魚躍于淵]”라는 말이 있는데 <중용장구> 제12장에서 이 시를 인용하여 군자의 도가 상하(上下)로 드러난 것으로 설명하였다.

1913년 10월 22일. 갑진. 맑음.

二十二日。甲辰。陽。

1913년 10월 23일. 을사. 반은 흐리고 반은 맑음.

二十三日。乙巳。半陰半陽。

1913년 10월 24일. 병오. 맑음. 집으로 돌아왔다.

二十四日。丙午。陽。歸家。

1913년 10월 25일. 정미. 맑음. 시사(時祀, 시제)에 참여하고, 장동(章洞)<sup>97</sup>으로 돌아왔다.

二十五日。丁未。陽。參時祀，還章洞。

1913년 10월 26일. 무신. 맑음.

二十六日。戊申。陽。

1913년 10월 27일. 기유. 맑음.

二十七日。己酉。陽。

1913년 10월 28일. 경술. 맑음.

二十八日。庚戌。陽。

1913년 10월 29일.辛亥. 흐리다 비.

97) 장동(章洞) : 전남 담양군 대덕면 '장동(鐘洞)'을 말한다. 《서암일기》에서는 '鐘'과 '章'을 통용해서 썼다.

二十九日。辛亥。陰雨。

1913년 10월 30일. 임자. 새벽에 일어났는데, 어린아이가 독서하고 있기에 지재(止齋)의 <영대(靈臺)>시에 차운하였다.

三十日。壬子。曉頭起，小兒讀書，廣止齋靈臺詩。

영대 한 조각을 어떻게 형상할까.	靈臺一片何許象
밝게 아는 곳이 바로 확연한 하늘일세.	昭然知處廓然天
분명하게 상제가 임한 곳이니,	分明上帝之臨地
두 마음 품지 말고 근독 <sup>98</sup> )을 우선해야 하네.	無或貳心謹獨先

방촌 <sup>99</sup> ) 가운데가 곧 영대이니,	方寸之中即是臺
성성(惺惺)한 주인翁을 잘 간직하라.	護來惺惺主人翁
주인翁이 항상 강림한 상제를 대한다면,	主人翁對常臨帝
이곳이 허명(虛明)하여 신령해지리라.	這處虛明得以靈

영대는 형체와 소리로 증험하기 어렵나니,	靈臺難以形聲驗
다만 광풍제월 <sup>100</sup> )의 하늘을 볼지어다.	第見光風霽月天
음양의 변화가 무궁한 하늘이,	陰陽變化無窮天
때때로 본연의 하늘을 드러내도다. <sup>101)</sup>	有時呈露本然天

98) 근독(謹獨) : 신독(慎獨). 《중용장구》에 보이는 구절로, 홀로 있을 때나 남은 모르고 나만 아는 마음속의 생각 을 모두 신중히 조심한다는 뜻이다.

99) 방촌 : 심장이 가슴의 사방 1치 되는 곳에 있어서 생긴 말로, 마음을 뜻한다.

100) 광풍제월(光風霽月) : 광풍제월은 비가 온 뒤의 맑은 바람과 맑은 달을 이룬 말로, 황정견(黃庭堅)이 《산곡집(山谷集)》에서 주돈이(周敦頤)를 두고 “속이 시원스러워 비가 갠 뒤의 화창한 바람이나 맑은 달과 같다.[胸中灑落，如光風霽月]”고 한 데서 나온 것이다.

101) 음양의 …… 드러내도다 : 마음을 하늘에 비유하여 한 말로, 음양의 작용으로 해와 구름, 비와 눈 등 온갖 날씨가 변화하는 하늘이 가끔 구름 한 점 없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마음이 평소 늘 혼란스러운 칠정에 사로잡혀 있다가도 가끔 욕망이 사라진 본연지성을 드러내는 때가 있다는 말이다.

영대는 본래 광명한 물건이라,  
 잠시라도 이 참됨을 해쳐서는 안 되네.  
 기질에 구애되고 욕심에 가리우면,  
 해로움이 거울에 먼지 낀 것과 같다네.

靈臺本是光明物  
 須臾不可累是真  
 拘於氣質蔽於慾  
 害如鏡面受其塵

성찰한 나머지 존양이 익숙해지면,  
 빛나는 밝은 명이 처음과 같이 된다네.  
 영대는 과연 마음속의 거울이라,  
 허령불매하면 영대 또한 텅 빈다네.

省察之餘存養熟  
 赫然明命乃如初  
 靈臺果是心中鏡  
 不昧虛靈靈又虛

허령하고 어둡지 않은 영대 위에서,  
 모든 이치 분명하여 대업이 생겨난다.  
 천덕에 도달하는 것은 아래 사람들의 일이니,  
 유의 범주가 어지럽지 않으면 저절로 분명하다네.

虛靈不昧靈臺上  
 衆理昭然大業生  
 達乎天德下人事  
 類疇不亂自分明

생민이 상천의 명을 받으니,  
 잇는 것이 선이고, 이루는 것이 성이라.  
 성명(誠明)<sup>102</sup>이 쉬지 않은 영대 위에서,  
 경과 의를 함께 가져야 곧 정밀해진다네.

生民稟受上天命  
 繼之者善性之成  
 誠明不息靈臺上  
 敬義夾持乃得精

1913년 11월 1일. 계축. 맑음.

十一月。一日。癸丑。陽。

1913년 11월 2일. 갑인. 맑음.

二日。甲寅。陽。

102) 성명(誠明) : 《중용장구》 제21장에 “성(誠)으로 말미암아 밝아지는 것을 성(性)이라 하고 명(明)으로 말미암아 성(誠)해지는 것을 교(教)라 이르니, 성(誠)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성(誠)해진다.[自誠明 謂之性, 自明誠, 謂之教, 誠則明矣, 明則誠矣.]”라고 한 대목을 가리킨다.

1913년 11월 3일. 을묘. 맑음.

三日。乙卯。陽。

1913년 11월 4일. 병진. 맑음.

四日。丙辰。陽。

1913년 11월 5일. 정사. 흐림. 밤에 조금 비가 내렸다.

五日。丁巳。陰。夜小雨。

1913년 11월 6일. 무오. 흐림. 새벽에 눈이 내렸다.

六日。戊午。陰。曉頭雪。

1913년 11월 7일. 기미. 맑음.

七日。己未。陽。

1913년 11월 8일. 경신. 맑음.

八日。庚申。陽。

1913년 11월 9일. 신유. 맑음.

九日。辛酉。陽。

1913년 11월 10일. 임술. 맑음. 계암과 산을 유람했다. 운암에서부터 만  
화동까지 석문이 겹겹해 있었다. 지경에 들어가니 드넓게 판국이 열려  
있고 산봉우리가 수려하여 선경을 방불케 했다.

十日。壬戌。陽。與癸岩遊山。自雲岩，及萬花洞，石門重重。入境，



豁然開局，峰巒秀麗，彷彿仙境。

1913년 11월 11일. 계해. 맑음.

十一日。癸亥。陽。

1913년 11월 12일. 갑자. 맑음.

十二日。甲子。陽。

1913년 11월 13일. 을축. 맑음.

十三日。乙丑。陽。

1913년 11월 14일. 병인. 흐리고 비움.

十四日。丙寅。陰雨。

193

1913년 11월 15일. 정묘. 맑. 또 영대시를 지었다.

十五日。丁卯。晴。又題靈臺詩。

영대가 만약 물욕에 가려지 않았다면,  
움직일 때 곧고 고요할 때 텅 비어 저절로 관통하네.  
하늘의 밝은 명을 여기에서 볼 수 있으니,  
만화의 경륜도 이 가운데에서 묘하다네.

靈臺若不蔽於物  
動直靜虛自貫通  
天之明命於斯見  
萬化經綸妙此中

만사가 밝게 드러난 것 이보다 더함이 없으니,  
못 사람들 보지 못해도 나 홀로 안 다네.  
고요할 때 보존하고 움직일 때 살피는 것이 성의 이치이니,  
신령한 거북<sup>103)</sup>을 보베로 여기듯 경으로서 잡아아하네.

萬事著明無過此  
衆人不見獨吾知  
靜存動察誠之理  
若寶靈龜敬以持

103) 신령한 거북 : 짐치는 데 쓰는 큰 거북을 말한다.

삼강오륜의 가르침은 연원이 깊으니,  
천고의 경전도 여기에서 유래했네.  
천지가 제 자리에서 만물을 화육하니,  
이 속에서 중화의 때를 보아야 하네.

三綱五教淵源大  
千古經傳以是來  
天地位焉萬物育  
要看這裏中和時

1913년 11월 16일. 무진. 맑음.

十六日。戊辰。陽。

1913년 11월 17일. 기사. 맑음.

十七日。己巳。陽。

1913년 11월 18일. 경오. 맑음. 저녁에 비가 내렸다.

十八日。庚午。陽。夕雨。

1913년 11월 19일. 신미. 흐림. 눈비가 내렸다.

十九日。辛未。陰。雨雪。

1913년 11월 20일. 흐리고 눈.

二十日。壬申。陰雪。

1913년 11월 21일. 계유. 맑.

二十一日。癸酉。晴。

<삼가 지재의 원운에 차운하다>

그칠 곳을 아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니,  
의용은 정숙하고 옷깃 또한 단정해야 한다네.

謹次止齋元韻

知其所止至難臨  
當肅儀容且整襟

힘써서 성공해야 극을 쓸 수 있고,	力及成功能用極
이치가 주역에 통달해야 깊어진다네.	理通大易可鉤深
기질의 성을 누르고 천성을 따르며,	忍乎質性循天性
인심을 살펴서 도심을 확충해가네.	察得人心擴道心
지재라 편액하고 학문의 목적으로 삼아,	肆以扁齋爲學的
후학을 열어주고 풍교를 세우니 산림이 진동하네.	開來風教動山林

집에 돌아왔다.

歸巢。

1913년 11월 22일. 갑술. 맑음.

二十二日。甲戌。陽。

1913년 11월 23일. 기해. 반은 맑고 반은 흐림. 장동에 돌아왔다.

二十三日。己亥。半陽半陰。還獐洞。

1913년 11월 24일. 병자. 맑음.

二十四日。丙子。陽。

1913년 11월 25일. 정축. 맑음. 오늘은 동지(冬至)이다. 밤에 눈이 내렸다.

二十五日。丁丑。陽。是日冬至也。夜雪。

1913년 11월 26일. 무인. 맑음.

二十六日。戊寅。陽。

1913년 11월 27일. 기묘. 흐림.

二十七日。己卯。陰。

1913년 11월 28일. 경진. 반은 흐리고 반은 맑음.  
二十八日。庚辰。半陰陽。

1913년 11월 29일. 신사. 반쯤 흐리고 반쯤 맑음  
二十九日。辛巳。半陰陽。

1913년 12월 1일. 임오. 흐림.  
十二月。初一日。壬午。陰。

1913년 12월 2일. 계미. 맑음.  
二日。癸未。陽。

1913년 12월 3일. 갑신. 맑음.  
三日。甲申。陽。

1913년 12월 4일. 을유. 흐림. 밤에 눈이 내렸다.  
四日。乙酉。陰。夜雪。

1913년 12월 5일. 병술. 흐리고 눈이 왔다.  
五日。丙戌。陰雪。

1913년 12월 6일. 정해. 흐림.  
六日。丁亥。陰。

1913년 12월 7일. 무자. 맑다가 흐리고 흐리다가 눈이 왔다. 눈이 오다

가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다가 추워졌다. 추워지다가 눈이 오더니 밤에 큰 눈이 내렸다.

七日。戊子。陽而陰，陰而雪。雪而風，風而寒。寒而雪，夜大雪。

1913년 12월 8일. 기축. 맑음.

八日。己丑。陽。

1913년 12월 9일. 경인. 맑음.

九日。庚寅。陽。

1913년 12월 10일. 신묘. 맑음.

十日。辛卯。陽。

1913년 12월 11일. 임진. 흐리다가 눈이 왔다.

十一日。壬辰。陰而雪。

1913년 12월 12일. 계사. 흐림. 바람이 불고 큰 눈이 왔다.

十二日。癸巳。陰。風大雪。

1913년 12월 13일. 갑오. 맑음.

十三日。甲午。陽。

1913년 12월 14일. 을미. 맑음.

十四日。乙未。陽。

1913년 12월 15일. 병신. 맑음.

十五日。丙申。陽。

1913년 12월 16일. 정유. 맑음.

十六日。丁酉。陽。

1913년 12월 17일. 무술. 맑음.

十七日。戊戌。陽。

1913년 12월 18일. 기해. 흐리고 비.

十八日。己亥。陰雨。

1913년 12월 19일. 경자. 흐리고 비. 크게 바람 불고 눈이 내렸다.

十九日。庚子。陰雨大風雪。

1913년 12월 20일. 신축. 맑음. 족숙 철현(轍鉉)의 딸 결혼식에 갔다.

二十日。辛丑。晴。赴族叔轍鉉女婚宴。

1913년 12월 21일. 임인. 맑음.

二十一日。壬寅。陽。

1913년 12월 22일. 계묘. 맑음. 밤에 눈비가 내렸다.

二十二日。癸卯。陽。夜雨雪。

1913년 12월 23일. 갑진. 맑음.

二十三日。甲辰。陽。

1913년 12월 24일. 을사. 흐림. 석헌(石軒)<sup>104</sup>의 비문을 봉심했다.

二十四日。乙巳。陰。奉審石軒碑。

### <석헌 유선생 신도비>

증 자헌대부 이조판서 겸 지경연 의금부사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춘추관 성균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 행 통훈대부 홍문관 전한 지제교 겸 경연시강관 춘추관 편수관 정간공(靖簡公) 석헌(石軒) 유선생(柳先生) 신도비명(神道碑銘) 병서(并序).

순창의 서쪽 20리에 있는 강천산(剛泉山)<sup>105</sup>의 남쪽에 이른바 ‘삼인대(三印臺)’라는 것이 있는데, 곧 참판인 석헌 유옥(柳沃)공과 충암(沖菴) 문간공(文簡公) 김정(金淨) 및 눌재(訥齋) 문간공(文簡公) 박상(朴祥)이 인끈을 걸어놓고 상소문을 봉한 곳이다. 지금까지 수백 년에 이르도록 지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법식으로 삼았다.

정종이 기미년(1799)에 박공에게 사제문(賜祭文)을 내렸는데 이르길, “경이 담양(潭陽) 고을을 맡아, 같은 덕을 가진 이와 이웃이 되었네. 삼인대(三印臺)야말로 만고에 닳아지지 않으리라.”라고 했다. 이에 앞서 군의 인사들이 삼인대 아래에 비석을 세우고, 도암(陶菴) 이재(李緯) 선생이 이에 명(銘)을 썼는데 이르길, “삼선생의 기풍은 늙름하여 영원하리.”라고 하였고, 또 “선생의 의론은 비록 한때는 좌절되었다 할지라도 마침내 백 년

104) 석헌(石軒) : 유옥(柳沃, 1487~1519)의 호이다. 자는 계언(啓彦), 본관은 문화(文化)로, 유인흡(柳仁治)의 손자이다. 그 아버지가 영암의 월출산(月出山)에 기도한 후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문장에 뛰어나 신동으로 불렸다. 1507년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 1509년 홍문관수찬을 거쳐 이듬해 무안현감이 되었다. 이때 담양부사 박상(朴祥), 순창군수 김정(金淨) 등과 연명으로 단경왕후(端敬王后, 중종비) 신씨(慎氏)의 복위를 청하고, 아울러 신씨를 폐위시킨 훈신(勳臣)들의 죄를 규탄하는 소를 올렸다.

105) 강천산(剛泉山) : 전북 순창군 팔덕면에 있는 산으로, 높이 584m이며, ‘호남의 소금강’이라고도 한다. 여기에 강천사와 삼인대가 있다. 삼인대의 비는 1744년 4월에 세운 것으로, 홍여통(洪汝通), 윤행겸(尹行謙), 유춘항(遊春恒) 등 군의 선비들이 발기하여 이재(李緯)가 비문을 짓고, 민우수(閔遇洙)가 비문의 글씨를 썼으며 유척기(兪拓基)가 전서(篆書)를 썼다.

의 뒤에는 퍼지게 되었네.”라고 하였다.

오호라! 성조(聖朝)의 포가(褒嘉)와 선정(先正)의 명송(銘頌)이 이처럼 지극하니, 공이 김정·박상 두 현인과 더불어 이름을 나란히 하고 영원토록 명성이 수립될 것은 백 대를 기다린 후에도 의혹이 없을 것이다.

행장을 살피건대, 공의 자는 계언(啓彦)이고, 본관은 문화(文化)로, 고려의 대승(大承) 차달(車達)<sup>106</sup>이 그 선조이다. 고조부는 부사(府使) 운(云)이고, 증조부는 훈련부사(訓練副使) 면(沔)이며, 조부는 생원(生員) 인흠(仁洽)이다. 부는 훈도(訓導) 문표(文豹)이고, 모는 성주(星州) 현씨(玄氏) 이호(以浩)의 딸이다. 생원공(生員公)은 단종(端宗) 6신(六臣)<sup>107</sup>인 충경공(忠景公) 유성원(柳誠源)과 6촌 형제간이며,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호남(湖南)으로 내려왔다.

공은 성화(成化)<sup>108</sup> 정미년(1487)에 태어나, 15세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21세에 문과에 장원급제했다. 내직(內職)으로는 홍문관(弘文館) 전한(典翰), 응교(應教)를 역임하고, 외직(外職)으로는 무안현감(務安縣監), 중성부사(鍾城府使)를 역임한 것이 그 이력이다. 무안(務安)은 부모님 봉양을 위해 청한 것이고, 중성(鍾城)은 남곤(南袞)<sup>109</sup>을 거슬러서이다.

공이 관직(官籍)이 이름이 오른 것은 실로 중종(中宗) 연간에 있었다. 충암(沖菴)<sup>110</sup>이 일찍이 헌납(獻納)으로써 합계(合啓)<sup>111</sup>를 올려 내수사(內

106) 차달(車達) :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고려 태조 때 군량(軍糧) 수송에 공을 세워 대승(大丞)에 제수되고 삼한공신(三韓功臣)의 호를 받았다고 한다. 한편, 《파평윤씨족보(坡平尹氏族譜)》와 《문화유씨족보(文化柳氏族譜)》에 의하면, 고려 태조 때의 개국 2등 공신 12인 중의 한 사람으로 태조로부터 사명(賜名)을 받아 문화유씨의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107) 단종(端宗) 6신(六臣) : 조선 단종(端宗)이 순위(遜位)하던 날 죽음으로 절개를 지킨 여섯 명의 신하.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이개(李瑩)·하위지(河緯地)·유성원(柳誠源)·유응부(兪應浮) 6신(六臣)을 가리킨다.

108) 성화(成化) : 중국 명나라의 제8대 황제(1464~1487)의 연호이다.

109) 남곤(南袞) : 1519년 심정(沈貞) 등과 함께 기묘사화(己卯士禍)를 일으켜 조광조(趙光祖)·김정 등 신진 사림파를 숙청한 뒤, 좌의정을 거쳐 1523년 영의정이 되었다. 죽은 뒤 문경(文景)이라는 시호(諡號)가 내려졌으나 이후 세력이 커진 사림파의 탄핵을 받아 1558년(명종 13) 관작과 함께 삭탈 당했다. 문장(文章)에 뛰어나고 글씨에도 능했으나, 사화를 일으킨 것이 문제가 되어 후대 사람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저서로는 《유자광전(柳子光傳)》, 《지정집(止亭集)》이 있다.

110) 김정(金淨) : 1514년에 순창군수 재직시 왕의 구언(求言)에 응해 담양부사 박상(朴祥)과 함



需司)의 장리(長利)<sup>112)</sup>를 없애고 기신재(忌辰齋)<sup>113)</sup>를 혁파(革罷)할 것을 청했으나, 윤희를 받지 못하고 수개월이나 미뤄졌다. 이에 성균관 유생들과 육조(六曹)의 관원들이 연달아 소장(疏章)을 올려 대간(臺諫)의 논의에 따를 것을 청하였고, 승정원(承政院) 또한 계(啓)를 올리니, 임금이 말씀하기를 “유옥(柳沃)이 오기를 기다려 시비(是非)를 명백히 가린 다음에 하자.”라고 했다. 공을 임금이 중(重)하게 의지하는 바가 이와 같았다.

**石軒柳先生神道碑。**

贈資憲大夫, 吏曹判書, 兼知經筵, 義禁府事, 弘文館大提學, 藝文館大提學, 春秋館成均館事, 五衛都摠府都摠管, 行通訓大夫, 弘文館典翰, 知製教, 兼經筵侍講官, 春秋館, 編修官, 靖簡公, 石軒柳先生, 神道碑銘, 并序。

淳昌之西二十里, 剛泉南有所謂三印臺, 卽故贈參判石軒柳公沃, 與沖菴金文簡淨, 訥齋朴文簡公祥, 掛印封疏處也。至今數百年, 過者必式。正宗己未賜祭朴公, 有曰, “卿任潭州, 聞德爲隣。三印其殆, 萬古不磷。”先是郡之人士, 立碑殆下, 而陶菴李先生, 實銘之曰, “三先生之風, 凜乎其不死。”又曰, “先生之議, 雖屈於一時, 而終伸於百載之下。”嗚呼! 聖朝之褒嘉, 先正之銘頌, 如此其至, 則公之與金朴兩賢, 齊名永樹風聲者, 可以俟百世而不惑矣。按狀, 公字啓彦, 籍文化, 高麗大承車達, 其鼻祖也。高祖府使法, 曾祖訓練副使沔, 祖生員仁洽。考訓導文豹, 妣星州玄氏以浩女。生員公, 與端宗六臣忠景公誠源爲再從, 丙子禍流落湖南。公生于成化丁

계 중종 때 억울하게 폐출된 왕후 신씨(愼氏)의 복위를 주장하고 아울러 신씨 폐위의 주모자인 박원종(朴元宗) 등을 추죄(追罪)할 것을 상소했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충청도 보은에 유배되었다. 후에 복권되었으나 기묘사화(己卯士禍) 때 사사(賜死)되었다.

- 111) 합계(合啓) : 조선시대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이 서로 연명하여 논죄에 관해 임금에게 글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 112) 내수사(內需司)의 장리(長利) : 내수사(內需司)는 궁중에서 쓰는 쌀·배 및 잡물(雜物) 등과 노비(奴婢)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곳. 장리(長利)는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받을 때 5할의 이식을 가산해서 받는 것. 왕실의 사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내수사(內需司) 장리(長利)가 있었다.
- 113) 기신재(忌辰齋) : 기일(忌日)에 불공을 드려 그 명복을 비는 일. 《지봉유설(芝峯類說)》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일(忌日)이 되면 절에서 재를 열었기 때문에 시속에서는 회일(諱日)을 승제(僧齋)라고 한다. 국가에서도 선왕후(先王后)의 기일이 되면 역시 시속에 따라 승제를 행했는데, 중종(中宗) 병자년(1516)에 이르러 비로소 기신재를 혁파했으나, 기묘명현이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未, 十五中司馬, 二十一魁文科。內則弘文館典翰應教, 外則務安縣監鍾城府使, 其履也。務安則爲養而乞也, 鍾城以忤南袞也。公之通籍, 實在於中廟盛際。冲菴嘗以獻納合啓, 請罷內需司長利革忌辰齋, 而未蒙允, 拖至數月。館儒與六曹連章, 請從拾言, 政院又爲陳啓, 上曰, “待柳沃之來, 明辯是非, 然後爲之。” 公之爲上所倚重如此。

붓과 먹이 얼어서 다 기록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筆凍墨水, 不得盡記而歸。

1913년 12월 25일. 병오. 흐리고 눈.

二十五日。丙午。陰雪。

1913년 12월 26일. 정미. 맑음.

二十六日。丁未。陽。

1913년 12월 27일. 무신. 맑음. 유희적(柳羲迪) 딸 혼례식에 빈객(賓客)이 되었는데, 유리적(柳洙迪)이 “심(心)은 한 가지이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응하여 말하기를, “심(心)에는 통(通)함과 막힘이 있지만 타고난 성(性)은 하나이다. 성(性)은 곧 심(心) 가운데에 갖춰진 이(理)이다. 심(心)이 통하면 이(理)가 통하고, 심이 막히면 이(理)가 막힌다.”라고 했다.

혼례 홀기(笏記)<sup>114</sup>를 찬술하였다.

신랑(新郎)이 말에서 내리고 들어와서 자리에서 기다린다. 찬인(贊引)<sup>115</sup>이 읍양(揖讓)하고 신랑을 인도하여 전안청(奠鴈廳)<sup>116</sup>으로 들

114) 홀기(笏記) : 혼례나 제례 때 의식의 순서를 적은 글이다.

여서 자리에 무릎을 꿇게 한다. 중방(中房, 기럭아비)이 기러기를 바치면, 신랑이 기러기 머리를 왼쪽으로 하고 안는다. 주인(主人) 시자(侍者)가 기러기를 받아 땅에 놓는다. 신랑이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나 동쪽을 향해 선다. 신부(新婦)가 나와서 예석(禮席) 위에 선다. 신랑이 읊하고 신부는 자리에 선다.

관세위(盥洗位)<sup>117</sup>를 행하는데, 신랑이 관세하고 수건에 닦으면 신부가 관세하고 수건에 닦는다. 신부가 재배(再拜)하고 신랑이 답으로 일배(一拜)한다. 신부가 재배하고 신랑이 답으로 일배한다. 신랑신부가 꿇어앉아 근배례(盥盃禮)<sup>118</sup>를 행한다. 술과 안주를 들고 사배례를 행한다. 신랑신부가 일어선다. 신부는 다시 들어가는데 찬인이 읊양하고 인도한다. 신랑은 매 계단마다 서로 읊양하고 방으로 들어간다.

이날 집으로 돌아왔다.

二十七日。戊申。陽。客於柳義迪女婚宴，柳泣迪云，“心同也。”余應之曰，“心有通塞，而天賦性一也。性即心中所具之理。心通則理通，心塞則理塞也。”

203

撰婚禮笏記。新郎下馬入竣于次，贊引揖讓引導新郎，入奠鴈廳就席跪。中房獻鴈，新郎抱鴈左首。主人侍者受置鴈於地。新郎倭伏興，少退東向立。新婦出就禮席上。新郎揖，婦就席。行盥洗位，新郎盥洗執巾，新婦盥洗執巾。新婦再拜，新郎答一拜。新婦再拜，新郎答一拜。新郎新婦跪，行盥盃禮。舉飲舉肴，行沙盃禮。新郎新婦興。新婦

115) 찬인(贊引) : 제향 때에 제사의 진행 절차를 돕고 인도하는 일. 또는 그 일을 맡은 사람을 가리킨다.

116) 전안청(奠鴈廳) : 전안(奠鴈, 혼인을 치를 때 신랑이 신부의 집에 기러기를 가지고 가서 상 위에 놓는 것)하기 위하여 베풀어 놓는 자리. 대개 마당에 차일(遮日)을 치고 병풍을 둘러놓고, 큰 상 위에 술·대·과일·음식 따위를 차려 놓아 꾸민다.

117) 관세위(盥洗位) : 손을 씻고 잔을 씻는 자리를 말한다.

118) 근배례(盥盃禮) : 신랑과 신부가 서로 술잔을 나누어 마시는 의식으로 술을 교환하여 하나가 된다는 의미이다.

復入, 贊引揖讓引導。新郎每階相揖讓入房。是日歸巢。

1913년 12월 28일. 기유. 맑음.

二十八日。己酉。陽。

1913년 12월 29일. 경술. 맑음. 천동(泉洞)<sup>119)</sup>의 산수(山水)를 완상하였다.

二十九日。庚戌。陽。翫泉洞山水。

1913년 12월 30일.辛亥. 맑음.

三十日。辛亥。陽。

---

119) 천동(泉洞) : 현재 담양군 금성면 원천리에 있던 마을 이름이다.



- 자호서암원운(自號棲巖元韻)  
의정천명도(擬定天命圖) - 퇴계선생  
천명도설서(天命圖說序) - 정지운(鄭之雲)  
시목리의 울포 나기홍씨가 편지와 시를 보내왔기에[酬柿木里栗圃羅基弘氏寄書兼贈詩]  
울포의 시[栗圃詩] - 나기홍(羅基弘)  
오륜설(五倫說) - 절곡집(節谷集) 잡저(雜著)  
농암선생(農巖先生)에게 올리는 글 - 절곡집(節谷集)  
연보(年譜) - 하서선생집(河西先生集)  
녹문 임성주(任聖周) 편지에 대한 답장 절곡집(節谷集)  
신암의 회갑 시에 차운하다[次新庵壽韻]  
또 원운시에 차운하다[又次原韻]  
유병하에게 주는 시[贈柳炳夏]  
회포를 펴다[述懷]  
미암선생 오행도(五行圖)  
사단칠정후설(四端七情後說) - 퇴고왕복서(退高往復書)  
사단칠정총론(四端七情總論) - 퇴고왕복서(退高往復書)  
생일(生日)시  
송남과재에 짓다[題宋南坡齋]  
사육어(四六語) - 도부(桃符)  
성균관에서 유생들로 하여금 잡서를 보지 못하도록 청하는 전문을 의작하다[擬成均館請  
令儒生勿觀雜書箋] - 고봉집(高峰集)  
중형수 허씨의 뇌문[誄從兄嫂許氏]



1914년 1월 1일. 임자. 맑음. 성묘를 갔다. 밤에 눈이 내렸다.

甲寅。正月初一日。壬子。陽。行省楸。夜雪。

1914년 1월 2일. 계축. 맑음.

二日。癸丑。陽。

1914년 1월 3일. 갑인. 맑음. 옥과에 성묘를 갔다.

三日。甲寅。陽。作玉果省墓之行。

1914년 1월 4일. 을묘. 흐림. 눈이 흔적만 남겼다.

四日。乙卯。陰。雪痕。

1914년 1월 5일. 병진. 맑음.

五日。丙辰。陽。

1914년 1월 6일. 정사. 맑음. 집에 돌아왔다.

六日。丁巳。陽。還巢。

1914년 1월 7일. 무오. 맑음.

七日。戊午。陽。

1914년 1월 8일. 기미. 맑음.

八日。己未。陽。

1914년 1월 9일. 경신. 맑음. 지난해에 지은 <자호서암원운(自號棲巖元

韻)>시를 기록한다.

九日。庚申。陽。記前年所題自號棲巖元韻。

조용히 학문에 뜻 두고 서암에 은거한 지 오래니,	從容志學久棲巖
문리에만 관심 갖고 경 속에 잠심하네.	文理關心敬裏潛
오동나무 달빛이 대나무 창에 스며들고,	梧月光明通竹牖
솔바람은 소쇄하게 뗏집에 들어오네.	松風瀟灑入茅簷
경전을 담론하다 천진이 좋음을 믿겠고,	談經信得天眞好
근독을 하다 예의 뜻이 겸손임을 징험하네.	謹獨驗來禮意謙
작은 효험 바람을 전하나 잇기 어려우니,	微效冀傳難以繼
복응할 것을 편액하고 다시 되돌아보네.	服膺爲扁更回瞻

1914년 1월 10일. 신유. 맑음.

十日。辛酉。陽。

1914년 1월 11일. 임술. 흐리고 가랑비 음.

十一日。壬戌。陰。微雨。

1914년 1월 12일. 계해. 맑음. 사위 나동주(羅銅柱)가 왔다.

十二日。癸亥。陽。女婿羅銅柱來。

1914년 1월 13일. 갑자. 맑음. 밤에 눈이 왔다. 박노술(朴魯述)<sup>2)</sup>이 소위

1) 작은 …… 바람울 : 주자의 <회암(晦菴)>시에 “오랫동안 자신하지 못하니 바위에 깃들여 작은 효험 바라노라[自信久未能，巖棲冀微效]”란 구절이 있다.

2) 박노술(朴魯述, 1851~1917) : 자는 공선(公善), 호는 석음(石陰), 본관은 순천(順天)이다. 광주 안청리(安淸里)에서 태어났으며, 노사 기정진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이 일으킨 의병활동에 참여하였으며, 1910년 한일 합방 이후 일제가 보내온 소위 은사금칙첩(恩賜金勅帖)을 거절하였다. 문집으로 《석음유고(石陰遺稿)》가 있다.



은사금(恩賜金)이라는 것을 받지 않아서 공초<sup>3)</sup>한 것을 보았는데, 곡진하게 용서를 바라는 그 불쌍한 뜻의 일단에 이르러서는 그가 혼란하여 차서를 잃은 것을 탄식하였다.

十三日。甲子。陽。夜雪。觀朴魯述不受所謂恩賜金拱草，至惟願曲恕其惻怛之意一段，歎其迷亂失次。

1914년 1월 14일. 을축. 흐림. 눈이 내렸다.

十四日。乙丑。陰。雨雪。

1914년 1월 15일. 병인. 흐리고 눈. <환괘(渙卦)><sup>4)</sup>의 육삼효(六三爻)를 얻었는데, “육삼은 자기 몸의 사사로움을 환산함이니 뉘우침이 없다.”라고 하였다. 상(象)에 “자기 몸의 사사로움을 환산함은 뜻이 밖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전(傳)에서는 “뜻이 위에 응하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니, 위와 더불어 서로 응하기 때문에 그 몸이 환산함을 면하여 후회가 없다.”라고 하였다.

十五日。丙寅。陰雪。得渙之六三爻，“六三，渙其躬，無悔。”象曰，“渙其躬志在外也。”傳“志應於上在外也，與上相應，故其身得免於渙，而無悔。”

1914년 1월 15일<sup>5)</sup>. 병인. 눈이 내리다 개고, 개었다가 눈 내리고 흐림.

十五日。丙寅。雪而晴，晴而雪陰。

3) 공초(拱草) : 공초(供草)를 말한 것으로 보임. 공초란 형사 사건에서 죄인을 신문한 내용과 죄인이 진술한 내용을 초록해 놓은 기록문서를 말한다.

4) 환괘(渙卦) : 《주역》 59번째 괘인 풍수환괘(風水渙卦)를 말한다. 환(渙)은 물이 흘러서 흩어진다는 뜻으로, 45번째 괘인 췌(萃)와 반대가 된다.

5) 1914년 1월 15일 : 1월 15일이 두 번 쓰여 있어서 여기에서는 삭제하였다.

1914년 1월 16일. 정묘. 맑음. 장동(章洞)에 이르러 종매(從妹)씨 이근옥(李根沃)의 집에서 잤다. 다음날이 조고(祖考)의 휘신(諱辰, 제사)이라 큰택으로 갔다.

十六日。丁卯。陽。到章洞，宿從妹氏李根沃宅。翌日值祖考諱辰，入大宅。

1914년 1월 17일. 무진. 맑음.

十七日。戊辰。陽。

1914년 1월 18일. 기사. 맑음. 미암선생의 사손(嗣孫) 집에서 계속 머물렀다.

十八日。己巳。陽。留連眉岩先生嗣孫宅。

1914년 1월 19일. 경오. 맑음. 종손 용직(容稷)을 위문했다.

十九日。庚午。陽。慰問宗孫容稷。

1914년 1월 20일. 신미. 맑음.

二十日。辛未。陽。

1914년 1월 21일. 임신. 흐림.

二十一日。壬申。陰。

1914년 1월 22일. 계유. 맑음.

二十二日。癸酉。陽。

1914년 1월 23일. 갑술. 흐림. 가랑비가 왔다.

二十三日。甲戌。陰。微雨。

1914년 1월 24일. 을해. 비가 종일 오고 바람이 불었다.

二十四日。乙亥。雨終日又風。

1914년 1월 25일. 병자. 개었다가 흐림. <퇴고사칠이기왕복서(退高四七理氣往復書)>를 보았다.

二十五日。丙子。晴陰。看<退高四七理氣往復書>。

1914년 1월 26일. 정축. 맑음.

二十六日。丁丑。陽。

1914년 1월 27일. 무인. 맑음.

二十七日。戊寅。陽。

1914년 1월 28일. 기묘. 흐리고 비. 밤에 눈이 내렸다.

二十八日。己卯。陰雨。夜雪。

1914년 1월 29일. 경진. 흐림.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설경이 더욱 아름다웠다. 이화(梨花)와 경림(瓊林)이 좌우로 나란히 벌여있고, 옥룡(玉龍)과 염호(鹽虎)<sup>6)</sup>가 전후에서 모시는 것 같다. 찬 까마귀가 놀라

6) 옥룡(玉龍)과 염호(鹽虎) : 염호는 《춘추좌씨전》 희공(僖公) 30년 조에 나오는 말로, 소금을 굳혀서 호랑이 모양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것이 눈과 관련된 고사가 된 것은 한기(韓琦)의 시에서 비롯되었다. 그의 시에 “바위에 눈이 덮여 염호 빠진 듯하고, 휘어진 늪은 가지에 옥룡이 차가워라.[危石蓋深鹽虎陷，老枝擎重玉龍寒]”라는 구절이 있는데, 바위에 눈이 쌓이자 그 모습이 마치 염호와 같이 보이고, 눈으로 휘어진 가지에는 마치 옥룡이 서려 있는 듯하다

날아도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 쏟아지지 않았고, 대나무가 고꾸라지며  
쪼개지는 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왔다.

二十九日。庚辰。陰。是日也朝起視之，雪景尤美。梨花瓊林，列於左  
右，玉龍鹽虎，侍于前後。寒鴉驚飛，封條不散，脩竹顛倒，破聲亂到。

1914년 1월 30일. 신사. 갸.

三十日。辛巳。晴。

1914년 2월 1일. 임오. 맑음.

二月。初一日。壬午。陽。

1914년 2월 2일. 계미. 맑음.

二日。癸未。陽。

1914년 2월 3일. 갑신. 맑음.

三日。甲申。陽。

1914년 2월 4일. 을유. 맑음.

四日。乙酉。陽。

1914년 2월 5일. 병술. 맑음.

五日。丙戌。陽。

1914년 2월 6일. 정해. 흐림. 가랑비가 내렸다.

---

는 말이다. 이후로 염호와 옥룡은 눈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안양집(安陽集)》)

六日。丁亥。陰。微雨。

1914년 2월 7일. 무자. 맑음. 집으로 돌아왔다.

七日。戊子。陽。還巢。

1914년 2월 8일. 기축. 맑음.

八日。己丑。陽。

1914년 2월 9일. 경인. 흐리고 비. 밤에 바람이 세게 불고 비가 내렸다.

九日。庚寅。陰雨。夜大風雨。

1914년 2월 10일. 신묘. 흐림. 바람이 세게 불고 비가 내렸다.

十日。辛卯。陰。大風雨。

213

1914년 2월 11일. 임진. 맑.

十一日。壬辰。晴。

1914년 2월 12일. 계사. 반쯤 흐리고 반쯤 맑음. 근래에 <퇴고이기왕복서(退高理氣往復書)>를 보았는데, 오늘 말편(末篇)에 이르러 퇴계선생의 <의정천명도(擬定天命圖)>가 있어서 특별히 기록한다.

十二日。癸巳。半陰半陽。近看<退高理氣往復書>，今至末篇，退溪先生擬定天命圖，特記。

“도(圖)를 그리고 입설(立說)을 하는 것은 본래 이는 자를 위하여 만든 것이 마땅하고 알지 못하는 자 때문에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신 말

쓴은 진실로 당연합니다. 일찍이 명도선생(明道先生)이 말한 것을 보았는데, 이르길 “무릇 입언(立言)은 의사를 함축하여 덕을 아는 자가 싫어하지 않고, 덕이 없는 자가 의혹하지 않게 하고자 하여야 한다.[凡立言, 欲涵蓄意思, 不使知德者厭, 無德者惑]”<sup>7)</sup>라고 하였으니, 이 뜻을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명도(天命圖)><sup>8)</sup>를 살피건대, 비록 모두 성현의 뜻에 근본했다고는 하나, 자세히 보면 그 사이에 지리멸렬한 병통이 없지 않아서 성현의 뜻으로 질정(質正)해 보면 부합하지 않는 곳이 많은 것은 어째서입니까? 지금 또한 조목마다 여쭙지는 못하겠고, 다만 제 생각을 의정도 좌우에 기록하고서 우리러 선생의 재정(裁正)을 바랍니다. 이 일이 진실로 참람하고 분수에 넘는 짓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 온당치 못한 바를 감히 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로부터 도서(圖書)는 모두 상하(上下)로 위치를 잡아서 남(南)을 상으로, 북(北)을 하로 의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천명도>는 남북으로 위치를 잡고, 북을 상으로, 남을 하로 하였으니 이것이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주역대전>>에 ‘천지가 위치를 정했다.[天地定位]’고 하였고, 소자(邵子)<sup>9)</sup>는 ‘건(乾)과 곤(坤)이 상하의 위치를 정했다.[乾坤定上下之位]’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천지자연의 역(易)으로서, 바로 주자가 이른 바 ‘다시 바꿀 수 없는 정론(正論)이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바꾸었으니, 아무리 힘을 다해 해명하더라도 또한 부합하지 않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바라건대 거듭 자세히 고증하시어 저의 의혹을 깨우쳐 주심이 어떻겠습니까?

“建圖立說, 固當爲知者而作, 不當爲不知者而廢。” 誨諭固當然。嘗觀明道先生之言, 曰“凡立言, 欲涵蓄意思, 不使知德者厭, 無德者惑。” 此意,

7) 무릇 …… 하여야한다 : <<근사록집해>> <교학편>에 나오는 말이다.

8) 천명도(天命圖) : 성리학에 의거해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풀이한 것으로, 조선 중기의 학자 정지운이 작성하고 그의 청에 따라 이황이 증보했다. 정지운이 작성한 것을 천명구도(天命舊圖), 이황이 작성한 것을 천명신도(天命新圖)라 한다. 천원지방(天圓地方)의 현상을 본떠 위로 천명원을 설정하고 아래로는 인체의 각 부위를 본떠 그렸다.

9) 소자(邵子) : 중국 북송대 학자 소옹(邵雍, 1011~1077)을 일컫는다. 자는 요부(堯夫)이고, 호는 안락선생(安樂先生)이며, 시호는 강절(康節)이다.

亦不可不察也。

按天命圖，雖曰皆本聖賢之旨，然細看其間，不無支離破碎之病。質以聖賢之旨，亦多有所未合，何也？今亦未暇逐一條稟，只以鄙意，擬定圖子，錄在左右，仰祈裁正。此事固知僭踰，然鄙意所未安，亦不敢不陳也。且從古圖書，皆以上下爲位，而擬上於南，擬下於北。今此圖，則乃以南北爲位，而擬北於上，擬南於下，此甚未喻。易大傳曰，‘天地定位’，而邵子曰，‘乾坤定上下之位’，此乃天地自然之易，正朱子所謂‘更不可易者’。今而易之，雖復費力分疏，而亦恐其有所未合也。如何如何？伏幸重賜詳證，以開蔽惑，何如？

<의정천명도(擬定天命圖)>



<정추만(鄭秋巒) 천명도설서(天命圖說序)>붙임.

정덕(正德) 기묘년(1519, 중종14)에 사재(思齋) 김선생(金先生, 김정국(金正國))이 작은 견별(謹別)을 입고 물러나 고봉현(高峯縣)<sup>10</sup>의 망동(芒洞)<sup>11</sup>에 복거(卜居)하셨다. 망동은 바로 나 지운이 사는 마을인지라, 일찍이 그 문하에서 노닐며 수학했다.

가정(嘉靖) 무술년(1538)에 선생이 소명(召命)을 받고 조정으로 돌아가

10) 고봉현(高峯縣) : 지금의 경기도 고양시를 말한다.

11) 망동(芒洞) : 고양시 망동리(芒洞里)을 말한다.

시니, 나는 의지할 곳을 잃고 동생 지림(之霖)과 더불어 집에서 강학을 하였다. 강론하는 것이 천인의 도[天人之道]에 미치면 동생 지림은 유학(幼學)으로서 그 의거할 곳이 없어서 엿보아 추측할 수 없음을 염려하였다. 내가 이에 시험 삼아 주자의 설을 취하고, -《성리대전(性理大全)》의 인물의 성[人物之性]을 논한 것에서 보인다.- 제설(諸說)을 참고하여 하나의 도형(圖形)으로 만들었으며, 또 문답의 형식을 취하여 ‘천명도설(天命圖說)’이라 이름하고서 날마다 동생과 더불어 강론하였다. 이것은 애당초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왕 도형을 기초(起草)한 이상 장자(長者)께 수정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드디어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사재(思齋) 두 선생께 질정(質正)하였더니, 두 선생께서는 심하게 꾸짖지 않으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가볍게 의논할 수 없으니 우선 후일을 기다리자.”라고 하셨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두 선생께서 연이어 돌아가셨으니 아, 애통하도다. 이로 말미암아 이 도형의 초본(草本)은 수정을 받지 못하고 나의 학문은 날로 거칠어져서 거의 스스로 진작할 수 없게 되었다.

216

그런데 지난 가을에 퇴계 이 선생이 나의 이름을 잘못 듣고서 몸소 두세 차례나 찾아 주셨으므로, 나는 그 은근한 정성에 감동되어 목욕재계하고 나아가 뵈었다. 퇴계는 흔연히 나와서 만나 주고, 이어 천명도(天命圖)에 대해 언급하셨다. 그래서 내가 사실대로 고하고 질정해 줄 것을 청하였더니, 퇴계는 약간의 기쁜 기색을 지었다.

나는 물러 나와서 스스로 축하하기를 “내가 두 선생을 잃은 뒤로는 다시 어진 사우(師友)를 얻어 학문의 진보를 구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퇴계를 만나게 되었으니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라고 하였다. 항상 왕래하며 이 도형에 대해 질문하니, 퇴계는 고설(古說)로써 증거하고 자기의 의견을 섞어서 빠진 것을 보충하고 필요 없는 것을 삭제하여 끝내 완전한 도형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 은혜가 이미 두터운데 또 도설(圖說)까지 지어 뒤에 붙여서 가르쳐 주셨으니, 그 다행함이 무엇이 이보다 크겠는가. 나의 다행일 뿐만 아니라 지난날 두 선생께서 ‘우선 후일을 기다리자’고 하신 뜻이 오늘에야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니, 이것이 더욱 큰 다행이다. 그러므로 나는 글머리에 도형을 만들게 된 동기를 기록하고, 다음으로 도형을 결정한 일을 언급하여서 집안에 간직하는 바이니, 만약 나와 뜻을 같이하는 자가 나온다면, 그 역시 퇴계가 고증(考證)한 뜻을 알게 될 것이다.

가정 갑인년(1554, 명종9) 정월 초하루 아침에, 추만거사(秋巒居士) 계림(鷄林) 정지운(鄭之雲)<sup>12)</sup>은 서문(序文)을 쓰다.

#### 附鄭秋巒天命圖說序。

正德己卯, 思齋金先生被微讎而退, 卜居于高峰之芒洞。芒洞實之雲所居里也, 嘗遊其門受學焉。嘉靖戊戌, 先生被召還朝, 之雲失其依歸, 與舍弟之霖講學于家。論及天人之道, 則之霖以幼學, 患其無據莫能窺測。余於是試取朱子之說【見《性理大全》, 論人物之性。】參以諸說, 設爲一圖, 而又爲問答, 名曰‘天命圖說’, 日與舍弟講之。此初非欲示諸人而作也。然圖既草, 則亦不可不見正於長者, 遂取質于慕齋思齋兩先生。兩先生不深責之, 且曰“未可輕議, 姑俟後日。”不幸兩先生相繼以歿。嗚呼痛哉。由是, 此圖之草, 無所見正, 而余之學問, 日就荒蕪, 幾不能自振。去年秋, 退溪李先生, 誤聞不肖之名, 躬問者再三, 之雲感其慇懃, 齋沐以進。退溪欣然出見, 因語及天命圖。之雲以直告之, 因請證正之意, 退溪稍假肯色。余退而私自賀曰, “吾喪兩先生後, 意謂更不得賢師友而求進, 今得退溪, 吾無憂矣。”常往來質問是圖, 退溪證以古說, 參用己意, 補其所欠, 刪其所剩, 卒成完圖。其賜已厚, 又從而爲之說, 附其後而教之, 其幸孰大焉。非徒余之幸, 在昔兩先生姑俟後日之志, 今始副焉, 是尤幸之大也。余故首記作圖之由, 次及定圖之事, 以藏于家, 如有同志者出, 其亦有以知退溪考證之意也。嘉靖甲寅正月朔朝, 秋巒居士, 鷄林, 鄭之雲, 序。

12) 정지운(鄭之雲, 1509~1561) : 자는 정이(靜而), 호는 추만(秋巒),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고양 출신으로, 김정국(金正國)과 김안국(金安國)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나중에 이황(李滉)에게 《역학계몽(易學啓蒙)》, 《심경(心經)》 등을 배웠다. 일찍 벼슬에 천거하는 이가 있었지만, 나가지 않고 사양하였다. 고양의 문봉서원에 배향되었고, 저서로 《천명도설(天命圖說)》이 있다.

1914년 2월 13일. 갑오. 맑음.

十三日。甲午。陽。

1914년 2월 14일. 을미. 맑음.

十四日。乙未。陽。

1914년 2월 15일. 병신. 흐림.

十五日。丙申。陰。

1914년 2월 16일. 정유. 맑음.

十六日。丁酉。陽。

1914년 2월 17일. 무신. 흐리고 비.

(十)七日。戊戌。陰雨。

1914년 2월 18일. 기해. 맑음.

(十)八日。己亥。陽。

1914년 2월 19일. 경자. 흐림. 찬눈이 날렸다.

十九日。庚子。陰。冷雪紛紛。

1914년 2월 20일. 신축. 흐림.

二十日。辛丑。陰。

1914년 2월 21일. 임인. 흐림.

二十一日。壬寅。陰。

1914년 2월 22일. 계미. 맑음.

二十二日。癸卯。陽。

1914년 2월 23일. 갑진. 맑음.

二十三日。甲辰。陽。

1914년 2월 24일. 을사. 맑음.

二十四日。乙巳。陽。

1914년 2월 25일. 병오. 맑음.

二十五日。丙午。陽。

1914년 2월 26일. 정미. 맑음. 옥과 입석리 녹실(綠室)의 장지에 갔다가 돌아왔다.

二十六日。丁未。陽。赴綠室葬於玉果立石而還。

1914년 2월 27일. 무신. 흐리고 비. 밤에 비가 내렸다.

二十七日。戊申。陰雨。夜雨。

1914년 2월 28일. 기유. 흐림.

二十八日。己酉。陰。

1914년 2월 29일. 경술. 맑음.

二十九日。庚戌。陽。

1914년 2월 30일. 신해. 맑음.

三十日。辛亥。陽。

1914년 3월 1일. 임자. 맑음.

三月。一日。壬子。陽。

1914년 3월 2일. 계축. 맑음.

二日。癸丑。陽。

1914년 3월 3일. 갑인. 반쯤 흐리고 반쯤 맑음. 바람 봄. 밤에 비가 내림.

三日。甲寅。半陰半陽而風。夜雨。

1914년 3월 4일. 을묘. 맑음. 시목리(柿木里)<sup>13)</sup>에 사는 울포(栗圃) 나기  
홍(羅基弘)씨가 편지와 시를 부쳐 보내온 것에 대해 답하였다.

四日。乙卯。晴。酬柿木里栗圃羅基弘氏寄書兼贈詩。

동풍이 어젯밤 이곳에 불어오니,  
꽃은 새로 피고 나뭇가지는 비에 씻겼네.  
맑은 창에 새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니,  
어린아이들 마침 공부하러 올 때이네.  
몸과 마음 모두 잊고 혼연하게 앉았으니,  
만사가 모두 정해지지 않은 것이라 하네.  
이쯤에서 벗어 시를 지어 보내오니,  
기쁘게 세 번 읽으며 마음에 새기기 마땅하네.

東風昨夜入於斯  
啓發新花雨濯枝  
啼鳥晴窓睡起曉  
稚兒方冊讀來時  
兩忘身勢渾全坐  
萬事云爲摠不期  
際此故人詠以賜  
欣然三復服膺宜

13) 시목리(柿木里) : 담양군 고면 시목리로, 현재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시목 마을에 해당한다.

울포의 시

무단히 모이고 흠어짐이 정히 이와 같은가,  
 잡을만한 매화꽃 있어 한 가지를 꺾었네.  
 서울에서의 풍류는 어느 시절이었던가,  
 기수 물가의 관복(冠服) 입은 저문 봄이었다네<sup>14)</sup>.  
 전날 밤은 비몽사몽이라 피곤하였는데,  
 오늘은 다음 만날 기약을 헤아리네.  
 은근히 나를 방문해준 뜻에 감사드리니,  
 재주 있는 사람 불러 필첩 만드는 것 마땅하리.

栗園詩

無端離合政如斯  
 堪把梅花折一枝  
 洛社風流何歲節  
 沂濱冠服暮春時  
 前宵勞頓昧思夢  
 今日商量後會期  
 多謝殷勤訪吾意  
 招要才子筆抽宜

1914년 3월 5일. 병진. 맑음. 집에 돌아왔다.

初五日。丙辰。陽。歸巢。

1914년 3월 6일. 정사. 맑음. 성묘를 갔다.

初六日。丁巳。陽。省楸。

1914년 3월 7일. 무오. 맑음. 밤에 비가 내렸다.

七日。戊午。陽。夜雨。

1914년 3월 8일. 기미. 흐림.

八日。己未。陰。

1914년 3월 9일. 경신. 흐리고 비.

九日。庚申。陰雨。

14) 기수 …… 봄이었다네 : 여기에서 관복(冠服)은 관례를 올린 젊은 시절을 말한다. 이는 《논어》 <선진(先進)>에서 비롯되었다. 공자의 제자 증점(曾點)이 “늦은 봄에 봄옷이 만들어지면 관을 쓴 벗 대여섯 명과 아이들 예닐곱 명을 데리고 기수에 가서 목욕을 하고 기우제 드리는 무우에서 바람을 쏘인 뒤에 노래하며 돌아오겠다.[暮春者，春服既成，冠者五六人，童子六七人，浴乎沂，風乎舞雩，詠而歸。]”라고 자신의 뜻을 밝힌 내용이 나온다.

1914년 3월 10일. 신유. 흐림.

十日。辛酉。陰。

1914년 3월 11일. 임술. 흐림. 오늘은 한식날이다.

十一日。壬戌。陰。是日寒食。

1914년 3월 12일. 계해. 맑음. 유천(維川)<sup>15</sup>에 사는 유건한(柳建漢) -자는 극중(極中)- 이 와서 ‘지난겨울에는 죽순이 나더니 올봄에는 영지 버섯이 났다고 했다.

十二日。癸亥。陽。維川柳建漢字極中來云, ‘去冬竹筍生矣, 今春芝菌生矣.’

1914년 3월 13일. 갑자. 맑음.

十三日。甲子。陽。

1914년 3월 14일. 을축. 맑음.

十四日。乙丑。陽。

1914년 3월 15일. 병인. 맑음.

十五日。丙寅。陽。

1914년 3월 16일. 정묘. 맑음. 아름다운 산천을 찾아다니다 순창읍(淳昌邑)에 이르렀다. 다음날 아침 구항(龜項)<sup>16</sup>으로 향했으나, 비가 와서

15) 유천(維川) :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를 말한다.

16) 구항(龜項) : 현재 전북 순창군 팔덕면 구항마을을 가리킨다. 구항마을은 맨 처음 진주 강씨가 마을 터를 잡았으며,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거북이 목터라 하여 ‘구항’이라 칭했다 한다.

강창원(姜昌遠) 도유(道猷) 댁에서 머물렀다. 노사(蘆沙, 기정진)의 <외필(猥筆)><sup>17)</sup>을 보았다.

十六日。丁卯。陽。訪佳山麗水，至淳昌邑。翌朝向龜項，滯雨於姜昌遠道猷宅。看蘆沙<猥筆>。

1914년 3월 17일. 무진. 흐리고 비.

十七日。戊辰。陰雨。

1914년 3월 18일. 기사. 흐리고 비.

十八日。己巳。陰雨。

1914년 3월 19일. 경오. 맑음. 문암리 조기섭(趙驥燮) 경량(京亮) 댁에 도착했다. 그의 처상(妻喪)을 위문하였는데, 곧 삼월 삼일이 상이 난 날이다. 날이 저물어 집으로 돌아오다가 이천(伊川) 홍석사(洪碩士) 댁에서 잤다.

十九日。庚午。晴。到門岩里趙驥燮京亮宅。慰問其妻喪，乃三月三日也。日夕還家，宿於伊川洪碩士宅。

1914년 3월 20일. 신미. 집에 도착했다. 삼종형(三從兄) 초상을 당했다.

二十日。辛未。到家。丁三從兄喪。

17) 외필(猥筆) : 기정진(奇正鎭)이 81세(1878)에 이기론(理氣論)에 대하여 지은 글로서, 당시 지식인들의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수작(秀作)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정진(1798~1879)은 1798년 6월 3일에 전북 순창군 복흥면 구수동(九水洞)에서 기재우(奇在祐)와 안동권씨의 아들로 태어났다. 자(字)는 대중(大中)이요, 호(號)는 노사(蘆沙)이며, 본관(本貫)은 해주(幸州)이다. 성리학에 대한 독자적인 궁리와 사색을 통하여 이일분수(理一分殊) 이론에 의한 독자적인 이(理)의 철학을 수립하였다. 그의 학문과 사상은 손자인 우만(宇萬)과 김녹휴(金錄休)·조성가(趙性家)·정재규(鄭載圭)·이희석(李僖錫)·이최선(李最善)·기삼연(奇參衍) 등의 제자에게 전수되었으며, 많은 학자들이 그의 문하에서 배출되었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1914년 3월 21일. 임신. 맑음.

二十一日。壬申。陽。

1914년 3월 22일. 계유. 맑음. 오룡(五龍) 선산(先山) 아래에 장사지냈다.

二十二日。癸酉。陽。葬于五龍先山下。

1914년 3월 23일. 갑술. 맑음. 장동(獐洞)에 도착했다.

二十三日。甲戌。陽。到獐洞。

1914년 3월 24일. 을해. 흐림. 손자의 병고 때문에 시목리(柿木里) 유리적(柳泣迪) 순익(順益)택에서 약을 지어서 집에 전해주고 돌아오는 길에 비를 맞으며 도착했다.

二十四日。乙亥。陰。以孫故劑藥于柿木里柳泣迪順益宅，傳于家而還帶雨而至。

1914년 3월 25일. 병자. 맑.

二十五日。丙子。晴。

1914년 3월 26일. 정축. 맑음.

二十六日。丁丑。陽。

1914년 3월 27일. 무인. 맑음.

二十七日。戊寅。陽。

1914년 3월 28일. 기묘. 흐림.



二十八日。己卯。陰。

1914년 3월 29일. 경진. 흐리고 비.

二十九日。庚辰。陰雨。

1914년 4월 1일. 신사. 갸.

四月。初一日。辛巳。晴。

1914년 4월 2일. 임오. 맑음. 집으로 돌아왔다.

初二日。壬午。陽。歸巢。

1914년 4월 3일. 계미. 흐림. 장동(獐洞)으로 돌아왔다.

初三日。癸未。陰。還獐洞。

1914년 4월 4일. 갑신. 흐림.

四日。甲申。陰。

1914년 4월 5일. 을유. 맑음.

五日。乙酉。陽。

1914년 4월 6일. 병술. 맑음.

六日。丙戌。陽。

1914년 4월 7일. 정해. 흐리고 비.

七日。丁亥。陰雨。

1914년 4월 8일. 무자. 갸. 송혁모(宋燮模)와 담론을 하였다. 혁모가 말하기를, “자식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집에 들어가서는 효도하고 집을 나서는 공손할 것을 우선으로 하며, 타인과 만나서는 스스로 속임이 없을 것을 으뜸으로 하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내가 더불어 응하여 가로되 “지극하도다, 이 사람이여! 선하도다, 그 말이여!”라고 했다.

八日。戊子。晴。與宋燮模談論。燮模曰, “教子以入孝出恭爲先, 接人以無自欺爲首則何如?” 余應與曰, “至哉, 斯人也。善哉, 斯言也”。

1914년 4월 9일. 기축. 맑음.

九日。己丑。陽。

1914년 4월 10일. 경인. 맑음. 유희적(柳羲迪)과 함께 <<절곡집(節谷集)>><sup>18)</sup>을 봉심(奉審)했다.

공의 휘(諱)는 시관(時觀)이고, 자(字)는 장숙(莊叔)이다. 김씨의 계(系)는 태사(太師) 휘 선평(宣平)으로부터 나왔는데, 고려 태조를 도와 공신으로 책훈되었으며 안동이라는 본관(本貫)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조선조에 이르러 높은 관직을 이은 사람으로는 휘가 극효(克孝), 호(號)가 사미당(四美堂)이라는 분이 있으니, 벼슬은 돈령(敦寧) 도정(都正)<sup>19)</sup>을 역임했고 의정부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이분에게서 선원선생(仙源先生)이 태어나시니, 휘는 상용(尙容)으로, 인조 정축(1637)년에 원임(原任) 우의정으로서 강화도에서 순절하셨다. 시호는 문충(文忠)

18) 절곡집(節谷集) : 김시관(金時觀, 1677~1740)의 문집으로 1865년(고종 2)에 간행됨. 김시관은 김창협(金昌協), 김창흡(金昌翕), 김창집(金昌緝)의 문인으로서, 이재(李穡), 채지홍(蔡之洪), 임성주(任聖周), 김원행(金元行) 등과 교유하였다.

19) 도정(都正) : 조선시대 종친부(宗親府)·돈령부(敦寧府)·훈원원(訓練院)의 정3품(正三品) 벼슬. 당상관(堂上官)이다.

이고 정려가 내려졌으니, 이 분이 공의 고조부이다.

十日。庚寅。陽。與柳義迪奉審 《節谷集》。

公諱時觀，字莊叔。金氏系出，太師諱宣平，佐麗祖策勳，籍安東始此。至我祖襲珪組，有諱克孝號四美堂，宦敦寧都正，贈議政府領議政。是生仙源先生，諱尚容，仁廟丁丑以原任右議政，殉節江都。諡文忠旌閭，寔公高祖也。

### 잡저(雜著)

#### <오륜설(五倫說)><sup>20)</sup>

사람이 만물과 다른 까닭은 오륜(五倫)이 있기 때문이다. 오륜이란 무엇인가?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 한 것이 이것이다. 부자는 골육지친으로 은애(恩愛)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친(親)’자로 의정한 것이다. 이른바 ‘친(親)’이라는 것은 지자지효(止慈止孝)의 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군신(君臣)은 도를 행하는 것을 위주로 하니, 마땅함을 재량하여 거취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의(義)’자로 의정한 것이다. 이른바 ‘의’라는 것은 진퇴구속(進退久速)<sup>21)</sup>의 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부부(夫婦)는 본래 음양의 분별이 있는데 그 하나로 섞여서 분별이 없을까 두렵기 때문에 ‘별(別)’자로 의정한 것이다. 이른바 ‘유별(有別)’이라는 것은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에 있고, 옷걸이를 같이 쓰지 않으며, 욕실을 같이 쓰지 않는 것의 종류가 이것이다. 장유(長幼)는 세상에 태어나는 선후로써 거스르지 못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序)’자로써 의정한 것이다. 이른바 ‘유서(有序)’라는 것은 음식과 기거에 있어서 반드시 장자(長者) 뒤에 하는 료가 이것이다. 붕우(朋友)는 서로 친근함이 있는 사람이라, 너무 친압하여 성실함을 조금 함부로

20) 오륜설 : 《절곡집(節谷集)》에 있다.

21) 진퇴구속(進退久速) : 사지구속(仕止久速), 행지구속(行止久速), 가부구속(可否久速) 등과 같은 말로, 벼슬할 때 시의(時宜)에 맞게 처신함을 가리킨다. 《맹자》 <공손추 상(公孫丑上)>에 “벼슬할 만하면 벼슬하고 그만둘 만하면 그만두며, 오래 머무를 만하면 오래 머물고 빨리 떠날 만하면 빨리 떠나신 분은 공자입니다.[可以仕則仕, 可以止則止, 可以久則久, 可以速則速, 孔子也.]”라고 하였다.

할까 두렵기 때문에 ‘신(信)’자로 의정한 것이다. 이른바 ‘유신(有信)’이라는 것은 오래된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승낙한 일을 묵혀두지 않는 것<sup>22)</sup>이 이것이다.

그러나 이 다섯 글자를 의정(擬定)한 까닭은 어찌 구차히 안배해서 그렇게 했겠는가? 모두 천리의 자연에 근본한 것이다. 그러나 또 논하건대, 오성(五性)은 마음에 근본하지만 접물에 이르면 이 오륜이 있게 된다. 유친(有親)은 곧 인(仁)의 용(用)이고, 유의(有義)는 곧 의(義)의 용이며, 유별(有別)은 곧 지(知)의 용이고, 유서(有序)는 곧 예(禮)의 용이며, 유신(有信)은 곧 신(信)의 용이다. 부자(父子)가 오성을 겸하지 않음이 없으나 인(仁)을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인에 배속했다. 군신이 오성을 겸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의(義)를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의에 배속했다. 부부, 장유, 봉우도 모두 다 그렇지 않음이 없다.

만약 ‘부자(父子)는 인(仁)만 있어서 의·예·지·신을 겸할 수 없고, 군신은 의(義)만 있어서 인·예·지·신을 겸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오류를 알지 못한 것이다. 상품지인(上品之人)은 힘쓰지 않아도 이에 능하고, 중품지인(中品之人)은 노력한 후에 이에 능하고, 하품지인(下品之人)은 힘써야 할 까닭을 알지 못한다. 노력하면 성현이고, 노력하지 않으면 금수이니, 성현이 되고 금수가 되는 구분이 단지 노력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이에 있다.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

세도(世道)가 퇴폐해지고 유풍(儒風)이 크게 변하여 선비 된 자가 다만 사장(詞章)에 힘쓸 줄만 알고, 경전에 대해 공부할 줄 모른다. 혹 경전을 읽은 자도 또한 문자를 표절(剽竊文字)하여 과거 공부하는 용도로 삼는 데에만 뜻이 있고, 질문할 만한 은미하고 심오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지금 나의 친구 이원경(李遠卿)의 만아들이 초촌(齠齔)<sup>23)</sup>의 나이에 《소학》 책을 읽으며 문득 오류의 뜻을 묻는데, 자질이 아름다운 자가 아니라

22) 승낙한 …… 않는 것: 《논어》 <안연(顔淵)>에 “자로(子路)는 승낙한 일을 묵혀두지 않았다.[子路無宿諾]”라고 하였다.

23) 초촌(齠齔): 7~8세의 나이를 말함.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촌(齔)이란 ‘이를 가는 것이다. 낚이는 8개월이면 이가 나서 8세에 이를 갈, 여아는 7개월이면 이가 나서 7세에 이를 간다.”라고 하였다.

면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군자의 배움은 한갓 강문(講問)을 숭상해서만은 안 되고 반드시 실천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정자가 말하기를 “박학(博學), 심문(審問), 신사(慎思), 명변(明辨), 독행(篤行) 다섯 가지에서 그 하나라도 폐하면 배움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지금 배움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인해 성찰해서 극기치인의 공부에 나간다면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이 글을 써서 주며, 나의 구구한 희망의 정성을 바친다.

雜著。

### 五倫說。

人之所以異於萬物者，以其有五倫也。五倫者，何也。父子有親，君臣有義，夫婦有別，長幼有序，朋友有信，是也。父子骨肉之親，以恩愛爲主，故擬以‘親’字。所謂‘親’者，不外乎止慈止孝之事矣。君臣以行道爲主，而有裁宜去就之義，故擬以‘義’字。所謂‘義’者，不外乎進退久速之道矣。夫婦本有陰陽之分，恐其一於混而無分，故擬以‘別’字。所謂‘有別’者，男左女右，不同椀架，不共浴之類，是也。長幼則以生世之先後，有不可犯之分，故擬以‘序’字。所謂‘有序’者，如飲食起居，必後長者之類，是也。朋友有相親暱者也，恐其狎侮少誠實，故擬以‘信’字。所謂‘有信’者，不忘久要，無宿諾之類，是也。然其所以擬此五字者，又豈苟然安排而爲之？皆本於天理之自然也。抑又論之，五性根於心，而至其接於物，則有此五倫。有親卽仁之用也，有義卽義之用也，有別卽智之用也，有序卽禮之用也，有信卽信之用也。父子非不兼五性，而仁爲之重，故屬之仁。君臣非不兼五性，而義爲之重，故屬之義。夫婦長幼朋友，莫不皆然。如曰‘父子但有仁而不得兼乎義禮知信，君臣但有義而不得兼乎仁禮智信’，則是不知五倫者也。上品之人，不勉而能此，中品之人，勉而後能此，下品之人，不知所以勉之。勉之則聖賢，不勉則禽獸。作聖爲獸之分，只在於勉不勉之間，豈不可畏也哉？世道頹廢，儒風大變，爲士者，但知用力於詞章，而不知加功於經傳。其或讀經傳者，又志在於剽竊文字以爲舉業之用，而不知微奧之可問，而今吾友李遠卿之胤子，以韶齏之齡，讀小學書，而輒問五倫之義，非資質之美，能如是乎？然君子之學，不徒講問之爲尚，必以實踐爲貴。故程子曰，

“博學審問慎思明辨篤行五者，廢其一，非學也”。今因好學之心，而進之省察克治之功，則豈不尤爲嘉美也哉？書此以贈，以效區區，希望之忱。

일찍이 포음선생(圃陰先生)<sup>24</sup>에게 “사람과 사물이 품수(稟受) 받은 이 후에는 청탁(淸濁)과 편정(偏正)을 논하지 않고 모두 기질지성(氣質之性)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아뢰었더니, 선생이 답하기를 “이 말 또한 그럴 듯하다. 그러나 장자(張子)<sup>25</sup>의 본설로써 본다면 오로지 기질의 편박(偏駁)된 것만을 ‘기질지성’이라 일컫는다. 그러니 기질이 통정(通正)한 것까지 기질지성이라 일컫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였다.<sup>26</sup> -이 단락은 의심되는 바가 있으므로 기록한다.-

嘗稟于圃陰先生曰，“人物稟受以後，勿論淸濁偏正，皆可謂之氣質之性。”先生答曰，“此言亦似矣，然以張子本說觀之，專以氣質之偏駁者，謂之氣質之性。然則氣質之通正者，似不可謂氣質之性。”【右一段有疑故記之。】

<농암선생(農巖先生)<sup>27</sup>에게 올리는 글><sup>28</sup>

- 24) 포음선생(圃陰先生) : 김창집(金昌緝, 1662~1713)을 말한다. 자는 경명(敬明), 호는 포음(圃陰)이며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왕자사부(王子師傅)와 예빈시주부(禮賓寺主簿) 등의 벼슬을 역임하였으며, 제자로는 유척기(兪拓基) 등이 있고 저서로는 <징회록(澄懷錄)> 1권과 <포음집(圃陰集)> 6권이 있다.
- 25) 장자(張子) : 장재(張載, 1020~1077)를 말한다. 장재는 봉상(鳳翔) 미현(郿縣) 횡거진(橫渠鎭) 사람으로, 자는 자후(子厚), 호는 횡거선생(橫渠先生)이며, 시호는 명공(明公)이다. 송나라 이학(理學)을 창시한 오현(五賢) 가운데 한 사람이다. 관중(關中)에서 강학했기 때문에 그의 학문을 관학(關學)이라 부른다. 저서에 <정몽(正蒙)>과 <횡거역설(橫渠易說)>, <경학이굴(經學理窟)> 등이 있다.
- 26) 위 글은 <절곡집(節谷集)>권3 잡저의 <잡지(雜識)> 속에 들어있는 문장의 한 단락이다.
- 27) 농암선생(農巖先生) :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을 말한다. 자는 중화(仲和), 호는 농암(農巖)·삼주(三洲)이며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저서로는 <농암집(農巖集)>·<주자대전차의문목(朱子大全節疑問目)>·<논어상설(論語詳說)> 등이 있다. 문장에 능하고 글씨도 잘 써서 <문정공 이단상비(文貞公李端相碑)>·<감사 이만옹비(監司李萬雍碑)>·<김충겸표(金崇謙表)> 등의 작품을 남겼다.
- 28) 위 글은 <절곡집(節谷集)>권2 서(書)의 <상농암선생서(上農巖先生書)> 속에 들어있는 문

(문)이른바 물격지지(物格知至)라는 것은 곧 일분(一分)의 물사(物事)를 궁구하면 곧 내가 일분의 지식을 얻고, 십분(十分)의 물사를 궁구하면 곧 내가 십분의 지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궁리(窮理)가 이미 많으면 내가 아는 바는 자연히 명확하지 않는 바가 없게 됩니다.

(답)물격(物格)<sup>29)</sup>은 영쇄(零碎)한 설로, 일물(一物)을 궁구하더라도 진실로 물을 격했다고 이를 수 있다. 지지(知至)는 총괄하는 말로, 일물을 이미 궁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지지라고 말할 수 없다. 오직 오래 축적하고 관통한 이후에 지지라고 이룰만 하다. -이 문장은 의심되는 바가 있으므로 기록한다.-

書上農巖先生。

所謂物格知至，乃謂窮得一分物事，便致得吾一分知識，窮得十分物事，便致得吾十分知識。窮理既多，吾之所知，自然無所不明矣。

答。物格是零碎底說，窮得一物，固可謂物格矣。知至者，總包底說，不可以一物既格，而旋謂之知至。除是積久貫通之後，乃可謂知至耳。【右一段有疑故記之】

1914년 4월 11일. 신묘. 맑음.

十一日。辛卯。陽。

1914년 4월 12일. 임진. 맑음.

十二日。壬辰。陽。

1914년 4월 13일. 계사. 맑음.

十三日。癸巳。陽。

장의 한 단락으로서, 절곡이 묻고 농암선생이 답한 글이다.

29) 물격(物格) : 주자는 물격을 해석하기를 '사물의 이가 각기 그 극처에 나아가 남김이 없는 것을 이른다.[物理之極處無不到]'라고 하였다.

1914년 4월 14일. 갑오. 맑음.

十四日。甲午。陽。

1914년 4월 15일. 을미. 흐리다가 맑음.

十五日。乙未。先陰後陽。

1914년 4월 16일. 병신. 흐림.

十六日。丙申。陰。

1914년 4월 17일. 정유. 맑음. 《하서선생집(河西先生集)》을 봉심(奉審)하였다.

十七日。丁酉。陽。奉審《河西先生集》。

대명(大明) 무종황제(武宗皇帝) 정덕(正德) 5년, 즉 국조 중종대왕(中宗大王) 5년 경오(庚午, 1510) 가을 7월 임인(壬寅) 19일 신시(申時)에 의릉참봉(義陵參奉)인 김녕(金齡)-자 인노(仁老)- 와 부인 옥천 조씨(玉川趙氏)-안음(安陰)<sup>30</sup> 훈도(訓導) 적(勤)의 여식- 가 장성현(長城縣) 대맥동리(大麥洞里) 집에서 선생을 낳았다. 선생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형용(形容)이 단정하고 기우(氣宇)가 굉후하였다. 이름을 인후(麟厚), 자를 후지(厚之), 호를 하서(河西)라고 한다. 관학 유생 홍준원(洪準源) 등이 문묘에 배향할 것을 소청하니 윤택하였다. 대광보국승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의 정부 영의정(議政府領議政) 겸 영경연(領經筵), 홍문관(弘文館), 예문관(藝文館), 춘추관(春秋館), 관상감사(觀象監事)를 가증(加贈)하도록 명하고 또 부조(不祧)<sup>31</sup>를 명하였다. 겨울 10월에 시호를 문정(文正)으로 고쳐 내렸

30) 안음(安陰) : 조선시대 경상도에 속한 현으로, 현재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일대이다.

31) 부조(不祧) : 천조(遷祧)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묘제(廟制)에 있어서 일정한 대수(代數)가 지나면 조(祧)라고 하여 그 신주(神主)를 옮기는데, 공덕이 특출한 인물의 신주는 이를 특별히 취급하여 대수가 지나도 천조하지 않는다. 이를 부조 또는 불천(不遷)이라 한다.



다. -‘도덕이 높고 학문이 깊다[道德博聞]’는 뜻으로 ‘문(文)’이라 하고 ‘정도로 남을 승복시켰다[以正服人]’는 의미로 ‘정(正)’이라 한다.-

大明武宗皇帝，正德五年，即國朝中宗大王五年庚午，秋七月壬寅十九日，申時，義陵參奉 金齡，字仁老，配玉川趙氏，安陰訓導勳女，生先生于長城縣大麥洞里第。先生始生，形容端正，氣宇宏厚，名麟厚，字厚之，號河西。館學儒生洪準源等，疏請從享文廟，蒙允。命加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又命不祧。冬十月，改賜諡文正。【‘道德博聞’曰‘文’，‘以正服人’曰‘正’。】

선생 5세. ‘넓고 아득한 우주에 큰 사람이 산다[宇宙洪荒大人居]’라는 시구를 지었다.

先生五歲，有‘宇宙洪荒大人居’之句。

6세. 천자(天字)로 시를 지었다. 六歲，以天字爲題曰。

모양은 등글어 지극히 크고 또 현묘한데,	形圓至大又窮玄
까마득히 아득하게 우주를 돌렀도다.	活活空空繞地邊
덮여 있는 그 가운데 만물을 용납하니,	覆轉中間容萬物
기나라 사람은 어인 일로 무너질까 걱정했던가.	杞人何爲恐類連

8세. 관찰사 조원기(趙元紀)와 더불어 연구(聯句)를 지었다. 조공이 글귀를 먼저 불렀다. “완산에 이틀 밤을 묵으니, 이원(梨園)<sup>32)</sup> 풍경을 만끽 하도다.”라고 하자, 선생이 응하기를 “풍패(豐沛)<sup>33)</sup> 땅에 머물러, 매정의 달빛을 한껏 보네.”라고 하였다. 조공이 또 말하기를 “이 아이의 시와 글씨는 두보 백락천 왕희지의 무리요” 하니, 선생이 화답하기를 “선생의 처사는 소신신(召信臣), 한연수(韓延壽)<sup>34)</sup>와 같은 분이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32) 이원(梨園) : 당명황(唐明皇)이 악공을 양성하던 곳이다.  
 33) 풍패(豐沛) : 한 고조의 고향이 풍패인데, 여기서는 이조 왕실의 선대 본관이 전주이므로 전주를 풍패라 한 것이다.  
 34) 소신신(召信臣)·한연수(韓延壽) : 소신신·한연수 두 사람은 모두 한 나라 시대의 지방 수령으

또 ‘오백년의 기간이 이미 지났으니, 하늘이 반드시 성인의 일어남을 기다릴 것이요, 수천 년만에 황하가 맑아졌으니, 땅에서도 응당 세상에 뛰어난 호걸이 나올 것이로다’라는 구절이 있다.

八歲。與趙觀察元紀聯句。趙公呼曰，“信宿完山飽，梨園之風景”先生應曰，“滯留豐沛饜，梅亭之月光。”趙公又曰，“兒郎詩筆杜白王右輩。”先生曰，“先生處事召吉延壽群。”又有‘五百年之期已過，天必待聖人之興。數千載之河方清，地應生命世之傑’之句。

9세<sup>35)</sup>. 복재(服齋) 기준(奇遵)이 내사될 한 자루를 선물로 주었는데, 항상 잘 보관하여 상자속의 보배로 삼았다.

九歲。奇服齋遵，贈以內賜筆一枝，常葆藏以爲篋筭之珍。

10세.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 선생을 찾아가 뵈고 소학(小學)을 배웠다.

十歲。往拜慕齋金先生，受小學。

234

11세. 소학을 배우면서부터 한 마음으로 학문에 뜻을 두어 과거공부에 급급하지 않았고, 항상 단정히 앉아 있기를 좋아하며 말도 경솔히 하지 않았다. 강송을 하다가 뜻에 맞는 곳을 만나면 문득 혼연히 만족하게 여겼다.

十一歲。自受小學，一意向學，不汲汲於舉子業，常喜穆然凝坐，不輕言語。講誦到意會處，輒欣然自得。

13세. ‘시를 배우지 않으면 설 수 없다[不學詩，無以立]<sup>36)</sup>’는 말은 곧 성인의 교훈임을 생각하고, 드디어 《시경》을 가져다가 침잠하여 익히고 읽어서 극히 정숙하게 되도록 힘썼다. 국풍 같은 것은 대주(大註), 소주(小註)까지 천 번이나 읽었다. 필법 또한 심히 힘을 쏟지는 않았지만, 엄밀하고

로써 백성에게 은혜스러운 정치를 하여 이름이 있었다.

35) 9세 : 본문에는 십세(十歲)로 되어 있으나, 뒤에 또 십세가 있기 때문에 9세로 정정하였다.

36) 시를 …… 없다 : 《논어》 <계씨편(季氏篇)>에 나오는 말이다. 공자의 아들 백어(伯魚)가 공자로부터 특별한 가르침은 받지 않았으나, 백어가 딸을 지나갈 때 공자께서 “시를 배우지 않으면 남과 말을 할 수 없다[不學詩 無以立]”라고 하시므로 물러나서 시(詩)를 배웠다고 한다.

부운하여 진초(眞草)와 전예(篆隸)가 모두 신묘한 경지에 도달했다.  
 十三歲。以爲不學詩，無以立，卽聖訓也。遂取詩經，沈潛玩讀，務極精熟。如國風之類，竝大小註，讀至千遍。筆法亦不甚肆力，而嚴密敷潤，眞草篆隸，各臻其妙。

14세. 여흥윤씨(驪興尹氏)에게 장가들었는데, 현감 임형(任衡)의 따님이다.  
 十四歲。聘驪興尹氏，縣監任衡之女。

15세. 아들 증룡을 낳았다.  
 十五歲。生子從龍。

18세. 신재 최공 - 이름은 산두 - 을 찾아가 뵙고 학문을 논하자 최공이 깊이 탄복하여 ‘추수빙호[秋水氷壺]’라고 칭찬하였다.  
 十八歲。往拜新齋崔公【名山斗】論學，崔公深加嘆服，稱以秋水氷壺。

19세. 칠석사에서 장원을 하였다.  
 十九歲。七夕試居魁。

22세. 성균관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二十二歲。中成均司馬試。

23세. 조부 훈도공(訓導公)의 상을 당했다.  
 二十三歲。遭祖考訓導公喪。

24세. 반궁(泮宮, 성균관)에서 노닐며 퇴계 이선생과 더불어 강학하였다. 당시 기묘사화를 겪은 뒤라 사기(士氣)가 저상하여 도학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꺼렸는데, 선생이 퇴계를 한번 보고 서로 깊이 뜻이 맞아 끊임없이 강론하고 탁마해서 매우 이택(麗澤, 여택)<sup>37)</sup>의 유익함이 있었다. 그런데 얼

37) 여택(麗澤) : 이택. 봉우(朋友)가 함께 학문을 강습하여 서로 이익을 줌을 뜻한다. 《주역(周易)》 태괘(兌卦)에 “두 못이 연결되어 있는 형상이 태(兌)이니, 군자가 이를 본받아 봉우 간

마 지나지 않아 퇴계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자, 선생은 시로서 송별했는데, ‘부지는 영남의 빼어난 분이시라, ‘이두(李杜)<sup>38)</sup>의 문장에 왕조(王趙)<sup>39)</sup>의 글씨로세’라는 구절이 있다.

二十四歲。遊泮宮，與退溪李先生講學。時經己卯士禍，士氣沮喪，諱言道學，而先生一見退溪，深相契合，源源講劇，甚有麗澤之益。未幾，退溪還鄉，先生以詩贈別，有‘夫子嶺之秀，李杜文章王趙筆’之句。

27세. 여름에 반궁(성균관)에서 노닐적에 신재 최공의 부음을 듣고 가마(加麻)<sup>40)</sup>했으며, 기일을 만나면 반드시 치재(致齋)<sup>41)</sup>하였다.

二十七歲。夏遊泮宮，聞新齋崔公訃，加麻，值其忌日，必致齋。

28세. 아들 종호가 태어나다.

二十八歲。子從虎生。

29세. 글을 지어 최신재에게 제를 올렸다.

二十九歲。爲文祭崔新齋。

31세.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 제4명(第四名)으로 합격하여 권지승문원 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로 분속되었다.

三十一歲。中別試文科丙科第四名，分隸權知承文院副正字。

32세. 여름 4월에 호당(湖堂)<sup>42)</sup>에서 사가독서(賜暇讀書)<sup>43)</sup>하였다. 선생이

에 강습한다.”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38) 이두(李杜) : 이백과 두보를 가리킨다.

39) 왕조(王曹) : 왕희지와 조맹부를 가리킨다.

40) 가마(加麻) : 문인(門人)이 스승의 상(喪)에 심상(心喪)을 입는 표시로 겹옷에 삼베 조각을 붙이는 것이다.

41) 치재(致齋) : 제관이 된 사람이 사흘 동안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일을 멀리하는 것을 이른다.

42) 호당(湖堂) : 연소한 문관들 중에 특히 문학에 뛰어난 사람을 선출하여 휴가를 주어 특별히 학업을 연마하게 한 서제로서, 세종 8년에 사가독서(賜暇讀書)의 제도를 만들고, 성종 때에는 구룡산(舊龍山)에 있던 폐사(廢寺)를 수리하여 독서당으로 하고, 이를 또 호당(湖堂)이라고도

함께 뽑힌 열두 사람과 더불어 수계(修禊)하고, 그 이름을<호당수계록(湖堂修禊錄)>이라 하였다. 겨울 10월에 홍문관 정자(弘文館正字)에 임명되었다.

三十二歲。夏四月，賜暇湖堂。先生與同選十二人修禊，名之曰<湖堂修禊錄>。冬十月，拜弘文館正字。

33세. 7월에 홍문관 저작으로 승배(陞拜)되었다.

三十三歲。陞拜弘文館著作。

34세. 봄에 모재선생의 부음을 듣고 가마하고 기일에는 역시 치재하였다. 여름 4월에 홍문관박사 세자시강원설서에 승배(陞拜)되었다. 춘궁(春宮, 동궁으로 뒤에 인종을 이룸)이 몹소 그려서 보낸 묵죽도(墨竹圖)를 받았다. 춘궁은 본래 기예가 많았으나, 일찍이 남에게 나타내 보인 적이 없었다. 오직 선생에게 직접 그린 묵죽도 1점을 하사하고 뜻을 보이며 선생에게 화축(畫軸)에 제시(題詩)를 명하였다. 이에 선생이 시를 지었다.

三十四歲。春聞慕齋先生之訃，加麻，忌日亦致齋。夏四月，陞拜弘文館博士世子侍講院說書。祇受春宮賜送親寫墨竹圖。春宮素多藝，未嘗表見於人。獨於先生，賜手寫墨竹一本，以示意，仍命先生題詩於畫軸，先生題云。

237

뿌리와 가지, 마디와 잎새가 모두 다 정미하니,	根枝節葉盡精微
바위를 친구 삼은 뜻 여기에 들어있네.	石友精神在範圍
비로소 성신(聖神) <sup>44)</sup> 이 조화에 짝함을 깨닫노니,	始覺聖神侔造化
천지와 한 덩어리여서 어김이 없으시네.	一團天地不能違

하였다.

- 43) 사가독서(賜暇讀書) : 조선시대에 국가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문운(文運)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젊은 문신들에게 휴가를 주어 독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 44) 성신(聖神) : 《맹자》 <진심 하(盡心下)>에 나온 ‘성(聖)’과 ‘신(神)’의 의미로 보인다. “대인으로서 자취 없는 화의 경지에 들면 성인이라고 하고 성인으로서 헤아려 알 수 없는 경지에 이르러면 신인이라고 한다.[大而化之之謂聖。聖而不可知之之謂神.]”라는 맹자의 말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정자(程子)가 “성인의 위에 다시 한 등급의 신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非聖人之上，又有一等神人也.]”라고 해설하였다.

그 뒤에 또 《주자대전》 1권을 하사하셨다. 6월, 홍문관부수찬에 승배(陞拜)되었다. 차자(筓子)를 올려 일을 말하였는데, 기묘제현의 신원(伸冤)을 극론(極論)한 것이다. 가을 8월, 말미를 청해 귀근(歸覲)하였다.

선생은 젊어서부터 경세(經世)의 뜻이 있어 처음 관직에 나아갔을 때[釋褐之時]<sup>45)</sup> 김안로(金安老)를 척퇴(斥退)시키고, 김문경(金文敬)과 이문원(李文元) 제현(諸賢)을 짐차(彙征, 등용)<sup>46)</sup>하여 양이 회복되는 조짐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척리(戚里)<sup>47)</sup>가 서로 알력을 일으켜 시사(時事)가 도리어 우려됨이 있자, 선생은 홀로 깊이 염려하고 그것을 분명히 알아 부모님의 연세가 높음을 들어 간절히 귀양(歸養)<sup>48)</sup>을 청하여 물러났다. 퇴계 이선생이 시를 지어 송별했다. 겨울 12월, 옥과현감(玉果縣監)에 임명되고, 춘추관(春秋官) 직함은 그대로 겸하였다. 23년 갑진 중종대왕이 승하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其後又賜《朱子大全》一帙。六月，陞拜弘文館副修撰。上劄言事，極論己卯諸賢之冤。秋八月，乞暇歸覲。先生少有經世志，釋褐之時，金安老斥退，而金文敬李文元諸賢，稍稍彙征，似有陽復之漸。然戚里相軋，時事頗有可憂者，先生獨常深念而明知之，以親年益高，懇乞歸養而去。退溪李先生以詩送之。冬十二月，除玉果縣監，仍帶春秋兼銜。二十三年，甲辰，聞中宗大王昇遐。

36세. 여름 4월, 제술관(製述官)으로 부름을 받고 나아갔으나, 곧바로 임소(任所)로 돌아왔다. 가을 7월, 인종대왕의 승하소식을 들었다. 마침내 병으로 사직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三十六歲。夏四月，以製述赴召，旋還任所。秋七月，聞仁宗大王昇遐。

45) 석갈(釋褐) : 석갈은 문과에 급제하여 처음으로 벼슬을 하는 일을 이르던 말로 천민이 입는 갈의를 벗는다는 뜻에서 유래한다.

46) 휘정(彙征) : 휘(彙)는 유(類)라는 뜻으로 《주역》 태(泰)괘에, “모여를 뽑아서 그 유로써 함께 가니 길하다.” 하였는데, 이는 군자가 등용되면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유까지 다 데리고 간다는 뜻이다.

47) 척리(戚里) : 척리는 옛날 중국 장안에 있던 동리 이름으로, 한대(漢代) 임금의 내척(內戚)·외척(外戚)이 많이 살고 있었다. 그리하여 차츰 임금 외척의 대명사가 되었다.

48) 귀양(歸養) : 고향에 돌아가거나 돌아와서 아버지를 봉양하는 것을 뜻한다.

遂謝病歸家。

37세. 여름 6월, 《효경간오발(孝經刊誤跋)》을 저술하였다. 가을 7월, 인조대왕의 초기일(初耨日)에 산에 들어가 곡(哭)하였다. 초하루는 효릉(孝陵)<sup>49)</sup>의 휘신(諱辰)인데 매번 이때마다 술을 가지고 난산(卵山)<sup>50)</sup>에 들어가 한잔 마시고 한번 곡하며 밤새 통곡하였다. 또 일찍이 <유소사(有所思)>를 지었다. 시에 이르길

三十七歲。夏六月，著《孝經刊誤跋》。秋七月，入山哭仁廟初耨。初一日，孝陵諱辰，每值

此辰，持酒入卵山中，一飲一哭，號慟竟夕。又嘗作<有所思>。詩曰，

임금 나이 바야흐로 삼십이요	君年方向立
내 나이는 삼가 <sup>51)</sup> 가 되려 하였네.	我年欲三紀
새 즐거움 반도 다 못 누렸는데,	新歡未渠央
한 번 이별함이 시위 떠난 화살같네.	一別如弦矢
내 마음 변할 줄 모르는데,	我心不可轉
세상일은 동쪽으로 흘러가는 물이네.	世事東流水
젊은나이에 해로할 짝 잃었으니,	盛年失偕老
눈 어둡고 머리털과 이빨도 쇠했네.	目昏衰髮齒
덧없이 살기 무릇 몇해였던가,	泯泯幾春秋
지금까지 아직도 죽지 않았네.	至今猶未死
백주(柏舟) <sup>52)</sup> 는 황하의 가운데에 있고	柏舟在中河
남산엔 고사리가 또 나왔을 것이네. <sup>53)</sup>	南山薇作止

49) 효릉(孝陵) : 효릉은 제12대 인종(1515~1545)과 인성왕후(1514~1577) 박씨의 능이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다.

50) 난산(卵山) : 장성군 황룡면 맥호리에 있는 산이다. 현재 이곳에는 하서 선생의 충절을 기념하기 1843년에 세운 난산비(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41호)가 세워져 있다.

51) 삼기(三紀) : 36년. 1기(紀)는 12년이다.

52) 백주(柏舟) : 《시경》 <용풍(邶風)·백주(柏舟)>를 말한다. 위나라 태자 공백이 일찍 죽자, 그의 처 공강이 재가하지 않고 절개를 지키므로 친정어머니가 개가시키려 하니, 공강이 백주라는 시를 지어 맹세하고 지조를 지켰다 한다.

53) 남산엔 …… 것이네 : 세월이 흘러 해가 바뀐 것을 의미한다. 《시경》 <소아(小雅)·채미(采

도리어 부럽도다. 주나라 왕비는  
却羨周王妃  
살아 이별하여 권이(卷耳)<sup>54</sup>를 노래하였네.  
生離歌卷耳

그 처완(悽惋)하고 격렬한 정을 각 사구(詞句)간에 나타냄이 이와 같다.  
其悽惋激烈之情, 各於詞句間者, 如此云。

38세. 봄에 성균관 전적을 제수받았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가을에도 공조  
정랑을 제수받았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시를 지어 문인들에게 보여주었다.  
三十八歲。春, 拜成均館典籍, 不就。秋, 拜工曹正郎, 不就。作詩示門人。

천지 사이에 두 사람이 있으니,  
天地中間有二人  
공자가 원기<sup>55</sup>라면 주지는 진수일세.  
仲尼元氣紫陽眞  
아무쪼록 잠심하여 만 길에 현혹 말고,  
潛心勿向他岐惑  
쇠잔한 이 늙은이 병든 몸을 달래다오  
慰此摧頹一病身

39세. 순창 점암촌(黠巖村)<sup>56</sup>에 우거하였다. 연구(聯句)에 이르길,  
三十九歲。寓居淳昌黠巖村。有聯曰,

매화꽃핀 등불 아래 술 마시니,  
梅花燈下飲  
취한 자 같고 또 배우 같네.  
如醉又如俳

라는 구(句)에서 선생이 시와 술에 마음을 의탁한 은미한 뜻을 알 수 있다.  
句, 先生寓情詩酒, 其微意可見。

40세. 봄 2월에 《대학강의발》을 저술하였다. 여름에 성균관 전적으로

薇)에 “고사리를 뜯고 고사리를 뜯음이어. 고사리가 또한 나왔을 것이다. 돌아가고 돌아감  
이어. 해가 또한 저물 것이다.[采薇采薇, 薇亦作止。曰歸曰歸, 歲亦莫止.]”라고 하였다.

54) 권이(卷耳) : 《시경(詩經)》 <주남(周南)·권이(卷耳)>편을 말한다. 후비(后妃)가 권이, 곧 도  
꼬마리를 캐면서 집을 떠나 있는 남편을 그리는 마음을 표현한 시이다.

55) 서암일기 원문에는 ‘원기(元氣) 두 글자가 빠져 있어 넣었다.

56) 순창 점암촌 : 현재 전북 순창군 쌍치면 둔전리 점암마을을 이른다.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가을에 다시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겨울 10월에 참봉공(參奉公, 아버지)<sup>57)</sup>의 상을 당해 집 서쪽 원당동에 장사지냈다. 이때부터 호를 담재(湛齋)라 하였다.

四十歲。春二月，著《大學講義跋》。夏，拜成均館典籍，不就。秋，又拜不就。冬十月，丁參奉公憂，葬家西願堂洞。是時號湛齋。

42세. 조부인(趙夫人, 어머니)<sup>58)</sup>의 상을 당했다.

四十二歲。丁趙夫人憂。

44세. 가을 9월에 홍문관 교리를 제수받았으나 전(箋)을 올려 병을 이유로 사직하였고, 끝내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 가을 9월에<sup>59)</sup> 성균관 직강(成均館直講)으로 제수되었는데 전(箋)을 올려 극력 사양했다. 겨울 10월에 임금의 특별히 본도에 명하여 양식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전을 올려 사양했다.

四十四歲。秋九月，拜弘文館校理，上箋辭病，終不膺命。秋九月，拜成均館直講，上箋力辭。冬十月，上特命本道題給食物，上箋辭之。

47세.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의 <주역을 읽고(讀周易)>시에 차운하였다. 이때 화담은 심학(心學)으로써 당대의 으뜸으로 여겨졌는데, 일찍이 <주역을 읽고(讀周易)>시를 지은 바 있다.

四十七歲。次徐花潭敬德<讀周易>詩。時花潭以心學，爲一時所宗，嘗有<讀周易>詩曰。

감(坎)과 이(離)가 작용 속에 숨어 형체에 앞서 존재하고	坎離藏用有形先
유행하는 데 이르러야 도가 비로소 전해지네.	到得流行道始傳
복희의 괘는 대략 참된 상을 본뜬 것이고	羲畫略摸真底象
문왕의 주역은 또 그림자 속의 하늘을 말한 것이네.	周經且說影中天

57) 참봉공(參奉公) : 김인후의 아버지로, 참봉 김령(金齡)이다.

58) 조부인(趙夫人) : 김인후의 어머니로, 옥천 조씨이다.

59) 가을 9월에 : 연보에는 '45세'로 나온다.

물(物)로부터 연구해서 바야흐로 조화를 알고	研從物上方知化
근원에서부터 더듬어 비로소 현묘를 깨닫는다.	搜自源頭始破玄
글로는 말 밖의 뜻을 다 말하진 못하니,	書不盡言言外意
공자가 다만 위편을 끊은 것만이 아니라네. <sup>60)</sup>	仲尼非獨絕韋編

선생은 이 시를 보고서 “성인의 말씀은 곧 천지의 도(道)이니 영(影)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고 드디어 이 시에 차운하였다.

先生見其詩曰, “聖人言, 卽天地之道也, 不可謂之影”, 遂次其韻曰。

혼연한 전체는 생보다 먼저 있어,	渾然全體有生先
대화 <sup>61)</sup> 가 유행하여 물과 함께 받았느니.	大化流行物共傳
복희의 괘를 미루어 변화를 밝히었고,	羲畫推移明變化
문왕의 역을 분석하여 인천을 증험했네.	周經剖析驗人天
공부가 극진한 곳에서 바야흐로 묘함을 알고,	工夫盡處方知妙
체인이 깊을 때 다시 현묘함을 깨닫는다.	體認深時更覺玄
상(象)과 계사(繫辭)를 세워서 언의를 다했으니,	立象繫辭言意盡
일찍이 장성 <sup>62)</sup> 께서 위편을 끊은 뜻을 생각하노라.	憶曾將聖絕韋編

또 한 수(首)를 지었다.  
又有一詩曰。

차례로 공부함은 선후가 있나니,	次第工夫有後先
공문(孔門)에서도 일찍이 무얼 먼저 전하나 하였네. <sup>63)</sup>	孔門曾說孰先傳

60) 공자 …… 아니라네 : 공자가 만년에 《주역》을 좋아하여 워낙 많이 읽은 탓에 책을 맨 가죽 끈이 세 번이나 끊어졌다고 하는 고사가 전한다.(《사기》 <공자세가(孔子世家)>)

61) 대화(大化) : 천지조화를 말한다.

62) 장성(將聖) : 공자를 가리킨다. 공자의 제자 자공(子貢)의 “우리 선생님은 실로 하늘이 이 세상에 내려 성인이 되게끔 하신 분이요.[固天縱之將聖]”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논어》 <자한(子罕)>)

63) 공문 …… 하였네 : 자유(子游)가 “자하(子夏)의 제자 아이들은 쇄소(灑掃), 응대(應對), 진퇴(進退)는 제법이지만 그런 것은 말단인 일이다. 근본이 되는 일을 시켜 보면 보잘것없을 것이다.”라고 하자, 자하가 이 말을 듣고, “아, 자유는 잘못이다. 군자의 도에 관해서 무엇을 먼저

참된 앎은 보통 행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眞知不外常行地
아래로 배워 위로 하늘에 도달하지 않음이 없네. <sup>64)</sup>	下學無非上達天
성인의 말씀 분명한데도 믿지 않으니,	未信聖人言的的
학자들 현현(玄玄) <sup>65)</sup> 에 미혹될까 근심스럽네.	翻愁學者惑玄玄
본원의 정미처로 곧바로 나아간다고 하면,	本源徑造精微處
서책을 폐하는 말폐(末弊)를 그 어찌하리오.	末弊其如廢簡編

대개 화답이 공부하는 사람들을 계도(啓導)하는 방식이 아래에서부터 배워가는 것을 소홀히 하고 돈오(頓悟)의 지름길로 이끌 우려가 있으므로, 선생이 이를 깊이 걱정하여 마침내 운(韻)을 따라 바로잡은 것이다. 蓋花潭之啓導學者，有不屑下學頓悟捷徑之慮，故深憂之，乃步其韻以訂之。

48세. 《주역관상편(周易觀象篇)》, 《서명사천도(西銘事天圖)》를 저술했다.

四十八歲。著《周易觀象篇》，《西銘事天圖》。

49세. 겨울에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과 《태극도설(太極圖說)》을 강론했다. 이때 고봉이 일재(一齋) 이항(李恒)을 찾아가서 《태극도설》을

---

전하고 무엇을 뒤로 미루어 게을리하겠는가? 제자를 가르치는 데는 초목의 경우와 같이 종류에 따라서 분별되는 것이다.[噫，言游過矣。君子之道，孰先傳焉，孰後倦焉。譬諸草木，區以別矣。]"라고 하였다.(<논어> <자장(子張)>)

64) 아래로 …… 없네 : 사람의 일을 배우고 나아가 자연의 법칙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논어》 <헌문(憲問)>의 “나는 하늘을 원망하지도 않고 사람을 탓하지도 않는다. 아래로는 인간의 일을 배우고 위로는 하늘의 이치를 터득하려고 노력할 따름인데, 나를 알아주는 분은 아마도 하늘일 것이다.[不怨天，不尤人，下學而上達。知我者，其天乎!]"라는 공자의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근사록》 <존양(存養)>에 “성현의 수많은 말씀도 그 요점을 살펴보면 단지 사람으로 하여금 농친 마음을 단속해서 다시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것일 뿐이다. 그리하여 스스로 그 마음을 찾아서 위로 하늘의 이치를 체득하는 일이 될 것이다.[聖賢千言萬語，只是欲人將已放之心，約之，使反復入身來，自能尋向上去，下學而上達。]"라는 정명도의 말이 나온다.

65) 현현(玄玄) : 도가에서 말하는 지극히 심원한 경지를 말한다. 《도덕경(道德經)》에 “현묘하고 현묘하여 모든 묘한 현상이 나오는 문이 된다.[玄之又玄，衆妙之門]”라고 하였다.

강론했는데, 일재는 태극과 음양을 일물(一物)로 여겼고 고봉은 그러다고 하여 종일토록 논란하였으나 귀일(歸一)할 수 없었다. 이때 고봉이 와서 선생을 뵈고 변란(卞難)의 득실을 가지고 질문하였는데, 선생이 고봉이 옳다고 하고서, 온종일 강론하고 파하였다.

四十九歲。冬，與奇高峯大升，講論《太極圖說》。時高峯歷訪李一齋恒，講論《太極圖說》，一齋以太極陰陽爲一物，高峯非之，終日卞難，不能歸一。至是，高峯來拜先生，以卞難得失奉質，先生以高峯爲得，竟日講論而罷。

50세. (선생이) <일재에게 보내는 편지(與李一齋書)>에서 태극과 음양이 일물(一物)이라는 잘못을 논하였다. 일재는 고봉에게 편지를 보내서 태극과 음양은 일물이라는 뜻을 극론하고 (이 극론한 뜻을) 선생에게 보내서, 고봉에게 전해주기를 요구했다. 선생은 그 편지를 보고 일재에게 소간(小柬, 짧은 편지)을 보냈는데, 그 대략에 “기군에게 보낸 간찰은 감히 의논할 것은 아니나 대개 이(理)와 기(氣)는 혼합(混合)되어 천지의 사이에 가득 찬 것으로, 모두 그 속으로부터 나와서 각기 갖추지 않은 것이 없으니, 태극이 음양을 떠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기(道器)<sup>66)</sup>의 구분은 한계가 없을 수 없으니, 태극과 음양을 일물(一物)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태극이 음양을 탄 것은 사람이 말을 탄 것과 같다.’고 했으니, 결코 사람을 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겨울에 기고봉(奇高峯)<sup>67)</sup>과 사단칠정설(四端七情說)<sup>68)</sup>을 강론했었다. 당시에 고봉이 물러나 고향에 머물고 있었는데, 매번 선생에게 나아가 의리를 토론하였다. 퇴계(退溪)의 사단칠정(四端七情), 이기호발설(理氣互發

66) 도기(道器) : 도는 무형(無形)의 추상적인 도리를 뜻하고, 기는 유형(有形)의 구체적인 사물을 뜻하는 중국 철학 용어이다. 《주역》 <계사전 상(繫辭傳上)>에, “형이상의 것을 도라 하고, 형이하의 것을 기라고 한다.[形而上者謂之道，形而下者謂之器.]”라고 하였다.

67) 기고봉(奇高峯) : 기대승(奇大升, 1527~1572)을 말한다.

68) 사단칠정설(四端七情說) : 이른바 사칠(四七) 논쟁으로서 퇴계가 정지운(鄭之雲)의 천명도(天命圖)를 보고 이를 수정함을 계기로 하여 먼저 기고봉(奇高峯)과 논쟁이 벌어졌고 이어 우계·율곡 사이의 논쟁으로 확대되었으며, 인심(人心) 도심(道心)설과 같이 명종(明宗) 14년 경 이후부터 전개된 조선 중기(中期)에 있어서의 심성 논쟁의 중심 문제였다.

說)<sup>69)</sup>을 깊게 의심하고는 선생에게 와서 질정하였다. 선생이 그를 위해 분석해서 논변하였는데 그것이 매우 통투(通透)하고 정밀(精密)하였다. 고봉이 선생에게 얻은 것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선생이 죽은 후에 고봉이 퇴계와 사단칠정, 이기호발의 잘못을 강론하였는데, 대부분 선생의 뜻을 서술하여 거의 수만 마디의 말에 달했다. 세상에 전하는 <퇴고사칠왕복서(退高四七往復書)>가 이것이다.

五十歲。〈與李一齋書〉，論太極陰陽一物之非。一齋抵書高峯，極論太極陰陽一物之意，送於先生，要傳於高峯。先生見其書。仍與一齋小東，其略曰“遺奇君之柬，不敢議爲，蓋理氣混合，盈天地之間者，無不自其中出，而無不各具，不可謂太極之離乎陰陽也。然道器之分，不能無界限，則太極陰陽，恐不可謂一物也。朱子曰‘太極之乘陰陽，如人之乘馬’，則決不可以人爲馬也”云云。冬，與奇高峯講論四端七情之說。時高峯退處於鄉，每詣先生，討論義理，而深疑退溪四端七情理氣互發之說，來質於先生。先生爲之剖析論辨，極其通透精密。高峯所得於先生者如此，故及先生歿後，高峯與退溪，講論四七互發之非，多述先生之意，殆數萬言。世所傳〈退高四七往復書〉，是也。

나정암(羅整庵)<sup>70)</sup>의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sup>71)</sup>을 논하였다. 나정암의 이

69)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 : 이황(李滉)은 “이(理)와 기(氣)가 때에 따라 발하는데, 사단(四端)은 이가 발하여 기가 따르는 것[理發而氣隨之]이고 칠정(七情)은 기가 발하여 이가 타는 것[氣發而理乘之]이다.”라고 하여 이(理)와 기(氣)가 서로 발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주희(朱熹)의 “사단은 이가 발한 것[四端理之發]이요, 칠정은 기가 발한 것[七情氣之發]이다.”라는 학설에서 근거한 것이다.

70) 나정암(羅整庵) : 명나라 중기의 문신이자 성리학자인 나흠순(羅欽順, 1465~1547)으로, 정암은 그의 호이고 자는 윤승(允升)이다. 효종(孝宗) 홍치(弘治) 6년(1493)에 진사시에 급제하여 출사하고 세종 때 일부 상서에 발탁되었으나 이를 사양하고 향리에 은거한 채 성리학 연구에 전념하였다. 주자는 만물은 기(氣)로 성립되고, 이(理)가 그 기를 통제하며 이는 기에서 독립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반해 나정암은 기를 떠난 이는 없다고 하여 이기일체론(理氣一體論)을 제창하였다. 그의 저술인 《곤지기(困知記)》 권상(上) 3장(章)에 “도심은 적연부동한 것으로, 지극히 정밀한 체(體)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은미하다. 인심은 감이수통하는 것으로, 지극히 변하는 용(用)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위태하다.[道心寂然不動者也, 至精之體不可見故微, 人心感而遂通者也, 至變之用不可測故危.]”라는 말이 나온다.

71)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 : 순(舜)임금이 우(禹)에게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하니 오직 정밀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지켜서 진실로 그 중정(中正)을 견지하라.[人心惟危, 道心惟

름은 흠순(欽順)이다. 그가 지은 《곤지기(困知記)》에서 말하기를 “도심(道心)은 성(性)이요 인심(人心)은 정(情)이다. 지극히 정밀한 체(體)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미(微)’라고 하고, 지극한 변화의 용(用)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위(危)’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소재(蘇齋) 노수신(盧守愼)이 그 설을 힘써 주장하여 “도심은 적연부동(寂然不動)하고, 인심은 감이수통(感而遂通)한다.”<sup>72)</sup>라고 하였다. 선생께서는 그것을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말하기를 “성인께서 말씀하신 인심, 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동처(動處)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선생이 죽은 뒤에 퇴계와 고봉이 모두 선생의 설을 종주로 삼아 노수신(盧守愼)의 설을 힘껏 공격했지만, 선생이 논한 모든 것들이 산일되어 전하지 않는다.

論羅整庵人心道心說。羅整庵名欽順。其所著《困知記》曰“道心，性也，人心，情也。至精之體，不可見，故曰微，至變之用，不可測，故曰危。”盧蘇齋守愼，力主其說，以爲道心寂然不動，人心感而遂通云云。先生深非之曰，“聖人所謂人心道心，蓋皆指動處而言”云云。先生歿後，退溪高峯，皆宗先生之說，力攻盧說，而先生全論，逸而不傳。

51세. 봄 정월 경오(庚午) 16일에 집 안방에서 세상을 떠났다. 3일전 무진(戊辰) 일에 선생께서 기가 평안치 않아서 약물을 올렸더니 집안 식구들에게 말하기를 “내일 상원(上元)<sup>73)</sup>에 공경히 제수를 갖추라.” 하고는 자녀들에게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게 했다. 기사(己巳)일에 선생께서 병든 몸으로 새벽에 일어나 관을 정돈하고 깨끗하게 앉아서 제사 지낼 시간을 기다렸다. 인하여 “내가 죽은 후에 을사(乙巳)년 이후의 관작(官爵)을 쓰지 말라.”고 명했다. 다음날 경오(庚午)일에 병이 위독하자 자리를 바르게 하고 의

微，惟精惟一，允執厥中。]》고 했다는 16자를 말한다. 송유(宋儒)들은 이를 ‘16자 심전[十六心傳]’이라 일컬으며, 요(堯), 순, 우 세 성인이 서로 전한 심법(心法)으로서 개인의 도덕적 수양과 국가를 다스리는 원칙으로 생각하였다.(《서경》 <大禹謨>; 임계유(任繼愈)의 《중국철학사》)

- 72) 도심은 …… 하다 : 《주역》 <계사전 상(繫辭傳上)>에 나오는 말이다. “역은 생각이 없고 하는 것도 없어 적막하게 움직이지 않다가, 느낌이 있으면 마침내 천하의 일을 통한다.[易无思也无爲也，寂然不動，感而遂通，天下之故]”라고 하였다.
- 73) 상원(上元) : 음력 정월 15일을 말하는데, 7월 15일 백중(百中)의 중원(中元)과 10월 15일의 하원(下元)을 합해서 삼원(三元)이라고 한다.

연하게 죽음을 맞이하였다.

선생께서 어렸을 때에 놀재(訥齋) 박상(朴祥)<sup>74</sup>이 일찍이 보고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예로부터 기인은 끝이 좋은 자가 없었는데 오직 이 아이는 마땅히 끝이 좋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과연 그 말을 징험했다고 한다. 3월 계유(癸酉)일에 장성현(長城縣) 대맥동(大麥洞) 원당산(願堂山) 자좌오향(子坐午向)의 언덕에 장사지냈다.

五十一歲。春正月庚午十六日，易筮于正寢。前三日戊辰，先生氣不平，進藥物，謂家人曰，“來日上元，敬備牲酒。”命子女奠于祠堂。己巳，先生扶病夙興，整冠危坐，以候祭祀之頃。因命“吾死後，勿書乙巳以後官爵。”翌日庚午，疾革，正席脩然而歿。先生童時，朴訥齋祥嘗見之，謂人曰，“自古，奇童無令終者，惟此人當令終也”，其言果驗也云。三月癸酉，葬于長城縣大麥洞願堂山子坐午向原。

대명 무종 43년(1564) 갑자에 옥과의 유생들이 영귀정사(詠歸亭祠)를 세웠다.

목종황제 융경 4년, 선조대왕 3년 경오년(1570)에 순창의 유생들이 화산사(華山祠)<sup>75</sup>를 세웠다.

신종황제 만력 18년, 경인년(1590)에 장성의 기산(岐山)<sup>76</sup>에 서원을 세웠는데, 문인 변성온(卞成溫)<sup>77</sup> 등이 창건한 것이다.

- 74) 박상(朴祥, 1474~1530) : 자는 창세(昌世), 호는 놀재(訥齋), 본관은 충주(忠州)이다. 1515년 담양 부사로 재직할 때에 순창 군수 김정과 함께 상소하여 중종반정으로 폐위된 단경왕후 신씨의 복위를 주장하고, 또한 임금을 협박하여 국모를 내쫓은 박원종 등 세 훈신에게 죄주기를 청하다가 중종의 노여움을 사서 오림역(烏林驛)에 유배되었다.
- 75) 화산사(華山祠) : 전북 순창군 유등면 괴정리에 소재. 지방 유림의 공의로 신말주(申末舟), 김정(金淨), 김인후(金麟厚), 고경명(高敬命), 김천일(金千鎰) 등의 덕행과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그 뒤 박상(朴祥), 유옥(柳沃), 신공제(申公濟), 양사형(楊士衡), 김시서(金時瑞) 등을 추가배향 하였다. 1871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명령으로 훼철되었다. 하서 김인후를 모신 곳은 장성의 필암서원(筆巖書院), 순창의 화산사(華山祠), 옥과의 영귀정서원(詠歸書院) 등이다.
- 76) 기산(岐山) : 장성군 황룡면 기산리로, 현재 장성군 장성읍 기산리에 해당. 현재 필암서원은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에 소재한다.
- 77) 변성온(卞成溫, 1530~1614) : 자는 여운(汝潤), 호는 호암(壺巖), 본관은 초계(草溪)이다. 고창 출신으로, 동생이 변성진(卞成振)이다. 김인후의 문인으로, 장성에 필암서원을 건립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의종황제 승정 갑신 후 15년, 효종대왕 9년 무술년(1658)에 전라도 유생들이 상소하여 서원에 사액해주길 청하였고 윤허를 받았다.

19년, 현종대왕 3년 임인년(1662)에 ‘필암서원’이라고 사액을 하고 예관을 보내어 사제(賜祭)<sup>78</sup>하였다.

25년, 무신년(1668) 봄에 특별히 ‘자헌대부 이조판서 겸 지경연 의금부사 춘추관 성균관사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오위도총부도총관 세자좌빈객’을 증직하였다.

26년, 기유년(1669) 가을에 ‘문정(文靖)’이라는 시호를 내려주었다. -도덕이 있고 널리 아는 것을 일러 문(文)이라 하고, 관후하고 화락하여 천수를 마치는 것을 일러 정(靖)이라 함.-

29년, 임자년(1672)에 신도비명이 이루어졌는데, 우암 송시열(宋時烈)이 찬술하였다.

32년, 숙종대왕 원년 을묘년(1675)에 묘표(墓表)가 이루어졌는데, 문곡 김수항(金壽恒)이 찬술하였다.

128년, 영종대왕 47년 신묘년(1771)에 전라도 유생 양학연(梁學淵)<sup>79</sup> 등이 상소를 올려 선생을 문묘에 종향해주길 청하였으나 관철되지 못했다. 134년, 정종대왕 원년 정유년(1777)에 묘지명이 이루어졌는데, 본암 김중후(金鍾厚)가 찬술한 것이다.

143년, 병오년(1786) 3월에 예관을 보내 사제(賜祭)할 때, 왕[정조]께서 희릉(禧陵)<sup>80</sup>과 효릉(孝陵)<sup>81</sup>에 전배(展拜, 참배)를 하면서 하교하길 “옛 유신(儒臣) 김인후의 계우(契遇)<sup>82</sup>는 천고에 드문 것이라고 할 만하다. 본릉을 배알한 후에 어찌 표명하는 일이 없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고 해조

78) 사제(賜祭) : 임금이 신하가 죽었을 때, 칙사를 보내어 죽은 신하에게 제사를 지내 주던 일을 말한다.

79) 양학연(梁學淵, 1708~1776) : 자는 사우(士愚), 호는 지촌(支村), 본관은 제주이다. 김인후의 사위인 양자징(梁子澂)의 현손으로, 1728년에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 머물면서 장의를 지냈다. 양자징은 담양 소재원의 주인 양산보의 아들이다.

80) 희릉(禧陵) : 중종의 계비 장경왕후(章敬王后, 1491~1515) 윤씨의 능으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다.

81) 효릉(孝陵)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인종과 비 인성왕후(仁聖王后) 박씨의 능이다.

82) 계우(契遇) : 현군(賢君)과 현신(賢臣)이 서로 만나 정의가 돈독함을 이른다.



(該曹)에 명하여 날을 잡고 치제(致祭)하게 했다.

같은 해 8월에 팔도의 유생인 박영원(朴盈源) 등이 상소를 올려 문묘에 종향할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했다.

153년, 병진년(1796) 여름에 방외유생 김무순(金懋淳) 등이 상소를 올려 문묘에 종향해주길 청하였다. 7월에는 팔도 유생 채홍신(蔡弘臣) 등이 상소를 올려 선생과 조문열(趙文烈, 趙憲), 김문경(金文敬, 金安國)을 문묘에 종향해주길 청하였다. 8월에는 경외 유생 이규남(李奎南) 등이 상소를 올려 선생과 조문열을 문묘에 종향해주길 청하였고, 9월에는 관학 유생 심래영(沈來永) 등이 상소를 올려 선생을 문묘에 종향해주길 청하였으며, 관학 유생 이광헌(李光憲) 등도 상소를 올려 문묘에 종향해주길 청하였다.

大明武宗四十三年甲子, 玉果章甫建詠歸亭祠。

穆宗皇帝隆慶四年。宣祖大王三年, 庚午, 淳昌章甫, 建華山祠。

神宗皇帝萬曆十八年。庚寅, 建書院于長城之岐山, 門人卞成溫等勅建。

毅宗皇帝崇禎甲申後十五年。孝宗大王九年, 戊戌, 全羅道儒生, 上疏請書院賜額, 蒙允。

十九年。顯宗大王三年, 壬寅, 宣額筆巖書院, 遣官賜祭。

二十五年。戊申, 春, 特贈資憲大夫, 吏曹判書, 兼知經筵, 義禁府, 春秋館成均館事, 弘文館大提學, 藝文館大提學, 五衛都摠府都摠管, 世子左賓客。

二十六年。己酉, 秋, 贈諡文靖, 道德博聞曰文, 寬樂令終曰靖。

二十九年。壬子, 神道碑銘成, 尤庵宋文正公時烈撰。

三十二年。肅宗大王元年, 乙卯, 墓表成, 文谷金文忠公壽恒撰。

一百二十八年。英宗大王四十七年, 辛卯, 全羅道儒生梁學淵等, 疏請從享先生于文廟, 未徹。

一百三十四年。正宗大王元年, 丁酉, 墓誌銘成, 本庵金鍾厚撰。

一百四十三年。丙午, 春三月, 上遣官賜祭時, 上展拜禧陵孝陵, 下教曰, “故儒臣金麟厚, 契遇可謂曠絕千古, 本陵展謁, 豈可無示意之舉”, 令該曹卜日致祭。

秋八月, 八道儒生朴盈源等, 疏請從享文廟, 未蒙允。

一百五十三年。丙辰, 夏, 方外儒生金懋淳等, 疏請從享文廟。秋七月, 八

道儒生蔡弘臣等, 疏請從享先生及趙文烈金文敬于文廟。八月, 京外儒生李奎南等, 疏請從享先生及趙文烈于文廟。九月, 館學儒生沈來永等, 疏請從享先生于文廟。館學儒生李光憲等, 疏請從(享)文廟。

1914년 4월 18일. 무술. 맑음.

十八日。戊戌。陽。

1914년 4월 19일. 기해. 흐림. 비가 약간 뿌렸다.

十九日。己亥。陰。雨少灑。

1914년 4월 20일. 경자. 흐리고 비. 오후에 개었다가 석양 무렵에 비가 내렸다.

二十日。庚子。陰雨。午後晴，夕陽雨。

250

1914년 4월 21일. 신축. 흐림.

二十一日。辛丑。陰。

1914년 4월 22일. 임인. 맑음.

二十二日。壬寅。陽。

1914년 4월 23일. 계묘. 맑음. 절곡의 <녹문(鹿門) 임성주(任聖周)<sup>83)</sup>의 편지에 대한 답장<sup>84)</sup>을 기록해둔다.

83) 임성주(任聖周, 1711~1788) : 자는 중사(仲思), 호는 녹문(鹿門), 본관은 풍천(豐川)이다. 충청도 청풍 출신으로, 아버지는 함흥관직(適)이며, 어머니는 호조정랑 윤부(尹扶)의 딸이다. 이재(李穡)의 문인이다. 기일분수설(氣一分殊說)을 통해 이기(理氣)를 기일원론적(氣一元論的) 관념으로 통일했다.

84) 《절곡집(節谷集)》 권2 서(書)에 들어있다.

二十三日。癸卯。陽。記節谷<答任鹿門聖周書>。

근래 《독서록(讀書錄)》을 상고해보니, 문청공(文淸公)<sup>85)</sup>이 말하기를 “눈을 들어보면 사물이 존재하고, 사물이 존재하는 데는 도(道)가 있으니, 이른바 형이하(形而下)·형이상(形而上)이라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예컨대 음양오행(陰陽五行)이 유행(流行)하여 만물을 발생시키는 것은 비(費)이고, 그 화생(化生)하는 기틀로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은(隱)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성인이 도(道)를 논함에 대부분 이(理)와 기(氣)를 겸하여 말하였다. 예컨대 이른바 ‘일음일양(一陰一陽)을 도(道)라고 한다.’라거나 ‘형이상하(形而上下)’를 말하는 것이 모두 이기(理氣)를 겸하여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마땅히 형체가 있는 곳에서도 무형의 이치를 묵묵히 알아야 하니, 이른바 ‘비이은(費而隱)<sup>86)</sup>이라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볼 수 있는 것이 기(氣)이며, 기(氣)의 소이연(所以然, 까닭)이 바로 이(理)이다. 이(理)는 비록 기(氣)를 떠날 수 없지만 독립해 있고, 또한 기(氣)와 섞이지 않지만 별개인 것도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형이상(形而上)의 것을 도라고 한다[形而上者謂之道]’는 것은 은(隱)이고, ‘형이하의 것을 기(器)라고 한다[形而下者謂之器]’는 것은 비(費)이다.”<sup>87)</sup>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8권 이상에서 뒤섞여 나오고 있으니, 특별히 초년의 소견이어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손수 쓴 글로, 한두 번에 그친 것이 아니니, 또 우연히 적절함을 잃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85) 문청공(文淸公) : 문청은 명나라 이학가(理學家)인 설선(薛瑄)의 시호이다. 그의 저서인 《독서록》은 독서록 11권, 속록 12권의 전체 2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가 수시로 얻은 것을 기록하여 자주 볼 수 있게 한 것으로, 대부분 이기(理氣)와 성리(性理) 문제를 다루었다.(《명사(明史)》 권282 <유림열전(儒林列傳)>)

86) 비이은 : 《중용장구(中庸章句)》의 비은장(費隱章)에, “군자의 도는 비(費)하되 은(隱)하다. [君子之道, 費而隱]에 대해 주자(朱子)는 “비(費)는 용(用)의 넓음이고, 은(隱)은 체(體)의 은미함이다.”라고 하였다.

87) 형이상의 …… 하였다 : 《주역》 <계사전 상(繫辭傳上)>의 “형이상의 것을 도라고 하고 형이하의 것을 기라고 한다.[形而上者謂之道, 形而下者謂之器]”라는 말을 은과 비로 인용하였다.

近考《讀書錄》，文清之言曰，“舉目而物存，物存而道在，所謂形而下形而上者是也。”又曰，“如陰陽五行流行，發生萬物費也，而其所以化生機不可見者隱也。”又曰，“聖人論道，多兼理氣而言。如所謂一陰一陽之謂道，而形而上下之語，皆兼理氣言也。”又曰，“要當於有形處，默識無形之理，所謂費而隱也。”又曰，“可見者是氣，氣之所以然，便是理。理雖不離氣而獨立，亦不雜氣而無別。”又曰，“形而上者謂之道，隱也，形而下者謂之器，費也。”此等說，雜出於八卷以上，則非特初年所見爲然也。皆是手書，而非但一再而已，則又非偶失稱停而然也。

1914년 4월 27일. 정미. 맑음.

二十七日. 丁未. 陽.

1914년 4월 28일. 무신. 맑음.

二十八日. 戊申. 陽.

252

1914년 4월 29일. 기유. 흐리고 비. 오후에 갸.

二十九日. 己酉. 陰雨. 午後晴.

1914년 4월 30일. 경술. 맑음. 신암(新庵)의 회갑 시와 원운(原韻) 시에 차운하였다.

三十日. 庚戌. 陽. 次新庵壽韻與原韻

<신암의 회갑 시에 차운하다>

次新庵壽韻

- 신암은 김병민(金炳敏)이며, 신촌(新村)<sup>88</sup>에 거주한다.- 【新庵, 則金炳敏, 居新村】

친구의 회갑 노래를 갹재하여 부르니,<sup>89</sup>

廣載故人花甲歌

88) 신촌(新村) : 현재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반룡리를 말한다.

89) 갹재하여 부르니 : 《서경》 <익직>에 고요(皐陶)가 순(舜)의 노래에 이어 화답하는 노래를

육십년 세월이 또다시 다듬어진 것 같구려.  
 훈(桴)과 지(箎)를 부니 담락<sup>90)</sup>이라 하겠고,  
 비파랑 거문고 타니 또한 서로 화락하도다.<sup>91)</sup>  
 손님들 축하하는 말에 한마음으로 좋아라,  
 자식들 축수(祝壽)의 술잔에 큰 복도 많구려.  
 본관이 안동이라 조상의 음덕도 크니,  
 덕성(德星)<sup>92)</sup>이 응당 이 전라도에 비추겠지.

光陰六十復如磨  
 吹以桴箎云湛樂  
 鼓之琴瑟亦相和  
 佳賓賀語同心好  
 肖子壽卮景福多  
 系出安東餘蔭大  
 德星應照是全羅

<또 원운시에 차운하다>

又次原韻

옛 터에 새로이 한 정사를 세우니,  
 진실로 어진 사람은 거처하는 곳 넓도다.<sup>93)</sup>  
 무성한 숲에 그칠 줄 아는 새처럼 깃들고,<sup>94)</sup>  
 물고기가 큰물에서 마음껏 헤엄쳐오는 것처럼 시원하네.<sup>95)</sup>

裁新因舊一精廬  
 眞是仁人廣所居  
 棲若邱隅知止鳥  
 沛如大壑縱來魚

부른 것을 갱재가(廣載歌)라 한 데서 임금의 말이나 노래에 신하가 화답하는 것을 갱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앞시에 차운한 것을 말한다.

- 90) 훈(桴)과 지(箎)를 부니 담락 : 훈지(桴箎)는 형제 혹은 친구 사이의 화목과 조화를 비유할 때 쓰는 표현으로, 《시경(詩經)》 <소아(小雅)·하인사(何人斯)>에 “만형은 훈을 불고 들찌 형은 지를 분다.[伯氏吹桴, 仲氏吹箎.]”라는 말이 있다. 담락(湛樂)은 《시경》 <소아(小雅)·상체(常棣)>에 “형제간이 서로 화합하여야만, 화락하고도 즐거우리라.[兄弟既翕, 和樂且湛.]”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 91) 비파랑 …… 화락하도다 : 처자식들이 화합에 화락한 모습을 말하고 있다. 《시경》 <소아(小雅)·상체(常棣)>에 “처자들과 좋아하고 화합함이, 비파와 거문고를 타는 듯하네. [妻子好合, 如鼓瑟琴.]”라고 한 말이 있다.
- 92) 덕성(德星) : 목성(木星). 상서(祥瑞)로운 표시(表示)로 나타나는 별. 서성(瑞星)이라고도 하며, 현인(賢人)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 93) 진실로 …… 넓도다 : 정사(精舍)를 묘사하면서 그곳에 사는 사람을 찬미한 것이다. 《맹자》 <등문공 하(滕文公下)> 대장부장(大丈夫章)에 “천하의 넓은 집[仁]에 거처하고, 천하의 바른 자리[禮]에 서며, 천하의 대도[義]를 행한다.[居天下之廣居, 立天下之正位, 行天下之大道.]”라는 말이 있다.
- 94) 무성한 …… 깃들고 : 《대학장구(大學章句)》 전 3장(傳三章)에,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피골피골 피꿀새는 숲이 무성한 곳에 그친다.[緝蠻黃鳥 止于丘隅.]’고 했거늘, 공자가 이르기를, ‘새도 그 그칠 바를 알거니, 사람치고 새만도 못해서야 되겠는가.[於止知其所止 可以人而不如鳥乎.]’고 했다.”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시경(詩經)》은 <소아(小雅)·면만(緝蠻)>을 말한다.
- 95) 물고기가 …… 시원하네 : 한(漢)나라 왕포(王褒)의 <성주득현신송(聖主得賢臣頌)>에 “큰 물고기가 큰 바다를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것처럼 시원스럽다.[沛乎若巨魚縱大壑.]”라는 말이 나온다.

오동나무 정자에 달 뜨면 술 부르기 한가롭고	梧軒得月間招酒
대나무 창은 남향이어서 책 보기에 좋다네.	竹牖向陽合看書
진덕수업 여러 날에 품행은 안에서 이루어지고	進修多日行成內
화기(和氣)가 저절로 생겨남에 복(福)도 따르네.	和氣自生福有餘

1914년 5월 1일. 신해. 맑음. 홀연히 하서(河西) 선생의 수훈인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은 모두 동처(動處)를 가리킨다.[人心道心皆指動處]’는 설에 감동하여 기록했다.

五月。初一日。辛亥。陽。忽感河西先生垂訓, ‘人心道心皆指動處’說而記之。

1914년 5월 2일. 임자. 맑음.

二日。壬子。陽。

1914년 5월 3일. 계축. 흐림. 저녁에 비.

三日。癸丑。陰。夕雨。

1914년 5월 4일. 갑인. 흐림.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四日。甲寅。陰。終日雨。

1914년 5월 5일. 을묘. 잠깐 개었다가 잠깐 비오고 또 잠깐 갠. 근래에 누에가 크게 붙어나서 유명하(柳炳夏) 집으로 이우(移寓)하였다. 병하는 집안을 잘 다스려서 가문이 화목하니, 사람으로 하여금 흠탄(欽歎)하게 한다.

五日。乙卯。乍晴而乍雨又乍晴。近日蠶事興, 而移寓于柳炳夏宅。炳夏善爲理家, 家門雍睦, 令人欽歎。

1914년 5월 6일. 병진. 맑음.

六日。丙辰。陽。

1914년 5월 7일. 정사. 맑음.

七日。丁巳。陽。

<유병하에게 주는 시>

은근한 정으로 친밀하여,  
담소하다 천중절을 지냈네.  
비록 분년<sup>96)</sup>이 밋다고 말할지라도,  
내왕하다가 저절로 상통하였네.

贈柳炳夏

殷勤情好密  
談笑過天中  
雖云分年惡  
來往自相通

(장동으로) 돌아왔다.

還次。

255

1914년 5월 8일. 무오. 맑음.

八日。戊午。陽。

1914년 5월 9일. 기미. 흐림.

九日。己未。陰。

1914년 5월 10일. 경신. 흐림.

十日。庚申。陰。

1914년 5월 11일. 신유. 맑음.

96) 분년(分年) : 농작물의 풍흉에 따라 매년 농지에 조세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十一日。辛酉。陽。

1914년 5월 12일. 임술. 흐림.

十二日。壬戌。陰。

1914년 5월 13일. 계해. 맑음.

十三日。癸亥。陽。

1914년 5월 14일. 갑자. 흐리고 비. 사람들이 만족하게 생각하였다.

十四日。甲子。陰雨。人以爲滿足。

1914년 5월 15일. 을축. 비가 개고 맑음. 오늘은 미암선생(眉岩先生)의  
휘신(諱辰, 기일)이다. 수업을 하지 않았다.

十五日。乙丑。晴陽。是日卽眉岩先生諱辰也。廢教授。

1914년 5월 16일. 병인. 맑음.

十六日。丙寅。陽。

1914년 5월 17일. 정묘. 맑음.

十七日。丁卯。陽。

1914년 5월 18일. 무진. 맑음.

十八日。戊辰。陽。

1914년 5월 19일. 기사. 맑음. 집으로 돌아왔다.



十九日。己巳。陽。歸巢。

1914년 5월 20일. 경오. 맑음. (장동으로) 돌아왔다.

二十日。庚午。陽。還次。

1914년 5월 21일. 신미. 맑음.

二十一日。辛未。陽。

1914년 5월 22일. 임신. 흐리고 비.

二十二日。壬申。陰雨。

1914년 5월 23일. 계유. 흐리고 비.

二十三日。癸酉。陰雨。

1914년 5월 24일. 갑술. 맑.

二十四日。甲戌。晴。

1914년 5월 25일. 을해. 맑음. 옥과(玉果) 목동(木洞)에 사는 정해필(鄭海弼)이 와서 말하길, “지금에 이르러 향교의 교궁(校宮)과 교토(校土)를 모두 일본에게 빼앗기겠다고 생각하여 그 일로 서울에 갔는데, 태극종교(太極宗敎)<sup>97)</sup>가 경성 서부 적선방(積善坊) 월궁동(月宮洞)<sup>98)</sup>에 있다는 것을 듣고, 가서 보니 주장자(主張者)는 여영조(呂永祚)<sup>99)</sup>였다.

97) 태극종교(太極宗敎) : 1909년 을사오적 암살 계획 등에 참여했던 여영조와 윤충하, 권상익 등이 유교 문화 수호 및 국권 회복을 모색하기 위해 만든 단체이다. 정식 명칭은 ‘태극교종교화’ 혹은 ‘태극교종’이다.

98) 월궁동(月宮洞)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에 있던 마을이다.

99) 여영조(呂永祚, 1862~?) : 경상북도 김천에서 태어났으며 호는 일재(一齋)이다. 일제의 을미

통문을 꺼내 보여주었는데, 통문일자는 곧 공자 탄강 2461년 경술년(1910)이었다. 이어서 교사로 오도록 권하면서, 제유(諸儒)의 이름도 받아오기를 권하였다. 또한 공자교(孔子教)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하였다.

二十五日。乙亥。陽。玉果木洞鄭海弼來云，“竊想至今，鄉校校宮與校土，皆見奪於日本，事上京，聞有太極宗教在京城西部積善坊月宮洞，往觀之，主張者呂永祚。出示通文，通文日字，乃孔子誕降二千四百六十一年，庚戌也。因爲勸教師來，勸諸儒納名，亦云孔子教。”

1914년 5월 26일. 병자. 맑음.

二十六日。丙子。陽。

1914년 5월 27일. 정축. 맑음.

二十七日。丁丑。陽。

1914년 5월 28일. 무인. 흐림.

二十八日。戊寅。陰。

1914년 5월 29일. 하지. 기묘. 흐림. 밤에 비가 왔다.

二十九日。夏至。己卯。陰。夜雨。

1914년 5월 30일. 경진. 흐리고 비.

---

사변과 을미개혁에 맞서 1895년 12월 통문을 돌리고 의병을 일으키려고 했으나 실패하였다. 1904년 허위·여중룡 등이 조직한 충의사(忠義社)에 가담하여 배일 언론 투쟁을 적극 전개하였다. 1909년 5월 여영조는 윤충하·권상익 등과 기존의 개동교(開東教)를 태극교로 확대 개편하였다. 1910년 일제 강점 이후 여영조는 독립의군부에 가담하여 활동하였다.

三十日。庚辰。陰雨。

1914년 윤5월 1일. 신사. 흐리고 비.

閏五月。初一日。辛巳。陰雨。

1914년 윤5월 2일. 임오. 비가 개고 맑음. 오늘 밤 별이 달 가운데로 들어갔다.

二日。壬午。晴陽。是夜星入月中。

1914년 윤5월 3일. 계미. 흐림. 가랑비가 왔다.

三日。癸未。陰。小雨。

1914년 윤5월 4일. 갑신. 맑다가 흐림. 집으로 돌아왔다.

四日。甲申。陽陰。歸巢。

1914년 윤5월 5일. 을유. 흐리고 비.

五日。乙酉。陰雨。

1914년 윤5월 6일. 병술. 맑음. 장동으로 돌아왔다.

六日。丙戌。陽。還獐洞。

1914년 윤5월 7일. 정해. 반쯤 흐리고 반쯤 맑음. 비 온 흔적만 있다.

七日。丁亥。半陰半陽。有雨痕。

1914년 윤5월 8일. 무자. 맑음.

八日。戊子。陽。

1914년 윤5월 9일. 기축. 맑음.

九日。己丑。陽。

1914년 윤5월 10일. 경인. 맑음.

十日。庚寅。陽。

1914년 윤5월 11일. 신묘. 흐리고 비.

十一日。辛卯。陰雨。

1914년 윤5월 12일. 임진. 비오고 흐림.

十二日。壬辰。雨陰。

1914년 윤5월 13일. 계사. 흐리고 비. 오후에 갸.

十三日。癸巳。陰雨。午後晴。

1914년 윤5월 14일. 갑오. 맑음.

十四日。甲午。陽。

1914년 윤5월 15일. 을미. 맑음. 비가 잠깐 지나감. 근래에 개가 미쳐서 소를 무는 일이 많아, 하루 사이에 소가 2마리나 죽었다.

十五日。乙未。陽。雨乍過。近多狗狂咬牛，一日間死牛二隻。

1914년 윤5월 16일. 병신. 흐림. 잠깐 비오고 잠깐 갸. 오늘 <<퇴고이기

지변(退高理氣之辨)》<sup>100</sup>을 보았다. 긍경(肯綮, 중요한 핵심처)이 잘 통하지 않음에 문득 책을 덮고, 당 위에 서서 궁리하는 생각을 내려놓으니, 일심(一心)이 허정(虛靜)<sup>101</sup>해지고, 일신(一身)이 작아져서 마치 큰 곡식창고의 낱알[太倉稊米]<sup>102</sup>과 같았다. 내려다보고 올려다보는 사이에 천지가 무한하고, 지극히 고요한 가운데 편벽되고 치우침이 없게 되어 안과 밖을 모두 잊어버리는 지경에 이르면,<sup>103</sup> 적연부동(寂然不動)하여 확연대공(廓然大公)해질 것이다. 홀연히 두 선생이 변설한 것에 다시 감동하여 머리를 숙여서 읽고, 우러러서 생각했다.

十六日。丙申。陰。乍雨乍晴。是日也，看《退高理氣之辨》。肯綮難通，輒掩卷，而立於堂上，放下窮思，一心虛靜，一身之微，如太倉稊米。俯仰之間，堪輿無垠，以至於至靜之中，無所偏倚，而內外兩忘，寂然不動，廓然大公矣。忽然復感兩先生所辨之說，俯而讀之，仰而思之。

1914년 윤5월 17일. 정유. 비가 흠뻑 내렸으며 오후에 갸.

261

十七日。丁酉。雨洽注，午後晴。

1914년 윤5월 18일. 무술. 맑음.

十八日。戊戌。陽。

100) 《퇴고이기지변(退高理氣之辨)》: 《퇴계고봉왕복서(退溪高峯往復書)》를 말함. 《퇴계고봉왕복서》는 이황과 기대승이 태극(太極)과 사단칠정(四端七情)에 관한 설에서 각기 의견이 달라 여러 번 편지를 왕복하며 번난(辯難)한 서찰들을 모은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퇴계집》과 《고봉집》 및 《사단칠정분리왕복서(四端七情分理往復書)》 등에 실려 있다.

101) 허정(虛靜): 아무런 생각도 없고 마음이 가라앉아 고요함, 또는 그런 정신 상태를 말한다.

102) 태창제미(太倉稊米): 큰 곡식 창고에 좁쌀 한 톨이란 말로, 지극히 미세함을 비유한 말이다.(<장자(莊子)> <추수(秋水)>)

103) 지극히 …… 이르면: 《중용장구》 제1장에 “계신공구로부터 검속하여 지극히 고요한 가운데 편벽되고 치우친 것이 없게 되어 그것을 지켜서 잃지 않는 데 이르면 그 중을 지극히 하여 천지가 제자리를 잡을 것이다.[自戒懼而約之，以至於至靜之中，無所偏倚，而其守不失，則極其中而天地位矣.]”라고 하였다.

1914년 윤5월 19일. 기해. 흐림.

十九日。己亥。陰。

1914년 윤5월 20일. 경자. 반쯤 흐리다 반쯤 맑음.

二十日。庚子。半陰半陽。

1914년 윤5월 21일. 신축. 맑음. 바람이 없고 매우 뜨거워서 물속의 물고기  
기와 미꾸라지가 많이 죽었다.

二十一日。辛丑。陽。無風極熱，水中魚鱖多死。

1914년 윤5월 22일. 임인. 맑음.

二十二日。壬寅。陽。

1914년 윤5월 23일. 계미. 맑음.

二十三日。癸卯。陽。

1914년 윤5월 24일. 갑진. 맑음. 아침노을[朝霞]이 졌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풍년의 징조로 여겼다.<퇴고사단이기변(四端理氣辨)>삼십구판(三十九板)을 보았다. 퇴계선생의 말에 “이기(理氣)를 겸하고 선악이 있는 것은 비단 정(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性)도 그러하다. 어찌 이것을 가지고 나눌 수 없다는 증거로 삼을 수 있겠는가?” -이(理)가 기(氣) 가운데 있다는 것으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성(性)도 그러하다고 말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의심이 있어 기록한다. -아마도 이것은 정자가 말한 “악도 또한 성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惡亦不可不謂之性也]”<sup>104)</sup>를 가리킨 듯하다. 그러나 온전히 기질지성만을 가리키는 것

은 아니다.-

二十四日。甲辰。陽。朝霞，時人以爲有年之徵。看<退高四端理氣辨>三十九板。退溪先生之言曰，“兼理氣有善惡，非但情爾，性亦然矣。安得以是爲不可分之驗耶?”【從理在氣中處言，故性亦然矣。】有疑故記之。【恐指是程子曰，‘惡亦不可不謂之性也’哉。然而抑非全指氣質之性也。】

1914년 윤5월 25일. 기사. 맑음.

二十五日。己巳。陽。

1914년 윤5월 26일. 병오. 맑음.

二十六日。丙午。陽。

1914년 윤5월 27일. 정미. 맑음.

二十七日。丁未。陽。

1914년 윤5월 28일. 무신. 맑음.

二十八日。戊申。陽。

1914년 윤5월 29일. 맑음. 기유.

104) 악(惡)도 …… 없다 : 이 말은 《근사록(近思錄)》 권1 <도체(道體)>에 보인다. 정호(程顥)가 이르기를, “낳는 것을 성(性)이라고 이르니, 성(性)은 바로 기(氣)이고 기(氣)는 바로 성(性)이라는 것은 생(生)을 이른다. 사람이 태어날 때에 받은 기품(氣稟)은 이치상 선악이 있 기 마련이나 성(性) 가운데에 원래 이 두 물건이 상대하여 나온 것은 아니다. 어릴 때부터 선한 사람이 있고 어릴 때부터 악한 사람이 있으니, 이는 기품에 그러함이 있어서이다. 선(善)은 진실로 성(性)이지만, 악(惡)도 성(性)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生之謂性, 性即氣氣即性, 生之謂也. 人生氣稟, 理有善惡, 然不是性中元有此兩物相對而生也. 有自幼而善, 自幼而惡, 是氣稟有然也. 善固性也, 然惡亦不可不謂之性也.]”라고 하였다.

二十九日。陽。己酉。

1914년 6월 1일. 경술. 맑음.

六月。初一日。庚戌。陽。

1914년 6월 2일. 신해. 맑음.

二日。辛亥。陽。

1914년 6월 3일. 임자. 맑음. 근래 가뭄이 매우 심하다. 또 악수(惡獸)의 횡행함이 있어 옥과(玉果) 등지에서 많은 인명이 상하게 되자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였다.

三日。壬子。陽。近日日旱太甚。又有惡獸橫行，玉果等地，多傷人命，人皆畏之。

264

1914년 6월 4일. 계축. 맑음. 바람은 남북방향으로 불고, 구름은 건술(乾戌)<sup>105</sup>방향이다.

四日。癸丑。陽。風南北，雲乾戌。

1914년 6월 5일. 갑인. 흐림. 큰 바람이 불고, 저녁에 비가 내렸다.

五日。甲寅。陰。大風夕雨。

1914년 6월 6일. 을묘. 흐리다 비오고 바람.

六日。乙卯。陰雨風。

105) 건술(乾戌) : 건술방(乾戌方)은 서쪽에서 북으로 30도~45도 방향이다.



1914년 6월 7일. 병진. 맑음.

七日。丙辰。陽。

1914년 6월 8일. 정사. 맑음.

八日。丁巳。陽。

1914년 6월 9일. 무오. 흐림. 집으로 돌아왔다. 며느리가 윤달 14일에 딸을 낳았다.

九日。戊午。陰。歸巢。媳婦生女於閏月十四日。

1914년 6월 10일. 기미. 흐림. 장동으로 돌아와 머물렀다.

十日。己未。陰。還獐洞留。

1914년 6월 11일. 경신. 흐림. 취우(驟雨, 소나기)가 간간이 내렸다.

十一日。庚申。陰。驟雨間下。

1914년 6월 12일. 신유. 흐리고 비.

十二(日。辛)酉。陰雨。

1914년 6월 13일. 임술. 흐렸다 맑았다 함. 잠시 비가 오다 잠시 개었다 함.

十三日。壬戌。或陰或陽。乍雨乍晴。

1914년 6월 14일. 계해. 맑게 갠.

十四日。癸亥。晴陽。

1914년 6월 15일. 갑자. 흐림. 새벽 무렵에 우레가 놀래키더니 폭우가  
흡족하게 내리고, 오후에 맑게 개었다.

十五日。甲子。陰。曉頭震驚，暴雨洽注，午後晴陽。

1914년 6월 16일. 맑음. 소나기[驟雨]가 간간이 내렸다.

十六日。乙丑。陽。驟雨間下。

1914년 6월 17일. 병인. 갸.

十七日。丙寅。晴。

1914년 6월 18일. 정묘. 맑음. 시목동(柿木洞)의 벼락 친 곳을 가서 보니  
나무가 모두 죽어 있었다.

十八日。丁卯。陽。觀柿木洞雷震處，木盡枯。

1914년 6월 19일. 무진. 맑음.

十九日。戊辰。陽。

1914년 6월 20일. 기사. 맑음.

二十日。己巳。陽。

1914년 6월 21일. 경오. 맑음. 오늘은 말복이다.

二十一日。庚午。陽。是日末伏也。

1914년 6월 22일. 신미. 맑음.

二十二日。辛未。陽。

1914년 6월 23일. 임신. 맑음.

二十三日。壬申。陽。

1914년 6월 24일. 계유. 맑음.

二十四日。癸酉。陽。

1914년 6월 25일. 갑술. 맑음.

二十五日。甲戌。陽。

1914년 6월 26일. 을해. 맑음.

二十六日。乙亥。陽。

1914년 6월 27일. 병자. 맑음.

二十七日。丙子。陽。

1914년 6월 28일. 정축. 맑음.

二十八日。丁丑。陽。

1914년 6월 29일. 무인. 맑음. 집으로 돌아왔다. 아들이 경종(脛腫, 정강이 종기)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二十九日。戊寅。陽。歸巢。家兒以脛腫辛苦。

1914년 7월 1일. 기묘. 맑음.

七月。初一日。己卯。陽。

1914년 7월 2일. 경진. 맑음.

二日。庚辰。陽。

1914년 7월 3일. 신사. 맑음.

三日。辛巳。陽。

1914년 7월 4일. 임오. 맑음.

四日。壬午。陽。

1914년 7월 5일. 계미. 맑음.

五日。癸未。陽。

1914년 7월 6일. 갑신. 맑음. 밤에 비가 내렸다.

六日。甲申。陽。夜雨。

1914년 7월 7일. 을유. 흐림. 오후에 소나기가 내렸다.

七日。乙酉。陰。午後驟雨。

1914년 7월 8일. 병술. 맑음. 장동으로 돌아왔다.

八日。丙戌。陽。還章洞。

1914년 7월 9일. 정해. 맑음.

九日。丁亥。陽。

1914년 7월 10일. 무자. 맑음.

十日。戊子。陽。

1914년 7월 11일. 기축. 맑음.

十一日。己丑。陽。

1914년 7월 12일. 경인. 맑음.

十二日。庚寅。陽。

1914년 7월 13일. 신묘. 맑음.

十三日。辛卯。陽。

1914년 7월 14일. 임진. 맑음.

十四日。壬辰。陽。

1914년 7월 15일. 계사. 맑음. 집에 돌아왔다. 오늘 밤에 월식이 있었는데 손자가 묻길, “어떤 것이 달을 먹나요?”라고 하기에 내가 응답하길, “해가 그것을 먹는단다.”라고 했다. 손자가 “그렇다면 달도 해를 먹나요?”라고 물어서 내가 “그렇단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손녀가 옆에 있다가 묻길, “그렇다면 천옹(天翁)은 왜 그렇게 못하도록 하지 않나요?”라고 물어서 내가 응답하길, “끝내는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주었다.

十五日。癸巳。陽。還巢。是夜月蝕，孫兒問，“何者食月？”余應之曰，“日以食之。”孫曰，“然則月亦食日？”余答曰，“然。”孫女在傍問之曰，“然則天翁何不教以不然？”余應之，“終使之不然也。”

1914년 7월 16일. 갑오. 맑음. 장동으로 돌아왔다.

十六日。甲午。陽。還章洞。

1914년 7월 17일. 을미. 맑음.

十七日。乙未。陽。

1914년 7월 18일. 병신. 맑음.

十八日。丙申。陽。

1914년 7월 19일. 정유. 맑음.

十九日。丁酉。陽。

1914년 7월 20일. 무술. 맑음.

二十(日)。戊戌。陽。

1914년 7월 21일. 기해. 아침에 비가 내렸는데 오래가지 못하였고, 갠듯 하다가 개지 못했다.

二十一日。己亥。朝雨不長，欲陽未暢。

1914년 7월 22일. 경자. 흐림. 비바람이 크게 일어나서 나무가 꺾이고 지붕이 날아갔다. 넝쿨이 건어지고 과일이 떨어졌으며, 벼가 모두 쓰러졌다.

二十二日。庚子。陰。風雨大作，折木拔屋。捲蔓剝果，禾穀盡偃。

1914년 7월 23일. 신축. 갠.

二十三日。辛丑。晴。

1914년 7월 24일. 임인. 맑음.

二十四日。壬寅。陽。

1914년 7월 25일. 계묘. 맑음.

二十五日。癸卯。陽。

1914년 7월 26일. 갑진. 맑음.

二十六日。甲辰。陽。

1914년 7월 27일. 을사. 맑음.

二十七日。乙巳。陽。

1914년 7월 28일. 병오. 맑음.

二十八日。丙午。陽。

<회포를 펴다>

천지간의 강상 윤리 만고토록 남으리니,  
서산의 어느 곳이 고사리 캐던 곳인가.  
미친 듯 취한 듯 일마다 상심하며,  
부질없이 은사(殷師)<sup>106</sup>의 흥범서를 읽네.

述懷

天地綱常萬古餘  
西山何處採薇墟  
如狂如醉傷心事  
謾讀殷師演範書

순창 노동(蘆洞)<sup>107</sup>에 사는 양철묵(梁哲默)이 구장(舊章)의 일로 왔다

106) 은사(殷師) : 은(殷)나라 태사(太師) 기자(箕子)를 말한다.

107) 노동(蘆洞) : 순창군 인계면 노동리를 말한다.

가 갔다.

淳昌蘆洞梁哲默, 以舊章來去.

▪ 미암선생 오행도(五行圖)

4덕(德)	원	형	성誠	리	정
5행(行)	목	화	토	금	수
4방(方)	동	남	중	서	북
4시(時)	춘	하	사계	추	동
1일(日)	조(朝)	주(晝)	미(未)	모(暮)	야(夜)
5상(常)	인	예	신	의	지
5장(臟)	간장	심장	비장	폐	신장
5색(色)	청	적	황	백	흑
5미(味)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5음(音)	각	치	궁	상	우
5충(虫)	린(鱗) [청룡]	우(羽) [주작]	라(倮) [사람]	모(毛) [백호]	개(介) [현무, 귀사]
5악(岳)	태산	형산	승산	화산	향산
5국(國)	이(夷)	만(蠻)	하(夏)	융(戎)	적(狄)

眉巖先生五行圖

四德 元 亨 誠 利 貞  
 五行 木 火 土 金 水  
 四方 東 南 中 西 北  
 四時 春 夏 四 季 秋 冬  
 一 日 朝 晝 未 暮 夜  
 五 常 仁 禮 信 義 智  
 五 臟 肝 心 脾 肺 腎  
 五 色 青 赤 黃 白 黑  
 五 味 酸 苦 甘 辛 鹹  
 五 音 角 徵 宮 商 羽  
 五 虫 鱗 羽 倮 毛 介



靑龍朱雀人白虎玄武(龜蛇)  
五岳泰衡嵩華恒  
五國夷蠻夏戎狄在十二層

1914년 7월 29일. 정미. 맑음.

二十九日。丁未。陽。

1914년 7월 30일. 무신. 반은 흐리고 반은 맑음. 밤에 비바람이 쳤다.

三十(日)。戊申。半陰半陽。夜風雨。

1914년 8월 1일. 기유. 흐림. 비가 간간이 뿌렸다.

八月。初一日。己酉。陰雨間灑。

1914년 8월 2일. 경술. 흐리고 비가 조금 내렸다. 밤에 생부(生父)의 제사를 지내러 갔다.

二日。庚戌。陰雨未沾。夜赴生庭親忌。

273

1914년 8월 3일. 신해. 흐림. 덕진동(德振洞)<sup>108</sup>에 성묘하기 위해 조기섭(趙驥燮)과 함께 갔다. 이날 집으로 돌아왔다.

三日。辛亥。陰。省楸德振洞，趙驥燮同臨。是日還巢。

1914년 8월 4일. 임자. 흐림. 장동으로 돌아갔다.

四日。壬子。陰。還章洞。

108) 덕진동(德振洞) : 담양군 금성면 덕진동을 말하며, 생부의 묘소가 있다.

1914년 8월 5일. 계축. 흐림. 아침부터 낮에까지 가는 비가 내렸다.

五日。癸丑。陰。自朝至午微雨。

1914년 8월 6일. 갑인. 맑음. 유위식(柳渭植)의 협실(挾室, 곁방)로 옮겨왔다.

六日。甲寅。陽。移寓於柳渭植挾室。

1914년 8월 7일. 을묘. 맑음. <퇴고서(退高書)>를 보았다.

七日。乙卯。陽。看<退高書>。

#### <사단칠정후설(四端七情後說)>

사단·칠정의 설에 대하여 전에는 ‘칠정이 발하여 절도에 맞는 것은 사단과 다를 것이 없다고 알았기 때문에 이와 기에 분속하는 것에 의심을 가져 “정이 발하는 데는 이기를 겸하고 선악이 있는 것인데, 사단에 대해서는 오로지 이(理)에서 발하여 선하지 않음이 없는 것만을 가리켜 말하고, 칠정에 대해서는 진실로 이기를 겸하고 선악이 있는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만약 사단을 이에 분속하고 칠정을 기에 분속한다면, 이것은 칠정에 포함된 이(理)의 한 측면도 도리어 사단이 점유하게 되어, 선악이 있다는 것만 기에서 나오는 것 같으니, 이것은 말하는 사이에 의심이 없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자(朱子)가 “사단은 이(理)가 발한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이다.”라고 한 말을 반복하여 참고해 보고서야 끝내 부합하지 않음이 있음을 깨달았고,<sup>109)</sup> 이어 다시 생각해 보고서야 곧 저의 전일의 설에 상고한 것이 자세하지 못하고 살핀 것이 극진하지 못함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맹자가 사단을 논하면서 ‘나에게 있는 사단을 모두 확충할 줄을 알면’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사단이 있어 확충하고자 한다면 사단을 이가 발한 것

109) 원문의 ‘終各有未合者’는 ‘終覺有未合者’를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당연합니다. 정자가 칠정을 논하면서 ‘정이 치성한 뒤에 더욱 방탕해지면 성이 깎이게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달은 자는 정을 단속하여 중도에 합당하도록 한다.’라고 하였는데, 칠정이 치성하고 더욱 방탕하기 때문에 단속하여 중도에 합당하도록 하고자 한다면, 칠정을 기가 발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으로 살펴보면 사단과 칠정을 이와 기에 분속하는 것은 본래 의심할 필요가 없으며, 사단과 칠정의 명칭과 뜻도 참으로 각기 그러한 이유가 있음을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칠정이 발하여 절도에 맞는 것은 사단과 애초 다르지 않습니다. 대개 칠정이 비록 기에 속하지만 이가 본래 그 안에 있습니다. 발하여 절도에 맞는 것이 천명(天命)의 성(性)이고 본연의 체(體)이니, 어찌 기가 발한 것이므로 사단과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내 주신 편지에 “맹자의 희(喜), 순(舜)의 노(怒), 공자(孔子)의 애(哀)와 낙(樂)은 바로 기가 이를 따라 발한 것이어서 조금도 구애됨이 없다.”는 말과 “각각 소종래(所從來)가 있다.”는 등의 말은 모두 타당치 못한 줄로 압니다. 대체로 발하여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화(和)라고 하였으니, 화는 바로 이른바 ‘달도(達道)’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보내오신 말씀대로라면 ‘달도’도 역시 기가 발한 것이라 하겠습니까? 이것 또한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자(朱子)가 일찍이 말하기를 “천지의 성[天地之性]을 논할 때는 오로지 이(理)만을 가리켜 말한 것이고, 기질의 성[氣質之性]을 논할 때는 이와 기를 섞어서 말한 것이니, 이것이 바로 이발(理發), 기발(氣發)의 논이다.”라고 하셨는데, 제[기대승(奇大升)]가 일찍이 이 말을 인용하여 “이가 발했다는 것은 오로지 이만을 가리켜 말한 것이고, 기가 발했다는 것은 이와 기를 섞어서 말한 것이다.”라고 한 말이 이치에 대단히 어긋나지 않는 데도 선생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말을 만든 것이 꼭 들어맞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지요?

보내 주신 변론에서 이른바 “정(情)에 사단과 칠정의 구분이 있는 것이 마치 성(性)에 본성(本性)과 기품(氣稟)의 다름이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

신 말씀이 저의 의견과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어찌하여 살펴 주시지 않고 “근본은 같으나 추향(趨向)이 다르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기질의 성은 이와 기를 섞어서 말한 것이다.”라는 것은 대개 본연의 성이 기질 속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섞어서 말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질의 성 가운데 선한 것은 바로 본연의 성이고, 따로 하나의 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의 설에서 “칠정 중에 발하여 절도에 맞는 것은 사단과 실상은 같으면서 이름만 다르다.”라고 한 것은 아마도 이치에 해가 되지 않을 듯합니다.

그러나 사단 칠정 및 이기의 변론에 대하여 분명히 결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논설이 자못 한편으로 치우쳤고, 말하는 사이에 실수가 없지 않았습니다. 이제 감히 요점만을 추려 논하여서 올리니, 비평해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온당치 못했던 문구에 대해서는 지금 일일이 분석할 수 없습니다. 쪼고 깎아내주길 바라는 것 또한 큰 것이 이미 같다면 작은 것은 굳이 힐난(詰難)하지 않아도 끝내 반드시 의견이 같아질 것입니다. 바라건대 분명한 회답을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 四端七情後說。

四端七情之說，前此認得‘七情之發而中節者，與四端不異’，故有疑於理氣之分屬，以爲‘情之發也，兼理氣有善惡，而四端則專指其發於理，而無不善者言之。七情則固指其兼理氣，有善惡者言之焉。若以四端屬之理，七情屬之氣，則是七情理一邊，反爲四端所占，而有善惡云者，似但出於氣，此於言語之間，不能無可疑者也。”然以朱子，“所謂四端是理之發，七情是氣之發者。”參究反覆，終各有未合者。因復思之，乃知前日之說，考之有未詳，而察之有未盡也。孟子論四端，以爲‘凡有四端於我者，知皆擴而充之。’夫有是四端，而欲其擴而充之，則四端是理之發者，是固然矣。程子論七情，以爲‘情旣熾，而益蕩，其性鑿矣，故覺者，約其情，使合於中。’夫以七情之熾而益蕩，而欲其約之以合於中，則七情是氣之發者，不亦然乎？以是而觀之，四端七情之分屬理氣，自不須疑，而四端七情之名義，固各有所以然，不可不察也。然而七情之發而中節者，則與四端初不異也。蓋七情雖屬於氣，而理固自在其中，其發而中節者，乃天命之性，本然之體，則豈可謂是氣之

發而異於四端耶?【來書謂, 孟子之喜, 舜之怒, 孔子之哀與樂, 是氣之順理而發, 無一毫有碍, 及各有所從來等語, 皆覺未安。夫發皆中節謂之和, 而和卽所謂達道也。若果來說, 則達道亦可謂是氣之發乎?】此又不可不察也。朱子嘗曰。“論天地之性, 則專指理言, 論氣質之性, 則以理與氣雜而言之, 此正理發氣發之論也。”大升曾引此語, 以爲“是理之發者, 專指理言, 是氣之發者, 以理與氣雜而言之”者, 無甚碍理, 而不蒙察納, 無乃下語不著而然耶? 來辨, 所謂“情之有四端七情之分, 猶性之有本性氣稟之異”者, 與鄙見似不異, 未知其何以不察, 以爲本同趨異耶? 夫所謂氣質之性, 以理與氣雜而言之者, 蓋以本然之性, 墮在氣質之中, 故謂雜而言之。然氣質之性之善者, 乃本然之性。非別有一性也。然則鄙說謂‘七情之發而中節者, 與四端同實而異名’云者, 疑亦未害於理也。第於四端七情理氣之辨, 不能斷置分明, 故其說頗倚於一偏, 而辭氣之間, 亦不能無失。今敢撮而論之, 仰稟批誨焉。其他詞句之未當者, 今不可一一剖析。以祈鑄鑿, 亦以大者旣同, 則其小者無俟於強詰。而終歸於必同也。伏乞明賜回諭。幸甚幸甚。

#### <사단 칠정 총론(四端七情總論)>

277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사람이 천지의 중(中)을 받아 태어남에 감응되기 이전에는 순수하고 지선하여 모든 이치가 갖추어 있으니, 이른바 성(性)란 것이다. 그러나 사람에게 이 성이 있으면 곧 이 형(形)이 있고 이 형이 있으면 곧 이 심(心)이 있어서 물(物)에 감응이 없을 수 없고, (물에 감응하여)<sup>110)</sup> 움직이면 성(性)의 욕(欲)이 나와서 선과 악이 이에 나누어지는데, 성의 욕이 곧 이른바 정(情)이라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몇 마디 말씀은 실은 <악기(樂記)>의 동(動)·정(靜)의 뜻을 해석한 것으로, 말은 비록 간략하나 이치는 구비되어 있으니, 성정(性情)의 설에 대하여 극진하여 남김이 없다고 이를 만합니다. 그러나 이른바 정(情)이란 희(喜)·노(怒)·애(哀)·구(懼)·애(愛)·오(惡)·욕(欲)의 정으로 《중용》이 말한 희·로·애·락과 동일한 정입니다. 대개 이미 이 심(心)이 있어 물에 감응되지 않을 수 없다면, 정이 이기를 겸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물에 감응

110) 일기원문에 ‘感於物’이 빠져있기에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하여 움직임에 선악이 이에 나누어진다면, 정에 선악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희로애락이 발하여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은 곧 이른바 이(理)이고 선이며, 발하여 절도에 맞지 않는 것은 바로 기품(氣稟)의 치우침으로 말미암아 불선(不善)이 있게 된 것입니다.

맹자의 이른바 사단이란 것은 정이 이기를 겸하고 선악이 있는 데서 이에서 발하여 선하지 않음이 없는 것을 떼어 내어 말한 것이다. 대개 맹자는 성선(性善)의 이치를 드러내어 밝히면서 사단을 가지고 말하였으니, 사단이 이에서 발하여 선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주자가 또 말한 ‘사단은 이가 발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로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칠정은 이기를 겸하고 선악이 있으니, 그 발하는 바가 비록 오로지 기만은 아니지만, 기질(氣質)의 섞임이 없지 않으므로 기가 발한 것이라고 한 것이니, 이는 바로 기질지성(氣質之性)이란 설과 같습니다. 대개 성이 비록 본래 선하지만 기질 속에 떨어지게 되면 편벽되고 지나침이 없지 않기 때문에 ‘기질의 상’이라 하고, 칠정이 비록 이기를 겸하였지만, 이는 약하고 기는 강하여 이가 기를 통섭할 수 없어 악에 흐르기 쉬우므로 ‘기가 발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하여 절도에 맞는 것은 곧 이에서 발하여 선하지 않음이 없으니, 사단과 애초부터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사단은 이가 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맹자의 뜻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확충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니, 학자가 사단의 발함에 대해 깊이 체인하여 확충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칠정은 이기의 발함을 겸하였으나 이의 발함이 혹 기를 주재할 수 없거나 기의 유행이 도리어 이를 가릴 수도 있으니, 학자가 칠정의 발함에 대해 성찰하여 잘 다스리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또 사단과 칠정의 명의(名義)에 각각 소이연(所以然)한 것이 있는 것이니, 학자가 진실로 이로 말미암아 구하게 되면 거의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혹문(或問)》을 보건대, 희·노·애·오·욕이 도리어 인의(仁義)에 가깝다는 것에 대해 주자는 ‘진실로 서로 비슷한 곳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진실로 서로 비슷한 곳이 있다고만 하고, 서로 비슷한 것을 정확히 말하지

않은 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논자(論者)들은 대부분 희·로·애·락을 인·의·예·지에 짝지으니, 주자의 뜻에 과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대개 칠정과 사단의 설은 각각 하나의 뜻을 발명하는 것이니, 혼합하여 한 가지 설로 만들어서는 안 될 듯합니다. 이것 또한 알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 四端七情總論。

朱子曰“人受天地之中以生，其未感也，純粹至善，萬理具焉，所謂性也。然人有是性則卽有是形，有是形則卽有是心，而不能無感於物，(感於物)而動，則性之欲者出焉，而善惡於是乎分矣，性之欲，卽所謂情也。”此數言者，實釋樂記動靜之義，語雖約，而理則該，其於性情之說，可謂竭盡無餘蘊矣。然其所謂情者，喜怒哀懼愛惡欲之情也，與中庸所謂喜怒哀樂者同一情也。夫既有是心而不能無感於物，則情之兼理氣者，可知也。感於物而動，而善惡於是乎分，則情之有善惡者，亦可知也。喜怒哀樂發皆中節者，卽所謂理也善也。而其發不中節者，則乃由於氣稟之偏而有不善者矣。若孟子之所謂四端者，則就情之兼理氣有善惡上，別出其發於理而無不善者之言也。蓋孟子發明性善之理，而以四端爲言，則其發於理而無不善者，又可知也。朱子又曰‘四端是理之發者’，固可無疑矣。七情兼理氣有善惡，則其所發雖不專是氣，而亦不無氣質之雜，故謂是氣之發，此正如氣質之性之說也。蓋性雖本善，而墮於氣質，則不無偏勝，故謂之氣質之性，七情雖兼理氣，而理弱氣強，管攝他不得，而易流於惡，故謂之氣之發也。然其發而中節者，乃發於理而無不善，則與四端初不異也。但四端只是理之發，孟子之意，正欲使人擴而充之，則學者於四端之發，可不體認而擴充之乎？七情兼有理氣之發，而理之所發，或不能以宰乎氣，氣之所流，亦反有以蔽乎理，則學者於七情之，可不省察以克治之乎？此又四端七情之名義，各有所以然者，學者苟能由是以求之，則亦可以思過半矣。且《或問》看得來，喜怒哀懼愛惡欲，卻似近仁義，朱子曰，‘固有相似處’其曰，固有相似處，而不正言其相似，則意固有在也。今之論者。多以喜怒哀樂配仁義禮智，未知於朱子之意，果何如也。蓋七情四端之說，各是發明一義，恐不可滾合爲一說。此亦不可不知者也。

1914년 8월 8일. 병진. 맑음.

八日。丙辰。陽。

1914년 8월 9일. 정사. 흐림. 오후에 비가 조금 지나갔다.

九日。丁巳。陰。午後雨小過。

1914년 8월 10일. 무오. 흐림.

十日。戊午。陰。

1914년 8월 11일. 기미. 맑음. 오늘이 생일이라 시를 지었다.

十一日。己未。陽。是日生辰也，題詩。

태어난 황동에서 다시 회갑을 지내니<sup>111)</sup>,  
 덧없는 세월만 물 흐르듯 지나갔네.  
 부모가 낳고 길러주신 은혜<sup>112)</sup> 생각하니,  
 향인을 벗어나지 못함이 근심이로다.<sup>113)</sup>

初度再經黃洞秋  
 荏苒歲月水東流  
 追思父母劬勞事  
 未免鄉人是可憂

111) 태어난 …… 지내니 : 고향 황동에서 회갑(回甲)을 맞이한다는 의미이다. 이 시구에서 ‘초도(初度)’는 출생한 때를 이른다. 초(楚)나라 굴원(屈原)이 지은 《초사(楚辭)》 <이소(離騷)>에 “황고께서 나의 출생한 때를 관찰하여 헤아리사 비로소 내게 아름다운 이름을 내리셨으니, 나의 이름을 정칙으로 하시고 나의 자를 영균으로 하시었네.[皇覽揆余于初度兮，肇錫余以嘉名，名余曰正則兮，字余曰靈均。]” 한 데서 온 말이다.

112) 낳고 길러주신 은혜 : 《시경》 <소아(小雅)·육아(蓼莪)>에 “슬프고 슬프도다 부모님 생각, 낳고 길러 주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던가.[哀哀父母，生我劬勞]”라고 하였다.

113) 향인을 …… 근심이로다 : 맹자가 이르기를 “군자는 종신토록 근심하는 것이 있고, 일시적인 걱정은 없다. 종신토록 근심할 것은 있으니, 순임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순 임금은 천하에 법이 되어 후세에 전할 만하거늘, 나는 아직도 향인(鄉人)을 면치 못하니, 이것이 곧 근심스러운 것이다. 근심스러우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순임금과 같이할 뿐이다. [君子有終身之憂，無一朝之患也。乃若所憂則有之，舜人也，我亦人也，舜爲法於天下，可傳於後世，我由未免爲鄉人也，是則可憂也。憂之如何？如舜而已矣。]”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맹자》 <이루 하(離婁下)>)



1914년 8월 12일. 경신. 맑음.

十二日。庚申。陽。

1914년 8월 13일. 신유. 맑음. 집으로 돌아왔다.

十三日。辛酉。陽。還巢。

1914년 8월 14일. 임술. 맑음.

十四日。壬戌。陽。

1914년 8월 15일. 계해. 맑음. 성묘하였다.

十五日。癸亥。陽。省楸。

1914년 8월 16일. 갑자. 아침에 흐리고 비가 조금 뿌리다가 오후에 맑아짐.

十六日。甲子。朝陰雨小洒，午後陽。

281

1914년 8월 17일. 을축. 맑음. 옥과로 성묘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김 참봉댁을 방문하여 유숙했다.

十七日。乙丑。陽。作玉果省行，回路訪金參奉宅，留宿。

1914년 8월 18일. 병인. 다음날 연화동(蓮花洞)을 지나다가 문장(門長) 채순(在舜)씨의 궤연(几筵)에 곡한 후 물러나와 목암(穆菴)의 궤연에 곡하고 장동으로 돌아왔다. 문상하러 가면서 대산(大山) 족친 지곡(芝谷)댁을 방문했지만 만나지 못하고 물러나 종가(宗家)에서 놀다가 날이 저물어 객사로 돌아왔다.

十八日。丙寅。翌日過蓮花洞，哭門長在舜氏几筵，退哭穆菴几筵，還

章洞。問喪次去，訪大山族芝谷宅，不遇而退遊宗家，竟日歸旅次。

1914년 8월 19일. 정묘. 맑음.

十九日。丁卯。陽。

1914년 8월 20일. 무진. 맑음. 밤 술시(戌時, 오후7~9시 사이)에 사촌형수가 별세하셨다.

二十日。戊辰。陽。夜戌時，從兄嫂氏棄世。

1914년 8월 21일. 기사. 맑음.

二十一日。己巳。陽。

1914년 8월 22일. 경오. 맑음. 엄치(廉峙) 아래 왕치(王峙) 위에 임시로 장사지냈다.

二十二日。庚午。陽。權葬于廉峙下王峙上。

1914년 8월 23일. 신미. 맑음.

二十三日。辛未。陽。

1914년 8월 24일. 임신. 맑음.

二十四日。壬申。陽。

1914년 8월 25일. 계유. 맑음.

二十五日。癸酉。陽。

1914년 8월 26일. 갑술. 맑음.

二十六日。甲戌。陽。

1914년 8월 27일. 을해. 맑음.

二十七日。乙亥。陽。

1914년 8월 28일. 병자. 반은 흐리고 반은 맑음. 오후에 비가 내리고  
밤에 또 비가 내렸다.

二十八日。丙子。半陰半陽。午後雨，夜亦雨。

1914년 8월 29일. 정축. 맑음.

二十九日。丁丑。陽。

1914년 9월 1일. 무인. 맑음. 오후와 저녁에 비가 내렸다.

九月。初一日。戊寅。陽。午後夕雨。

1914년 9월 2일. 기묘. 반은 흐렸다.

二日。己卯。半陰。

1914년 9월 3일. 경진. 맑음.

三日。庚辰。陽。

1914년 9월 4일. 신사. 맑음. 밤에 서리가 내렸다.

四日。辛巳。陽。夜霜降。

1914년 9월 5일. 임오. 맑음.

五日。壬午。陽。

1914년 9월 6일. 계미. 비 내리고 흐림.

六日。癸未。雨陰。

1914년 9월 7일. 갑신. 맑음.

七日。甲申。陽。

1914년 9월 8일. 을유. 맑음.

八日。乙酉。陽。

1914년 9월 9일. 병술. 맑음. 집에 돌아왔다.

九日。丙戌。陽。還巢。

1914년 9월 10일. 정해. 흐리고 비.

十日。丁亥。陰雨。

1914년 9월 11일. 무자. 맑음. 장동(獐洞)에 돌아왔다.

十一日。戊子。陽。還獐洞。

1914년 9월 12일. 기축. 맑음.

十二日。己丑。陽。

1914년 9월 13일. 경인. 새벽에 비가 오다가 바로 개고 맑음.

十三日。庚寅。曉頭雨卽晴陽。

<송남파재(宋南坡齋)에 대해 짓다>

어느 해에 이 집 지어 이곳에 유거했나,  
 나무 아래 숨은 듯 처사의 집이 있네.  
 푸른 대 아름다운 무늬는 군자의 절개요,  
 맑음 바람 가득한 것은 옛사람들의 책이로다.  
 아침에 밭갈고 저녁에 독서함은 때에 마땅하게 하고,  
 현명하고 어진 자들과 친함은 속객을 드물게 하네.  
 여기에서 참을 기른지 얼마나 되었는가,  
 편안하고 고상한 정취 넉넉하게 넘치는구나.

題宋南坡齋

何年卜築是幽居  
 樹下隱然處士廬  
 綠竹猗文君子節  
 清風滿在故人書  
 朝耕暮讀時宜措  
 賢狎仁親俗客疏  
 這裏養真今幾日  
 安閒高致裕而餘

1914년 9월 14일. 신묘. 맑음.

十四日。辛卯。陽。

1914년 9월 15일. 임진. 맑음.

十五日。壬辰。陽。

1914년 9월 16일. 계사. 흐림. 아버지 제사를 지내러 갔다. 밤에 비가 내렸다.

十六日。癸巳。陰。作親忌之行。夜雨。

1914년 9월 17일. 갑오. 흐리고 비.

十七日。甲午。陰雨。

1914년 9월 18일. 을미. 흐림. 장동(獐洞)에 돌아왔다.

十八日。乙未。陰。歸獐洞。

1914년 9월 19일. 병신. 맑음.

十九日。丙申。陽。

1914년 9월 20일. 정유. 맑음.

二十日。丁酉。陽。

1914년 9월 21일. 무술. 맑음.

二十一日。戊戌。陽。

1914년 9월 22일. 기해. 맑음.

二十二日。己亥。陽。

286

1914년 9월 23일. 경자. 맑음. 계정(桂庭) 민충정공(閔忠正公) 영환(泳煥)의 <혈죽도(血竹圖)>를 공경히 살펴보았다.<sup>114)</sup> 하나 둘, 두세 개씩 9개의 뿌리와 8개의 줄기가 있고, 15개의 가지와 35개의 잎이 들쭉날쭉하면서도 고르게 오른쪽으로 누워있는 모습이 쇄락(洒落)하여 일반 대나무와 다름을 알겠다.

二十三日。庚子。陽。奉審桂庭閔忠正公泳煥血竹圖。一二二三，九本八幹，十五枝三五葉，參差均平偃右，洒落，知凡竹異。

1914년 9월 24일. 신축. 맑음.

二十四日。辛丑。陽。

1914년 9월 25일. 임인. 맑음.

114) 원문에 '逢審'으로 되어있어 '奉審'으로 바로 잡아 번역하였다.

二十五日。壬寅。陽。

1914년 9월 26일. 계묘. 맑음.

二十六日。癸卯。陽。

1914년 9월 27일. 갑진. 흐리고 비. 도부(桃符)<sup>115</sup>에 좋은 문장이 있어서 기록한다.

二十七日。甲辰。陰雨。有桃符好文章故記。

<도부(桃符) 사륙어(四六語)<sup>116</sup>>

桃符四六語

예악시서는 대대로 가문에 전하는 사업이고,	禮樂詩書襲家傳之業
효제충신은 돈독하게 하늘이 내려준 속마음이네.	孝悌忠信篤天降之衷
이미 화합하고 또 즐거우니 실가에 마땅하고,	既和且樂宜室宜家
이에 편안히 잠을 자며 작은 꿈 큰꿈 꿈꾸네.	乃安斯寢夢熊夢羆
백년토록 봄과 같아 방안에 화락한 기운 가득하며,	百年爲春滿室和氣
평생동안 날을 아껴 종신토록 효도를 생각하네.	一生愛日終身孝思
자녀들 많으니 어찌 다만 음양이 허락해서일 것인가. 多子多女何獨陰陽之頷	
창고에 재물 쌓이니 도주(陶朱) <sup>117</sup> 의 기술 묻지 않네. 乃積乃倉不問陶朱之術	
아버지는 자애롭고 아들은 효도하니 가법으로 전한 것이고 父慈子孝家法有傳	
남편이 부르면 아내가 따르니 인간의 도리가 시작된 바이네. 夫唱婦隨人道攸始	
뛰는 자 걷는 자가 모두 봉황의 새끼요 기린아이이며, 趨者步者鳳雛與麟兒	
왼쪽 오른쪽에서 난 새가 멈춘 듯 고니가 서 있는 듯하네. 左之右之鸞停而鵝峙	
장수와 부귀와 다남을 요임금은 사양했으나 사양하지 않고, <sup>118</sup> 壽富多男堯辭不辭	
복록을 하늘로부터 받은 주송(周頌) <sup>119</sup> 을 나 또한 칭송하네. 福祿受命周頌亦頌	

115) 도부(桃符) : 복숭아나무에 귀신을 쫓는 신의 이름이나 상을 그려 복을 비는 것이다.

116) 사륙어(四六語) : 사륙변려체를 말한다.

117) 도주(陶朱) : 큰 부를 쌓은 재상 범려를 말한다.

118) 장수와 …… 않고 : 옛날에 요임금은 장수하면 욕됨이 많고 부유하면 일이 많고, 다남하면 두려움이 많다고 하여 모두 사양했다고 한다.

황구(黃耇)<sup>120</sup>토록 오래 살아 기자의 흥범구주와 하나 되고 黃耇遐享膺箕疇之一同  
 일편단심으로 기도 잘해 송산에서 삼호(三呼)<sup>121</sup>의 효과 있으리. 丹心善禱效嵩山之三呼  
 화락하고 담락하며 부모는 천명에 순응하니, 和樂且湛父母既順  
 은의(恩義)가 함께 이르고 가정은 가지런하네. 恩義并至家庭乃齊  
 첫 번째도 두 번째도 하늘이 내려준 복록 끝없어서, 一曰二曰天祿無疆  
 천년만년 누릴 우리의 창고 가득하리. 萬斯千斯我廩既實

사당은 祠堂  
 향기로운 제사음식 올리며 효도하는 생각 다하지 않고, 芬芬苾苾孝思不匱  
 대대손손 대를 이어 세상 복록 끝이 없으리. 繼繼承承世祿無疆  
 오르고 내리며 가까이에서 친히 흠향하시고, 陟降在廡庶右享之  
 분주한 가운데 질서가 있어 길이길이 이어갈지라. 駿奔有序勿替引之  
 향기로운 음식 갖추니 이 정성에 싫증 내지 않고, 有苾有芬無射斯誠  
 소(昭)이건 목(穆)<sup>122</sup>이건 그 숫자 매우 많으리. 那昭那穆不億其麗

서실은 書室  
 무형의 이치 완미하며 소와(邵窩)<sup>123</sup>의 일월을 보내고, 玩理無形送邵窩之日月  
 도가 있는 안빈에 안향(顏巷)<sup>124</sup>의 단표를 즐기네. 安貧有道樂顏巷之簞瓢  
 낮에 밭 갈고 밤에 독서해야 공덕 둘 다 온전할 수 있고, 晝耕夜讀功可兩全  
 여름엔 예를 봄엔 시 익히며 한쪽이라도 폐하기 어렵네. 夏禮春詩業難偏廢  
 해나가길 그치지 않으며 성현을 회구하고, 作之不已希聖希賢

119) 주송(周頌) : 《시경》에 있는 주(周) 나라 종묘 제사에 쓰는 시가를 말한다.  
 120) 황구(黃耇) : 90살 20세를 약관, 30세를 장(壯), 40세를 강(强), 50세를 애(艾), 60세를 기(耆), 70세를 모(耄), 80세를 질(耄), 90세를 황구(黃耇), 100세를 기이(期頤)라고 한다.  
 121) 삼호(三呼) : 신하가 임금의 수복(壽福)을 축원하는 말이다. 한 무제(漢武帝)가 송산(嵩山)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아래에서 만세를 부른 일이 있었고, 화(華) 땅의 봉인(封人)이 수(壽), 부(富), 다남자(多男子) 세 가지로써 요(堯) 임금을 송축한 일이 있는 데서 유래한다.  
 122) 소목(昭穆) : 종묘(宗廟)에 신주(神主)를 모시는 차례. 천자(天子)는 태조(太祖)를 중앙에 모시고, 2세·4세·6세는 소(昭)라 하여 왼편에, 3세·5세·7세는 목(穆)이라 하여 오른편에 모시어, 3소·3목의 칠묘(七廟)가 되고, 제후(諸侯)는 2소·2목의 오묘(五廟)가 되며, 대부(大夫)는 1소·1목의 삼묘(三廟)가 된다.  
 123) 소와(邵窩) : 소강절(邵康節)이 거처한 안락와(安樂窩)를 말한다.  
 124) 안향(顏巷) : 안자누향(顏子陋巷)의 준말로, 궁벽한 시골살이를 말한다. 공자의 제자인 안연(顏淵)은 벼슬하지 않고 시골에 있어 집이 매우 가난했다.



생각마다 이에 있으니 문필에 능할 것이네.	念之在茲能文能筆
경영함이 없으니 매사가 모두 한가하고	無營每事皆閑
영달의 생각 끊으니 어느 곳인들 즐겁지 않으랴	絕慕何處不樂
골짜기 깊으니 귀한 새소리 듣고	洞深或聽別鳥
땅이 궁벽하니 기이한 꽃 많이 보네.	地僻多見奇花
도를 걱정하며 나이 더한 것 두려워하고	憂道俱年增
책보기 즐기면서 날이 길기를 원하네.	耽書願日永
새는 어찌하여 궁벽진 곳을 찾아와서,	鳥何尋僻界
봄이 되도 한가한 사람 저버리지 않는가.	春不負閑人
일 없으니 꽃과 대를 살필 수 있고	無事課花竹
책 있으니 성현을 대할 수 있네.	有書對聖賢

도장은	都藏
재물은 곽씨의 금혈 <sup>125</sup> 인가 싶고	財擬郭氏之金穴
곡식은 한나라 태창처럼 썩어나네. <sup>126</sup>	穀陳漢家之太倉
기장과 벼는 많아서 해마다 풍년을 점치고	多黍多稌歲則占豐
재화는 가득하여 써도 써도 다하지 않네.	有貨有泉用之不渴
금곡 <sup>127</sup> 에 봄 깊으니 꽃들이 사방에 피고	金谷春深花四面
전당 <sup>128</sup> 에 파도치니 버들가지 천 갈래로다.	錢塘波動柳千絲

외문은	外門
작게 가고 크게 오니 길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고	小往大來吉無不利
백성이 편안하고 나라가 태평하니 시절이 유위(有爲)하리로다.	民安國泰時則有爲

125) 곽씨(郭氏)의 금혈(金穴) : 한(漢) 광무제(光武帝)가 그의 처남 곽황(郭況)에게 금보(金寶)를 많이 내려 주었으므로 사람들이 그 집을 금혈(金穴)이라 하였다.

126) 곡식은 …… 썩어나네 : 태창은 서울에 있는 거대한 곡물 창고의 이름이다. 《사기(史記)》 평준서(平準書)에 “太倉之粟，陳陳相因，充溢露積於外，至腐敗不可食。”이라고 하였다.

127) 금곡(金谷) : 진(晉)나라 부호(富豪) 석송(石崇)의 원명(園名)이다.

128) 전당(錢塘) : 중국 절강성(浙江省) 항주를 말하는데, 이곳에 조수가 밤낮으로 두 차례씩 들어 주민들이 막심한 폐해를 겪어오다가 삼국시대 화신(華信)이 흠이나 돌 1곡을 날라 오는 자에게는 돈 1천전을 주겠다고 상금을 내걸어서 열달만에 돌이 완성되었으므로 돈을 내걸어 수축하였기 때문에 전당이라고 한다. 한편 송(宋)나라 소식(蘇軾)도 여기에 전당호(錢塘湖)를 수축하여 관개 사업을 하여 소공제(蘇公隄) 혹은 소제(蘇隄)라고 부른다.

우순풍조하니 온 나라가 풍년임을 짐칠 수 있고 雨順風調可占三百州豐稔  
집마다 사람마다 풍족하니 억만년 태평함을 우리러 보리라 家給人足仰視萬億年泰平

1914년 9월 28일. 을사. 맑.

二十八日。乙巳。晴。

1914년 9월 29일. 병오. 맑음. 집에 돌아왔다.

二十九日。丙午。陽。歸巢。

1914년 9월 30일. 정미. 맑음. 장동으로 돌아갔다.

三十日。丁未。陽。還章洞。

1914년 10월 1일. 무신. 맑음. 다시 유희(柳羲)<sup>129)</sup>댁에 돌아오는 길에 송  
혁모(宋赫模) 댁을 거쳤고 장전(長田)<sup>130)</sup>에 사는 이승희(李承禧)를 만  
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다.

十月。初一日。戊申。陽。復還柳羲宅，路經宋赫模宅，遇長田李承禧，  
談話而分。

1914년 10월 2일. 기유. 흐리고 비.

二日。己酉。陰雨。

1914년 10월 3일. 경술. 흐림.

三日。庚戌。陰。

129) 유희(柳羲) : 유희적(柳羲迪, 1874~1942)을 말한 듯하다. 유희적의 자는 윤문(允文), 호는 기암(冀巖), 본관은 선산이다. 미암 유희춘의 후손으로, 장동에 살았으며, 송사 기우만(奇宇萬)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30) 장전(長田) : 창평군 가면 장전리로, 현재 담양군 창평면 장화리 장전 마을에 해당된다.

1914년 10월 4일. 신해. 흐리고 비.

四日。辛亥。陰雨。

1914년 10월 5일. 임오. 맑음.

五日。壬子。陽。

1914년 10월 6일. 계축. 흐리고 비가 잠깐 지나감.

六日。癸丑。陰雨乍過。

1914년 10월 7일. 갑인. 맑음. <고봉집(高峰集)>을 보다가 전(箋)<sup>131</sup>을 기록한다.

七日。甲寅。陽。觀 <高峰集>記箋。

<성균관에서 유생들로 하여금 잡서(雜書)를 보지 못하도록 청하는 전문(箋文)을 의작하다>

일통(一統)을 크게 하여 도(道)를 응집하니 이미 순수한 큰 규모를 세웠고, 여러 길에 현혹되면 참된 진리를 잃으니, 마땅히 박잡(駁雜)한 유폐(流弊)를 억제하여야 합니다. 이에 좁은 식견을 다하여 천용(天容)<sup>132</sup>에 요구하옵니다.

공경히 생각건대, 전하께서는 본성을 순히 하여 도리가 진실로 맞고, 학문을 주장하여 나날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요순을 사모하여 도야(陶冶)하니 양양(洋洋)한 예악이 아름답고, 주공(周公)과 공자(孔子)를 본받아 가르침을 베푸니 육육(郁郁)한 문장이 찬란합니다. 많은 선비들이 흥기(興起)하고 아름다운 풍속이 충만합니다.

131) 전(箋) : 한문 문체의 하나. '전(箋)'자와 통용하여 쓴다. 전의 뜻은 '나타내다[表]'로 자기의 의사를 남에게 표현하는 것이다. 조선조에 들어서면서 표와 전을 구분하여 중국천자에게는 '표'라 하였고 우리 나라 임금이나 중전에게 올리는 글은 '전'이라 하였다.

132) 천용(天容) : 원래 하늘의 모양을 뜻하나, 여기에서는 군왕을 표현한 말로 쓰였다.

다만 사람들은 평범한 것을 싫어하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여, 혹 박학(博學)을 힘쓰고 화려함을 다투고 있습니다. 심성(心性)을 논함에 있어서는 자못 정(程)·주(朱)의 유서(遺書)와 배치되고, 이치를 분석하고 현묘함을 말함에 있어서는 육(陸)·양(楊)<sup>133</sup>의 말에 물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성인의 법으로 헤아려 봄에 소득이 없고, 일에 적용시키자니 방해가 있습니다. 부정(不正)한 학설을 막아서 인심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세상에는 맹자(孟子) 같은 분의 변론이 없고, 성인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여러 입을 놀리고 있으니, 때로는 몽장(蒙莊)<sup>134</sup>의 기풍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로 식자의 깊은 걱정이니, 어찌 선비들을 밝은 경계로 신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육경(六經)은 일월(日月)과 같으니 어찌 그 광명함을 보기 어렵겠으며, 천성(千聖)들의 떳떳한 법도가 있으니 또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엿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큰 호령(號令)을 내리시어 속히 혼미한 길을 돌리소서. 성인을 비난하는 책을 읽지 못하게 하면 올바른 추향(趨向)을 알게 할 수 있을 것이며, 괴상한 의논을 세우지 못하게 하면 마음을 온전히 보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땅히 자신을 법도로 단속하고 선비들을 행동으로 지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천(伊川)의 간상학제(看詳學制)<sup>135</sup>를 써서 비록 한 세대의 법도를 다 변화시키지는 못하더라도 호안정(胡安定)이 작신(作新)한 정성<sup>136</sup>을 본받는다면 거의 천 년의 국운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擬成均館請令儒生勿觀雜書箋。

大一統以凝道，既建純粹之宏規，眩多歧而迷真，宜抑駁雜之流弊。肆竭

133) 육(陸)·양(楊) : 육은 상산(象山) 육구연(陸九淵)을 가리키며, 양은 한(漢)나라 때 《태학경(太玄經)》을 지은 양웅(揚雄)을 가리킨다.

134) 몽장(蒙莊) : 장주(莊周)를 가리킨다. 그는 원래 초나라 몽현(蒙縣) 출신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몽수(蒙叟)라고도 칭한다.

135) 이천(伊川)의 간상학제(看詳學制) : 이천은 송나라의 학자 정이(程頤)의 호이며, 간상학제는 태학(太學)의 제도를 살펴보고 수정하는 것이다. 정이는 철종(哲宗) 때 승정전 설서(崇政殿說書)가 되어 손각(孫奭)과 함께 태학의 제도를 수정 보완하였다.

136) 호안정(胡安定)이 작신(作新)한 정성 : 호안정은 호원(胡瑗)이며, 작신은 새로운 사람으로 진작시키는 것이다. 그는 일찍이 호주 교수(湖州教授)가 되어 경의재(經義齋)·치사재(治事齋)를 두고 제자들을 가르쳤으며, 태학에 들어가서도 다년간 인제 양성에 온 정성을 쏟았다.

管見，用干天容。恭惟順性允升，典學時敏。慕唐虞而陶化，美哉禮樂之洋洋，式周孔而設教，煥乎文章之郁郁。藹多士之興起，偉休風之沖澗。第緣厭常而喜新，或致務博以闢靡。論心識性，頗戾程朱之遺書，析理談玄，類染陸揚之緒語。揆諸聖而無獲，施于事而有妨。闢邪說以正人心，世無鄒孟之辨，侮聖言而鼓衆口，時見蒙莊之風。是固識者之深憂，盍勅儒士于炯戒？六經如日月，豈難觀其光明，千聖有範模，亦可尋其統緒。伏望渙發大號，亟回迷塗。不敢讀非聖之書，可使知其超向，毋或立詭常之論，足能全其心思，謹當飭躬于謨，率士以行。用伊川看詳之制，雖未變一代之條，效安定作新之誠，庶可翊千齡之運。

1914년 10월 8일. 을묘. 흐림. 낮에 비가 내렸다.

八日。乙卯。陰。中午，雨。

1914년 10월 9일. 병진. 흐림.

九日。丙辰。陰。

1914년 10월 10일. 정사. 맑음.

十日。丁巳。陽。

1914년 10월 11일. 무오. 맑음.

十一日。戊午。陽。

1914년 10월 12일. 기미. 흐림.

十二日。己未。陰。

1914년 10월 13일. 경신. 맑음.

十三日。庚申。陽。

1914년 10월 14일. 신유. 맑음.

十四日。辛酉。陽。

1914년 10월 15일. 임술. 흐림.

十五日。壬戌。陰。

1914년 10월 16일. 계해. 맑음.

十六日。癸亥。陽。

1914년 10월 17일. 갑자. 맑았다가 흐림.

十七日。甲子。陽而陰。

1914년 10월 18일. 을축. 맑음.

十八日。乙丑。陽。

1914년 10월 19일. 병인. 반은 흐리고 반은 맑음.

十九日。丙寅。半陰半陽。

1914년 10월 20일. 바람 불고 눈이 옴. 정묘 시사(時祀)를 지내러 갔다.

二十日。風雪。丁卯。作時祀之行。

1914년 10월 21일. 무진. 맑음. 황동으로 돌아왔다.

二十一日。戊辰。陽。還黃洞。

1914년 10월 22일. 기사. 맑음.

二十二日。己巳。陽。

1914년 10월 23일. 경오. 맑음.

二十三日。庚午。陽。

1914년 10월 24일. 신미. 흐리고 맑음.

二十四日。辛未。陰陽。

1914년 10월 25일. 임신. 흐림.

二十五日。壬申。陰。

1914년 10월 26일. 계축. 흐림. 흐리고 눈이 음.

二十六日。癸酉。陰雪

1914년 10월 27일. 갑술. 맑음.

二十七日。甲戌。陽。

1914년 10월 28일. 을해. 맑음.

二十八日。乙亥。陽。

1914년 10월 29일. 병자. 맑음.

二十九日。丙子。陽。

1914년 11월 1일. 정축. 맑음.

十一月。初一日。丁丑。陽。

<중형수 허씨<sup>137</sup>의 뇌문>

誄從兄嫂許氏

아	嗚呼
어진 중형수님	顯從兄嫂
양천허씨께서는,	陽川許氏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셔서,	青年寡居
외롭게 아들 하나두었네.	子子一子
효도로서 병든 시아버지 받들고,	孝奉病舅
손가락을 잘라 피를 넣어드렸으며,	至於斷指
구족들과 화목하였고,	親睦九族
선조 제사를 참으로 돈독하게 지냈네.	誠篤先祀
조예가 바름을 얻었으니,	造詣得正
이것이 누가 시킨 것인가.	是孰所使
품성이 그러한 것이니,	稟性則然
실로 하늘에서 내신 것이네.	實爲天只
규문의 아름다운 범절은	閨門懿範
향리에 알려졌고,	聞于鄉里
예전의 덕행을 생각하면,	思昔德行
옛 사적에도 드물었다네.	罕於古史
삼종 <sup>138</sup> 의 의리를 세움에,	三從義立
성대히 귀에 쟁쟁하고 <sup>139</sup>	洋洋盈耳
모든 일을 도리로 하니,	凡百以道
한 종이에 기록하기 어렵다네.	記難一紙

137) 중형수 허씨 : 기현(琦鉉)의 며느리이자 영기(永紀)의 부인으로, 1912년 8월 20일에 사망했다. 족보에 ‘효열병지(孝烈並至)’라고 기록되어 있다.  
 138) 삼종(三從) : 여자가 지켜야 할 도리로, 즉 출가 전에는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가면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139) 성대히 귀에 쟁쟁하고 : 공자(孔子)가 이르기를, “악사인 지가 재직하던 처음에 연주하던 관저시의 줄장이 지금도 성대히 귀에 쟁쟁하다.[師擘之始, 關雎之亂, 洋洋乎盈耳哉.]”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음악이 아름답고 성대했음을 뜻한다.(《논어》 <태백(泰伯)>)



자연의 변화를 따라 돌아가니 <sup>140</sup> ,	乘化歸盡
일흔셋의 나이로다.	七十三禩
시동생이 상복을 벗는 날에,	叔也除服
애통하여 감히 뇌문(誄文) <sup>141</sup> 을 올립니다.	哀痛敢誄

1914년 11월 2일. 무인. 흐리고 눈이 왔다가 다시 맑았다가 흐려짐.

二日。戊寅。陰而雪，而陽而陰。

1914년 11월 3일. 기묘. 맑음.

三日。己卯。陽。

1914년 11월 4일. 경진. 맑음.

四日。庚辰。陽。

1914년 11월 5일. 신사. 맑음.

五日。辛巳。陽。

1914년 11월 6일. 임오. 맑음.

六日。壬午。陽。

1914년 11월 7일. 계미. 흐리고 눈.

七日。癸未。陰雪。

140) 자연의 …… 돌아가니 : 도연명(陶淵明)의 <귀거래사(歸去來辭)> 끝 구절에, “그저 자연의 변화를 따라 돌아가갈 것이니, 천명을 즐길 뿐 다시 무엇을 의심하리.[聊乘化以歸盡, 樂夫天命, 復奚疑.]”라고 하였다.

141) 뇌문(誄文) : 죽은 사람의 생전 공적을 찬양하고, 슬퍼하는 뜻을 나타내는 글로, 제문과 같다.

1914년 11월 8일. 갑신. 맑음.

八日。甲申。陽。

1914년 11월 9일. 을유. 맑음.

九日。乙酉。陽。

1914년 11월 10일. 병술. 맑음.

十日。丙戌。陽。

1914년 11월 11일. 정해. 흐림. 어둑해지면서 눈이 내릴 것 같았다.

十一日。丁亥。陰。陰雪意輕。

1914년 11월 12일. 무자. 새벽에 눈이 내리고 흐려짐.

十二日。戊子。晨雪，陰。

1914년 11월 13일. 기축. 흐림.

十三日。己丑。陰。

1914년 11월 14일. 경인. 맑음.

十四日。庚寅。陽。

1914년 11월 15일. 신묘. 맑음.

十五日。辛卯。陽。

1914년 11월 16일. 임진. 흐림.

十六日。壬辰。陰。

1914년 11월 17일. 계사. 흐림.

十七日。癸巳。陰。

1914년 11월 18일. 갑오. 맑음.

十八日。甲午。陽。

1914년 11월 19일. 을미. 맑음. 나씨 집안으로 시집간 딸이 병 때문에 집에 왔다.

十九日。乙未。陽。以羅氏女患歸巢。

1914년 11월 20일. 병신. 맑음. 수성이씨(水城李氏)에게 시집간 딸의 조고(祖考)의 대상(大祥)을 위문하였다.

299

二十日。丙申。陽。慰問水城李氏女，祭祖考祥。

1914년 11월 21일. 정유. 맑음. 하만(河晩)의 김낙주(金洛柱)댁으로 들어가 유숙했다.

二十一日。丁酉。陽。入河晩金洛柱宅，留宿。

1914년 11월 22일. 무술. 맑음. 집으로 돌아왔다.

二十二日。戊戌。陽。還巢。

1914년 11월 23일. 기해. 맑음.

二十三日。己亥。陽。

1914년 11월 24일. 경자. 맑음.

二十四日。庚子。陽。

1914년 11월 25일. 신축. 흐림. 장동으로 돌아왔다. 비가 계속 내렸다.

二十五日。辛丑。陰。還章洞。雨連日。

1914년 11월 26일. 임인. 흐림.

二十六日。壬寅。陰。

1914년 11월 27일. 계묘. 흐림. 눈보라로 매우 추웠다.

二十七日。癸卯。陰。風雪極寒。

1914년 11월 28일. 갑진. 맑다가 다시 흐림. 매우 추웠다.

二十八日。甲辰。陽而復陰，極寒。

1914년 11월 29일. 을사. 흐리고 매우 추움.

二十九日。乙巳。陰。極寒。

1914년 12월 초 1일. 병오. 맑음.

十二月。初一日。丙午。陽。

1914년 12월 2일. 정미. 흐림.

二日。丁未。陰。

1914년 12월 3일. 무신. 맑음.

三日。戊申。陽。

1914년 12월 4일. 기유. 맑음.

四日。己酉。陽。

1914년 12월 5일. 경술. 흐림.

五日。庚戌。陰。

1914년 12월 6일. 신해. 맑고 한 차례 바람이 불었다. 이날, 두세 사람과 음주하며 광주(光州)의 백일장의 일을 얘기하다가 혹 말이 남의 단점을 말하는 데 미치게 되었다. 나도 또한 ‘누가 대탈공[빈 껍데기]이라 말하는가, 당돌하게도 풍물(風物)을 거둔다.[誰謂大脫空, 唐突風物收]’라는 구절이 있지만 지금까지 입밖으로 내지 않았다. 공론은 억제하기 어려운데도 망령되어 이 말을 하였으니, 이제부터는 맹세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절실함으로 기록한다.

六日。辛亥。陽而有一抹風。是日也，與二三子飲酒，談話光州白日場之事，或語及人之短處。我亦有‘誰謂大脫空，唐突風物收’句，而今未吐口。公論難抑，而妄有此語，自茲以往，誓不言人之短處也。切以記之。

1914년 12월 7일. 임자. 맑음.

七日。壬子。陽。

1914년 12월 8일. 계축. 맑음.

八日。癸丑。陽。

1914년 12월 9일. 갑인. 맑음.

九日。甲寅。陽。

1914년 12월 10일. 을묘. 흐림.

十日。乙卯。陰。

1914년 12월 11일. 병진. 흐림.

十一日。丙辰。陰。

1914년 12월 12일. 정사. 흐리고 비.

十二日。丁巳。陰雨。

1914년 12월 13일. 무오. 흐림.

十三日。戊午。陰。

1914년 12월 14일. 기미. 흐리고 바람이 불어 춥다가 밤에 눈이 옴.

十四日。己未。陰風寒，夜雪。

1914년 12월 15일. 경신. 개었으나 추움.

十五日。庚申。晴寒。

1914년 12월 16일. 신유. 맑음. 집을 지나 장동으로 돌아왔다.

十六日。辛酉。陽。過家還章洞。

1914년 12월 17일. 임술. 흐림.

十七日。壬戌。陰。

1914년 12월 18일. 계해. 맑다가 흐림. 유병하(柳炳夏)가 술을 데워놓고 초대하자 가서 여러 잔을 마시고 돌아왔다. 독서하며 앉아 있자니 세속의 근심이 모두 잊혀졌다.

十八日。癸亥。陽而陰。柳炳夏煖酒以招，往飲數杯以歸。讀書而坐，渾忘塵寰之愁矣。

1914년 12월 19일. 갑자. 흐림.

十九日。甲子。陰。

1914년 12월 20일. 을축. 맑다가 흐림.

二十日。乙丑。陽而陰。

303

1914년 12월 21일. 병인. 맑음. 집으로 돌아왔다.

二十一日。丙寅。陽。還巢。

1914년 12월 22일. 정묘. 흐림. 성하게 눈 올 뜻이 있었다.

二十二日。丁卯。陰。有森影雪。

1914년 12월 23일. 무진. 흐림.

二十三日。戊辰。陰。

1914년 12월 24일. 기사. 흐림.

二十四日。己巳。陰。

1914년 12월 25일. 경오. 흐림.  
二十五日。庚午。陰。

1914년 12월 26일. 신미. 맑음.  
二十六日。辛未。陽。

1914년 12월 27일. 임신. 흐림.  
二十七日。壬申。陰。

1914년 12월 28일. 계유. 맑음.  
二十八日。癸酉。陽。

1914년 12월 29일. 갑술. 맑음.  
二十九日。甲戌。陽。

1914년 12월 30일. 을해. 맑음.  
三十日。乙亥。陽。





거연술지(居然述之)  
망각노장지(罔覺老將至)  
유광록의 소시에 화운함[和柳光綠小詩]  
다섯 그루의 버들[가사]  
광록의 소시[光綠小詩] -유광록(柳光綠)  
아이들 가르치는 운을 써서 한가로이 읊조림[用教兒韻閑吟]  
미암선생사실(眉巖先生事實) -미암선생유고(眉岩先生遺稿)  
사문 한학노에게 이별하며 주다[贈別韓斯文學魯]  
우연히 흥을 느껴서[偶然感興]  
아이들을 가르친 운자로 하늘을 읊다[因教兒韻咏天]  
죽당 화갑연 차운시(竹堂花甲宴次韻)  
죽당 원운(竹堂原韻) -송혁모(宋赫模)  
가잠의 권병귀가 고향에 돌아간다고 하기에 주다[示佳岑權炳貴還鄉]  
도산급문제현록(陶山及門諸賢錄)의 김용(金隆)과 박광전(朴光前)  
문순공 퇴도선생 언행록(文純公退陶先生言行錄)  
목포 현기봉의 백전운을 써서 짓다[用木浦玄起鳳白戰韻]  
치포관(縑布冠) 만들기  
도산급문제현록(陶山及門諸賢錄)의 정구(鄭述)  
퇴계선생이 이증구에게 보낸 편지[退溪先生與李仲久書]



1915년 3월 25일. 기해, 맑다가 흐림. 엇그제 어린 손자를 데리고 와서 유숙(柳塾)에 입학시켰다. 그(손자)의 아버지가 오자 애친지심(愛親之心)이 더욱 도타워져서 배움을 버리고 가버렸다. 거연히 기술한다.

내가 배움으로 이끈 것은 성(性)의 욕구이며, 내가 부모를 그리워하는 것은 성(性)의 이치이다. 성의 욕구란 것은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선(善)을 좋아하며, 성의 이치란 것은 양지양능(良知良能)<sup>1)</sup>함이다. 나와 너 사이에는 추구하는 것(趨向)이 같지 않으니, 나의 뜻대로 하고자하면 너의 뜻을 어기는 것이고, 너의 뜻대로 하고자하면 나의 뜻을 어기게 된다.

대저 일찍이 위인지리(爲人之理)에 대해 논했으니, 공자는 이르기를, “일음 일양을 도라고 하니, 그것을 잇는[발하는] 것이 선이고 그것을 이룬 것이 성이다.[一陰一陽之謂道, 繼之者善也, 成之者性也.]”<sup>2)</sup>라고 했다. 성(性)이란 것은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인데, 맹자는 사단(四端)으로 끄집어내어 말하였고, 정자(程子)<sup>3)</sup>는 이것을 미루어 상달(上達)<sup>4)</sup>하였다. 지극히 고요한 가운데 이르러서 원래부터 이 이치가 있으며, 무성무취(無聲無臭)하고 혼연히 온전하게 갖추어져 있다. 진실 무망<sup>5)</sup>한 것이 성(誠)이다. 때문에 성(誠)이 속에 있는 것을 신단(信

1) 양지양능(良知良能) : 양지는 저절로 아는 것, 양능은 저절로 능한 것을 말한다. 맹자가 이르기를 “사람이 배우지 않고도 능한 것은 양능이요, 생각하지 않고도 아는 것은 양지이다.[人之所不學而能者, 其良能也. 所不慮而知者, 其良知也.]”라고 하였다.(《맹자》 <진심상(盡心上)>)

2) 일음일양을 …… 이다 : 《주역》 <계사 상(繫辭上)> 제5장에 있는 구절이다.

3) 정자(程子) : 중국 송나라의 정명도(程明道, 1032~1085)와 정이천(程伊川, 1033~1107) 두 형제를 말한다.

4) 상달(上達) : 공자는 “군자는 상달(上達)하고 소인은 하달(下達)한다.”라고 하였고, 또 “나는 아래로 인간의 일을 배우면서 위로 천리(天理)를 체득하는 사람이다.[下學而上達]”라고 하였다.(《논어》 <현문(憲問)>)

5) 진실무망(眞實無妄) : 주자(朱子)가 《중용》 제16장 “무릇 미세한 것이 나타나니, 정성을 가릴 수 없는 것이 이와 같다.[夫微之顯, 誠之不可揜, 如此夫!]”에서의 ‘성(誠)’자를 풀이하면서 “진실하여 허망함이 없는 것이다.[眞實無妄]”라고 하였다.

端)으로 끄집어내어 말한 것이다. 이것 또한 맹자의 본래 뜻이다. 그러나 얕은 견문과 지식으로는 두루 알기가 쉽지 않다. 가만히 《근사록(近思錄)》의 한 단락을 생각해보니, 인(仁)에는 자애(慈愛)하고 온화(溫和)하다는 의미가 있고, 의(義)에는 참렬(慘烈)하게 결단한다는 의미가 있다. 예(禮)에는 선저(宣著, 드러냄)하고 발휘(發揮)한다는 의미가 있고, 지(智)에는 수렴(收斂)하되 흔적이 없게 하는 의미가 있다.<sup>6)</sup> 이 네 가지의 의미는 곧 춘하추동(春夏秋冬)의 사계절이 유행하는 기상이다.

음양(陰陽)으로 총괄해보면, 온화하고 선저한 것은 양이고, 참렬하고 수렴한 것은 음이다. 오행(五行)에 해당시켜 보면, 온화 선저는 목(木)과 화(火)에 해당하고, 참렬과 수렴은 금(金)과 수(水)에 해당한다. 이 네 가지에 기왕(寄旺, 붙어서 왕성함)하여 성실(誠實)한 것이 토(土)이다. 천도(天道)의 원형이정(元亨利貞)은 곧 이것일 뿐이다.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원형이정은 천도의 떳떳함이요, 인의예지는 인성의 버리이다.[元亨利貞, 天道之常. 仁義禮智, 人性之綱]”<sup>7)</sup>라고 하였다. 이는 실로 하늘과 사람의 이치로, 꼭 맞아떨어져 흠잡을 데 없는 말이다.

하늘과 사람 사이에 소이연(所以然, 그렇게 되는 까닭)은 태극(太極)이요, 소연(所然, 그렇게 되는 현상)은 음양오행(陰陽五行)이다. 그렇다면 태극은 이(理)요, 음양오행은 기(氣)이다. 다만 이러한 이와 기가 엉기고 교감하여 천지가 처음 열렸으니, 천지 사이에 가득한 것은 모두 이와 기로, 만고(萬古)토록 유행(流行)하고 만물(萬物)을 화생(化生)한다.

사람이 이 이치의 온전함을 품부 받아서 선으로 발현하고 성으로

6) 인에는 …… 의미가 있다: 주자의 말로, 《주자어류》 권6 <성리(性理)3>과 《성리대전서》 권30 <성리(性理) 8>에 나온다.

7) 원형이정은 …… 버리이다: 《소학집주(小學集註)》 <소학제사(小學題辭)에 나온다. 일기 원문에서는 ‘元亨利貞’에 대해 ‘元亨之利貞’이라고 잘못 표기하고 있다.

이룬다.<sup>8)</sup> 성의 양지양능을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으며, 누가 그것을 빼앗을 수 있겠는가? 너의 능한 것을 따르고 나의 인도한 바를 생각하여 지키고 잃지 말지어다.

二十五日。己亥。陽而陰。再昨率釋孫以來，入學于柳塾。渠父之來，愛親之心尤篤，捨學以去。居然述之。余之引學者，性之欲也，汝之戀親者，性之理也。性之欲者，好學好善也，性之理者，良知良能也。余汝之間，趨向不同，欲遂余志，拂汝志也，欲遂汝志，拂余志也。蓋嘗論乎爲人之理。子曰，“一陰一陽之謂道，繼之者善也，成之者性也。”性也者，仁義禮智信也，孟子剔出四端而言之。程子推此上達。以至於至靜之中，元有此理，無聲無臭，渾然全具。真實無妄者誠也。故以誠在中者，惹出信端而言之。此亦孟子之本意也。然淺見薄識，難可容易周識矣。竊想《近思》一段，仁有慈愛溫和底意思，義有慘烈強斷意思，禮有宣著發揮底意思，智有收斂無痕跡意思。此四意思，卽春夏秋冬四時流行底氣象也。總之於陰陽，則溫和宣著者陽也，慘烈收斂者陰也。敷之於五行，則溫和宣著者木火也，慘烈收斂者金水也。寄旺於四者，以誠實者土也。天道之元亨利貞，卽此而已。朱子曰“元亨之利貞，天道之常，仁義禮智，人性之綱。”此實天人之理，脗合無間之語也。天人之際，所以然者，太極也，所然者，陰陽五行也。然則，太極者，理也，陰陽五行者，氣也。只此理氣，網緼交感，肇判天地，則塞于天地間者，都是理氣，而流行萬古，化生萬物。人稟此理之全，而繼以善，成以性也。性之良知良能，孰能禦之，孰能奪之。從汝所能，思余所引，守以勿失也。

1915년 3월 26일. 경자. 흐림.

二十六日。庚子。陰。

8) 선으로 …… 이룬다: 《주역》 <계사전 상>에 “한 번 양(陽)하고 한 번 음(陰)하는 것이 도이니, 이것을 잇는[발현하는] 것이 선(善)이고 이것을 이루는 것이 성(性)이다.”라고 하였다.

1915년 3월 27일. 신축. 흐리고 비.

二十七日。辛丑。陰雨。

1915년 3월 28일. 임인. 맑음.

二十八日。壬寅。陽。

1915년 3월 29일. 계묘. 맑음.

二十九日。癸卯。陽。

1915년 3월 30일. 갑진. 맑음.

三十日。甲辰。陽。

장차 늙음이 이를 것을 잊고 살았는데,  
저절로 백발노인 되었구나.  
세월은 진실로 붙잡아 둘 수 없는 것,  
서글프게 또 봄을 보내네.

罔覺老將至  
自爲白髮人  
歲月固難住  
悵然又送春

1915년 4월 1일. 을사. 맑음.

四月。初一日。乙巳。陽。

1915년 4월 2일. 병오. 흐리고 밤에 비.

二日。丙午。陰夜雨。

1915년 4월 3일. 정미. 흐리고 비.

三日。丁未。陰雨。

1915년 4월 4일. 무신. 갸.

四日。戊申。晴。

<유광록의 소시(小詩)에 화운함>

和柳光綠小詩

세속(世俗) 일은 모두 잊고,  
도의(道義)의 기풍만을 숭상해 왔지.  
주자의 글은 공자 맹자를 전한 것이니,  
함양하면 그 중(中)을 얻으리.

世俗渾忘了  
尙來道義風  
朱書傳孔孟  
涵養得其中

다섯 그루의 버들과 두 그루 오동나무는 문 앞 우물가에 심어두고,  
여러 포기 국화와 한그루 푸른 솔은 울타리 안으로 옮겼도다.

아마도 이곳의 손님은 북쪽 창문으로 놀러 온 맑은 바람이겠지.

五楊柳 二梧桐은 門前井上 심어두고

數叢菊 一青松은 籬下園中 옮겼도다

아마도 이곳에 손되기는 질기난바 北窓淸風

<광록의 소시>

光綠小詩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아,  
오랑캐 풍토에 빠지지 말세.  
옛날 공자 맹자의 도는,  
주자의 글 속에서 나온다네.

蚩蚩舉世人  
莫爲戎狄風  
古之孔孟道  
因發朱書中

1915년 4월 5일. 기유. 흐리고 비가 흠족하게 내렸다.

五日。己酉。陰，雨洽注。

1915년 4월 6일. 경술. 맑음.

六日。庚戌。陽。

1915년 4월 7일. 신해. 약간 맑다가 흐림.

七日。辛亥。半陽陰。

1915년 4월 8일. 임자. 흐리고 비.

八日。壬子。陰雨。

1915년 4월 9일. 계축. 흐리고 비.

九日。癸丑。陰雨。

1915년 4월 10일. 갑인.

十日。甲寅。

1915년 4월 11일. 을묘. 맑음.

十一日。乙卯。陽。

1915년 4월 12일. 병진. 맑음.

十二日。丙辰。陽。

1915년 4월 13일. 정사. 맑음.

十三日。丁巳。陽。

1915년 4월 14일. 무오.

十四日。戊午。

1915년 4월 15일. 기미. 맑음.



十五日。己未。陽。

1915년 4월 16일. 경신. 맑음. 집에 돌아왔다.

十六日。庚申。陽。還巢。

1915년 4월 17일. 신유. 맑음.

十七日。辛酉。陽。

1915년 4월 18일. 임술. 흐림.

十八日。壬戌。陰。

1915년 4월 19일. 계해. 흐리다가 비가 조금 온 후에 맑음.

十九日。癸亥。先陰少雨後陽。

1915년 4월 20일. 갑자일. 맑음.

二十。甲子日。陽。

1915년 4월 21일. 을축. 흐림.

二十一日。乙丑。陰。

1915년 4월 22일. 병인. 비움.

二十二日。丙寅。雨。

1915년 4월 23일. 정묘.

二十三日。丁卯。

1915년 4월 24일. 무진. 맑다가 흐림.

二十四日。戊辰。陽陰。

1915년 4월 25일. 기사. 맑음.

二十五日。己巳。陽。

1915년 4월 26일. 경오. 맑음.

二十六日。庚午。陽。

1915년 4월 27일. 신미. 맑음.

二十七日。辛未。陽。

1915년 4월 28일. 임신. 흐린 후에 비 온 흔적이 조금 있음.

二十八日。壬申。陰雨少痕。

1915년 4월 29일. 계유. 흐리고 비.

二十九日。癸酉。陰雨。

1915년 4월 30일. 갑술. 개입.

三十日。甲戌。晴。

1915년 5월 1일. 을해. 맑음.

五月。初一日。乙亥。陽。

1915년 5월 2일. 병자. 맑음.

二日。丙子。陽。

1915년 5월 3일. 정축. 흐림.

三日。丁丑。陰。

1915년 5월 4일. 무인. 흐리고 비.

四日。戊寅。陰雨。

1915년 5월 5일. 기묘. 흐리고 비.

五日。己卯。陰雨。

1915년 5월 6일. 경진. 흐림. 비가 흠족하게 내렸다.

六日。庚辰。陰。雨洽注。

1915년 5월 7일. 신사. 개입.

七日。辛巳。晴。

1915년 5월 8일. 임오. 맑음. 아이들 가르치는 운을 써서 한가로이 읊조렸다.

八日。壬午。陽。用教兒韻閑吟。

독서로서 지(知)를 이루고<sup>9)</sup>

讀書以致知

성인은 배움으로써 기약할 수 있네.

聖可學爲期

덕을 이루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으니,

成德無他法

행하는 바가 곳에 따라 마땅해야 하리.

所行隨處宜

9) 지를 이루고 : 격물치지(格物致知). 《대학(大學)》의 팔조목(八條目) 가운데 첫 조목으로,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궁극의 지식에 도달한다는 뜻이다.

1915년 5월 9일. 계미. 흐렸다가 맑고 맑았다가 다시 흐림. 본가에 다녀왔다.

九日。癸未。陰而陽，陽而陰。往還本第。

1915년 5월 10일. 갑신. 흐림. 비가 흠족하게 적셨다.

十日。甲申。陰。雨洽注。

1915년 5월 11일. 을유. 개었다가 흐림.

十一日。乙酉。晴陰。

1915년 5월 12일. 병술. 맑음. 기암(冀巖)과 함께 치포관(縑布冠)<sup>10)</sup>을 만 들었다.

十二日。丙戌。陽。與冀巖成縑布冠。

1915년 5월 13일. 을해. 맑음.

十三日。乙亥。陽。

1915년 5월 14일. 무자. 맑음. 미암선생 유고를 보고, 선생의 사실을 기록하였다.

十四日。戊子。陽。見眉巖先生遺稿，記先生事實。

<미암선생사실(眉巖先生事實)>

미암선생의 성은 유(柳)요, 선산인(善山人)이다. 휘는 희춘(希春)이고, 벼슬은 부제학(副提學)을 지냈으며, 시호(諡號)는 문절공(文節公)이다. 송정대

10) 치포관(縑布冠) : 유생(儒生)들이 평거(平居)시에 쓰던 관이다. 검은 베로 상투를 쌀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 쓴 관이다.

부(崇政大夫) 의정부 좌찬성(議政府左贊成)에 증직되었다. 세 조정을 내리 섬겼고, 관직이 2품에 이르렀다.

《육서부주(六書附註)》·《헌근록(獻芹錄)》<sup>11)</sup> 등의 책으로 계육(啓沃)<sup>12)</sup>하였고, 《주자대전(朱子大全)》·《주자어류(朱子語類)》 등의 여러 편을 교정하였다. ‘반무(半畝)의 방당(方塘)’<sup>13)</sup>에 뜬 달빛처럼 마음속이 쇠락(灑落)하였고, 완심도(玩心圖)와 감흥시(感興詩)는 연원이 뚜렷하고 발랐다.

선조 10년(1577) 정축에 왕이 “학문은 정밀하고 전일했으며 고금에 두루 통하였다.”라고 하고 가묘에 치제하게 하였다. 현종 10년(1669) 기유에 찬에 이르기를 “전수된 도를 터득하고, 선현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고, 서원을 사액(賜額)하였다. 선조가 특별히 어의(御衣)와 어혜(御鞋)를 하사하여 지금까지 전하고, 정조가 특별히 《춘추(春秋)》와 《시경[雅頌]》<sup>14)</sup>을 하사하여 지금까지 전한다. 의암서원(義巖書院)은 훼손되었지만 집은 장동에 전하는데 장동에는 영령을 모신 사당이 있고, 정자가 연계(漣溪)의 물가에 의지해 있다.

#### 眉巖先生事實。

眉巖先生姓柳, 善山人。諱希春, 官副提學, 諡文節公。贈崇政大夫, 議政府左贊成。歷事三朝, 職至二品。《六書附註》《獻芹錄》等書之啓沃, 《朱子大全》與《語類》諸篇之校正。半畝塘中秋月, 胸襟之灑落, 玩心圖, 感興詩, 淵源之的正。宣廟十年丁丑若曰, “學究精一, 融貫古今”, 致祭家廟。顯宗十年己酉贊曰 “道得其傳, 見許先正”, 賜額書院。宣廟特賜御衣御鞋, 以今尚傳。正宗特賜《春秋》《雅頌》, 於是尚存。院毀義巖,

- 11) 헌근록(獻芹錄) : 유희춘이 1570년에 선조에게 바친 책이다.
- 12) 계육(啓沃) : 정성을 다해 임금을 개도(開導)함을 이른다. 상(商)나라 고종(高宗)이 재상 부열(傅說)에게 “그대 마음속의 물결기를 터서 나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여 적시게 하라.[啓乃心, 沃朕心.]”라고 부탁한 말에서 유래하였다.
- 13) 반무(半畝)의 방당(方塘) : 주희의 <관서유감(觀書有感)> 시에 ‘반 이랑 네모진 못에 거울 하 나가 열렸나니,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가 다 함께 배회하네.[半畝方塘一鑑開, 天光雲影共徘徊]’라는 구절이 나온다.
- 14) 아송(雅頌) : 아(雅)는 조정의 악곡(樂曲)이고, 송(頌)은 종묘의 악곡인데, 《시경》에 이들 노래가 실려 있으므로, 전하여 《시경》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家傳猗洞，洞有妥靈之廟，亭依漣溪之沼。

1915년 5월 15일. 기축. 맑음.

十五日。己丑。陽。

<사문 한학노에게 이별하며 주다>

도를 닦음에는 일정한 스승 없으나,  
지선을 마땅히 스승 삼아야 하네.  
나는 말한 것도 깨닫지 못하니,  
지난 것은 좃을 수 없다네.  
어진 사람 있다고 들었으니,  
새벽에 일어나 부지런히 힘쓴다네.  
유연히 마음에 맞고 좋았는데,  
헤어짐에 이쉽게 서로 이별이로세.

贈別韓斯文學魯

爲道無常師  
師其至善宜  
吾施罔覺也  
去者莫能追  
聞有賢夫子  
鷄鳴起孜孜  
油然情好密  
分乎嗟相離

1915년 5월 16일. 경인. 맑음.

十六日。庚寅。陽。

1915년 5월 17일. 신묘. 맑음.

十七日。辛卯。陽。

1915년 5월 18일. 임진. 맑음.

十八日。壬辰。陽。

1915년 5월 19일. 계사. 맑음.

十九日。癸巳。陽。

1915년 5월 20일. 갑오. 흐림. 밤까지 비가 내렸다.

二十日。甲午。陰。雨至夜。

1915년 5월 21일. 을미. 맑. 종손 용직(容稷)의 어머니 상에 조문했다.

二十一日。乙未。晴。慰問從孫容稷慈親喪。

1915년 5월 22일. 병신. 우연히 흥을 느껴서 시를 썼다.

二十二日。丙申。偶然感興。

성인의 도에는 중지가 있으니,	聖道有其宗
성선은 그 가운데서 유래하였네.	由來性善中
공공함은 하늘과 합해지니,	共公天與合
만고토록 저절로 상통하리라.	萬古自相通
경전과 제가의 책들은	經傳與諸子
필경에는 귀결처가 같다네.	必竟歸趣同
사람은 누구나 배울 수 있지만,	人皆可以學
주경(主敬)만이 뛰어난 공로 드러나네.	主敬見奇功
본원이 광대해지면,	本源自廣大
더러운 찌꺼기 다 녹아버리네.	渣滓盡消融
지극하다 자양 <sup>15)</sup> 의 계책이여,	至哉紫陽謨
천년을 몽매한 무리와 짝하였네.	千載伴群蒙
훈고와 장구는,	訓詁與章句
의리가 무궁함을 다 하였으니,	義理儘無窮
아침부터 밤까지 학습하여,	朝益暮以習
함양하고 확충해야 하리.	涵養擴而充
마음을 거두고 정좌하니,	神心收斂坐

15) 자양(紫陽) : 송(宋)나라 학자 주희(朱熹)의 별호이다. 주희의 부친 주송(朱松)이 자양산(紫陽山)에서 독서하였는데, 후에 주희가 복건(福建) 숭안(崇安)에서 살면서 정사의 이름을 자양서실(紫陽書室)이라고 하였다.

태극이 나의 몸에 있고,  
사단이 느낌에 따라 드러나니,  
새로운 덕이 자연히 숭고해지네.

太極在余躬  
四端隨感見  
新德自然崇

1915년 5월 23일. 정유. 흐림.  
二十三日。丁酉。陰。

1915년 5월 24일. 무술. 맑음.  
二十四日。戊戌。陽。

1915년 5월 25일. 기해. 맑음.  
二十五日。己亥。陽。

1915년 5월 26일. 경자. 맑음.  
二十六日。庚子。陽。

1915년 5월 27일. 신축. 맑음.  
二十七日。辛丑。陽。

1915년 5월 28일. 임인. 흐림. 소나기가 내렸다.  
二十八日。壬寅。陰。有驟雨。

1915년 5월 29일. 계묘. 흐리고 비.  
二十九日。癸卯。陰雨。



1915년 6월 1일. 갑진. 흐리고 비.

六月。初一日。甲辰。陰雨。

1915년 6월 2일. 을사. 흐린 후 갸.

二日。乙巳。先陰後晴。

1915년 6월 3일. 병오. 맑음.

三日。丙午。陽。

1915년 6월 4일. 정미. 맑음.

四日。丁未。陽。

1915년 6월 5일. 무신. 맑음.

五日。戊申。陽。

1915년 6월 6일. 기유. 맑음.

六日。己酉。陽。

1915년 6월 7일. 경술. 맑음.

七日。庚戌。陽。

1915년 6월 8일.辛亥. 맑음.

八日。辛亥。陽。

1915년 6월 9일. 임자. 맑음. 오후에 비가 내렸다.

九日。壬子。陽。午雨。

1915년 6월 10일. 계축. 땅이 흔들렸다.

十日。癸丑。地動。

<아이들을 가르친 운자로 하늘을 읊다>

퇴연[유순]한 땅 위에 확연한 하늘이라.<sup>16)</sup>  
 처음 쪼개어져서 갈라진 이후 몇 만 년이런가.  
 그 도는 음양으로, 주야가 나누어지며,  
 문(文)에 이와 기 있어 저절로 이어지네.  
 형상의 가장 위는 누가 주재하는가.  
 숫자는 반드시 기수이고 몸체는 지극히 원만하네.  
 만물을 낳음에 사사로움 없으니 이는 자 성인이라,  
 문왕은 뒤이고 복희가 먼저이네.

因敦兒韻咏天

隕然地上確然天  
 肇判以來幾萬年  
 其道陰陽分晝夜  
 有文理氣自固連  
 形於最上誰主宰  
 數則必奇體至圓  
 生物無私知者聖  
 文王居後伏羲先

1915년 6월 11일. 갑인. 맑음. 집에 돌아와서 곧 늘어졌다.

十一日。甲寅。陽。還巢，卽拖。

1915년 6월 12일. 을묘. 흐리고 비.

十二日。乙卯。陰雨。

1915년 6월 13일. 병진. 흐림.

十三日。丙辰。陰。

16) 퇴연한 …… 하늘이라: 《주역》 <계사전 하(繫辭傳下)>에 “천도(天道)인 건(乾)은 확연하여 사람들에게 평이하게 보여 주고, 지도(地道)인 곤(坤)은 퇴연하여 사람들에게 간략하게 보여 준다.[夫乾確然示人易矣，夫坤隕然示人簡矣.]”라는 말이 보인다.

1915년 6월 14일. 정사. 맑음.

十四日。丁巳。陽。

1915년 6월 15일. 무오. 맑음.

十五日。戊午。陽。

1915년 6월 16일. 기미. 맑음.

十六日。己未。陽。

1915년 6월 17일. 경신<sup>17)</sup>. 맑다가 흐림. 비가 오려다가 오지 않았다.

十七日。庚申。陽而陰。欲雨未雨。

1915년 6월 18일. 신유. 맑은 후 흐림. 흐리고 바람 봄.

十八日。辛酉。陽而陰，陰而風。

323

1915년 6월 19일. 임술. 맑음.

十九日。壬戌。陽。

1915년 6월 20일<sup>18)</sup>. 계해. 맑음.

二十日。癸亥。陽。

1915년 6월 21일. 갑자. 맑음. 매우 더웠으며, 오후에 소나기가 내려 시  
냇물이 불어났다.

17) 원문에는 '경(庚)'자만 적혀 있지만 앞뒤로 따져서 덧붙였다.

18) 20일 : 원문에는 '이십일일(二十一日)'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바로잡았다.

二十一日。甲子。陽。極熱，午後驟雨，溪水漲。

1915년 6월 22일. 을축. 맑음. 오후에 비가 내렸다. 얼핏 듣자니 사면의 한 고개 밖에는 모두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 비로소 ‘어찌 천 리 밖을 알 수 있으리, 비와 바람 불지 않을지’<sup>19)</sup>라는 구절을 알겠다.

二十二日。乙丑。陽，午後雨。便聞四面一嶺之外，皆不雨。始知‘安知千里外，不有雨兼風’之句。

1915년 6월 23일. 병인. 맑음.

二十三日。丙寅。陽。

1915년 6월 24일. 정묘. 맑음.

二十四日。丁卯。陽。

1915년 6월 25일. 무진. 맑음.

二十五日。戊辰。陽。

1915년 6월 26일. 기사. 맑음.

二十六日。己巳。陽。

1915년 6월 27일. 경오. 맑음. 가뭄이 아주 심해서 백성들의 근심이 매우 깊다.

19) 어찌 …… 않을지 : 당나라 이교(李嶠, 645~714?)가 지은 <중추월(仲秋月)>이란 시에 나온다.  
둥근달이 찬 하늘에 솟으니[圓魄上寒空]  
모두 말하길 사해가 같다고 하네[皆言四海同]  
어찌 천 리 밖을 알 수 있으리[安知千里外]  
비와 바람 불지 않을지[不有雨兼風]

二十七日。庚午。陽。旱旣大甚，民憂太深。

1915년 6월 28일. 신미. 맑음. 소나기가 잠깐 지나갔다.

二十八日。辛未。陽。驟雨乍過。

1915년 6월 29일. 임신. 맑음.

二十九日。壬申。陽。

1915년 6월 30일. 계유. 맑음. 송혁모(宋赫模) -호는 죽당(竹堂)- 의 회갑연에 임하여 차운시를 지었다.

三十日。癸酉。陽。臨宋赫模號竹堂，花甲宴次韻。

죽당은 백년 해로하는 사람이라, 처음 태어날 때도 분명 이때였네. 자식들 헌수의 술잔 올리니 돈독한 성효(誠孝)요, 손자들은 때때옷 입고 춤추니 참다운 기쁨이로다. 어진 명성 항상 들림은 남쪽의 선비요, 헌하(獻賀)하러 몰려듬은 좌상의 손님이로세. 몸은 강녕하고 겸하여 덕도 좋으니 <sup>20)</sup> , 이에 큰 복과 명이 새로울 것을 알겠네.	竹堂偕老百年身 初度分明際此辰 肖子壽卮誠孝篤 穉孫彩舞供歡眞 仁聲常聞南中士 獻賀衆來座上賓 身且康寧兼好德 從知遐福命維新
--	--

325

### <죽당 원운>

### 竹堂原韻

스스로 생각건대 고로여생(孤露餘生)<sup>21)</sup>이 문득 육순에 이르니, 옛날의 감회가 새로와져서 슬픈 심사가 한 가지가 아니다. 이에 시 한 수를 지어 회포를 서술

20) 덕도 좋으니 : 병이호덕(秉彝好德). 호덕은 사람이면 모두 천성적으로 좋아한다는 뜻이다. <시경> <중민(蒸民)>에 “사람이 떳떳한 본성을 가진지라 이 아름다운 덕을 좋아하도다.[民之秉彝，好是懿德]” 하였다.

21) 고로여생(孤露餘生) : 외롭게 살아남아 돌보아 주는 사람이 없는 탓에 겨우 살아가는 목숨이라는 뜻으로, 고(孤)는 부모가 없다는 뜻이고, 노(露)는 돌보아 주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한다.

自念孤露餘生, 洽到六旬, 感舊備新, 愴緒非一。茲構一律, 聊以述懷。

고루한 나의 일생을 생각해보니,	惟我一生孤陋身
오늘 아침에야 구로(劬勞) <sup>22</sup> 하심을 깨달았네.	今朝始覺劬勞辰
마누라는 해로하지만 항상 병이 많고,	妻兮偕老常多病
손자들이 기쁨 주니 참으로 즐겁네.	孫爾供歡可得真
작은 술자리가 친구들에게 부끄럽지만,	盤卓小杯猶愧友
죽림에서 해 기우니 손님 맞기 좋구나.	竹林斜日好迎賓
신선옹은 무슨 일로 세상을 싫어하는가,	仙翁何事徒厭世
맑은 복에 자연히 백발이 새롭다네.	清福自然白髮新

1915년 7월 1일. 갑술. 맑음.

七月。初一日。甲戌。陽。

326

1915년 7월 2일. 을해. 흐림. 잠깐 비가 왔으나 먼지를 적실 정도도 못되어 백성들의 근심이 너무 심하다.

二日。乙亥。陰。乍雨, 未浥塵, 民憂太甚。

1915년 7월 3일. 병자. 맑음.

三日。丙子。陽。

1915년 7월 4일. 정축. 잠깐 비가 내림.

四日。丁丑。乍雨。

22) 구로(劬勞) : 낡아 주고 길러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말한다. 《시경》 <소아(小雅)·육아(蓼莪)>에 “슬프고 슬프도다 부모님 생각, 낡고 길러 주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던가.[哀哀父母, 生我劬勞]”라고 하였다.

1915년 7월 5일. 무인. 맑음.

五日。戊寅。陽。

1915년 7월 6일. 기묘. 흐림. 집에 돌아왔다.

六日。己卯。陰。還巢。

1915년 7월 7일. 경진. 맑음.

七日。庚辰。陽。

1915년 7월 8일. 신사. 맑음. 밤에 비가 왔다, 우레소리가 크게 진동하였다.

八日。辛巳。陽。夜雨。雷聲大震。

1915년 7월 9일. 임오. 맑음.

九日。壬午。陽。

327

1915년 7월 10일. 계미. 흐림.

十日。癸未。陰。

1915년 7월 11일. 갑신. 흐림.

十一日。甲申。陰。

1915년 7월 12일. 을유. 맑음.

十二日。乙酉。陽。

1915년 7월 13일. 병술. 흐림. 오후에 비가 왔다.

十三日。丙戌。陰。午後雨。

1915년 7월 14일. 정해. 흐리고 비가 음. 계곡물이 불어났다.

十四日。丁亥。陰雨。溪水漲。

1915년 7월 15일. 무자. 흐리고 비가 음.

十五日。戊子。陰雨。

1915년 7월 16일. 기축. 흐리고 비가 음. 오후에 개었다.

十六日。己丑。陰雨。午後晴。

1915년 7월 17일. 경인. 흐림. 항상 연계정 아래의 위태로운 돌이 반드시 사람을 상하게 할 것 같아 걱정하였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비로 소 돌이 떨어졌다. 문득 ‘명을 아는 자는 바위나 담장 밑에 서지 않는다.’<sup>23)</sup>는 뜻이 생각났다.

十七日。庚寅。陰。常憂漣溪亭下危石之必傷人矣。今朝始墜，輒思‘知命者不立岩墻之下’之義。

1915년 7월 18일. 신묘. 맑음. 가잠(佳岑)의 권병귀(權炳貴)가 고향에 돌아간다고 하기에 주다.

十八日。辛卯。陽。示佳岑權炳貴還鄉。

학문(學問)과 사변(思辨)은,  
그대에게 가장 절실한 것.

學問思辨  
於君最切

23) 명을 …… 앎는다: <맹자> <진심 상(盡心上)>에 “명을 아는 자는 위험한 담장 아래에 서지 않는다.[知命者，不立乎巖墻之下]”라고 했다.



돌아가서 구하면,	歸而求之
반드시 스승이 되고도 남음이 있으리.	必有餘師
홀로 있을 때를 삼가고 두려워하며,	戒慎恐懼
성인을 기약하고 스스로 닦아가면,	期以自修
몸도 강녕해지고,	身且康寧
덕도 더욱 새로워지리라.	德乃維新

1915년 7월 19일. 임진. 맑음. 종손인 용직(容稷)의 사랑(舍廊)에서 놀았다.  
十九日。壬辰。陽。遊於宗孫容稷舍廊。

1915년 7월 20일. 계사. 맑음.  
二十日。癸巳。陽。

1915년 7월 21일. 갑오. 맑음.  
二十一日。甲午。陽。

1915년 7월 22일. 을미. 흐림.  
二十二日。乙未。陰。

1915년 7월 23일. 병신. 흐리고 비.  
二十三日。丙申。陰雨。

1915년 7월 24일. 정유. 맑음.  
二十四日。丁酉。陽。

1915년 7월 25일. 무술. 맑음.

二十五日。戊戌。陽。

1915년 7월 26일. 기해. 맑음.

二十六日。己亥。陽。

1915년 7월 27일. 경자. 흐리고 비.

二十七日。庚子。陰雨。

1915년 7월 28일. 신축. 갸.

二十八日。辛丑。晴。

1915년 7월 29일. 임인. 비.

二十九日。壬寅。雨。

1915년 8월 초 1일. 계묘. 흐리고 비. 집으로 돌아왔다.

八月。初一日。癸卯。陰雨。還巢。

1915년 8월 2일. 갑진. 맑음. 생부의 제사를 지내러 갔다.

二日。甲辰。陽。作生庭親忌之行。

1915년 8월 3일. 을사. 흐림. 아침에 비가 왔다. 집으로 돌아왔다.

三日。乙巳。陰。朝雨。還巢。

1915년 8월 4일. 병오. 흐림. 장동으로 돌아갔다.

四日。丙午。陰。還獐洞。

1915년 8월 5일. 정미. 흐리고 비.

五日。丁未。陰雨。

1915년 8월 6일. 무신. 흐림.

六日。戊申。陰。

1915년 8월 7일. 기유. 맑음. 《대학》을 보았다. 내가 보기에 《대학》은 증자(曾子)가 종(宗)을 얻게 된 책이고, 성의장(誠意章)의 ‘근독(謹獨)’은 증자가 스스로를 닦는 첫 머리이다.

七日。己酉。陽。看《大學》。看來《大學》，曾子得宗之書，誠意章謹獨，曾子自修之首。

1915년 8월 8일. 경술. 맑게 갠.

八日。庚戌。晴陽。

1915년 8월 9일. 신해. 맑음.

九日。辛亥。陽。

1915년 8월 10일. 임자. 맑음.

十日。壬子。陽。

1915년 8월 11일. 계축. 맑음. 이날은 내 생일이라 아버지의 구로(劬勞, 낳고 길러주신 은혜)에 대한 감회가 평소보다 배가 되었다.

十一日。癸丑。陽。是日生辰，感親劬勞，倍於平昔。

1915년 8월 12일. 갑인. 맑음.

十二日。甲寅。陽。

1915년 8월 13일. 을묘. 맑다가 흐리고 흐렸다가 다시 맑음. <태극도(太極圖)>를 보다가 특별히 기록했다. 성묘길에 보정리(寶亭里)<sup>24</sup>에 도착하여 우연히 부모님의 산소를 바라보았는데, 흰 나무가 달무리[月暈] 위에 서 있었다. 매우 의아하고 괴이하여 가서 보니, 곧 지심(地藁, 버섯) 두 개가 위아래 층으로 서서 임방(壬方, 정북에서 서쪽으로 15도 치우친 방위)을 가리키고 있었다.

十三日。乙卯。陽而陰，陰而陽。看<太極圖>，特記。省行到寶亭里，偶望親山，則有白木立于月暈上，甚疑怪，往觀之，乃地藁二介上下層立，指壬方也。

332

1915년 8월 16일. 무오. 흐리고 비. 집으로 돌아왔다.

十六日。戊午。陰雨。還巢。

1915년 8월 17일. 기미. 장동으로 돌아갔다.

十七日。己未。還章洞。

1915년 8월 18일. 경신. 맑음.

十八日。庚申。陽。

1915년 8월 19일. 신유. 맑음.

十九日。辛酉。陽。

24) 보정리 : 곡성군 옥과면 황산리 보정마을에 해당된다.

1915년 8월 20일. 임술. 맑음. 흐리고 비가 잠깐 왔다.

二十日。壬戌。陽。陰雨乍。

1915년 8월 21일. 계해. 맑음.

二十一日。癸亥。陽。

1915년 8월 22일. 갑자. 맑음. 석양에 두 노인이 왔다. 한명은 정해건(鄭海健)으로, 문청공(文淸公, 정철(鄭澈))의 10대손이다. 옥과 월평(月坪)에 거주하며, 자(字)가 사강(士綱)이다. 다른 한 명은 심계택(沈繼澤)<sup>25)</sup>으로, 망세정(忘世亭) -양주에 있으며, 점필재와 종유하였다.- 휘는 선(璿)<sup>26)</sup> -단종(端宗)의 명신으로 황해·경기 양도의 관찰사, 집현전 대제학을 역임하였고, 보국승록대부 영돈령을 추증 받았다.- 의 15대손이다. 옥과의 택촌(擇村)<sup>27)</sup>에 거주하며, 자는 여광(汝光)이고, 호는 석전(石田)이다.

333

二十二日。甲子。陽。夕陽二老人來，一鄭海健，文淸十代孫。居玉果月坪，字士綱。一沈繼澤，忘世亭【在揚州，佔畢齋從遊】諱璿【端廟名臣，黃海京畿兩道觀察，集賢殿大提學，贈輔國崇祿大夫領敦寧】十五代孫也。居玉果擇村，字汝光，號石田。

25) 심계택(沈繼澤) : 자는 여광(汝光), 호는 석전(石田), 본관은 청송(靑松)이다. 대제학 망세정(忘世亭) 선(璿)의 후손이고, 아버지는 노헌(魯憲)이다. 소송(小松) 정재건(鄭在健), 녹실(綠室) 정해만(鄭海晩), 참봉 황석(黃(王+奭)), 잠계(潛溪) 조장섭(趙章燮), 매천(梅泉) 황현(黃玹) 등과 서로 종유했다.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이 <석전기(石田記)>를 지었다. 시문 4권이 있다.

26) 심선(沈璿) : 자는 윤부(潤夫), 호는 망세정(忘世亭), 본관은 청송(靑松)이다. 예조참의, 경기도관찰사를 역임하였고, 중추원부사를 지낼 때 정조사(正朝使)로 임명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1466년에는 황해도관찰사에 임명되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하였다. 이후 5위의 부호군을 지내던 중 사망하였고 사후에 둔지둔녕부사로 추증되었다. 남양주시에 정자를 지어놓고 산수와 음울을 즐겼는데, 세상사를 다 잊었다는 뜻으로 망세정(忘世亭)이라 이름 붙였다. 뒤에 장릉(莊陵) 조사단(朝土壇)과 옥과에 있는 구암사(龜巖祠)에 배향되었다.

27) 택촌 : 곡성군 입면 금산리 택촌마을에 해당된다.

1915년 8월 23일. 을축. 맑음.

二十三日。乙丑。陽。

1915년 8월 24일. 병인. 맑음.

二十四日。丙寅。陽。

1915년 8월 25일. 정묘. 맑음.

二十五日。丁卯。陽。

1915년 8월 26일. 무진. 맑음. 찜통같은 더위가 계속되어 마치 여름 같았다.

二十六日。戊辰。陽。連日薰蒸如夏。

1915년 8월 27일. 기사. 맑음. 남원의 호계(虎溪)<sup>28</sup>)에 사는 진사 박해룡(朴海龍)<sup>29</sup>)이 다녀갔다.

二十七日。己巳。陽。南原虎溪進士朴海龍過。

1915년 8월 28일. 경오. 맑음.

二十八日。庚午。陽。

1915년 8월 29일. 신미. 맑음.

二十九日。辛未。陽。

28) 호계(虎溪) : 현재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를 말한다. 죽산박씨 집성촌이다.

29) 박해룡(朴海龍, 1874~ ?) : 본관은 죽산(竹山)이며, 아버지는 성현(成鉉)으로, 1894년에 진사시에 합격했다.

1915년 8월 30일. 임신. 비.

三十日。壬申。雨。

1915년 9월 1일. 계유. 맑음.

九日。初一日。癸酉。陽。

1915년 9월 2일. 갑술. 맑음.

二日。甲戌。陽。

1915년 9월 3일. 을해. 흐림.

三日。乙亥。陰。

1915년 9월 4일. 병자. 흐림. <대학> 헐구장(絜矩章)을 보았다. 세 번 득실(得失)을 말하였는데, ‘충과 신으로써 얻고, 교만함과 방자함으로 써 잃는다[忠信而得之, 驕泰而失之]’라는 구절에 이르러서, 장구(章句)에서 말하길 “천리(天理)가 보존되고 멸망하는 기미가 결정된다.[天理存亡之幾, 決矣]”라고 하였다. 주자(朱子)가 또 말하기를, “충신은 천리가 보존되는 까닭이고, 교태는 천리가 상실되는 까닭이다.[忠信乃天理之所以存, 驕泰天理所以亡]”라고 하였다. 한 단락을 기록해 둔다.

四日。丙子。陰。看《大學》絜矩章。三言得失, 而至於忠信而得之驕泰而失之章句曰, “天理存亡之幾, 決矣。”朱子又曰, “忠信乃天理之所以存, 驕泰天理所以亡”。一段記之。

1915년 9월 5일. 정축. 맑음.

五日。丁丑。陽。

1915년 9월 6일. 무인. 맑음.

六日。戊寅。陽。

1915년 9월 7일. 기묘. 맑음. 집으로 돌아왔다.

七日。己卯。陽。還巢。

1915년 9월 8일. 경진. 맑음.

八日。庚辰。陽。

1915년 9월 9일. 신사. 맑음.

九日。辛巳。陽。

1915년 9월 10일. 임오. 맑음.

十日。壬午。陽。

1915년 9월 11일. 계미. 맑다가 밤에 비.

十一日。癸未。陽夜雨。

1915년 9월 12일. 갑신. 흐리고 비. 밤에 비.

十二日。甲申。陰雨夜雨。

1915년 9월 13일. 을유. 흐리고 비.

十三日。乙酉。陰雨。

1915년 9월 14일. 병술. 맑음.



十四日。丙戌。陽。

1915년 9월 15일. 정해. 맑음.

十五日。丁亥。陽。

1915년 9월 16일. 무자. 맑음.

十六日。戊子。陽。

1915년 9월 17일. 기축. 비.

十七日。己丑。雨。

1915년 9월 18일. 경인. 맑음.

十八日。庚寅。陽。

1915년 9월 19일. 신묘. 맑음. 광주(光州)의 신만식(申萬湜)이 왔는데, 호가 석포(石圃)로, 새로 지은 초당(草堂)의 주인이라고 한다.

《도산금문제현록(陶山及門諸賢錄)》<sup>30)</sup>을 보았다.

김용(金隆)은 자(字)가 도성(道盛)이고, 호(號)는 물암(勿巖)이며, 함창인(咸昌人)인데, <태극도설(太極圖說)>의 ‘오행(五行)은 하나의 음양(陰陽)이고, 음양은 하나의 태극(太極)이다.’에 대하여 물었다. (퇴계)선생이 말하기를, “오행은 곧 음양이 한 것이고, 음양은 태극이 한 것을

30) 도산금문제현록(陶山及門諸賢錄) : 이황(李滉)과 그의 문인들에 대한 사적을 모아 엮은 책. 이 책은 원래 권두경(權斗經)이 《계문제자록(溪門諸子錄)》이라는 제목으로 이황의 문인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엮은 바 있었으나 간행되지 못하다가, 권두경의 후손 수연(守淵)·수항(守恒) 등이 자료를 수집하고 뒤에 이야순(李野淳)이 다시 자료를 추가하여 총 309인에 대한 사적을 수록하여 간행한 것이다. 간기(刊記)는 없으나 도산서원(陶山書院)에서 19세기 중엽에 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말한 것이지, 음양이 하나의 태극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박광전(朴光前)<sup>31)</sup>은 호(號)가 죽천(竹川)고, 본관은 진원(珍原)이다. 8세 때 부모님의 명령으로 하나의 연구(聯句)를 지었다. 즉 “도(道)는 하늘로부터 명한 것이니 어찌 인위로 하는 것이랴.[道自天命豈人爲] 한 번 공자의 도를 크게 이루리라.[爲一大成孔子道]”라는 내용이다. 병인년 겨울에 도산선생에게 집지하였는데 선생은 전별할 때 《주자 절요》 8책을 주었다. 또 절구(絕句) 5수를 주셨는데, 그 하나에 이르기를,

일월의 찬 시냇물에도 뜻은 더욱 굳세어지니,	一月寒溪意更堅
돌아가리라는 이 뜻을 바꿀 순 없구나.	歸歟此意莫留遷
다만 달콤한 복숭아를 버리고 보낼 수 없나니, <sup>32)</sup>	但能不遺話桃巖
보배로운 밝은 구슬(明珠) <sup>33)</sup> 이 다만 연못에 있다네.	無價明珠只在淵

31) 박광전(朴光前, 1526~1597) : 자는 현재(顯哉), 호는 죽천(竹川), 본관은 진원(珍原)이다. 아버지는 진사 박이의(朴而誼)이며, 어머니는 습득 최명기(崔命夔)의 딸이다. 보성출신으로, 이황(李滂)의 문하에서 수업하였고, 1568년에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유희춘(柳希春)이 감사(監司)였을 때 친거되어 경기전참봉(慶基殿參奉)이 되었고, 다시 헌릉참봉(獻陵參奉)으로 옮겼으나 곧 그만두었다. 1581년 왕자의 사부(師傅)가 되었고, 함열(咸悅)·회덕(懷德)의 현감을 역임하였으나 상관의 뜻을 거슬러 파직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임계영(任啓英)·김익복(金益福)·문위세(文緯世) 등과 보성(寶城)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1597년 다시 정유재란이 일어나 적이 호남을 침범하자, 전 판관(判官) 송홍렬(宋弘烈), 생원 박사길(朴士吉) 등에게 격문을 보내어 의병을 일으키고 의병장이 되었다. 동복(同福)에서 적을 크게 무찔렀으나 병이 악화되어 죽었다. 좌승지에 추증되고 보성의 용산서원(龍山書院)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강(文康)이다.

32) 달콤한 복숭아 : 버리지 말아야 할 좋은 것을 말함. 《주자어류》 권118 <주훈문인(朱訓門人)>에, 정자상(鄭子堂)이 《좌전(左傳)》의 몇 가지 일에 대해 묻자, 주희가 “수년 동안 그대를 보지 못하여 장차 훌륭한 질문을 하여 서로 계발되리라 생각하였는데, 도리어 이러한 긴요하지 않은 것을 물으니, 무슨 보탬이 있겠는가. 사람이 만약 《대학》, 《논어》, 《맹자》, 《중용》 등 사서(四書)에서 궁구하여 통철할 수 있다면 경전(經傳) 가운데 극절이 극심한 큰일도 그 이치로 미루어 나가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는데, 더구나 이러한 지엽적인 일이라 말할 것이 있겠는가. 지금 이와 같은 것은 ‘단맛 나는 복숭아를 버리고 산 근처의 신맛 나는 배를 따는 것이다.’라고 이를 수 있다.[數年不見公, 將謂有異問相發明, 却問這般不緊要者, 何益? 人若能於大學語孟中庸四書窮究得通透, 則經傳中折衷甚大事, 以其理推之, 無有不曉者. 況此末事, 今若此, 可謂是颺了話桃樹, 沿山摘醋梨也.]”라고 하였다.

33) 명주(明珠) : 고운 빛이 나는 아름다운 구슬. 방합(蚌蛤) 속에서 생긴 진주(眞珠). 여기서는

라고 하였다.

十九日。辛卯。陽。光州申萬湜來，号石圃，新草堂主人云。看《陶山及門諸賢錄》。金隆，字道盛，号勿巖，咸昌人。問，“《太極圖說》五行一陰陽，陰陽一太極也。”先生曰，“言五行卽陰陽之所爲，陰陽乃太極之所爲也，非謂陰陽一太極也。”朴光前，號竹川，珵原人。八歲以親命製一聯。“道自天命豈人爲，爲一大成孔子道。”丙寅冬贊見于陶山先生，先生以《朱子節要》八冊贖之。又贈五絕詩，其一曰，“一月寒溪意更堅，歸歟此意莫留遷，但能不遺甜桃颺，無價明珠只在淵。”

1915년 9월 20일. 임진. 맑음.

二十日。壬辰。陽。

1915년 9월 21일. 계사. 맑음. 《문순공 퇴도선생 언행록(文純公退陶先生言行錄)》을 보고 기록한다.

339

二十一日。癸巳。陽。看《文純公退陶先生言行錄》，記之。

### 《언행록》

선생은 타고난 자질이 총명하고, 정신과 품채가 맑고 밝았다. 성품은 어릴 때부터 단정하고도 아름다웠으며, 희롱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성년이 되어서는 학문을 좋아하여 도의로서 수양하였기 때문에 총명정직하고 효제충신(孝弟忠信)하였으며, 정순(精純)하고 온수(溫粹)하여 모가 나지 않았다. 기운은 온화하면서도 굳세고, 말은 부드러우면서도 바르고, 학문은 넓으면서도 요약되었으며, 행동은 온전하면서 독실하였다. 맑으면서도 피딱하지 아니하며, 개결면서도 고집스럽지 않고, 옛것을 사모하였지만 딱딱하지 않았으며, 세상에 처함에서는 휩쓸리지 않았다.

선생의 사람됨은 아름답고 크며, 편안이 이론 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훌륭한 인물을 가리킨다.

여윈 모습은 옷을 이기지 못할 것 같지만, 도(道)에 나아가려는 뜻은 금석(金石)처럼 굳건했다. 초연히 속진(俗塵)을 멀리 벗어났지만, 몸가짐이나 수양의 공은 일상(日常)에 드러났다. 작록(爵祿)의 영광을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두려워했고, 의리의 진리를 탐하기는 추환(芻豢)<sup>34)</sup>이 입에 맞는 것 같이 하였다.

학문을 이미 이루었지만 급급해 하기를 마치 미치지 못한 듯 하였고, 덕이 이미 닦여졌지만 겸손한 태도로 터득한 것이 없는 듯이 하였다. 옛 사람이 말한 ‘자품(資稟)이 이미 남과 다르고 충양(充養)하에 도가 있다’라는 것이 어찌 선생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대개 선생은 태어난 지 겨우 반년만에 아버지[所怙]<sup>35)</sup>를 여의고 나이가 초췌(髡毳, 7~8세)이 되지 않아서 이미 독서를 좋아하였다. 비록 부모나 스승이 권면(勸勉)하고 정독(程督)<sup>36)</sup> 수고가 없을지라도 날마다 과정을 정해놓고 외우길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응대(應對)하고 배례(拜跪)하는 것이 온화하고 공손하니, 보는 사람이 이미 보통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340

조금 자라서는 《논어》와 《소학》 등의 책을 읽고 더욱 경계하고 삼가하여 말과 행동거지를 반드시 예법에 맞게 하였다. 아버이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함에 더욱 독실하여 닭이 울면 일어나 세수하고 의대를 반드시 갖추고서 어머니에게 문안하였다. 기뻐하는 말소리로 기운을 가라앉히고 낙낙한 얼굴과 부드러운 안색으로 혹 조금이라도 빠뜨림이 없게 하였는데, 저녁에 부모를 위해 잠자리를 보아 드리는 일에 이르기까지도 또한 이와 같이하였다. 잠자리를 펴고 이부자리를 개 드리는 일도 반드시 몸소 친히 하였으며, 일찍이 시중드는 아이에게 맡기는 일이 없었다.

둘째 형과 여러 해 동안 함께 살았는데, 둘째 형의 나이가 몇 살 위였지만 섬기기를 매우 조심스럽게 하였다. 수숙(嫂叔)간에 아침저녁으로 만나

34) 추환(芻豢) : 소 돼지와 같은 가축의 고기를 말한다. 《맹자(孟子)》 <고자(告子)상>에서 “의리가 내 마음에 기쁜 것이 고기가 내 입에 맛있는 것과 같다.[義理之悅我心, 猶芻豢之悅我口.]”라고 하였다.

35) 소호(所怙) : 아버지의 아첨임. 《시경(詩經)》 <육아편(蓼莪篇)>에, “아버지 없으면 무엇을 믿으랴[無父, 何怙?]”에서 기인되었다.

36) 정독(程督) : 계책을 정하고 책망하여 바로잡음.

뵈었지만 반드시 예의와 공경을 다하니 대부분은 스스로 회피하고 감히 마주하지 않았다. 대부인(퇴계의 어머니)이 일찍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은 자제들이 반드시 부모나 형의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말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조금도 인도하고 길러주는 방법이 없었던만 일찍이 관(冠)을 안 하거나 띠(帶)를 안 하거나 다리 뻗고 앉거나 비스듬히 누워있었다든지 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는데, 대개 천성이 그런 것이다.

이미 또 경전에 널리 보고, 겸하여 성리학 관련 책들에까지 통하여 성현(聖賢)의 사업에서의 대의(大義)를 보고서는 존심(存心)<sup>37)</sup>을 가슴에 새긴 것이 오래되었다. 무리들과 거처함에 옷깃을 여미고 단정히 앉아 혹 책을 보거나 혹 종일 고요히 묵상하였고, 일찍이 한가하게 잡담을 하지 않았으니, 사람들이 그를 경외(敬畏)하였다.

비록 검속하지 않은 것이 있더라도 또한 모두 몸을 수렴하고 스스로를 바로잡아 감히 방자하지 않았다. 약관의 나이에 성균관에 공부하러 갔는데 때가 기묘사회를 지난 시기라, 시습(士習)이 날로 방탕하였다. 선생이 하는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모두 비웃고 업신여겼지만, 선생은 뜻을 바꾸지 않고 처신하기를 초연히 하였다. 임학(林壑)에 뜻을 두고 명예와 영달을 구하지 않았고, 중간에 지나친 공부로 인하여 자못 물골이 파리하고 초췌한 질병을 얻었다.

또 세속의 상황이 더불어 부양(俯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사마시(司馬試)에 참여하여 뽑혔지만 다시는 영달에 나아가려는 뜻이 없었다. 천석(泉石)<sup>38)</sup>을 소요하면서 가난한 생활을 달게 여기고 장차 죽을 때까지 하려고 하였지만 마침내 집안이 가난하고 아버지가 늙어가므로 부

37) 존심(存心) : 유가의 수양론인 ‘존심양성(存心養性)’으로, 《맹자》 <진심 상(盡心上)>에 “그 마음을 보존하며 그 성을 기르는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存其心, 養其性, 所以事天也.]” 라고 하였다.

38) 천석(泉石) : 천석고황(泉石膏肓)에세 온 말로 마치 고질병 환자처럼 산수(山水)에 중독되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다는 뜻으로, 자연의 승경(勝景)에 대한 혹독한 애착심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다. 전유암(田游巖)이 당 고종(唐高宗)에게 “신은 물과 바위에 대한 병이 이미 고향에 들고 연무(煙霧)와 노을에 고질병이 들었는데, 성상의 시대를 만나 다행히 소요하고 있습니다.[田泉石膏肓煙霞痼疾, 既逢聖代, 幸得逍遙.]”라고 말한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舊唐書 卷192 田游巖傳》

지런히 힘써 과거시험에 나아가 현달한 길에 들어섰지만 그가 좋아해서 한 것은 아니었다.

을사년의 번고가 거의 불측에 빠지자, 이윽고 관직을 버리고 귀향하여 퇴계(退溪)의 물가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세상의 맛은 더욱 각박했지만 책 읽고 도를 구하는 뜻은 더욱 견고해지고 확실해졌다.

서울에 있을 때 일찍이 《주자전서》을 얻어서 읽고는 즐거워하였다. 이로부터 문을 걸어 잠그고 조용히 거처하면서 종일 몸을 바르게 하고 앉아 오로지 정일한 뜻을 이루려고 했다. 구부려 독서하고 우러러 생각하였으며 참으로 알고 실제로 터득하는 것에만 힘을 썼다. 그 믿음이 독실하고 기뻐함이 깊어서 직접 귀로 듣고 직접 수업 받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이로부터 소견은 날로 정밀해지고 밝아졌으며, 조에는 날로 순수해지고 견고해졌다. 여러 경전의 은미한 말과 깊은 뜻을 연못을 더듬어 구슬을 캐고 바다에 들어가 용을 보는 것과 같이 하였다. 그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더욱 정밀함을 이루고, 그 미진한 것을 미루어 그 나머지 것을 통달하였다.

반착(盤錯)과 궁경(靑縈)<sup>39)</sup>의 곳은 모두 파헤쳐 갈래를 치고 발라내서 매우 깊게 기미를 연구하였다. 구하여 얻지 못하면 혹 다른 사람에게 묻고, 남에게서 얻으면 반드시 마음속에서 구하여서 옛날에 풀지 못했던 것을 지금은 모두 풀게 되었다. 아래로는 염락(濂洛) 등 여러 책에 이르기까지 더욱 침잠완색(沈潛玩索)하고 우유함영(優游涵泳)하였으며, 마음과 몸에서 체험하여 행동에 보였다.

이에 세상에서 칭찬하고 천거하는 자는 혹 서법이 정밀하다는 것으로써, 혹은 문장이 오묘하다는 것으로써, 혹은 염퇴(恬退, 기꺼이 물러남)하다는 것으로, 혹은 청백(淸白)하다는 것으로써 하였으니, 그를 아는 것이 경전에 밝고 행위가 예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한 것에 불과할 따름이었다.

조정에서 여러 차례 불렀으나 진퇴함에 오래 걸리지 않았다. 선생은 일심으로 도를 향하길 마치 물이 반드시 동쪽으로 흐르듯, 화살이 과녁으로 향하듯, 금을 백번 단련하는 것처럼 하였으니, 요체는 박실(朴實)한 곳에서

39) 반착(盤錯)과 궁경(靑縈) : 반착은 반근착질(盤根錯節)의 준말로, 어려운 일에 비유되고, 궁경은 일의 핵심을 말한다.

공부해가서 지극히 크고 바른 도를 구했고, 하나의 재능과 하나의 행실로 이름을 이루고자 하지 않았다.

평상시에는 날마다 반드시 일찍 일어났고, 일어나면 반드시 관대를 하였으며, 앉으면 무릎을 모았고, 서서는 건들거리거나 기대지 않았다. 어깨와 등은 바루세우고 시선은 단정했으며, 보행은 편안하고 천천히 하였다. 발언은 정밀하게 살펴서 했고, 고집함도 없고 속박함도 없었으며, 방자하지 않고 태만하지 않았다.

내면을 기른 것이 습관이 되고 표리가 통했으며, 응대하고 진퇴할 때는 온화하게 법도에 맞았고, 어묵동정은 단정하고 자상하며 안정적이었다. 성내는 말을 볼 수 없었고, 노복에게 꾸짖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음식과 의복에 있어서도 더욱 절검하니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었다. 편안한 것이 성품인 것 같이 사물을 접하고 일을 처리하였다. 자제를 가르칠 때는 자애로우면서도 의롭게 하였으며, 집안사람을 거느릴 때는 엄하면서도 은혜롭게 하였다. 어른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늙었다는 것으로써 스스로 태만하지 않았고, 제사를 받드는 데 있어서는 근력이 없다는 것으로써 스스로 게을리하지 않았다.

종족에게는 반드시 돈목하게 하였고, 손님이나 벗을 대할 때는 한결같이 화순하고 공경하게 하였으니, 가깝거나 멀거나 귀하거나 친한 사람이 모두 그 마땅함을 얻었다. 길흉의 경조사에 있어서도 각각 그 정에 걸맞게 하였다. 집안의 재물이 자주 비게 되어서도 일찍이 다른 사람에게 구한 적이 없었다.

임금이 하사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이웃들과 나누었으며, 자신에게는 박하게 하였고 궁한 사람을 구휼하기는 두텁게 하였다. 재산을 다스리는 것은 간결하게 하고, 몸가짐에 있어서는 치밀하게 하였다. 용모와 행동 사이나 사물을 응접할 때는 각각 그 이치를 얻지 않음이 없었으니, 이로 말미암아 향당사람들은 복용하였고, 멀리 있는 사람은 그 덕을 사모하였으며, 현명한 자는 그 도를 즐기고 현명하지 않은 자는 그 의리를 두려워하였다.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선생께선 어떻게 여기실까’라고 말하고, 가르침을 청한 후에 행하지 않음이 없었다. 잘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

이건 모두다 ‘퇴계’라고 하고 관직명으로 부르지 않았으니, 대개 감히 작위 로써 선생을 찬양하지 않은 것이다.

옷자락을 걷어 올리고 배우기를 청하는 선비들이 날로 늘어나고 다시 나아가 번갈아가며 질문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얕거나 깊게 하지 않음이 없었고, 조용히 계도하고 상세하게 알려주었다. 귀를 잡아당기고 이끌어 도와주길 열심히 하며 권태로움을 잊었으며, 한결같이 마음을 깨우치고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다.

그 말은 성현의 가르침이었으며, 그 이치는 마음에서 터득한 것이었고, 그 용(用)은 만사에 퍼져 있으며, 그 체(體)는 한 몸에 갖추어져 있었다. 때문에 중일토록 논한 것은 공자·맹자·증자·자사·염락(濂洛)·관민(關閩)의 책에 불과하더라도 나오는 말은 무궁하였으며, 말은 더욱 친절하였다. 이치를 궁구하여 앎에 이르고, 자신을 반성하여 실천하였으며, 자신을 수양하여 홀로 있을 때를 삼가는 일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그것을 확충해갔으니, 비록 나라와 천하에 들어서 실시하여도 되었다. 이 때문에 먼 곳의 선비들도 풍모만 듣고도 흥기하여 삼 백리 먼 길을 발을 싸매고 이르러 왔고, 현달한 관리와 귀인에 있어서도 모두 마음속으로 사모하고 대부분 강학하고 자신을 삼가는 것으로 일삼았다.

이에 경서에 고쳐야 할 뜻이 있으면 모든 속학의 고루하고 천착한 것을 이리저리 참고하여 바른 데로 돌렸다. 계몽(啓蒙)에 전의(傳疑)가 있으면 모든 제자들의 분합하고 달라진 것을 두루 통하고 구석구석 통창케 하여 그 깊은 내용을 다하였다. 회옹이 이미 죽어 지파가 드디어 나뉘어져서 배우는 사람이 반드시 그 적전을 지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학(理學)에는 통록(通錄)이 있는 것이고, 학술에는 계통이 있는 것이다. 《주자서(朱子書)》가 비록 있다고는 하나, 편질이 너무 많아서 독자들이 그 지취(指趣)를 궁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주요한 말만을 깎아내고 절을 만드니, 성학이 단서가 드러난 것이 있게 되었다.

<친명도설>의 경우에는 처음에 처사 정지운(鄭之雲)이 지은 것으로 인하고, 주렴계(周濂溪)와 자사(子思)의 설을 참고하여 그 오류를 고치고 그 부족함을 보완했다. 무릇 인물의 품부받은 것과 이기의 화생(化生)이 손바



다를 들여다보듯 분명해지니, 고요할 때 수양하고, 움직일 때 살피는 공부도 그 속에 담겨 있다. 이것은 모두 세속의 누추한 습속을 씻어버리고 성현이 온축한 뜻을 발휘하여 후학의 심목(心目)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편지의 문답 사이에 보인 것도 명백하고 꼭 들어맞았으며, 정미(精微)하고 간곡하게 자세히 진술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이해시켰다.

중원의 도학이 실전되어서 백사(白沙)<sup>40</sup>의 선회(禪會), 양명(陽明)<sup>41</sup>의 파벽(頗僻)함에 이르게 되었으니, 또한 모두 근본을 뽑고 파헤쳐서 극력 논의를 다하고 그 잘못됨을 배척하였으니, 모두 진백사의 시교(詩教), 왕양명의 《전습록(傳習錄)》 발문에 나타나있다. 우리 동방의 경우는 도학을 지향하는 선비가 없지는 않았으나, 혹 상수(象數)의 학문에 구애되거나 혹 이기의 나뉘에 어두웠다. 천근(淺近)한 자는 구설사(口舌事)에만 이(理)를 들먹이고, 고원(高遠)한 자는 요요명명(窈窈冥冥)한 곳으로 마음을 치달리어 혹 도를 백 가지만 들어도 자기와 같은 자가 없다고 여기는 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능히 박학(博學), 심문(審問), 정사(精思)를 힘써 실천하여 사도(斯道)에 나아가기를 구하는 자를 대개는 그런 사람을 얻기 어려우니, 선생은 매번 자다깨어 한탄하고 몰래 근심하며 우리 도의 병통으로 여겼다.

345

그래서 그 학문은 먼저 근소한 것에서 원대한 것에 미치고, 정밀한 것과 거친 것이 합치되어 안과 밖을 겸하였으며, 지행을 병진하고, 움직일 때나 쉴 때를 서로 길러주며, 번거로움을 참고 신고하였으며, 주야로 부지런하고 조심하였다. 또한 어두워지면 들어가 쉬는 곳에서도 해이해지지 않았고, 한밤중에도 일어나 항상 사서와 심경 등의 글을 외우고 스스로 책려하였다.

그러나 선생은 대개 이것으로서 도를 다했다고 여기지 않았다. 마음을 비우고 뜻을 공손히 하여 묻기를 좋아하고 가까운 곳을 살폈다. 자신이 터득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버리고 다른 사람을 좇았고, 말을 하여 이치에

40) 백사(白沙) : 진현장(陳獻章, 1428~1500)의 호 명나라 학자. 자는 공보(公甫), 호는 백사(白沙), 본관은 신회(新會)임. 학문은 정좌(靜坐)를 위주로 하였다. 성현의 책을 읽었지만 도리를 얻을 수가 없자, 마음과 이(理)가 하나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정좌(靜坐)를 통해 물(物)이 이(理)를 체인(體認)하는 것을 학문의 목표로 삼았다.

41) 양명(陽明) : 왕수인(王守仁, 1472~1528)의 호 명나라의 정치인·사상가. 자는 백안(伯安)이다. 주자의 격물치지설에 회의를 품고, 심즉리설을 제창하였다.

맞으면 자기보다 잘하는 것을 취하였다. 남과 내가 서로 도움이 되게 하고 피차가 서로 발현되게 하여, 성기성물(成己成物)<sup>42)</sup>의 도를 갖추었다.

평생동안 책을 읽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사치스럽고 허탄한 글을 섞지 않았다. 이치를 궁구하지 않음이 없어서 반드시 도덕과 인의의 실상에 돌아왔다. 사람을 가르칠 때에도 차근차근히 순서가 있었는데, 대본과 대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숨김없이 지시하였다.

대개 배우는 사람으로써 비록 절근(切近)한 공부에 급하지 않을 수 없을 지라도 또한 도체(道體)의 높고 깊음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말한 것은 모두 수용(受用)에 절실하여 대군(大軍)의 유기(游騎)가 멀리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과는 같지 않았다.

만년에는 다시 예서(禮書)에 뜻을 두고 유전(遺傳)을 토론하고 시의(時宜)를 참작하여 배우는 자들에게 가르쳤지만 저술하여 책으로 완성하지는 못하였다. 격물치지(格物致知)의 설에 대해서는 본디 속된 이해의 비루함을 배척하였으며, 이미 그 설을 지은 것은 마침내 고봉(高峯) 기명언(奇明彦)을 얻고서 곧 다시 연구하여 비로소 전설(前說)이 그릇됨을 깨달아 다시 정론(定論)하여 대답하였다. 그러나 선생이 이미 병들어 손으로 쓸 수가 없어, 다만 자제(子弟)들에게 탈고(脫藁)하게 하여 일찍이 더불어 논변했던 여러 곳에 보내었다.

또 역책(易筮)<sup>43)</sup>하기 며칠 전에도 여전히 《심경부주(心經附註)》<sup>44)</sup>의 오자(誤字)를 바로잡은 것을 취하여 동도(東都)로 보내어 판본(板本)을 개정(改正)하게 하였다. 이 선생의 독학(篤學)에 대한 일념은 단(丹)과 같이 밝게 빛나서 죽음에 이르러서도 그치지 않음을 또한 여기서 볼 수 있다. 그 도덕의 높고 낮음과 학문의 깊고 얕음 같은 것에 대해서는 말학(末學)이

42) 성기성물(成己成物) : 자기의 덕을 완성하고 그 덕으로 남을 교화시킴을 뜻한다. 《중용장구(中庸章句)》 제25장에 “성(誠)은 자기만 이룰 뿐 아니라 남을 이루어 주니, 자기를 이룸은 인(仁)이고 남을 이루어 줌은 지(智)이다.”라고 하였다.

43) 역책(易筮) : 스승이나 현인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책(筮)은 와상(臥床)의 깔개로서 증자(曾子)가 병환 중에 대부(大夫)의 신분에 걸맞은 화려한 깔개를 깔고 있었는데, 임종(臨終)할 당시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제자들로 하여금 깔개를 바꾸게 하고 죽은 데서 유래하였다. 《예기(禮記)》 <단궁 상(檀弓上)>.

44) 심경부주(心經附註) : 중국 송(宋)나라 때 학자 서산(西山) 진덕수(真德秀)의 《심경(心經)》에 명나라의 정민정(程敏政)이 주(註)를 붙인 책이다.

감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나, 그 도에 대한 신념의 독실함과 학문을 좋아 하는 정성은 노여워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았으며 싫어하거나 게을리하지 않았으니, 비록 ‘회옹(晦翁)의 세적(世適)’이라고 할지라도 옳은 말이다.

흥회가 소쇄하고 기품은 맑고 초탈하여 매번 아름다운 산수(山水)와 한 적한 절경을 만나면 혹 술병을 들고 홀로 가거나, 혹은 짝을 불러 함께 노닐며 읊조리다가 해가 지면 돌아왔다. 이 모두가 가슴을 툭 트이게 하고 정신을 소통하게 하며 성장을 기르는 일이었으니, 한가로움을 틈타 경치만을 완상하고 멋대로 임천(林泉)에서 노는 것과는 비할 바가 아니다.

시(詩)나 자획(字畫)과 같은 묘함에 이르러서도 단지 여가의 일이었지만 진아(典雅)하고 연정(研精)한 것은 일찍부터 명성이 있었다. 만년에 지은 작품은 모두 화려한 빛깔을 벗겨내고, 날카로운 칼날끝을 수렴하여 감추어서, 충담(冲澹, 담백)하고 건오(健輿, 내실이 있음)하며, 단방(端方, 단정)하고 진밀(縝密, 주밀)하여 마치 다른 사람의 손에서 나온 듯하였다. 그것을 얻은 사람들은 영귀(靈龜)나 공벽(拱壁)과 같이 여겼으니, 또한 품부받은 기질이 두텁고 소양이 깊으면서도 다재다능하여 날로 나아간 것이 이와 같음을 볼 수 있다.

347

만년에는 도산에 정사를 짓고 마음을 가다듬어 정신을 수양하는[頤神養性]45) 곳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 효효(器器)46)하고 자득(自得)한 정취가 자찬(自撰)한 시와 기(記) 속에서 모두 볼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사시음(四時吟)>47)과 <십이곡(十二曲)>48)을 지어

45) 마음을 …… 수양하는[頤神養性] : 이신양성(頤神養性)은 마음을 가다듬어 정신을 수양한다는 뜻이다. 《주역》에 보면, <이괘(頤卦)>는 산(山)을 뜻하는 간괘(艮卦)와 우뢰(雷)를 뜻하는 진괘(震卦)의 결합이다. 또한 이(頤)는 ‘턱’이라는 뜻인데, 턱을 움직여 음식물을 씹어 몸을 기르기 때문에 ‘기르다[養]’라는 의미가 파생되었다.

46) 효효(器器) : 제 분수에 만족하여 다른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을 말한다.

47) 사시음(四時吟) : 원 제목은 <산거사시각사음(山居四時各四吟)>으로 사계절을 아침·점심·저녁·밤으로 나누어 각각 네 수씩 읊어, 모두 16절로 구성되어 있다.

48) 십이곡(十二曲) : 원 제목은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으로 퇴계가 만년에 예안(禮安)에 도산서원을 세우고 학문하고 수양하면서 얻은 감흥을 주변의 경치와 연계하여 지은 것이다. 《퇴계집》 권43에 실려 있는 <도산십이곡발(陶山十二曲跋)>에는 ‘우리 동방의 노래는 대부분 음란하여 말할 것이 없다. 한림별곡(翰林別曲)과 같은 노래는 글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왔으나, 교만하고 방탕하며 겸하여 점잖지 못하고 장난기가 있어 더욱 군자(君子)가 숭상해야 할 바가 아니다. 오직 근세에 이별(李麗)의 <6가(歌)>가 세상에 성대하게 전하니 오히려 그것

한가로이 거처하면서 도를 완미하는 무궁(無窮)한 즐거움을 극진하게 말하여 그 회포를 부쳤다. 대개는 이로써 스스로 늙어가고자 하였지만, 명종(明宗) 말년과 금상(今上, 선조) 초기에 권주(眷注, 왕이 특별히 돌보심)가 매우 두터워 초빙하는 명이 거듭 이름에 선생은 두려워하며 스스로 용납되지 못할 듯이 하였다. 한 번 소명(召命)이 내려오고 한 번 작질(爵秩)이 오를 때마다 반드시 간담(肝膽)을 드러내고 의리와 예법에 근거하여 그 나아가 받기 어려운 사정을 주달하였다. 조정에서는 그 정성의 간곡함을 헤아려서 혹 관직을 체직해주시기도 하고 혹 직사(職事)를 맡기지 않기도 하였다. 대개 그 뜻을 위로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함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반드시 오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선생은 또한 군신의 의리가 중하고 유지(諭旨)가 간절하기 때문에 간혹 서울에 가긴 했지만, 또한 일찍이 오래 머문 적이 없었다. 대개 진퇴와 거취가 마치 저울추가 경중을 다는 것과 같았고, 자(度)가 장단을 잴 것과 같아서 한 치 한分寸(鎡)의 세세한 일도 반드시 살피고 조그마한 일도 놓치지 않았으니, 속인의 천견(淺見)으로는 다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며 또한 쉽게 논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일찍이 호문정(胡文定)<sup>50</sup>의 말을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의 출처(出處)와 어묵(語默)은 마치 춤고 따듯하고 굽주리고 배부른 것과 같이 스스로 알아서 짐작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결정을 받을 수도 없으며, 또한 다른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sup>51</sup>)라고 하였다.

제왕들이 한 격치성정(格致誠正)<sup>52</sup>의 학문과 성현들이 한 징질천개(懲

이 이보다 좋다고는 하나, 그래도 세상을 회롱하고 불공(不恭)한 뜻만 있고, 온유둔후(溫柔敦厚)한 내용이 적은 것을 애석하게 여긴다. …… 그래서 내가 일찍이 이씨의 노래를 모방하여 도산 6곡이란 것을 지은 것이 둘이니, 그 하나는 뜻을 말함이요, 그 하나는 학문을 말한 것이다. 라고 도산십이곡을 짓게 된 경위를 밝히고 있다.

- 49) 한치 한分寸[鎡] : 한치 한分寸의 아주 세세한 것을 의미한 것으로로, 옛날 중국(中國)의 저울 눈에서 백 개의 기장의 낱알을 1수(銖), 24수를 1냥(兩), 8냥을 1치(鎰)라고 일컬은 데서 생긴 말이다.
- 50) 호문정(胡文定) : 이름은 호안국(胡安國, 1074~1138)이고, 자는 강후(康侯)이며, 문정은 그의 시호이다. 송나라 건주(建州) 송안(崇安) 사람으로, 저서에 《춘추전(春秋傳)》, 《자치통감 거요보유(資治通鑑舉要補遺)》 등이 있다.
- 51) 사람의 …… 아니다 : 《이락연원록(伊洛淵源錄)》 권13 <호문정공(胡文定公)>에 나온다.

窒遷改<sup>53</sup>)의 방도에 대해서는 혹 면대(面對)하기도 하고 혹은 계차(啓筭)로도 하였으며, 혹은 그림으로 그리고 혹은 저서로 하여 기미(幾微, 사소)의 즘음에서 세밀하게 분석하고, 정밀한 가운데에서 본원을 궁구하여 횡설수설(橫說豎說)<sup>54</sup>한 것이 정녕하고 간곡하여 더는 남겨둔 것이 없었다.

문소전(文昭殿)의 한 의론<sup>55</sup>에서 태조는 동향의 위치로 바르게 하고 소목(昭穆)<sup>56</sup>은 남북의 차례로 정할 것을 청해서 거의 이것으로 다시 삼대(三代) 종묘의 위향(位向)의 바름을 볼 것 같았으나, 끝내 행해지지 못했다. 그의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비록 한가히 거처할 때라도 일찍이 하루라도 마음에서 잊은 적이 없었다. 매번 조정 정사(政事)의 한 실(失)을 들으면 근심이 얼굴에 드러났고, 거조(舉措)의 한 득(得)을 들으면 말에 기뻐하는 기색이 보였다. 만년의 염려는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깊이 임금의 덕을 보양(補養)하고 근원을 맑고 바르게 하는 것을 바로 지금의 급선무로 여겼다. 매양 당세의 어진 사대부를 만나면 매우 간곡하게 말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대개 선생은 도의(道義)에 대해神明(神明)과 같이 공경하고, 시귀(蓍龜)와 같이 믿었으며, 속숙(菽粟)과 같이 일용했고, 구갈(裘葛)<sup>57</sup>과 같이 입었

- 52) 격치성정(格致誠正) : 《대학》의 팔조목(八條目) 중 격물(格物)·치지(致知)·성의(誠意)·정심(正心)이다.
- 53) 징질천개(懲窒遷改) : 그릇된 것을 징계하여 착한 것만을 행함을 말한다.
- 54) 횡설수설(橫說豎說) :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 직설(直說)하기도 하고 우회해 말하기도 하는 것을 말한다.
- 55) 문소전(文昭殿)의 한 의론 : 문소전이란 국가의 종묘에 대응하는 왕실의 사묘(私廟)이다. 세종 대 중반에 기존의 여러 혼전(魂殿)을 통합하여 태조와 현 국왕의 4대조를 모시기 위하여 설립한 것이다. 따라서 왕통에 따라 위치가 정해지는 종묘와는 달리 사묘의 성격이 강한 문소전은 혈통과 왕통의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 즉 인종·명종과 같이 형제가 계승한 경우 4대조를 모실 수밖에 없는 묘(廟)의 성격상 당연히 모셔야 하는 현왕의 4대조인 고조(高祖)를 초친(祧遷)해야 하기 때문이다. 퇴계 이황은 명종의 문소전 부묘에 대해서 형제 간인 인종과 명종을 소목을 같이하는 방법으로 봉안하자고 주장하면서 “옛날의 협향(協享)의 위치는 태조가 동향, 소·목이 남·북향이었는데, 우리나라 종묘에는 협향의 의식이 없고 오직 원묘(原廟)인 문소전에만 협향이 있을 뿐이고, 그 위치가 옛날의 것이 아니니 이 기회에 태조는 동향으로, 소·목은 남·북으로 서로 마주 보게 하면 집을 헐어 고치는 폐단도 없을 뿐 아니라 세속에서도 옛날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일이 있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56) 소목(昭穆) : 종묘의 제도에, 태조는 정중(正中)에 모시고, 그 왼쪽에 있는 신위를 소(昭), 오른쪽에 있는 신위를 목(穆)이라 한다.

다. 그러므로 일이 진실로 의리에 맞는다면 비록 사람들의 비난과 비웃음을 받더라도 근심함이 없었다. 부름을 받아도 오지 않고 잡아당겨도 머물지 않았으니, 위로 정신(延紳, 조정의 신하)에서부터 아래로 위포(韋布, 재야의 선비)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가 고집이 너무 지나치다는 의혹이 없지 않았지만, 선생은 확고하게 바꾸지 않고 오직 의리를 따랐다. 그 때문에 선생이 하는 바를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알지 못하였으나 그 행동은 바로 옛사람에게 질정(質正)해도 부끄러울 것이 없었다.

때문에 동방의 사람들이 우리러보기를 마치 상서로운 기린이 교외의 숲에 있는 것처럼,<sup>58)</sup> 의젓한 봉황이 천길 절벽에서 날개짓 하듯, 해와 별이 중천에 떠있는 것처럼, 급류속의 지주처럼, 태산 교각이 우뚝한 것처럼 했다. 그러나 선생은 오히려 헛된 이름으로 높은 벼슬을 취했다고 여기고, 강호(江湖)에 처하면서 관리의 명부에 오른 것을 평생의 가장 큰 근심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미 관직에 나가면 물러나기를 청했고, 이미 물러나서는 치사(致仕)<sup>59)</sup>를 청하였는데, 혹은 진정소(陳情疏, 사정을 진달하는 소)로 혹은 자핵소(自劾疏, 허물을 스스로 진술하는 상소)를 올려 한 해라도 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말년에는 사례를 인용하여 표전(表箋)을 올려 세 차례 치사를 요청했으나 허락을 받지 못했으니, 병이 깊어 누워계신 날에 유혼을 남겨 “비(碑)를 세우지 말며 국장(國葬)을 사양하고 다만 ‘퇴도만은(退陶晚隱)’의 호(號)만을 묘석(墓石)에 쓰라.”고 하셨으니, 오호라, 이것이 선생의 평소의 뜻이다.

선생의 학문은 배우는 자들이 비록 많으나 아는 자는 드물며, 아는 자가 비록 있더라도 읽는 자는 더욱 적었다. 이 때문에 그 덕행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가 어렵다. 그러나 선생의 글이 모두 남아 있으니, 뒷날 좋은 독자들이 마땅히 여기에서 구한다면 또한 선생의 마음을 알 것이다.

선생이 태어남은 위로 주자(朱子)의 세상과 거의 4백년이 떨어지고, 땅

57) 구갈(裘葛) : 동구(冬裘)·하갈(夏葛)의 준말로 곧 겨울 옷과 여름 옷이란 뜻이다.

58) 상서로운 …… 것 : 《한서(漢書)》 <무제기(武帝紀)>에 “기린과 봉황이 교외의 숲에 있고 황하와 낙수에서 하도와 낙서가 나왔네[麟鳳在郊薈 河洛出圖書]”라고 하였다.

59) 치사(致仕) : 나이가 들어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예기》 <곡례 상(曲禮上)>에 “대부는 나이가 칠십이 되면 일을 그만둔다.[大夫七十而致事]”는 구절이 있다.

이 서로 떨어진 거리는 또 거의 만 여리이다. 그러나 선생은 그의 글을 숭상하여 읽고 그 뜻을 구함으로써 그 도(道)에 통달했으니, 후인들이 만약 선생이 회옹(晦翁, 주자)의 마음을 배우듯이 선생의 학문을 구한다면 도에 이르는 것이 멀지 않을 것이다.

아! 우리 동방은 궁벽하게 치우치고 선비들은 건문이 국한되어 위로는 전수된 것이 없고, 아래로는 잇는 것이 없다. 비록 만들려는 사람이 있어도 할지라도 반드시 이르는 사람은 드물었다. 그 학문의 정대함과 의리의 바로고 깊음, 공부의 극진함, 지조와 행실의 굳건함을 구하고, 잠심발분(潛心發憤)하고 도를 체득하여 덕을 이룬 자는 나 조목의 소견으로는 한 사람 뿐이다. 태산과 대들보[山梁]가 무너졌으니<sup>60)</sup> 우리 도를 의탁할 곳이 없게 되었다. 아아, 슬프도다!

#### 言行錄。

先生天資穎悟，神采精明。性幼端懿，不喜狎弄。長好學問，養以道義。故聰明正直，孝悌忠信，而精純溫粹，不露主角。氣和而毅，辭婉而直。學博而要，行全而篤。清而不激，介而不矯。慕古而不滯，處世而不流。先生之於爲人，可謂幾乎美且大，安而成者矣。癯然若不勝衣，而進道之志，堅如金石。脩然復出塵表，而操修之功，著於日用。爵祿之榮，懼若坑塹之陷已。義理之眞，耽如芻豢之悅口。學已成矣，而汲汲乎如未能及，德已修矣，而謙謙然若無所得。古人所謂‘資稟既異而充養有道’者，將非先生之謂歟。蓋先生生纔半歲，失其所怙，年未髫髻，已好讀書。雖無父師勸勉程督之勞，而日謹課誦，不敢少懈。應對拜跪，溫恭恪順，見者已知非常兒矣。稍長，讀《論語》《小學》等書，益自警悟惕厲，言語動止，必以禮法，而尤篤於愛親敬長，雞鳴盥漱，衣帶必飭，以省大夫人。怡聲下氣，婉容愉色，無或少失，至於昏定亦如之。枕席之設，衣衾之斂，必身親爲之，未嘗委諸侍兒。與仲兄同居累年，仲兄年長數歲，而事之甚謹。嫂叔日夕相見，必致禮敬，多自遜避不敢當。大夫人嘗謂人曰“人言子弟必待父兄

60) 태산과 …… 무너졌으니 : 스승이나 현인을 잃는 것을 말한다. 공자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태산이 무너지려나, 대들보가 꺾이려나, 철인이 시들려나[泰山其頽乎, 梁木其摧乎, 哲人其萎乎?]”라고 노래하였는데, 과연 7일 뒤에 세상을 떠났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였다.(《예기》 <단궁(檀弓)>)

之教，未必然也。吾於此兒，少無導養之方，未嘗見其不冠不帶箕踞偃臥之時。”云云，蓋天性然也。既又博觀經傳，兼通性理諸書，已見大義於聖賢事業，存心服膺久矣。其羣居，斂衽端坐，或觀書，或靜默以終日，未嘗爲閒話雜說，人皆敬畏之。雖有不檢者，亦皆斂躬自飭，無敢肆。弱冠游國庠，時經己卯之禍，士習日趨浮蕩。見先生所爲，人皆笑侮，先生不以易志，處之超然。雅意林壑，不求聞達。中因苦學，頗得羸悴之疾。且知俗情難與俯仰，自預司馬之選，無復榮進之意。逍遙泉石，菽水爲懽，若將終身，竟以家貧親老，罷勉就舉，以至顯途，而非其所樂也。乙巳之變，幾陷不測。既而棄官東歸，卜居退溪之上。世味益薄，而讀書求道之志則愈堅愈確。在京，嘗得《朱子全書》，讀而喜之。自是閉門靜居，終日危坐，專精致志。俯讀仰思，要以眞知實得爲務，而其信之篤悅之深，無異於耳承面受。由是，所見日益精明，所造日益純固。於諸經微詞奧旨，如探淵採珠，入海觀龍。因其所已知，益致其精，推其所未盡，以達其餘。盤錯肯綮之處，悉皆爬梳剔抉，極深研幾。求之未得，則或諮於人，得之於人，則必求於心，昔所未解者，今悉融釋。下逮濂洛諸書，更加沈潛玩索，優游涵泳，驗之於心，體之於身，而見之於行也。於是世之稱薦者，或以書法之精，或以文章之妙，或以恬退，或以清白，其知之者，不過以爲明經飭行之人而已。朝命屢掣，進退無恆，而先生一心向道，如水必東，如矢注的，如金百鍊。要於朴實頭做工，以求至乎大中至正之道，不但欲以一藝一行成名而已。平居日必早起，起必冠帶，坐則斂膝，立不跛倚。肩背竦直，視瞻端正，行步安徐。發言精審，無拘無迫，不肆不怠。充養積習，表裏融澈，周旋進退，雍容中度。語默動靜，端詳閑泰，忿厲未見于詞氣，罵詈不形乎婢僕。至於飲食衣服，尤致節儉，人所不堪。安之若性，接物處事，則教子弟，慈而義，御家衆，嚴而惠。事長則不以貴老自怠，奉祭則不以筋力自惰。處宗族，必敦睦嫻，待賓友，一以和敬，親疎貴賤，咸得其宜。吉凶慶吊，各稱其情。家至屢空，而未嘗求諸人。君有所賜，則必以分諸隣，薄於自奉而厚於恤窮，簡於治產而密於持己。威儀容止之間，事物應接之際，無不各得其理。由是，鄉黨服其化，遠人慕其德，賢者樂其道，不賢者畏其義。凡有所爲，必曰‘先生以爲何如’，莫不諮稟而後行之。識與不識，咸曰‘退溪’，而不以官稱



之，蓋不敢以爵位爲先生榮也。樞衣請學之士，日以益衆，更進迭問。無不隨人淺深，從容啓迪，諄悉告諭，提撕誘掖，亶亶忘倦，一以開明心術，變化氣質爲先。其言則聖賢之訓，而其理則得之於心，其用則散於萬事，而其體則具於一身。故終日所論，不過乎孔孟曾思濂洛關閩之書，而其出無窮。語益親切，不離乎窮理致知，反躬踐實，爲己謹獨之事。而擴而充之，則雖舉而措之國與天下，可也。由是，遠方之士聞風興起，百舍重趼而至。至於達官貴人，亦皆傾心向慕，多以講學飭己爲事。於是，經書有訂議，則凡俗學之膠固穿鑿者，參互考訂，以歸於正。啓蒙有傳疑，則凡諸家之分合異同者，旁通曲暢，以盡其蘊。晦翁旣歿，枝派遂分。學者未必能守其的傳，故理學有通錄，而學術有所統。一朱書雖存，編帙浩穰，讀者未必能究其指趣，故刪節其要語，而聖學有所發端。至於天命圖說，則初因鄭處士之雲所撰，而參究濂溪子思之說，改其誤補其欠。凡人物之稟賦，理氣之化生，粲然如視諸掌，而靜養動察之功，寓於其中。是皆有以滌世俗之陋習，發聖賢之蘊奧，開後學之心目，而其見於尺牘答問之間者，明白切當，精微曲折，翻縷畢陳，有以洽服人心。至於中原道學之失傳，流而爲白沙之禪會，陽明之頗僻，則亦皆披根拔本，極言竭論，以斥其非，具見於白沙詩教，陽明《傳習錄》〈跋語〉。若吾東方，則非無志道向學之士，而或拘於象數之學，或昧於理氣之分。近者騰理於口舌之間，遠者馳心於窈冥之域。或聞道百，以爲莫己若者比比。而然其能博學審問精思力踐，以求進乎斯道者，蓋難其人，先生每寤歎隱憂，以爲吾道之病。故其爲學也，先近小以及遠大，合精粗以兼內外。知行互進，動息交養，耐煩喫辛，日乾夕惕，而又不弛於嚮晦宴息之地，中夜以起，恆誦四子心經等書，以自策勵。然先生蓋未嘗以是爲足以盡道也。虛心遜志，好問察過。己未有得則捨而從人，言而中理則取善於己。物我相資，彼此交發，而成己成物之道備矣。平生無書不讀，而不雜以浮華虛誕之文。無理不窮，而必歸於道德仁義之實。教人循循有序，而於大本大原處，亦必指示無隱。蓋以學者，雖不得不急於切近之工夫，亦不可不察於道體之高深也。然其爲說，皆切於受用，非如大軍游騎出遠無歸也。晚復留意禮書，討論遺傳，參酌時宜，以教學者，未及著爲成書。至於格物致知之說，則素排俗解之陋，已著其

說，竟得高峯奇明彥。乃復研究，始悟前說之差，更爲定論以報。而先生已病矣，不能手書，只令子弟脫藁，以送於諸所嘗與論辨處。又於易篋前數日，猶令取所訂《心經附註》誤字處，送于東都，改正板本。噫！先生篤學一念，炳然如丹，之死不已，亦見於此矣。若其道德之高下，學問之淺深，非末學所敢與知，而信道之篤，好學之誠，不愠不悔，不厭不倦，則雖曰‘晦翁之世適’，可也。襟懷飄灑，韻度清越，每遇佳山麗水幽閒迥絕之處，則或携壺獨往，或命侶俱遊，徜徉嘯咏，終日而歸。皆所以開豁心胸，疏濬精神，資養性情之一事，非偷閒玩景，放意林泉之比也。至如詩字畫之妙，特其餘事，而典雅研精，早有能聲。晚年所作，則皆雕華剝彩，斂錐韜鋒，而沖澹健奧，端方縝密，如出兩手。獲之者如靈龜拱壁然，亦可見所稟之厚，所養之深，而多能日進如此矣。晚構精舍於陶山，以爲頤神養性之所。其囂囂自得之趣，備見於自撰詩記中，非他人所能道也。又製《四時吟》及《十二曲》，極言閒居味道無窮之樂，以寓其懷。蓋將以是自老，而明宗晚年，今上初政，眷注甚重，旌招沓至，先生瞿然，如不自容。每一召命之下，一爵秩之陞，必披肝吐膽，引義據禮，以達其進受之難。朝廷諒其誠懇，或遞其官，或不任職，蓋以慰安其意，而冀其必來也。先生亦以君臣義重，諭旨懇切，或到京師，而亦未嘗久留。蓋其一進一退一去一就，如權之稱輕重，如度之度長短。錙銖必察，不失尺寸，非俗人淺見所能盡知，而亦非可以易而論也。故嘗舉胡文定之語以告人曰“人之出處語默，如寒溫飢飽，自知斟酌，不可決之於人，亦非人所能決也”其於帝王格致誠正之學，聖賢懲窒遷改之方，則或因面對，或因啓筭，或爲圖或著說，毫分縷析於幾微之際，極本窮源於靜密之中。橫論豎說，丁寧懇到，無復餘蘊。至於文昭一議，請正太祖東向之位，定昭穆南北之序，庶幾因此復見三代宗廟位向之正，而卒未之行。其愛君憂國之心，雖閒居，未嘗一日而忘于懷。每聞朝廷一政事之失，則憂形于色，一舉措之得，則喜見于言。晚年所慮，非止於此，深以輔養君德，清源正本，爲當今急務。每遇當世之賢士大夫，言之懇懇不已。蓋先生之於道義，敬之如神明，信之如蒼龜，用之如菽粟，服之如裘葛，故事苟得義，雖被人非笑，有不足恤。當其招之而不來，援之而不止，上自廷紳，下至韋布，無不疑其太執，而先生確然不易，唯義之從。故先生之所

爲，世人固多不識，而其行則可以質諸古人而無愧者矣。故東人之望之也，如祥麟之在乎郊藪，儀鳳之翔于千仞，日星乎中天，砥柱乎奔(流)，泰山喬嶽之巍然也。然先生猶自謂以虛名取高爵，處江湖係朝籍，最爲平生之患。故旣進則乞退，旣退則請致，或陳情或自劾，無歲不然，而末年，援例上箋，三乞致仕而不得，則又於疾病之日，遺誠‘勿立碑，辭國葬，只以退陶晚隱之號書於墓石，嗚呼，是先生平日意也。先生之學，學者雖多，而知者鮮矣，知者雖存，而得者尤寡，是以能形容其德美者難矣。然先生之文俱在，後之善讀者，當於此求之，則亦知先生之心矣。先生之生，上距朱子之世，幾乎四百年，地之相距，亦幾乎萬餘里。而先生尚且讀其書，求其義以達其道，後之人，若以先生，學晦翁之心，而求先生之學則，其至於道也，不遠矣。噫，我東僻陋，士局見聞，上無以傳，下無所承。雖有作者，鮮克必至。求其學問之正大，義理之精深，工夫之至到，操履之堅確，潛心發憤，體道成德者，以穆所見，一人而已。山梁頽壤，吾道無托。嗚呼痛哉！

1915년 9월 22일. 갑오. 맑음.

二十二日. 甲午. 陽.

1915년 9월 23일. 을미. 맑음.

二十三日. 乙未. 陽.

1915년 9월 24일. 병신. 흐림.

二十四日. 丙申. 陰.

1915년 9월 25일. 정유. 맑음.

二十五日. 丁酉. 陽.

1915년 9월 26일. 무술. 맑음.

二十六日。戊戌。陽。

1915년 9월 27일. 기해. 흐리고 비.

二十七日。己亥。陰雨。

1915년 9월 28일. 경자. 맑. 경상도 덕산(德山)<sup>61</sup>)에서 이상돈(李尙敦)이 《남명유고(南冥遺稿)》<sup>62</sup>)를 짚어지고 왔다. 남명(南冥) 조선생은 창녕인(昌寧人)으로, 이름은 식(植)이다. 시호(諡號)는 문정공(文貞公), 관직은 사간원(司諫院) 사간(司諫)으로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二十八日。庚子。晴。慶尙道德山李尙敦，負南冥遺稿來。南冥曹先生，昌寧人，諱植，諡文貞公，官司諫院司諫，贈領議政。

1915년 9월 29일. 신축. 맑음. 목포(木浦) 현기봉(玄起鳳)<sup>63</sup>)의 백전(白戰)<sup>64</sup>) 운(韻)을 사용하여 지었다.

356

- 61) 덕산(德山) : 남명(南冥) 조식(曹植)이 머무르며 강론하던 진주 덕산(지금의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을 가리킨다.
- 62) 남명유고(南冥遺稿) : 조식(曹植, 1501~1572)의 시문집. 처음에는 문인 정인홍(鄭仁弘)이 수집하여 시문 2권, 부록 1권 합 3권으로 편찬한 후 선조 37년(갑진, 1604)에 합천 해인사에서 목판으로 초간하였다.(전하지 않음) 이후 1606년에 해인사에서 목판으로 중간, 1622년 증보판 간행 등 수많은 증보가 이루어졌으며, 1910년에 수정본이 간행되고, 1915년에 다시 인출하였는데, 이때의 것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 63) 현기봉(玄基奉, 1855~1924) : 자는 치도(致道), 호는 학과(鶴坡), 본관은 연주이다. 영암 출신으로, 아버지는 인묵(麟默)이고, 어머니는 인천인 이필진(李弼鎔)의 딸이다. 1891년에 진사시에 급제하였으며, 영암 향교 장의와 영암군 사립구림학교장 등을 역임했다. 1935년에 총독부가 편찬한 『조선공로자명감』에 아들 현준호와 함께 수록되었다. 1915년에는 목포에서 살고 있었던 모양이다.
- 64) 백전(白戰) : 무기(武器)가 없이 맨손으로 싸우는 싸움. 시인(詩人)들이 글씨를 다루는 싸움. 백전(白戰)은 송나라 구양수(歐陽脩)가 처음 시도했던 것으로서, 예컨대 눈[雪]에 대한 시를 지을 경우 눈과 관련이 있는 학(鶴)·호(皓)·소(素)·은(銀)·이(梨)·매(梅)·로(鷺)·염(鹽)·동각(東郭) 등 어휘의 사용을 금하는 것이다. 그 뒤에 다시 소식(蘇軾)이 빈객들과 함께 이를 회상하며 시도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의 시 가운데 “당시의 규칙을 그대들 준수하라. 손으로만 싸워야지 무기를 잡으면 안 될지니.[當時號令君聽取，白戰不許持寸鐵]”라는 구절이 있다. (《소동파시집(蘇東坡詩集)》 권34 <취성당설(聚星堂雪)>)

二十九日。辛丑。陽。用木浦玄起鳳白戰韻。

야사를 국화 이슬 내리는 가을에 짓자니,	野史欲修菊露秋
심양의 옛일에 다시 근심이 더해지네.	溇陽古事更添愁
혼은 노악(露岳)에 노닐며 남쪽 가지[南枝] 가리키고 <sup>65)</sup>	魂遊露岳指南枝
마음은 문산(文山) <sup>66)</sup> 에 간절하여 누대를 내려오지 않네.	心切文山不下樓
옛 도읍의 강물 끌어다 씻어내기 어려우니,	難挽舊都河以洗
만백성 눈물 공연히 흐르는 모습 차마 볼까.	忍看萬姓淚空流
임금 섬길 길 없으니 살아도 산 것 아니라,	事君無路生非活
어느 날에나 상유(桑榆) <sup>67)</sup> 의 만절을 거둘려나.	何日桑榆晚見收

1915년 10월 1일. 임인. 흐림.

十月。初一日。壬寅。陰。

1915년 10월 2일. 계묘. 흐림. 치포관(縹布冠)<sup>68)</sup>을 만들었다.

- 65) 남쪽 가지[南枝] : 남쪽의 매화가지라는 뜻으로, 중국 남송(南宋) 육개(陸凱)가 강남의 매화 가지 하나를 꺾어 장안(長安)에 있는 친구 범엽(范曄)에게 보낸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육개(陸凱)는 강남의 매화가지와 함께 시 한 수도 보냈는데, 그 시에 “역참의 사자 만나 꽃을 꺾어서, 북쪽 장안 내 임께 보내볼거나. 강남 땅 둘러봐도 있는 게 없어, 봄소식 한 가지만 부쳐보내오[折花逢驛使，寄與隴頭人。江南無所有，聊寄一枝春.]”라고 하였다.(《태평어람(太平御覽)》 권970 <형주기(荊州記)>)
- 66) 문산(文山) : 중국 남송 말의 충신 문천상(文天祥 1236~1283)의 호(號)이다. 문산의 시호(諡號)는 충렬(忠烈). 수도 임안(臨安)이 원(元)에 함락된 뒤에도 단종(端宗)을 받들고 근왕군(勤王軍)을 일으켜 원군(元軍)과 싸우다가 상흥(祥興) 원년(1278) 원나라 군대에 사로잡혔다. 투옥 3년 만에 원 나라의 회유를 거부하고 살해된 그는 옥중에서 ‘정기가(正氣歌)’를 지어 자신의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 67) 상유(桑榆) : 해가 지는 저녁, 또는 노년에 만회하는 것을 말한다. 후한(後漢) 때의 장수인 풍이(馮異)가 적미(赤眉)의 난을 토벌하기 위해 나섰다가 처음 싸움에서 대패하고, 얼마 뒤에 다시 군사를 정비하여 적미의 군대를 격파하였는데, 황제가 친히 글을 내려 위로하기를, “처음에는 회계(會稽)에서 깃을 집었으나 나중에는 민지(澠池)에서 떨쳐 비상하니, 참으로 ‘동우에 잃었다가 상유에 수습하였다[失之東隅，收之桑榆]’라고 할 만하다.”라고 한 데서 나온 말로, 동우는 해가 뜨는 새벽을, 상유는 해가 지는 저녁을 뜻한다.(《후한서(後漢書)》 권17 <풍이열전(馮異列傳)>)
- 68) 치포관(縹布冠) : 유생(儒生)이 평시에 쓰던 관. 검은빛의 베로 만들었다.

二日。癸卯。陰。成緇布冠。

우암(尤庵)이 말하기를, “상투가 큰 사람은 그 수치를 좀 너넉하게 한다.”라고 했다.

尤庵曰, “髻大者, 稍寬其寸數。”

무(袤, 길이)는 4촌

광(廣, 너비)은 3촌

다 왼쪽을 향하도록 꿰맨다.

비너

무(武, 관의 테두리)의 높이는 1촌쯤이다.

袤四寸

廣三寸

縫皆向左

笄

武高寸許

두꺼운 종이에 풀을 먹여 재단하고, 한 가닥의 긴 끈으로 무(武)를 만든다. 무(武)의 높이는 1촌쯤 되게 하고, 길이는 1자 4촌쯤 되게 하며 -지척(指尺)<sup>69)</sup>-, 그 양 끝단을 둥글게 이어 붙인다.

또 한 가닥의 끈을 사용하여 사방이 8촌쯤 되는 네모를 만든다. 주름[襞積]<sup>70)</sup>은 5량(梁)이 되게 한다. 그 법을 따라 한 쪽을 계산하면 6

69) 지척(指尺) : ‘손가락 자라는 뜻으로, 가운데손가락[中指]을 굽혔을 때 가운데마디[中節]의 두 주름[指紋]이 각이 진 사이의 거리를 1촌(寸)으로 삼고 10촌을 1척(尺)으로 삼아서 길이를 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회암집(晦菴集)》 권68 <심의제도(深衣制度)>에 “마름질 할 때에는 가는 백포를 쓰고, 길이를 잴 때에는 지척을 쓴다.[裁用細白布 度用指尺]”라는 주희의 말이 나오는데, 그 주(註)에 “중지의 중절을 촌으로 삼는다.[中指中節爲寸]”라고 하였다.

푼 6리이고, 유기[有奇<sup>71</sup>]의 밖은 또 가운데를 접어 8푼으로 양(梁<sup>72</sup>)을 만드는데,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모두 5곳 남짓이다. 또한 6푼 6리의 유기로 주름을 잡으니 너비는 4촌이다. 정수리를 앞뒤로 걸치게 해서 아래를 무(武)에 붙이는데, 그 양 끝을 바깥으로 구부리고, 각각의 반촌을 바깥쪽으로부터 안쪽을 향하게 하며, 무(武)의 안쪽에 풀칠을 하면 무(武)의 좌우는 각각 너비 3촌, 전후 각각 너비 4촌이다. 무(武)의 양쪽 중앙의 각각 반촌 되는 위에는 구멍을 뚫어 비녀[笄]를 꽂을 수 있게 한다. 관 5량(梁)의 주름은 다 왼쪽을 향하여 꿰매고 흑칠을 한다. 흑시 오사(烏紗<sup>73</sup>)를 쓰려면 칠을 더해 만든다.

用厚紙，糊爲材裁，一長條爲武，高寸許，長一尺四寸許【指尺】，環之聯其兩端。又用一條，方八寸許，裱積爲五梁。其法從一筭計六分六釐。有奇之外。又中摺八分爲梁，如是者凡五所餘。又六分六釐有奇裱積之，則廣四寸。跨頂前後，下着於武，外屈其兩端，各半寸自外向內，黏於武之內，則武左右各廣三寸，前後各廣四寸。武之兩筭中央各半寸之上，爲竅以受笄。冠五梁裱積，縫皆向左，而黑漆之。或用烏紗，加漆爲之。

359

<가례(家禮)>의 글을 보면, 주름은 바깥으로 5량(梁)인데 각각이 8푼이니, 5×8은 40이다. 40이라는 것은 4촌이다. 무(裘)의 너비가 4촌이란 것이 이것이다. 안의 선후(先後)는 6푼 6리, 다음은 2푼 8리, 또 3번째는 4푼이다. 뒤집어 접어서 8푼이란 것은 3×8은 24푼으로 합 40푼으로 무(裘)의 안이 4촌이 된다는 것이 이것이다.

70) 벽적(裱積) : 주름. 옷의 가닥을 접어서 줄이 지게 한 것이다.

71) 유기(有奇) : 나머지가 있다는 뜻이다.

72) 양(梁) : 모자 등에 가로로 둥긋하게 마루가 진 부분. 관(冠)의 이마에 골지게 하여 세로로 잡은 줄을 말한다. 이 줄의 숫자에 따라서 오량관(五梁冠), 사량관(四梁冠), 삼량관(三梁冠) 등 명칭이 각기 다르다.

73) 오사(烏紗) : 조선시대 문무관(文武官)이 평상복에 착용(着用)하던 모자. 검은 사(紗)로 만들며, 뒤에 뿔이 2개 있음. 지금은 흔히 전통(傳統) 혼례식(婚禮式) 때 신랑(新郎)이 쓴다.

按<家禮>文, 襜積, 則外五梁各八分, 則五八四十, 四十者四寸也。 衾廣四寸是也。 內先後六分六釐, 次二分八釐, 又三次四分。 反摺之八分者, 三八二十四分, 合四十分爲衾內四寸是。

1915년 10월 3일. 갑진. 맑음.

三日. 甲辰. 陽.

1915년 10월 4일. 을사. 맑음.

四日. 乙巳. 陽.

1915년 10월 5일. 병오. 맑음.

五日. 丙午. 陽.

1915년 10월 6일. 정미. 맑음.

六日. 丁未. 陽.

1915년 10월 7일. 무신. 맑음.

七日. 戊申. 陽.

1915년 10월 8일. 기유. 맑음.

八日. 己酉. 陽.

1915년 10월 9일. 경술. 맑음. 남원 석현(石峴) 사람인 고용주(高用柱) -호(號)는 중오(中吾)- 가 왔다.

九日. 庚戌. 陽. 南原石峴民, 高用柱, 號中吾來.



1915년 10월 10일. 신해. 흐림.

十日。辛亥。陰。

1915년 10월 11일. 임자. 흐리고 비.

十一日。壬子。陰雨。

1915년 10월 12일. 계축. 흐림.

十二日。癸丑。陰。

1915년 10월 13일. 갑인. 흐리고 잠깐 비.

十三日。甲寅。陰乍雨。

1915년 10월 14일. 을묘. 맑음.

十四。乙卯。陽。

1915년 10월 15일. 병진. 맑음. 시향(時享)<sup>74</sup>을 지내러 갔다.

十五日。丙辰。陽。作時享之行。

1915년 10월 16일. 정사. 맑음. 묘제(墓祭)를 지냈다.

十六日。丁巳。陽。行墓祭。

1915년 10월 17일. 무오. 흐림. 장동(章洞)으로 돌아왔다. 혹자가 “《대학》은 정자(程子)가 ‘덕으로 들어가는 문[入德之門]’이라 하였고, 《논어》는 주자(朱子)가 ‘도에 들어가는 문이고, 덕을 쌓는 기초이다

74) 시향(時享) : 해마다 음력 10월에 5대 이상의 조상의 산소에 지내는 제사이다.

[入道之門, 積德之基]’라고 했는데, 입덕과 입도가 분수(分殊)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내가 답하길, “대저 학(學)이란 지와 행 두 가지 일인데, 《대학》에서는 초학자가 이치를 궁구하기에 앞서 명덕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입덕’이라고 하고, 《논어》에서는 학자가 지와 행을 겸하여 선을 밝히고 때로 익혀야 하는데, 습이란 것이 행의 첫머리이기 때문에 ‘입도’라고 한다. 입도하면 먼저 깨달은 자를 본받으니 행하는 것이 모두 선하고, 덕이 곧 쌓여가서 필경에는 덕을 이루게 되니, 군자는 벗이 오면 즐겁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을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라고 했다.

十七日。戊午。陰。還章洞。或問, “《大學》子程子曰, ‘入德之門’, 《論語》子朱子曰, ‘入道之門, 積德之基’, 入德入道, 有分殊可言乎? 曰 “夫學, 知行兩事, 而《大學》, 初學窮理先明明德, 故曰入德。《論語》, 學者兼知行, 而明善以時習, 習者行之首, 故曰入道。入道則效先覺, 而所行皆善, 德乃積, 必竟爲成德, 君子朋來則樂, 而人不知亦不慍矣。”

362

1915년 10월 18일. 기미. 흐리고 비. 혹자가 묻길, “혈구지도(絜矩之道)<sup>75</sup>에서 ‘혈은 헤아린다는 것이요, 구(矩)는 모난 물건을 만드는 것이다’라는 주에 ‘구는 모난 것을 만드는 도구로, 세속에서는 곡척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빌려 비유한 것인가?’라고 하기에 대답하길, “이것은 곡척에 장단을 헤아리는 이치가 드러난 것이니, 모두 심중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十八日。己未。陰雨。或問, “絜矩之道, ‘絜度也, 矩所以爲方也’註, ‘矩者制方之器, 俗呼曲尺, 此借以爲喻?’” 曰, “此著外曲尺度長短之理, 具於心中矣。”

75) 혈구지도(絜矩之道) :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뜻. 혈(絜)은 헤아리는 것이고 구(矩)는 곡척(曲尺)이다. 《대학(大學)》에 나온다.

1915년 10월 18일. 기미. 흐리고 비.<sup>76)</sup>

十八日。己未。陰雨。

1915년 10월 19일. 경신. 맑. 혹자가 “정자(程子)가 천덕(天德)과 왕도(王道)를 말하면서 ‘그 요체는 다만 근독(謹獨)에 있다<sup>77)</sup>’고 했는데, 무엇입니까?”라고 문기에 답하길, “《중용장구》와 《대학장구》에 이미 보인다. ‘독(獨)이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여도 나는 홀로 알고 있는 것이다.[獨者,人所不知而已所獨知之地也]’(《대학장구》) ‘천하의 일이 나타나고 뚜렷한 것이 이보다 지나친 것이 없는 것이다[天下之事, 無有著見明顯而過於此者]’(《중용장구》), 선악과 시비와 득실의 기미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 삼가여 살펴야만 ‘천리 존망의 기미가 결정된다.[天理存亡之幾決矣]’(《대학장구》) 때문에 군자는 삼가여 정밀하게 하고, ‘지극히 고요한 중에서도 치우침이 없이(그 지키는 것을 잃지 않고) 그 중(中)을 극치에 달하게 하여 천지가 제 위치에 서게 된다.[以至於至靜之中, 無所偏倚(而其守不失), 則極其中, 而天地位矣]’(《중용장구》) 삼가여 그것을 발현시키고 ‘응물(凝物)한 곳에 이르러서는 가는 곳마다 그렇지 않은 곳이 없으면 그 조화가 지극하게 되어 만물이 육성되는 것이다.[以至於應物之處, (無少差謬而)無適不然, 則極其和而萬物育矣]’(《중용장구》) 어찌 천덕과 왕도의 요체가 이 근독(謹獨)에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十九日。庚申。晴。或問, “程子曰天德王道, 其要只在謹獨, 何哉?”  
曰, “庸學章句已見矣。獨者, 人所不知而已所獨知之地也。天下之事,

76) 흐리고 비 : 18일의 날짜와 날씨가 중복되어 있다.

77) 다만 근독(謹獨)에 있다 : 《중용장구(中庸章句)》의 “어두운 것보다 더 나타나는 것이 없으며 세미한 것보다 더 드러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그 홀로일 때를 삼간다.[莫見乎隱。莫顯乎微。故君子慎其獨也]”의 주에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천덕(天德)이 있으면 왕도(王道)를 말할 수 있으니, 요체는 다만 신독(慎獨)하는 데 있다.[程子曰, 有天德, 便可語王道, 其要只在慎獨]’라고 하였다.”는 부분을 말한다.

無有著見明顯而過於此者，則善惡是非得失之機在此，而謹以審之，‘天理存亡之幾決矣’。故君子謹以精之，‘以至於至靜之中，無所偏倚，則極其中，而天地位矣’。謹以發之，‘以至於凝物之處，無適不然，則極其和而萬物育矣。豈非天德王道之要在此謹獨乎?’

1915년 10월 20일. 신유. 맑음. 육행당(六行堂)<sup>78)</sup> 선산에 지내는 시제에 참석하였다.

二十日。辛酉。陽。參時享于六行堂先山。

1915년 10월 21일. 임술. 맑음.

二十一日。壬戌。陽。

1915년 10월 22일. 계해. 맑음.

二十二日。癸亥。陽。

1915년 10월 23일. 갑자. 맑음.

二十三日。甲子。陽。

1915년 10월 24일. 을축. 맑음. 《맹자》를 가르치면서 ‘지식이 알아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첨하지는 않을 것이다[污不至阿其所好]<sup>79)</sup>에 이르러서는 문장이 난삽하여 말을 하기 어려웠다. 그 주

78) 육행당(六行堂) : 김처겸(金處謙)을 말함. 김처겸은 성종 조 성균생원으로, 무오사화 때 광주 평장동에서 담양 장산리로 이거하였다. 그의 묘는 담양 대곡면 득인산에 있다고 한다.

79) 낮추어 …… 않을 것이다. : 《맹자》 <공손추 상(公孫丑上)>에서 “재야와 자공과 유약은 지혜가 충분히 성인을 알만 하였으니, 이들이 가령 지혜가 낮다 하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아첨하는 데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宰我子貢有若，智足以知聖人，汙不至阿其所好.]”라고 하였다.

를 보니, “와(汙)는 아래이니 고명(高明)과 반대의 뜻이다.”라 하고, 언 해에는 “와 하여도 그 좋아하는 것에 아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되어 있다.

二十四日。乙丑。陽。教孟子，至汙不至阿其所好，聾牙難言。見其註，‘汙下則高明之反’，諺解，“와하야도 그호호는바에 아흠이 지치 아니하리라”

1915년 10월 25일. 병인. 맑음. 죽숙 철현(澈鉉)씨가 본적이 없던 풀을 가지고 왔기에 그 이름을 물어보니 ‘환생초’라고 하였으며, 동북의 적벽(赤壁)<sup>80</sup>에서 난다고 했다.

二十五日。丙寅。陽。族叔澈鉉氏，持來所不見之草，問其名，乃還生草云，生於同福赤壁也。

1915년 10월 26일. 정묘. 맑음. 혹자가 ‘출처의 바름’에 대해 묻기에 내가 응답하길, “도가 있으면 드러내고 도가 없으면 숨는 것이다.”라고 하자, 또 묻길 “그렇다면 ‘누구를 섬긴들 임금의 아니며 누구를 부린들 백성이 아니라’ 하며, 세상이 다스려져도 벼슬길에 나아가고 세상이 어지러워져도 벼슬길에 나아간 사람이 이윤(伊尹)이니, 이윤은 법답지 못한 사람이군요.”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길,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윤은 천민(天民, 현인)의 선각자이다. 만약 탕왕이 초빙하지 않았더라면 다섯 번 나가는 고사하고 한 번도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탕왕이 하늘을 받들어 죄인을 벌주지 않았다면 끝내 신야(莘野)에서 밭갈이를 하였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80) 적벽(赤壁) :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보산리·장학리 일대에 있는 명승지. 16세기에 동북에 귀양와 있던 신재 최산두(崔山斗)가 명명한 이후 학자와 관직자, 여행자, 지역선비들이 대자연과 어우러져 교류하며 소통을 하고 문학작품을 생산하기도 하여 적벽문화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二十六日。丁卯。陽。或問‘出處之正’，余應之曰，“有道則見，無道則隱。”曰，“然則何事非君，何使非民？治亦進亂亦進伊尹也，伊尹不足法歟。”曰，“惡，是何言也？伊尹天民之先覺者也。若非湯之聘，五進姑舍一進不爲也。若非湯之奉天伐罪，終耕於有莘之野矣。”

1915년 10월 27일. 무진. 흐리고 잠깐 비.

二十七日。戊辰。陰乍雨。

1915년 10월 28일. 기사. 맑음. 《맹자》를 보았는데, ‘맹자가 이르길, 사람마다 모두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장[孟子曰人皆有不忍人之心章]<sup>81)</sup>에서 사씨(謝氏, 사양좌(謝良佐))는 말하길, “사람은 모름지기 그 진심을 알아야 할 것이니, 바야흐로 갑자기 어린 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는 것을 볼 때에 그 마음이 안타깝고 측은해지는 것이 곧 진심이다. 이는 생각하지 않아도 얻는 것이며, 힘써 노력하지 않아도 맞아 떨어지는 것이니, 천리의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했고, 서산 진씨(西山眞氏, 진덕수(眞德秀))는 말하길, “갑작스런 사이라서 억지로 꾸며낼 시간이 없이 천기(天機)가 저절로 작동하는 것, 이것이 이른바 진심이라는 것이다.”라고 했으며, 운봉 호씨(雲峰胡氏, 호병문(胡炳文))는 말하길, “만약 이미 그것을 본 후에는 점쳐 안배하고 헤아리게 되니 곧 본심이 아니다.”라고 했다. 율곡선생은 도심을 논할 때 이러한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측은한 마음을 낸다 [見孺子入井而惻隱]’는 것을 들었으니, 대개 이 마음은 성명의 바름에 근원한 것이지 형기의 사사로움에 연속된 것은 아니다. 이것이 주자가 말한 ‘천지가 만물을 내는 마음이니 사람마다 나면서부터 마음을 삼은 것’이다.

81) 사람마다 …… 있다라는 장 : 《맹자》 <공손추 상(公孫丑上)>에 있다.

二十八日。己巳。陽。看《孟子》, ‘孟子曰人皆有不忍人之心章’, 謝氏曰, “人須是識其真心, 方乍見孺子入井之時, 其心慌惕, 乃真心也。非思而得, 非勉而中, 天理之自然也。” 西山真氏曰, “倉卒之間, 無安排矯飾, 而天機自動, 此所謂真心也。” 雲峰胡氏曰, “若既見之後, 稍涉安排商略, 便非本心矣。” 栗谷先生論道心, 舉此‘見孺子入井而惻隱’, 蓋此心原於性命之正, 不連屬形氣之私。此朱子所謂‘天地生物之心, 人得而生而爲心者也。

1915년 10월 29일. 경오. 맑음.

二十九日。庚午。陽。

1915년 10월 30일. 신미. 맑음. 어떤 이가 ‘명(命), 성(性), 정(情), 심(心), 의(意), 염(念), 려(慮), 사(思)의 구별’에 대해서 물었다. 내가 응답하기를 “하늘이 부여한 것을 내가 품수 받아서 전수해주는 이치를 명(命)이라고 하고, 내가 부여받은 하늘의 이치를 성(性)이라고 하며, 성이 발한 것을 정(情)이라 한다. 성정을 총괄하고 일신(一身)을 주재하며 허령불매한 것을 심(心)이라고 한다. 심이 발한 것을 의(意)라고 하며, 그 추향을 정하는 것을 지(志)라고 한다. 염(念)에는 잊지 못하는 뜻이 있고, 려(慮)에는 걱정하며 헤아리는 뜻이 있으며, 사(思)에는 따지고 건주는 뜻이 있다.”라고 하였다.

367

三十日。辛未。陽。或問, ‘命性情心意念慮思之別’. 余應之曰, “天賦予我稟受傳授之理謂命, 我稟受天之理謂性, 性發者謂情。統性情, 而主宰於一身, 虛靈不昧者謂心。心之所發謂意, 定其趨向者謂志。念有不忘之意, 慮有憂度之意, 思有計較之意。”

1915년 11월 1일. 임인. 맑음.

十一月。初一日。壬申。陽。

1915년 11월 2일. 계유. 맑음.

二日。癸酉。陽。

1915년 11월 3일. 갑술. 맑음. 집에 다녀왔다.

三日。甲戌。陽。往還于家。

1915년 11월 4일. 을해. 맑음.

혹자가 “역의 태극에 대해 요임금은 ‘윤집궐중(允執厥中)이다’고 하였고, 순임금은 ‘도심이다’고 하였으며, 탕 임금은 ‘항성이다’고 하였고, 공자께서는 ‘내 도는 하나로써 꿰뚫는다’고 하였습니다. 《대학》에서의 명덕(明德), 《중용》에서의 중용(中庸), 《서경》 서문에서의 ‘건중건극(建中建極, 중도를 세우고 표준을 세우라)’과 ‘덕(德)이라 하고, 인(仁)이라 하며, 경(敬)이라 하고, 성(誠)이라고 한 것들, 주자(周子, 주염계)의 무극(無極)과 주자(朱子)가 말한 이(理)와 《모시(毛詩)》의 사무사(思無邪, 생각함에 사특함이 없다)와 <곡례(曲禮)>의 무불경(無不敬, 공경하지 않음이 없다)과 주역의 ‘시지의(時之義)’<sup>82)</sup>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다. 내가 말하기를 “성도(聖道)의 요체로 말은 비록 다르나 이치는 한가지이다.”라고 하였다.

四日。乙亥。陽。或問, “易之太極也, 堯曰, ‘允執厥中也’, 舜曰, ‘道心也’, 湯曰, ‘恆性也’, 孔子曰, ‘吾道一以貫之也’。大學之明德, 中庸之中庸, 書序 ‘建中建極’ ‘曰德, 曰仁, 曰敬, 曰誠’ 周子之無極, 朱子之言理, 毛詩之思無邪, 曲禮之無不敬, 易之時之義, 可得聞歟?” 曰, “聖道之要,

82) 시지의: 《주역》 <수괘(隨卦)> 단(象)에, “상황에 따라 알맞게 대처하는 의미가 크다.[隨時之義, 大矣哉]”라고 하였다.



而言雖殊，理則一也歟”

1915년 11월 5일. 병자. 맑음. 채신지우(採薪之憂)가 있었다.

五日。丙子。陽。有採薪之憂。

1915년 11월 6일. 정축. 맑음.

六日。丁丑。陽。

1915년 11월 7일. 무인. 흐림.

七日。戊寅。陰。

1915년 11월 8일. 기묘. 눈이 날리고 바람이 참. 흐림.

八日。己卯。飛雪風寒。陰。

1915년 11월 9일. 경진. 맑음.

九日。庚辰。陽。

1915년 11월 10일. 신사. 맑음. 밤에 눈이 내렸다.

十日。辛巳。陽。夜雪。

1915년 11월 11일. 임오. 흐리고 눈이 음. 혹자가 효(孝)에 대해서 물었다. 내가 대답하기를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을 효라고 하니, 백행의 근원입니다. 공자가 맹의자(孟懿子)에게 고하기를 ‘살아 계실 때에는 섬기기를 예로써 하고, 돌아가시면 장사 지내기를 예로써 하며, 제사 지낼 때에도 예로써 하는 것이다.[生事之以禮，死葬之以禮，祭之以禮]’

고 하였고, 맹자는 ‘아버이 섬기기를 증자 같이 하면 좋다.[事親若曾子者, 可也]<sup>83)</sup>’라고 하였습니다. 또 듣기에 ‘하나의 풀을 자르고, 하나의 나무를 벨 때도 그 때가 아니면 효가 아니다<sup>84)</sup>’고 하였으니, 천리를 따르지 않은 자는 효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十一日。壬午。陰雪。或問孝。曰“善事父母爲孝, 百行之源。孔子告孟懿子曰, ‘生事之以禮, 死葬之以禮, 祭之以禮’。孟子曰, ‘事親若曾子者, 可也’。又聞‘斷一草, 折一木, 不以其時, 非孝也’。若非循蹈天理者, 未得爲孝也。

1915년 11월 12일. 계미. 흐리고 추웠다.

十二日。癸未。陰冷。

1915년 11월 13일. 갑신. 맑음.

十三日。甲申。陽。

1915년 11월 14일. 을유. 맑음.

十四日。乙酉。陽。

1915년 11월 15일. 병술, 흐리고 비 음.

十五日。丙戌。陰雨。

83) 아버지 …… 좋다 : 《맹자》 <이루 상(離婁上)>에 “증자는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섬겼다고 할 수 있으니, 부모님을 섬길 때 증자와 같이 하는 것이 좋다.[若曾子, 則可謂養志也, 事親若曾子者可也.]”라는 내용이 있다.

84) 하나의 …… 아니다 : 《대대례기(大戴禮記)》 52편 <증자대효(曾子大孝)>에 ‘한 마리의 짐승을 죽이고, 한 그루의 나무를 베는 것도 제때에 하지 않으면 효(孝)가 아니다.[殺一獸, 伐一木, 不以其時, 非孝也.]’라는 말이 있으며, 《예기(禮記)》 24 <제의(祭義)>에도 “한 그루 나무를 쪼개고, 한 마리 짐승을 죽이는 것도 제때에 하지 않으면 효가 아니다.[斷一樹, 伐一獸, 不以其時, 非孝也.]”라는 말이 나온다.

1915년 11월 16일. 정해. 흐리고 눈이 음.  
十六日。丁亥。陰雪

1915년 11월 17일. 무자. 맑음.  
十七日。戊子。陽。

1915년 11월 18일. 기축. 맑음.  
十八日。己丑。陽。

1915년 11월 19일. 경인. 맑음.  
十九日。庚寅。陽。

1915년 11월 20일. 신묘. 맑음.  
二十日。辛卯。陽。

1915년 11월 21일. 임진. 맑음.  
二十一日。壬辰。陽。

1915년 11월 22일. 계사. 맑음.  
二十二日。癸巳。陽。

1915년 11월 23일. 갑오. 맑음.  
二十三日。甲午。陽。

1915년 11월 24일. 을미. 맑음.

二十四日。乙未。陽。

1915년 11월 25일. 병신. 맑음.

二十五日。丙申。陽。

1915년 11월 26일. 정유. 흐림.

二十六日。丁酉。陰。

1915년 11월 27일. 무술. 흐림

二十七日。戊戌。陰。

1915년 11월 28일. 기해. 맑음.

二十八日。己亥。陽。

1915년 11월 29일. 경자. 맑음. 요사이 날씨가 봄과 같다.

二十九日。庚子。陽。近日日氣如春。

1915년 12월 1일. 신축. 맑음.

十二月。初一日。辛丑。陽。

1915년 12월 2일. 임인. 흐림.

二日。壬寅。陰。

1915년 12월 3일. 계묘. 흐림. 비가 밤새도록 내렸다.

三日。癸卯。陰。雨通宵。

1915년 12월 4일. 갑진. 갸.

四日。甲辰。晴。

1915년 12월 5일. 을사. 흐림. 새벽부터 낮까지 비가 왔다.

五日。乙巳。陰。自曉至午雨。

1915년 12월 6일. 병오. 맑음.

六日。丙午。晴。

1915년 12월 7일. 정미. 맑음.

七日。丁未。陽。

1915년 12월 8일. 무신. 맑음.

八日。戊申。陽。

1915년 12월 9일. 기유. 맑음.

九日。己酉。陽。

1915년 12월 10일. 경술. 맑음.

十日。庚戌。陽。

1915년 12월 11일. 신해. 새벽에 눈 온 흔적이 있다.

十一日。辛亥。曉雪痕。

1915년 12월 12일. 임자. 맑음.

十二日。壬子。陽。

1915년 12월 13일. 계축. 맑음.

十三日。癸丑。陽。

1915년 12월 14일. 갑인. 흐림.

十四。甲寅。陰。

1915년 12월 15일. 을묘. 맑음. 박인섭댁에서 유숙하였다.

十五日。乙卯。陽。留宿朴寅燮宅。

1915년 12월 16일. 병진. 맑음. 봄 같이 따듯했다.

十六日。丙辰。陽。如春溫。

1915년 12월 17일.<sup>85)</sup> 흐리고 바람 불다 잠깐 비가 내렸다. 순창 유정(柳亭)<sup>86)</sup>으로 서상의(徐相議)의 대상(大祥)에 위문을 갔다. 지나는 길에 옥과의 김참봉 댁에서 유숙하였다.

十七日。陰風乍雨。往慰問徐相議大祥於淳昌柳亭。過玉果金參奉宅留宿

1915년 12월 17일. 정사. 흐리고 바람 불다 잠깐 비가 내렸다. 장동(章

85) 원문에 1915년 12월 17일자 일기가 2번 쓰였다. 내용이 다름이 있어서 그대로 기록하였다.

86) 유정(柳亭) :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에 속하는 법정리이다.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때 회덕(回德) 마을, 함촌(檻村) 마을, 순정(順亭) 마을을 병합하고 유정리(柳亭里)라 하였다. 유정(柳亭) 마을은 300여 년 전 전주 이씨(全州李氏)가 처음 터를 잡았으며, 마을 서쪽에 위치한 골짜기의 형상이 유지앵소(柳枝鶯巢)로 버드나무 가지에 꼬꼬리 집이라는 혈(穴)이 있어 버드나무를 상징하려고 버드정이라 하였다가 한자로 표기하면서 유정(柳亭)이라 하였다.

洞)으로 돌아왔다.

十七日。丁巳。陰風乍雨。還章洞。

1915년 12월 18일. 무오. 흐림. 밤에 눈 온 흔적이 있다.

十八日。戊午。陰。夜雪痕。

1915년 12월 19일. 기미. 흐리고 눈발이 날렸다.

十九日。己未。陰雪飛。

1915년 12월 20일. 경신. 맑.

二十日。庚申。晴。

1915년 12월 21일. 신유. 맑음. 《도산급문제현록(陶山及門諸賢錄)》을 보았다.

정구(鄭述)의 자는 도가(道可)이고, 호는 한강(寒崗)이며, 성주(星州)에 살았다. 가정 계묘년(1543)에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기질이 남다르고 영특함이 뛰어났다. 13세에 오덕계(吳德溪)<sup>87)</sup>에게 집지(執贄)<sup>88)</sup>하고, 《주역》의 건곤(乾坤) 두 괘를 배워 유추하여 통달하

87) 오덕계(吳德溪) : 오건(吳楗, 1521~1574)을 가르킨다. 자는 자강(子強), 호는 덕계(德溪), 본관은 함양(咸陽)이다. 31세 때 남명 조식(曹植)의 문하에 들어가 수학하였고 이후 퇴계 이황(李滉)의 문하에서도 학문을 수학하였다. 1552년(명종 7) 진사를 거쳐 1558년 식년문과에 급제, 1567년 정언(正言)을 거쳐 1571년(선조 4) 이조좌랑(吏曹佐郎)으로 춘추관기사관을 겸하고 《명종실록(明宗實錄)》 편찬에 참여하였다. 이듬해 사직하고 고향에 내려가 독서와 집필로 여생을 보냈다. 하지만 그가 사직한 이조정랑 후임자를 두고 김효원과 심의겸이 대립하여 동서 분당의 계기가 되었고 이후 조선 정치사를 뒤흔든 300년 당쟁이 시작되었다. 오건의 학문은 궁리거경(窮理居敬)을 중시하였다. 그의 학문은 퇴계 이황의 이기철학(理氣哲學)과 남명 조식의 경의철학(敬義哲學)을 융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저서에 《덕계문집》, 《정묘일기(丁卯日記)》가 있다. 산청(山淸)의 서계서원(西溪書院)에 배향되었다.

88) 집지(執贄) : 제자가 스승을 처음으로 뵈 때 예폐(禮幣)를 가지고 가서 경의를 나타내는 것을 이른다.

였는데, 일찍이 익혀온 것과 다름이 없었다. 또 조남명(曹南冥, 조식)과 성대곡(成大谷, 성운)<sup>89)</sup>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일찍이 향시에 뽑혔으나 회시(會試)에는 응하지 않았으며, 마침내 과거공부를 그만두고 옛 성현(聖賢)과 같이 되기를 기약하였다.

계해(1563)년 퇴계(退溪)에서 선생을 뵈고, 이어서 《심경(心經)》에 대해 질문하자 선생께서 그 영명한 재주를 매우 칭찬하셨다. 만력초(1573년)에 학행으로 추천되어 조정의 부름을 여러 번 받아 비로소 이르렀다. 선조께서 “그대의 스승 이황과 조식, 두 사람의 기상과 학문은 어떠한가?”하고 물으니,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황은 덕과 기량이 혼후(渾厚)하고 공부가 순수(純熟), 완전히 익음)합니다. 조식은 재기가 호매(豪邁)하고, 흔들림 없이 자기 길을 갑니다[特立獨行].<sup>90)</sup>”라고 하였다. 또 묻기를 “대학 공부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라고 하시자, 대답하여 말하길, “삼강령(三綱領)과 팔조목(八條目)은 수기치인(修己治人)하는 방도가 아님이 없지만, 선유(先儒)들이 말하길 ‘천덕과 왕도에서 그 요체는 다만 근독에 있을 뿐이다.[天德王道, 其要只居謹獨]<sup>91)</sup>’라고 하였으니, 제왕의 학문도 또한 근독에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또 묻기를 “정전(程傳)과 본의(本義) 가운데 어느 쪽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가?”라고 하시니, 대답하기를 “역(易)의 도(道)는 소장영허(消長盈虛)의 이치와 진퇴어묵(進退語默)의 기미를 밝게 알아 시중(時中)을

89) 성대곡(成大谷) : 성운(成運, 1497~1579)으로, 대곡은 그의 호이다. 자는 건숙(健叔),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을사사화 때 중형(仲兄) 우(遇)가 화를 당하자 속리산(俗離山)에 은거하였다. 여러 차례 관직에 제수되었으나 출사하지 않았으며, 이지함(李之菡)·서경덕(徐敬德)·조식(曹植) 등 명현들과 더불어 교류하면서 학문에 정진하였다. 저서로는 《대곡집(大谷集)》이 있다.

90) 우뚝 …… 행합니다[特立獨行] : 《예기》 <유행(儒行)>에서 온 말로, 뜻과 행실이 고결하여 시류(時流)에 휩싸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91) 천덕(天德)과 …… 뿐이다 : 《심경부주(心經附註)》 <서문>에 나온다. 근독(謹獨)은 신독(慎獨)과 같은 말이다. 《중용장구》 제1장의 “숨겨진 것보다 더 나타나는 것이 없고 미세한 것보다 더 드러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혼자 있을 때를 삼가는 것이다.[莫見乎隱, 莫顯乎微, 故君子, 慎其獨也.]”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않지 않는 것이고, 짐치는 것은 역의 말(末)이니 정전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二十一日。辛酉。陽。看《陶山諸賢及門錄》。

鄭述，字道可，號寒崗，居星州。嘉靖癸卯，生有異質，英睿秀莛。十三執贄於吳德溪，受易乾坤二卦，以類而通，無異夙慣。又問業於曹南冥·成大谷之門。嘗選鄉解，不赴會試。遂棄科業，以古聖賢自期。癸亥謁先生於退溪，仍質《心徑》，先生極稱其英材。萬曆初薦學行，累召始至，宣廟問“爾師李滉·曹植，二人氣象學問何如？”對曰，“李滉德器渾厚，工夫純熟，曹植才氣豪邁，特立獨行。”又問“大學工夫，何者最要？”對曰，“三綱八條，無非修己治人之方，而先儒言‘天德王道，其要只居謹獨’，帝王之學，亦在謹獨。”又問“程傳本義，何先？”對曰，“易之道，明消長盈虛之理，進退語默之機，不失乎時中也，占候，易之末也，程傳宜先。”

1915년 12월 22일. 임술. 맑음.

377

二十二日。壬戌。陽。

1915년 12월 23일. 계해. 맑음.

二十三日。癸亥。陽。

1915년 12월 24일. 갑자. 맑음.

二十四日。甲子。陽。

1915년 12월 25일. 을축. 흐림.

퇴계선생이 <이중구(李仲久)에게 보낸 편지>- 이담(李澍)으로, 자는 중구(仲久)이고, 호는 정존(靜存)이며, 본관은 용인(龍仁), 서울에 거주

하였다. 선생보다 9살 어리지만 겸손하게 후학으로 자처했다.-

《회암서절요(晦菴書節要)》의 잘못된 곳을 지적해 보여 주니 매우 고맙습니다. 그러나 보내온 편지에 ‘의리의 정심(精深)과 사위(事爲)의 수작(酬酢)은 나의 몸과 나의 마음에 간절한 것과 마땅한 것은 먼저 취하지만, 그 사이에 혹 긴요하지도 않은데 수록되기도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말과 같이 다하고자 한다면 아마도 한쪽에 치우치는 병통에 빠지는 것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릇 의리는 진실로 정심(精深)한 곳이 있으니, 어찌 조천(粗淺)한 곳이 없겠습니까? 사위(事爲)는 진실로 긴밀하게 수작함이 있으니, 한가하게 수작함이 없겠습니까? 이 몇몇의 일은 나의 몸과 나의 마음에 관계된 것으로, 진실로 간절하면 마땅히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거나 사물에게 있는 것이 간절하지 않다고 해서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유가(儒家)의 학문이 이단과 같지 않음이 바로 이러한 곳에 있습니다.

오직 공자 문하의 여러 제자들만이 이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논어》에 기록된 것이 정하고 깊은 곳도 있고, 거칠고 얕은 곳도 있으며, 긴밀히 수작한 곳도 있고, 한가히 수작한 곳도 있으며, 나의 심신에 간절한 것도 있고, 다른 사람과 사물에 있는 것이어서 심신에 간절하지 않은 듯한 것도 있습니다. 시험 삼아 몇 가지 헤아려보면, 염자가 곡식을 청한 일[冉子請粟]<sup>92)</sup>, 강자가 약을 보낸 일[康子饋藥]<sup>93)</sup>, 거백옥이 사람을 보낸 일[蘧伯玉使人]<sup>94)</sup>, 원양이 공자를 기다린 일[原壤夷

92) 염자 …… 청한 일 : 《논어》 <옹야(雍也)>에 염자(冉子)가 공서적(公西赤)의 어머니를 위해 식량을 줄 것을 공자에게 청했을 때의 일을 말한다.

93) 강자 …… 보낸 일 : 《논어》 <향당(鄉黨)>에 강자(康子)가 약을 보내오자, 공자가 질하고 받으면서 이르기를, “나는 약성(藥性)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맛보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94) 거백옥 …… 보낸 일 : 《논어(論語)》 헌문(憲問)에 “거백옥이 사람을 보내 공자에게 문안드렸다.[蘧伯玉使人於孔子]”라고 한다.

俟]95), 봉인이 뵈기를 청한 일[封人請見]96), 유비가 공자를 뵈고자한 일[孺悲欲見]97), 호향의 동자가 공자를 접견한 일[互鄉見]98), 악사 면이 공자를 뵈 일[師冕見]99) 등 이와 같은 류(類)가 정심(精深)하지 않다고 해도 좋고, 한가히 수작한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비록 심신에 긴절하지 않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 도(道)의 일단이 아님이 없겠습니까?

진실로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이른바 정심(精深)하다는 것, 긴절(緊切)하다는 것도 모두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구산(龜山)100)에게 묻길, “(논어) 이십편 중에 어느 것이 요절(要切)한가?”라고 하자, 구산이 “모두 요절하다.”라고 대답한 것이 바로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 95) 원양이 …… 기다린 일 : 《논어》 <헌문(憲問)>에 “공자의 친구 원양이 걸터 앉아서 공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공자께서 와서 보시고 “어려서는 공손하지도 못하고, 커서는 칭찬 받을 만한 일 하나 없고, 늙어서도 죽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도적이다.”라고 하시며, 지팡이로 그의 정강이를 두드리셨다.[原壤夷俟，子曰，‘幼而不孫弟，長而無述焉，老而不死，是爲賊。’以杖叩其脛.]”라는 내용이 있다.
- 96) 봉인이 …… 일 : 《논어》 <팔일(八佾)>에 “의 땅의 봉인이 뵈기를 청하며 말하기를 ‘군자가 이곳에 이르면 내가 만나 보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고 하였다. 공자의 수행원이 뵈게 해 주자, 그가 뵈고 나와서 말하였다. ‘그대들은 어찌 공자께서 벼슬을 잃음을 걱정할 것이 있겠는가. 천하에 도가 없어진 지 오래되었다. 하늘이 장차 선생님을 목탁으로 삼으실 것이다.’고 하였다.[儀封人請見曰，君子之至於斯也，吾未嘗不得見也。從者見之，出曰，‘二三子，何患於喪乎？天下之無道也久矣，天將以夫子爲木鐸。’]”라는 내용이 있다.
- 97) 유비가 …… 일 : 《논어》 <양화(陽貨)>에 “유비(孺悲)가 공자를 뵈고자 했는데, 공자께서 병이 있다고 거절하셨다. 명을 전하는 자가 문밖으로 나가자 비파를 가져다 노래를 부르시어 그로 하여금 듣게 하였다.[孺悲欲見孔子，孔子辭以疾，將命者出戶，取瑟而歌，使之聞之.]”라는 구절을 가리킨다. 그 주석에 유비는 노나라 사람으로 일찍이 공자에게 사상례(士喪禮)를 배웠는데, 이때 반드시 죄를 지은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 98) 호향 …… 일 : 호향(互鄉)은 풍습이 비루해서 모두 상대하기를 꺼려했다는 마을 이름인데, 호향의 동자가 찾아왔을 때 공자(孔子)가 거절하지 않고 접견을 허락했다는 이야기가 《논어》 <술이(述而)>에 나온다.
- 99) 악사 …… 일 : 《논어》 <위령공(衛靈公)>에 “악사 면(冕)이 뵈러 왔을 때 계단에 이르자 공자께서는 계단이라 말씀하시고 자리에 이르자 자리라고 말씀하시고, 모두 자리에 앉자, ‘아 무개는 여기에 있고, 아무개는 여기에 있다.’[師冕見，及階，子曰階也，及席，子曰席也，皆坐，子曰某在斯某在斯.]”라고 한 구절이 있다.
- 100) 구산(龜山) : 송대의 학자 양시(楊時)를 가리킨다. 정호(程顥) 정이(程頤) 형제의 제자이다.

그렇다면 이 글에서 취할 것은 보내주신 편지에서와 같이 마땅히 먼저해야 할 것이 진실로 이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혹 피차에 편지를 주고받을 때, 또한 안부를 말하며 마음의 정을 펼 때, 산수(山水)를 구경하고 노닐 일, 시국을 한탄하며 시속을 걱정할 말 등 한가로운 수작으로 긴절치 않아 보이는 말도 간간히 취해서 겹하여 두고 완미하게 하는 것은 마치 직접 선생을 연한우일(燕閒優逸)한 사이에 보고, 경혜(警效) 담소(談笑)하는 나머지에서 친히 목소리와 뜻을 들은 것과 같으니, 도가 있는 자의 기상을 풍범(風範)과 신채(神采)의 사이에서 얻은 것은 오로지 정심함에 힘쓰는 데 더욱 깊어지지 않을 수 없고, 탐탁지 않거나 긴절하지 않는 것의 덕은 외롭게 하여 얻음이 없게 될 것이니,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은 이래로 곧 사우(師友)의 의(義)가 이와 같이 지중함을 알았습니다. 오직 그 의가 중하기 때문에 정이 깊고, 정이 깊기 때문에 허다하게 서로 주선하고 관서(款叙, 정성스럽게 회포를 품)하는 말이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의리를 논한 것이 아니고 심신에 긴절치 않는 것이라고 하여 모두 제거해 버린다면, 어떻게 옛사람의 사우(師友)의 도(道)가 이와 같이 중차대함을 볼 수 있었습니까?

일찍이 남시보(南時甫)<sup>101</sup>의 편지를 받았는데, 《회암서절요(晦菴書節要)》 중 <여백공(呂伯恭)에게 보내는 답장>의 ‘며칠 내로 매미 소리가 더욱 맑아 매번 들을 때마다 일찍이 고고한 풍모를 그리워하지 않음이 없었다.’라고 한 단락을 들어서 말하기를 “이런 혈후(歎後)한 말을 취하여 어디에 쓰겠습니까?”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답한 말을 지

101) 남시보(南時甫) : 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양명학자(陽明學者)인 남언경(南彦經 : 1528~1594)을 말한다. 시보는 자이고, 호는 정재(靜齋)·동강(東岡)이며, 서경덕(徐敬德)의 문인이다. 1593년에 공조 참의가 되어 이요(李瑤)와 함께 이황(李滉)을 비판하다가 양명학을 숭상한다 하여 탄핵을 받고 사직하였다. 양근(楊根, 현재 양평군)의 미원서원(迷源書院)에 제향되었다.

금 기억해낼 수는 없습니다만, 그 큰 뜻은 이런 것으로 ‘혈후하다고 보면 혈후한 것이요, 혈후하지 않다고 보면 혈후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대저 사람의 소견은 같지 않고, 좋아하는 것도 역시 다릅니다. 저는 평소에 이런 곳을 매우 사랑하여 매번 여름철 녹음이 어우러지고 매미소리가 귀에 가득 들려올 때면, 마음으로 일찌기 두 선생<sup>102)</sup>의 기풍을 그리워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또한 뜨락의 풀들이 한한물(閒物)일 뿐이나 이를 볼 때마다 문득 주렴계(周濂溪)의 ‘일반의사(一般意思)<sup>103)</sup>를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세속에 이 학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것은 진실로 괴이할 것이 없고, 좋아할 줄을 아는 사람도 또한 모두 이처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공(韓公, 한유)이 말한 ‘처음에는 들쭉날쭉하여 다르다가도 끝에는 무르녹아 귀추가 같아진다.’고 한 것이 사실은 또한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 보내주신 편지에 ‘지경(持敬)을 하기 어렵다’는 말은 진실로 학자들의 공통된 근심입니다. 만약 이곳에 어려움이 없다면 사람마다 성현의 지위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 <무이도(武夷圖)><sup>104)</sup>는 유념해서 그림을 완성하고 잘 꾸며서 진중하게 보내왔습니다. 동부(洞府)<sup>105)</sup>의 연하(烟霞)와 대은병(大隱扉)의 유적을 손에 넣고 눈으로 비춰보면서 매일 열어서 완미하니, 컷가에는 뱃노래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102) 두 선생 : 주자와 여조겸(呂祖謙)을 가리킨다.

103) 일반의사(一般意思) : 《근사록》 권14에서 엄계(濂溪)는 살던 곳의 창 앞에 풀이 무성히 자라도 베지 않기에 어떤 사람이 그 까닭을 물었더니 “나의 의사와 같다 [與自家意思一般]”라고 하였다. 이는 풀도 나와 마찬가지로 살려는 생(生)의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104) <무이도(武夷圖)> : 중국의 복건성(福建省) 건안(建安)에 있는 무이산(武夷山)의 구곡(九曲)을 그려 놓은 그림이다. 일반적으로 <무이구곡도(武夷九曲圖)>라 부른다. 무이구곡은 주희(朱熹)가 노닐던 곳으로, 그 경치를 그림으로 그린 다음 그 위에 주희의 시 <무이구곡가(武夷九曲歌)>를 써 놓았다.

105) 동부(洞府) : 도교(道敎)의 용어로, 신선들이 사는 지역이라는 뜻이다.

二十五日。乙丑。陰。〈退溪先生與李仲久書〉【李湛，字仲久，號靜存，龍仁人，居京。少先生九歲，而退然以後學自居。】

《晦菴書節要》，蒙示病處，甚荷不外。然來諭云，‘義理之精深，事爲之酬酢，切於吾身與吾心者，所當先取，而其間或有不緊，而見收云云’，此固然矣。然而必欲盡如此說，恐未免又墮於一偏之病也。夫義理固有精深處，其獨無粗淺處乎？事爲固有緊酬酢，其無有閒酬酢乎？是數者，其關於吾身與吾心者，固切而當先矣，若在人在物者，其以爲不切而可遺之乎？吾儒之學，與異端不同，正在此處。惟孔門諸子，識得此意，故《論語》所記，有精深處，有粗淺處，有緊酬酢處，有閒酬酢處，有切於吾身心者，有在人在物而似不切於身心者。試略數之，如冉子之請粟，康子之饋藥，伯玉使人，原壤夷俟，封人請見，孺悲欲見，互鄉見，師冕見，若此之類，謂之非精深，可也，謂之閒酬酢，可也。雖謂之不切於身心，似亦可也。然何莫非道之一端也。苟極其至而言之，則所謂精深者緊切者，皆不外此。故或問於龜山曰，“二十篇，何者爲要切？”，龜山曰，“皆要切。”正謂此爾。然則是書所取，如來諭所當先者，固已不勝其多矣。其或彼此往復之際，亦有道寒暄敘情素，玩山遊水，傷時悶俗等閒酬酢，似不切之語，間取而兼存之，使玩而味之者，如親見先生於燕閒優逸之際，親聆音旨於警咳談笑之餘，則其得有道者氣像於風範神采之間者，未必不更深於專務精深，不屑不緊者之德孤而無得也。非獨此耳。某讀此書以來，乃知師友之義如此其至重。惟其義重故情深，情深故有許多相周旋款敘之言。若以爲非論義理，不切身心而盡去之，則何以見古人師友之道，若是其重且大乎？嘗得南時甫書，舉《節要》中，〈答呂伯恭書〉，‘數日來蟬聲益清，每聽之，未嘗不懷仰高風也’。一段云，‘若此歇後語，取之何用？’某答說，今不能記得，其大意若曰，‘作歇後看則歇後，作非歇後看則非歇後’云云。大抵人之所見不同，所好亦異。某平日，極愛此等處，每夏月綠樹交蔭，蟬聲滿耳，心未嘗不懷仰兩先生之

風。亦如庭草，一聞物耳，每見之，輒思濂溪一般意思也。今自世俗不好此學者言之，固無怪，其知好者，亦不能皆同如此。然則韓公所謂‘始參差而異序，卒爛熳而同歸者，實亦非易事也。○垂諭持敬難做，固學者之通患。若此處無難，則人人可到聖賢地位矣。○武夷圖，留意畫成，裝軸精絕，珍重寄來。洞府烟霞，大隱遺跡，入手照眼，每一披玩，耳邊如聞擢歌之聲。

시106)

詩

만년에 책속을 따라 미혹된 길을 깨우쳤으나,  
병자의 학업이라 도리어 대장부에게 부끄럽네.  
정존(靜存)에게 존양(存養)의 일을 물었더니,  
편지를 보내와 속마음을 잘도 드러내었네.

晚從書裏悟迷途  
病業還慚大丈夫  
爲問靜存存底事  
書來肝膽好相輸

산목이 어찌 문득 하늘까지 빼어날 수 있겠는가,  
존심의 요체도 오랫동안 공들여야 하네.  
그대는 주야로 동쪽으로 흐르는 물을 보는가,  
바다에 이르는 것은 먼저 작은 웅덩이로부터 시작되느니.

山木何能便秀穹  
存心要居積年功  
君看日夜東流水  
放海先從一坎中

383

1915년 12월 26일. 병인. 맑음. 오전(梧田)리의 송한묵(宋澣默)씨에게 병문안을 하고 집에 돌아왔다.

二十六日。丙寅。陽。問梧田宋澣默氏身病，還巢。

1915년 12월 27일. 정묘. 흐림.

二十七日。丁卯。陰。

1915년 12월 28일. 무진. 흐림.

106) 이 시는 《퇴계선생문집》 권3에 <기증이중구(寄贈李仲久)> 의 3편 중 하나이다.

二十八日。戊辰。陰。

1915년 12월 29일. 기사. 맑음.

二十九日。己巳。陽。

1915년 12월 30일. 경오. 흐림.

三十日。庚午。陰。





이면춘(李冕春)의 시  
정포은(鄭圃隱) 선생의 사절(死節)을 기린 시 -배극렴(裵克廉)  
대책(對策) -미능재집(未能齋集)  
포은(圃隱)의 단심가(丹心歌)  
미암의 정심명(正心銘) -미암선생유고(眉岩先生遺稿)  
주광가(酒狂歌)  
세이가(洗耳歌)  
미수(眉叟)의 한간문(汗簡文)  
침법(針法)  
하서선생(河西先生)이 경범(景范)과 중명(仲明)에게 준 시 -하서선생집(河西先生集)  
광록의 시에 차운해서 주다[示光祿韻]  
삼가 연계정에 차운하여 짓다[謹題漣溪亭韻]  
서시학자(書示學者) -하서선생집(河西先生集)  
주문공의 인술시[朱文公仁術]  
속원성(續原性)  
도산급문제현록(陶山及門諸賢錄)의 김학봉(金鶴峯)  
도산서원상향축문(陶山書院常享祝文)  
덕봉시(德峯詩)  
이옥산이 영월을 지나면서 지은 시[李玉山過寧越詩]  
회포를 읊다[述懷]  
또 읊다[又]  
임회처사실기(臨淮處士實記)  
일재에게 보낸 편지 -하서선생집(河西先生集)  
희적(義迪)과의 문답  
이기를 읊어서 제익에게 보여주다[理氣詠示諸益]  
기송사 제문(奇松沙祭文)  
유윤문에게 주다[贈柳允文]  
우연히 읊다[偶吟]



1916년 1월 1일. 신미. 흐림.

丙辰。正月。初一日。辛未。陰。

1916년 1월 2일. 흐림. 오늘은 입춘(立春)이다. 하늘의 사시(四時)는 이로부터 시작한다. 인간의 오복은 원(元)으로부터 시작한다.

二日。壬申。陰。是日立春也。天上四時從此始。人間五福自元初。

1916년 1월 3일. 계유. 흐리고 비.

三日。癸酉。陰雨。

1916년 1월 4일. 갑술. 흐림. 아직 쾌청해지지 않았다.

四日。甲戌。陰。未爲快晴。

1916년 1월 5일. 을해. 맑고 바람 부.

五日。乙亥。陽而風。

1916년 1월 6일. 병자. 맑음.

六日。丙子。陽。

1916년 1월 7일. 정축. 맑음. 어머니 묘에 성묘하기 위해 옥과에 갔다. 이날 가곡(柯谷)리 박준원(朴俊元) 장인 상에 조문하였다.

七日。丁丑。陽。先妣省墓次，作玉果行。卽日慰問柯谷朴俊元聘翁喪

1916년 1월 8일. 무인. 돌아오는 길에 날이 몹시 추워져서 간신히 돌아왔다. 이날 밤에 눈이 내려 강산에 가득하였다.

八日。戊寅。歸路，日寒滋甚艱辛還。是夜雪滿江山。

1916년 1월 9일. 기묘. 흐림. 눈이 오고 밤에 또 눈이 내렸다.

九日。己卯。陰。雪夜又雪。

1916년 1월 10일. 경진. 흐림. 밤에 눈이 내렸다.

十日。庚辰。陰。夜雪。

1916년 1월 11일. 신사. 흐림.

十一日。辛巳。陰。

1916년 1월 12일. 임오. 맑음.

十二日。壬午。陽。

1916년 1월 13일. 계미. 맑음.

十三日。癸未。陽。

1916년 1월 14일. 갑신. 맑음.

十四日。甲申。陽。

1916년 1월 15일. 을유. 맑음. 신세를 짐쳐 쾌를 구하니, <서합(噬嗑)괘> 구사효(九四爻)인 ‘마른고기를 씹다가 금화살을 얻으나, 어렵고 바르게 함이 이롭고 길하리라[噬乾肺得金矢利艱貞吉]’라는 내용을 만났다. <상전>에서 말하기를 “어렵게 하고 바르게 함이 이롭고 길하다는 것은 아직 빛이 나지 않아서이다.[利艱貞吉，未光也]”라고 하였다. 토정

비결을 보니, “눈 속의 찬 매화 홀로 봄빛을 바란다. 해가 청산에 저무니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스스로 물러나라. 보배로운 말과 금 안장이 봄빛 주위를 배회하니, 맑은 바람과 하얀 달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十五日。乙酉。陽。占身勢求卦，遇噬嗑九四，‘噬乾肺得金矢利艱貞吉’。象曰“利艱貞吉，未光也。”觀土亭訣，“雪裏寒梅，獨希春色。日暮青山，寬心自退。寶馬金鞍，徘徊春色，風清月白，豈不美哉。”

1916년 1월 16일.<sup>1)</sup> 병술. 맑음. 성묘를 했다.

十六日。丙戌。陽。省墓。

1916년 1월 17일. 정해. 구름이 잔뜩 낀.

十七日。丁亥。沈陰。

1916년 1월 18일. 무자. 흐리고 비.

十八日。戊子。陰雨。

1916년 1월 19일. 기축. 맑음. 옥과 겸면(兼面) 초곡리(鶴谷里)<sup>2)</sup>에 사는 이면춘(李冕春)씨는 자가 장원(章元)이고, 호가 회동(晦洞)이며, 나이가 79세로, 성품이 극히 영특한데, 찾아와서 시 한수를 주기에 기록한다.

十九日。己丑。陽。玉果兼面鶴谷李冕春氏，字章元，號晦洞，年七十九，性極穎悟，來贈一律，故記之。

1) 원문에는 ‘十七日’로 되어 있으나 16일로 바로잡았다.

2) 초곡리 : 현재 곡성군 겸면 괴정리 초곡마을에 해당된다.

담양 옛 고을에 바윗돌이 겹겹한데 <sup>3)</sup> ,	潭州古洞石岩岩
절개 있는 이 사람 숨어살만 하네.	耿介斯人可以潛
몇 칸의 방과 풍월로 집을 이루니,	數間風月因成屋
사방의 노을이 처마로 들어오네.	四面煙雲却入簷
알고도 답하지 않으니 우매한 것 아니고,	知而答默非愚昧
실하면서도 빈듯하니 이것이 겸손이라네.	實若爲虛是退謙
항상 의관을 단정히 하고 마음을 감춘 듯,	常整衣冠心似晦
그윽한 곳에서도 남이 보는 듯, 스스로 존침 <sup>4)</sup> 하네.	處幽如顯自尊瞻

1916년 1월 20일.<sup>5)</sup> 경인. 흐림. 혹자가 성(性)과 성(誠)의 구별에 대해 물었다. 내가 말하기를 “《성리대전(性理大全)》에 이르기를 ‘성(性)은 실에 마땅하고, 성(誠)은 허에 마땅하다. 성(性)은 이(理)의 이름이고, 성(誠)은 (이가) 좋은 것의 이름이다. 성(性)은 비유하자면 부채와 같고, 성(誠)은 부채가 하는 일이 좋은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390

丙辰。正月。二十日。庚寅。陰。或問性誠之別，曰“《性理大全》曰，‘性宜實，誠宜虛，性是理底名，誠是好處底名。性譬如這扇子，誠譬則這扇子做得好。’”

1916년 1월 21일. 신묘. 맑음.

二十一日。辛卯。陽。

1916년 1월 22일. 임진. 맑음.

- 3) 바윗돌이 겹겹한데 : 《시경》 <소아(小雅)·절남산(節南山)>에 “우뚝 솟은 저 남산이여, 바윗돌이 겹겹이 쌓여 있도다. 빛나고 빛나는 태사(太師) 윤씨(尹氏)여, 백성들이 모두 그대를 바라보도다.[節彼南山，維石巖巖，赫赫師尹，民具爾瞻.]”라는 말이 있다.
- 4) 존침(尊瞻) : 엄숙하게 바라보아 다른 사람의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의미한다. 《신언(慎言)》 <잠심(潛心)>에 “엄숙히 정제하여 의관을 바르게 하고 근엄하게 정색하여 그 외모를 한결같이 한다.[整齊嚴肅，正衣冠，尊瞻視，以一其外.]”라는 말이 나온다.
- 5) 일기 원문에는 1916년 1월 20일부터 1월 22일까지의 일기가 중복 기재되어 있다. 같은 내용 이어서 번역에서는 삭제했다.

二十二日。壬辰。陽。

1916년 1월 23일. 계사. 맑음.

二十三日。癸巳。陽。

1916년 1월 24일. 갑오. 맑음.

二十四日。甲午。陽。

1916년 1월 25일. 을미. 흐림. 비가 흠족히 적심.

二十五日。乙未。陰。雨洽注。

1916년 1월 26일. 병신. 흐림. 눈이 내려 추워짐.

二十六日。丙申。陰。雪寒。

1916년 1월 27일. 정유. 흐림. 차가운 눈이 날림.

二十七日。丁酉。陰。寒雪飛。

1916년 1월 28일. 무술. 흐림.

二十八日。戊戌。陰。

1916년 1월 29일. 기해. 흐림. 저녁에 바람이 불.

二十九日。己亥。陰。夜風。

1916년 2월 초 1일. 경자. 바람이 불고 흠비가 내림.

二月。初一日。庚子。風霾。

1916년 2월 2일. 신축. 맑음.

二日。辛丑。陽。

1916년 2월 3일. 임인. 맑음. 후자가 인(仁)에 대해서 묻자, 내가 말하기를 “《성리대전》에서는 ‘인(仁)은 심(心)의 덕(德)이요, 애(愛)의 이치’라는 말에 대한 물음에, ‘인이 심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윤택[潤]한 것이 수(水)의 덕이고, 말리는[燥] 것이 화(火)의 덕이라는 말과 같고, 애의 이치라는 말은 목(木)의 이치요, 수(水)의 근원이라는 말과 같다.’라고 답했다.”라고 하였다.

三日。壬寅。陽。或問仁，曰“《性理大全》曰‘問仁者心之德，愛之理’，曰‘仁者心之德，猶言潤者水之德，燥者火之德。愛之理，猶言木之理，水之源’。”

1916년 2월 4일. 계묘. 맑음.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는데, 기침을 하고 복통이 있어서 의원에게 물어 안태음(安胎飲)<sup>6)</sup> 세 첩을 지어서 가져왔다.

四日。癸卯。陽。媳婦有孕，而咳喘腹痛，故問醫家，劑來安胎飲三貼。

1916년 2월 5일. 갑진. 맑음. 내 일찍이 《근사록(近思錄)》을 섭렵하다가 ‘함양은 모름지기 경(敬)을 써야 하고, 진학은 치지(致知) 하는 데 달려 있다.’라는 구절을 보고 항상 복응해왔다. 오늘 또 ‘주경(主敬)이란 것은 마음을 보존하는 요체이고, 치지(致知)라는 것은 진학의 공부로, 두 가지를 서로 개발하게 되면 지식은 날로 밝아지고 지키는 것도 날로 더욱 견고해져, 구습(舊習)의 잘못된 것이 저절로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날로 달로 고쳐지고 변하게 된다.’라는 구절을 보고서 문득 경

6) 안태음(安胎飲) : 동태(動胎)로 배가 아프거나 입덧이 났을 때에 쓰는 약(藥)을 말한다.



(敬)자의 의미를 생각했다.

《역(易)》에서는 ‘경으로 안을 곧게 한다.[敬以直內]’라고 하였고, 정자(程子)는 ‘(마음을) 전일하게 하여 잡념이 없게 한다.[主一無適]’라고 했으며, 사씨(謝氏)는 ‘성성법(惺惺法, 마음이 항상 깨어 있는 상태)’<sup>7)</sup>으로 말하였고, 윤씨(尹氏)<sup>8)</sup>는 ‘수렴하여 흔적이 없다는 의미[收斂無痕跡意思]’로 말하였으며, 주자(朱子)는 ‘외(畏)자가 그것에 가깝다.[畏字近之]’<sup>9)</sup>는 것으로 말하였다. 이 몇 마디 말로 보건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천리(天理)를 따르고 전전공공하여 스스로 지켜서 본성을 함양하는 자는 아래로는 인사(人事)를 배우고 위로는 천리에 통달하는 것을 잠깐이라도 떠날 수 없으니, 어찌 철상철하(徹上徹下, 상하가 통하는)의 도라고 하지 않겠는가?

五日。甲辰。陽。余嘗涉獵《近思錄》，見‘涵養須用敬，進學則在乎致知’一段，常平服膺。今又見‘主敬者，存心之要，致知者，進學之工，二者交相發焉，則知益日明，守日益固，舊習之非，自將日改月化於冥冥之中’一段，輒思敬字之義。《易》曰‘敬以直內’，程子曰‘主一無適’，謝氏以‘惺惺法’言之，尹氏以‘收斂無痕跡意思’言之，朱子以‘畏字近之’言之。以是數語觀之，畏不得。循蹈天理，而戰兢自持，涵養本性者，下學人事，上達天理，不可須臾離也，豈不爲徹上徹下之道乎？

393

1916년 2월 6일. 을사. 구름이 짙고 바람이 불지 않음. 덕진동(德振洞)의 생부 묘소에 성묘를 한 후, 문암리(門岩里)에 들어가 유숙하고 다음 날 출발했다.

六日。乙巳。沈陰無風。行德振洞生父墓省，入門岩里留宿，翌日發行。

7) 성성법(惺惺法) : 《심경부주》에 있는 상채 사씨(上蔡謝氏), 즉 사양좌(謝良佐)의 “경은 항상 마음이 깨어 있게 하는 법이다.[敬是常惺惺法]”라는 말을 가리킨다.

8) 윤씨(尹氏) : 송유(宋儒) 화정 윤씨(和靖尹氏), 즉 윤돈(尹焞)을 가리킨다.

1916년 2월 7일. 병오. 흐림. 평신기(平新基) 나씨 사위집으로 들어갔다.  
작은 딸이 아들을 낳은 지 이미 삼일이 지났다.

七日。丙午。陰。入平新基羅婿家。小女生男已過三日。

1916년 2월 8일. 정미. 맑음.

八日。丁未。陽。

1916년 2월 9일. 무신. 흐림. 성리서(性理書)를 보았는데, “이(理)는 보기 어렵고 기(氣)는 보기 쉽다. 성(性)은 형체가 없고, 정(情)은 징험할 수 있다. 원형이정(元亨利貞)은 보기 어렵고, 춘하추동(春夏秋冬)은 보기 쉽다.”<sup>9)</sup>라고 하였다. 혹자가 “성(誠)과 충(忠)을 어떻게 구분합니까?”라고 묻기에, 대답하기를 “성자는 심(心)의 전체로써 말하였고, 충자는 사물을 응접하는 것으로써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394

九日。戊申。陰。看性理書，“理難見，氣易見。性無形，情有驗。元亨利貞難見，春夏秋冬易見。”或問“誠與忠如何分？”，曰“誠字以心全體言，忠字以其應事接物言。”

1916년 2월 10일. 기유. 흐림.

十日。己酉。陰。

1916년 2월 11일. 경술. 맑음. 장동의 큰 집으로 가서, 계속 머물렀다.  
十一日。庚戌。陽。作章洞大宅之行，留連。

1916년 2월 12일. 신해. 흐림.

9) 이는 …… 쉽다 : 《주자어류》 <성리(性理)> 3권에 나온 말이다.

十二日。辛亥。陰。

1916년 2월 13일. 임자. 흐림. 눈보라가 쳤다.

十三日。壬子。陰。雪風。

1916년 2월 14일. 계축. 맑고 바람 봄.

十四日。癸丑。陽風。

1916년 2월 15일. 갑인. 흐림.

十五日。甲寅。陰。

1916년 2월 16일. 을묘. 맑음.

十六日。乙卯。陽。

395

1916년 2월 17일. 병진. 맑음.

十七日。丙辰。陽。

1916년 2월 18일. 정사. 흐림.

十八日。丁巳。陰。

1916년 2월 19일. 무오. 흐림.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장동의 유상적(柳相迪)이 와서 유숙했다.

十九日。戊午。陰。冷風。章洞柳相迪來，留宿。

1916년 2월 20일. 기미. 흐림. 김만규(金萬圭)에게 욕을 당했다.

二十日。己未。陰。受金萬圭之辱。

1916년 2월 21일. 경신. 맑음.

二十一日。庚申。陽。

1916년 2월 22일. 신유. 맑고 바람.

二十二日。辛酉。陽而風。

1916년 2월 23일. 임술. 흐리고 바람.

二十三日。壬戌。陰而風。

1916년 2월 24일. 계해. 맑고 바람.

二十四日。癸亥。陽而風。

1916년 2월 25일. 갑자. 맑음.

二十五日。甲子。陽。

1916년 2월 26일. 을축. 맑고 바람.

二十六日。乙丑。陽而風。

1916년 2월 27일. 병인. 흐림.

二十七日。丙寅。陰。

1916년 2월 28일.<sup>10)</sup> 정묘. 바람 불고 흠비.

10) 28일 : 원문에는 十八日로 되어있으나 전후의 날짜나 간지로 보아 二十八日이므로 수정한다.

二十八日。丁卯。風霾。

1916년 2월 29일. 무진. 흐리고 바람.

二十九日。戊辰。陰風。

1916년 2월 30일. 기사. 흐림.

三十日。己巳。陰。

1916년 3월 1일. 경오. 흐림.

三月。初一日。庚午。陰。

1916년 3월 2일. 신미. 흐리고 비.

二日。辛未。陰雨。

1916년 3월 3일. 임신. 맑음.

三日。壬申。陽。

1916년 3월 4일. 계유. 맑음.

四日。癸酉。陽。

1916년 3월 5일. 갑술. 맑음.

五日。甲戌。陽。

1916년 3월 6일. 을해. 맑음.

六日。乙亥。陽。

1916년 3월 7일. 병자. 비.

七日。丙子。雨。

1916년 3월 8일. 정축. 비가 흠족하게 내림.

八日。丁丑。雨洽注。

1916년 3월 9일. 무인. 흐림.

九日。戊寅。陰。

1916년 3월 10일. 기묘. 맑음.

十日。己卯。陽。

1916년 3월 11일. 경진.<sup>11)</sup> 맑음.

十一日。庚辰。陽。

1916년 3월 12일. 신사. 흐림.

十二日。辛巳。陰。

1916년 3월 13일. 임오. 맑음.

十三日。壬午。陽。

1916년 3월 14일. 계미. 맑음.

十四日。癸未。陽。

11) 경진 : 원문에는 '庚庚辰'으로 되어 있으나 일자의 간지이므로 '庚辰'으로 바로 잡았다.

1916년 3월 15일. 갑신. 맑음.

十五日。甲申。陽。

1916년 3월 16일. 을유. 맑음.

十六日。乙酉。陽。

1916년 3월 17일. 병술. 흐리고 비.

十七日。丙戌。陰雨。

1916년 3월 18일. 정해. 흐리고 비.

十八日。丁亥。陰雨。

1916년 3월 19일. 무자. 흐리고 비.

十九日。戊子。陰雨。

399

1916년 3월 20일.<sup>12)</sup> 기축. 흐리고 비.

二十。己丑。陰雨。

1916년 3월 21일. 경인. 흐리고 비.

二十一日。庚寅。陰雨。

1916년 3월 22일. 신묘. 비. 요사이 삼월 초부터 불행히도 질병에 걸려  
지금에야 겨우 나왔다.

12) 20일 : 원문에 ‘二十’으로 ‘日’字가 누락되어 있으며, 3월 22일과 24일도 ‘日’字가 누락되어 있다.

二十二。辛卯。雨。近日自三月初不幸有疾，自今纔蘇。

1916년 3월 23일. 임진. 맑음.

二十三日。壬辰。陽。

1916년 3월 24일. 계사. 맑음.

二十四。癸巳。陽。

1916년 3월 25일. 갑오. 맑음.

二十五日。甲午。陽。

1916년 3월 26일. 을미. 흐림. 저물 무렵부터 내린 비가 밤새도록 내렸다.

二十六日。乙未。陰。暮雨連夜。

1916년 3월 27일. 병신. 갸.

二十七日。丙申。晴。

순창(淳昌) 중산(中山)<sup>13)</sup>에 사는 부수(副率, 부술)<sup>14)</sup> 사도세자 사부(思道世子師傅)인 양응수(楊應秀)<sup>15)</sup>의 후손 병운(秉雲)<sup>16)</sup>이 와서 암송하

13) 중산(中山) : 전라북도 순창군 인계면 중산리이다.

14) 부수(副率) : 조선 시대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에 속한 정7품 관직으로 좌부수(左副率)와 우부수(右副率) 등이 있었다.

15) 양응수(楊應秀, 1700~1767) : 계달(季達), 호는 백수(白水), 본관은 남원(南原)으로, 순창에서 태어났다. 1755년(영조 31) 건원릉참봉(健元陵參奉)에 제수되고, 이어 익위사부수(翊衛司副率)로 옮겨졌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저서로는 《백수문집(白水文集)》과 서간집(書簡集)인 《백수서간선(白水書簡選)》이 있다.

16) 병운(秉雲, 1870~1950) : 양병운을 말한다. 자는 성우(成雨) 또는 노원(魯源)이고, 호는 지곡(芝谷)이다. 본관은 남원(南原)이며, 순창군(淳昌郡) 인계면(仁溪面) 중산(中山)에서 태어났다. 처음에는 최국사(崔菊史)에게 배우다가 15세에 매천(梅泉) 황현(黃玑)의 문인이 되었다.



였다.

淳昌中山, 楊副率思道世子師傅應秀后, 秉雲來誦曰,

주나라에서는 백이의 청절을 포용해,	聖周容得伯夷清
해치지 않고 수양산에서 굶어죽게 하였지.	餓死首陽不死兵
그러나 그 날 선죽교에서는,	善竹橋過當日事
정선생을 모신 이 아무도 없었네.	無人扶去鄭先生

위의 시는 배극렴(裴克廉)이 정포은(鄭圃隱) 선생의 사절(死節)을 기리기 위해 지었다 한다.<sup>17)</sup>

此詩, 裴克廉贊鄭圃隱先生死節云爾。

1916년 3월 28일. 정유. 흐림.

二十八日。丁酉。陰。

1916년 3월 29일. 무술. 반쯤 흐리고 맑음.

二十九日。戊戌。半陰陽。

1916년 4월 1일. 맑음. 기해.

四月。初一日。陽。己亥。

1916년 4월 2일. 경자. 맑음.

二日。庚子。陽。

흡재(歛齋) 최병심(崔秉心), 월담(月潭) 김재석(金載石)과 교류하였다. 묘소는 순창군 인계면 건지산 아래에 있다.

17) 위의 …… 한다: 연안 이씨 가승보에 이석형(李石亨, 1415~1477)이 지은 시로 나온다. 1928년 4월 21일에도 이 시가 나오는데, 연안 이씨 가승보와 연관있게 서술되어 있다.

1916년 4월 3일. 신축. 맑음.

三日。辛丑。陽。

1916년 4월 4일. 임인. 맑음. 저녁에 비가 내렸다.

四日。壬寅。陽。夕雨。

1916년 4월 5일. 계묘. 흐림. 가랑비가 내렸다.

五日。癸卯。陰。微雨。

1916년 4월 6일. 갑진. 맑고 북풍이 불었다.

六日。甲辰。陽而北風。

1916년 4월 7일. 을사. 맑음.

七日。乙巳。陽。

1916년 4월 8일. 병오. 맑음.

八日。丙午。陽。

1916년 4월 9일. 정미. 맑음.

九日。丁未。陽。

1916년 4월 10일. 무신. 맑음.

十日。戊申。陽。

1916년 4월 11일. 기유. 맑음.

十一日。己酉。陽。

1916년 4월 12일. 경술. 맑음.

十二日。庚戌。陽。

1916년 4월 13일. 신해. 흐림. 장동(章洞)에 도착하였다.

十三日。辛亥。陰。到章洞。

1916년 4월 14일. 임자. 연계정(漣溪亭) 현판식 잔치에 갔다.

十四日。壬子。赴漣溪亭懸板宴。

1916년 4월 15일. 을축. 흐림. 저녁에 비가 왔다. 대산 종가(大山宗家)에 도착하여 유숙하였다.

十五日。癸丑。陰。夕雨。到大山宗家留宿。

403

1916년 4월 16일. 갑인. 갸. 장동의 종매 이근옥(李根沃)의 집에 도착하였다.

十六日。甲寅。晴。到章洞從妹李根沃家。

1916년 4월 17일. 을묘. 흐리고 비. 유희적(柳義迪)의 집에 도착하여 계속 머물렀다.

十七日。乙卯。陰雨。到柳義迪家留連。

1916년 4월 18일. 병진. 집에 돌아왔다.

十八日。丙辰。還巢。

1916년 4월 19일. 정사. 맑음.  
十九日。丁巳。陽。

1916년 4월 20일. 무오. 맑음.  
二十日。戊午。陽。

1916년 4월 21일. 기미. 맑음.  
二十一日。己未。陽。

1916년 4월 22일. 경신. 맑음.  
二十二日。庚申。陽。

1916년 4월 23일. 신유. 흐리고 비.  
二十三日。辛酉。陰雨。

1916년 4월 24일. 임술. 맑음.  
二十四日。壬戌。陽。

1916년 4월 25일. 계해. 맑음.  
二十五日。癸亥。陽。

1916년 4월 26일. 갑자. 흐림.  
二十六日。甲子。陰。

1916년 4월 27일. 을축. 맑음.

二十七日。乙丑。陽。

1916년 4월 28일. 병인. 맑음.

二十八日。丙寅。陽。

1916년 4월 29일. 정묘. 맑음.

二十九日。丁卯。陽。

1916년 4월 30일. 무진. 맑음. 장동(章洞)에 도착했다.

三十日。戊辰。陽。到章洞。

1916년 5월 1일. 기사. 맑음.

五月。初一日。己巳。陽。

1916년 5월 2일. 경오. 맑음.

二日。庚午。陽。

1916년 5월 3일. 신미. 맑음.

三日。辛未。陽。

1916년 5월 4일. 임신. 맑음.

四日。壬申。陽。

1916년 5월 5일. 계유. 흐리고 비가 흠족하게 내렸다.

五日。癸酉。陰雨洽注。

1916년 5월 6일. 갑술. 갸. 계곡물이 크게 불어났다.

六日。甲戌。晴。溪水大漲。

1916년 5월 7일. 을해. 맑음.

七日。乙亥。陽。

1916년 5월 8일. 병자. 흐리고 비.

八日。丙子。陰雨。

1916년 5월 9일. 정축. 흐리고 비.

九日。丁丑。陰雨。

1916년 5월 10일. 무인. 맑음.

十日。戊寅。陽。

1916년 5월 11일. 기묘. 맑음. 후자가 인(仁)을 묻기에 내가 답하여 가로대, “정자(程子)가 ‘하늘의 명이 아, 심원하여 그치지 않는다[維天之命, 於穆不已]는 것은 충(忠)이요, 하늘의 도가 변화하여 각각 성명(性命)을 바르게 한다[乾道變化, 各正性命]는 것은 서(恕)이다’라고 하셨다. 또 말하기를, ‘인이란 천하의 바른 이치이니, 바른 이치를 잃으면 두서가 없고 조화롭지 않게 된다’라고 하셨으니, 이것을 체인(體認)함으로써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주자(朱子)가 말한 ‘인(仁)이란 심지덕(心之德)이요, 애지리(愛之理)’라는 것이 그것을 가르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十一日。己卯。陽。或問仁, 余應之曰, “程子曰, ‘維天之命, 於穆不已,

忠也, 乾道變化, 各正性命, 恕也.’ 又曰, ‘仁者, 天下之正理, 失正理則無序不和’ 以此體認可以知。 子朱子曰, ‘仁者, 心之德, 愛之理’ 之訓歟。”

1916년 5월 12일. 경진. 맑음.

十二日。庚辰。陽。

1916년 5월 13일. 신사. 아침부터 정오까지 비가 내렸다.

十三日。辛巳。自朝至午雨。

1916년 5월 14일. 임오. 새벽부터 사시(巳時)<sup>18)</sup>까지 비가 내렸다. 계곡 물이 크게 불어 건널 수가 없었다.

十四日。壬午。自曉至巳雨。溪水漲大, 不能渡。

1916년 5월 15일. 계미. 흐리고 큰 비가 내려 계곡물이 불어났다.

十五日。癸未。陰大雨, 溪水漲。

407

1916년 5월 16일. 갑신. 맑.

十六日。甲申。晴。

1916년 5월 17일. 을유. 맑음.

十七日。乙酉。陽。

1916년 5월 18일. 병술. 맑음.

十八日。丙戌。陽。

18) 사시(巳時) :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를 말한다.

1916년 5월 19일. 정해. 맑음.

十九日。丁亥。陽。

1916년 5월 20일. 무자. 흐림. 비 온 흔적이 있었다.

二十日。戊子。陰。雨痕。

1916년 5월 21일. 기축. 흐리고 잠깐 비가 내렸다.

二十一日。己丑。陰乍雨。

1916년 5월 22일. 경인. 흐리고 큰 비가 내렸다.

二十二日。庚寅。陰大雨。

1916년 5월 23일. 신묘. 흐리고 큰 비가 내렸다.

二十三日。辛卯。陰大雨。

1916년 5월 24일. 임진. 흐리고 큰 비가 왔다. 계곡물이 불어 넘쳤다.

二十四日。壬辰。陰大雨。溪水漲溢。

1916년 5월 25일. 계사. 흐리고 비.

二十五日。癸巳。陰雨。

1916년 5월 26일. 갑오. 흐리고 비.

二十六日。甲午。陰雨。

1916년 5월 27일. 을미. 흐리고 비.



二十七日。乙未。陰雨。

1916년 5월 28일. 병신. 겐. 《미능재집(未能齋集)》<sup>19)</sup>의 행적을 보았다.

二十八日。丙申。晴。看《未能齋集》行蹟。

선생의 휘(諱)는 상중(尙重), 자(字)는 여후(汝厚), 삭녕(朔寧) 최씨이다. 고려 평장사(平章事) 유가(瑜價)의 후예로, 본조(本朝)에 들어와서는 영의정(領議政) 영성부원군(寧城府院君) 시호(諡號) 문정공(文靖公) 항(恒)의 6세손이자 좌승지(左承旨)로 증직된 영(穎)의 아들이다. 선생은 자품(資稟)이 순수하고 아름다웠으며, 영특하고 숙성(夙成)하였다. 16세에 미암 유희춘 선생의 유배지에 찾아가 종유(從遊)하였는데, 처음에 《대학》 경 1장과 소주(小註)를 주니 하루 만에 그것을 암송하였다. 미암이 매우 감탄하여 말하기를, “최씨 가문을 창대하게 할 사람은 필시 이 사람이리라.”라고 하였다.

<대책(對策)><sup>20)</sup>이 있어 기록한다.

先生諱尙重，字汝厚，崔氏系出朔寧。高麗平章事，瑜價之後，入本朝領議政寧城府院君，贈諡文靖公，諱恒之六世孫，贈左承旨，諱穎之子也。先生資稟粹美，英睿夙成。年十六往從眉岩柳先生希春謫所，初授《大學》經一章竝小註，一日而誦之。眉岩深加歎賞曰，“曷大崔門者，必此人也。”有<對策>記之。

19) 미능재집(未能齋集) : 최상중(崔尙重, 1551~1604)의 문집. 최상중의 자는 여후(汝厚), 호는 미능재(未能齋)로, 유희춘(柳希春)의 문인이다. 1576년(선조 9)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1589년(선조 22) 증광문과시(增廣文科試)에서 병과(丙科)로 급제한 뒤, 검열·장령·교리 등을 역임하였다. 1602년(선조 35) 시간을 끝으로 관직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임진왜란 당시 권율(權栗)의 종사관으로서 5~6년 동안 그를 보필하였으며, 호남을 왕래하면서는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남원의 노봉서원(露峰書院)에 제향되었다.

20) 대책(對策) : 시정(時政) 또는 경의(經義)에 관한 과거(科擧) 문제의 답안을 말한다.

### <책문>

문 : 천지 사이에 형체가 있는 것은 보기 쉽고 형체가 없는 것은 알기 어렵다. 알기 어려운 무형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쉽게 볼 수 있는 유형에서 구해야 한다. 무형한 것은 어떤 것이며, 유형한 것은 어떤 물건인가?

태극도(太極圖)는 성현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알기 어려운 것을 알게 하고자 한 것인데, 공자는 일찍이 안연이나 증자와 말할 때 이 뜻에 이른 적이 없는 것은 왜 그런가? 주자(周子)가 이미 말을 낸 후에 이르러서도 정자(程子)는 문인들에게 수업하지 않은 것은 무슨 뜻인가? 공자는 일찍이 말하지 않았고 정자는 수업하지 않았다면, 초학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주자(朱子)가 특별히 《근사록(近思錄)》의 서두에다 편차한 것은 또 무슨 뜻인가?

이미 ‘만물에는 각각 하나의 태극이 갖추어져 있다[萬物各具一太極]’고 말하였으니, 마땅히 형체가 있는 곳에서는 볼 수 있을 것인데, 선유(先儒)는 또 ‘태극은 형체를 감춘 사물<sup>21)</sup>로서 방향과 처소가 없고 그림자도 소리도 없는 것[太極是藏頭物事, 無方所無影響]’이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태극의 묘함은 끝내 살펴볼 수가 없는 것인가?

410

천지 만물이 생기기 전에는 이 극(極)이 어디에 깃들여 있으며, 이미 천지 만물이 생긴 후에는 이 극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공자는 ‘역에는 태극이 있다[易有太極]’고 말하였고, 주자(周子)는 ‘무극이면서 태극이다[無極而太極]’고 하였는데, 역에서는 있다고 하고 태극에서는 없다고 하니, 성현들이 그 말을 다르게 한 것은 왜인가? 주자(朱子)는 ‘유(有)자를 태(太)자로 해석함을 옳지 않다고 했고, 또 ‘무극이면서 태극이라고 한 것은 다만 형체는 없으나 이치는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고 하였는데, 이미 ‘이치가 있다고 했으면서 어찌서 옳지 않게 유(有)자를 해석하는가? 만일 무(無)라고 여긴다면 ‘태극이라고 이름 한 것은 어떤 물건인가? 동정(動靜)하게 하고 음양을 낳게 하는 것은 또 무슨 물건인가? 이른바 ‘만물이 생겨나기 전에 생겨나고 만물이 이미 생겨난 후에 갖추게 된다[生於萬物未生之前, 具於萬物既生之後]’는 것은 또 어떤 곳에 붙어서 생겨나고 갖추게

21) 형체를 감춘 사물[藏頭物事] : 형체가 드러나지 않는 개념적인 것을 말한다. 원문에서는 ‘장두(莊頭)’로 쓰여 있다.

되는가?

소옹(邵翁)의 말은 ‘무극의 전[無極之前]’을 이룬 것이니, 무극의 전은 어떤 곳을 말하며, 다시 어떤 물건이라 말할만한 것이 있을 것인가? 장생(莊生, 장자)은 무극(無極)의 위에 한 층을 더하였는데, 선유는 소옹이 말한 ‘무극의 전’과는 다르다고 여겼으니, 무슨 견해인가? 선유는 ‘사람마다 각각 태극을 갖추었고 물건마다 각각 하나의 태극을 갖추었다고 말했으니, 걸왕과 도척에게서도 태극을 볼 수 있고, 나무와 돌에서도 또한 태극을 볼 수 있다는 것인가?

태극이 만물에 갖추어져 있음을 알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어디에서부터 찾아 들어가야 할 것이며, 태극이 나의 마음에 갖추어지게 하려는 자가 무극(無極)으로 함께 돌아가고자 한다면, 또한 마땅히 어디에서부터 착수해야 되는가? 형체가 있는 것에서 형체가 없는 것을 미루어보고, 쉽게 볼 수 있는 것에서 알기 어려운 것을 공부해가려는 것은 반드시 그 요체가 있을 것이니, 원컨대 제생들의 말을 듣고자 한다.

策問。天地之間，有形者易見，無形者難知。欲知難知之無形，則當求於易之有形。無形者何地？而有形者何物歟？太極一圖，是聖賢欲使人知其難知者，而孔子未曾與顏曾語到此義，何歟？至周子既發之後，而程子亦不以授門人者，何意歟？孔子未曾語，程子不以授，則似非初學之所可聞，而朱子特編之於《近思錄》初頭者，抑何意歟？既曰‘萬物各具一太極’，則似當於有形處可見，而先儒又謂‘太極是莊頭物事，無方所無影響’，則太極之妙，終不可窺測歟？未有天地萬物之前，此極於何所寓？既有天地萬物之後，此極於何可見歟？孔子曰‘易有太極’，周子則曰‘無極而太極’，於易則謂之有，於太極則謂之無。聖賢之異其說，何歟？朱子曰‘將有字訓太字不得’，而又曰‘無極而太極，只是說無形而有理者’，既曰‘有理’，則何以云不得，將有字作訓歟？如以爲無，則名之曰太極者，何物歟？所以能動靜生陰陽者，亦何物歟？所謂‘生於萬物未生之前，具於萬物既生之後’者，抑何所憑着而能生以具歟？邵翁說到無極之前，則無極之前，是何地頭，而復有何物可說者歟？莊生加一層於無極之上，而先儒以爲與邵翁說到無極之前不同者，何見歟？先儒曰‘人人各具太極，物物各具一太極’，則於桀跖亦可見太極，於木

石亦可見太極歟? 欲知太極之具於萬物者, 當於何處尋去, 欲使太極具於吾心者, 同歸於無極, 則亦當於何地下手歟? 推有形於無形, 作易見於難知者, 必有其要, 願聞諸生之說焉。

답 : 조정에서 인재를 취하려고 춘위(春圍)<sup>22)</sup>를 크게 천명하고, 집사선생께서 이에 하문하시며 특별히 무극과 태극의 이치를 들고 선현들의 말이 다른 것을 참고하여 제생들이 의심할 수 있는 논의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귀가 있어도 도를 듣지 못하여 십년 동안 산란하였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여 일실(一室)이 갈팡질팡하였으니, 어찌 두터운 바람에 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도가 있는 것에 나아가 나의 의혹을 푸는 것이 학자의 뜻입니다. 이미 정중한 물음을 받았으니 감히 경솔함을 숨기고 대답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건대 충막무집(沖漠無朕)<sup>23)</sup>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소리와 냄새가 없는 것이니, 이(理)가 미묘한 것에 감추어진 것입니다. 두루 흐르고 통하여 감에 볼 수 있는 형상이 있는 것은 기가 만물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이(理)는 천지가 아직 갈라지기 이전에 갖추어져서 태극의 체(體)가 성립하게 되고, 기(氣)는 품물(品物, 만물)이 이미 형상화 된 후에 유행하여 태극의 용(用)이 운행하게 되었으니, 심원하고 미묘하여 보기 어려운 것은 태극의 체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들어나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태극의 용이 아니겠습니까?

그 체를 말하면 형체가 없어서 알기 어려운 묘(妙)가 있고, 그 용을 말하면 분명하여 알기 쉬운 자취[跡]가 있습니다. 용(用)의 분명히 드러난 것은 알기 쉽고, 체의 미묘한 것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오직 성인만이 형체가 없는 이치를 볼 수 있고, 드러나지 않은 체를 알 수 있습니다.

무릇 천지가 천지가 되는 까닭이나, 인물이 인물이 되는 까닭, 일월이 밝게 되는 까닭, 강수와 한수가 흐르게 되는 까닭을 모두 자세히 깨달아서

22) 춘위(春圍) : 봄철에 시행하는 과거(科擧)의 시험장으로, 곧 춘등 과시(春等課試)를 말한다.

23) 충막무집(沖漠無朕) : 지극히 고요하여 아무런 조짐이 없는 상태로, 본연(本然)의 성(性)을 표현한 것이다. 정이천(程伊川)이 사람의 성(性)에 이(理)가 본래 갖추어져 있음을 말하여 “충막무집한 가운데 만상(萬象)이 빼곡히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였다.(《근사록》)

묵묵히 계합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덕은 천과 합치하고, 마음은 이치와 하나가 되어서, 형체가 없고 보기 어려운 미묘함이 방촌(方寸, 마음) 가운데서 밝고 환합니다.

뒷날의 현자들은 이러한 이(理)가 허무와 적멸에 빠질 것을 두려워하셔서, 입언(立言)하여 그 깊은 속을 드러내었고, 이 이가 일물(一物)로 빠질까 두려워하여 글을 지어 그 온축한 것을 발하였습니다. 비록 천만가지 말이 서로 같지 않더라도 이 이치의 미묘한 내용을 밝히지 않음이 없습니다. 진실로 조짐과 근거, 요령을 미루어 밝힌 자가 아니라면 그 어찌 이 일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러하나 도의 큰 근원은 하늘에서 나와서 인심에 갖추어졌으니, 크게는 밖이 없고, 작게는 안이 없이 혼연히 하나의 태극입니다. 쉽사리 볼 수 있는 사물로 인하여 보기 어려운 이치를 궁구하여 신령스런 근원이 미발(未發)의 전에 어둡게 하지 않고, 묘용이 이발(已發)한 뒤에 어긋남이 없게 하는 것을, 대저 어찌 마음을 벗어나 달리 구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묻는 바에 따라 조목조목 대답해보겠습니다.

위대하도다. 태극의 미묘함이여! 막막하고 아득한 가운데에 갖추어져 일용 사물 사이에 나타나니, 실로 음양의 근거(根柢)이며, 조화의 추뉴(樞紐)입니다. 천년 동안 도가 없어지고 성학이 전해지지 않아서 주염계가 <태극도>를 그린 것이 이 때문에 지은 것입니다. 깊은 속을 드러내고, 미묘함을 밝힌 것이 손바닥 가리키듯 하였으니, 당세 학자들이 지극한 이치의 소재를 알게 된 것이 마치 잠자는 자를 일깨우는 것과 같이 하였으니, 어찌 천민(天民)중에 선각자가 아닙니까?

‘그 양단을 두드린다’<sup>24)</sup>와 ‘숨김이 없다’<sup>25)</sup>는 것은 부자의 말씀인데, 일

- 24) 그 양단을 두드려 : 처음과 끝을 알려준다는 말. 《논어》 <자한>에, 공자가 말하기를 “내가 아는 것이 있느냐? 아는 것이 없다. 무식한 사람이 내게 물을 경우 그가 아무것도 모른다 하더라도 나는 그 양쪽의 실마리를 따져 빠짐없이 말해 줄 뿐이다.[吾有知乎哉, 無知也。有鄙夫問於我, 空空如也, 我叩其兩端而竭焉.]”라고 하였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 25) 숨김이 없다는 것은 : 《논어》 <술이>의 말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제자들이, 내가 숨기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숨기는 것이 없다. 나는 행동한 일 치고 너희들과 더불어 같이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것이 내 뜻이다[子曰, 二三子, 以我爲隱乎? 吾無隱乎爾。吾無行而不與二三子者, 是丘也.]”라고 하였다.

찍이 그 뜻을 들어서 안자와 증자에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명의 이치는 실로 성인이 드물게 말씀하신 것인데, 자공 무리도 오히려 얻어 들었다면 안자와 증자와 같은 아성(亞聖)은 반드시 ‘예[唯]’나 ‘일이관지(一以貫之)’나 ‘기빠하지 않음이 없을’ 때 묵묵히 이해함이 있을 것입니다.

주염계의 <태극도>와 <통서>가 이미 나오자 두 정씨(程氏)가 뵈고 친절한 가르침을 받았으나 문인들에게 주지 않은 것은 이(理)의 정미함은 갑자기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전(易傳)》 한 책에서 자세히 말하였으니, 두 정씨가 태극에 대해서 발명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윽하고 깊은 이치와 높고 미묘한 본체는 초학자에게 갑자기 말할 수 없는 것인데, 회암(晦菴, 주자)이 《근사록》의 첫머리에 편집한 것은 학자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일을 버리고 고원한 일에 힘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표준과 적확함을 기약하는 것으로 삼아 작은 성취에 안주하거나 빠른 효과에 국한되지 않게 하고자 함입니다. 태극의 이치가 비록 만물에 깃들어 있지만, 진실로 덩그러니 있는 한 물건처럼 가리킬 수 있는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암이 ‘장두물사’라고 말하고 ‘공허적멸’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니, 사람들이 엿보아 살필 수 없는 것입니다. 천지가 갈라지기 전에 태극의 체가 이미 갖추어졌고, 천지가 이미 갈라진 뒤에 태극의 용이 이내 행해지니, 이른바 ‘체’란 이 이(理)일 뿐이고, 이른바 ‘용’은 이 기(氣)일 뿐입니다. ‘역에 태극이 있다.[易有太極]’라는 것은 공자의 말이고, ‘무극이면서 태극이다.[無極而太極]’라는 것은 주자(周子)의 말이니, ‘있다’라고 한 것은 음양이 변화하는 가운데 저절로 지극한 이치가 있는 것이고, ‘없다’라고 한 것은 방소(方所)도 없고 정체(定體)도 없어서 형기(形氣)에 구애될 수 없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전성(前聖)과 후성(後聖)의 말에 각각 주장한 바가 있으나 또한 같지 않음이 없습니다. ‘유’자를 가지고 ‘태’자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회암의 설이며, ‘형체가 없으나 이치는 있다’고 한 것 또한 회암의 설입니다. ‘유극(有極)’이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태극’이라고 한 것은, 만약 ‘유극’이라고 하면 반드시 비길 만한 사물이 있게 되니, 이 ‘극’자는 형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치가 있다’고 한 것은 지극한 이치가 있어 실로 그 가운데에 붙어 있기에 ‘허무하여 형상이 없는 것[虛無罔象]’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무극이라 하고서 또 ‘태극이라고 한 것은 바로 지극히 은미하고 지극히 큰 체를 형용하기 위한 것이지, 집 위에 집을 짓는 의론이 아닙니다. (태극이) 움직여 양을 낳고 고요하여 음을 낳으니, 한 번의 움직임과 한 번의 고요함이 서로 그 뿌리가 된다.[動而生陽, 靜而生陰, 一動一靜, 互爲其根.]’는 것이 태극 자연의 오묘함이 아니겠습니까? 만물이 생기기 전에 체가 갖추어졌고, 만물이 이미 생겨서 용이 행해지니, 붙어서 그 공용(功用)을 베푸는 것은 이와 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선천(先天)의 의론을 꺼내 무극의 이진을 설명한 사람은 소강절(邵康節)이니, 그가 이른바 ‘몸은 천지가 생겨난 뒤에 있으나 마음은 천지가 생기기 전에 있었네.[身在天地後, 心在天地前.]’<sup>26)</sup>라는 것은 대개 태극의 지극히 오묘한 이치가 이미 청탁(淸濁)이 나누어지기 전에 있었음을 말한 것입니다.

그 이치가 통행하는 것으로 말하면 도(道)라 하고, 그 이치가 지극한 것으로 말하면 태극이라 하는데, 장주(莊周)는 이에 도 자를 태극의 위에 더하여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으니, 특히 도가 곧 태극이고 태극이 곧 도라는 것을 모른 것입니다. 그 설의 착오는 공격하지 않아도 절로 무너질 것이니, 어찌 소자의 설과 같은지 여부를 논하겠습니까? 천지간에 많고 많은 것이 모두 균등하게 이 이치를 얻었으니, 어질다고 해서 넉넉하거나 어리석다고 해서 인색한 것은 아닙니다. 초목에는 초목의 이치가 있고 금석(金石)에는 금석의 이치가 있으니, 비록 걸척(桀躅)의 포악함과 목석의 하찮은 것이라도 태극의 이치를 똑같이 받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에는 어둡고 밝음이 있고, 품부 받은 것에는 치우침과 온전함이 있으니, 절로 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태극은 하나의 음양일 뿐이고, 음양은 하나의 태극일 뿐이라, 천지 사이에 유행하는 것은 있지 않은 곳이 없고, 그러하지 않은 물건이 없습니다. 방향과 위치를 말할 수 없고, 그림자와 소리를 일컬을 수 없으니, 학자

26) 몸은 …… 있었네 : 소옹의 <자여음(自餘吟)> 시에 나오는 시구이다.

는 이것을 구함에 장차 어떻게 힘을 쓰겠습니까? 대개 또한 이 마음에서 구할 뿐입니다.

적연부동(寂然不動)하여 희로애락이 미발(未發)한 것은 이 마음의 체여서 태극의 묘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이수통(感而遂通)하여 희로애락이 기발(既發)한 것은 이 마음의 용이어서 태극의 묘가 여기에서 행해집니다. 미발한 것은 형체가 있지만 미발한 것은 형체가 없습니다. 미발한 것은 알 수 있지만 미발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학자는 여기에서 깊이 체인하고 묵묵히 알아야 합니다. 형체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형체가 없는 것을 미루어 가고, 알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알 수 없는 것을 미루어 간다면, 거의 융회관통(融會貫通)하여 태극의 묘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심극(心極) 또한 세워질 것입니다.

대저 이와 같이 한다면 일신(一身)으로써 천지의 운행 체인하고, 일심(一心)으로써 조화의 근원을 궁구하여 만 가지 선이 다 구비되고 많은 이치가 다 밝혀져서 끝없는 오묘함에 통연(洞然)할 것이니, 알기 어렵고 보기 어렵다는 근심을 다시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416

읽은 글을 장차 마치려고 함에 또한 바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이 마음으로써 입극(立極)의 근본을 삼고 이 마음의 요체를 밝히는 것이 또한 어찌 학문의 방도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진실로 궁격(窮格)의 힘을 더하고 성을 밝히는 공부를 다 하여 나의 일심으로 하여금 만 가지 이치의 본연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면, 무극과 태극의 체가 이미 내 마음에 세워지고, 무극과 태극의 용이 일용과 동정 사이에서 유행할 것입니다.

비록 그렇더라도 그것을 선창하지 않으면 누가 화답하겠습니까? ‘그 극이 있는 곳에 모이고 그 극이 있는 곳으로 돌아올 것이다[會其有極, 歸其有極]’<sup>27)</sup>를 주상전하에게 깊이 바랍니다. 삼가 바라건대 집사께서 올려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삼가 대답합니다.

對。聖朝取人, 春園大闢, 執事先生, 爰下辱問, 特舉無極太極之理, 參以先

27) 그 극에 …… 돌아: 《서경》 <홍범(洪範)>에 나오는 말이다. “편벽됨이 없고 편당함이 없으면 왕의 도가 탕탕(蕩蕩)하며, 편당함이 없고 편벽됨이 없으면 왕의 도가 평평(平平)하며, 상도(常道)에 위배됨이 없고 기울어짐이 없으면 왕의 도가 정직(正直)할 것이니, 그 극(極)에 모이고 그 극에 돌아오리라[無偏無黨, 王道蕩蕩, 無黨無偏, 王道平平, 無反無側, 王道正直, 會其有極, 歸其有極.]”라고 하였다.



賢說話之不同，欲觀諸生能疑之論。愚也，有耳不聞道，十年憤憤，有目不見睫，一室悵悵，何足以答厚望？然就有道解吾惑，學者志也。既承鄭重之問，敢隱率爾之對。竊謂沖漠無朕，無聲臭之可言者，理之莊於微妙者也。周流通達，有形象之可見者，氣之著於萬物者也。是以理具於玄黃未判之前，而太極之體有以立，氣流於品物已形之後，而太極之用有以行，淵微而難見者，非太極之體乎？昭著而易見者，非太極之用乎？言其體，則有無形難知之妙，語其用，則有昭然易知之跡。用之昭著者易知，而體之微妙者難知，故惟聖人，能見無形之理，而能知不顯之體。凡天地所以為天地，人物所以為人物，日用之所以明，江漢之所以流者，莫不融會，而默契之，故德與天合，心與理一，無形難見之妙，洞然於方寸之中矣。後之賢者，懼斯理之淪於虛寂，則立言以闡其幽，恐此理之滯於一物，則著書以發其蘊。雖千言萬語之不相同，而無非發揚此理之微奧。苟非推明兆朕根極要領者，其何以與於此哉？雖然，道之大原，出於天，而具於人心，其大無外，其小無內，混然一太極也。因易見之物，而究難見之理，使靈源不昧於未發之前，妙用不差於已發之後者，夫豈外心而他求哉？請因明問所及，而條復之。大哉，太極之妙也。具於茫乎杳爾之中，而著於日用事物之間，則實陰陽之根柢，造化之樞紐也。千載道喪，聖學不傳，濂溪一圖，為是而作。闡奧明微，如指諸掌，當世學者，得知至理之所在，如呼寐者，而使之醒，豈非天民之先覺乎？叩兩端而無隱者，夫子之言也，而未嘗舉其義，說與顏曾者，性命之理，固聖人之罕言，而子貢之徒，猶得以聞之，則以顏曾之亞聖，必有默會於唯一貫無不悅之時矣。濂溪之圖書既出，而兩程之面承親切，然而不授門人者，其意以為理之精微，未可遽以示人，而於易傳一書，言之其詳，則二程之於太極，不可謂不發矣。幽深之理，高妙之體，不可向初學驟語，而晦菴《近思錄》，編於初頭者，非謂學者捨近功務高遠也。欲以此為標準期的之地，而使不安於小成，局於近效也。太極之理，雖寓於萬物，而固非塊然一物有形有象之可指，故晦菴謂之‘藏頭物事’，非謂‘空虛寂滅’，人不得以窺測也。在天地未剖未坼之前，太極之體已具，及天地已剖已坼之後，而太極之用乃行，所謂體者，此理而已，所謂用者，此氣而已。‘易有太極’者，孔子之言，而‘無極而太極’者，周子之說也，謂之有者，

以其陰陽變易之中，自有極至之理也，謂之無者，以其無方所無定體，不可拘於形氣而論也。前聖後聖之言，各有所主，而亦無不同矣，將有字訓太字不得者，晦菴之說也，無形有理者，亦晦菴之說也。不謂之有極而必謂之太極者，若曰有極，則有一定可擬之物，非此極無形體也。其曰有理者，有極至之理，實寓於其中，不可以虛無罔象視之也。既曰無極，又曰太極者，乃所以形容至隱至大之體，非是疊床架屋之論也。‘動而生陽，靜而生陰，一動一靜，互爲其根’者，非太極自然之妙乎？萬物未生而體具焉，萬物既生而用行焉，其所以憑着而施其功用者，不過曰理與氣而已。發先天之論，而說無極之前者，康節邵子也，其所謂‘身在天地後，心在天地前’者，蓋言太極至妙之理，已在於清濁未分之前矣。以其理通行而言則曰道，以其理之極至而言則曰太極，而莊周乃欲加道字於太極之上以自高，殊不知道卽太極，太極卽道。其說之錯誤，不攻自破矣，豈可與邵子之說，論其同不同哉？天地間林林總總者，莫不均得此理，則不以賢而豐，不以愚而嗇。草木有草木之理，金石有金石之理，則雖桀跖之暴，木石之微，太極之理，無不同受，而氣有昏明，稟有偏全，則自不得不異矣。嗚呼，太極一陰陽而已，陰陽一太極，而流行天地間者，無乎不在，無物不然，無方位之可言，無影響之可稱，學者求之，將何以爲力哉？亦求諸此心而已。寂然不動，喜怒哀樂之未發者，此心之體，而太極之妙，於是乎在也。感而遂通，喜怒哀樂之既發者，此心之用而太極之妙，於是乎行矣。已發者有形，而未發者無形也。已發者可知，而未發者不可知也。學者於此深體而默識之。因其有形，以推其無形，因其可知，以推其不可知，則庶幾融會貫通，太極之妙，可求而心極亦立矣。夫如是，則以一身而體天地之運，以一心而窮造化之原，萬善咸備，衆理畢明，洞然於無涯之妙，而難知難見之患，不復憂矣。篇之將終又有獻焉。愚既以此心爲立極之本，而明此心之要，又豈外於學問之道哉？苟能加窮格之力，盡明誠之功，使吾一心昭然萬理之本原，則無極太極之體，既立吾心而無極太極之用，流行日用動靜之間矣。雖然，不有倡之，孰能和之？‘會其有極，歸其有極’，深有望於主上殿下，伏惟執事進而教之謹對。

1916년 5월 29일. 정유. 집에 돌아왔다.

二十九日。丁酉。歸巢。

1916년 6월 1일. 무술. 흐리고 비.

六月。初一日。戊戌。陰雨。

1916년 6월 2일. 기해. 흐리고 비. 계곡 물이 크게 불었다.

二日。己亥。陰雨。溪水大漲。

1916년 6월 3일. 경자. 갸.

三日。庚子。晴。

1916년 6월 4일. 신축. 맑음.

四日。辛丑。陽。

1916년 6월 5일. 임인. 흐림.

五日。壬寅。陰。

1916년 6월 6일. 계묘. 맑음.

六日。癸卯。陽。

1916년 6월 7일. 갑진. 흐리고 비.

七日。甲辰。陰雨。

1916년 6월 8일. 을묘. 갸.

八日。乙巳。晴。

1916년 6월 9일. 병오 맑음.

九日。丙午。陽。

1916년 6월 10일. 정미. 맑음. 포은(圃隱) 선생 <단심가(丹心歌)>를 기록한다.

十日。丁未。陽。記圃隱先生<丹心歌>。

이런들 어떠하며,	如此면如何
저런들 어떠하랴	如彼면如何오
죽고 죽어 만 번 죽어도,	死了死了萬死了
일백 번 고쳐 죽어도,	一百番更死了
군주 향한 일편단심,	向主一片丹心
어찌 변할 수 있으랴.	豈可更改了아

<미능재 상량문(未能齋上樑文)> 몇 구절을 기록한다. “인산지수(仁山智水)<sup>28)</sup>는 백대를 전하는 심법이 깃든 곳이요, 제월청풍(霽月淸風)<sup>29)</sup>은 천년의 진면목이 서려 있는 곳이네. 형형(瑩瑩)한 홍금은 진실로 빙호수경(氷壺水鏡)<sup>30)</sup>이라고 할 수 있고, 온온(溫溫)한 기상은 곧 화풍

28) 인산지수(仁山智水) : 《논어》 <옹야(雍也)>에 “인자(仁者)는 산을 좋아하고 지자(知者)는 물을 좋아한다.[仁者樂山, 知者樂水.]”라는 공자의 말이 나온다.

29) 제월청풍(霽月淸風) : 제월(霽月)은 광풍제월(光風霽月)에서 온 말로 광풍제월은 ‘맑게 갠 하늘의 밝은 달과 맑고 시원한 바람’이라는 뜻으로, 홍금이 특 터지고 인품이 고아(高雅)한 것을 가리킨다. 청풍(淸風)은 《시경(詩經)》 <대아(大雅)·중민(烝民)>에 “길보가 노래를 지으니, 화기롭기가 만물을 길러 주는 맑은 바람과 같다.[吉甫作誦, 穆如淸風.]”라는 구절에서 나온 것이다.

30) 빙호수경(氷壺水鏡) : 빙호(氷壺)는 얼음 같은 물병, 즉 추월빙호(秋月氷壺)를 가리키고, 수경(水鏡)은 물 같은 거울, 즉 지수명경(止水明鏡)을 가리킨다. 마음가짐과 행동이 고결한 것을 뜻하는 말이다.

경운(和風慶雲)<sup>31</sup>과 같다네.”라고 하였다.

또 <주렴계가 왕개보[왕안석]를 세 번 사양 한 것에 대해 논함[周濂溪三辭王介甫論]> 가운데 몇 구절을 기록한다. “학자의 병통은 집요(執拗)보다 큰 것이 없고 학자의 근심은 스스로 어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는데, 개보는 본래 자기를 비우고 선한 것을 받아들이는 실재가 없어서 성현의 도에 함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주렴계가 그를 사양한다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記<未能齋上樑文>數句。 “仁山智水，寓百世之傳心，霽月清風，宛千載之眞面，瑩瑩襟懷，眞可謂冰壺水鏡，溫溫氣像，卽之若和風慶雲。” 又記<周濂溪三辭王介甫論>中數句。 “學者之病，莫大乎執拗，學者之患，莫大乎自賢，而介甫有之本無虛己受善之實，而不可與入聖賢之道，故濂溪辭之云。”

1916년 6월 11일. 갑신. 흐리고 비.

十一日。戊申。陰雨。

1916년 6월 12일. 기유. 흐리고 비.

十二日。己酉。陰雨。

1916년 6월 13일. 경술. 맑.

十三日。庚戌。晴。

1916년 6월 14일. 신해. 맑음.

31) 화풍경운(和風慶雲) : 《근사록(近思錄)》 관성(觀聖)에, “공자는 천지와 같고, 안지는 온화한 바람 상서로운 구름과 같으며, 맹자는 태산에 바위가 중첩하듯 우뚝한 기상이다.[仲尼天地也, 顏子和風慶雲也, 孟子泰山巖巖之氣象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十四日。辛亥。陽。

1916년 6월 15일. 임자. 맑음. 몸이 조금 아팠기[採薪之憂] 때문에 한가하게 《미암선생유고(眉岩先生遺稿)》를 보았다.

十五日。壬子。陽。有因採薪之憂，閒看《眉岩先生遺稿》。

그가 지은 <정심명(正心銘)>을 기록했다.

記其所作<正心銘>。

<정심명>

이 마음을 보존하여 기르기를,  
거울의 투명과 저울의 공평같이 하며,  
물(物)이 오거든 순히 응하여,  
정대하고 광명하게 하라.

正心銘

存養此心  
鑑空衡平  
物來順應  
正大光明

또 ‘덕(德)’자의 해석을 기록했다. “주상께서 이르기를, ‘경이 만든 《대학석소(大學釋疏)》나 《신증유합(新增類合)》은 모두 정밀하고 심오하오. 다만 《유합》의 글자풀이에 가끔 사투리를 썼고, 또 간혹 온당치 못한 곳도 있었소. 예컨대 ‘덕(德)’자를 ‘어질 덕’이라 했는데 덕은 흥함도 있고 길함도 있으니, 어찌 선(善)으로만 풀이할 수 있겠소?”라고 하였다. 신(유회춘)이 대답하기를, “사투리는 신이 본래 외방 고을[해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덕이란 글자는 원래 좋은 글자입니다. 다만 부덕(否德)이나 흉덕(凶德)처럼 좋지 않은 글자를 덕 자 위에 덧붙임으로써 불길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記德字釋。 “上曰 卿所修《大學釋疏》及《類合》，皆精深。但《類

合》, 釋字間有使土俚, 又或有未穩處。如德字釋어딜덕, 德有凶有吉, 豈可專以善釋之? 臣曰 ‘土俚則臣本外方鄉產, 故實不免有之。若德字, 則元是好字。只有否德凶德, 加不好之字於德上, 故爲不吉也’”。

1916년 6월 16일. 계축. 흐리고 비.

十六日。癸丑。陰雨。

1916년 6월 17일. 갑인. 맑.

十七日。甲寅。晴。

1916년 6월 18일. 을묘. 흐림.

十八日。乙卯。陰。

1916년 6월 19일. 병진. 맑음. 집으로 돌아왔다.

423

十九日。丙辰。陽。還巢。

1916년 6월 20일. 정사. 흐리고 비.

二十日。丁巳。陰雨。

1916년 6월 21일. 무오. 흐리고 비.

二十一日。戊午。陰雨。

1916년 6월 22일. 기미. 흐리고 비.

二十二日。己未。陰雨。

1916년 6월 23일. 경신. 맑.

二十三日。庚申。晴。

1916년 6월 24일. 신유. 비.

二十四日。辛酉。雨。

1916년 6월 25일. 임술. 흐리고 비. 손자를 데리고 장동에 도착했다.

二十五日。壬戌。陰雨。率孫到獐洞。

1916년 6월 26일. 계해. 맑음.

二十六日。癸亥。陽。

1916년 6월 27일. 갑자. 비.

二十七日。甲子。雨。

1916년 6월 28일. 을축. 흐리고 비.

二十八日。乙丑。陰雨。

1916년 6월 29일. 병인. 흐리고 비. 하늘이 노하여 큰 지진이 났다.

二十九日。丙寅。陰雨。天怒大震。

1916년 6월 30일. 정묘. 맑. 이날은 지기(知己)인 송혁모(宋赫謨)씨의 생  
일이다. 그 아들 송환준(宋煥俊)이 직접 주찬(酒饌)을 갖춰 나를 초대  
했다. 내가 가서 실컷 먹고 취하여 <주광가(酒狂歌)>를 불렀다.

三十日。丁卯。晴。是日卽知己之友，宋赫謨氏生辰也。其令尹煥俊，



爲親具酒饌，聊以招余。余往醉飽，發<酒狂歌>。

아름답고 효성스럽도대! 송환준이여,	美哉孝哉宋煥俊
나의 마음의 회포를 일으키는구나.	起余心之所懷
애통하고 슬프도대! 김영찬이여,	痛哉哀哉金永燾
이 가일(佳日, 회갑일)에 미치지 못한 것이 한스럽구나.	恨未及於此佳
아아, 슬프도대!	嗚呼痛哉
운수가 맞지 않아 불행한 것인가?	數奇之不幸歟
나의 사사로운 뜻을 이기지 못한 것인가?	己私之未克歟
아아, 애통하도대!	嗚呼痛哉
우리 부모 나를 낳고 길러주시니,	吾父母生我劬勞
그 정상을 어찌 다 할 수가 있겠는가?	情狀何旣
효양을 잃어 후회해도 소용 없으니,	失孝養追莫及
부모를 현양하는 것을 잘 마칠 것이로다.	以顯父母是爲終
입신양명(立身揚名)을 무엇인들 하지 않을 것이며,	立身揚名何莫爲
임금을 요순으로 만들기에 무엇인들 하지 않을 것인가?	堯舜其君何莫爲

1916년 7월 초 1일. 무진. 맑음.

七月。初一日。戊辰。陽。

1916년 7월 2일. 기사. 비.

二日。己巳。雨。

1916년 7월 3일. 경오. 개었다가 저녁에 비가 음.

三日。庚午。晴，夕雨。

1916년 7월 4일. 신미. 흐리다 저녁에 비가 음.

四日。辛未。陰，夕雨。

1916년 7월 5일. 임신. 갸.

五日。壬申。晴。

1916년 7월 6일. 계유. 맑음. <세이가(洗耳歌)>를 지었다.

六日。癸酉。陽。作<洗耳歌>。

귀를 씻세 <sup>32)</sup> 귀를 씻세 누가 귀를 씻을까.	洗耳洗耳孰洗耳
바로 영천수에서의 허유라네.	潁川水
인간이여 인간이여 인간을 벗어나니,	人間人間出人間
하상(河上)의 노인이 <sup>33)</sup> 허공에 앉을 수 있구나.	河上老能坐空
인을 이루세 인을 이루세 어떻게 인 이룰까.	成仁成仁孰成仁
떡라수 <sup>34)</sup> 이니 어찌 홀로 깊으리.	汨羅水奚獨深
뗏목에 오르세 <sup>35)</sup> 뗏목에 오르세. 뗏목에 오르고 싶은 것은,	乘桴乘桴欲乘桴
구이(九夷) <sup>36)</sup> 에 살고자 함이니 곧 우리 동방이라네.	九夷居即吾東
우리 동방이여 우리 동방이여 우리 동방이로다	吾東吾東吾東兮
바로 하늘이 구획해준 별천지로다.	天區別
저 동방에 살지 않은 자들이 어찌하여 분분히 혼탁함을 따라서,	彼無東如何紛紛隨混濁
우리 동방으로 하여금 애가 끊어지게 하는가?	使吾東堪斷腸

- 32) 귀를 씻세 : 요(堯) 임금 당시 은사인 허유(許由)가 천하를 물려받아 다스려달라는 요 임금의 요구를 거절하고 영수(潁水) 남쪽에 은거하던 중에 요 임금도 또 불러 구주장(九州長)이 되어달라고 하자, 더러운 소리를 들었다 하여 영수 물에 귀를 씻었다는 데서 인용한 것이다. (《고사전(高士傳)》)
- 33) 하상(河上)의 노인 : 한 문제(漢文帝) 때에 살았다는 신선. 문제가 노자경(老子經)을 읽다가 의문이 있으면 물었다고 한다.
- 34) 떡라수(汨羅水) : 굴원이 빠져죽은 물의 이름. 굴원은 초(楚)나라의 충신으로, 양왕(襄王)이 참소를 믿고 장사(長沙)로 추장되자 <어부사(漁父辭)>를 지어 자신의 뜻을 밝히고 울분을 참지 못해 떡라수에 빠져 죽었다.
- 35) 뗏목을 타고 : 《논어》 <공야장(公冶長)>에, 공자(孔子)가 난세를 개탄하면서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뗏목을 타고 바다로나 나갈까 보다.[道不行, 乘桴浮于海.]”라고 말한 내용이 실려 있다.
- 36) 구이(九夷): 동이(東夷)의 아홉 부족을 말한다. 공자가 일찍이 그곳이 군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가서 살고 싶다는 뜻을 피력한 바가 있다.(《논어》 <자한(子罕)>)

1916년 7월 7일. 갑술. 맑음. 미수(眉叟)<sup>37)</sup>의 <한간문(汗簡文)>을 기록했다.

七日。甲戌。陽。記眉叟<汗簡文>。

하늘은 만물의 조(祖)가 되고, 성인은 만국의 종(宗)이 된다.  
 하늘은 사심(私心)으로 덮어주는 일이 없고, 땅은 사심으로 실어주는 일이 없으며, 성인은 사심으로 인애(仁愛)하는 일이 없다.  
 오직 지극한 정성만이 사심이 없으며, 사심이 없으면 도가 저절로 생겨난다.  
 오직 욕심이 없어야 오직 사심이 없으니, 성인은 욕심이 없다.  
 그러므로 성인은 가(可)함도 없고 불가(不可)함도 없다.  
 위는 상편(上篇) 5장(章) 54언(言)이다.  
 天爲萬物之祖，聖人萬國之宗。  
 天無私覆，地無私載，聖人無私仁。  
 惟至誠無私，無私則道自生。  
 惟無欲，惟無私，聖人無欲。  
 故聖人無可無不可。  
 右，上篇五章五十四言。

427

하늘은 쉬지 않고 그치지 않으니, 한번 가면 한번 오고, 끝없이 순환함으로써 화육(化育)을 행한다.  
 천지는 만물을 낳는 것으로 마음을 삼고, 성인은 만물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마음을 삼는다.  
 만물이 모두 형통하여 각각 그 성명(性命)을 바르게 한다.  
 지극한 덕이 아니면 지극한 도가 영기지 않는다.  
 위는 중편(中篇) 4장(章) 48언(言)이다.  
 天道不息不已，一往一來，循環不窮以行化育。  
 天地以生物爲心，聖人以利物爲心。

37) 미수(眉叟) : 허목(許穆)의 호이다. 사상적으로 이황·정구의 학통을 이어받아 이익에게 연결 시킴으로써 기호 남인의 선구이며 남인 실학파의 기반이 되었다. 전서(篆書)에 독보적 경지를 이루었다. 문집 《기언(記言)》을 남겼고, 역사서 《동사(東事)》 등을 편집하였다.

品物咸亨，各定性命。  
非至德，至道不凝焉。  
右，中篇四章四十八言。

천도가 변화하고 사계절이 교차하여 운행되며, 해와 달이 번갈아 밝으며, 귀신  
으로 드러난다.

변역(變易)하는 것이 일정하지 않아, 그 만물의 생성을 헤아릴 수 없다.  
오직 성인만이 그것을 다 할 수 있으며, 성인만이 천지와 더불어 참여할 수 있다.  
본성을 다하고 사물의 성을 다할 수 있으면 신명에 통하고 조화를 알아<sup>38)</sup>, 천하  
의 대경(大經)을 경륜하니, 이것이 지성(至誠)의 도이다.

성(誠)이란 천도이니, 성이 없으면 물도 없다.

성은 무위(無爲)이며, 무위의 극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

위는 하편(下篇) 6장(章) 85언(言)이다.

天道變化，四時錯行，日月代明，鬼神著矣。

變易無常，其生物不測。

惟聖人能盡之矣，聖人能與天地參者也。

能盡性盡物，通神知化，經綸天下之大經，至誠之道也。

誠者天道也，不誠無物。

誠無爲，無爲之極，論說不能示至矣。

右，下篇六章八十五言。

1916년 7월 8일. 을해. 맑음.

八日。乙亥。陽。

1916년 7월 9일. 병자. 흐림. 조카를 데리고 집에 돌아왔다.

九日。丙子。陰。率侄歸巢。

38) 신명에 …… 알아 : 신화(神化)는 성인이 이르는 곳마다 백성들 모두가 감화되어 영원히 그 정신의 영향을 받게 되는, 이른바 과화존신(過化存神)의 교화를 말한다. 《맹자》 <진심(盡心)>의 “지나가는 곳마다 교화가 되고, 머물러 있는 곳마다 신령스럽게 변화된다.[所過者化, 所存者神.]”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1916년 7월 10일. 정축. 흐리고 비.  
十日。丁丑。陰雨。

1916년 7월 11일. 무인. 흐리고 비.  
十一日。戊寅。陰雨。

1916년 7월 12일. 기묘. 흐리고 비.  
十二日。己卯。陰雨。

1916년 7월 13일. 경진. 흐리고 비.  
十三日。庚辰。陰雨。

1916년 7월 14일. 신사. 흐림.  
十四日。辛巳。陰。

1916년 7월 15일. 임오. 흐리고 밤에 비. 이날 밤에 셋째 손자가 태어났다. 이두봉(李斗奉)은 호(號)가 양재(養齋)로, 고향에서부터 장동을 방문하여서 성수(星數)<sup>39)</sup>와 침법(針法)을 꺼내 보여주기에 그것을 기록한다.  
十五日。壬午。陰夜雨。是夜生三孫。李斗奉，號養齋，自故園來訪章洞，出示星數針法，記之。

<침법(針法)> - 원보방사법(圓補方瀉法)<sup>40)</sup>으로 중침(中針)<sup>41)</sup>을 4관(四

39) 성수(星數) : 사주 보는 것을 가리킨다.

40) 원보방사법(圓補方瀉法) : 침을 놓을 때 손가락 모양이 원(圓) 모양이 되면 보법(補法), 퍼지면 사법(瀉法)이라 한다.

41) 중침(中針) : 그리 굵지도 가늘지도 않은 중치의 바늘이다.

關)42)에 놓는다.

먼저 사법(瀉法)43)을 3회 하는데, 상괄(上括)을 3회, 침두(打針) 때리기 3회 한 후에 청룡파미(靑龍破尾)44)한다. 이때는 침두를 엄지손가락으로 흔들며 침두를 3번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좋다. 백호요두(白虎撓頭)45)는 침두를 잡고 보사법(補瀉法)46)과 같이한다. 영구탐혈(靈龜探穴)47)은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적봉영원(赤鳳迎源)48)은 사법(瀉法)과 같이하는 것이 옳다.

- 침술을 행할 때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에 놓는데, 남자는 아침에는 손에 침을 놓고 석양에는 발에 침을 놓는다. 여자는 아침에는 발에 침을 놓고 석양에는 손에 침을 놓는다. 병이 위에 있으면 침은 아래에 놓고, 병이 아래에 있으면 침은 위에 놓는다. 병이 왼쪽에 있으면 침은 오른쪽에 놓고 병이 오른쪽에 있으면 침은 왼쪽에 놓는다. 병이 배속에 있고 병이 온몸에 있으면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에 놓으며, 4관(四關)에 모두 놓는다. -

- 침법을 놓는 것은 금귀일(金鬼日)이 좋다. 납음(納音)49)에 금(金) 아래가 귀성(鬼星)50)이란 것이 이것이다.-

針法。圓補方瀉法。中針四關。

先瀉三次，上括三次，打針頭三次後，靑龍破尾，針頭手大指撓，針頭三次浮

- 42) 4관(四關) : 4관(樞亂)이 되었을 때에 통기(通氣)시키기 위하여 손과 발의 네 군데 관절(關節)에 침을 놓는 곳. 곧 손의 두 합곡(合谷)과 발의 두 태충(太衝)을 가리킨다.
- 43) 사법(瀉法) : 병증(病症)을 깎아 내리고 처내는 방법을 말한다.
- 44) 청룡파미(靑龍破尾) : 보법(補法)의 일종으로, 침을 놓고 엄지손가락을 한번은 좌측으로 돌리고 한번은 우측으로 돌리는 방법이다.
- 45) 백호요두(白虎撓頭) : 사법(瀉法)의 일종으로, 침봉(針峯)을 한번은 좌측으로 기울어지게 하여 돌리고 한번은 우측으로 기울어지게 하여 돌리면서 침을 놓는 방법이다.
- 46) 보사법(補瀉法) : 부족한 것은 더해주고 남는 것은 덜어주는 치료법이다.
- 47) 영구탐혈(靈龜探穴) : 보법(補法)의 일종으로, 명속으로 들어가는 거북이가 3진 1퇴(三進一退)하는 방식이다. 상하 좌우(上下左右)로 들어간다.
- 48) 적봉영원(赤鳳迎源) : 사법(瀉法)의 일종으로, 봉황이 날개를 펴는 것과 같이 침을 놓는 수기법으로 상하좌우로 회전한다.
- 49) 납음(納音) : 육십갑자(六十甲子)를 오음(五音)과 십이율(十二律)에 맞추는 것으로, 갑자(甲子)를 황중(黃鐘)의 상(商)이라 하고 을축(乙丑)을 대려(大呂)의 상이라 하며, 상은 금(金)에 속하므로 갑자와 을축을 바닷속의 금[海中金]이라 하는 따위를 이른다.
- 50) 귀성(鬼星) : 28수 가운데 스물셋째 별자리의 별들로, 대한(大寒) 때, 해가 뜨고 질 때에 정남쪽에 나타난다.

沉可。白虎撓頭，執針頭，如補瀉法。靈龜探穴，指東西南北。赤鳳迎源，如瀉法行之可也。

【行針男左女右，男子朝日行針手，夕陽行針足。女子朝日行針足，夕陽行針手。病在上針下，病在下則針上。病在左則針右，病在右針左。病在腹中，病在全身，男左女右，通四關。】

【作針法，金鬼日可也。納音金下鬼星是也。】

1916년 7월 16일. 계미. 맑.

十六日。癸未。晴。

1916년 7월 17일. 갑신. 맑음. 하서선생(河西先生)이 경범(景范)<sup>51)</sup>과 중명(仲明)<sup>52)</sup>에게 준 시를 기록한다.

十七日。甲申。陽。記河西先生示景范仲明詩。

정통과 편색으로 사람과 물이 나뉘고,	正通偏塞分人物
청수하면 현인이 되고 탁박하면 우인이 된다네.	清粹爲賢濁駁愚
천리도 기질에 구애됨이 없을 수 없으니,	天理不無拘氣質
인심은 이를 따라 형구의 누가 된다네.	人心從此累形軀
온갖 사특함이 함께 온전히 밝은 본체를 가리지만,	羣邪共蔽全明體
한번 깨우치면 옛 더러움을 새롭게 할 수 있네.	一覺能新舊染污

51) 경범(景范) : 조희문(趙希文, 1527~1578)의 자이다. 조희문의 호는 월계(月溪), 본관은 함안(咸安)이다. 전라북도 남원에서 태어났으며 김인후(金麟厚)의 문인이자 사위이다. 1553년(명종 8)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1556년 승문원정자에 임명되었으며, 이어 성균관 전적(典籍)·사예(司藝)·사성, 사헌부장령·사간원헌납·이조좌랑, 홍문관수찬·교리, 장흥부사(長興府使) 등을 역임하였다. 문장이 뛰어났으며, 당시 기대승(奇大升)·정철(鄭澈) 등과 교류하였다. 문집으로 《월계유집》을 남겼다.

52) 중명(仲明) : 양자징(梁子徵, 1523~1594)의 자이다. 양자징의 호는 고암(鼓巖)이고 본관은 제주(濟州)이다. 담양에 소재원(瀟灑園)을 창건한 양산보(梁山甫)의 아들이며, 김인후(金麟厚)의 문인이자 사위이다. 효행(孝行)으로 천거되어 벼슬길에 올랐으며, 거창현감(居昌縣監)과 석성현감(石城縣監) 등을 역임하였다. 은진의 갈산사(葛山祠)와 장성의 필암서원(筆巖書院)에 배향되었다.

샘이 흐르고 불이 타듯이 내면을 길러가면, 泉達火燃充養去  
이치는 밝아지고 마음은 전일해져 순의 무리 되리라. 理明心一舜爲徒

1916년 7월 18일. 을유. 맑음.

十八日。乙酉。陽。

1916년 7월 19일. 병술. 맑음.

十九日。丙戌。陽。

1916년 7월 20일. 정해. 맑음. 저녁에 비가 내리다가 잠깐 개었다.

二十日。丁亥。陽。夕雨乍晴。

1916년 7월 21일. 아침 밥을 먹은 후 잠깐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맑아  
졌다.

二十一日。朝後乍雨午後陽。

1916년 7월 22일. 기축. 맑음. 광록(光祿)의 시에 차운해서 주다.

二十二日。己丑。陽。示光祿韻

배움은 원래 도를 듣는 것부터이니, 爲學元來以道聞  
일본(一本)이 만수(萬殊)<sup>53</sup>로 나뉘는 점차 알게 되네. 稍知一本萬殊分  
하늘의 마음은 일양이 회복된 데서 엿볼 수 있고, 天心闡見初陽復

53) 일본(一本)이 만수(萬殊) : 일본만수(一本萬殊)는 곧 ‘하나의 근본에서 만 가지 다른 것이 생겨난다.’는 의미이다. 《주자어류(朱子語類)》에서 충서(忠恕)를 논할 때, “만수가 한 근본이 되는 것과 한 근본이 만 가지로 다르게 되는 것이 마치 한 근원의 물이 흘러 나가서 만 갈래의 지류가 되고, 한 뿌리의 나무가 나서 허다한 지엽이 나오게 되는 것과 같다.[萬殊之所以一本, 一本之所以萬殊, 如一源之水流爲萬派, 一根之木生爲許多枝葉]”고 한 데서 비롯된 말이다.



사물의 이치는 여름날이 찌는 데서 뚜렷이 드러나네.	物理著明夏日薰
즐거움은 고운 산과 아름다운 물에 있고,	樂在佳山兼麗水
생각은 내리는 비와 떠가는 구름에 깊어지네. <sup>54)</sup>	思深施雨與行雲
남아의 사업은 황중 <sup>55)</sup> 이라야 길하니,	男兒事業黃中吉
덕을 길러 <sup>56)</sup> 언제나 임금을 도울까나.	育德何年補袞紋

1916년 7월 23일. 경인. 맑음.

二十三日。庚寅。陽。

1916년 7월 24일. 신묘. 맑음.

二十四日。辛卯。陽。

1916년 7월 25일. 임진. 맑음.

二十五日。壬辰。陽。

1916년 7월 26일. 계사. 흐림. 잠깐 비가 내렸다.

二十六日。癸巳。陰。乍雨。

1916년 7월 27일. 갑오. 맑음.

二十七日。甲午。陽。

54) 내리는 …… 깊어지네 : 《주역》 <건괘(乾卦)> 단사(象辭)에 “구름이 행하고 비가 내리자 만물이 각각 자기 모습을 갖추고 활동하기 시작한다.[雲行雨施, 品物流形.]”라는 말에서 비롯된 것이다.

55) 황중(黃中) : 아름다운 덕을 뜻한다. 《주역》 <곤괘(坤卦)·문언(文言)>에 이르기를 “군자는 아름다움이 중심에 있어 이치를 통한다.[君子黃中通理]”라고 하였다.

56) 덕을 길러[育德] : 《주역》 <몽괘(蒙卦)·상(象)>에 “산 아래에서 샘이 나오는 것이 몽이니, 군자가 살펴보고서 과감하게 행하고 덕을 기른다.[山下出泉, 蒙, 君子以果行育德.]”라고 하였다.

1916년 7월 28일. 을미. 맑음. 저녁에 비가 내렸다.

二十八日。乙未。陽。夕雨。

1916년 7월 29일. 병신. 흐림. 잠깐 비가 내렸다. 삼가 연계정에 차운하여 짓다.

二十九日。丙申。陰。乍雨。謹題漣溪亭韻

한 구역의 명승지에 옛날부터 정자 있어,  
연계정이라 거듭 편역하니 늙은 버들 푸르구나.  
반 이랑 연못에 맑은 물이 은근하고,  
중추에 뜬 달은 뜰에 가득 쇠락하네.  
의를 강명하는 유자들의 말은 옥과 같고,  
정을 펴는 모임에서의 고깔은 별처럼 빛나네.  
선생의 성대한 덕 잊기 어려운 곳에서,  
후세에는 다시 누가 경서 안고 올까?

一區名勝古今亭  
重扁漣溪老柳青  
慙慙半畝塘清水  
洒落仲秋月滿庭  
講義斯文言似玉  
輸情契社弁如星  
先生盛德難忘地  
來者復爲孰抱經

1916년 7월 30일. 정유. 흐림.

三十日。丁酉。陰。

1916년 8월<sup>57)</sup> 1일. 무술. 맑음. 집으로 돌아 왔다.

七月。初一日。戊戌。陽。歸巢。

1916년 8월 2일. 기해. 흐림. 밤에 큰 비가 왔다.

二日。己亥。陰。夜大雨。

57) 8월 : 앞에 7월이 있고 뒤에 9월이 있으므로 8월인데, 원문에는 7월로 잘못 기록한 것 같다.

1916년 8월 3일. 경자. 갸.

三日。庚子。晴。

1916년 8월 4일. 신축. 맑음. 장동으로 돌아왔다.

四日。辛丑。陽。還章洞。

1916년 8월 5일. 임인. 맑음.

五日。壬寅。陽。

1916년 8월 6일. 계묘. 흐림. 비 온 흔적이 있었다.

六日。癸卯。陰。雨痕。

1916년 8월 7일. 갑진. 흐림. 큰비가 내렸다.

七日。甲辰。陰。大雨。

435

1916년 8월 8일. 을사. 흐리고 비.

八日。乙巳。陰雨。

1916년 8월 9일. 병오. 흐림. 큰 비가 왔다.

九日。丙午。陰。大雨。

1916년 8월 10일. 정미. 석전일(釋奠日)이다. 흐림. <하서선생집(河西先生集)>을 보았다. 선생의 '서시학자(書示學者)'를 보고 기록한다.

선생이 말하기를 “주렴계의 <도설(圖說)>은 도리가 정미하고 문장이 간략

하며 뜻이 충분하다. 장자(張子, 장횡거)의 <서명(西銘)><sup>58</sup>은 규모가 광활하지만 건너뛰지도 않고 빠뜨리지도 않았다. 만일 타고난 천품이 대단히 고명하다면 먼저 태극 위에서 공부해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서명>을 깨달아 앞으로써 태극에 미쳐야 한다. 태극은 덕성의 본령이고, <서명>은 학문의 기강이니, 요컨대 끝내 어느 한쪽을 폐할 수 없다.”라고 했다.

또 시를 지어 걸어두고서 문인들에게 보였으니, “천지 사이에 두 사람이 있으니, 중니(仲尼)가 원기(元氣)라면 자양(紫陽)은 진수일세. 잠심하여 다른 갈래의 미혹에 향하지 않음으로서 이 쇠퇴하고 병든 몸을 위로할지이다.”라고 하였다.

선생은 대개 ‘서계(書契, 문자)가 생긴 이래로 여러 성인이 극(極, 표준)을 세웠지만, 그것이 쇠퇴함에 이르러서는 공자가 없었다면 여러 성인의 도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고, 공자 이후에는 여러 현인이 계승해왔지만, 어두짐에 이르러서는 주자가 없었다면 공자의 도가 밝아지지 못했을 것이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처럼 시에서 드러낸 것이다.

十日。丁未。釋奠日也。陰。看《河西先生集》，見先生書示學者，記之。先生曰，“濂溪之圖說，道理精微，文簡意足。張子之銘，規模廣闊，不泛不漏。若天資大段高明，則先從太極上用工。不然則且理會<西銘>，以及乎太極。太極德性之本領，<西銘>學問之綱紀，要之終不可偏廢云云。”又作詩揭示門人，“天地中間有二人，仲尼元氣紫陽真。潛心勿向他歧惑，慰此摧頽一病身。”先生蓋以‘書契以來，群聖立極，而及其衰也，無孔子則群聖之道不傳。孔子以後，群賢繼統，而及其晦也，無朱子則孔子之道不明’，故發諸詞詩。

1916년 8월 11일. 무신.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어버이에게 감사하는 정과 송구한 마음에 종일도록 경황없이 보냈다. <염락(濂洛)>을 보다가 ‘학사 장역(張繹)<sup>59</sup> 사숙(思叔)이 이천선생(伊川先生)을 제사한 글

58) 서명(西銘) : 장횡거가 서재의 서쪽 창문가에 써서 걸어 놓은 글 이름으로, 인의(仁義)에 입각한 유가의 윤리설을 요약해서 서술한 것인데, 주희가 별도로 주를 달아 해설하면서부터 세상에 크게 유행되었다.

59) 장역(張繹) : 자는 사숙(思叔)이며, 하남성(河南省) 수안(壽安) 사람이다. 정이(程頤) 문하에서

에 이르렀는데, 그 속에 “천지가 우리를 용납함에 부모가 그것을 생겨 나게 하였고, 군친(君親)이 우리에게 임하심에 부자께서 그것을 이루게 하셨네.”라는 말이 있어서 기록하였다.

十一日。戊申。卽吾生日也。感親之情，悚惕之心，終日無況而過。看《濂洛》，至‘張學士繹思叔祭伊川先生文’中有曰，‘天地其容我兮，父母其生之。君親其臨我兮，夫子其成之’語，而記之。

1916년 8월 12일. 기유. 갸.

十二日。己酉。晴。

1916년 8월 13일. 경술. 맑음.

十三日。庚戌。陽。

1916년 8월 14일. 신해. 맑음. 주문공의 <인술(仁術)>시<sup>60</sup>를 읊었다.

十四日。辛亥。陽。咏朱文公仁術。

옛날의 현명한 군자는	在昔賢君子
마음을 보존하여 매양 인을 바랐네.	存心每欲仁
인을 구하는 단서 <sup>61</sup> 에 방법 있으니,	求端縱有術
만물에 미치는 데 어찌 원인 없으리.	及物豈無因
측은한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惻隱來何自
허명함을 깨달은 곳이 참이라네.	虛明覺處真
이 생각을 좇아 확충 <sup>62</sup> 해가면,	擴充縱此念

수학하였으며, 윤돈(尹焯)과 함께 정이가 만년에 얻은 두 사람으로 일컬어진다.

60) 인술(仁術)시 : 《주자대전(朱子大全)》 권1 <인술(仁術)>에 있다.

61) 인을 구하는 단서[求端] : 《맹자》 <공손추(公孫丑) 상>에 “惻隱之心，仁之端也。羞惡之心，義之端也。辭讓之心，禮之端也。是非之心，智之端也。人之有是四端也，猶其有四體也”라는 내용이 있다.

복택 <sup>63</sup> 이 백성에게 두루 미치리.	福澤遍斯民
우물에 빠지려는 창황 <sup>64</sup> 한 때,	入井蒼黃際
벌벌 떠는 <sup>65</sup> 소를 끌고 갈 때.	牽牛穀棘辰
저번에는 초나라와 월나라 보듯 <sup>66</sup> 하였는데,	向來看楚越
오늘은 내 몸에 갖추어 있네. <sup>67</sup>	今日備吾身

집에 돌아왔다.

歸巢。

1916년 8월 15일. 임자. 산소에 성묘를 갔다.

十五日。壬子。作省楸之行。

1916년 8월 16일. 계축. 맑음. 옥과의 어머니 묘소에 성묘를 갔으며, 김  
용순(金容詢) 참봉 덕을 방문하여 유숙했다.

- 62) 확충(擴充) : 《맹자》 <공손추 상>에 “凡有四端於我者, 知皆擴而充之矣, 若火之始然, 泉之始達, 苟能充之, 足以保四海, 苟不充之, 不足以事父母”라는 내용이 있다.
- 63) 복택(福澤) : 송나라 장재(張載)의 <서명(西銘)>에 “부귀와 복택이 장차 나의 삶을 두터이 해주는 것이다.[富貴福澤, 將以厚吾之生也]”라는 내용이 있다.
- 64) 창황(蒼黃) : 매우 다급한 모양이다. 《맹자》 <공손추 상>에 “今人乍見孺子將入於井, 皆有怵惕惻隱之心, 非所以內交於孺子之父母也, 非所以要譽於鄉黨朋友也, 非惡其聲而然也.”라는 내용이 있다.
- 65) 벌벌 떠는[穀棘] : 《맹자》 <양혜왕(梁惠王) 상>에 “王坐於堂上, 有牽牛而過堂下者, 王見之, 曰, 牛何之. 對曰, 將以鬻鍾. 王曰, 舍之. 吾不忍其穀棘若無罪而就死地. 對曰, 然則廢鍾與. 曰, 何可廢也, 以羊易之.”라는 내용에서 나온 구절이다.
- 66) 초나라와 월나라[楚越] 보듯 : 《장자》 <덕충부(德充符)>에 “중니가 말하길,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한 몸에 있는 간과 쓸개도 서로 멀리 떨어진 초나라와 월나라와 같고, 서로 같은 입장에서 본다면 만물이 모두 하나이다.[仲尼曰, 自其異者視之, 肝膽楚越也, 自其同者視之, 萬物皆一也]”라는 내용이 있다. 당나라 이백(李白)의 <종생질 고오와 이별하며 준 시[贈別從甥高五]>에 “간과 쓸개 초나라와 월나라처럼 멀지도 않고, 산과 강 또한 이불과 흙이불과 같다네.[肝膽不楚越, 山河亦衾糲]”라는 구절이 있다.
- 67) 내 몸에 갖추어져 있네[備吾身] : 《맹자》 <진심(盡心) 상>에 “맹자 가로대, 만물이 모두 내게 갖추어져 있으니, 몸에 들어켜보아 성실하면 즐거움이 이보다 클 수 없고, 서를 힘써 행하면 인을 구함이 이보다 가까울 수 없다.[孟子曰, 萬物皆備於我矣, 反身而誠, 樂莫大焉, 強恕而行, 求仁莫近焉]”라는 내용이 있다.

十六日。癸丑。陽。作玉果慈親墓省行，訪金容詢參奉宅留宿。

1916년 8월 17일. 갑인. 흐림. 이승덕(李承德)에게 위문을 가기 위해 청단리를 지나갔다. 점심은 등룡동(登龍洞)<sup>68</sup>의 소파(小坡) 이승우(李承友) 댁에서 먹고 장동으로 돌아왔다. 밤에 비가 내렸다.

十七日。甲寅。陰。慰問李承德次，過靑丹里。午飯於登龍洞李承友小坡宅，還章洞。夕雨。

1916년 8월 18일. 을묘. 흐리고 비.

十八日。乙卯。陰雨。

1916년 8월 19일. 병진. 맑음.

十九日。丙辰。陽。

439

1916년 8월 20일. 정사. 맑음.

廿日。丁巳。陽。

1916년 8월 21일. 무오. 맑음.

二十一日。戊午。陽。

1916년 8월 22일. 기미. 맑음.

二十二日。己未。陽。

68) 등룡동(登龍洞) : 담양군 정면 오례리 등룡동으로, 현재 담양군 무정면 오례리 등룡 마을에 해당된다.

1916년 8월 23일. 경신. 맑음.

二十三日。庚申。陽。

1916년 8월 24일. 신유. 맑음.

二十四日。辛酉。陽。

1916년 8월 25일. 임술. 흐림.

二十五日。壬戌。陰。

1916년 8월 26일. 계해. 흐리고 비가 내렸으며 바람 불고 추웠다. 이날 무이도가(武夷權歌)<sup>69)</sup>의 현토를 보았는데, “어부가 다시 무릉도원 가는 길 찾으나, 이곳 말고 인간세상에 별천지가 있을건가? [漁郎更覓桃源路나, 除是人間別有天가]”라고 되어 있다. 이것으로 후일의 견해가 어떠한가를 시험하려 한다.

二十六日。癸亥。陰雨風寒。是日觀武夷權歌懸吐, “漁郎更覓桃源路나, 除是人間別有天가?”, 以驗後日之見如何耳。

1916년 8월 27일. 갑자. 흐리고 비. 소강절 선생의 수미시[首尾吟]<sup>70)</sup> 중 1구인 “재주가 높으면 바로 총명함이 부림을 당하게 되고, 몸이 귀하면 비야흐로 이익과 손해 때문에 옮겨지게 된다네. [才高正被聰明使,

69) 무이도가(武夷權歌) : 송나라 주희(朱熹)가 복건성(福建省)의 무이산(武夷山)에 거처하면서 아홉 골짜기의 이름다움을 읊은 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주자를 흠모하여 그를 본받고 그가 거쳐했던 무이구곡(武夷九曲)을 본뜨는 일이 유행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이(李珣)가 해주에 있는 석담구곡(石潭九曲)에 은병정사(隱屏精舍)를 경영하며, 그 석담구곡의 경관을 노래한 것이 시작이다.

70) 수미시[首尾吟] : 송나라 소옹(邵雍)이 지은 것으로, 모두 135수나 되며, 매수(每首)마다 첫 구절과 끝 구절이 모두 “요부는 시 읊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堯夫非是愛吟詩]”로 되어 있어 수미(首尾)에 동일한 구절을 쓰고 있다.



身貴方爲利害移]”를 기억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사마온공(司馬溫公)은 “총찰(聰察)하고 강의(彊毅)한 것을 재(才)라 하며, 정직하고 중화(中和)한 것을 덕이라 하는데, 재란 덕의 밑천이요, 덕은 재의 장수이다. 그러므로 재와 덕을 함께 갖추는 것을 성인(聖人)이라 부르고, 재와 덕이 모두 없는 것을 우인(愚人)이라고 한다. 덕이 재를 이기는 것을 군자라고 하고, 재가 덕을 이기는 것을 소인이라 부른다.”라고 하였다.

二十七日。甲子。陰雨。記康節先生首尾吟中一句，“才高正被聰明使，身貴方爲利害移。”竊想思之，司馬溫公曰，“聰察彊毅之謂才，正直中和之謂德，才者德之資，德者才之帥也。是故才德兼全，謂之聖人，才德兼亡，謂之愚人。德勝才，謂之君子，才勝德，謂之小人。”

1916년 8월 28일. 을축. 흐림. 잠깐 개었다가 잠깐 비가 내렸다.

二十八日。乙丑。陰。乍晴乍雨。

1916년 8월 29일. 병인. 흐리고 비.

二十九日。丙寅。陰雨。

1916년 9월 1일. 정묘. 맑음.

九月。初一日。丁卯。陽。

1916년 9월 2일. 무진. 맑음.

二日。戊辰。陽。

1916년 9월 3일. 기사. 맑음.

三日。己巳。陽。

1916년 9월 4일. 경오 흐리다가 살짝 비.

四日。庚午。陰雨痕。

1916년 9월 5일. 신미. 흐림. 금년의 장마 비는 오월부터 달을 이어서 개지 않아 간간히 (홍수가) 산을 삼키고 언덕을 넘는[懷山襄陵]<sup>71</sup>때가 많았다. 때문에 여러 곳을 왕복할 때 ‘회양(懷襄)’이라는 말을 많이 썼다.

五日。辛未。陰。今年霖雨，自五月，連月不開，間多懷山襄陵之時，故諸處往復，多用懷襄之辭。

1916년 9월 6일. 임신. 맑음.

六日。壬申。陽。

1916년 9월 7일. 계유. 맑음.

七日。癸酉。陽。

1916년 9월 8일. 갑술. 맑음.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죽하리에 사는 난재(蘭齋) 신석언(申錫鵬), 죽오(竹塢) 박영재((朴英在)와 남원에 사는 동양재(東陽齋) 이수형(李壽馨)이 동시에 왔다. 집으로 돌아왔다.

八日。甲戌。陽。慶尙南道陝川鳳山面竹下里，申蘭齋，名錫鵬，朴竹塢，名英在，南原李壽馨，號東陽齋，同時來。歸巢。

71) 산을 삼키고 언덕을 넘는[懷山襄陵] : 《서경》 <요전(堯典)>에 “님실님실 홍수가 바야흐로 터져서, 끝없이 산을 에워싸고 언덕을 넘어서, 질펀하게 하늘까지 잇닿았으므로, 백성들이 탄식하고 있다.[湯湯洪水方割，蕩蕩懷山襄陵，浩浩滔天，下民其咨.]”라는 말이 나온다.

1916년 9월 9일. 을해. 덕진동에 성묘하러 갔다가 그날 집으로 돌아왔다.  
九日。乙亥。作省墓之行於德振洞，即日還家。

1916년 9월 10일. 병자. 옥과의 참봉 김용순(金容詢) 덕을 방문하고, 장성군 덕치에 사는 김요숙(金堯淑)과 함께 유숙했다가 장동으로 돌아왔다.  
十日。丙子。訪玉果金參奉容詢宅，與長城德峙金堯淑，同留宿，而還章洞。

1916년 9월 11일. 정축. 맑음.  
十一日。丁丑。陽。

1916년 9월 12일. 무인. 맑음.  
十二日。戊寅。陽。

1916년 9월 13일. 기묘. 서울에 거주하는 종친 갑수(甲洙)가 광주에 도착했다고 하고, 족형 영근(永根)씨가 왔다가 갔다. 일전에 ≪창려집(昌黎集)≫ 속의 <원성(原性)>을 한 번 읽고서, <속원성(續原性)>을 지었다.

十三日。己卯。京居宗甲洙到光州云，而族兄永根氏來而去。日前觀≪昌黎集≫中<原性>一通，述<續原性>。

#### <속원성(續原性)>

성(性)이란 것은 사람에게 있는 태극이니, 맹자가 말한 성선(性善)이 이것이다. 순자가 말한 ‘성악(性惡)’이나, 양자(楊子)가 말한 ‘성은 선악이 혼재되어 있다[性善惡混]’는 것이나, 한자(韓子, 한유)가 ‘성에 삼품(三品)이 있다고 말한 것은 모두가 정자(程子)가 말한 “낳는 것을 성이라 이르니, 성

은 바로 기이고 기는 바로 성이다.”라는 것이지, 성이 성이 되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

정자는 “맹자가 성을 말한 것이 곧 근원을 궁구하는 이치이다.”라고 하였으며, 주자는 “성이 곧 리이며, 리는 본래 짝이 없다.”라고 하였으니, 어찌 악이 있고, 선악이 혼재해 있으며, 삼품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있겠는가? 다만 기질지성(氣質之性)을 말하고, 본연지성(本然之性)을 말하지 않았다.

낳는 것을 성이라 하고 그 성이 곧 기이다. 기에는 청탁(淸濁)과 수박(粹駁)이 있기 때문에 선이 있고 악이 있으며, 성인이 있고 중인(中人)이 있으며 하우(下愚)의 같지 않음도 있다. 그러나 본연지성은 항상 스스로 그러하다. 기질에서 변화한 것은 만 가지로 같지 않음이 있다.

공자는 <계사전>에서 “한번 음하고 한번 양하는 것을 도라고 하니, 잇는[발현하는] 것이 선이고, 이루는 것이 성이다.[一陰一陽之謂道, 繼之者善, 成之者性]”라고 하였고, 자사는 ‘천명지성(天命之性)’을 말하였으니, 맹자의 성선의 의론은 천명지성에서 근본한 것이다. 그렇다면 맹자가 말한 성선은 본연지성으로서 말한 것이다. 공자께서 “성은 서로 가까우나 습관 때문에 멀어진다.[性相近也, 習相遠]”<sup>72)</sup>고 하였으니, 기질지성으로 말한 것이다. 그러나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은 본래 두 개의 성이 아니다. 본연성은 기질 가운데서 오로지 이만을 가리켜 말한 것이고, 기질지성은 이와 기를 겸하여 말한 것이니, 기질 가운데 어찌 본연지성이 없겠는가?

기질에 구애되고 물욕에 가려지면 그것을 잃어 악이 되고, 사욕을 극복해가면 기질이 변화되어 그 본연을 회복하게 되니, 회복한 것이 마치 처음과 같아서 일심(一心)의 주체가 되고 온갖 선이 충족해지니, 어찌 사람에게 태극이 있다고 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억설이 아니라 자양부자(紫陽夫子, 주자)가 이미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이다.

性也者, 在人之太極, 孟子言性善, 是也. 荀子言性惡, 楊子言性善惡混, 韓子言性有三品, 皆言程子曰, “生之謂性, 性即氣也, 氣即性也”, 而不言性之爲性也. 程子曰, “孟子道性, 乃極本窮原之理也.”, 朱子曰, “性即理也,

72) 성이 …… 멀어진다 : 《논어》 <양화(陽貨)>에 나온 말이다.

理本無對”，有何有惡有善惡混，有三品之可言乎？但言氣質之性，不言本然之性也。”生之謂性，性即氣也，氣有清濁粹駁，故有善有惡，有聖人有中人有下愚之不同，而本然之性，常自然矣。受變於氣，有萬不同。孔子於〈繫辭傳〉曰，“一陰一陽之謂道，繼之者善，成之者性。”子思子曰，‘天命之性’，孟子性善之論，本於天命之性乎。然則孟子之道性善，以其本然之性也。孔子曰，“性相近也，習相遠。”，以其氣質之性也。然本然之性，氣質之性，本非二性也。本然性，氣質之中，專指理言也，氣質之性，兼理與氣而言也，則氣質之中，孰無本然之性哉？拘於氣質，蔽於物欲，失之爲惡，克去私欲，變化氣質，而復其本然，則乃復如初，爲一心之主宰，而萬善足焉，豈不爲在人之太極乎？此非臆說，紫陽夫子已多言之。

1916년 9월 14일. 경진. 맑음.

十四日. 庚辰. 陽.

1916년 9월 15일. 신사. 맑음.

十四日. 辛巳. 陽.

1916년 9월 16일. 임오 비. 오늘은 아버지 기일인데 거명(居明, 의미 미상)으로 제사에 참여할 수 없으니, 애통함이 더욱 망극하다.

十四日. 壬午. 雨. 是日親忌, 居明不得與祭, 哀痛尤爲罔極.

1916년 9월 17일. 계미. 맑.

十四日. 癸未. 晴.

1916년 9월 18일. 갑신. 맑음. <도산금문록(陶山及文錄)>을 보고 기록한다. 김학봉(金鶴峯)의 휘는 성일(誠一)이고, 자는 사순(士純)인데, 안동(安東)에서 살았다. 이른 나이에 등제(登第)하여 청현(淸顯, 청환

과 현직)을 지냈으며, 노산묘(魯山墓, 단종의 묘)을 봉하고 사육신의 관작을 복귀시키자는 상소를 올렸다. 퇴계선생이 성현이 전수한 심법을 날날이 서술하여 <병명(屏銘)><sup>73)</sup>으로 만들고서 정사(淨寫)해서 주었다.

十四日。甲申。陽。觀<陶山及文錄>記。金鶴峯，諱誠一字士純，居安東。早年登第，歷敷清顯。上疏請封魯山墓，復六臣官。退溪先生歷叙聖賢傳受心，爲<屏銘>，淨寫與之。

<병명(屏銘)>

屏銘

공경과 정일로서 덕 이룬 이 요순(堯舜)이고  
 두려움과 공경으로 덕 닦은 이 우탕(禹湯)이네.  
 공손하고 삼감은 마음 지킨 문왕(文王)이고  
 호호탕탕 드넓음은 범도 지킨 무왕(武王)이네.  
 노력하고 조심하라 말한 이 주공(周公)이고  
 발분망식 즐겁다고 말한 이 공자(孔子)였네.  
 자신을 반성하며 조심한 이 증자(曾子)이고  
 사육 잇고 예(禮)를 회복한 이 안자(顏子)였네.  
 경계하며 조심하고 혼자 있을 때 삼가하니,  
 명성<sup>74)</sup>으로 지극한 도 이론 이 자사(子思)이고,  
 조존<sup>75)</sup>하여 하늘을 섬기며,  
 바른 의로 호연지기를 기른 것은 맹자였네.  
 고요함을 주로 하며 욕심 없이 지내면서,

堯欽舜一  
 禹祗湯慄  
 翼翼文心  
 蕩蕩武極  
 周稱乾惕  
 孔云憤樂  
 曾省戰兢  
 顏事克復  
 戒懼慎獨  
 明誠凝道  
 操存事天  
 直義養浩  
 主靜無欲

73) 병명(屏銘) : 《퇴계집》 권44에 실려 있는 <제금사순병명(題金士純屏銘)>을 가리킨다. 《학봉선생문집(鶴峯先生文集)》에도 보인다.

74) 명성(明誠) : 《중용장구》 제21장에 “성(誠)으로 말미암아 밝아지는 것을 성(性)이라 하고 명(明)으로 말미암아 성(誠)해지는 것을 교(教)라 이르니, 성(誠)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성(誠)해진다.[自誠明 謂之性 自明誠 謂之教 誠則明矣 明則誠矣]”라고 한 대목을 가리킨다.

75) 조존(操存) : 인간의 본연(本然)한 선심(善心)을 단단히 잘 잡고 있음을 이룸. 《맹자(孟子)》 <고자상(告子上)>에서 “꼭 잡으면 있지만 버리면 없어지고, 때없이 출입하고 어느 곳에 있는 지도 모른다고 하였으니, 생각하건대 이것은 마음을 두고 한 말이 아니겠는가[操則存, 舍則亡, 出入無時, 莫知其鄉, 惟心之謂.]”라고 하였다.

밝은 바람 비 갠 뒤 달과 같은 이 엄계(濂溪)이고,	光風霽月
풍월을 읊조리며 돌아오는 기상에,	吟弄歸來
온화하고 우뚝한 기상 지닌 명도(明道)였네. <sup>76)</sup>	揚休山立
정제된 몸가짐에 엄숙한 기상으로,	整齊嚴肅
전일을 주로 하여 변동 없음은 이천(伊川)이고,	主一無適
박문에다 약례까지 양쪽 다 지극하여,	博約兩至
연원 정통 이어받은 그분은 주자였네.	淵源正脈

<도산서원상향축문>

陶山書院常享祝文

공맹의 심법을 전수하고,	心傳孔孟
정주의 도학을 이었도다.	道紹閩洛
대동의 학문 집대성하니,	集成大東
우리 사문의 표준이셨네.	斯文準極

1916년 9월 19일. 을유. 맑음.

十九日。乙酉。陽。

1916년 9월 20일. 병술. 맑음.

二十日。丙戌。陽。

1916년 9월 21일. 정해. 맑음.

二十一日。丁亥。陽。

1916년 9월 22일. 무자. 흐림.

二十二日。戊子。陰。

76) 온화 …… 명도였네 : 주희(朱熹)의 <정명도 찬(程明道贊)>에 “양기로 만물을 다습게 하듯 하고 산처럼 우뚝 섰으며, 옥빛처럼 아름답고 종소리처럼 쟁쟁했다.[揚休山立, 玉色金聲]”라고 하였다.

1916년 9월 23일. 기축. 맑음.

二十三日。己丑。陽。

1916년 9월 24일. 경인. 맑음. 듣자니 우리나라 부인 중에 문장가(文章家)가 3명 있는데, 정경부인(貞敬夫人) 송덕봉(宋德峯)<sup>77</sup> -자 성중(成仲), 미암 선생의 아내- 와, 정경부인 이옥산(李玉山) -임천조씨(林川趙氏) 원(瑗)<sup>78</sup>의 별실(別室)- 과, 난설(蘭說) -허하곡(許霞谷, 허균(許筠)의 누이- 가 그들이다.

二十四日。庚寅。陽。仄聞我國有夫人文章者三，曰貞敬夫人宋德峯，字成仲，眉岩先生室內也，曰貞敬夫人李玉山，林川趙氏瑗別室也，又曰蘭說，許霞谷妹也。

<덕봉시>

德峯詩

걷고 걸어 드디어 마천령<sup>79</sup>에 이르니,  
끝없는 동해 바다 거울처럼 평평하네.  
부인의 몸으로 만 리 길 무슨 일로 왔는가,  
삼종의 의리 무겁고 일신은 가볍다네.

行行遂至磨鐵嶺  
東海無涯鏡面平  
萬里夫人何事到  
三從義重一身輕

448

<이옥산이 영월을 지나면서 지은 시><sup>80</sup>

李玉山過寧越詩

- 77) 송덕봉(宋德峯) : 미암 유희춘의 부인으로, 미암이 을사사화 때 충성에서 19년 동안 귀양살이 하였는데, 그의 부인이 홀로 만 리 길을 걸어 중성까지 따랐다. 그 부인은 마천령을 지날 때 시를 지었다.《대동야승(大東野乘)》 <부계기문(涪溪記聞)》
- 78) 조원(趙瑗, 1544~1595) : 자는 백옥(伯玉), 호는 운강(雲江), 본관은 임천(林川)이다. 조원경(趙元卿)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조익(趙翊)이고, 아버지는 조용공(趙應恭)이며, 어머니는 민세경(閔世卿)의 딸이다. 조용관(趙應寬)에게 입양되었다. 판서 이준민(李俊民)의 사위이고, 조식(曹植)의 문인이다. 유고로 《가림세고(嘉林世稿)》가 있다.
- 79) 마천령(摩天嶺) : 함경남도 단천시에서 함경북도 김책시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일기 원문에는 마철령(磨鐵嶺)으로 되어 있다.
- 80) 이옥산이 영월을 지나면서 지은 시 : 허균(許筠 1569~1618)의 시문집인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 제25권 <설부(說部)>에 이옥봉(李玉峯)이 영월(寧越)로 가는 도중에 지은 시를 기록했는데, 이르기를 “五日長干三日越，哀歌唱斷魯陵雲。妾身亦是王孫女，此地鶉聲不忍聞。”



이 몸도 또한 왕손의 혈통이라,  
이곳의 두견새 소리 차마 들을 수 없다네.

妾身自是王孫骨  
此地鶉聲不忍聞

1916년 9월 25일. 신묘. 맑음.

二十五日。辛卯。陽。

1916년 9월 26일. 임진. 맑음.

二十六日。壬辰。陽。

1916년 9월 27일. 계사. 맑았다가 밤에 비 옴.

二十七日。癸巳。陽。夜雨。

1916년 9월 28일. 갑오. 흐리고 비.

二十八日。甲午。陰雨。

1916년 9월 29일. 을미. 맑음. 희적(羲迪)과 함께 《창려집》 14권 18판을 보았다. 퇴지(退之, 한유)의 <여맹간상서서(與孟簡尙書書)>에서 “석가와 노자의 해는 양주와 목적보다 심하고, 나 한유의 어짊은 맹자에 미치지 못한다. 맹자는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도 구원하지 못했는데 나는 이미 없어진 뒤에 보전하려고 하니, 아, 그 또한 힘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다. 그 몸이 위태로운 것을 보고도 도를 구원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비록 그러나 그 도가 나로 말미암아 거칠게라도 전해진다면 비록 만 번 죽더라도 한이 없겠다.”라고 하였다.

(내가) 탄식하며 말하기를 “지금 세상을 당하여 누가 그것을 자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자, 희적이 말하기를 “그대가 자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라고 하였다. 내가 응하여 말하기를 “만약 나 영찬으로 말미암아 선왕의 도가 대강이라도 전해진다면 비록 만 번 죽더라도 또한 한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二十九日。乙未。陽。與義迪共，看《昌黎集》十四卷十八板。退之〈與孟簡尚書書〉“至釋老之害，過於楊墨，韓愈之賢，不及孟子。孟子不能救之於未亡之前，而韓愈乃欲全之於已壞之後。嗚呼，其亦不量其力。且見其身之危，莫之救以死也。雖然，使其道由愈而粗傳，雖滅死，萬萬無恨。”嗟歎曰“當今世，誰能自爲己任。”義迪曰，“君可自任。”余應之曰，“若由永槩而粗傳先王之道，雖滅死萬萬，亦無恨矣。”

1916년 9월 30일. 병신. 맑음. 집에 돌아왔다. 일전에 전주 화산면(華山面) 옥포(玉浦)에 사는 임병일(林炳日) -자는 공실(公實)- 이 ‘태극이 곧 기이다’는 말에 답하여 말하기를 “태극은 리이다. 기가 소이연(所以然之故)한 까닭이다.”라고 하였기에 기록한다.

三十日。丙申。陽。還巢。記答日前全州華山面玉浦，林炳日，字公實，太極卽氣也之語，曰“太極卽理也，氣之所以然之故。”

1916년 10월 1일. 정유. 맑음.

十月。初一日。丁酉。陽。

1916년 10월 2일. 무술. 흐림. 장동으로 돌아왔는데, 마침 주인이 출타한 것으로 인하여 한적하던 중에 시리고상(視履考祥, 지난 행동을 살펴 길흉을 상고)하였다. 문득 전일에 예전의 의관(衣冠)이 소용이 없다는 비난을 많이 받은 일을 생각하고 말을 기록하여 뜻을 드러낸다. 옛날 곽임종(郭林宗)<sup>81</sup>이 곧아도 속세를 끊지 않은 것이 어찌 감히 어긴 것

81) 곽임종(郭林宗) : 후한(後漢) 때의 명사(名士)인 곽태(郭泰, 128~169)로, 임종은 그의 자이다.

이겠는가? 다만 시대가 같지 않고 만나는 바가 또한 다른데, 옛 것을 바꾸어 새로운 것을 따르고 오랑캐로 중화를 변화시키려 하니, 만 번 죽어도 차마 하지 못할 짓이다.

二日。戊戌。陰。歸章洞，適因主人出他，閒寂中，視履考祥。輒思前日多被舊衣冠無所用之譏，記言而著意。昔郭林宗貞不絕俗，豈敢違也？但時代不同，所值亦異。改舊從新，用夷變夏，萬死不忍。

1916년 10월 3일. 기해. 흐림.

三日。己亥。陰。

1916년 10월 4일. 경자. 흐리다가 맑음.

四日。庚子。陰而陽。

1916년 10월 5일. 신축. 흐리고 비.

五日。辛丑。陰雨。

<회포를 읊다>

세상천지 백 년을 사는 몸,  
헛되이 육십 년이 지났네.  
가슴 속엔 대책 하나 없으니,  
누가 책 읽은 사람이라고 할까.

述懷

天地百年身  
虛過六十春  
胸中無一策  
孰謂讀書人

곽태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비를 만나 두건의 한 귀퉁이가 꺾였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본받아서 일부러 두건의 한 귀퉁이를 꺾어서 쓰고 다니며 입증건이라고 하였다 한다.(《후한서》 권68 <곽태열전(郭泰列傳)>) 혹자가 “곽임종(郭林宗)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묻자, 범방이 “그는 세상을 피해 숨어도 개지추(介之推)처럼 아버지의 뜻을 어기지 않고, 절조가 곧아도 유하혜(柳下惠)처럼 속세와 단절하지 않으며, 천자도 신하로 삼을 수 없고, 제후도 벗으로 삼을 수 없다. 나는 그 밖의 것은 알지 못한다.[隱不違親, 貞不絕俗, 天子不得臣, 諸侯不得友. 吾不知其他.]”라고 대답하였다.

<또 읊다>

又

세월은 어찌 그리 쉬이 가는지,	歲月何其易
추풍에 낙엽이요 흐르는 물이로네.	秋風落葉流
의지할 데 없이 절로 늙어가니,	無依身自老
구름 끝 바라보며 통곡하네.	痛哭望雲頭

1916년 10월 6일. 임인. 맑음. <임회처사실기(臨淮處士實記)>를 보았다.

六日。壬寅。陽。看<臨淮處士實記>。

공의 성은 박씨이고, 휘(諱)는 희권(希權), 자는 천경(天經)으로, 반남인(潘南人)이다. 단종의 신하로 김매월(金梅月)<sup>82</sup>·남추강(南秋江)<sup>83</sup>·원관란(元觀瀾)<sup>84</sup>·조어계(趙漁溪)<sup>85</sup>·성문두(成文斗)<sup>86</sup>·이경은(李耕隱)<sup>87</sup> 등 여섯

82) 김매월(金梅月) : 김시습(金時習, 1435~1493)으로, 자는 열경(悅卿), 호는 매월당(梅月堂), 법호는 설잠(雪岑), 본관은 강릉(江陵)이다. 시호는 청간(淸簡)이다. 어려서부터 천재로 널리 알려졌는데, 21세 때에 수양대군이 단종의 왕위를 찬탈(篡奪)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보던 책들을 모두 불사른 뒤에 스스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전국 각지를 유랑하였다. 사육신이 처형되던 날, 사육신의 시신을 수습하여 묻어주었고, 31세 되는 해에 경주의 남산인 금오산에 머물며 성리학과 불교를 연구하는 한편, 최초의 한문소설인 <금오신화(金鰲新話)>를 지었으며, 다시 방랑생활을 계속하다가 59세에 별세하였다. 숙종 때 생육신(生六臣)의 일원에 올랐다.

83) 남추강(南秋江) : 남효온(南孝溫, 1454~1492)으로, 자는 백공(伯恭), 호는 추강(秋江)·행우(杏雨)·최락당(最樂堂)·벽사(碧沙), 본관은 의령(宜寧)이다. 1480년(성종11)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생육신의 한 사람이다.

84) 원관란(元觀瀾) : 원호(元昊)로, 자는 자허(子虛), 호는 관란재(觀瀾齋)·무항(霧巷), 본관은 원주(原州)이다. 1423년(세종5) 문과에 급제하여 집현전 직제학을 지냈다. 세조의 왕위찬탈을 보고 낙향하여 은둔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생육신의 한 사람이다.

85) 조어계(趙漁溪) : 조려(趙旅, 1420~1489)로, 자는 주옹(主翁), 호는 어계(漁溪), 본관은 함안(咸安), 시호는 정절(貞節)이다. 1453년(단종1, 계유) 성균관 진사가 되어 당시의 사림 사이에 명망이 높았으나, 1455년 단종이 세조에게 선위(禪位)하자 성균관에 있다가 함안으로 돌아와 서산(西山) 아래에 살았는데, 이 산을 후세 사람들이 백이산(伯夷山)이라고 불렀다. 그는 벼슬을 하지 않고, 다만 시냇가에서 낚시질로 여생을 보냈기 때문에 스스로 어계라 자호하였다. 저서로 <어계집>이 있다.

86) 성문두(成文斗) : 성담수(成聃壽, ?~?)로, 자는 미수(眉叟)·이수(耳叟), 호는 문두(文斗), 본관은 창녕이다. 생육신의 한 사람이다.

87) 이경은(李耕隱) : 이맹전(李孟專, 1392~1480)으로, 자는 백순(伯純), 호는 경은(耕隱), 본관은 벽진(碧津)이다. 1427년(세종9) 문과에 급제하여 거창 현감을 지냈다.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 선산으로 돌아간 뒤로 30여 년을 문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생육신의

선생이 있었는데, 자연에 자취를 감추고 세상을 영영 버리고 은둔하였으니, 그 고충(孤忠)과 과절(婁節)은 백대의 스승이 될 만하다. 당시에 또 공이 있었는데 스스로 정절을 지키다 죽었다.

대개 공이 눈물로 그의 아버지에게 권하여 진산(珍山) 군수의 관직을 버리고 사육신(死六臣)과 일을 함께 하기로 했으나, 이루지 못하고 마침내 부자가 함께 금산(錦山)의 장평(獎坪)에 은거하여 시골 사람들과 자취를 섞어 당세에 일을 하려는 뜻을 끊었다. 매년 10월 24일을 만나면 집의 북쪽에 단을 설치하고, 영월을 바라보고 곡을 하고 혼을 불러 제사를 지냈다. 또 기록한 것이 있는데, “정인지(鄭麟趾), 정창손(鄭昌孫) 등이 당시 군주의 뜻에 영합하여 상왕을 밖으로 축출하기를 청하였고, 또 안에서 밀지를 내려 조정을 몰래 풍자하였다. 소계(疏啓)를 진달하여 청할 때에는 매년 양녕대군(讓寧大君)의 이름을 머리에 올렸는데, 이 당시에 양녕대군은 관서지방에 여행 중이어서 실로 알지 못하였기에 전가(轉嫁)한 허물이 있었다.”라고 하였다.

또 공의 선고(先考, 돌아가신 아버지)인 진산 군수(珍山郡守)의 묘갈문(墓碣文)을 저술하였다.

아, 불초한 제가 일찍이 듣건대 선유는 ‘군자는 그 친을 사사로이 여기지 않고 또 그 친을 친압하지 않는다.[君子不私其親, 亦不昵其親]’라고 말하였는데, 우리 황고(皇考, 아버지)의 행적을 기술함에 실제의 근거를 얻지 못한다면 장차 친을 사사로이 여기고 친을 친압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기 때문에 실적을 기록하여 신천(新阡)에 표한다.

아, 우리 황고께서는 비조(鼻祖)인 호장공(戶長公)의 구세손이요, 사온(司醜) 직장공(直長公)의 현손이며, 문정공(文正公) 반남선생의 종현손이다. 가정과 백성을 잘 다스려 은혜와 위엄을 병행했으니, 이것이 그 실적(實蹟)이다.

부군(府君)의 성은 박씨이며, 계통은 반남이고, 휘는 린(麟), 자는 성상(聖祥)으로, 영락(永樂)<sup>88</sup> 갑오년(1414) 2월 3일에 태어나셨다. 경태(景

한 사람이다.

88) 영락(永樂) : 중국 명나라 성조의 연호로, 1403~1424년에 해당한다.

泰)<sup>89)</sup> 원년 경오년(1450)에 처음으로 벼슬하였는데, 단종 계유년(1453)에 음직으로 진산군수가 되었다. 을해년(1455)에 선위(禪位)의 명이 있자, 불초고(不肖孤)가 영월의 행재소로 달려가 알현하려 했으나 구질(九黜)의 노모 김씨가 훈계하시길 ‘신하가 임금을 위해 죽는 것은 의리상 당연하지만, 너희 부자가 천리를 달려가 의리를 붙들 때 늙은 나는 누구를 의지하겠느냐? 너희는 그것을 헤아려 보라.’라고 하시자, 자친(慈親)의 명을 받아들여 그날로 벼슬을 버리고 금산 장평으로 물러나 살다가 무인년(1458) 정월 4일에 졸하였다. 3월 13일에 본군[금산] 부동면(富東面) 양각산(羊角山) 아래 내장리(內腸里) 뒤쪽 인질산(鈿叱山) 손하병좌(巽下丙坐) 언덕에 안장하였다. 배우자 영인(令人) 청풍김씨(淸風金氏)의 오른쪽에 부장했다.

공(公)의 고(考) 휘는 두언(諱杜)이고, 자는 칠회(七晦)로, 세종조에 문과에 올라 승문원교감(承文院校勘)을 지냈다. 모 숙부인(淑夫人)은 연안김씨(延安金氏)로 부는 찬성(贊成)인 휘가 수(修)인 분이다. 조고(祖考)의 휘는 충(沖)이며, 자는 군유(君幼)로 태종조에 문과에 합격해 교서정자(校書正字)에 올랐다. 조비(祖妣) 숙부인은 무송윤씨(茂松尹氏)로 부는 사직(司直)인 휘가 변(汧)인 분이다. 증조고(曾祖考)의 휘는 힐(詰), 자는 원직(元直)이다. 태종조에 은둔하며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자, 임금이 그 절개를 가상히 여겨 제용감(濟用監) 벼슬과 동리에 집터[家堡]를 하사했으나 받지 않았다. 증조비(曾祖妣) 유인(孺人)은 철원최씨(鐵原崔氏)로 부는 간성도사(杆城都事) 인두(仁斗)이다. 고조고(高祖考)의 휘는 상경(尙黻)으로 사온직장(司醞直長) 벼슬을 지냈고, 고조비(高祖妣) 단인(端人)은 서원염씨(瑞原廉氏)로 부는 밀직부사(密直副使) 대유(大有)이다.

공의 배우자 영인(令人) 청풍김씨(淸風金氏)는 부가 좌의정(左議政) 달도(達道)인데, 2남 3녀를 낳았다. 첫째 아들은 희권(希權)이고, 둘째 아들 희손(希遜)인데 요절했다. 첫째 딸은 이신지(李新之)에게 시집갔고, 둘째 딸은 중명(仲命)에게 시집갔는데, 문과 출신이다. 셋째 딸은 김구영(金九英)에게 시집갔는데, 예조정랑(禮曹正郎)이다. 희권은 5남 1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호인(好仁)과 부사과(副司果) 호의(好義), 생원(生員) 호례(好禮),

89) 경태(景泰) : 중국 명나라 대종 때의 연호로, 1450~1456년에 해당한다.

호지(好智), 호신(好信)이다. 딸은 김양손(金陽孫)에게 시집갔다. 내외의 증현손(曾玄孫)을 모두 기록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찬차(撰次)한다. 불초고가 추모의 뜻을 명문(銘文)으로 짓는다.

우리 황고께서는	惟我皇考
높은 절개가 산과 같아라.	峻節如山
우리 황고를 생각하면,	念我皇考
순수한 효성이 샘물처럼 끝없네.	純孝如泉
새로 쓴 무덤 위에는,	新阡之上
푸른 산이 창창하고	有山蒼蒼
새로 쓴 무덤 아래엔	新阡之下
끝없는 강물이 양양하도다.	有水泱泱
군자의 덕을 갖추시고	君子之德
동정에 떳떳함이 있으셨네.	動靜有常

경태(景泰) 10년 기묘년(1459) 3월 상완(上浣)에, 불초고(不肖孤) 희권(希權)이 삼가 찬하고 아울러 쓰다.

公姓朴氏，諱希權，字天經，潘南人。魯陵之臣，有金梅月·南秋江·元觀瀾·趙漁溪·成文斗·李耕隱六先生，放迹山水，長往不返，其孤忠矯節，可以爲百世師。時又有公，自靖以歿其身。蓋公泣勸其父，投珍山郡紱，而欲與死六同事不得，則遂父子俱隱于錦山之獎坪，混迹漁樵，絕意當世。每值十月二十四日，設壇家北，哭望寧越，招魂以祭。又有所錄，“鄭麟趾鄭昌孫等，迎合時君之意，請黜上王于外，而且內降密旨，陰諷朝廷。陳請疏啓，每以讓寧大君名爲首。此時讓寧出遊關西，實不知而有嫁累”云。又著公先考珍山郡守府君墓碣文。嗚呼！不肖孤嘗聞之，先儒曰‘君子不私其親，亦不昵其親。’述我皇考行蹟，不得據實，則將不免私親昵親之譏，故記以實蹟，表于新阡。嗚呼，惟我皇考，鼻祖戶長公九世孫也，司疆直長公之玄孫也，文正公潘南先生之從玄孫也。克居家莅民，恩威並行，此其實蹟也。府君姓朴氏，系潘南，諱麟，字聖祥。生於永樂甲午二月三日，筮仕於景泰元年庚午，端廟癸酉蔭珍山。當乙亥禪代命，不肖孤欲赴謁寧越行在

所, 而九臺老母金氏戒之曰 ‘臣之死君, 義則當然, 而汝之父子, 千里扶義, 老我何依? 汝其諒之.’, 拜受慈親之命, 卽日投紱, 退居錦山樊坪, 而戊寅正月四日卒。三月十三日葬于本郡富東面, 羊角山下, 內腸里後鈕叱山巽下丙坐原。配令人淸風金氏附右。公之考諱杜彥, 字七晦, 世宗朝文科, 承文院校勘。妣淑夫人延安金氏, 父贊成諱修。祖考諱冲, 字君幼。太宗朝文科, 校書正字。祖妣淑夫人茂松尹氏, 父司直諱汴。曾祖考諱詰, 字元直。太宗朝隱遯不仕, 上嘉其節, 賜濟用監, 洞家坐不受。曾祖妣孺人鐵原崔氏, 父杆城都事諱仁科。高祖考諱尙聚, 官司醞直長。高祖妣端人瑞原廉氏, 父密直副使諱大有。配令人淸風金氏, 父左議政諱達道, 生二男三女。長希權, 次希遜早塲。女長適李新之, 次適仲命文科。次適金九英, 禮曹正郎。希權五男一女。男好仁·好義副司果·好禮生員·好智·好信。女金陽孫也。內外曾孫, 多不盡錄, 而撰次如右。不肖孤追慕之志, 爲之銘。曰 惟我皇考, 峻節如山, 念我皇考, 純孝如泉。新阡之上, 有山蒼蒼, 新阡之下, 有水泱泱。君子之德, 動靜有常。景泰十年己卯三月上浣, 不肖孤希權, 謹撰。竝書。

1916년 10월 7일. 계묘. 맑음.

七日. 癸卯. 陽.

1916년 10월 8일. 갑진. 맑음.

八日. 甲辰. 陽.

1916년 10월 9일. 을사. 맑음.

九日. 乙巳. 陽.

1916년 10월 10일. 병오. 맑음. 당질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十日. 丙午. 陽. 與堂姪還巢.



1916년 10월 11일. 정미. 흐림. 비 온 흔적이 있었다. 선묘(先墓)의 시향(時享)<sup>90</sup>을 지냈다. 시향을 지낸 후에 묘정(墓庭)에서 말하기를 “우리 제족은 밝게 나의 말을 들어라. 왕자공(王子公)<sup>91</sup> 이하 9세조의 묘지는 선대에 이미 제전(祭田)을 세웠고, 묘각(墓閣)을 수축하여 만들어왔다. 8세조 이하는 절로 한 파를 이뤄 구족(九族)에 이르는데, 아직도 제전을 세우거나 제각(祭閣)을 수축하지 못해서 해마다 시향 때면 제수를 설비할 방도가 없었다. 내가 지금 현주(玄酒, 물)와 청작(淸酌, 맑은 술)을 바쳐 궐향(闕享)을 면하였다. 바라건대, 너희 제족은 각각 정성을 다하여 비록 산 고사리와 마름풀[水藻]일 지라도 정결하게 해서 공봉(供奉)하라. 이훈(伊訓)에 이르기를 ‘귀신은 항상 흠향함이 없이 지극히 정성스러운 것만을 흠향한다.[鬼神無常享, 極誠惟享]’<sup>92</sup>라고 하였다. 《역》에서 이르기를 ‘동쪽 이웃에서 소를 잡아 성대히 제사 지낸 것이 서쪽 이웃의 약제가 실제로 그 복을 받는 것만 못하다.[東家殺牛, 不如西家之禴祭實受其福]’<sup>93</sup>고 하였으니, 너희들은 잘 염두에 두어라. 한문공(韓文公, 한유)은 <명수부(明水賦)>에 말하기를 ‘옛날 성인의 제도에 제사는 반드시 충경(忠敬)을 주로 하며, 길견(吉鑄)<sup>94</sup>을

90) 시향(時享) : 절기마다 묘소에서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한식 또는 10월에 5대조 이상의 묘소에서 지내는 제사를 관행적으로 칭하는 것으로, 시제(時祭), 시사(時祀)라고도 한다. 묘소에서 지낸다고 하여 묘제(墓祭), 묘사(墓祀), 묘전제사(墓前祭祀)라고 하며, 일 년에 한 번 제사를 모신다고 하여 세일제(歲一祭), 세일사(歲一祀)라고 한다.

91) 왕자공(王子公) : 광산김씨 시조 김흥광(金興光)을 말한다. 시조 김흥광은 《동국만성보》 및 《조선씨족통보》에는 신라 49대 헌강왕(憲康王)의 왕자로 기록되어 있다.

92) 귀신은 …… 흠향한다 : 《서경》 <태갑 하(太甲下)>에서 이윤(伊尹)이 태갑(太甲)에게 고한 말이다. “아 하늘은 친히 하는 사람이 없이 능히 공경하는 자를 친하시며, 백성들은 항상 그리워하는 사람이 없이 인이 있는 자를 그리워하며, 귀신은 항상 흠향함이 없이 지극히 정성스러움에 흠향하니, 천자의 지위가 어렵습니다.[嗚呼, 惟天無親, 克敬惟親, 民罔常懷, 懷于有仁, 鬼神無常享, 享于克誠, 天位難哉.]”라고 하였다.

93) 동쪽 …… 못하다 : 《주역》 <기제괘(既濟卦)> 구오(九五)에 “동쪽 이웃에서 소를 잡아 성대히 제사 지낸 것이 서쪽 이웃의 약제가 실제로 그 복을 받는 것만 못하다.[東鄰殺牛, 不如西鄰之禴祭, 實受其福.]”라는 말이 나온다. 약제는 박제(薄祭), 즉 검소한 제사를 말한다.

94) 길견(吉鑄) : 길일(吉日)을 택하여 정결하게 제계(齊戒)하여 제사하는 것이다. 《서경》 <천보(天保)>에 “길일을 잡아 정결히 주식(酒食)을 장만해 이를 효성으로 제향한다.[吉鑄爲饌]

높이지 그 풍성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그 제수의 풍성함과 약소함은 가력(家力)이 어떠한가에 따라야 하고, 그 예와 질차는 제관이 갖추어지고 제물의 갖추어짐이 어떠한가에 따라야 한다. 바라건대, 우리 제족(諸族)은 ‘곳집이 가득 차야 예절을 안다[倉稟實而知禮節]’<sup>95)</sup>고 말하지 말고, 각기 그 정성을 다하라.”라고 하였다.

十一日。丁未。陰雨痕。行先墓時享，時享後墓庭說，“惟我諸族明聽吾言。自王子公以下，至于九世祖墓，先代已爲立祭田，修墓閣而尊奉之。自八世祖以下，自成一派，至于九族，固未立祭田，修祭閣，年年時享，未由設備。余今以玄酒清酌之奠，以免闕享。惟爾諸族，各盡其誠，雖山薇水藻，精潔供奉。伊訓曰‘鬼神無常享，極誠惟享。’《易》曰，‘東家殺牛，不如西家之禴祭，實受其福。’，汝等其念之。韓文公<明水賦>曰，‘古者聖人之制，祭祀也，必主忠敬，崇吉蠲，不貴其豐。’其豐其約，隨家力之何如，其禮其節，官備具備何如。惟我諸族，勿謂倉稟實而知禮節’，各盡其誠。”

1916년 10월 12일. 무신. 맑음. 장동에 도착했다.

十二日。戊申。陽。到章洞。

1916년 10월 13일. 기유. 흐리고 비.

十三日。己酉。陰雨。

1916년 10월 14일. 경술. 맑음.

十四日。庚戌。陽。

是用孝享)” 하였다.

95) 곳집이 …… 안다 : 《관자(管子)》 <목민(牧民)>에 “곳집이 가득 차면 예절을 알게 되고 의식이 풍족하면 영욕을 알게 된다.[倉廩實則知禮節，衣食足則知榮辱.]”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1916년 10월 15일. 신해. 맑음. 대산 종가(大山宗家)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十五日。辛亥。陽。訪大山宗家以還。

1916년 10월 16일. 임자. 맑음.  
十六日。壬子。陽。

1916년 10월 17일. 계축. 맑음.  
十七日。癸丑。陽。

1916년 10월 18일. 갑인. 맑음.  
十八日。甲寅。陽。

1916년 10월 19일. 을묘. 흐림.  
十九日。乙卯。陰。

1916년 10월 20일. 병진. 맑음. 송내(松內) 선묘(先墓)의 시제를 지내고,  
밤에는 종형수(從兄嫂) 답사(禫祀)를 지냈다.  
二十日。丙辰。陽。行松內先墓時祀, 夜行從兄嫂禫祀。

1916년 10월 21일. 정사. 맑음.  
二十一日。丁巳。陽。

1916년 10월 22일. 무오. 맑음.  
二十二日。戊午。陽。

1916년 10월 23일. 기미. 맑음.

二十三日。己未。陽。

1916년 10월 24일. 경신. 맑음.

二十四日。庚申。陽。

1916년 10월 25일. 신유. 맑음.

二十五日。辛酉。陽。

1916년 10월 26일. 임술. 맑음.

二十六日。壬戌。陽。

1916년 10월 27일. 계해. 맑음. 오늘은 소설(小雪)이다. 《하서선생집(河西先生集)》중 <일재에게 보낸 편지>를 보고 기록한다.

二十七日。癸亥。陽。是日小雪也。看《河西先生集》〈與一齋書〉記之。

기(奇)군에게 준 편지에는 감히 이의를 달 수 없습니다만, 대개 이(理)와 기(氣)가 혼합하여 천지 사이에 가득한 것은 그 가운데서 나오지 않음이 없고, 각기 갖추지 않음이 없으니, 태극이 음양을 떠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道)와 기(器)의 나뉘는 한계가 없지 아니하니, 태극과 음양은 아마도 일물(一物)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자가 “태극이 음양을 탄 것은 사람이 말을 탄 것과 같다.[太極之乘陰陽，如人之乘馬]”라고 하였으니, 결코 사람으로써 말이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병이 중하여 다 하지 못합니다.

遺奇君之柬，不敢議爲，蓋理氣混合，盈天地之間者，無不自其中出，而無不

各具，不可謂太極之離乎陰陽也。然道器之分，不能無界限，則太極陰陽，恐不可謂一物也。朱子曰‘太極之乘陰陽，如人之乘馬’則決不可以人爲馬也。病重不盡。

고요한 밤에 한가로이 담소를 나누던 중 희적(羲迪)이 묻기를, “노사선생이 율곡선생의 글에서 ‘양이 동하고 음이 정하는 것은 시키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기(氣機)가 스스로 그러한 것이다.’<sup>96)</sup> 소이연(所以然)한 것이 이(理)이다.[陽動陰靜，非有使之，其機自爾。所以然者理也]’는 한 단락을 의론하여 말하기를 ‘만약 그 기기가 스스로 그러한 것이라면 소이연(所以然) 세 글자는 퇴축(退遜)시키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였으니,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응답하여 말하기를 “노사선생의 말은 아마도 이와 기를 양물(兩物)로 판별하여, 이가 여기에 있으면, 기는 저기에 있고, 이가 갑에 있으면, 기는 을에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이다. ‘양이 동하고 음이 정하는 것은 시키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기(氣機)가 스스로 그러하다는 것은 기이고, 소이연지고(所以然之故, 그렇게 되게 한 까닭)는 이인데, 소이연 세 글자를 어찌 퇴축시킬 것인가? 이기는 본래 하나이며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다. 이가 있으면 기가 있고, 기가 있으면 이가 있으니, 있으면 함께 있고 없으면 함께 없으며, 선후도 없고 이합(離合)도 없다. 기는 자취가 있으나 이는 형체가 없다. 형체가 없으므로 무성무취(無聲無臭)하다. 충막무집(沖漠無朕)하고 신묘불측(神妙不測)한 것이 바로 ‘소이연지고(所以然之故)’이다. 또 공중에 매달려 있는 물건이 아니고, 항상 기를 타고 행하니, (이것이) 곧 소이연이다. 소이연을 어찌 퇴축시키겠는가? 만일 소이연지고가 아니라면 그 기기가 스스로 그러하다는 것은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겠는가? 율곡 선생은 진실로 나면서부터 알고 있는[生而知之]<sup>97)</sup> 성인

96) 음이 …… 그러한 것이다 : 일기 원문에는 ‘陽動陰靜，非有使之，其機自爾’라 쓰여 있는데, 율곡전서에는 ‘陽動陰靜，其機自爾，非有使之’라고 되어 있다.

97) 나면서부터 알고 있는[生而知之] : 《논어》 <술이(述而)>에 “나는 나면서부터 저절로 잘 알게 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옛것을 좋아하여 부지런히 찾아서 배운 사람이다.[我非生而知之者，好古敏以求之者也.]”라는 공자의 말이 나온다.

으로, 소견이 명경지수(明鏡止水)와 같아 도를 봄이 분명하다. 간추려서 말하면, 발하는 것은 기이고 발하게 하는 소이(所以)는 이이니, 기가 아니면 발할 수 없고, 이가 아니면 발할 것이 없으며, 선후가 없고 이합도 없다. 이와 같은 말은 비록 성인이 다시 나와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였다.

靜夜閒談義迪問“蘆沙先生議栗谷先生文‘陽動陰靜，非有使之，其機自爾，所以然者理也’一段曰‘若其機自爾，則所以然三字，不得不退逐’何如也？”余應之曰“蘆沙先生之言，疑是以理氣，辨爲兩物，理在此而氣在彼，理在甲而氣在乙，故有是說焉。‘陽動陰靜，非有使之，其機自爾’者氣也，所以然之故理也，所以然三字，何以退逐乎？理氣本是一而二，二而一者也。有是理則有是氣，有是氣則有是理，有則俱有，無則俱無，無先後無離合。氣有適而理無形。無形故無聲無臭，冲漠無朕，神妙不測者，卽所以然之故。又非懸空之物，常爲乘氣而行，卽所以然，所以然何如退逐乎？若非所以然之故，其機自爾者，孰使之然耶？栗谷先生，眞生知之聖也，所見如明鏡止水，見道分明。略曰，發之者氣也，所以發者理也，非氣不能發，非理無所發，無先後，無離合。如此之言，雖聖人復起，不能易矣。”

1916년 10월 28일. 갑자. 맑음. 남원 사촌(沙村)<sup>98</sup>에 사는 기석사(奇碩士) 낙도(洛度)<sup>99</sup>의 아버지 송사공(松沙公, 기우만)께서 돌아가셨다.  
二十八日。甲子。陽。南原沙村奇碩士洛度夫人松沙公卒。

1916년 10월 29일. 을축. 맑고 흐림. 밤에 비가 잠깐 내렸다.  
二十九日。乙丑。陽而陰。夜乍雨。

1916년 11월 1일. 병인. 맑음.  
十一月。初一日。丙寅。陽。

98) 사촌(沙村) : 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사촌마을을 이른다. 송사 기우만이 만년에 은거한 곳이다.

99) 기낙도(奇洛度, 1880~1930) : 자는 원용(元用)이고, 호는 호상(湖上)이다. 송사 기우만의 아들이다.

1916년 11월 2일. 정묘. 맑음.

二日。丁卯。陽。

1916년 11월 3일. 무진. 맑음.

三日。戊辰。陽。

1916년 11월 4일. 기사. 맑음. 집에 돌아왔다.

四日。己巳。陽。還巢。

1916년 11월 5일. 경오. 맑고 찬바람이 불었다. 장동으로 돌아왔다.

五日。庚午。陽寒風。還章洞。

1916년 11월 6일. 신미. 맑음.

六日。辛未。陽。

1916년 11월 7일. 임신. 맑다가 밤에 비가 조금 왔다. 오치면(梧峙面)<sup>100</sup> 장동(章洞)에 사는 기성군(箕城君) 이금(李兢)<sup>101</sup>의 16세손인 계종(啓琮) -자가 명숙(明叔), 호가 삼산(三山)- 이 쌍석(雙石, 이희용)과 함께 와서 단란하게 얘기하다 갔다.

七日。壬申。陽。夜小雨。梧峙面章洞，箕城君李兢十六孫，啓琮，字明

100) 오치면(梧峙面) : 당시 전라남도 광주군 오치면으로서, 현재는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에 해당된다.

101) 이금(李兢, 1389~1433) : 본관은 함평(咸平). 1405년 식년시 병과로 급제하고, 1427년 중시(重試) 을과로 급제하여 대언에 뽑혔다. 한어(漢語)를 잘하여 승문원제조가 되어, 한어를 가르쳤다. 관사재감사(判司宰監事), 예조참의, 공조우참판(工曹右參判) 등을 역임하였다. 1433년 사은부사(謝恩副使)로 북경에 가던 도중 병을 얻어 침수참(淸水站)에 이르러 사망하였다.

叔, 號三山, 與雙石同來, 團圍而過。

1916년 11월 8일. 계유. 맑음.

八日。癸酉。陽。

1916년 11월 9일. 갑술. 맑음.

九日。甲戌。陽。

1916년 11월 10일. 을해. 맑음.

十日。乙亥。陽。

1916년 11월 11일. 병자. 맑음.

十一日。丙子。陽。

1916년 11월 12일. 정축. 맑음. <이기(理氣)>시를 읊고, 여러 친구들에게 보여주었다.

十二日。丁丑。陽。理氣詠, 示諸益。

무(無)는 묘유를 머금고 유는 도리어 무가 되니,  
만고에 변함없는 이치가 이와 같구나.  
가을 잎 떨어질 때 새싹은 이미 움트고,  
봄나방은 해가 남아 있는 동안 알 낳기 서두르지.  
기가 실로 유행하나 기가 어찌 오로지하며,  
이는 진실로 불측이지만 이 어찌 홀로졌는가?  
이는 은미하고 기는 드러나며 선후가 없나니,  
은미한 것도 이를 근원하여 만수로 드러나네.

無含妙有有還無  
萬古常常若是夫  
秋葉落時萌動已  
春蛾殘日卵先乎  
氣實流行氣豈專  
理真不測理何孤  
理微氣著無先後  
微自此原著萬殊



1916년 11월 13일. 무인. 맑음.

十三日。戊寅。陽。

1916년 11월 14일. 기묘. 맑음.

十四日。己卯。陽。

1916년 11월 15일. 경진. 맑음.

十五日。庚辰。陽。

1916년 11월 16일. 신사. 맑음.

十六日。辛巳。陽。

1916년 11월 17일. 임오. 간혹 흐리고 간혹 맑았다.

十七日。壬午。或陰或陽。

1916년 11월 18. 계미. 흐림.

十八日。癸未。陰。

1916년 11월 19일. 갑신. 흐리다 밤에 비가 내렸다.

十九日。甲申。陰雨夜。

1916년 11월 20일. 을유. 흐리다가 맑아졌고, 석양에 바람이 불었다.

二十日。乙酉。陰而陽，夕陽風。

1916년 11월 21일. 병술. 맑음.

二十一日。丙戌。陽。

1916년 11월 22일. 정해. 맑음. 요즘 세속에서 ‘졸업(卒業)’이라고 하는 것은 《한서(漢書)》 <초원왕전(楚元王傳)>이 <형담창화시서(荊潭唱和詩序)><sup>102)</sup>에 있는 것을 보면, 졸업(卒業)에 이른다든 뜻을 볼 수 있다.

二十二日。丁亥。陽。今俗卒業云者，見漢楚元之傳在荊潭唱和詩序，觀至卒篇也之意。

1916년 11월 23일. 무자. 맑음.

二十三日。戊子。陽。

1916년 11월 24일. 기축. 흐림. 《논어》를 보았다.

二十四日。己丑。陰。看《論語》。

안자(顏子)가 감탄하며 가로되, “우러러 볼수록 더욱 높고, 뚫을수록 더욱 견고하며, 바라봄에 앞에 있더니 홀연히 뒤에 계시도다. 선생님께서서는 사람을 차근차근 잘 유도하시니 문(文)으로써 나를 넓혀 주시고 예(禮)로써 나를 제약하시네. 그만두고자 해도 그만둘 수 없어 이미 나의 재주를 다하니, (부자의 도가) 내 앞에 우뚝 서 있는 듯하네. 비록 그를 따르고자 하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구나.”<sup>103)</sup>라고 했다. 이것에 대해 오씨(吳氏)가 말하기를, “소립탁이(所立卓爾)는 날마다 일을 행하는 사이에 있는 것이지, 요명혼묵(窈冥昏默)<sup>104)</sup>함을 이룬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102) 형담창화시서(荊潭唱和詩序) : 형남(荊南)의 복야(僕射) 배도(裴度)와 호남(湖南)의 양공(楊公)이 주고받은 시를 모아 책으로 만든 《형담창화시집(荊潭唱和詩集)》에 대해 한유가 서문을 한 것이다.

103) 우러러 …… 모르겠다 : 《논어》 <자한(子罕)>에 나온 말이다.

104) 요명혼묵(窈冥昏默) : ‘심오하고 깊고 어둡고 고요하다.’는 뜻이다. 《장자(莊子)》 <재유(在宥)>에 ‘지극한 도의 정수는 심오하고 깊으며, 지극한 도의 극치는 어둡고 고요하다.[至道之精，窈窈冥冥，至道之極，昏昏默默.]’라는 구절에서 온 말이다.

소주(小註)에서 면재 황씨(勉齋黃氏, 황간)는 “오씨가 해석한 ‘탁이(卓爾)’의 뜻이 가장 절실하다. 일찍이 그 뜻을 미루어보면, 대저 성인의 도는 진실로 고명(高明)하고 광대(廣大)하여 미칠 수가 없지만, 또한性情(性情)의 사이와 동용(動容, 행동거지)의 때에 음식·기거·교제·응수에 힘쓰는 일과 군신·부자·형제·부부의 상례(常例), 출처·거취·사수(辭受)·취사하는 것에서부터 정사(政事)에 시행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도가 깃들지 않음이 없다.”라고 하였다.

○쌍봉 요씨(雙峰饒氏)<sup>105</sup>가 말하기를, “요요명명(窈窈冥冥)은 지극한 도의 정수요,昏昏묵묵(昏昏默默)은 지극한 도의 극치이다.’라는 말은 열자(列子)의 말이다.<sup>106</sup> 이 장에서는 배우는 자들이 쉽게 고원한 것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오씨의 설을 인용하여 밝혔다.”라고 하였다.

顏子喟然歎曰, “仰之彌高, 鑽之彌堅, 瞻之在前, 忽焉在後。夫子循循, 然善誘人, 博我以文, 約我以禮。欲罷不能, 既竭吾才, 如有所立卓爾。雖欲從之, 末由也已。” 吳氏曰, “所立卓爾, 亦在日用行事之間, 非所謂窈冥昏默者。” 小註, 勉齋黃氏曰, “吳氏所釋卓爾之意, 最爲切實。嘗以其意推之, 夫聖人道, 固高明廣大不可幾及, 然亦不過性情之間動容之際, 飲食·起居·交際·應酬之務, 君臣父子兄弟夫婦之常, 出處去就辭受取舍, 以至於政事施設之間, 無非道之寓。” ○雙峰饒氏曰, “窈窈冥冥, 至道之精, 昏昏默默, 至道之極.’ 列子之言也。此章學者, 易得求之高遠, 故引吳氏之說以明之。”

1916년 11월 25일. 경인. 맑음.

二十五日。庚寅。陽。

105) 쌍봉 요씨(雙峰饒氏) : 남송의 성리학자 요로(饒魯, 1193~1264)를 말한다. 자는 백억(伯輿) 또는 중원(仲元), 시호는 문원(文元)이다. 쌍봉은 그의 호(號)이고 강서성(江西省) 요주(饒州) 여간(餘干) 사람이다. 주희의 문인 황간(黃幹)과 이번(李燾)을 사사하였으며, 봉래관(朋來館)과 석동서원(石洞書院)을 세워 후학을 양성하였다. 저서에 <요쌍봉강의(饒雙峯講義)>가 있다.

106) 요요명명(窈窈冥冥)은 …… 말이다 : 인용된 구절은 현재 <장자> <재유(在有)>에서 보이는데, 쌍봉 요씨가 살았던 시기에는 장자(莊子)와 열자(列子)의 말이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혹은 쌍봉 요씨가 착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1916년 11월 26일. 신묘. 맑음. 집의 아이가 수목(壽木)<sup>107</sup>의 일로 왔다 갔다.

二十六日。辛卯。陽。家兒以壽木事，來去。

1916년 11월 27일. 임진. 맑음

二十七日。壬辰。陽。

1916년 11월 28일. 계사. 맑음.

二十八日。癸巳。陽。

1916년 11월 29일. 갑오. 흐림.

二十九日。甲午。陰。

1916년 11월 30일. 을미. 흐림.

三十日。乙未。陰。

1916년 12월 1일. 병신. 흐리고 눈.

十二月。初一日。丙申。陰雪。

1916년 12월 2일. 정유. 흐리고 눈.

二日。丁酉。陰雪。

1916년 12월 3일. 무술. 흐리고 눈이 강산에 가득 내렸다.

三日。戊戌。陰雪滿江山。

107) 수목(壽木) : 관(棺)을 짜는 데 쓰이는 나무를 말한다.

1916년 12월 4일. 맑음. 집에 돌아왔다. 문암리에서 조카 결혼식을 거행하였다.

四日。陽。還巢。行門岩里侄婚。

1916년 12월 5일. 경자. 맑음. 조카아이를 데리고 옥정리(玉井里) 하씨(夏氏) 집에서 혼사를 치르고 문암리로 돌아왔다.

五日。庚子。陽。率姪兒，成婚於玉井里夏氏家，還門岩里。

1916년 12월 6일. 신축. 맑음.

六日。辛丑。陽。

1916년 12월 7일. 임인. 맑음. 분통리(粉桶里)<sup>108</sup> 윤씨(尹氏) 조카사위 집에 위문하러 가서 머물러 잤다.

七日。壬寅。陽。慰問於粉桶里尹侄婿家，留宿。

469

1916년 12월 8일. 계묘. 맑음. 집에 돌아왔다.

八日。癸卯。陽。還巢。

1916년 12월 9일. 갑진. 흐리고 눈.

九日。甲辰。陰雪。

1916년 12월 10일. 을사. 흐리고 눈이 내렸으며 추웠다.

108) 분통리(粉桶里) : 현재 전남 담양군 용면 용연리 분통 마을을 가리킨다. 분통 마을은 1670여 년경에 마을이 형성되었다. 마을에 분재실(粉在實), 통사(桶事)골 등의 지명이 남아 있는데 이 지명의 앞글자를 따 '분통'이라 불렀다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대흥(大興), 분통(粉桶), 용평(龍平), 소천지(小天持), 세룡동(細龍洞), 용동(龍洞), 등과 함께 용연리(龍淵里)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1961년 10월 1일자 조례에 의거 용연리 1구 분통마을로 부르게 되었다.

十日。乙巳。陰雪寒。

1916년 12월 11일. 병오 간혹 맑다가 간혹 흐렸다.

十一日。丙午。或陽或陰。

1916년 12월 12일. 정미. 흐림.

十二日。丁未。陰。

1916년 12월 13일. 무신. 맑음.

十三日。戊申。陽。

1916년 12월 14일. 기유. 흐림. 눈 내리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十四日。己酉。陰。雪寒風。

1916년 12월 15일. 신해.<sup>109)</sup> 맑음.

十五日。辛亥。陽。

1916년 12월 16일. 경술. 흐림. 큰 눈이 내렸다. 송사 기우만의 제문을 지었다.

十六日。庚戌。陰。大雪。修製奇松沙祭文。

송정 기원후 5주갑(崇禎紀元後五周甲) 세차(歲次) 병진(丙辰) 12월 병신삭(丙申朔) 22일(병인)에 유명정조선(有明定朝鮮)<sup>110)</sup> 서암처사(棲巖

109) 신해 : 11월 15일의 간지는 경술이고, 16일의 간지는 신해이다. 원문에 15일과 16일의 간지가 바뀌었다.

110) 유명정조선(有明定朝鮮) : 조선 후기 묘지명 등에 쓰인 표현으로 대부분은 유명조선국(有明

處士) 김영찬(金永燾)이 감히 송사선생(松沙先生)의 혼령에게 밝게 고합니다.

維崇禎紀元後五周甲歲次丙辰十二月丙申朔二十二日丙寅，有明定朝鮮，棲巖處士金永燾，敢昭告于松沙先生之靈。

삼가 생각건대 선생께서는	恭惟先生
남방에서 우뚝 솟아	挺出南服
순수하고 강직함을 타고 났으며,	稟得純剛
솔성 <sup>111</sup> )이 지극히 정대하였습니다.	率性至正
왕고 <sup>112</sup> )를 계승하여	紹述王考
주공과 공자를 연원하고	淵源周孔
성과 경을 근본으로 삼았으며,	主本誠敬
문장을 여사로 하였습니다.	餘事文章
명교의 주석이 되고 <sup>113</sup> )	名教柱石
사림의 종장이 되었으며,	士林宗匠
당시의 동량이 되셨으니,	時之棟樑
태산북두처럼 우러러보았습니다.	望則山斗
묘당에 추천되어	剡薦廟堂
벼슬이 침랑에 이르렀으나,	宦至寢郎
부귀를 탐하지 않고,	富貴不淫
무력에 굽히지 않았습니다.	威武不屈
운세가 순탄하지 못하여,	運何不齊
국모가 해를 당함에 <sup>114</sup> )	國母被害

朝鮮國)으로 쓰인 예가 많다.

111) 솔성(率性) : 하늘로부터 받은 본성(本性)을 따르는 것이다. 《중용장구(中庸章句)》 제1장에 “하늘이 명(命)한 것을 성(性)이라 이르고, 성(性)을 따르는 것을 도(道)라 이르고, 도(道)를 품절(品節)한 것을 교(教)라 이른다.[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라고 하였다.

112) 왕고(王考) : 여기에서 왕고는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 선생을 가리킨다.

113) 명교(名教) …… 되고 : 명교는 유교(儒教)를 달리 일컫는 말로, 지켜야 할 인륜의 명분(名分)을 가르친다는 뜻이고, 주석(柱石)은 기둥과 주춧돌을 말한 것으로, 흔히 국가의 중임(重任)을 맡은 대신인 주석지신(柱石之臣)을 의미한다.

이십년 동안 상복을 입었으니,	廿載持服
한결같은 절개가 우뚝합니다.	一節巍然
생을 버리고 의를 취함에,	捨生取義
만 번 죽다 살아남았은 인생,	萬死餘生
앉으나 누우나 쓸개를 맛보며, <sup>115)</sup>	坐臥嘗膽
쉬거나 잠 잘 때도 절치부심하였습니다.	寢寐腐心
초나라 연못을 거닐던 굴원의 한 <sup>116)</sup> 과	楚澤屈悵
수양산으로 들어갔던 백이의 눈물 <sup>117)</sup> 로,	首陽夷淚
충정을 다하여 이되니,	衷情欲訴
상제를 대하듯 경건한 자세였습니다. <sup>118)</sup>	對越上帝
하늘이 보살피지 않아,	皇天不弔
갑자기 역책 <sup>119)</sup> 을 하고,	遽然易箝

114) 국모가 해를 당함에 : 1895년(고종 32) 일본공사 미우라 고로[三浦梧樓]가 주동이 되어 명 성황후(明成皇后)를 시해한 을미사변(乙未事變)을 말한다.

115) 쓸개를 맛보고[嘗膽] : 와신상담(臥薪嘗膽)의 고사를 말한다. 춘추시대 때 월왕(越王) 구천(句踐)이 오(吳)나라 부차(夫差)와 싸워 패하였는데, 구천은 치욕을 참고서 화친을 맺었다. 구천은 온나라에서 풀려나 월나라로 돌아온 뒤 밤낮없이 복수할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혹시라도 자신의 뜻이 헤이해질까 걱정스러워 낮에는 쓸개를 메달아 놓고 이를 맛보고 밤에는 샅에 누워서 자며, 여름에는 화로를 꺼안고 있고, 겨울에는 얼음을 꺼안고 있는 등 각고면려 하면서 원한을 잊지 않았으며, 길을 가다가 개구리가 노한 모습을 보고는 경례를 하는 등 무(武)를 숭상하고 군사들을 격려해 마침내 부차를 쳐서 이겨 그 원한을 씻었다.(<사기> 권41 <월왕구천세가(越王句踐世家)>)

116) 초나라 …… 한 : 전국시대 초 회왕(楚懷王)의 충신 굴원(屈原)의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굴원이 추방되어 초택에서 노닐 때에 그곳의 어부가 굴원에게 “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지 않고 혼자 고고하게 처신하여 추방을 당했는가?” 하고 물었다. 굴원이 “차라리 소상강(瀟湘江)에 뛰어들어 물고기의 먹이가 될지언정 어찌 결백한 몸으로 세속의 먼지를 뒤집어쓰겠는가.”라고 답하였다. 이에 어부가 창랑가(滄浪歌)를 부르며 배를 저어 떠났다. (<楚辭> <어부사(漁父辭)>) 이후 굴원은 경양왕(頃襄王) 때 두 번째 참소를 받아 강남(江南)으로 귀양가 있다가 초나라의 정치가 극도로 부패하여 구제할 수 없음을 개탄한 나머지 5월 5일에 먹라강(汨羅江)에 투신하여 자살하였다.(<사기(史記)> 권84 <굴원전(屈原傳)>)

117) 수양산으로 …… 눈물 : 백이(伯夷)와 숙제(叔齊)의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백이와 숙제는 은(殷)나라 고죽군(孤竹君)의 아들인데, 주 무왕(周武王)이 온나라를 정벌하자, 백이와 숙제가 ‘신하로서 군주를 정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간하였으나 듣지 않으므로 의리상 주나라 곡식을 먹을 수 없다가 수양산(首陽山)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 먹다가 굶어서 죽었다. (<사기> 61권 <백이전(白夷傳)>)

118) 상제를 …… 자세였습니다[對越上帝] : 주희(朱熹)의 <경제잡(敬齋箴)>에 “그 의관을 바르게 하고 그 시선을 존엄하게 하며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 거처하고 상제를 대하는 듯 경건한 자세를 가져라.[正其衣冠 尊其瞻視 潛心以居 對越上帝]”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돌아가시니 때가	大歸以時
소설 다음 날이었습시다.	小雪翌日
궁음 <sup>120)</sup> 이 천지에 가득해지면,	窮陰天地
양의 기운이 조금씩 자라는 것이니,	漸陽一分
양의 기운이 조금씩 자라나,	一分漸陽
장차 반드시 회복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sup>121)</sup>	將見必復
그러나 일편단심으로	一片丹心
대설을 밟지 못하였으니,	未涉大雪
운수가 어찌 이리하단 말입니까	數何然耶
운명은 곧 하늘이 내린 것이겠지요	命乃天歟
천지의 강상으로 보면,	天地綱常
군부가 가장 큰 데,	君父爲大
하물며 또 지금에 이르러,	況又至今
군부가 갇히게 되었습니다. <sup>122)</sup>	君父被幽
천지의 망극한 애통을	窮天極地之痛
나라의 신민 된 사람으로서	爲國臣民
누가 감히 차마 잊을 수 있겠습니까	孰敢忍忘
생각건대 오직 선생만이	惟獨先生
충의로 세상을 덮고,	忠義蓋世
백번 죽을 것을 무릅쓰며,	冒忍百死
복종하여 마치셨습니다.	以服以終
춘추의 대의가	春秋大義
서리 눈과 함께 엄함을 다투고,	霜雪爭嚴
천지의 바른 경륜이	天地正經

119) 역책(易箒) : 스승이나 현인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책(箒)은 와상(臥床)의 깔개로서 증자(曾子)가 병환 중에 대부(大夫)의 신분에 걸맞은 화려한 깔개를 깔고 있었는데, 임종(臨終)할 당시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제자들로 하여금 깔개를 바꾸게 하고 죽은 데서 유래하였다.(《예기》 <단궁상(檀弓上)>)

120) 궁음(窮陰) : 음기(陰氣)가 짙어 찼다는 뜻으로, 10월을 가리키는 말이다. 여기서는 중의적(重意的)으로 쓰여, 조선 말기에 일본을 포함한 외세가 조선을 엿보고 있는 형국을 의미한다.

121) 장차 …… 될 것입니다 : 《주역》 복괘(復卦)에서 볼 수 있듯이 군자 또는 정의를 상징하는 양(陽)은 영영 소멸하는 법이 없어 반드시 소생한다는 의미이다.

122) 군부가 갇히게 되었습니다 : 고종의 아관파천을 의미한다.

일월과 함께 밝습니다.	日月并明
부음이 사방으로 통보되자,	通訃四方
만민이 애도하는데,	萬民興哀
우리 유자들에 있어서	其於吾黨
애통함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哀痛曷極
예월 <sup>123</sup> 에 임하니,	禮月以臨
이달의 초하루인데,	月之初吉
천지가 어두워지니,	天昏地黑
차마 해로가(薤露歌) <sup>124</sup> 를 들으리요	忍聽薤露
제가 비록 불민하지만,	余雖不敏
젊어서부터 가서 배우고자 하였는데,	早擬負芟
집이 가난하고 부모님이 연로하시어,	家貧親老
직접 배울 <sup>125</sup> 겨를은 없었습니다.	未假親炙
어찌 감히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安敢不學
의로움을 들으면 곧 복종하였지만,	聞義卽服
학문을 펴는 데 능하지 못하여,	宣學未能
아름다운 모습이 영원히 끊어졌습니다.	薇彩永絕
정의를 부축할 이 그 누구이며,	扶正其誰
삿됨을 배척할 이 그 누구이겠습니까.	斥邪其誰
추위의 위세가 심히 엄하니,	寒威甚嚴
관문을 닫고 <sup>126</sup> 몸을 가립니다. <sup>127</sup>	閉關掩身

123) 예월(禮月) : 신분에 따라 정해지는 정례하는 달을 말한다. 죽은 뒤 천자는 일곱 달, 제후는 다섯 달, 대부는 석 달, 선비는 한 달이 지나서 장사 지낸다.

124) 해로가(薤露歌) : 해로(薤露)는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만가(挽歌)를 말한다. 《고금주(古金注)》 중권(中卷) <음악(音樂)>에 이르기를 “해로는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소리이다. 전횡(田橫)의 문인(門人)에게서 나왔는데, 전횡이 자살하자 문인들이 슬퍼하여 그를 위해 비가(悲歌)를 지은 것으로, 사람이 목숨이 풀잎의 이슬방울같이 쉽게 사라지는 것을 노래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125) 직접 배울(親炙) : 친히 교화(教化)를 받들었다는 말로 《맹자(孟子)》에 “직접 배운 제자의 경우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況於親炙之者乎]”라고 하였다.

126) 관문을 닫고[閉關] : 《주역》 <복괘(復卦) 상(象)>에 “우리가 땅속에 있는 것이 복괘이니, 선왕이 이를 보고 동짓날에 관문을 닫아 행상하는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게 하며 후왕은 지방을 순찰하지 않는다.[雷在地中，復，先王以至日閉關，商旅不行，后不省方.]”라는 말이 나온다.

고요히 생각하니,	靜言思之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흐릅니다.	心隕涕零
오호통재라!	嗚呼痛哉
아들이 있고 손자까지 두었으니,	有子有孫
다시 어찌 한이 있겠습니까?	復夫何限
다만 한스러운 것은	所可恨者
석복 <sup>128)</sup> 하지 못한 데 있으니,	在未釋服
누가 태양 가리는 샷갓을 벗을 수 있겠습니까?	孰能脫蔽日之笠
누가 최구(衰疚)의 복을 풀겠습니까?	孰解衰疚之服
긴 밤의 천대(泉垓) <sup>129)</sup> 에서도	長夜泉垓
응당 이 옷을 입어야 하니,	應服是服
누군가는 편안하지 않다고 말하나,	誰謂未安
공에게는 편안한 것입니다.	公則所安
생각건대 응당 상쾌한 마음으로,	惟應情爽
신기(神祇) <sup>130)</sup> 와 짝할 것이니,	配神與祇
빠뜨리거나 미치지 앓음이 없이,	無遺不暨
남으로 서하(棲霞)를 넘고,	南逾棲霞
북으로 심양(溱陽)을 돌아올 것입니다.	北回溱陽
이것을 지나서 가면,	過此以往
박괘가 가고 복괘가 올 것입니다. <sup>131)</sup>	剝往復來
봄이 장차 저물어 가고,	春風將暮
봄옷이 이미 완성됨에,	春服既成
바람 쏘이고 읊으며 돌아오니,	風浴咏歸

127) 몸을 가립니다[掩身] : 깊고 조용한 곳에 몸을 은폐시켜 거처한다는 뜻으로, 《예기》 <월령(月令)>에 “동짓달에는 …… 해가 가장 짧고 음양이 서로 다투므로 인하여 모든 생물이 움직이어 싹트기 시작한다. 이런 때에 군자는 재계하여 근신하고, 반드시 깊고 조용한 곳에 거처하면서, 편안하게 지내도록 한다.[仲冬之月, …… 日短至, 陰陽爭, 諸生蕩. 君子齊戒, 處必掩身, 身欲寧.]”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128) 석복(釋服) : 상복을 벗음.

129) 천대(泉垓) : 천대(泉臺)나 천하(泉下), 천양(泉壤)과 같은 말로 황천 또는 무덤을 뜻한다.

130) 신기(神祇) : 천신(天神)과 지기(地祇)를 말한다. 지기는 국토신이다.

131) 박괘가 가고 복괘가 오니[剝往復來] : 박(剝)은 음도(陰道)가 극성한 때, 복(復)은 1양이 다시 생기는 때를 말한다.

증점과 같았습니다. <sup>132)</sup>	一如點也
부자께서 자리에 앉아 계시고	則夫子在座
안자와 증자가 앞뒤로 서 계시니, <sup>133)</sup>	顏曾後先
승당입실(升堂入室) <sup>134)</sup> 하여	升堂入室
함께 천명을 즐기셨습니다.	同爲樂天
선생에게 있어서는	其於先生
장차 여한이 없겠으나,	將無餘憾
안타깝게도 후학들은,	哀嗟後學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기대했습니까?	何依何附
오호통재래	嗚呼痛哉
감히 변변찮은 제수를 가지고	敢將菲薄
궤연에 임하여 곡하오니,	來哭几筵
밝으신 영령께서는 바라건대	明靈祁祁
강림하여 흠향하소서.	庶幾歆格

1916년 12월 17일. 경술. 맑음.

十七日。庚戌。陽。

1916년 12월 18일. 임자. 맑음.

十八日。壬子。陽。

132) 봄이 …… 같았습니다. : 공자가 제자들에게 각자의 포부를 물었을 때 자로(子路)·염유(冉有)·공서화(公西華)는 현실 정치와 관련된 뜻을 밝힌 데 반해 증점(曾點)은 “늦봄에 봄옷이 완성되면 어른 대여섯 사람과 아이 예닐곱 사람과 함께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우에서 바람 쐬고 노래하며 돌아오겠다.[莫春者, 春服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라고 하여 자연과 함께 하는 무욕의 경지를 말한 바 있다.(《논어》 <선진(先進)>)

133) 부자께서 …… 서 계시니 : 남당(南塘) 진백(陳柏)의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의 한 구절로, 해당 부분은 “이에 비로소 서책을 펼쳐 들고서 성현의 말씀을 마주 대하니, 부자께서 자리에 앉아 계시고 안자와 증자가 앞뒤로 서 있도록다.[乃啓方冊, 對越聖賢, 夫子在坐, 顏曾後先.]”라고 하였다.

134) 승당입실(升堂入室) : 당은 대청마루이고 실은 방이다. 도의 심오한 경지에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공자가 제자 자로의 경지를 두고 말하기를 “당에는 올랐고 아직 실에는 들어가지 못했다.[升堂矣, 未入於室也.]”라고 한 데에서 유래하였다.(《논어》 <선진(先進)>)

1916년 12월 19일. 계축. 맑음.

十九日。癸丑。陽。

1916년 12월 20일. 갑인. 맑음.

二十日。甲寅。陽。

1916년 12월 21일. 을묘. 맑음.

二十一日。乙卯。陽。

1916년 12월 22일. 병진. 유윤문(柳允文)에게 주다.

二十二日。丙辰。贈柳允文。

4년동안 친밀하게 지내며,  
백발이 자라남을 모두 잊었었지.  
이불을 나란히 하고 함께 쉬면서,  
한 탁자에서 각기 배를 채웠네.  
서로 인과 의를 권하며,  
다시 입신양명하기를 기대했지.  
헤어질 날 얼마남지 않으니,  
서글프게 아득한 산봉우리의 구름만 바라보네.

情好四年密  
渾忘白髮長  
連衾同宴息  
共卓各充腸  
相勸仁兼義  
更期立與揚  
不多分手日  
悵望嶺雲茫

477

1916년 12월 23일. 정사. 맑음. 우연히 읊다.

二十三日。丁巳。陽。偶吟。

청산은 가파르게 서 있고,  
백수는 넘실넘실 흐르네.  
이 속에서 한가하게 일 없으니,

青山岌岌立  
白水溶溶流  
這裏間無事

끊임없이 가고 오기를 마음대로 하네.

源源任去留

1916년 12월 24일. 무오. 흐림. 춥고 밤에 비가 왔다.

二十四日。戊午。陰。寒夜雨。

1916년 12월 25일. 맑음. 기미.

二十五日。陽。己未。

1916년 12월 26일. 경신. 맑음.

二十六日。庚申。陽。

1916년 12월 27일. 신유. 맑음.

二十七日。辛酉。陽。

1916년 12월 28일. 임술. 맑음.

二十八日。壬戌。陽。

1916년 12월 29일. 계해. 흐림.

二十九日。癸亥。陰。

1916년 12월 30일. 갑자. 맑음.

三十日。甲子。陽。



느낌이 있어서[有感]  
이태천(李泰川) 군수의 문천(問天)시 2수  
김세규가 아프다는 듣고 노래를 지어 꺾다[閔金世奎身恙 作歌而誘之](국한문)  
지은시를 외움 2수  
심 의(深衣)와 참쇠복(斬衰服) 재단  
조대(釣臺) 시를 읊다[詠釣臺韻]  
간재의 성사심제시  
영신단(靈神丹) 화제(和劑)  
간노의 시에 차운하여 짓다[用良老韻]  
간노의 시에 차운하여 짓다[用良老韻和吟]  
우부(愚賦) - 학포양선생문집(學圃梁先生文集)  
부제설(附祭說) - 예의속집(禮疑續輯)  
동지에게 보이다[示同志](文)  
일두선생시(一蠹先生詩) - 현주집(玄洲集)  
울곡이 우계에게 답한 설[栗谷答牛溪說] - 성학십도(聖學十圖)  
묘제축문(墓祭祝文) - 둔고집(菴臯集)  
인심도심도(人心道心圖)  
성학도(聖學圖)  
중하의 문명을 쓰다[用夏]  
소학도(小學圖)  
안자전수위인지도(顏子傳授爲仁之圖)  
용호가 심이택을 칭송한 시[龍湖頌沈履澤] - 용호(龍湖)  
향음주례인원(鄉飲酒禮人員)  
문성공 회현선생 신도비명(文成公晦軒先生神道碑銘) - 공영이(孔令貽)  
대학암(大學岩)  
태극설(太極說)





1917년 1월 1일. 을축. 흐리고 찬눈 내림. 세배 오는 손님을 맞이하고  
대접했다.

丁巳。正月。初一日。乙丑。陰雪寒。延接歲拜人。

1917년 1월 2일. 병인. 맑음. 오현(五絃)의 친산에 성묘를 했다.

二日。丙寅。陽。行五絃親山省墓。

1917년 1월 3일. 정묘. 흐림.

三日。丁卯。陰。

1917년 1월 4일. 무진. 맑음.

四日。戊辰。陽。

1917년 1월 5일. 기사. 맑음. 석양 무렵에 엄지순(嚴之淳)이 왔기에 일기  
를 내보이고 밤이 깊도록 얘기를 나누었다.

五日。己巳。陽。夕陽嚴之淳來，出示日記，夜深談話。

1917년 1월 6일. 경오. 맑음. 매우 추움. 평신(平新)<sup>1)</sup>의 작은딸이 왔다.

六日。庚午。陽。極寒。平新小女來。

1917년 1월 7일. 신미. 흐리고 추움.

七日。辛未。陰寒。

1917년 1월 8일. 임신. 맑고 찬바람 봄.

1) 평신(平新) : 현재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 평신기 마을에 해당된다.

八日。壬申。陽寒風。

1917년 1월 9일. 계유. 맑음. 반룡(盤龍)<sup>2</sup>리 김전(金銓)의 초상에 위문을 갔다.

九日。癸酉。陽。慰問盤龍金銓喪。

1917년 1월 10일. 갑술. 맑음. 도동(道洞)<sup>3</sup>리 추판모(秋判模)의 집에 위문을 갔다.

十日。甲戌。陽。慰問道洞秋判模。

1917년 1월 11일. 을해. 오전(梧田)<sup>4</sup>리 송달환(宋達煥)의 사랑에서 놀았다.

十一日。乙亥。遊於梧田宋達煥舍廊。

1917년 1월 12일. 병자. 덕진동(德振洞)의 생부 묘소에 성묘를 갔다가 그날로 돌아왔다.

十二日。丙子。行德振洞生庭親墓省楸，卽日還巢。

1917년 1월 13일. 정축. 맑음.

十三日。丁丑。陽。

1917년 1월 14일. 무인. 맑음.

十四日。戊寅。陽。

2) 반룡(盤龍) : 담양군 무면 반룡리로, 현재 담양군 담양읍 반룡리에 해당된다.

3) 도동(道洞) : 담양군 무면 도동리로, 현재 담양군 무정면 성도리 도동 마을에 해당된다.

4) 오전(梧田) : 담양군 수북면 오정리(梧亭里)가 있는데, 이곳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1917년 1월 15일. 기묘. 맑음. 신수를 점쳐서 <점괘(漸卦)> 구삼(九三)의 ‘큰기러기가 땅에서 날아오르다[鴻漸于陸]’를 얻었다. 옥과 가지봉의 생모 묘소에 성묘를 갔다가 석양 무렵에 김참봉 덕을 방문하여 선정(先正, 김인후)의 제사에 참사(參辭)하였다.

十五日。己卯。陽。占身數，遇漸九三，‘鴻漸于陸’。行玉果柯枝峯生庭慈親墓展拜，夕陽訪金參宅，參辭先正祭祀。

1917년 1월 16일. 경진. 맑음. 돌아오는 길에 신안동(新安洞)에 들어가 유숙했다.

十六日。庚辰。陽。回路入新安洞留宿。

1917년 1월 17일. 신사. 맑음. 밤에 눈이 내렸다. 인재(忍齋) 김인식(金璘植)의 궤연(几筵)에 곡을 하고 왔다.

十七日。辛巳。陽。夜雪。哭忍齋几筵來。

483

1917년 1월 18일. 임오. 맑음.

十八日。壬午。陽。

1917년 1월 19일. 계미. 맑음.

十九日。癸未。陽。

1917년 1월 20일. 갑신. 맑음. 밤에 눈이 내렸다.

二十日。甲申。陽。夜雪。

1917년 1월 21일. 을유. 흐리고 눈.

二十一日。乙酉。陰雪。

1917년 1월 22일. 병술. 맑음.

二十二日。丙戌。陽。

1917년 1월 23일. 정해. 맑음.

二十三日。丁亥。陽。

1917년 1월 24일. 무자. 맑음. 옥전(玉田)<sup>5)</sup>리의 김참봉 댁에 도착하였다.  
밤에 눈이 내렸다.

二十四日。戊子。陽。到玉田金參奉宅。夜雪。

1917년 1월 25일. 기축, 눈비가 필필 내렸다.

二十五日。己丑。雨雪霏霏。

1917년 1월 26일. 경인. 흐림.

二十六日。庚寅。陰。

1917년 1월 27일. 신묘.

二十七日。辛卯。

<느낌이 있어서>

有感

옛날의 향촌옹(香村翁)<sup>6)</sup>을 생각하니,

憶昔香村翁

5) 옥전(玉田) :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옥전 마을에 해당된다. 원래는 옥전(獄前)이었다.

6) 향촌옹(香村翁) : 김영숙(金永瑠, 1827~?)을 말한 듯하다. 자는(貫一), 호는 향촌(香村), 본관은 광산이다. 노사 기정진의 제자이며, 담양에서 살았다.

나에게 천질(天秩)7)의 가르침을 보였었지.  
 깨우침에 항상 능하지 못했으니,  
 어느 날에나 작은 효과를 볼까나.

示吾天秩教  
 得聞常未能  
 何日見微效

1917년 1월 28일. 임진. 흐리고 찬눈이 살짝 내림.  
 二十八日。壬辰。陰寒雪痕。

1917년 1월 29일. 계사. 흐리고 찬눈 내림.  
 二十九日。癸巳。陰雪寒。

1917년 1월 30일. 갑오. 흐리고 추움.  
 三十日。甲午。陰寒。

1917년 2월 1일. 을미. 맑음.  
 二月。初一日。乙未。陽。

1917년 2월 2일. 병신. 맑음.  
 二日。丙申。陽。

1917년 2월 3일. 정유. 맑음.  
 三日。丁酉。陽。

1917년 2월 4일. 무술. 맑음.  
 四日。戊戌。陽。

7) 천질(天秩) : 하늘의 질서, 즉 예법과 제도 등을 말한다.

1917년 2월 5일. 기해. 흐림. 듣자니 지난 정월 7일 밤에 혈우(血雨)가 태인과 금구 경계에 내렸다고 한다. 또 듣자니 중국 사람이 와서 하서 선생(河西先生)의 시를 전해주었다고 한다.

五日。己亥。陰。聞去正月初七日夜，血雨於泰仁金溝接界。又聞中原人來傳河西先生詩。

그대가 언젠가 주었던 것 생각나니,	憶君何所贈
한 개의 먹을 주었었지.	贈以一端墨
먹은 금강의 달로 변화되었으니,	墨化錦江月
달이 밝으면 달과 함께 생각나네.	月明共相憶

1917년 2월 6일. 경자. 흐림.

六日。庚子。陰。

1917년 2월 7일. 신축. 흐림.

七日。辛丑。陰。

1917년 2월 8일. 임인. 흐린 후 맑음. 구암촌(龜岩村)<sup>8)</sup>에 사는 송암(松庵)<sup>9)</sup>의 후예인 기백도(奇栢度)<sup>10)</sup> -자는 송우(松友)- 가 상면을 하고 갔다.

八日。壬寅。陰而陽。龜岩村松庵后裔奇栢度字松友，相面而去。

8) 구암촌(龜岩村) : 평주군 갈전면 구암리로, 현재 담양군 수북면 궁산리 구암 마을에 해당된다.

9) 송암(松庵) : 기정익(奇挺翼, 1627~1690)을 말한다. 자는 자량(子亮), 호는 송암(松巖), 본관은 행주로, 기효간의 고손이다. 송시열에게 학문을 배웠다. 유고에 《송암집》이 있다.

10) 기백도(奇栢度, 1863~?) : 자는 송우(松友), 호는 세한재(歲寒齋), 본관은 행주로, 기원(奇遠)의 후손이다. 아버지는 우관(宇觀)으로, 담양 수북에서 살았다.

1917년 2월 9일. 계묘. 맑음.

九日。陽。癸卯。

1917년 2월 10일. 갑진. 맑음.

十日。甲辰。陽。

1917년 2월 11일. 을사. 흐림.

十一日。乙巳。陰。

1917년 2월 12일. 병오. 흐림.

十二日。丙午。陰。

1917년 2월 13일. 정미. 맑음. 10일에 지곡(芝谷)에 도착하여 먼저 정감역(鄭監役) 댁에 들어갔는데, 주인의 이름은 이택(履澤)<sup>11)</sup>이고 자는 치은(稗殷)이다. 저녁밥을 먹은 후에 정팔원(鄭八源)<sup>12)</sup> -자는 공선(公善)- 의 사랑에서 잤다.

十三日。丁未。陽。十日到芝谷，先入鄭監役宅，主人名履澤字稗殷。夕飯後，宿於鄭八源字公善舍廊。

1917년 2월 11일. 벽서장(碧棲丈) -이름은 운오(雲五), 자는 경일(景一)- 을 방문했다.

十一日。訪碧棲丈名雲五字景一。

11) 정이택(鄭履澤, 1896~1944) : 자는 치은(稗殷), 본관은 연일로, 정철의 후손이자, 정해취(鄭海取)의 증손이다.

12) 정팔원(鄭八源, 1872~1943) : 자는 공선(公先), 본관은 연일로, 정철의 후손이자, 녹실 정해만(鄭海晩)의 아들이다.

1917년 2월 13일. 정윤원 -자는 영술- 의 사랑을 방문해서 머물렀다.  
밤에는 정진사 -이름은 공원, 자는 백술- 의 사랑에서 잤다.

十三日。訪鄭胤源，字永述，舍廊留連。夜宿於鄭進士，名公源，字伯述舍廊。

1917년 2월 14일. 정종원과 담화하고 함께 그 사랑에 들어가서 저녁밥을 먹었다.

十四日。與鄭琮源談話，同入其舍廊，夕飯。

1917년 2월 14일. 맑음. 갑술. 장동으로 돌아와 유숙하였다.

十四日。陽。甲戌。還樟留宿。

1917년 2월 15일. 기유. 맑음. 집에 돌아왔다. 밤에 비가 왔다.

十五日。己酉。陽。還巢。夜雨。

1917년 2월 16일. 경술. 흐림.

十六日。庚戌。陰。

1917년 2월 17일. 신해. 맑음.

十七日。辛亥。陽。

1917년 2월 18일. 임자. 맑음.

十八日。壬子。陽。

1917년 2월 19일. 계축. 맑음. 옥전(玉田)에 이르렀다.



十九日。癸丑。陽。到玉田。

1917년 2월 20일. 갑인. 저녁에 비가 옴. 용호(龍湖)와 함께 산천을 완상하다가 청단리(靑丹里)에 있는 부의당(扶義堂)<sup>13)</sup>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二十日。甲寅。夕雨。與龍湖，翫山川，到靑丹扶義堂，留宿。

1917년 2월 21일. 이튿날, 을묘. 박여삼(朴汝三)택을 방문하여 점심밥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이승덕(李承德) 덕암(德菴)택을 방문하여 유숙하였다.

翌日，乙卯。訪朴汝三宅，午飯後，回路，入李承德德菴宅，留宿。

1917년 2월 22일. 병진. 추움. 다시 연화동(蓮花洞)에 사는 족숙 인현(麟鉉)을 방문하고, 이어서 이지오(李枝午)를 방문하여 점심밥을 먹고 옥전으로 돌아왔다.

二十二日。丙辰。寒。轉訪蓮花洞族叔麟鉉，因訪李枝午，午飯而還玉田。

1917년 2월 23일. 정사. 맑음.

二十三日。丁巳。陽。

1917년 2월 24일. 무오. 맑음. 가잠(佳岑)<sup>14)</sup>에 가서 삼회(三悔) 강봉회(姜鳳會)의 병을 문안하고 오경(五卿)을 방문하여 유숙하였다.

二十四日。戊午。陽。作佳岑之行，問三悔姜鳳會之病，訪五卿留宿。

13) 부의당(扶義堂) : 곡성군 오산면 무후사(武侯祠) 내에 있는 강당 이름이다.

14) 가잠(佳岑) : 현재 전북 순창군 순창읍 가남리 가잠마을이다.

1917년 2월 25일. 기미. 흐리고 비. 고례(古禮)<sup>15)</sup>의 양계문(梁季文), 가잠에 사는 권교식(權喬植) 경세(卿世) · 권양식(權陽植) 경건(卿健) 등 수 삼명의 벗과 담론하고 놀았다.

二十五日。己未。陰雨。與古禮梁季文，佳岑權喬植卿世·陽植卿健數三友，談論而遊。

1917년 2월 26일. 경신. 흐림. 다시 갑동(甲洞)<sup>16)</sup>에 이르러서 한태수(韓泰洙)를 위문하고 그 조부 규섭(圭燮)씨와 함께 유숙하였다.

二十六日。庚申。陰。轉到甲洞，慰問韓泰洙，與其祖父圭燮氏，同留宿。

1917년 2월 27일. 신유. 옥전으로 돌아왔다.

二十七日。辛酉。還玉田。

1917년 2월 28일. 임술. 맑음. 목동(木洞)의 봉여(鳳汝)댁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二十八日。壬戌。陽。訪木洞鳳汝宅，以還。

1917년 2월 29일. 계해. 맑음.

二十九日。癸亥。陽。

1917년 윤2월 초1일. 갑자. 흐리고 비가 내린 흔적만 있었다.

閏二月。初一日。甲子。陰，雨痕。

15) 고례(古禮) : 현재 전북 순창군 금과면 고례리를 말한다.

16) 갑동(甲洞) : 현재 전북 순창군 인계면 갑동리를 말한다.

1917년 윤2월 2일. 을축. 흐림. 밤에 눈이 내림.

二日。乙丑。陰。夜雪。

1917년 윤2월 3일. 밤에 눈이 음. 병인. 흐림.

三日。夜雪。丙寅。陰。

1917년 윤2월 4일. 정묘. 흐림.

四日。丁卯。陰。

1917년 윤2월 5일. 무진. 맑음.

五日。戊辰。陽。

1917년 윤2월 6일. 기사. 맑음. 모모에게 유혹되어 나가서 놀다가 돌아왔다.

六日。己巳。陽。誘於□□，出遊而還。

1917년 윤2월 7일. 경오. 맑음.

七日。庚午。陽。

1917년 윤2월 8일. 신미. 맑음.

1917년 윤2월 9일. 임신. 맑음. 이태천(李泰川) 군수의 <문천(問天)>시를 기록하였다.

九日。壬申。陽。八日。辛未。陽。記李泰川郡守<問天>詩。

듣건대 도가 고명하면 조화옹이 시기하여,	聞道高明猜造翁
문장이 곤액을 겪고 대유가 궁해진다네.	文章困厄大儒窮
아름다운 꽃은 핀 뒤에 열매 맺기 어렵고,	好花開後難成實
큰 나무가 빼어날 때는 바람 맞기 쉽다네.	喬木秀時易受風
육유 <sup>17)</sup> 의 절개와 문천상 <sup>18)</sup> 의 충정을 하늘이 돕지 않았고,	陸節文忠天不佑
원빈 <sup>19)</sup> 은 가난하고 안회는 요절했으니 선에 공이 없구나.	原貧顏夭善無功
만약 이 설을 가지고 조물주에게 묻는다면,	若將此說問眞宰
조물주 역시 응당 대답하지 못하리.	眞宰亦應答未通

천지 사이에 조화옹이 함께하니,	天地之間造化翁
만수일본 <sup>20)</sup> 의 도가 어찌 끝이 있으랴	萬殊一本道何窮
봄에 낱고 가을에 숙살하며 우로가 윤택케 하고,	春生秋殺潤之雨
추위 가고 더위 오며 풍화가 열리네.	寒往暑來啓以風
맑거나 탁한 사물 각기 성명이 정해졌으니,	各定性命清濁物
공적의 유무가 그것을 만남에 달려있네.	適逢其會有無功
형적이 분명하니 어찌 번거롭게 물을 것인가.	昭然形迹何煩問
기는 본래 막히거나 트이고 이는 본래 통한다네.	氣自局泰理自通

1917년 윤2월 10일. 계유. 맑음.

- 
- 17) 육유(陸游, 1125~1210) : 남송의 시인. 자는 무관(務觀)이고 호는 방옹(放翁), 월주(越州) 산 음현(山陰縣) 사람이다. 북송이 망하자, 금에 대한 화친책을 반대하고 항전과 실지(失地)의 회복을 주장하였다. 중국의 대표적인 우국시인(憂國詩人)으로 추앙받고 있다.
- 18) 문천상(文天祥, 1236~1283) : 남송의 정치가. 자는 이선(履善), 호는 문산(文山), 길주(吉州) 여릉(廬陵) 사람이다. 원과 맞서 항전하다가 붙잡혀 원나라 대도에 이송되었으나, 3년 동안 굴복하지 않아서 사형되었다. 옥중에서 지은 정기가(正氣歌)가 유명하다.
- 19) 원빈(原賁) : 원헌(原憲)의 가난함으로, 청고(淸苦)하고 빈한(貧寒)하게 사는 선비를 가리킨다. 원헌은 공자(孔子)의 제자로, 노(魯) 땅에서 다 쓰러져가는 집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자로(子路)가 화려한 차림을 하고 원헌을 찾아가자, 원헌이 지팡이를 짚고 문에 나와 맞이하였다. 이에 자로가 “선생께서는 병이 들었습니까?” 하자, 원헌이 말하기를, “재산이 없는 것을 가난하다고 하고, 배우고서도 능히 행하지 못하는 것을 병들었다고 하는 것이다. 나는 가난한 것이 병든 것이 아니다.” 하니, 자로가 부끄러운 기색을 띠었다.(《장자》 <양왕(讓王)>)
- 20) 만수일본(萬殊一本) : 만물은 작용과 외양이 각각 다르지만 모두 일리(一理)에서 나왔다는 말이다. 정이(程頤)가 이 말을 처음으로 하였고, 이어 주자가 계승하여 확립시킨 개념이다.(《주자어류》)

十日。癸酉。陽。

1917년 윤2월 11일. 갑술. 맑음. 김세규의 신병에 마음이 답답하여 노래를 지어서 달렸다.

十一日。甲戌。陽。閔金世奎身恙，作歌而誘之。

노래마다 좋지만은 창랑곡 같겠는가.      歌詞마다도컨만는滄浪曲같은소나  
창랑곡 한 곡조를 그대 위해 불러볼까.      滄浪曲한곡조도음그디 위해불러볼가  
창랑도 자취하기로 하였으니,      滄浪도유이자취후에시니  
약 먹는 것도 조심하고, 몸도 삼가 하여 보소.      복약도도심하고근질후여보소

1917년 윤2월 12일. 을해. 맑음.

十二日。乙亥。陽。

1917년 윤2월 13일. 병자. 맑음.

十三日。丙子。陽。

1917년 윤2월 14일. 정축. 맑음. 김태규(金泰奎)가 틴을 내서 담배갑 종이로 요[襪]를 만들었다. (내가 경계하여 말하기를 “속언에 이르기를 ‘비단 수놓은 것은 여자가 옷만드는 데 방해가 되고, 깎고 새기는 것은 농사일에 해롭다.’는 말이 있다.”라고 하였다.

十四日。丁丑。陽。金泰奎乘間，以煙匣紙作襪，戒之曰，“諺云纂繡妨女衣，雕琢害力農。”

1917년 윤2월 15일. 무인. 흐림. 조금 비가 오고 바람이 분. 이학용(李學庸)이 왔다. 내가 지은 시를 외었다.

十五日。戊寅。陰。少雨風。李學庸來。誦所作詩。

이 세상에 늦게 태어나 머리를 굽적이다가,  
낙엽진 차가운 성에 근심만 더하네.  
장대한 뜻은 단서 없이 세월만 보내고,  
충의한 마음은 뜻이 있어 춘추를 이야기 하네.  
송백은 비록 말라도 오히려 우뚝 서 있고,  
강물은 만 번 꺾여도 결국 동쪽으로 흘러간다.  
제수와 유수의 흠탕물은 맑아질 곳 없으니,  
다만 누구를 기다려 주나라를 숭상하리.

晩生此世費搔頭  
落木寒城更添愁  
壯志無端經歲月  
忠肝有意談春秋  
松柏雖枯猶特立  
江漢萬折竟東流  
塵寰濟洧無澄處  
第待何人獨尊周

<또 읊다>

청명한 밤 눈 속에 머리 돌리고,  
홍중에 쌓인 만고의 근심 다 쏟아낸다.  
사람이 어찌 은나라의 일월을<sup>21)</sup> 잊겠으며,  
누가 노나라의 춘추를 읽을 수 있겠는가.  
선왕이 거처했던 곳에서 마음이 찢어지니,  
천지를 돌아봄에 눈물만 질로 흐르는구나.  
군신의 대의를 개미가 먼저 지키나니<sup>22)</sup>,  
원컨대 백성들은 모두 주나라를 존숭할지어다.

次

晴明時夜雪回頭  
寫盡胸中萬古愁  
人豈放忘殷日月  
孰能容讀魯春秋  
先王啓處心若裂  
回首乾坤淚自流  
君臣大義蟻先守  
願衆蒼生共尊周

1917년 윤2월 16일. 기묘 맑고 바람.

21) 은나라의 일월 : 고인의 시(詩)에도 “수양산 가운데 은나라의 해와 달이라.[首陽山中殷日月]”라고 하였으니, 아마도 은나라의 일월(日月)은 서구와 일본에 휩싸인 조선의 처지를 빗대어 이른 듯하다. 즉 천하가 서구 문명으로 바뀌어 가더라도 조선만이 유독 대명(大明)의 해와 달을 떠받들고 있다는 것이다.

22) 군신의 …… 지키나니 : 개미에게 군신(君臣)간의 의리가 있다는 데서 온 말이다. 《중용혹문(中庸或問)》 상권(上卷)에 “범과 승냥이에게 부자간의 친함이 있고, 벌과 개미에게 군신간의 의리가 있고, 승냥이와 수달이 조상에게 제사할 줄을 알고, 징경이에게 암수의 분별이 있는 것으로 말하자면, 그 형기가 한편으로 치우친 반면에 또 의리의 얻은 바를 보존한 것이 있다.[至於虎狼之父子, 蜂蟻之君臣, 豺獮之報本, 雉鳩之有別, 則其形氣之所偏, 又反有以存其義理之所得.]”라고 하였다.

十六日。己卯。陽風。

1917년 윤2월 17일. 경진. 맑음.

十七日。庚辰。陽。

1917년 윤2월 18일. 신사. 흐림.

十八日。辛巳。陰。

1917년 윤2월 19일. 임오. 맑음.

十九日。壬午。陽。

1917년 윤2월 20일. 맑음.

二十日。癸未。陽。

495

1917년 윤2월 21일. 갑신. 흐리고 비. 김태규(金泰奎)와 함께 심의(深衣)<sup>23)</sup>와 참취복(斬衰服)을 재단하였다.

二十一日。甲申。陰雨。與金泰奎，裁度深衣與斬衰服。

심의(深衣)는 백세포(白細布)로 만드는데, 포의 너비는 1척 8촌이다.

深衣以白細布爲之，布廣一尺八寸。

신척(身尺)으로 하는 것은 같으며, 왼손 가운데 손가락을 손바닥 중심

23) 심의(深衣) : 조선 시대 유학자들이 입던 옷으로 머리의 복건과 함께 착용하였다. 흰 비단으로 소매를 넓게 하여 옷깃, 소매 끝, 옷단에 검정색 선을 둘렀다. 허리에는 띠를 두르고 오색의 띠를 늘어뜨렸다. 이 옷은 중국 고대에서부터 있었던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중국 송나라로부터 주자학과 더불어 전해졌다. <예기> 39 <심의(深衣)>에 그 제도가 나와 있다.

에 굽혀서 닿게 하여 그 가운데 마디를 취하며, 양쪽 가로 무늬를 머리로 해서 잰다.

同身尺，令其左手中指，屈着掌心，取其中節，兩橫紋頭爲度。

옷의 길이는 1척 8촌 3푼으로 하는데, 앞뒤가 모두 2폭이다.

衣長一尺八寸三分，前後皆二幅。

매(袂, 소매자락)의 길이는 1척 8촌 3푼이고, 거(袪, 소매부리)는 곧 소매 끝에 1촌 반을 별도로 붙이는데, 거는 각각 2폭이다.

袂長一尺八寸三分，袪卽袂口一寸半別付，袂各二幅。

치마의 길이는 3척 6촌 6푼으로 좁은 곳은 6촌이고 넓은 곳은 1척 2촌인 것이 12폭이다.

裳長三尺六寸六分，狹頭六寸，闊頭一尺二寸者，十二幅。

옷깃은 4척인데 중간을 구부리면 2척이며, 넓이는 8촌이고 접으면 4촌이 된다. 옷깃 좌우 어깨 위에 각각 4촌을 재단해 넣는데, 너비는 1척 2촌이다. 진동이다.

曲袷四尺，中屈則二尺，廣八寸，疊之則四寸。襟左右肩上，裁入各四寸，裕一尺二寸。진동。

속임(續衽)<sup>24)</sup>은 1척 4촌 3푼을 넉넉하게 서로 바라보게 하여 두 조각으로 나누고 내외 옷깃으로 삼는다.

續衽一尺四寸三分，有餘相望，割之爲二片，爲內外衽。

24) 속임(續衽) : 옷깃을 잇는 것을 말한다.



단은 3촌으로, 중간을 구부리면 안팎이 모두 1촌 반이다.

緣三寸，中屈則表裏皆寸半。

옷깃 단은 4촌으로, 중간을 구부리면 안팎이 2촌이다.

襟緣四寸，中屈則表裏二寸。

1917년 윤2월 22일. 을유. 맑음. 광주(光州) 황계(黃溪)에 사는 이일상(李一相) -자는 성도(聖道)이고, 호는 회룡광인(晦弄廣人)- 이 왔다가 갔다.

二十二日。乙酉。陽。光州黃溪李一相，字聖道，號晦弄廣人，來而去。

1917년 윤2월 23일. 병술. 흐리고 비.

二十三日。丙戌。陰雨。

497

1917년 윤2월 24일. 정해. 맑음.

二十四日。丁亥。陽。

1917년 윤2월 25일. 무자. 맑음. 집에 돌아왔다.

二十五日。戊子。陽。歸巢。

1917년 윤2월 26일. 기축. 맑음.

二十六日。己丑。陽。

1917년 윤2월 27일. 경인. 맑음.

二十七日。庚寅。陽。

1917년 윤2월 28일. 신묘 맑고 바람. 옥전(玉田)으로 돌아왔다.

二十八日。辛卯。陽而風。還玉田。

1917년 윤2월 29일. 임진. 맑음.

二十九日。壬辰。陽。

1917년 3월 1일. 계사. 맑음.

三月。初一日。癸巳。陽。

1917년 3월 2일. 갑오. 맑음.

二日。甲午。陽。

1917년 3월 3일. 을미. 맑음.

三日。乙未。陽。

1917년 3월 4일. 병신. 맑음. 《둔고집(菴臯集)》을 보았다. 공의 이름은 정휴(鼎休)이고, 자는 원실(元實)이며, 성은 박씨(朴氏)로 충원인(忠原人)이다. 그의 선조 늘재(訥齋) 선생은 휘가 상(祥)으로 중종(中宗) 성세에 명절(名節)과 직도(直道)로 자임하였으니, 육봉(六峯)<sup>25</sup>의 형이자 사암(思菴)<sup>26</sup>의 숙부였다.

둔고는 석남(石南) 송달수(宋達洙)와 서신을 왕복하였는데, 석남이 《논어》의 ‘공호이단(攻乎異端)<sup>27</sup>’의 ‘공(攻)’자의 뜻을 ‘위지(爲之)’

25) 육봉(六峯) : 박우(朴祐)로, 사암(思菴) 박순(朴淳)의 아버지이다.

26) 사암(思菴) : 박순(朴淳, 1523~1589)의 호이며, 자는 화숙(和叔), 본관은 충주,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1553년(명종8) 정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렀다. 극심한 동서당쟁 속에서 이이(李珣)·성혼(成渾)을 두둔하다가 서인으로 지목되어 탄핵을 받고 영평 백운산(白雲山)에 은거하였는데, 묘소가 이곳에 있다.

나 ‘수치(修治)’와 같다고 여겼다. 또 말하기를 “다만 자신의 학문이 정립된 후에는 비록 다른 책을 약간 보더라도 반드시 해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에 둔고가 말하길 “공호이단의 뜻은 《손재집(遜齋集)》》28)에 대략 분별한 것이 있으니, 이것을 읽어보면 대개를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에 나는 이 공(攻)자가 ‘자기의 악한 것을 다스리고 남의 악을 다스리지 않는다.[攻其惡, 無攻人之惡]’29)는 ‘공(攻)’자와 뜻이 같다고 생각한다. 대개는 자신에 대한 책망을 후하게 하고 남에 대한 책망을 적게 한다는 뜻이다. 내 뜻이 둔고보다는 나은 것 같다.

四日。丙申。陽。看《菴臯集》。公諱鼎休，字元實，姓朴氏，忠原人。其先訥齋先生，諱祥，中廟盛際，以名節直道自任，六峯之兄，思菴之叔。菴臯與石南宋先生諱達洙往復，石南以爲《論語》‘攻乎異端’之攻字義，猶爲之也，猶修治也。又曰，“但自家學有定止，則雖或略看他書，不必爲害。”菴臯曰，“攻乎異端之義，《遜齋集》略有所辨。覽此則概可想矣。”而愚以爲此攻字，與‘攻其惡，無攻人之惡’之攻字義同。蓋躬自厚而薄責於人之意也。鄙意菴臯似優。

27) 공호이단(攻乎異端) : 《논어》 <위정(爲政)>의 ‘공호이단(攻乎異端)’을 풀이하는 데에는, ‘이단을 전공하만이라고 하는 경우와 ‘이단을 공격하만이라고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논어정의(論語精義)》 주석에, 여씨가 “군자는 상도(常道)로 회복할 뿐이니, 상도가 바르면 사특함이 없다. 지금 이단을 미워하면서 힘써 그것을 공격한다면 자신을 해치기에 마침맞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28) 손재집(遜齋集) : 박광일(朴光一, 1655~1723)의 문집이다. 자는 사원(士元), 호는 손재(遜齋), 본관은 순천(順天)이다. 사헌부장령 박상헌(朴尙憲)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장택고씨(長澤高氏)로 고부민(高傅敏)의 딸이다. 송시열(宋時烈)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권상하(權尙夏)·정호(鄭澍) 등과 교유하며 학문연구에 힘썼고, 왕명으로 경적(經籍)의 대전(大全)을 교증하였고 또 주역고경을 교정하였다. 진천사(眞天祠)·남강사(南康祠)에 봉향되었다.

29) 자기의 …… 않는다 : 《논어》 <안연(顔淵)>에 공자가 “자기의 악을 다스리고 남의 악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간특함을 닦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루아침의 분노로 자신을 잊어서 화가 부모에게까지 미치게 한다면 의혹됨이 아니겠는가.[攻其惡, 無攻人之惡, 非修惡與. 一朝之忿, 忘其身, 以及其親, 非惑與?]”라는 말이 나온다.

1917년 3월 5일. 정유. 맑음.

五日。丁酉。陽。

1917년 3월 6일. 무술. 맑음.

六日。戊戌。陽。

1917년 3월 7일. 흐리고 비가 종일 내렸다.

七日。己亥。陰雨終日。

1917년 3월 8일. 흐림. 반향(半餉)<sup>30)</sup>쯤 비가 오다 오후에는 개었다. 둔고(菴臯)는 곧 동춘(同春, 송준길)의 후예인 금곡산림(錦谷山林) - 휘는 내희(來熙)이고, 자는 자칠(子七)- 의 문인이다. 문답에, “‘제사를 지낼 때 조상이 계시는 듯 신이 있는 듯 하였다’<sup>31)</sup>의 지극히 정미한 곳은 필설(筆舌)로 다하기 어렵다. 그러나 대개 사람이 죽은 뒤 기가 이미 흠어진 것은 이미 변화되어서 남아 있지 않지만, 천지에 충만한 기는 일찍이 변화되어도 남아 있지 않음이 없다. 사람이 죽어서 이미 변화한 기는 혹 천지의 기와 서로 감응함이 있어서 없는 가운데 타는 것이 있으니, 또한 자손들의 정신과 상관된다. 제사에 정성과 공경을 다 하면 감응의 이치가 없을 수 없다. 대략 이와 같으나 감히 자신할 수는 없다.”<sup>32)</sup>라고 하였다.

八日。庚子。陰。半餉雨，午後晴。菴臯，乃同春后裔，錦谷山林，諱來熙，字子七，門人。問答，“如在如神在，極精微處，難以盡形於筆舌，而

30) 반향(半餉) : 1향은 식사하는 시간, 반향은 짧은 시간을 말한다.

31) 제사를 …… 듯이 하였다 : <논어> <팔일(八佾)>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는 조상이 계신 듯이 하였고, 신을 제사 지낼 때에는 신이 계신 듯이 하였다.[祭如在，祭神如神在]”라고 하였다.

32) 있는 듯이 …… 수는 없다 : 위 내용은 <금곡집> 권5 <답박정휴논어문목(答朴鼎休論語問目)>에서 ‘팔일(八佾)’에 관한 내용의 일부분이다.

盖人死之氣已散者，既化無有，而天地之充滿之氣，未嘗化而無有也。人死既化之氣，或有相感於天地之氣，而無中乘有，則亦可相關於子孫之精神。祭致誠敬，未可無感應之理也。大略如此，而未敢自信。”

1917년 3월 9일. 신축. 맑음. 조대(釣臺) 시를 읊다.

九日。辛丑。陽。詠釣臺韻

시내 가에 암벽 있고 암벽 위에 대(臺) 있으니,	溪上有巖巖上臺
하늘이 주신 것을 주인이 열었다네.	皇天錫以主人開
길은 울리 <sup>33)</sup> 의 중앙절 국화와 통하고,	路通栗里重陽菊
기러기는 소상강 <sup>34)</sup> 양 언덕의 이끼 끌어오네.	鴈引瀟湘兩岸苔
달빛은 엄자릉 <sup>35)</sup> 의 부춘산에 가득하고,	月規嚴子富春滿
구름은 강태공 <sup>36)</sup> 이 사는 위수로부터 온 것이라.	雲自大公渭水來
오직 한 가닥 낚싯줄이 참으로 애석하니,	惟釣一絲眞可惜
한나라 구정을 지키기 어려워 홀로 시름 하누나. <sup>37)</sup>	保難漢鼎獨愁哉

1917년 3월 10일. 임인. 맑음.

十日。壬寅。陽。

- 33) 울리(栗里) : 울리는 진(晉)나라 도연명(陶淵明)이 살았던 마을 이름으로, 그의 별칭으로 쓰이게 되었다.
- 34) 소상강(瀟湘江) : 소상강은 중국 남쪽 동정호(洞庭湖)로 흘러 들어가는 강 이름이다. 순(舜) 임금의 두 아내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이 남쪽 지방을 순행하다 죽은 순 임금을 소상강에서 애타게 그리며 통곡하다가 물에 빠져 자살했다는 전설이 있다.
- 35) 엄자릉(嚴子陵) : 후한(後漢)의 은자인 자릉(子陵) 엄광(嚴光)을 말한다. 어릴 때 광무제(光武帝)의 친구였는데, 광무제가 즉위하자 변성명(變姓名)하고 숨어 사는 것을, 광무제가 찾아 간 의대부(諫議大夫)를 제수하였으나 사양하고 부춘산(富春山)에 은거하였다.(《후한서》 권83 <일민열전(逸民列傳)·엄광(嚴光)>)
- 36) 태공(太公) : 태공은 태공망(太公望) 여상(呂尙)을 가리킨다. 그는 위수(渭水) 물가의 반계(磻溪)에서 낚시질하다가 문왕(文王)을 처음 만나 사부(師傅)로 추대되었고, 뒤에 문왕의 아들인 무왕(武王)을 도와서 은(殷)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평정하였다.
- 37) 오직 …… 하누나 : 명나라 장무(章懋)가 지은 《풍산어록(楓山語錄)》의 ‘동강의 한 가닥 낚싯줄이 한나라의 구정을 부지하였네.[桐江一絲扶漢九鼎]’라는 말을 원용한 것이다. 동강은 중국 엄주(嚴州)에 있는 물이름으로 엄광(嚴光)이 이곳에서 은거하면서 낚시질한 곳이다.

1917년 3월 11일. 맑음. 해남 호동(虎洞)<sup>38</sup>에 사는 김준환(金準煥) - 호는 하운(河雲), 본관은 울산(蔚山)- 이 왔다.

十一日。癸卯。陽。海南虎洞金準煥，號河雲蔚山人來。

1917년 3월 12일. 갑진. 맑음. 지곡(芝谷)에 사는 정운원(鄭崙原)이 왔다.

十二日。甲辰。陽。芝谷鄭崙原來。

1917년 3월 13일. 을사. 천둥번개 치다가 맑음. 어제 산에 오르고 물가에 이르렀다가 기동(基洞)<sup>39</sup>으로 들어가 잠시 다리를 쉴 겸 서실에 들어가니, 주인은 심중운(沈鍾運)<sup>40</sup>으로 자는 자화(子和)이다.

十三日。乙巳。雷震陽。昨日登山臨水，漸入於基洞，歇脚次入書室，主人乃沈鍾運字子和也。

1917년 3월 14일. 병오. 흐림. 비 올 기미로 구름 끝이 검었다.

十四日。丙午。陰。雨意雲端黑。

1917년 3월 15일. 정미. 흐리고 비.

十五日。丁未。陰雨。

1917년 3월 16일. 무신. 흐리고 비.

十六日。戊申。陰雨。

38) 호동(虎洞) : 현재 해남군 황산면 호동리를 이른다.

39) 기동(基洞) : 현재 곡성군 옥과면 송전리 기동마을을 이른다.

40) 심중운(沈鍾運) : 자는 자화(子和), 호는 설초(雪樵), 본관은 청송(靑松)으로, 아버지는 원규(遠奎)이다. 어렸을 적에는 가난하여 고생스럽게 열심히 학업을 하였다. 자라서는 서울에서 노닐었는데, 시사(時事)를 보고 물러나 돌아와서는 뜻을 기르고 스스로를 다스리면서 죽을 때까지 세상에 나가지 않았다.

1917년 3월 17일. 기유. 맑다가 밤에 비가 왔다.

十七日。己酉。陽夜雨。

1917년 3월 18일. 경술. 흐리고 비가 내렸으며, 우박이 떨어졌는데 콩만 하였다.

十八日。庚戌。陰雨，雹粒如太。

1917년 3월 19일. 신해. 맑음.

十九日。辛亥。陽。

1917년 3월 20일. 임자. 맑음.

二十日。壬子。陽。

1917년 3월 21일. 계축. 맑음. 금산리(金山里)<sup>41</sup>)에 사는 주서 정해두(鄭海斗)씨가 왔다.

二十一日。癸丑。陽。金山里鄭奏書海斗氏來。

1917년 3월 22일. 갑인. 흐림. 용호(龍湖)에 사는 설옥(雪屋) 박병관(朴炳觀)과 함께 산천을 소요하다가 합강정(合江亭)<sup>42</sup>)의 상곡(上谷)에 사는 박희숙(朴希叔)의 새집에 도착했고, 돌아서 희숙(希叔) -박채규(朴彩圭)- 의 집에 들어가 자고 돌아왔다.

二十二日。甲寅。陰。與龍湖雪屋【朴炳觀】，作伴逍遙山水間，到合江

41) 금산리(金山里) : 전남 곡성군 입면 금산리를 이른다. 금산은 金山에서 琴山으로 한자표기가 바뀌었다.

42) 합강정(合江亭) : 전남 곡성군 옥과면(玉果面) 합강리(合江里)이다. 합강리의 원래 이름은 합강정(合江亭)리 였는데, 원래 이 마을에 합강정이라는 정자가 있었다고 한다.

亭上谷朴希叔新基, 而轉入希叔【朴彩圭】家, 留宿而還。

1917년 3월 23일. 을묘. 아침이 되어 일어나 밤에 비가 온 흔적을 보았다. 흐림. 옥전(玉田)으로 돌아왔다.

二十三日。乙卯。朝來起, 視有夜雨之痕。陰。還玉田。

1917년 3월 24일. 병진. 맑음.

二十四日。丙辰。陽。

1917년 3월 25일. 정사. 맑음.

二十五日。丁巳。陽。

1917년 3월 26일. 무오. 맑음.

二十六日。戊午。陽。

1917년 3월 27일. 기미. 맑음. 동쪽에서 우레소리가 들리고 때맞은 비가 올 조짐이 있었다. 옥과 하청(下靑)<sup>43)</sup>에 사는 전재형(全在衡) -본관은 천안(天安), 자는 평부(平夫)-이 옆에서 독서 하다가 말이 간재 노인(艮齋老人, 전우)의 시에 미쳤다.

二十七日。己未。陽。有東方雷聲, 時雨之象。玉果下靑全在衡【天安人】, 字平夫, 在傍讀書, 語及艮老詩。

돌아가 구함에 성사(性師)가 있고

歸求有性師

겸허하게 받는 것은 심제(心弟)로 말미암네.

虛受由心弟

이 이치는 오묘하여 남음이 없으니,

斯理妙無餘

43) 하청(下靑) : 곡성군 화면 연화리 하청마을로, 현재는 곡성군 오산면 연화리에 해당함.



모름지기 철저히 궁구함에 달렸다네.

在須窮到底

어린 아이에게 자라배[鰲腹]<sup>44)</sup> 증상이 있어 약을 써서 다스렸는데 그것을 기록해둔다.

有小兒鰲腹，和劑記之。

영신단(靈神丹)

인삼(人蔘) 1돈 5푼[分]

해분(海粉) 1돈

건칠(乾柒)

사군자(使君子)<sup>45)</sup>

현호색(玄胡索)

홍령사(紅靈砂)<sup>46)</sup>

황단(黃丹)<sup>47)</sup> 각 7푼(分)

靈神丹

人蔘 一錢五分

海粉 一錢

乾柒

使君子

44) 자라배[鰲腹] : ‘별복(鰲腹)’이라고도 부르는 이것은 어린아이에게 생기는 병의 하나로, ‘지라가 부어 배속에 자라(鰲) 모양의 멍울이 생기며, 열이 심하게 올랐다 내렸다 하여 몸이 점차 쇠약해 지는 병이다. ‘별학(鰲虐)’, ‘복학(腹虐)’, ‘지벌거지’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45) 사군자(使君子) : 인도가 원산지이며, 중국 남부와 열대지방에서 자라고 있다. 사군자란 말은 중국의 어느 지방에서 곽사군(郭使君)이라는 사람이 이 약 하나로 어린아이의 질환을 많이 치료하였다고 하여 후세의 의가가 붙인 것이다.

46) 홍령사(紅靈砂) : 수은과 유황을 섞어 가열하여 만든 약으로, 그 섞은 비율에 따라 영사(靈砂), 이기사(二氣砂), 홍영사 등으로 불린다.

47) 황단(黃丹) : 납을 가공하여 만든 약재. 전간(癩癩), 경계(驚悸) 따위에 쓰인다.

玄胡索

紅靈砂

黃丹 各七分

위의 것들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 빈속에 복용한다. 5푼쫘[分重]씩 곡정수(穀精水)<sup>48</sup>에 타서 복용하기를 6~7달을 계속한다.

右, 細末空心服。五分重式, 穀精水調服, 連用六七朔。

1917년 3월 28일. 경신. 맑음. 가지봉 친어머님의 묘에 성묘하러 갔다.  
二十八日。庚申。陽。作柯枝峰生母之墓, 省行。

1917년 3월 29일. 신유. 맑음.  
二十九日。辛酉。陽。

506

1917년 3월 30일. 임술. 맑음.  
三十日。壬戌。陽。

1917년 4월 1일. 계해. 흐림. 처사(處士) 유중교(柳重教)<sup>49</sup>의 편지를 보았다. 《춘추(春秋)》 필법을 인용하여 ‘이적의 도가 있으면 이적이다.’라는 말과 ‘중하(中夏)가 현재 이적의 상황에 있으면 이적의 상황에 알

48) 곡정수(穀精水) : 밥물. 밥을 지을 때 쌀 따위의 양에 맞추어 솥이나 냄비에 붓는 물. 또는 밥이 끓을 때 넘쳐흐르는 걸쭉한 물을 가리킨다.

49) 유중교(柳重教, 1832~1893) : 초명은 맹교(孟教), 자(字)는 치정(棼程), 호는 성재(省齋), 본관은 고흥(高興)이다. 아버지는 진사 유조(柳皐)이며, 어머니는 한산이씨(韓山李氏)로 이회복(李義復)의 딸이다.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 1792~1868)의 문인으로, 이항로의 사후에는 김평묵(金平默, 1819~1891)을 스승으로 섬겼다. 저서로는 《성재집》(省齋集)이 있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맞게 처신한다.<sup>50)</sup>의 주(註)에 “공자와 같은 경우 구이(九夷)에 살고자 하였으니, 군자가 거처한다면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sup>51)</sup>라고 한 의미를 참고하고 고증하여 헤아려보니, 고도(古道)를 바꾸지 않아야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四月。初一日。癸亥。陰。見處士柳重教書。引春秋法，‘有夷道則夷之’之言，與‘中夏素夷狄，行乎夷狄’，註“如孔子，欲居九夷，君子居之，何累之有？”之義，參互考訂忖度，則不變古道，無愧於心。

1917년 4월 2일. 갑자. 집으로 돌아왔다. 길을 돌아 연화동(蓮花洞)의 이승희(李承熙) -자는 지오(止五), 호는 목암(穆菴)- 댁에 들어갔다. 《주서백선(朱書百選)》을 보았다. 주부자가 양지인(楊志仁)에게 답한 편지에 “요컨대 이(理)라는 글자는 유무(有無)로 논해서는 안 된다. (이는) 천지가 아직 생겨나지 않았을 때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였다.

507

四月二日。甲子。還巢。路轉入於蓮花洞李承熙，字止五，號穆菴宅。看《朱書百選》。朱夫子答楊志仁書，“要之理之一字，不可以有無論。未有天地之時，便已如此了也。”

1917년 4월 3일. 을축. 맑음. 간노(艮老, 전우)의 시에 차운하여 짓다.

50) 중하(中夏)가 …… 처신한다: 《중용장구》 제14장에 “군자는 현재 처한 위치에서 알맞게 행동할 뿐이요, 그 이외의 것은 바라지 않는다. 현재 부귀하면 부귀한 처지에 알맞게 행동하고, 현재 빈천하면 빈천한 처지에 알맞게 행동하며, 현재 이적(夷狄)의 가운데에 있으면 이적의 상황에 알맞게 처신하고, 현재 환난 속에 있으면 환난의 상황에 알맞게 처신한다. 따라서 군자는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던 간에 자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는 것이다.[君子素其位而行，不願乎其外。素富貴，行乎富貴，素貧賤，行乎貧賤，素夷狄，行乎夷狄，素患難，行乎患難，君子無入而不自得焉.]”라는 말이 나온다.

51) 공자가 …… 있겠는가: 공자께서 구이에 살려고 하시니, 혹자가 말하기를 “그곳은 누추하니,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였다. 이에 공자가 대답하기를 “군자가 거처한다면 무슨 누추함이 있겠는가.[君子居之，何陋之有?]”라고 하였다.(《논어》 자한(子罕))

三日。乙丑。陽。用良老韻

성은 천명을 받아 스승이 되고	性爲受命師
심은 가르침 받드는 제자라네.	心是承教弟
생지이지(生而知之) 이하 <sup>52)</sup> 의 재주는,	生知以下才
도문학 <sup>53)</sup> 을 해야하네.	道問學來底

1917년 4월 1일. 계해. 맑음.<sup>54)</sup>

四月。初一日。癸亥。陽。

1917년 4월 2일. 갑자. 맑음. 집으로 돌아왔다. 길을 돌아 연화동(蓮花洞)의 이승희(李承熙)댁에 들어갔다. 《주서백선(朱書百選)》을 보았는데, 부자가 양지인(楊志仁)에게 보낸 편지에 “요컨대 이(理)라는 글자는 유무(有無)로 논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기록한다. 그날 집으로 돌아왔다.

二日。甲子。陽。歸巢。四月二日。甲子。歸巢。路轉入於蓮花洞李承熙宅。覽《朱書百選》，夫子與楊志仁書，曰“要之理之一字，不可以有無論。”，記之。即日歸家。

1917년 4월 3일. 을축. 맑음. 계속해서 머물렀다.

三日。乙丑。陽。留連。

52) 생지이지(生而知之) : 《중용장구(中庸章句)》에 “어떤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알고, 어떤 이는 배워서 알고 또 어떤 이는 많은 노력을 한 뒤에야 안다.[或生而知之, 或學而知之, 或困而知之.]”라는 말이 있다.

53) 도문학(道問學) : 《중용장구(中庸章句)》 제27장에 “군자는 덕성을 존중하고 학문을 연구한다.[君子尊德性而道問學]”라는 말이 나온다. 도문학은 학문을 익히는 것이며 존덕성(尊德性)은 인간의 덕성을 높이는 것으로, 도문학 공부는 지(知)에, 존덕성 공부는 행(行)에 해당한다.

54) 1917년 4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는 일기가 중복 기재되어 있다.

1917년 4월 4일. 병인. 맑음. 옥과의 옥전(玉田)으로 돌아왔다. 간노(良老, 전우)의 시에 차운하였다.

四日。丙寅。陽。還玉果玉田。用良老韻和吟。

성은 천명을 받아 스승이 되고,	性爲受命師
심은 가르침을 받드는 제자라네.	心是承教弟
생이지지(生而知之) 이하의 재주는,	生知以下資
도문학을 하여야 하네.	道問學來底

1917년 4월 5일. 정묘. 맑음.

五日。丁卯。陽。

1917년 4월 6일. 무진. 맑음. 이창하(李昌夏)가 왔다.

六日。戊辰。陽。李昌夏來。

509

1917년 4월 7일. 기사. 맑음. <간옹[간재 전우]이 제생(諸生)에게 윤시(輪示)한 편지>를 보았는데, “소주(小註)에 주자 말하기를, ‘천지지성이란 오로지 이(理)를 가리켜 말한 것이고, 기질지성이란 이와 기를 섞어서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인생이정(人生而靜)<sup>55)</sup>은 이미 형기(形氣)을 낀 것이고, 맹자가 말한 성선(性善)은 곧 기질을 겸한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七日。己巳。陽。看<良翁輪示諸生書>。“小註 朱子曰 ‘天地之性，專指理而言，氣質之性，以理雜氣而言。’又曰 ‘人生而靜，已是夾形氣，孟子說性善，便兼氣質耳。’”

55) 인생이정(人生而靜) : 《예기(禮記)》 <악기>에 “사람의 마음은 처음 태어날 때에는 고요하니, 이것이 타고난 성(性)이다.[人生而靜，天之性也.]”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송대 성리학자들은 이 구절을 ‘사람이 막 나서 마음이 동하기 이전의 상태란 뜻으로 설명했다.

1917년 4월 8일. 경오. 맑음. 목동(木洞)에 사는 정동원(鄭東源), 자(字)가 봉여(鳳汝)인 사람과 짝을 이뤄 입석(立石)에 사는 교리(校理) 김동수(金東洙)씨 댁에 도착하여 화갑연(花甲宴)을 축하했다. 그날 동종(同宗)인 효숙(孝叔)을 위문했다. 남원(南原)의 사촌(沙村)은 입석과 거리가 십 리에 불과하여 곧바로 가서 기송사(奇松沙, 기우만(奇宇萬))의 궤연(几筵)에 조곡(弔哭)하고 돌아왔다.

八日。庚午。陽。木洞鄭東源字鳳汝氏作伴，到立石金校理東洙氏，花甲宴獻賀。即日慰問同宗孝叔，而南原沙村，於立石地不過十里，卽去弔哭於奇松沙几筵而還。

1917년 4월 9일. 신미. 맑음.

九日。辛未。陽。

1917년 4월 10일. 임신. 맑음.

十日。壬申。陽。

1917년 4월 11일. 계유. 맑음.

十一日。癸酉。陽。

1917년 4월 12일. 갑술. 흐림. ≪학포양선생문집(學圃梁先生文集)≫<sup>56)</sup>

56) 학포양선생문집(學圃梁先生文集) : 양팽손(梁彭孫, 1488~1545)의 문집인 ≪학포집(學圃集)≫을 말한다. 양팽손의 자는 대춘(大春)이고, 호는 학포(學圃), 본관은 제주(濟州)로, 능성(綾城)에서 태어났다. 1510년(중종 5) 조광조(趙光祖)와 함께 생원시에 합격하고, 1516년 식년 문과에 갑과로 급제했으며, 또 현량과(賢良科)에 발탁되었다. 1519년 10월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조광조·김정 등을 위해 소두(疏頭)로서 항소하였다. 이 일로 인해 삭직되어 고향인 능주로 돌아와, 중조산(中條山) 아래 쌍봉리(雙鳳里)에 작은 집을 지어 ‘학포당(學圃堂)’이라 이름하고 독서로 소일하였다. 1630년(인조 8) 김장생(金長生) 등의 청으로 능주 죽수서원(竹樹書院)에 배향되었으며, 1818년(순조 18) 순천의 용강서원(龍岡書院)에 추향되었다. 저서로는 ≪학포유집≫ 2책이 전한다. 시호는 혜강(惠康)이다.

의 <우부(愚賦)>를 보고 기록한다.

十二日。甲戌。陰。看《學圃梁先生文集》<愚賦>，記之。

하늘이 성품을 사람에게 주심이어,	皇賦則而畀人
어찌 성인에게는 후하고 우인에게는 박하게 했으랴	胡聖豐而愚嗇
기품의 청탁으로 인연하여,	緣氣稟之清濁
혼명(昏明)의 구별이 있는 것이라.	有昏明之區別
밝은이는 진실로 상지(上智)가 되니,	明固造乎上智
이 혼우(昏愚)함을 홀로 슬퍼하는구나.	竊獨悲此昏愚
조수의 발톱과 어금니도 없으면서,	無鳥獸之爪牙
성현과 같은 두로(頭顱) <sup>57)</sup> 를 지녔구나.	同□□之頭顱
당우를 짓고 편히 살면서,	構堂宇而安居
곡식을 먹고 <sup>58)</sup> 비단옷을 입는구나. <sup>59)</sup>	知食粟而衣帛
엄연한 구구(九竅) <sup>60)</sup> 를 갖춘 형체를 지녀,	儼九竅以成形
하늘과 땅 사이에 명을 받고 서있구나.	命兩間而中立
그 타고난 덕이 같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非厥德之不若
총명한 본 바탕을 잃는구나.	喪聰明之良質
시청과 언동으로부터,	自視聽與言動
행기와 접물에 이르기까지,	暨行己與接物
옳지 아니한 부류를 따라서 좃으니,	非義類焉是從
인기(人紀) <sup>61)</sup> 가 없어져도 걱정하지 않는구나.	蔑人紀而不恤
임금으로는 하나라 걸과 상나라 수요,	君之夏桀商受
신하로는 비렴과 악래 <sup>62)</sup> 가 그랬다.	臣之飛廉惡來

57) 두로(頭顱) : 백발의 쇠한 머리를 말한다.

58) 곡식을 먹고(食粟) : 식숙(食粟)은 별로 하는 일 없이 곡식만 축내는 인간이라는 뜻인데, 조교(曹交)가 맹자에게 “나도 문왕(文王)처럼 키가 큰데 어찌서 문왕이 못 되고 곡식만 먹습니까?”라고 물은 데서 나온 말이다.(《맹자》 <고자 하(告子下)>)

59) 곡식을 …… 입는구나 : 원문에는 ‘知食粟衣帛’이라고 되어 있으나 학포집에는 ‘知食粟而衣帛’라고 되어 있다.

60) 구구(九竅) : 눈·코·입 등 인체(人體)의 모든 구멍으로 된 부분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61) 인기(人紀) :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62) 비렴과 악래 : 비렴(飛廉)·악래(惡來)는 은(殷)나라 주왕(紂王)의 간신(奸臣)이다.

재앙이 있는데도 어리석음이 너무 심하여,	愚已甚於禍稔
집과 나라가 망해도 슬퍼하지 않았다.	家國敗而莫哀
야! 사람의 성품은 본래 착하여,	嗟人性之本善
이물(異物)처럼 치우치고 막하지 않는 것이다.	異物類之偏塞
- 아마 한 구절이 빠진 것 같다. -	【恐脫一句】
혹시라도 사사로움 극복하고 반성을 한다면,	儻克已而反求
어리석어도 고명으로 나아가는 법.	愚可進乎高明
시(柴) <sup>63</sup> 는 어리석어도 능히 효도를 하였고,	柴由愚而克孝
삼(參) <sup>64</sup> 은 노둔하였어도 덕을 이루었다.	參由魯而德成
저 영무자의 지우(智愚)와,	彼智愚之甯武
안자의 예우(睿愚) <sup>65</sup> 여.	與睿愚之顏子
참으로 우(愚)의 특출한 분으로서,	信其愚之卓立
고산을 우리르나 <sup>66</sup> 기대하기 어렵구나.	仰高山而難企
슬프다 나의 기질이 못났음이여!	悵余質之洪涇
학문이 누추하고 행실도 빼떨어졌다.	學凡陋而行乖
군자에게 버림받아, <sup>67</sup>	爲君子之所棄
소인의 무리될까 두렵도다.	恐小人之同儕
그러나 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분별하리 <sup>68</sup> 는 교훈을,	然學問思辨之訓

- 63) 시(柴) : 공자의 제자 고시(高柴)를 말한다. 자는 자고(子臯)이며, 아버지 상에 삼 년 동안 울고 웃지 않았다.(《예기》 <단궁 상(檀弓上)>)
- 64) 삼(參) : 공자의 제자 증삼(曾參)을 말한다. 자는 자여(子輿)이고 학문을 함에 성실하고 돈독하게 하여 마침내 공자의 학문을 전수했는데, 《논어》 선진(先進)에 “증삼은 노둔하다.[參也魯]”고 한 말이 있다.
- 65) 영무자의 …… 예우(睿愚) : 유종원(柳宗元)의 <우계시서(愚溪詩序)>에 의하면 “공자가 ‘영무자는 나라에 도가 없으면 어리석었다.’ 했으니, 그는 지혜로우면서도 어리석은 체했던 사람이요, 또 공자가 안자(顏子)를 일러 ‘내가 안화와 종일토록 말을 했으되, 어기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 같다.’ 했으니, 안자는 총명하면서도 어리석은 체했던 사람이라, 이 두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지금 나는 도가 있는 세상을 만나서 도리에 어긋나고 일에 거슬렸다. 그러므로 모든 어리석은 이 중에 나만큼 어리석은 이는 없는 것이다.[甯武子邦無道則愚, 智而爲愚者也. 顏子終日不違如愚, 睿而爲愚者也. 皆不得爲眞愚. 今余遭有道, 而違於理, 悖於事. 故凡爲愚者莫我若也.]”라고 하였다.(《유하동집(柳河東集)》)
- 66) 고산을 우리르나 : 《시경(詩經)》 <소아(小雅)·차활(車犂)>의 “높은 뫼를 우리르며 큰길을 따라간다.[高山仰止, 景行行止.]”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 67) 군자에게 버림받아 : 원문에는 ‘爲君子所棄’라고 되어 있으나 학포집에는 ‘爲君子之所棄’라고 되어 있다.



가만히 자사의 글에서 복응하였다.	竊服膺乎思書
마땅히 백배의 공부를 하며 쉬지 않아,	當百功而不措
성(誠)을 간직하여 처음대로 회복하리라.	庶存誠而復初
어찌 자포자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여,	詎同暴棄之愚
벌레와 물고기처럼 될 수가 있겠는가? <sup>69)</sup>	甘若蟲而若魚
이처럼 마음이 굳지 못할까 염려하여,	慮茲心之不固
잠(箴)을 지어 나2를 깨우치노라.	因作箴而警余

잠에 이른다.	箴曰
마음은 본시 비어있는 것,	心兮本虛
들어가고 나가고 방향이 없구나.	出入無鄉
어찌다가 형체에 부러지면,	一爲形役
방자하고 미치고 하는구나.	乃肆乃狂
공자는 이를 잡아 간직하라 <sup>70)</sup> 하셨고,	孔稱操存
맹자는 이를 해치면 성을 잃는다 <sup>71)</sup> 고 하셨다.	孟稱梏亡
경(敬)하여 이를 지키고,	敬而守之
성(誠)으로서 독실히 공부하라.	誠以篤功
그런 뒤에야 우(愚)를 깨고서,	然後破愚
부딪히는 곳마다 훤히 트이리라.	觸處皆通

- 68) 배우고 …… 분별하라[學問思辨] : 《중용장구》의 “널리 배우고, 자세히 묻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분명하게 분별해야 한다.[博學之, 審問之, 慎思之, 明辨之.]”라는 말을 줄인 것이다.
- 69) 벌레와 …… 있겠는가: 원문에는 ‘甘若蟲若魚’라고 되어 있으나 학포집에는 ‘甘若蟲而若魚’라고 되어 있다.
- 70) 이를 잡아 간직하라[操存] : 조즉존(操則存)의 준말로, 마음을 다스려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을 말한다. 《맹자》 <고자 상(告子上)>에 “공자(孔子)께서 이르기를 ‘잡고 있으면 보존되고, 놓아 버리면 없어지며,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일정한 때가 없고 어디로 향할지 종잡을 수가 없는 것은 오직 사람의 마음을 두고 말한 것이다.[操則存, 舍則亡, 出入無時, 莫知其鄉, 惟心之謂與.]’ 하셨다.”라고 한 데서 나왔다.
- 71) 이를 …… 잃는다[梏亡] : 물욕의 구속을 받아 본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맹자》 <고자 상(告子上)>에 나오는 말로, “사람에게 있는 것인들 어찌 인의의 마음이 없겠는가. …… 낮과 밤에 자라나는 것과 새벽녘의 기운이 그 호오가 남들과 서로 가까운 것이 얼마 되지 않는데, 낮에 하는 소행이 이것을 제어하여 사라지게 한다.[雖存乎人者, 豈無仁義之心哉. …… 其日夜之所息, 平旦之氣, 其好惡與人相近也者幾希, 則其旦晝之所爲, 有梏亡之矣.]”라고 하였다. 새벽녘 사물과 접하지 않아 기운이 청명할 때에 발현되는 미약한 양심(良心)이 낮에 행하는 불선한 행위에 의해 없어진다는 말이다.

-선생의 휘는 팽손(彭孫)으로, 기묘 명인이다. 정암선생(靜菴先生, 조광조)을 염빈(斂殯, 입관하여 안치하는 짓)하였다. 시호는 혜강으로, 부지런히 베풀고 사사로움이 없는 것[施勤無私]을 ‘혜(惠)’라 하고, 연원이 두루 통하는 것을 ‘강(康)’이라 한다.-

【先生諱彭孫, 己卯名人。斂殯靜菴先生。諡惠康, 施勤無私曰惠, 淵源流通曰康。】

1917년 4월 13일. 을해. 맑음.

十三日。乙亥。陽。

1917년 4월 14일. 병자. 맑음.

十四日。丙子。陽。

1917년 4월 15일. 정축. 흐리고 비. 《논노어(論魯語)》<sup>72)</sup>의 ‘기체지설(記禘之說)’을 보았다. 체(禘)란 왕자(王者)의 대제(大祭)로, 왕이 이미 시조(始祖)의 사당을 세우고, 또 그 시조가 나온 제[所自出之帝]를 추존하여, 시조 사당에서 제사를 모시며 시조에 배향하는 것이다.

十五日。丁丑。陰雨。看 《論魯語》記禘之說。禘者王者之大祭也, 王者既立始祖之廟, 又推始祖所自出之帝, 祀之於始祖之廟, 而以始祖配之也。

‘사호지기장(斯乎指其掌)’<sup>73)</sup>의 소주(小註)에서 황씨(黃氏, 황간)가 이

72) 논노어(論魯語) : 《논노어(魯論語)》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 때에는 《논노어(魯論語)》, 《제논어(齊論語)》, 《고문논어(古文論語)》 등 3가(家)의 논어가 있었는데, 현재 전해지는 《논어》는 《논노어》에 기초한 것이다. 줄여서 《노론(魯論)》이라고도 한다.

73) 사호지기장(斯乎指其掌) : 《논어》 <팔일편(八佾篇)>에 나온 말로 “후자가 체 제사의 내용을 묻자, 공자가 ‘알지 못하겠다. 그 내용을 아는 자는 천하를 다스림에 있어 여기에도 올려놓

르길, “천리의 자연에 근거한 것을 인(仁)이라 하고, 인심의 지극한 사랑에 형상화된 것을 효(孝)라고 하며, 진실무망(眞實無妄)한 것을 성(誠)이라고 하고, 주일무적(主一無敵)한 것을 경(敬)이라 하니, 인·효·성·경과 무릇 제사가 모두 그러하다. 신명과 사귀는 자는 통달할수록 그 마음이 더욱 돈독해지고 보본추원(報本追遠)<sup>74</sup>이 깊어지니, 인효(仁孝)와 성경(誠敬)의 지극함이 아니라면 알거나 행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이 정미하고 심원하니 어찌 사람들이 알 수 있겠는가? 하물며 또 노나라에서 마땅히 숨겨야 할 것임에랴.<sup>75</sup> 보본추원의 깊은 것으로 인효와 성경의 지극함을 다하고, 이 마음에 나아가서 사물의 이치를 보충하면, 어떤 것이 내 마음의 성을 밝히지 못할 것이며, 어떤 것이 바르게 하지 못할 것인가?”라고 했다.

‘斯手指其掌’ 小註 黃氏曰, “根於天理之自然, 謂之仁, 形於人心之至愛, 謂之孝. 眞實無妄, 謂之誠, 主一無敵, 謂之敬, 仁孝誠敬, 凡祭皆然. 交於神明者, 愈達則其心愈篤, 報本追遠之深, 則非仁孝誠敬之至, 莫能知之行之也. 其爲說精微深遠, 豈或人所能知? 況又魯所當諱乎. 以報本追遠之深, 而盡仁孝誠敬之至, 卽此心而充事物之理, 何所不明吾心之誠, 何所不格哉?”

515

#### <《예의속집(禮疑續輯)》 76의 부제(附祭說)>

고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 손바닥을 가리켰다.[或問禘之說, 子曰不知也. 知其說者之於天下也, 其如示諸斯乎. 指其掌.]”라고 하였다.

- 74) 보본추원(報本追遠) : 조상의 덕을 추모하여 자기의 근본을 잊지 않고 제사를 지내며 은혜를 갚는 것을 이른다.
- 75) 하물며 …… 될 것임에랴 : 《논어》 <팔일편> 집주(集註)에 “先王報本追遠之意, 莫深於禘, 非仁孝誠敬之至, 不足而與此, 非或人之所及也, 而不王, 不禘之法, 又魯之所當諱者, 故以不知, 答之.”라고 하였다.
- 76) 예의속집(禮疑續輯) : 1890년경에 이응진(李應辰)이 여러 학자들의 예설을 정리하여 편찬한 논문 책이다.
- 77) 부제(附祭) : 삼년상을 마친 뒤에 신주를 그 조상의 신주 곁에 모실 때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미호(漢湖)<sup>78</sup>가 말하길, “졸곡(卒哭)<sup>79</sup>한 다음날 부(祔)를 하는 것은 차마 하루라도 돌아갈 곳이 없게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다. 만약 연상(練祥, 소상)을 기다린 후에 부를 하고자 한다면, 그 차마 하루라도 돌아갈 곳이 없게 하지 못하는 뜻에서 이미 크게 늘어지는 일은 없겠는가? 우옹(尤翁)도 또한 ‘다음날 부(祔)할 수 없다면 또 다음날일지라도 무방하다’는 말을 하였다.”라고 했다. 노주(老洲)<sup>80</sup>는 말하길, “졸곡하고 부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예이다. 연(練)을 하고 부하는 것은 은나라 예이다. 그러나 상(祥, 대상)을 하고 부하는 것은 예에 근거할 것이 없다.”라고 했다.

禮疑續輯祔祭說。

漢湖曰, “卒哭明日祔, 爲不忍一日無所歸也。若欲待練而後祔, 則其於不忍一日無所歸之義, 無已太緩乎? 尤翁亦有明日不能祔, 則又明日無妨之語矣。” 老洲曰, “卒哭而祔, 周禮也。練而祔, 殷禮也。祥而祔, 禮無所據。”

1917년 4월 16일. 무인. 맑음.

十六日. 戊寅. 陽.

<동지에게 보이다>

천지가 처음으로 갈라진 후로 백왕(百王)이 흥하고 망하였으니, 소인(所因)한 것은 삼강(三綱)<sup>81</sup>과 오상(五常)<sup>82</sup>이요, 손익(損益)<sup>83</sup>한 것은 문질(文

78) 미호(漢湖) : 김원행(金元行, 1702~1772)의 호이다. 김원행의 자는 백춘(伯春), 호는 미호(漢湖)·운루(雲樓), 본관은 안동이다. 아버지는 승지 제겸(濟謙)이며, 어머니는 밀양 박씨로 이조판서 권(權)의 딸로, 이재(李穡)의 문인이다.

79) 졸곡(卒哭) : 삼우(三虞)가 지난 뒤에 지내는 제사. 사람이 죽은 지 석 달 만에 오는 첫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가려서 지낸다.

80) 노주(老洲) : 오희상(吳熙常, 1763~1833)을 말함. 자는 사경(士敬), 호는 노주(老洲), 본관은 해주(海州)이다. 아버지는 대제학 재순(載純)이며, 어머니는 영의정 이천보(李天輔)의 딸로, 예조판서 재소(載紹)에게 입양되었다.

81) 삼강(三綱) : 유교 도덕의 기본이 되는 세 가지 도리 즉 군위신강, 부위자강, 부위부강을 말한다.

82) 오상(五常) : 오륜(五倫). 유교에서 말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도리, 즉 인·의·예·지·신을 말한다.

83) 손익(損益) : 시대의 상황에 맞도록 조화하는 것을 말한다.

質)<sup>84</sup>과 삼통(三統)<sup>85</sup>이다. 소인한 것은 하늘이 지은 것이고, 손익한 것은 사람이 지은 것이다. 하늘이 지은 것은 만고토록 바꿀 수 없으나 사람이 지은 것은 때에 따라 변해간다. 마치 진나라가 주나라의 유약함을 보고 강포함을 더하였고, 한나라가 진나라의 강포함을 보고 관대함을 더한 것과 같다. 그러나 사람이 지어서 끝내 변하는 것으로써는 하늘이 지은 것을 얻을 수 없다. 이후의 제왕으로 손익의 타당성을 얻은 자는 해가 지날수록 장구할 것이고, 타당함을 얻지 못한 자는 해가 지날수록 촉박해질 것이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삼강과 오상의 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삼강과 오상의 도로 처한 자는 거의 얻음이 있을 것이다. 이 뜻은 노논(魯論)<sup>86</sup>에서 ‘자장이 십 대 후의 일을 알 수 있을지를 묻다[子張問十世可知也]’장에 밝게 드러난다. 우리 동지들은 더욱 힘쓸 것이니, 삼강과 오상의 도로써 중화의 문화를 사용할지이다.

示同志。

天地肇判后，百王興亡，而所因者三綱五常，損益者文質三統。所因者天做底，損益者人做底。天做底萬古不易，人做底隨時變易。如秦見周之柔弱，而加之強戾，漢見秦之強戾，加以寬大。然以人做底終變，不得天做底。此後帝王損益之得當者，歷年長久，未得當者，歷年短促。至于今三綱五常之道不墜，以三綱五常之道處之，有庶幾得矣。此義昭著於魯論子張問十世可知也章。惟吾同志勉旃慎旃，以三綱五常之道，用夏焉。

517

1917년 4월 17일. 기묘 맑음. 호씨(胡氏, 호인(胡寅))는 말하길, “대저 수신(修身)에서부터 천하(天下)에 이르기까지 하루라도 예가 없을 수 없다. 하늘이 펴고 하늘이 세운 질서는 사람이 공유한 바이니, 예의 근본이다.”<sup>87</sup>라고 하였고, 신안 예씨(新安倪氏, 예사의(倪士毅))는 이르

84) 문질(文質) : 강상(綱常)과 제도문물(制度文物). 하나라는 충(忠)을 숭상하고, 상나라는 질(質)을 숭상하며, 주나라는 문(文)을 숭상한 것과 같다.

85) 삼통(三統) : 하(夏)·상(商)·주(周) 삼대(三代)의 정삭(正朔)을 말한다. 하(夏)나라는 인월(寅月)로 세수(歲首)를 삼아 인통(人統)이 되고, 은(殷)나라는 축월(丑月)로 세수를 삼아 지통(地統)이 되고, 주(周)나라는 자월(子月)로 세수를 삼아 천통(天統)이 된다.

86) 노논(魯論) : 《논어》를 말한다. 위 글은 <위정편>에 나온다.

길, “《서경》에 이르길 ‘하늘이 펼쳐서 법전을 두시고 하늘이 질서를 세워 예를 두었다.’라고 하였으니, 삼강과 오상은 곧 하늘이 펼친 법전이고 하늘이 세운 질서의 예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을 보고 문득 느낌이 있으니, 향촌선생(香村先生) 영숙(永濤)<sup>88)</sup>은 매양 예학과 수학을 말할 때는 천질(天秩)의 학문만한 것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기록한다. 가만히 생각건대 향촌(香村)이 말한 예학이란 곡례(曲禮)의 말절(末節)과 번문(繁文)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十七日。己卯。陽。胡氏曰，“夫自修身，以至於天下，不可一日而無禮。天敍天秩，人所共由，禮之本也。”新安倪氏曰，“書曰‘天敍有典，天秩有禮’，三綱五常，卽天敍之典，天秩之禮也。”看此忽感，香村先生永濤，每道禮學與數學，莫如天秩之學之言，故記之。竊想香村所謂禮學者，指曲禮之末節繁文而言也。

518

1917년 4월 18일. 경진. 맑음.

十八日。庚辰。陽。

1917년 4월 19일. 신사. 맑음.

十九日。辛巳。陽。

1917년 4월 20일. 임오. 맑음.

二十日。壬午。陽。

1917년 4월 21일. 계미. 맑음.

87) 호씨(胡氏)는 말하길 …… 근본이다 : 《논어》 <위정편> 제23장에 나온 말이다.

88) 향촌선생(香村先生) : 김영숙(金永濤, 1827~?)을 말함. 자는(貫一), 호는 향촌(香村), 본관은 광산이다. 노사 기정진의 제자이며, 담양에서 살았다.

二十一日。癸未。陽。

1917년 4월 22일. 갑신. 맑음.

二十二日。甲申。陽。

1917년 4월 23일. 을유. 흐리고 비.

二十三日。乙酉。陰雨。

1917년 4월 24일. 병술. 맑음. 일두선생(一蠹先生)<sup>89)</sup>시가 ≪현주집(玄洲集)≫<sup>90)</sup>에 보인다.

二十四日。丙戌。陽。一蠹先生詩，見 ≪玄洲集≫。

냇머들 바람에 나부껴 가벼이 한들거리니, 사월의 화개동은 벌써 보리 가을이 되었네. 두류산 천만 봉을 두루 다 유람하고, 외로운 배 띄우려 또 큰 강가로 내려가네.	風蒲獵獵弄輕柔 四月花開麥已秋 看盡頭流千萬疊 孤舟又下大江洲
--	--

1917년 4월 25일. 정해. 맑음.

二十五日。丁亥。陽。

89) 일두선생(一蠹先生) : 정여창(鄭汝昌, 1450~1504)을 말한다. 자는 백옥(伯玉),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김종직의 문인(門人)으로 일찍이 지리산에 들어가 학문을 닦았고, 성종 연간에 진사시(進士試) 및 문과에 급제하여 검열(檢閱)을 거쳐 시강원 설서(侍講院說書), 안음 현감(安陰縣監) 등을 역임하였다. 뒤에 1498년(연산군 4) 무오사화 때 김종직의 일파로 몰려 종성(鍾城)에 유배되었고, 죽은 뒤 갑자사화(甲子士禍) 때 부관참시(剖棺斬屍)되었다. 문묘(文廟)에 배향(配享)되었다. 위 시는 현재 남아있는 정여창의 유일한 시이다.

90) 현주집(玄洲集) : 이소한(李昭漢, 1598~1645)의 문집을 말한다. 자는 도장(道章)으로, 아버지 월사(月沙), 형 백주(白洲)와 함께 중국 송나라의 삼소(三蘇)에 비길 만한 인물로 꼽혔다. 원시[風蒲獵獵弄輕柔, 五月花開麥已秋, 看盡頭流千萬疊, 扁舟又下大江流.]와는 약간의 출입이 있다.

1917년 4월 26일. 무자. 맑음. 집에 돌아왔다.

二十六日。戊子。陽。還巢。

1917년 4월 27일. 기축. 석양에 잠깐 비 내림. 장동의 유병하(柳炳夏)를 방문하고, 유상적(柳相迪)의 사랑에서 잔 후 옥전리로 돌아왔다.

二十七日。己丑。夕陽乍雨。訪瘴洞柳炳夏，宿柳相迪舍廊，而還玉田。

1917년 4월 28일. 경인.

二十八日。庚寅也。

1917년 4월 29일. 신묘. 흐림. 저녁에 잠깐 비가 내렸다.

二十九日。辛卯。陰。夕乍雨。

520

1917년 5월 1일. 임진. 아침에 잠깐 비.

五月。初一日。壬辰。朝乍雨。

1917년 5월 2일. 계사. 맑음.

二日。癸巳。陽。

1917년 5월 3일. 갑오. <성학십도(聖學十圖)>의 ‘울곡이 우계에게 답한 설’을 보고 기록한다.

三日。甲午。看聖學十圖，至栗谷答牛溪說，記之。

또 말하기를 “이기는 원래 불상리(不相離)로 일물(一物) 같지만, 그 다른 까닭은 이(理)는 무형(無形)이고 기는 유형(有形)이며 이는 무위(無爲)이고



기는 유위(有爲)이기 때문이다. 무형무위이지만 유형유위의 주인인 되는 것은 이이고, 유형유위이지만 무형무위의 기(器)가 되는 것은 기(氣)이다. 이는 무형이지만 기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는 통(通)하고 기는 국한(局限)되며, 이는 무위이고 기는 유위이기 때문에 기가 발하면 이가 타게 된다. 이가 통(通)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는 본말이 없고 선후가 없다. 본말이 없고 선후가 없기 때문에 옹하기 전에는 앞이 없고 이미 옹하면 뒤가 없게 된다. -정자설(程子說)-

이런 까닭에 기를 타고 유행하는 것은 들쭉날쭉 일정하지 않지만, 그 본연의 묘는 있지 않음이 없다. 기가 치우치면 이 또한 치우치지만 치우친 것은 이가 아니라 기이다. 기가 온전하면 이 또한 온전하지만 온전한 것은 이가 아니라 기이다. 청탁(淸濁)·수박(粹駁)·조박(糟粕)·외신(煨燼)·분양(糞壤)·오예(汚穢) 가운데 이르러서도 이가 있지 않음이 없어서 각각 그의 성(性)이 되지만 그 본연의 묘인 즉 각각의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일러 이가 통한다고 한다.

기가 국한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기가 이미 지나온 형적이 있기 때문에 본말이 있고 선후가 있게 된다. 기의 근본은 담일(湛一)하고 허청(虛淸)할 뿐이니, 어찌 일찍이 조박·외신·분양·오예의 기가 있겠는가? 오르고 내리고 날아오르고 하여 일찍이 그치고 쉰 적이 없으므로 들쭉날쭉 일정하지 않아서 만 가지 변화가 그곳에서 생겨난다. 이에 기가 유행함에 그 본연을 잃지 않는 것이 있고 그 본연을 잃은 것이 있다. 이미 본연을 잃었다면 기의 본연이라는 것은 이미 있지 않게 된다. 치우친 것은 치우친 기이지 온전한 기가 아니고 깨끗한 것은 깨끗한 기이지 탁한 기가 아니다. 조박·외신의 기이지 담일·청허한 기가 아니다. 이것은 이가 만물 가운데에 본연의 묘가 있지 않은 데가 없다는 것과 같지 않으니, 이것을 일러 ‘기가 국한된다고 하는 것이다.

‘기가 발하여 이가 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음(陰)이 정(靜)하고 양(陽)이 동(動)한 것은 기(機)가 스스로 그러한 것이지, 그것을 시키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양이 동하면 이가 동에 타는 것이지 이가 동하는 것이 아니다. 음이 정하면 이가 정에 타는 것이지 이가 정한 것이 아니

다. 때문에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태극이라는 것은 본연의 묘이고 동정이라는 것은 타는 기이다.”라고 하였다. 음은 정하고 양이 동한 것은 그 기틀이 절로 그러할 뿐이지만, 음이 정하고 양이 동하게 하는 것은 이이기 때문에 주자(周子)가 말하기를 “태극이 움직이면 양을 낳고 정하면 음을 낳는다.”라고 하였다.

대저 ‘동하여 양을 낳고 정하여 음을 낳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 미연(未然)에 근거하여 말한 것이고, ‘동정이 타는 바의 기틀’이라는 것은 이연(已然)을 보고 말한 것이다. 동정이 단서가 없고 음양이 시작이 없으면서도 이기가 유행하는 것은 모두 이연(已然)일 따름이니, 어찌 미연(未然)의 때가 있겠는가? 이 때문에 천지의 변화와 내 마음이 발하는 것은 기가 발하여 이가 타는 것이 아님이 없는 것이다.

이른바 ‘기가 발하여 이가 탄다’는 것은 기가 이보다 먼저라는 것이 아니다. 기는 유위하고 이는 무위하니, 그 말은 부득이해서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대저 이에는 한 글자도 더할 수가 없으며, 털끝만큼의 닦음도 더할 수 없다. 이는 본래 선하니, 무슨 닦음이 필요하겠는가. 성현의 수많은 말씀이 다만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기(氣)를 단속하여 그 기의 본연을 회복하게 할 따름이니, 기의 본연이란 호연(浩然)한 기운이다. 호연한 기운이 천지에 가득 차면 본래 선한 이(理)가 조금도 가리어진 것이 없으니, 이것은 맹자의 양기론(養氣論)이 성문(聖門)에 공로가 있는 까닭이다.

만약 기가 발하여 이가 타는 것이 하나의 길이 아니어서 이(理) 또한 별도로 작용한다면, 이(理)를 무위(無爲)라고 말할 수 없다. 공자께서 무엇 때문에 “사람이 도를 넓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겠는가? 이와 같이 간파한다면 기가 발하면 이가 타는 하나의 길 [氣發理乘一途]이 분명하고 환해질 것이다.

又曰, “理氣元不相離, 似是一物, 而其所以異者, 理無形也, 氣有(形)也, 理無爲也, 氣有爲也。無形無爲, 而爲有形有爲之主者, 理也, 有形有爲而爲無形無爲之器者, 氣也。理無形而氣有形, 故理通而氣局, 理無爲而氣有爲, 故氣發而理乘。理通者, 何謂也? 理者, 無本末也, 無先後也。無本末無先後, 故未應不是先, 已應不是後。【程子說】是故乘氣流行, 參差不

齊，而其本然之妙，無乎不在。氣之偏則理亦偏，而所偏非理也氣也，氣之全則理亦全，而所全非理也氣也。至於清濁粹駁糟粕煨燼糞壤污穢之中，理無所不在。各爲其性，而其本然之妙，則不害其自若也，此之謂理之通也。氣局者何謂也？氣已涉形迹，故有本末也，有先後也。氣之本，則湛一虛清而已，曷嘗有糟粕煨燼糞壤污穢之氣哉？惟其升降飛揚，未嘗止息，故參差不齊，而萬變生焉。於是氣之流行也，有不失其本然者。有失其本然者，既失其本然，則氣之本然者，已無所在。偏者偏氣也，非全氣也，清者清氣也，非濁氣也。糟粕煨燼之氣也，非湛一清虛之氣也。非若理於萬物本然之妙，無乎不在也，此所謂氣之局也。氣發而理乘者，何謂也？陰靜陽動，機自爾也，非有使之者也。陽之動則理乘於動，非理動也，陰之靜則理乘於靜，非理靜也，故朱子曰“太極者，本然之妙也，動靜者，所乘之機也。”陰靜陽動，其機自爾，而其所以陰靜陽動者理也，故周子曰“太極動而生陽，靜而生陰。”夫所謂動而生陽，靜而生陰者，原其未然而言也，動靜所乘之機者，見其已然而言也。動靜無端，陰陽無始，則理氣之流行，皆已然而已，安有未然之時乎？是故天地之化，吾心之發，無非氣發而理乘之也。所謂氣發而理乘者，非氣先於理也。氣有爲而理無爲，則其言不得不爾也。夫理上，不可加一字，不可加一毫修爲之力。理本善也，何可修爲乎？聖賢之千言萬言，只使人檢束其氣，使復其氣之本然而已。氣之本然者，浩然之氣也。浩然之氣，充塞天地，則本善之理，無少掩蔽，此孟子養氣之論，所以有功於聖門也。若非氣發理乘一途，而理亦別有作用，則不可謂理無爲也。孔子何以曰，“人能弘道，非道弘人乎？”如是看破，則氣發理乘一途，明白坦然矣。

우암(尤菴, 송시열)이 말하길, “퇴계는 ‘칠정(七情)은 기가 발하여 이가 타는 것[氣發而理乘]이고, 사단(四端)은 이가 발하여 기가 따르는 것[理發而氣隨]이다.’고 하였으니, 퇴계의 병통은 오로지 ‘이발(理發)’ 두 글자에 있는 것이다. 대개 이는 정의(情意)나 조작(造作)이 없는 물건이니, 어찌 기보다 먼저 움직일 이치가 있겠는가? 대개 그 근본으로 말한다면 이가 있고 나서 기가 있기는 하나, 이는 기 가운데 있어서 본디 서로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유행할 때는 기가 항상 용사(用事)를 하고, 이는 기를 따라 유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자(朱子)가 《중용》의 ‘천명지성(天命之性)’을 해석하면서, ‘하늘이 음양·오행으로 만물을 화생시키되, 기로 형체를 이루고, 이 또한 부여된다.’고 하였고, 또 태극도의 ‘묘합이응(妙合而凝)’을 해석하면서, ‘태극과 이오(二五, 음양과 오행)는 본디 혼용(混融)하여 간격이 없다.’고 하였으니, 이는 이가 기 가운데 있음을 말한 것이다. 그 ‘응(凝)’이란 기가 모여서 형체를 이룬 것이다.’고 한 것은 바로 《중용》의 주(註)에서 말한바, 기로써 형체를 이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기를 타되 기는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이 어찌 분명하지 않겠는가? ‘이기’ 두 글자는 알기도 어렵고 말하기는 더욱 어렵다. 한갓 이가 기 가운데 있는 줄만 알고, 이는 이대로 존재하고 기는 그대로 존재함을 알지 못하면 이와 기를 일물(一物)로 보는 병통이 있게 되고, 한갓 이가 스스로 일물이 되는 줄만 알고, 기와 더불어 원래부터 분리되지 않은 것임을 알지 못한다면, 허공에 매달로 홀로 서있는 잘못이 있게 되니, 모름지기 하나이면서 둘이요 둘이면서 하나임을 안 다음에야 폐단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524

尤菴曰, “退溪云, ‘七情氣發而理乘之, 四端理發而氣隨之.’ 退溪之病, 專在於理發二字矣。蓋理是無情意造作之物, 寧有先氣而動之理乎? 大槩原其本初而言, 則有理而後有氣, 然理在氣中, 元不相離, 故其流行之時, 氣常用事, 而理則隨之而流行矣。故朱子釋《中庸》天命之性曰, ‘天以陰陽五行化生萬物, 氣以成形而理亦賦焉’ 又釋太極圖妙合而凝曰, ‘太極二五, 本混融而無間’, 此言理在氣中也。其曰‘凝者氣聚而成形也者’, 正庸註氣以成形也。然則理之乘氣, 而氣不隨理者, 豈不較然乎。理氣二字, 知之難而言之尤難。徒知理在氣中, 而不知理自理氣自氣, 則有理氣一物之病, 徒知理之自爲一物, 而不知與氣元不相離, 則有懸空獨立之誤, 須知一而二, 二而一, 然後可無弊也。”

집에 돌아왔다. 날마다 가뭄이 더욱 심하다.

還巢。日旱滋甚。

1917년 5월 4일. 을미. 맑음.

四日。乙未。陽。

1917년 5월 5일. 병신. 맑음.

五日。丙申。陽。

1917년 5월 6일. 정유. 비.

六日。丁酉。雨。

1917년 5월 7일. 무술. 아침에 흐렸다가 저녁에 맑음.

七日。戊戌。朝陰夕陽。

1917년 5월 8일. 기해. 흐리다가 저녁에 비 음.

八日。己亥。陰夕雨。

525

1917년 5월 9일. 경자. 흐리고 비. 우레소리가 크게 진동하였다.

九日。庚子。陰雨。雷聲大震。

1917년 5월 10일. 신축. 흐리고 비가 음.

十日。辛丑。雨陰。

1917년 5월 11일. 임인. 개입.

十一日。壬寅。晴。

1917년 5월 12일. 계묘. 맑음.

十二日。癸卯。陽。

1917년 5월 13일. 갑진. 흐리다가 맑다가 간간이 비 옴.

十三日。甲辰。或陰或陽間雨。

1917년 5월 14일. 을사. 흐리다가 맑음.

十四日。乙巳。陰而陽。

1917년 5월 15일. 병오. 흐림. 해질무렵에 겨우 옥전(玉田)에 도착했다.  
비가 왔다.

十五日。丙午。陰。昏冥，纔到玉田。雨。

1917년 5월 16일. 정미. 흐리다가 오후에 비가 옴.

十六日。丁未。陰午後雨。

1917년 5월 17일. 무신. 흐림. 《둔고집(菴臯集)》을 보다가 8권(八卷)의 <세일묘제축문(歲一墓祭祝文)>에 이르렀다.

十七日。戊申。陰。看《菴臯集》，至八卷<歲一墓祭祝文>。

<묘제축문(墓祭祝文)>

간지 - 몇 대 손인 모관(某官) 모(某) - 가 선조고(先祖考) - 몇 대 조고, 몇 대 조비 - 이신 모관 부군(府君) - 합장(合葬)되어 있을 때 비위(妣位)도 나란히 써준다 - 의 묘(墓)에 감히 밝게 고합니다. 예(禮)에는 중제(中制)가 있어 해마다 시제를 올리니, 우로(雨露)를 밟으며 - 추동에는 상(霜)으로 쓴다. 감회와 추모의 정 더욱 깊어갑니다. 삼가 맑은 술과 시절의 음식으로 제사를 올리오니, 부디 흠향하소서. - 해마다 한 번 원위(原位)에 제사

지내는 축문은 곧 용진이 편찬한 <예절남요(禮節覽要)>에 보이는데, 《송자대전》에 근본 한 것이다. 용진은 산림 송내희(宋來熙)이다.-

**墓祭祝文。**

千支，【幾代孫某官某】，敢昭告于先祖考，【幾代祖考幾代祖妣】，某官府君【合葬則竝書妣位】之墓。歲薦一祭，禮有中制，履茲雨【秋冬云霜】露。采增感慕，謹用清酌時羞，祇奉常事，尚饗【歲一祭原位祝文，見龍田所纂<禮節覽要>，本於《宋子大全》。龍田卽宋來熙山林】。

**<후토(后土)<sup>91)</sup>께 제사지내는 글>**

간지 - 모관 성명- 아무개가 감히 토지신께 고합니다. 아무개가 선조고(先祖考) 모관(某官) 부군(府君)의 묘소에 공손히 세사를 올리니, 이렇게 보우 하심은 신명께서 돌보아주시는 덕택입니다. 이에 감히 주찬을 갖추어 밝게 일을 아뢰웁니다. 부디 흠향하소서.

**祭后土祝文。**

千支【某官姓名】，敢昭告于土地之神。某恭修歲事于先祖考某官府君之墓。惟時保佑，實賴神休。敢以酒饌，式昭報事，尚饗。

<상복소기(喪服小記)>에 이르기를 “1년이 되어 제사 지내는 것은 예이고, (또) 1년이 되어 상복을 벗는 것은 도이니, 제사 지내는 것은 상복을 벗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훈고(訓詁)에서는 “제상(除喪)은 최질(衰絰)<sup>92)</sup>을 벗고 연복으로 바꾸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주(註)에서는 “예는 사람에게 있고 도는 하늘에 있다.”라고 하였다.

<喪服小記>曰，“期而祭，禮也。期而祭喪，道也。祭，不爲除喪也。” 詁，“除喪，除衰絰易練服也。” 註，“禮存乎人，道存乎天。”

91) 후토(后土) : 토지를 맡은 귀신.

92) 최질(衰絰) : 최(衰)는 상복, 질(絰)은 수질(首絰)과 요질(腰絰)이다. 최질은 상복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1917년 5월 18일. 기유. 갸.

十八日。己酉。晴。

1917년 5월 19일. 경술. 맑다가 저녁에 비가 왔다. <천명도후설(天命圖後說)>을 읽고, 하늘이 곧 이(理)이며, 그 덕은 네 가지가 있으니, 원(元)·형(亨)·이(利)·정(貞)이 이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네 가지의 실상을 성(誠)이라 한다.- 성(誠)은 원형이정의 실상이요, 신(信)은 인의 예지의 실상임을 알았다.

十九日。庚戌。陽。夕雨。讀<天命圖後說>，得天卽理也，而其德有四曰元亨利貞是也【四者之實曰誠】。知誠爲元亨利貞之實，信爲仁義禮智之實。

1917년 5월 20일. 신해. 맑음. 저녁에 비가 음.

二十日。辛亥。陽。夕雨。

1917년 5월 21일. 임자. 맑음.

二十一日。壬子。陽。

1917년 5월 22일. 계축. 맑음.

二十二日。癸丑。陽。

1917년 5월 23일. 갑인. 흐림. 기록하기를, “증자가 말하길, ‘부자의 도는 충서일 뿐이다.’라고 했다.”라고 한 소주(小註)에서 “하동 후씨(河東侯氏)가 말하기를 ‘서가 없다면 충을 볼 수 없고, 충이 없다면 서가 나올 수 없다. 성(誠)이 마음에 있는 것을 충(忠)이라고 하고, 공용(功用)에



드러나는 것을 서(恕)라고 한다.’라고 하였는데, 정명도(程明道)가 말한 ‘충서 두 글자는 한 개만 없어도 바르게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를 이른 것이다.”라고 하였다.

二十三日。甲寅。陰。記，“曾子曰，‘夫子之道，忠恕而已矣。’小註，河東侯氏曰，‘無恕不見得忠，無忠做恕不出來。誠有是心之謂忠，見之功用之謂恕。’明道言‘忠恕二字，要除一箇不得正。’，謂此也。”

1917년 5월 24일. 을묘. 흐림. 저녁에 비가 음.

二十四日。乙卯。陰。夕雨。

1917년 5월 25일. 병진. 맑음.

二十五日。丙辰。陽。

1917년 5월 26일. 정사. 맑음.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을 보았다. 남당(南塘) 무경(茂卿) 진백(陳栢)이 지어서 스스로 경계한 것인데, 퇴계 선생이 도(圖)로 그렸다. <경재잠>은 주부자가 지은 것인데, 금화(金華) 왕노재(王魯齋)<sup>93</sup>가 도로 그렸다. <경재잠>은 경(敬)으로 말하였기 때문에 심(心) 자가 가운데에 있고, <숙흥야매잠>은 심으로서 말하였기 때문에 경자가 가운데 있다. 《중용》은 성(性)으로서 말하였기 때문에 서문을 심자로 하였고, 《대학》은 심으로서 말하였기 때문에 서문을 성자로 한 것과 같은 것이리라. 의심이 들어서 기록하였다.

二十六日。丁巳。陽。看<夙興夜寐箴>，南塘陳茂卿栢所作以自警者，退溪先生作圖。<敬齋箴>，朱夫子所作，金華王魯齋作圖。<敬齋箴>

93) 왕노재(王魯齋) : 남송(南宋) 무주(婺州) 금화(金華) 사람인 왕백(王栢, 1197~1274)이다. 자는 회지(會之) 또는 백회(伯會)이고 호는 장소(長嘯) 또는 노재이다. 저서에 《독역기(讀易記)》, 《독서기(讀書記)》, 《시변설(詩辨說)》, 《천문고(天文考)》, 《지리고(地理考)》 등이 있다.

以敬言, 故心字在中。〈夙興夜寐箴〉以心言, 故敬字在中。如《中庸》以性言, 故序以心字。《大學》以心言, 故序以性字者歟。疑以記之。

1917년 5월 27일. 무오 맑음. <건괘(乾卦)>의 구이(九二)는 성(誠)을 말하고, <곤괘(坤卦)>의 육이(六二)는 경(敬)을 말했으며, 용산 이씨(隆山李氏)<sup>94</sup>는 말하기를 “선유들의 성경(誠敬)의 학문은 대개 이 성경 두 글자를 학문하는 두뇌로 삼는 데에서 시작된다.”라고 하였다.

삼가 생각건대, 학자는 경을 써서 성에 이르고, 성인은 경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성하게 되니, 성인이 경을 쓰면 지극히 성하게 된다. 천도는 경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성하다. 자사(子思)가 말하기를 “성명을 천도라고 한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성이란 것은 하늘이 하는 것이고, 경이란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인가? 의심이 들어 기록한다.

530

二十七日。戊午。陽。乾九二言誠，坤六二言敬。隆山李氏曰，“先儒誠敬之學，蓋起於此誠敬二字，爲學之頭腦。”竊想學者用敬而至於誠，聖人不用敬而自誠，聖人用敬而至誠。天道不用敬而自誠。子思子曰，“自誠明謂之天道。”，然則誠者天做底，敬者人做底歟？疑而記之。

1917년 5월 28일. 기미. 공자는 ‘존성(存誠)’이라고 하였고, 자사는 ‘사성(思誠)’이라고 하였다. 또한 자사는 말하기를 “천지의 도는 한마디 말로써 다할 수 있으니 성일 뿐이다.[天地之道, 可一言而盡, 誠而已]”라고 하였다. 정자(程子)는 말하기를 “진실무망(眞實無妄)을 일러 성(誠)이라 하고, 주일무적(主一無適)을 일러 경(敬)이라 한다.”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천덕과 왕도는 단지 근독(謹篤)에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근독이 곧 경이고, 천덕이 곧 성실이다. 그렇다면 경은 요컨대

94) 용산 이씨(隆山李氏) : 남송(南宋)의 학자인 이순신(李舜臣)을 가리킨다. 이순신은 자가 자사(子思)이며, 고금의 학문에 통달하였고 특히 역(易)에 뛰어났다. 저서로는 《역본전(易本傳)》, 《군경의(群經義)》가 있다.

진실한 이치를 부여잡는 것이니, 성이 곧 진실한 이치이고, 경은 학문하는 요체이다. 동정·상하·중시·본말에 경하지 않음이 없으니, 잠깐이라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二十八日。己未。孔子曰‘存誠’，子思曰‘思誠’。又曰，“天地之道，可一言而盡，誠而已。”程子曰，“眞實无妄之謂誠，主一無適之謂敬。”又曰，“天德王道，只在謹獨。”謹獨者卽敬也，天德者誠也。然則敬要扶持眞實之理，誠卽眞實之理也，敬爲學之要也。動靜上下終始本末無不敬，不可須臾離也。

1917년 5월 29일. 경신. 맑음.

二十九日。庚申。陽。

1917년 5월 30일. 신유. 맑음.

三十日。辛酉。陽。

531

1917년 6월 1일. 임술. 맑음. ‘용야인이불녕장(雍也仁而不佞章)<sup>95)</sup>을 보았다.

그 주(註)에, “혹자가 의심하여 ‘중궁(仲弓)의 현명함으로도 공자에게서 그 인(仁)함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왜 그런 것인가?’라고 묻자 주자가 답하길, ‘인의 도는 지극히 커서 전체를 가지고서 쉬지 않는 자가 아니면 당해낼 수 없다.’고 하였다.”라고 했다. 그 소주(小註)에서 채씨(蔡氏)가 말하기를, “전체는 천리가 혼연하여 한 오라기의 잡스러운 것도 없는 것이며, 불식은 천리가 유행하여 한 순간도 쉬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애지리심지덕(愛之理心之德)’ 여섯 글자는 인의 뜻을 가르친 것으

95) 용야인이불녕장(雍也仁而不佞章) : 《논어(論語)》 <공야장(公治長)>에 나온다.

로 매우 절실한 것이다. ‘전체불식(全體不息)’ 네 글자는 인의 도를 다한 것으로 매우 큰 것이다. 다만 이렇게 열 글자로 축약하는 데는 여러 유자들이 수천 백 마디의 말로도 다 말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후로 성현들이 논한 ‘인’이라는 글자의 부박정심(溥博精深)<sup>96</sup>하고 천조만서(千條萬緒)<sup>97</sup>한 것들이 모두 열 글자 속으로 모아진[總會] 것 아님이 없다.

또 일전에 보았던 《성학십도》와 <우계의 편지에 대한 율곡의 답장[栗谷答牛溪書]>을 기록한다.

“정자(程子)가 말하길, ‘기(器) 또한 도(道)이고, 도(道) 또한 기(器)이다.’<sup>98</sup>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理)와 기(氣)가 서로 분리될 수 없음’을 말한 것인데, 이것을 읽는 자들은 마침내 이와 기를 한 물건이라 여긴 것입니다. 주자가 말하길 ‘이기는 결단코 두 물건이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이기가 서로 뒤섞이지 않음’을 말한 것인데, 이것을 읽는 자들은 마침내 ‘이기에 선후가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sup>99</sup> 근래에 이른바 ‘성이 먼저 일어나는가 심이 먼저 일어나는가 하는 설[性先動心先動說]’도 굳이 말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六月。初一日。壬戌。陽。‘看雍也仁而不佞章’。集註，“或疑仲弓之賢，而夫子不許其仁，何也。朱子曰，仁道至大，非全體而不息者，不足以當之。”小註 蔡氏曰，“全體是天理渾然，無一毫之雜。不息是天理流行，

96) 부박정심(溥博精深) : 두루 넓으면서도 정밀(精密)하고 심오(深奧)한 것이다.

97) 천조만서(千條萬緒) : 천 가지 조목과 만 가지 실마리를 뜻한다.

98) 기 또한 …… 기이다 : 《주역》 <계사전 상(繫辭傳上)>의 “형이상의 것을 도라고 하고 형이 하의 것을 기라고 한다.[形而上者謂之道，形而下者謂之器]”라는 말을 명도 정호(程顥)가 해설하면서 “기도 도이고 도도 기이다[器亦道，道亦器]”라고 하고 또 “원래 다만 이것이 바로 도이다.[元來只此是道]”라고 해설하였다.(《이정전서(二程遺書)》) 도(道)는 무형(無形)의 추상적인 도리를 뜻하고 기(器)는 유형(有形)의 구체적인 사물을 뜻하는 중국 철학 용어인데, 여기서는 도와 기 즉 이(理)와 기(氣)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정호가 해석한 것이다.

99) 이기는 …… 것입니다 : 일기 원문에 ‘理氣爲物先後’로 되어 있는데, 율곡집을 참고하여 ‘理氣爲有先後’로 바로잡아 번역했다.

無一息之間。”‘愛之理心之德’六字，所以訓仁之義，爲甚切。‘全體不息’四字，所以盡仁之道，爲甚大，只此十字之約，不惟諸儒累千百言莫能盡，而前後聖賢所論仁字，溥博精深，千條萬緒，莫不總會於十字中矣。

又記日前看得《聖學十圖》〈栗谷答牛溪書〉。“程子曰，‘器亦道道亦器’，此言理氣之不能相離，而見者遂以理氣爲一物。朱子曰，‘理氣決是二物’，此言理氣不相雜挾，而見者遂以理氣爲一物先後。近來所謂性先動心先動之說，固不足道矣。”

주자는 “동하는 곳은 심이고, 동하는 것은 성(性)이다.”라고 했으니, ‘처(處)’와 ‘저(底)’ 두 글자를 보면 알 수 있다.

朱子曰, “動處是心, 動底是性”, 看處底二字, 可知矣.

퇴계는 “심성과 이기는 혼연한 일물이다.”라고 하였다.

退溪曰, “心性與理氣渾是一物。”

1917년 6월 2일. 계해. 맑음.

二日。癸亥。陽。

1917년 6월 3일. 갑자. 맑음.

三日。甲子。陽。

### <인심도심도(人心道心圖)>

심(心)

도심(道心)은 성명(性命)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은미(隱微)하고 바르다.

인심(人心)은 형기(形氣)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위태롭고 사사롭다.

노재왕씨(魯齋王氏)<sup>100</sup>가 말하기를, “주자는 ‘인심과 도심이 같지 않은데, 그것이 혹은 형기의 사사로움에서 생겨나거나, 혹은 성명의 바름에서 근원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미 사(私)라고 말하였으면 곧 인욕인데, ‘인심을 인욕이라고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은 왜 그런 것인가? 대개 원(原)자는 밖으로부터 미루어 들어온 것이므로 그것이 본래 있는 것임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은미하다고 한 것이다. 생(生)자는 물에 감응하여 움직인 것으로 그것이 본래 없는 것임을 안다. 때문에 위태롭다고 한 것이다. 정(正)자, 생(生)자는 다 밖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인심을 인욕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인심이 바로 인욕이라면 성인은 반드시 위(危)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위란 인욕으로 흐르기 쉽다는 것을 말한다. 인하여 손수 그림을 완성했다.

人心道心圖。

心。

534

道心，原於性命，故微正。

人心，生於形氣，故危私。

魯齋王氏曰，“朱子謂‘人心道心不同，以其或生於形氣之私，或原於性命之正’，既曰私則人欲矣。又曰，‘人心不可謂之人欲’，何也。蓋原字自外推入，知其本有，故曰微。生字感物而動，知其本無，故曰危。正字生字，皆見於外者，故人心不可謂之人欲，人心便是人欲，聖人必不曰危，危者謂易流人欲也。因手畫成圖。”

1917년 6월 4일. 을축. 흐리고 비가 온 흔적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四日. 乙丑. 陰雨痕. 還巢.

100) 노재 왕씨(魯齋王氏) : 남송(南宋) 무주(婺州) 금화(金華) 사람이다. 이름은 왕백(王柏, 1197~1274)이고, 자는 회지(會之)·백회(伯會)이고, 호는 장소(長嘯)·노재이다. 시호는 문헌(文憲)이다. 조부 왕사유(王師愈)는 양시(楊時)의 제자이고, 부친 왕한(王瀚)은 여조겸(呂祖謙)에게 수학하였으며, 자신은 하기(何基)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1917년 6월 5일. 병인. 먼저 흐렸다가 뒤에 맑아졌다. 옥전(玉田)으로 돌아왔다.

五日。丙寅。先陰後陽。還玉田。

1917년 6월 6일. 정묘. 맑음. <성학도(聖學圖)>를 보았다.

사계(沙溪)<sup>101</sup>가 일찍이 한밤중에 그[송시열]를 불러 가로되, “너는 심성정의(心性情意) 등의 글자를 아느냐?”라고 했다. (송시열이)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다만 주설(註說)에서 몽롱하게 보고 지나쳤으니, 어찌 분명하게 알겠습니까?”라고 했다.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심(心)은 그릇과 같고, 성(性)은 그릇 속에 있는 물과 같다. 정(情)은 물을 쏟아내는 것과 같다. 이 물을 저장하고 때때로 쏟아내는 것이 기(器)이다. 이 성을 함양하고 이 정을 발하는 것이 심(心)이니, 이것이 심과 정의 구별이다. 이 정이 이미 발한 뒤에 경영하고 기획하는 것은 의(意)이다. 한 가지 일을 지향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지(志)이다. 사와 지는 서로 가깝지만, 다만 지는 크고 사는 작다. 염려(念慮)는 사에 속하는 것이지만, 려(慮)에는 근심하고 헤아린다는 뜻이 있다.”라고 했다.

또 말씀하시기를, “정(情)이란 부지불식간에 불쑥 나타나는 것이요, 자기에게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타난 것을 경영하고 피하는 것이 의(意)이다. 여기에 이른 연후에야 비로소 자신에게서 말미암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성정(誠情)이라 하지 않고 성의(誠意)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六日。丁卯。陽。看<聖學圖>。沙溪，嘗於夜裏呼之曰，“爾知心性情意等字乎？”對曰，“尤庵只於註說，朦朧看過，豈得分明識破乎？”曰，“心如器，性如器中之水。情如水之瀉出者。貯此水而有時瀉出者器也。涵

101) 사계(沙溪) :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의 호이다.

此性而發此情者心也, 此心情之別也。此情既發之後, 經營謀劃者意也。指向一事而欲之者志也。思與志相近, 但志則大, 而思則小也。念慮則思之屬, 而慮有虞度之意矣。”又曰, “情是不知不覺闖然發出, 不由自家者也, 以此發出者, 經營謀劃者, 意也。至此然後, 始由自家, 故《大學》不曰誠情, 而曰誠意也。”

1917년 6월 7일. 무진. 맑음.

七日。戊辰。陽。

1917년 6월 8일. 기사. 맑음.

八日。己巳。陽。

1917년 6월 9일. 경오. 맑음.

九日。庚午。陽。

536

1917년 6월 10일. 신미. 맑음. 근래에 가뭄이 너무 심하여 백성들이 운예(雲霓)<sup>102</sup>를 고대한다. 곡성(谷城)<sup>103</sup> 등지에는 소나기가 쏟아졌다.

十日。辛未。陽。近者旱既太甚, 民望雲霓, 曲城等驟雨。

1917년 6월 11일. 임신. 맑음. <중하의 문명을 쓰다[用夏]>를 읊다.

十一日。壬申。陽。<用夏>詠。

102) 운예(雲霓) : 운에는 구름과 무지개이다. 《맹자》 <양혜왕 하(梁惠王下)>에 “백성들이 고대하기를 큰 가뭄에 운예를 고대하듯 하였다.[民望之, 若大旱之望雲霓也.]”라고 하였다.

103) 곡성(谷城) : 원문에는 ‘曲城’으로 표기되었으니, 오기인 듯하다.



<중하의 문명을 쓰다><sup>104)</sup>

用夏

난세의 강산을 한결같이 하늘에 맡기니,  
 교만한 풍조 어지러운 중하가 어느 때나 맑아질까.  
 소인한 전례(典禮)에 수훈이 밝은데도,  
 손익한 문질은 변화된 이전과 괴리되네.<sup>105)</sup>  
 진리는 혼란하고 이단은 새로워져 윤리가 절로 무너지며,  
 철인은 숨고 현인은 사라졌으니 도를 누가 전할까.  
 아, 우리 봉우들은 성인의 법을 준수하여,  
 중화의 문명을 쓰는 것 더욱 견고해야 하리라.

草味江山一聽天  
 慢風猾夏霽何年  
 所因典禮明垂訓  
 損益文質乖變前  
 眞亂異新倫自歎  
 哲隱人亡道孰傳  
 嗟我友朋遵聖法  
 以其用夏固尤堅

1917년 6월 12일. 계유. 맑음.

十二日。癸酉。陽。

1917년 6월 13일. 갑술. 맑음.

十三日。甲戌。陽。

1917년 6월 14일. 을해. 맑음.

十四日。乙亥。陽。

104) 용하(用夏) : 《맹자(孟子)》 <등문공 상(滕文公上)>의 “중화의 문화로 오랑캐를 변화시켰다는 말은 들었지만, 중화가 오랑캐에게 변화되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吾聞用夏變夷者，未聞變於夷者也]”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105) 소인한 …… 괴리되네 : 《논어》 <위정(爲政)>에 공자가 “은나라는 하나라의 예를 인하였으니 덜고 보텐 바를 알 수 있고, 주나라는 은나라의 예를 인하였으니 덜고 보텐 바를 알 수 있다. 뒤에 혹시 주나라를 이을 자가 생긴다면 비록 백세의 뒤라도 알 수 있는 것이다. [殷因於夏禮，所損益可知也，周因於殷禮，所損益可知也，其或繼周者，雖百世可知也.]”라고 하였는데, 그 집주에 마융(馬融)이 “인한 것은 삼강(三綱)과 오상(五常)을 이르고, 가감한 것은 문(文)·질(質), 삼통(三統)을 이른다.[所因，謂三綱五常，所損益，謂文質三統.]”라고 하였다. 손익(損益)은 시대의 상황에 맞도록 조화하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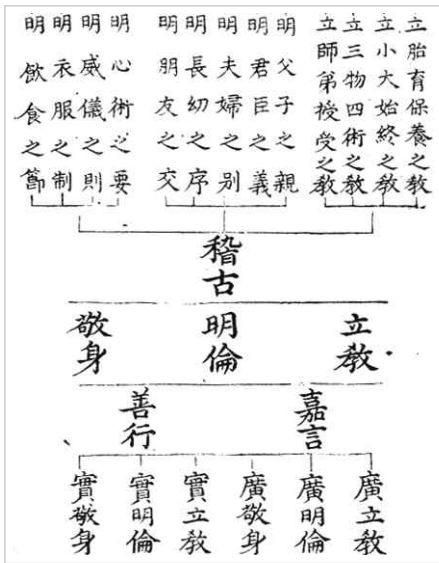
1917년 6월 15일. 병자. 맑음. 설사증으로 이삼일 동안 신음했다.

十五日。丙子。陽。以泄瀉症，二三日呻吟。

1917년 6월 16일. 정축. 맑음.

十六日。丁丑。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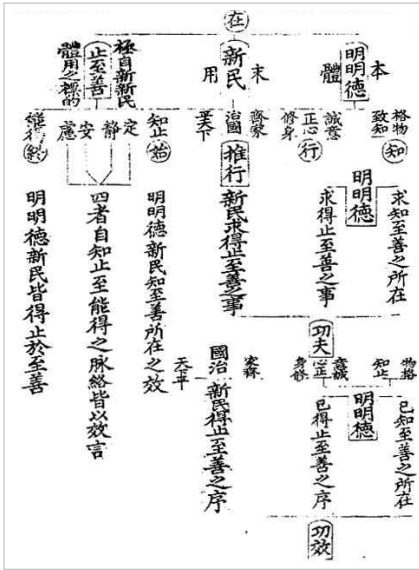
<소학도(小學圖)>



○ 《소학》은 옛날에는 그림이 없었습니다. 신 황이 삼가 본서(本書) 목록에 의거하여 이 그림을 만들어서 《대학》의 그림에 짝이 되도록 하였고, 또 주자의 《대학혹문(大學或問)》에서 《대학》과 《소학》을 통론한 설을 인용하여 두 가지를 공부하는 대강으로 보였습니다.

《小學》古無圖。臣滉謹依本書目錄爲此圖，以對《大學》之圖。又引朱子《大學或問》通論大小之說，以見二者用功之梗槩。

<대학도(大學圖)>



1917년 6월 17일. 무인. 흐림. 저물녘에 집으로 돌아왔다. 오는 길에 간간이 내리는 비를 만났는데, 밤에도 일리우(一犁雨)<sup>106</sup>가 쏟아졌다.

十七日。戊寅。斜陽還巢。路逢間雨，夜一犁雨注。

1917년 6월 18일. 기묘. 손자 아이가 이질(痢疾)병이 있어서 계속 머물렀다. 날씨가 흐려 비가 올듯했으나 내리지 않았다.

十八日。己卯。以孫兒痢疾之患留連。日氣陰欲雨而未雨。

1917년 6월 19일. 경진. 흐리고 비.

十九日。庚辰。陰雨。

1917년 6월 20일. 신사. 흐림.

二十日。辛巳。陰。

106) 일리우(一犁雨) : 쟁기질을 하기에 알맞게 내린 비를 말한다.

1917년 6월 21일. 임오. 흐리다 맑음.

二十一日。壬午。陰而陽。

1917년 6월 22일. 계미. 맑음.

二十二日。癸未。陽。

1917년 6월 23일. 갑신. 맑음.

二十三日。甲申。陽。

1917년 6월 24일. 을유. 흐리고 비.

二十四日。乙酉。陰雨。

1917년 6월 25일. 병술. 흐림.

二十五日。丙戌。陰。

1917년 6월 26일. 정해. 흐림. 저녁에 비가 왔다.

二十六日。丁亥。陰。夕雨。

1917년 6월 27일. 무자. 맑음. 천기가 맑았다. 산중에 은둔하여 책력이 없으니, 밤에 다만 북두(北斗)를 보고 시절의 바뀜을 증험한다.

二十七日。戊子。陽。天朗氣清。遯跡山中無曆日，夜只看北斗驗時移。

1917년 6월 28일. 기축. 맑음.

二十八日。己丑。陽。

<안자전수위인지도(顔子傳授爲仁之圖)>107)

約 禮 服 膺 勿 失	博 文 擇 乎 中 庸
復 禮 知 之 未 嘗 復 行	克 己 不 善 未 嘗 不 知
事之復克 舍則藏	日之復克 三月不違 仁不改其樂
如忽有立 有在所	鑽仰彌堅 欲罷不能 高不能
爲邦	
遠樂服乘行放 佞韶周殷夏鄭 人舞冕輅時聲	

107) 안자전수위인지도<顔子傳授爲仁之圖> : 박세채가 1693년 후학을 면려하기 위해 지은 <顔子傳授爲仁圖>는 <남계집(南溪集)>에 실려 있는데, 원문과 몇 글자가 다르다.

1917년 6월 29일. 경인. 맑음.

二十九日。庚寅。陽。

1917년 6월 30일. 신묘. 맑음. 《노어(魯語)》 용야장(雍也章)을 보았다. 정자(程子)가 이르기를 “천지(天地)가 정기를 축적할 때에 오행(五行)의 빼어난 기운을 얻은 것이 사람이 된다. 그 근본은 참되고 고요하다. 아직 발하지 않았어도 오성(五性)이 구비되어 있으니,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이다.”라고 하였다.

三十日。辛卯。陽。看《魯語》<雍也章>。程子曰，“天地儲精，得五行秀者爲人，其本也，眞而靜。其未發也，五性具焉，仁義禮智信也。”

1917년 7월 1일. 임진. 맑음. 순창(淳昌) 한사동(翰士洞)에 사는 박병관(朴秉觀)이 왔다. 소풍을 가자고 유혹하기에 용호(龍湖)와 김규창(金奎昌)을 따라 두루 구경하고 읊조리다가 돌아왔다. 석양에 주막에 들어가 마구 마시고 돌아왔다.

七月。初一日。壬辰。陽。淳昌翰士洞朴秉觀來。誘嘯風，隨龍湖與金奎昌，周觀咏歸野。夕陽入酒肆，浪飲而回。

1917년 7월 2일. 계사. 맑음. 석양 무렵 한전(寒戰, 오한이 심하여 몸이 떨리는 증세)이 든 후 토하고 설사하였다.

二日。癸巳。陽。斜陽寒戰後吐瀉。

1917년 7월 3일. 갑오. 맑음. 가서(家書)를 부쳤다.

三日。甲午。陽。寄家書。

1917년 7월 4일. 을미. 새벽에 비오고 흐림.

四日。乙未。晨雨陰。

1917년 7월 5일. 병신. 맑음.

五日。丙申。陽。

1917년 7월 6일. 정유. 맑음.

六日。丁酉。陽。

1917년 7월 7일. 무술. 맑음.

七日。戊戌。陽。

1917년 7월 8일. 기해. 맑음. 용호(龍湖)가 말하길, “물은 고도(古道)를 찾아 설강으로 가고”라고 하고, 응성은 “큰물은 하늘에 넘치나 끝내는 반드시 동쪽으로 돌아가리.”라고 말하였다. 종일토록 단란하게 지내면서 술을 불러서 마셨다.

八日。己亥。陽。龍湖曰，“水尋古道行雪岡。”應聲曰，“洪水滔天，終必歸東。”團圍終日，招酒以飲。

1917년 7월 9일. 경자. 맑음.

九日。庚子。陽。

1917년 7월 10일. 신축. 흐림. 석양에 비가 내렸다.

十日。辛丑。陰。夕陽雨。

1917년 7월 11일. 임인. 흐림. 비의 흔적이 있었다.

十一日。壬寅。陰。雨痕。

1917년 7월 12일. 계묘. 흐림. 비가 오려고 하였다. 용호(龍湖)가 송도유수(松都留守)에서 전라감사(全羅監使)로 옮긴 심이택(沈履澤)<sup>108</sup>을 칭송하여 시를 지었다.

十二日。癸卯。陰。雨意。龍湖頌沈履澤，以松都留守，移全羅監使韻

높은 바람에 낙엽 지니 포은 노인을 회상하고	落木高風懷圃老
가을 물이 청빙 <sup>109</sup> 같으니 담옹(하서)을 생각하네.	清水秋水思澹翁

1917년 7월 13일. 갑진. 맑음.

十三日。甲辰。陽。

1917년 7월 14일. 을사. 맑음. 집으로 돌아왔다.

十四日。乙巳。陽。歸巢。

1917년 7월 15일. 병오. 맑음.

十五日。丙午。陽。

108) 심이택(沈履澤, 1832~?) : 자는 치은(稚殷), 본관은 청송(靑松)이다. 1864년 흥선대원군을 ‘궁도량’이라 조롱하였던 일로 삼사의 탄핵을 받아 의주부윤에서 삭직되고 유배되었다. 1874년 이조참의에 이어 대사성, 개성부유수, 전라도관찰사, 광주유수, 한성판윤, 이조·예조·형조·호조의 판서, 홍문관·예문관 양관 제학 등 요직을 거쳤다.

109) 청빙(淸氷) : 맑은 얼음이라는 뜻으로, 타인의 인품이 고결함을 찬미하는 말이다. 두보(杜甫)의 “깊은 골짜기에서 나온 한 덩어리 맑은 얼음을, 한(漢)나라 영풍관과 노한관처럼 시원한 곳의 옥병에 넣어 둔 것같이 투명하게 빛나네.[炯如一段淸冰出萬壑，置在迎風露寒之玉壺.]”라는 표현에서 나온 것이다.(《두소릉시집(杜少陵詩集)》)



1917년 7월 16일. 정미. 흐리고 비.

十六日。丁未。陰雨。

1917년 7월 17일. 무신. 흐리고 비.

十七日。戊申。陰雨。

1917년 7월 18일. 기유. 흐리고 비.

十八日。己酉。陰雨。

1917년 7월 19일. 경술. 흐림. 간간이 비가 내렸다. 옥전으로 돌아왔다.

十九日。庚戌。陰。間間雨。還玉田。

1917년 7월 20일. 신해. 맑. 밤에 비가 내렸다.

二十日。辛亥。晴。夜雨。

545

1917년 7월 21일. 임자. 맑음. 죽암(竹菴)이 말하기를 “부친상 중에 모친상을 당하면, 비록 하루 사이일지라도 삼년상을 지내지 않을 수 없다. 신주(神主)에는 ‘현비(顯妣)’라고 쓰고 방제(旁題)<sup>110</sup>에는 ‘효자(孝子)’라고 쓴다. 《유집(類輯)》의 우암설(尤菴說)에서 나온다.”라고 하였다.

二十一日。壬子。陽。竹菴曰，“父喪中母喪，雖一日之間，不得不伸三年。題主以顯妣，旁題以孝子。見《類輯》尤菴說出之。”

1917년 7월 22일. 계축. 흐림.

110) 방제(旁題) : 신주(神主)의 아랫부분 왼쪽에 제사를 받드는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것을 말한다.

二十二日。癸丑。陰。

1917년 7월 23일. 갑인. 흐림. 밤에 가랑비가 내렸다. <<향음주례홀기고증(鄉飲酒禮笏記考證)>><sup>111)</sup>을 보고 의심나는 글자를 기록한다. 계(戒)는 고(告)이다. 개(介)의 음은 계(界)이다. 일치(一觶)는 작(爵)의 큰 것으로 4승(四升)을 받는다. 영(榮)은 집의 처마이다. 좌(阼)는 동쪽 계단이다. 진(陳)은 당도(堂塗)<sup>112)</sup>이다. 구(胸)는 가운데를 접은 포(脯)이다. 노(臑)는 비절(臂節)이다. 후(後)는 질골(脛骨)이다. 엽(厭)의 음은 엽(葉)이다. 손을 미는 것을 읍(揖)이라 하고 안으로 당기는 것을 엽(厭)이라 한다. 의(疑)는 음이 열(臬)이니, 바르게 서서 스스로 안정한 모양이다. 채(啐)는 음이 채(蔡)인데 뜻은 상(嘗)이다.

二十三日。甲寅。陰。夜小雨。看 <<鄉飲酒禮笏記考證>>，記疑難字。戒告也。介音界。一觶爵之大受四升。榮屋翼也。阼東階也。陳堂塗也。胸中屈脯也。臑臂節也。後脛骨也。厭音葉。推手曰揖。引手曰厭。疑音臬。正立自定之貌。啐音蔡嘗也。僕音遵。遵法而助主人者。

546

1917년 7월 24일. 을묘. 반짚 흐리고 반짚 맑음.

二十四日。乙卯。半陰半陽。

<향음주례인원>

빈(賓) -빈을 세워서 하늘을 형상하니 그것을 높이는 까닭이다.- 주(主) -주를 세워서 땅을 상징하니 그것을 기르는 까닭이다.- 개(介) -개(介)에는 강변(剛辨)의 뜻이 있고, 양(陽)을 형상하며 빈(賓)을 돕는다.- 준(僕) -준

111) <<향음주례홀기고증(鄉飲酒禮笏記考證)>> : 이준(李埈, 1812~1853)이 향음주례에 대한 <홀기(笏記)>들을 모아, <<의례>>의 <사관례(士冠禮)>·<향사례(鄉射禮)>·<대기(戴記)> 등을 참고하여 주석과 해석을 덧붙인 책이다.

112) 당도(堂塗) : <<이아(爾雅)>>에 “진(陳)은 당도(堂塗)이다”라고 했는데, 당도는 당 아래에서 당의 문에 이르는 길을 말한다.

에는 손입(巽入)의 뜻이 있고 음(陰)을 형상하며 주인을 돕는다. 준(僕)의 음은 준(遵)으로, 법을 따라서 주인을 돕는 자이다. - 일빈장·이빈장·삼빈장은 삼광(三光)<sup>113)</sup>이 천지를 돕는 것과 같다.

집사자는 삼인으로, 주존(主尊)을 씻고 설한 것을 천조(薦俎)한다. 빈주와 제자는 개준(介僕)<sup>114)</sup>으로, 제자는 중빈(衆賓)<sup>115)</sup>이 20이상이면 당상(堂上)에 자리하고, 중빈이 50이하이면 당하(堂下)에 위치하게 한다. 여러 대부의 준은 1인으로 하고, 그 외 여러 대부의 요좌(僚佐, 보좌관)·현승(縣丞, 현령)·주부(主簿)·전사(典史) 등의 부류는 의례를 돕는다. 한 사람이 흘기(笏記)를 읽는다. 찬인(贊引, 의식의 진행 절차를 돕고 인도하는 사람)은 5인, 빈주·개준·빈장은 각기 사정 1인을 둔다. 추대 받은 자로써 상(相)을 삼고, 숙례자(熟禮者)로써 거치자(舉解者, 술잔을 올리는 사람)를 삼는다. 가공(歌工)은 2인, 슬공(瑟工)은 2인, 생공(笙工)은 1인, 경공(磬工)은 1인, 고공(鼓工)은 1인이다.

鄉飲酒禮人員。

賓【立賓，以象天，所以尊之也。】主【立主，以象地，所以養之也。】介【介有剛辨之義，象陽以輔賓。】僕【僕有巽入之義，象陰以輔主人。僕音遵。遵法而助主人者。】一賓長二賓長三賓長，猶三光之輔于天地。執事者三人，主尊所洗所設薦俎。賓主弟子介僕，弟子衆賓二十以上，席于堂上，衆賓五十以下，位于堂下。諸大夫僕一人，外諸大夫僚佐縣丞主簿典史之類贊禮。一人唱笏記。贊引五人。賓主介傳賓長，各有司正一人。以所推者爲之相，以熟禮者爲之舉解者。歌工二人，瑟工二人，笙工一人，磬工一人，鼓工一人。

1917년 8월 21일. 신사. 문암리 생가에 도착하였다.

113) 삼광(三光) : 삼광은 해, 달, 별을 말한다.

114) 개준(介僕) : 향음주례(鄉飲酒禮) 때 행사를 도와 주선하는 자. 주인을 돕는 자를 준(僕), 빈(賓)을 돕는 자를 개(介)라 한다.

115) 중빈(衆賓) : 손님 중 제일 뒷자리에 모실 분을 빈(賓), 그 다음을 개(介), 기타를 중빈(衆賓)이라 한다. 옛날에는 연회의 모임에서 빈이 그 좌석의 법도를 주관하고, 개가 빈을 보좌하여 직접 실행하였다.

丁巳。八月。二十一日。辛巳。到門峇里生家。

1917년 8월 22일. 임오 맑음. 덕진동 생부 묘에 성묘를 갔다. 옥전으로 가다가 남계당(南溪堂) 조카를 방문했는데 만나지 못했다. 오서방(吳書房) 집에서 점심을 먹고 석양 무렵에 옥전에 도착했다.

二十二日。壬午。陽。德振洞生父墓省行。向玉田，過訪南溪堂姪而不遇。午飯於吳書房家，夕陽到玉田。

1917년 8월 23일. 계미. 맑음. 성묘를 하러 화면(火面) 가지봉에 있는 생모의 묘에 갔다. 이어서 하청(下靑)의 김세규(金世奎)댁으로 내려와 <회헌신도비명(晦軒神道碑銘)>을 보았다.

二十三日。癸未。陽。省行於火面佳枝峯生母墓。因下下靑金世奎宅，見<晦軒神道碑銘>。

<문성공 회헌선생 신도비명(文成公晦軒先生神道碑銘)>

우리나라는 옛날 기자(箕子)가 홍범(洪範)<sup>116)</sup>을 다스려서 이룬(彝倫)을 펼치고 중하의 문명을 써서 오랑캐를 변화시켰는데, 뒤에는 깨달은 자가 드물어서 이교(異敎)의 함정에 빠진 것이 천여 년이었다. 고려 말에 성인의 도를 높일 줄을 알아서 국(國)에는 상(庠)<sup>117)</sup>과 향(鄉)에는 서(序)<sup>118)</sup>가 설치되니 문풍이 율홍해져서 여러 현인이 배출됨에 변화되어 중국처럼 되었다.

116) 홍범(洪範) : <서경(書經)> <주서(周書)>의 편명으로, 홍범은 천하를 다스리기 위한 아홉 가지의 원리이다. 기자(箕子)가 주 무왕(周武王)에게 가르쳐 준 것으로 곧 오행(五行)·오사(五事)·팔정(八政)·오기(五紀)·황극(皇極)·삼덕(三德)·계의(稽疑)·서징(庶徵)·오복(五福)을 말한다.

117) 상(庠) : 고대의 지방 교육기관을 말한다. 삼대(三代)에서는 그 명칭이 달랐다. 즉 하(夏)나라에서는 교(校), 은(殷)나라에서는 서(序), 주(周)나라에서는 상(庠)이라고 불렀으며, 학(學)이란 표현은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사용하였다.

118) 서(序) : 고대의 지방 교육기관을 말한다. 삼대(三代)에서는 그 명칭이 달랐다. 즉 하(夏)나라에서는 교(校), 은(殷)나라에서는 서(序), 주(周)나라에서는 상(庠)이라고 불렀으며, 학(學)이란 표현은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사용하였다.

또 육백여 년이 지난데, 내가 일찍이 그 사이에 반드시 호걸지사가 일어나 변하기 어려운 것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루는 김학수(金鶴洙)·정은조(鄭閔朝)<sup>119)</sup>·이만규(李晩奎) 등 여러 신사가 그 옛 동료인 윤헌섭(尹憲燮)을 보내 《회헌실기(晦軒實記)》 한 책을 안고 수륙길 70리를 달려와 궐리(闕里)의 고택에 있는 나를 방문하게 하여 회헌의 <신도비문>을 써주길 요구했는데, 나를 성인의 후예라고 여겼던 것이다. 《회헌실기》를 살피고 여러 번 반복해 읽어보고는 곧 황홀하게 천여 년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자는 실로 우리 회헌(晦軒) 안자(安子)이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안자는 고려 사람인데, 중국에 들어가 주자서를 보고 성문(聖門)의 적진이 됨을 알았다. 일찍이 말하길, “중니[공자]를 배우고자 한다면 먼저 회암[주희]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마침내 공자의 영정과 주자의 진영을 모사해 와서 집 뒤의 정사에 안치하고 조석으로 참배하였다. 이어서 집을 바쳐서 국학으로 삼게 하고, 전토와 노비를 바치고 창고를 갖추었으며 부릴 사람을 제공하였다. 다시 사람을 강남(江南, 난징)에 보내서 공자와 70제자의 화상, 그리고 예를 강(講)할 악기(樂器)와 육경(六經)<sup>120)</sup> 및 제자(諸子)·사서(史書) 등을 받들어 오게 함으로써 동방이 이로부터 문물이 성하게 되고 예속이 아름답게 되어 기자를 봉한 옛 땅에 부끄럼이 없게 되었다. 여러 왕은 은덕에 보답하고 여러 선비는 우리러 받들어서 위로는 성무(聖廡, 문묘)에 제향하고, 아래로는 서원에서 향사한다. 동방 이학의 비조라고 칭하니 거의 과분한 칭찬이 아니다. 안자의 휘는 향(珦)이고, 시호는 문성(文成)이며, 회헌(晦軒)은 그의 호이다. 장지는 조선국 장단부(長湍府)의 대덕산 자좌(子坐)의 언덕에 있다.

명에 이르길,

동방의 나라에 안자가 있으니,	東國有安氏子
세상에서는 회헌선생이라 부르네,	世稱晦軒先生

119) 정은조(鄭閔朝, 1856~1926) : 자는 노언(魯言), 호는 언재(淵齋), 본관은 동래(東萊)이다. 1880년(고종17) 증광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홍문관과 사간원에서 여러 관직을 거친 뒤 1887년 서장관이 되어 청(淸)나라에 다녀왔다.

120) 육경(六經) : 춘추 시대(春秋時代)의 여섯 가지 경서. 《역경(易經)》, 《서경(書經)》, 《시경(詩經)》, 《춘추(春秋)》, 《악기(樂記)》, 《예기(禮記)》를 이른다.

공부자를 근본으로 삼고 회암을 배워서,	宗夫子學晦菴
유도를 흥기시키고 밝혔네.	興儒化道以明
큰 덕은 더욱 높아져서,	大德兮彌崇
천년이 지나도록 체골은 편안하네.	閱千歲體骨寧
선비들도 사모하고 나도 또한 사모하니,	多士慕我亦慕
그 실상을 주워서 명으로 삼는다.	撫其實以爲銘

공자탄강 2468년 정사년(1917) 윤 2월에 66대손 연성공(衍聖公)을 세습한 공영이(孔令貽)가 삼가 지음.

文成公晦軒先生神道碑銘。

東國故箕子，治衍洪範，以敍彝倫，用夏變夷，而後覺者鮮焉，致陷異教，凡千有餘年。高麗之季，知尊聖道，國庠鄉序，文風蔚興，群賢輩出，變而華之。又六百有餘年，余嘗謂其間必有豪傑之士作，故卒能變其難變也。日有金鶴洙·鄭閔朝·李晚奎諸紳士，送其舊僚尹憲燮，抱《晦軒實記》一部，走水陸七十里，訪余於闕里古宅，徵《晦軒之神道碑文》，以余爲聖嗣也。按實記而三復之，乃恍然，於能變千有餘年者，實爲我晦軒安子也。安子高麗人也，入中國，見朱子書，知爲聖門嫡傳。嘗曰，“欲學仲尼，先學晦菴”，遂模聖幀及朱子眞，安於宅後精舍，朝夕瞻謁，仍獻宅爲國學，納土田臧獲，備廩供役。復遣人于江南，奉先聖及七十子之像，併講禮樂器六經子史，以東於是乎文物之盛，禮俗之美，無愧爲箕封故域。列王崇報，諸儒尊奉，上以躋聖廡，下以享書院，稱東方理學之祖，殆非溢美也。安子諱珣，諡文成，晦軒其號也。葬在朝鮮國長湍府大德山子坐原。銘曰，東國有安氏子，世稱晦軒先生。宗夫子學晦菴，興儒化道以明。大德兮彌崇，閱千歲體骨寧。多士慕我亦慕，撫其實以爲銘。

孔子誕降二千四百六十八年，丁巳閏二月日，六十六代孫，世襲衍聖公，孔令貽，敬題。

1917년 9월 17일. 정미. 흐림. 이날은 아버지의 제삿날이다. 왼쪽 무릎이 마비되어 기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제사에 참석할 수 없었으니,

지금에야 비로소 공자께서 ‘내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과 같다[吾不與祭如不祭]<sup>121)</sup>고 하신 뜻을 알겠다.

九月。十七日。丁未。陰。是日先考諱辰也。左膝不仁，起居極難，故不得參祭，於今始知 ‘孔子曰，吾不與祭如不祭’之意也。

1917년 9월 18일. 무신. 흐림. 더럽고 탁한 꼴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十八日。戊申。陰。渙澀之狀，不可形言。

1917년 9월 19일. 기유. 흐림. 오후에 비가 내렸다.  
十九日。己酉。陰。午後雨。

1917년 9월 20일. 경술. 맑은 후 흐리고, 흐린 후 비가 내렸으며, 비가 내린 후 눈이 내렸다.  
二十日。庚戌。陽而陰，陰而雨，雨而雪。

551

1917년 9월 21일. 신해. 흐림.  
二十一日。辛亥。陰。

1917년 9월 22일. 임자. 맑음. 보첩(譜帖)을 봉심하였다.  
二十二日。壬子。陽。奉審譜帖。

1917년 9월 23일. 계축. 흐림.  
二十三日。癸丑。陰。

121) 내가 …… 것과 같다 : 《논어》 <팔일편(八佾篇)>에 나온다.

1917년 9월 24일. 갑인. 흐림. 때때로 비가 내렸다. 오늘은 입동(立冬)이다.  
二十四日。甲寅。陰, 時時雨。是日立冬也。

1917년 9월 25일. 을묘. 흐림.  
二十五日。陰。乙卯。

1917년 11월 9일. 무술. 흐림. 동짓날이다.  
十一月。九日。陰。戊戌。冬至也。

1917년 11월 10일. 기해.  
十日。己亥。

1917년 11월 11일. 경자. 흐리고 눈.  
十一日。庚子。陰雪。

1917년 11월 12일. 신축. 눈.  
十二日。辛丑。雪。

1917년 11월 13일. 임인. 흐리고 눈.  
十三日。壬寅。陰雪。

1917년 11월 14일. 계묘. 갸. 근래 눈이 강산에 가득히 내리고 추위가  
매서우니, 문 닫고 홀로 앉아 서적을 열람하다가 석년(昔年)에 지은  
<대학암(大學岩)><sup>122)</sup> 시가 있는 것을 보고 기록한다.

122) 대학암 : 순창군 쌍치면 둔전리의 훈몽재(訓蒙齋)에 있는 바위 이름이다. 하서(河西) 김인후



十四日。癸卯。晴。近日，雪滿江山，寒威甚嚴，閉門獨坐，看閱書籍，見昔年所著<大學岩>韻，記之。

일개 산에 대학암이 생긴 까닭 들어보니,	聞一山巖所以然
아름다운 이름 없어지지 않아 운무가 의지하네.	佳名不泯倚雲烟
선생의 심학은 천년을 밝혔으며,	先生心學明千載
증자의 대학 종지를 전한지 또 몇 년이었던가.	曾氏傳宗又幾年
우뚝 빼어남이 인의(仁義)의 바위와 같으니,	巖地秀如仁義石
훗날에는 남전(藍田)의 옥 <sup>123</sup> 으로 만들리라.	後來做得玉藍田
누가 능히 이곳에 살며 작은 공효라도 바랄까,	孰能棲此冀微效
머리 돌려 가슴에 새기며 잠 이루지 못하네.	回首服膺也未眠

1917년 11월 15일. 갑진. 밤에 온 눈이 낮의 햇빛에 녹았다.

十五日。甲辰。夜雪消於晝陽。

553

1917년 11월 16일. 을사. 맑음.

十六日。乙巳。陽。

1917년 11월 17일. 병오. 맑음.

十七日。丙午。陽。

1917년 11월 18일. 정미. 맑음.

十八日。丁未。陽。

(金麟厚)가 1548년에 순창 점암촌에서 기거하면서 세운 강학당 앞 물가에 이 바위가 있는데, 이곳에서 송강 정철 등이 대학을 공부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123) 남전(藍田)의 옥 : 남전은 중국에서 좋은 옥(玉)이 생산되기로 이름난 곳이다.

1917년 11월 19일. 무신. 흐림. 찬 눈이 내렸고 밤에도 계속 눈이 왔다.  
十九日。戊申。陰。冷雪，夜雪。

1917년 11월 20일. 기유. 눈이 음. 전에 지은 <태극설>을 기록했다.  
二十日。己酉。雪。記前所述<太極說>。

### <태극설>

태극이란 것은 만리(萬理) 지극함의 총명(總名)으로, 때마다 그렇지 않음이 없고, 곳마다 그렇지 않음이 없으며, 물(物)마다 그렇지 않음이 없는 것이니, ‘그렇게 되게 한 원인[所以然之故]’이다. 또 무극이라고 하면 무극에 태극이 있는 것이다. 태극의 이름은 회경(羲經, 주역)에서 처음 드러나 만화(萬化)의 근원이 되고 양의(兩儀)를 낳게 되니, 양의가 음양이고 음양이 바로 천지이다. 천지간에 만물이 또한 음양이 아님이 없고, 음양이 특별히 하늘에 모습을 드러내어 밝음과 어두움, 춥거나 더움, 가득 참이나 빔, 사라지거나 붙어남이 있게 되고, 지위에 고하가 있고, 수(數)에 기우(奇偶)가 있고, 체(體)에 방원(方圓)이 있으며, 용(用)에 동정(動靜)이 있는 것이다. 한 번 동하고 한번 정함이 서로 그 뿌리가 되고 절로 억만년에 세월에 이르도록 조화와 추뉴(樞紐, 요체)의 기틀이 된다. 하룡(河龍) 등과 낙수의 거북이 무늬에서 분명히 드러나니, 복희의 《역경》과 우임금의 <홍범>이 모두 이로 인하여 꾸며진 것이다. 성인이 이로 인해 상(象)을 보고, 상을 봄에 기(氣)를 살피었고, 기를 살피어서 소이연지고(所以然之故)를 알았다. 소이연지고가 바로 이(理)이니, 이(理)라는 것은 문리(文理)와 조리(條理)의 이(理)이다. 하나이면서 만 가지로 다르고, 만 가지로 다르면서 하나이다. 하나라는 것은 바로 태극이다. 크게는 천지, 작게는 만물이 이 이(理)가 아님이 없다. 이(理)가 있으면 기가 있고, 기가 있으면 이가 있어서 선후도 없고, 이합(離合)도 없다. 있으면 모두 있고, 없으면 모두 없어서 혼연히 온전하게 갖추었다.

만약 이기로 경중을 따지면 이가 본래 중하고, 선후를 따지면 이가 본래

먼저이며, 본말을 따지면 이가 본이 된다. 그러나 진실로 경중과 선후, 본말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행함에 이르러서는 다만 경중과 선후, 본말뿐만이 아니라 유무, 허실, 거세(巨細), 정조(精粗), 장단, 광협, 대소, 다과 등 천만 가지 형상이 있어서 천지 사이에 가득한 것은 분명히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그 소이연을 궁구하면 이 이가 관여한 바가 아님이 없으니, 이가 중하고 만화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는 말하기를 “한번 음하고, 한번 양하는 것을 도라고 한다.[一陰一陽之謂道也]”라고 하였다.

도라는 것은 곧 이(理)가 만물에 유행하여 각자의 성명(性命)이 정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엔들 태극이 없을 것이며, 태극이 홀로 공중에 매달려서 공중의 사물이 지성스럽게 다하도록 할 수 있겠는가? 주자(周子)가 저술한 <태극도>나 주자(朱子)가 저술한 <태극론>은 모두 본원을 궁구하고 은미한 것을 드러내고 찾아낸 것으로, 별도로 태극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찌 이(理) 바깥에 기가 있고 기 바깥에 이가 있겠는가? 우리나라의 율곡 선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알았던 자질과 탁월한 식견으로써 분석의 폐단을 힘써 바로잡아 도체(道體)가 하나인 것으로 돌이키게 하셨다. 그 말씀에 이르기를, “그것을 말하는 것은 기요, 말하게 하는 것은 이(理)이다. 기가 아니면 말할 수 없고, 이가 아니면 말하게 할 것이 없으니, 선후도 없고 이합도 없다.[發之者氣也, 所以發者理也. 非氣不能發, 非理無所發, 無先後無離合]”라고 하셨다. 또 말씀하기를, “음이 정하고 양이 동하는 것은 시키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가고 스스로 그치는 것은 그 기들이 스스로 그러해서이다.[陰靜陽動, 非有使之, 自行自止, 其機自爾]”라고 하셨다. 이 말은 명백간이(明白簡易)하고 정정당당하여 성인이 다시 일어나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어찌된 일인지 오늘날 선현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온축된 것이 선현의 글인데도 도리어 선현이 ‘주기(主氣)’를 했다고 서로 전하면서 말하길, “율곡 선생 또한 주기이다.”라고 한다. 노사(蘆沙) 선생의 <외필(猥筆)>에 이르러서는 ‘음이 정하고 양이 동하는 것, 스스로 가고 스스로 그치는 것은 기기가 스스로 그러한 것이지 시키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지

적해내어서 말을 한 것이 지나치게 단정적이어서 후폐(後弊)가 없을 수 없다고 여긴다.

참으로 이말대로라면 음양동정과 행지(行止) 밖에 별도로 이(理)의 동정과 행지가 있는 것이니, 그 기틀이 저절로 그러한 것이겠는가? 단지 기만 가리킨다고 해서 이(理)가 어찌 간여하지 않겠는가? ‘시키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非有使之]’라는 말을 쓸모없는 헛된 말로 만들어 버리니, 이(理)가 혼자 올연히 저쪽에 있으면서 이것을 부리겠는가? 공자께서 말씀하기를, “형이상인 것을 가리켜 도라 하고 형이하인 것을 가리켜 기라고 한다. [形而上者謂之道, 形而下者謂之器]”고 했다. 이것은 이기가 나뉘는 곳으로, 사실은 형이상인 것은 기(器)가 없고, 형이하인 것은 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음양이기 중의 소이연지고로 볼 것이니, 합쳐지면서도 나뉘고 나뉘면서도 합쳐지는 것이다.

이자(李子, 이황)는 <이일잠(理一箴)>에서 말씀하기를, “누가 그것을 주관하는가? 오호라, 태극이란 것은 합치면서 나뉘고, 나뉘면서도 합쳐지는 것이다.[孰其尸之? 嗚呼, 太極者, 分而合, 合而分者]”라고 했다. 그러나 이기는 서로 이합한 것이 아니어서 기가 없으면 이 이(理)도 없고, 이가 없으면 이 기도 없는 것이다. 좁고 천박한 소견<sup>124)</sup>으로는 마치려고 해도 할 수 없으니, 한스러운 것은 선진(先進) 제현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고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다. 이에 대략 기록하여 고명한 견해를 기다린다.

#### 太極說。

太極者, 萬理至極之總名, 以其無時不然, 無處不然, 無物不然, 所以然之故。又謂之無極, 則無極有太極。太極之名, 始著於義經, 以爲萬化之原而生兩儀, 兩儀者陰陽也, 陰陽即天地也。天地間萬物, 亦無非陰陽, 而陰陽特著象于天, 有明暗寒暑盈虛消息, 位有高下, 數有奇遇, 體有方圓, 用有動靜, 一動一靜, 互爲其根, 自爲亘萬古億萬年, 造化樞紐之機。昭著于河龍之背, 洛龜之文, 義經禹範, 皆所因而文之也。聖人因之而見象, 見象而察氣, 察氣而知所以然故。所以然之故即理也, 理也者, 文理條理之理, 一

124) 좁고 천박한 소견 : 한나라 동방삭(東方朔)의 <답객난(答客難)>에 “대롱 구멍으로 하늘을 엿보고, 바가지로 퍼서 바닷물을 재며, 풀줄기로 종을 치는 격이다.[以管窺天, 以蠡測海, 以筊撞鍾]”라는 말이 나온다.(《문선(文選)》 권45)

而萬殊，萬殊而一者也，一者即太極也。大而天地，小而萬物，無非此理，而有理則有氣，有氣有理，無先後無離合，有則皆有，無則皆無，渾然全具。若以理氣爲輕重，則理自重，爲先後之則理自先，爲本末則理爲本，非真有輕重先後本末也。然到於流行也，非但輕重先後本末也，有無虛實巨細精粗長短廣狹大小多寡，千形萬象，盈于天地間者，莫非昭著，故究其所以然，則莫非此理所關，則理爲重，而爲萬化之原，故孔子曰“一陰一陽之謂道也。”道也者，即此理流行萬物各定性命者也。然則孰無太極，而太極獨爲懸空，空物諄諄然使之乎？周子著<太極圖>，朱子著<太極論>，皆是窮原極本固著而索隱，非別有太極之謂也。有何理外之氣，氣外之理也？吾東栗谷先生，生知之資，卓越之見，力掇分析之弊以反道體之一。其言曰，“發之者氣也，所以發者理也。非氣不能發，非理無所發。無先後無離合。”又曰，“陰靜陽動，非有使之，自行自止，其機自爾。”此言，明白簡易，正正當當，而聖人復起不能易矣。如何今之學先賢之道者，所蘊者先賢之文，而反以先賢爲主氣傳相爲言曰，“栗谷先生亦主氣。”至於蘆沙先生<猥筆>，指出‘陰靜陽動，自行自止，非有使之，其機自爾’之言，以爲說得太快，不無後弊。信斯言也，陰陽動靜行止外，別有理之動靜行止者，其機自爾也哉？但以氣指而理獨不與焉？‘非有使之’言，爲無用之虛言，理獨兀然在彼而使此乎？子曰，“形而上者謂之道，形而下者謂之器。”此是理氣分界處，其實非形上者無器而形下無道。觀陰陽二氣中所以然之故，而合而分，分而合者也。李子<理一箴>曰，“孰其尸之？嗚呼太極者，分而合，合而分者。”然理氣不相離合，而無氣無此理，無理無此氣也。以管見蠡測，欲罷不能，而恨未得親炙於先進諸賢面質，而畧記以俟高明之見。

557

1917년 11월 21일. 경술. 맑음.

二十一日. 庚戌. 陽.

1917년 11월 22일. 신해. 맑음. <통서(通書)> 125를 보았다.

125) 통서(通書) : 중국 송(宋)나라의 주돈이(周敦頤)가 지은 저서. 원래 이름은 <역통(易通)>으로 <주역>과 <중용>에 의거하여 도덕을 역설한 책이다. 그의 저서 <태극도설(太極圖

二十二日。辛亥。陽。看《通書》。

1917년 11월 23일. 임자. 약간 맑음.

二十三日。壬子。陽薄。

1917년 11월 24일. 계축. 흐림.

二十四日。癸丑。陰。

1917년 11월 25일. 갑인. 흐림.

二十五日。甲寅。陰。

1917년 11월 26일. 을묘. 흐림. 눈이 산천에 많이 내렸는데, 오랫동안 녹지 않은 것은 전에는 없던 일이다.

二十六日。乙卯。陰。雪饜山河，久而不消者，前未所有。

1917년 11월 27일. 병진. 맑음.

二十七日。丙辰。陽。

1917년 11월 28일. 정사. 맑음.

二十八日。丁巳。陽。

1917년 11월 29일. 무오. 맑음.

二十九日。戊午。陽。

---

說》의 근본 원리를 응용한 도덕의 실천에 대하여 논한 것으로 수양론(修養論), 윤리론(倫理論)을 담고 있다. 모두 1권 40편이다.

1917년 11월 30일. 기미. 맑음.

三十日。己未。陽。

1917년 12월 1일. 경신. 맑다가 흐리고 눈. 공자께서 “하늘에는 음양이 있고, 땅에는 강유(剛柔)가 있으며, 사람에게에는 인의가 있다.”라고 하신 말을 깊이 생각해보니, 음양은 기(氣)이고, 강유는 질(質)이며, 인의는 도(道)이다.

十二月。初吉日。庚申。陽而陰雪。孔子曰“天有陰陽，地有剛柔，人有仁義。”切想，陰陽氣也，剛柔質也，仁義道也。

1917년 12월 2일. 신유. 맑음.

二日。辛酉。陽。

1917년 12월 3일. 임술. 맑음.

三日。壬戌。陽。

1917년 12월 4일. 계해. 맑음.

四日。癸亥。陽。

1917년 12월 5일. 갑자. 맑음. <<역천집(櫟泉集)>><sup>126)</sup>을 보았다. 선생이 <서종숙 양증에게 보낸 답서(答庶從叔襄仲)>에서 “상(祥) 이후 포망(布網)<sup>127)</sup>에 대해서는 고조고(高祖考, 송준길)께서 여양(驪陽, 민유중)<sup>128)</sup>의 물음에 답한 것에 자세하게 있으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삼

126) 역천집(櫟泉集) : 송명흠(宋明欽, 1705~1768)의 시문집이다. 순조 5년(1805)에 그 아들 시연(時淵)과 문하생들이 19권 10책으로 편집하여 간행하였다.

127) 포망(布網) : 상제(喪制)가 머리에 쓰는, 베로 만든 망간(網巾)이다.

년상 안에는 연제(練祭, 소상)와 상제(祥祭, 대상) 이외 성제(盛祭)는 없습니다. 새로 묘소를 쓴 산의 묘사(墓祀)는 울곡이 ‘단헌(單獻)이 옳다고 하므로 집에서 또한 일찍이 이에 의지하여 실행하니, 과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담제(禫祭)<sup>129)</sup> 전은 여전히 삼년 내이므로 묘제(墓祭)는 마땅히 상중의 예에 따라야 합니다.”라고 했다.

五日。甲子。陽。看《櫟泉集》，先生<答庶從叔襄仲>書，“祥後布網，詳在高祖考答驪陽問，可考也。三年內，練祥之外無盛祭。新山墓祀，栗谷以單獻爲是，故家中亦嘗依此行之，未知果如何也。禫前仍是三年之內，墓祭當依喪中之禮矣。”

1917년 12월 6일. 을축. 맑음. 밤에 눈이 왔다.

六日。乙丑。陽。夜雪。

560

1917년 12월 7일. 병인. 눈 내리고 추움. 《역천집》을 보았다. 선생이 <재종제 시혜에게 보낸 답서(答再從弟時偕疏)>에서 “반곡(返哭)<sup>130)</sup> 이래로 천증(喘證)이 특히 심하여 하체가 모두 기력이 없고, 구토 증세로 먹을 수 없었다. 회옹(晦翁, 주자)의 육환법(肉丸法)을 사용했으나 끝내 힘을 얻지는 못하고 겨우 육즙을 찾아, 늙은 아내와 함께 살아갈 방도를 찾을 뿐이다. 또 천옹(泉翁)<sup>131)</sup>도 육환법을 써서 끝내 별 탈이

128) 여양(驪陽) : 여양부원군(驪陽府院君) 민유중(閔維重, 1630~1687)을 말한다. 민유중은 숙종의 계비(繼妃) 인현왕후(仁顯王后)의 아버지이다.

129) 담제(禫祭) : 초상(初喪)으로부터 27개월 만에, 곧 대상(大祥)을 치른 그 다음 다음 달 하순(下旬)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부(父)가 생존한 모상(母喪)이나 처상(妻喪)의 경우에는 초상(初喪) 후 15개월 만에 지낸다.

130) 반곡(返哭) : 시신을 무덤에 묻고 집으로 돌아와서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곡을 하는 것. 반곡은 주인은 당에서 행하는데, 그것은 돌아가신 분이 활동하던 곳이 바로 당이므로 주인이 당에서 곡을 행하고, 주부는 방에 들어가서 곡을 하는데, 이는 돌아가신 분이 봉양을 받던 곳이 바로 방 안이기 때문이다. 반곡을 하고 나면 기년(享年)과 9월의 상복을 입는 자는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잔치는 할 수 없음. 소공과 대공의 상복을 입는 사람이 따로 살 경우에는 반곡 이후에 사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없었다고 하니, 이것은 훗날의 법으로 삼을 만하다.”라고 했다.

七日。丙寅。雪寒。看《櫟泉集》，先生<答再從弟時偕疏>云，“返哭以來，喘證特甚，下體全無氣力，嘔嘔不能食。用晦翁肉丸法，終不得力，纔索肉汁，與老婦共尋生路矣。又引泉翁亦以肉丸卒無恙，此可爲後法云。”

문득 이웃에서 술을 실어 왔는데 조금 마셨는데도 문득 취하였다. 이 불을 덮고 고요히 생각하며 짓길, “공자께서 ‘잇는 것은 선이다[繼之者善]’고 하였으니, 곧 하늘에서 부여받은 것이 이(理)이고, 부여받아 이룬 것이 성(性)이며, 말해서 선(善)한 것이 곧 사단이다. 사단은 곧 정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였는데, 고명에게 질정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

忽隣里載酒來，飲少輒醉，擁衾靜思，題。“子曰，‘繼之者善’，卽天之賦予之理，稟而成者性也，發而善者，卽四端也，四端卽是情也歟。”恨不得高明而正焉。

561

1917년 12월 8일. 정묘. 음산하고 춥다.

八日。丁卯。陰寒。

1917년 12월 9일. 무진. 맑음.

九日。戊辰。陽。

131) 천옹(泉翁) : 이재(李穡, 1680~1746)의 호이다. 자는 희경(熙卿), 또 다른 호는 도암(陶菴), 본관은 우봉(牛峰), 시호는 문정(文正)이며,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의 문인이다. 1702년(숙종28) 알성 문과에 급제하여 출사하였으나 1721년(경종1) 도승지로 재임 중 소론의 집권으로 사직되고, 1722년 임인옥사가 발발하자 인제(麟蹄)에 들어가서 성리학 연구에 전념하였다. 1725년 영조가 즉위한 뒤 복직되어 대제학·이조 참판을 지냈으나, 1727년 정미환국 때 문외출송되자 용인(龍仁)의 한천(寒泉)에 은거하면서 많은 학자를 길러냈다. 호락논쟁(湖洛論爭)에서, 이간(李柬)과 함께 한원진(韓元震) 등의 심성설(心性說)을 반박하는 낙론(洛論)의 입장에 섰다.

1917년 12월 10일. 기사. 맑음. 오늘은 어머니의 제삿날로 개연(慨然)히 지냈다.

十日。己巳。陽。是日先妣諱辰也，慨然而過。

1917년 12월 11일. 경오. 흐리고 눈이 왔다. 《역천집》을 보았다. 매년 성(性)을 논할 때마다 한문공(韓文公, 한유)의 삼품설(三品說)이 본연(本然)을 설명하지 못했다고 여겼다. 지금 선생의 말을 보니 (한유의) <원성(原性)>에 다만 기질(氣質) 두 자가 빠졌다는 것은 주자가 이미 논한 말이니, 맹자의 성선(性善)의 말에 미치지 못하고, 순양(荀揚, 순자와 양옹)의 말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섭주(攝主)<sup>132</sup>에 대해서는 “사계(沙溪, 김장생)선생이 이이순(李以恂)<sup>133</sup>에게 답하며 말하기를 ‘만약 젓먹이가 있으면 그 이름을 정하여 곧바로 쓰니, 어찌 반드시 어른이 되길 기다리겠는가?’라고 하였다.”라고 했는데, 《역천집》 <여서종조경백(與庶從祖景伯)>에 보인다.

十一日。庚午。陰雪。看《櫟泉集》。每論性，以韓文公三品說，不得說本然矣。今看先生之語，<原性>只欠氣質二字，朱子已論之語，以知不及孟子性善之語，不比荀揚之語矣。攝主，“沙溪答李以恂曰，‘若有乳下兒，則定其名卽書，何必待長?’”見《櫟泉集》。

1917년 12월 12일. 신미. 흐림.

十二日。辛未。陰。

132) 섭주(攝主) :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주관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소식(蘇軾)의 《동파지림(東坡志林)》 섭주편(攝主篇)에, “무엇을 섭주라 하는가? 옛날 천자, 제후, 경, 대부가 후사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은 경우, 그 아우나 형제의 자식 중에 후계자에 해당하는 자가 섭주가 된다. 그러다가 태어난 아이가 딸일 경우에는 섭주가 즉위하고 아들일 경우에는 섭주가 물러나는 것이니, 이것을 섭주라 한다.”라고 하였다.

133) 이이순(李以恂, 1567~?) : 자는 희지(熙之), 호는 동림(東林)이며, 활계(活溪) 이대유(李大猷)의 아들이다. 《동림유고》는 이대유의 문집인 《활계유고(活溪遺稿)》 뒤에 합철되어 있다.

1917년 12월 13일. 임신. 맑음.

十三日。壬申。陽。

1917년 12월 14일. 계유. 맑음. 문암리에 생모의 제사를 지내러 갔다.

十四日。癸酉。陽。行門岩里親忌之行。

1917년 12월 15일. 갑술. 맑음. 집으로 돌아왔다.

十五日。甲戌。陽。還巢。

1917년 12월 16일. 을해. 맑음.

十六日。乙亥。陽。

1917년 12월 17일. 병자. 맑음.

十七日。丙子。陽。

1917년 12월 18일. 정축. 맑음.

十八日。丁丑。陽。

1917년 12월 19일. 무인. 맑음.

十九日。戊寅。陽。

《석담일기》를 보았는데, 남명(南冥)의 <검명(劍銘)>인 ‘안으로 마음을 밝히는 것이 경(敬)이요, 밖으로 행동을 결단하는 것이 의(義)이다. [內明者敬, 外斷者義]’라는 구절이 있다. 이율곡(李栗谷)이 선조대왕에게 상언한 “옛시<sup>134</sup>)에도 ‘온갖 보양이 모두 헛된 일이고, 다만 마음을

잡는 일이 바로 중요한 법이라네.[萬般補養皆虛僞, 只有操心是要規]’  
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한 구절이 있다.

看 《石潭日記》。南冥<劔銘> ‘內明者敬, 外斷者義。李栗谷上言於  
宣祖大王, “古詩 ‘萬般補養皆虛僞, 只有操心是要規。’”

1917년 12월 20일. 기묘. 맑음.

二十日。己卯。陽。

1917년 12월 21일. 경진. 맑음.

二十一日。庚辰。陽。

1917년 12월 22일. 신사. 맑음.

二十二日。辛巳。陽。

1917년 12월 23일. 임오. 맑음.

二十三日。壬午。陽。

1917년 12월 24일. 계미. 흐림.

二十四日。癸未。陰。

1917년 12월 25일. 갑신. 흐림.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를 보았다.  
주자가 장흠부(張欽夫)에게 답한 편지에서, 선배들이 말한 ‘성인은 하

134) 옛시 : 노재(魯齋) 허형(許衡, 1209~1281)의 시를 말한다. 자는 중평(仲平), 시호는 문정(文正)이며, 하내(河內) 사람이다. 북방에 정주학을 일으켰으며 주희의 사서집주(四書集註)가 과시(科試)에 채택되게 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저서로는 《독역사언(讀易私言)》, 《노재심법(魯齋心法)》, 《허노재집(許魯齋集)》 등이 있다.

늘에 근본하고 석씨는 마음에 근본한다.[聖人本天, 釋氏本心]'라는 구절을 인용했다. 가만히 생각건대 하늘에 근본하는 것이 곧 마음의 천리(天理)이니, 견식이 선해지리라. 그러나 마음에 근본하면 천리를 보지 못하고 오로지 이 마음만을 주재로 여기는 것이니, 주자도 이미 말했다.

二十五日。甲申。陰。看《朱書》。朱子答張欽夫書，引前輩有言，‘聖人本天，釋氏本心。’竊想本天即心中之天理，見識而爲善歟。本心不見天理，而專認此心以爲主宰者，朱子已言。

1917년 12월 26일. 을유. 맑음.

二十六日。乙酉。陽。

1917년 12월 27일. 병술. 맑음.

二十七日。丙戌。陽。

1917년 12월 28일. 정해. 맑음.

二十八日。丁亥。陽。

## ■ 후 기

이 책은 전남대고문서연구회에서 《서암유고(棲巖遺稿)》에 실려 있는 일기를 탈초·번역하여 《서암일기(棲巖日記)》로 제하여 출간한 것이다. 전남대고문서연구회는 전남대학교에서 한국사, 국문학, 한국 철학 등 국학을 전공하는 연구자들이 결성한 연구단체로, 주말을 이용하여 호남지방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헌을 탈초·번역하는 작업을 해왔다. 그 결과물로 곡성에 거주하는 유종표씨 소장의 《선산유씨 연운당 간찰》(2007년, 심미안)과, 최승효씨가 순천대학교에 기증한 《조선 시대 명인간찰첩》(2010, 순천대박물관)을 탈초·번역하여 간행한 바 있다. 그러니까 이번의 《서암일기》는 전남대고문서연구회의 세 번째 탈초·번역 서인 셈이다.

566

《서암유고》는 담양에 세거하는 광산김씨 문정공파 37세손인 김영찬(金永燦) 선생의 수필 원고를 2004년에 담양군에서 이를 영인하여 간행한 바 있다. 이번에 전남대고문서연구회에서는 이 영인본을 저본으로 하여 《서암일기》의 탈초·번역 작업을 실시하였다.

《서암일기》의 탈초·번역 작업은 서암 선생의 현손으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하고 있던 김하중(金夏中) 교수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김하중 교수의 제안을 받고 회원들이 이를 검토한 끝에 원문이 행초서로 되어 있어 탈초 작업이 필요하며, 일제강점기의 기록 인데다가 분량도 상당하여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김하중 교수는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수시로 연구회 모임

에 참석하여 해독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일기에 등장하는 서암의 인척이나 교우관계, 지명 등 연구회 회원들이 알기 어려운 내용들을 고증해주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서암 선생은 1859년에 태어나 1945년 87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 《서암일기》는 선생의 나이 53세인 임자년(1912)부터 시작하여 77세인 병자년(1936)까지의 기록이다. 이 시기는 일제강점기로 일기에는 일제강점기의 시대상이 잘 반영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제강점기를 살아간 농촌 지식인의 일상과 고뇌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일제강점기 농촌 지식인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서암 선생은 평생을 농촌에 살면서 서당 훈장으로써 동몽들을 교육하는 한편, 지방의 지식인들과 교류하면서 학문을 토론하고 틈틈이 농사일을 도우며 생활하였다. 《서암유고》를 통해본 서암 선생의 학문 영역은 그 폭이 대단히 넓어서 경서와 서서, 예서는 물론이고 시문에도 능하여 일기 곳곳에 많은 시문을 남겼다. 선생은 또 주역을 일상생활에 활용하여 새해 초에는 점괘를 뽑아보고 과사를 풀이하여 그 해의 운세를 살피는 모습이 곳곳에 등장한다.

전남대고문서연구회 회원들은 대부분이 교육자로서 후진을 교육하는 바쁜 와중에 주말에 모여서 고서를 읽고, 해독하고 이를 서로 돌려보면서 탈초·번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회원은 광주시내에 거주하고 있지만, 몇몇 회원은 시외나 타도 심지어는 서울에도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주말에 연구회에 참석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나, 모두가 거의 거르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요즈음의 세대는 주말은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어, 이러한 사회 조류에 역행하면서 연구회 활동에 참여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연구회 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여 탈초·번역 작업에 함께 해 준 연구회 회원들이 있어 이 책이 나올 수 있었음을 고맙

게 생각한다.

연구회 모임은 원래 내 연구실에서 진행되었는데 내가 정년퇴직한 후에는 모임을 진행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 곤란에 처하게 되었다. 전남대학교 역사교육과에서 이러한 딱한 사정을 알고 연구실을 제공해주어 퇴직 후에도 연구회 모임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었다. 이렇게 배려해준 역사교육과 교수님들에게도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 올린다.

이 책을 내기까지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 한학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한 회원들이 선생의 뜻을 왜곡하거나 오역하였을 것이 걱정되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회원들이 서로 돌려보면서 몇 번씩 검토한다고는 하였으나 아직도 적지 않은 곳에 오류가 남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이를 바로 잡지 못한 나의 책임이다. 부족한 점이 많은 가운데도 감히 용기를 내어 이 책을 굳이 세상에 내놓는 것은 그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또 따라와 준 전남대고문서연구회 회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더욱 분발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는 이 책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연구회 활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아쉬움이 크지만, 나머지 회원들은 더욱 열심히 활동을 이어가기를 바란다. 그동안 열심히 활동해온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빈다.

끝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기꺼이 이 책의 출판을 맡아준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 드린다.

2018. 12.

전남대고문서연구회 지도교수 전형택



• 역자 약력

전형택(전남대 역사교육과 명예교수)  
권수용(한국학호남진흥원 책임연구원, 문학박사)  
김봉곤(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연구교수, 문학박사)  
김은영(전남대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노금선(전남대 문화재학박사)  
박미향(전남대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박해장(순천대 강사, 전남대 철학과 박사과정 수료)  
안정애(나주고등학교 교사, 문학박사)  
채희숙(나주고등학교 수석교사, 문학박사)

호남한국학자료총서 2

## 서암일기 樓巖日記 1

인 쇄 2019년 1월 25일  
발 행 2019년 1월 31일

발행처 (재)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이종범)  
주 소 623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 4층  
진 화 062-603-9600 팩스 062-941-6705  
홈페이지 <http://hiks.or.kr>

역 자 전형택, 권수용, 김봉곤, 김은영, 노금선,  
박미향, 박해장, 안정애, 채희숙

편집·제작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화 062-530-0575 팩스 062-530-0579

<비매품>

ISBN 979-11-966113-9-2(93910)

본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호남한국학진흥 사업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으며,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습니다.